발간등록번호 _11-1550246-000069-01



지역 무형문화유산 목록 05

강릉의 무형문화유산



국립무형유산원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조사 · 집필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강릉의
무형문화유산

일러두기

- 『강릉의 무형문화유산』은 국립무형유산원이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사업으로 2018년 선정된 강릉의 무형문화유산 목록집입니다.
- 『강릉의 무형문화유산』에 수록된 목록은 국립무형유산원의 의뢰로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구성한 연구진들에 의해 집필하였습니다.
- 『강릉의 무형문화유산』에 수록된 사진은 강릉의 무형유산 정사진 기록화(주병수) 작업을 통해 촬영된 것과 강릉시청에서 제공한 것, 집필진이 수집, 촬영한 것으로 수록하였습니다.
- 『강릉의 무형문화유산』에서 다른 자료를 인용할 경우 단행본은 『 』, 논문은 「 」로 표기하였습니다.
- 『강릉의 무형문화유산』 원문은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에서 디지털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발간등록번호 11-1550246-000069-01



지역 무형문화유산 목록 05

강릉의 무형문화유산



국립무형유산원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발간사

국립무형유산원은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을 재조명하고 이를 온전히 보전하고자 매년 〈올해의 무형유산도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무형유산도시〉로 선정된 도시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의 지정 무형문화재를 비롯해서, 아직 지정되지 못했지만 지역적 가치가 매우 뛰어난 무형문화유산을 목록화하여 도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형문화유산 자원을 활용하여 각종 기획공연과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을 지역민과 함께 나누며 전통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이 선정한 다섯 번째 〈올해의 무형유산도시〉는 '강릉'입니다. '강릉'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재인 『강릉단오제』와 『강릉농악』을 비롯하여 풍부한 무형유산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특히, 무형유산의 예술적 가치를 중시하는 지역민들이 전승자들과 상호 보완적으로 전통문화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과 강릉시는 지난 1년간 16종목으로 구성된 국가지정, 강원도지정, 비지정 무형문화유산을 정리하여 보다 쉽게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 얻어진 결과물을 널리 알리기 위한 작업으로 지역 무형문화유산 다섯 번째 시리즈, 『강릉의 무형문화유산』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책자가 무형문화유산 전승 현장의 자부심을 높여주고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강릉의 무형문화유산』집필이 가능하도록 흔쾌히 시연을 해주신 모든 전승자분들과 무형유산 조사 및 연구를 위해 힘쓴 연구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강릉의 무형문화유산』이 지역의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높이는 귀한 밑거름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8년 12월

국립무형유산원장

조현종

목차

발간사 004

Ⅰ.
서문 009

Ⅱ.
강릉의 무형문화유산 020

국가무형문화재 021
1. 강릉단오제 황루시 022
2. 강릉농악 김경남 079

강원도 무형문화재 111
3. 강릉 학산 오독떼기 장정룡 112
4. 강릉 사천 하평 답교놀이 김경남 142
5. 방짜수저장 김남일 157
6. 강릉 갈골과줄 장정룡 176
7. 불교목조각장 박병호 211
8. 전통자수장 김용문 238

비지정 무형문화유산 269

9. 강릉 사투리 이익섭 270
10. 연화부인설화 장정룡 311
11. 흥장고사 장정룡 341
12. 초당두부 황루시 372
13. 위촌리 도배 장정룡 408
14. 강문 진또배기 서낭굿 황루시 425
15. 건금마을 용물달기 황루시 458
16. 한송정 들차회 정항교 479

부록
강릉의 비지정
무형문화유산 목록 509

I.
서문

서문

무형문화재 보호를 위한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무형문화재 이란 연극, 무용, 음악, 공예 기술 등과 같은 무형의 문화적 소산 가운데 역사적 또는 예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을 이른다.

문화재보호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이 법에 의하여 처음으로 중요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문화재)를 지정, 보호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존・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문화재를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자료로 나누고,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나누고 있다.

1964년부터 처음으로 지정되기 시작한 국가무형문화재는,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기타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상 · 학술상 · 예술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문화재이다. 무형문화재는 결국 사람이 계승하는 것이며 유형문화재나 사적과 같이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계승을 위해 후계자를 양성하는 전수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전수교육조교와 보유자 후보 등을 두게 된다. 이러한 노력과 지원은 지역의 특성이 가장 뚜렷하고 예술적 감흥과 기술적 전통성 등을 강하게 계승시켜준다.

무형유산 전승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승하는 해당 지역의 기반 위에서 이해해야 하고, 그 지역에서 무형유산의 전승을 뒷받침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의 무형유산보호제도는 보호의 근거나 되나 지역이 직접 지역의 무형유산을 확인하고 보호하며 전승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국립무형유산원이 기획하여 운영하는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사업'은 무형유산의 전승 범위를 시 · 군 단위로 설정하고 그 지역 무형유산 자원을 정확히 확인하며 그 자원의 특성을 바탕으로 무형유산 보호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기초자치단체와 서로 협력하여 지역 중심 문화유산 보호의 모범사례를 창출하고 그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국립무형유산원이 추진하는 대표적인 지역협력사업인 셈이다.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사업'은 그 지역에서 전승되는 무형유산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는 것(자원확인), 지역 무형유산 중 중요 종목을 선정하여 영상과 사진으로 기록하는 것(보존 기반), 지역 무형유산 종목을 소재로 공연 · 시연 · 전시로 구성된 무형유산 한마당(활용 기반), 그리고 지역 무형유산 목록 도

서인『(지역무형유산목록) ○○의 무형문화유산』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새로운 무형유산의 발굴과 지역 무형유산의 보존·전승 활성화, 비지정 무형유산의 발굴·목록화, 무형유산의 영상기록화, 공연·시연이 진행되는 것이다.

강릉시, 2018년 올해의 무형유산도시로 선정

2018년 '올해의 무형유산도시'로 선정된 강릉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첫째, 문화올림픽 개최를 위한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점, 둘째, 문화재 활용과 전수교육관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는 점, 셋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재인 강릉단오제와 강릉농악을 비롯한 풍부한 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이 그것이다.

강릉시가 '올해의 무형유산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2018년 3월 7일 오후 3시 강릉시청에서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조현중)과 지역 무형유산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립무형유산원장과 강릉시장이 서명한 업무협약은 지역무형유산 목록화, 지역무형유산 기록화, 지역무형유산 공연 및 시연 내용과 함께 양기관의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분담 등으로 구성되었다.

강릉시와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릉시 무형유산 목록화 및 도서발간, 지역축제와 연계한 무형유산 학술대회·공연, 무형유산 보호 등을 위해 1년간 협력하기로 했다.

강릉시는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명칭을 사용하면서 대중서적 제작, 무형유산 축제 지원, 지정·비지정 무형유산 목록화 및 사진 기록화 등의 사업에 지원을 받고, 강릉의 무형유산

공연 지원, 교원 연수 등의 협력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강릉의 무형문화유산 목록 작성 및 학술대회 개최

강릉 지역 무형문화재 목록 작성은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선정해 지역 안팎으로 강릉무형유산 전문가를 연구진으로 구성하여 추진되었다. 2018년 5월 1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된 강릉 무형유산 목록화 작업은 강릉의 지정·비지정 무형유산 16종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목록화 작업은 지역 무형유산 활성화에 기여하고, 강릉 지역성과 공유를 통한 지역 협력망 구축과 지역 무형유산보호의 선도모델을 제시하며 강릉 지역 무형유산의 지역성에 주목하여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전문적인 내용을 일반인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접근성을 확대하여 지역문화전승과 보호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강릉단오제, 강릉농악, 강릉 학산 오독떼기, 강릉 사천 하평 답교놀이, 방짜수저장, 강릉 갈골과줄, 불교목조각장, 전통자수장 등 여덟건의 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하며 비지정 무형유산 가운데 8개의 종목이 조사대상이 되었다. 강릉의 비지정무형유산 32종목의 목록도 보고서 뒷부분에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록화 사업에 대한 연구 성과 발표와 강릉의 무형유산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고자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2018 대한민국 농악축제에 맞추어 9월 15일 오후 3시에 강릉농악전수교육관에서 진행되었다.

강릉시농악전수교육관에서는 행사 장소 준비 및 정돈과 행

사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였으며, 강릉시에서는 행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여, 다음과 같이 학술대회가 원활히 진행되었다.

강릉무형유산 전승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장정룡 책임연구원의 기조발제 '강릉무형문화유산 연구의 성과 및 의미'를 시작으로 연구자 전원이 발표를 하였다. 이익섭 전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의 강릉 사투리를 비롯하여, 강릉단오제, 초당두부, 강문 진또배기 서낭굿, 건금마을 용물달기, 한송정 들차회, 강릉 학산 오독떼기, 강릉 갈골 과줄, 위촌리 도배, 연화부인설화, 홍장고사, 전통자수장, 불교목조각장, 방짜수저장, 강릉농악, 강릉 사천 하평 답교놀이 등의 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범주별 토론과 종합토론 및 자유토론이 있었는데, 김무림, 최영진, 안광선, 이한길, 임승범 토론자가 발표내용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강릉무형유산 전승현황과 과제〉

시간	내용	진행
3:00	개회 및 참석자 소개	
3:03	개회사	
3:07	축사	
3:10	기조발제 –강릉 무형문화유산 연구의 성과 및 의미	장정룡 책임연구원
[발표]	강릉의 무형유산 목록의 보존 가치와 현황 및 보호를 위한 제언	연구자 전원
3:20~4:40	강릉단오제, 초당두부, 강릉 강문 진또배기 서낭굿, 건금마을 용물달기	황루시 연구원
	강릉 사투리	이익섭 연구원
	한송정 들차회	정항교 연구원

	학산 오독떼기, 강릉 갈골과줄, 위촌리 도배, 연화부인설화, 홍장고사	장정룡 연구원
	전통자수장	김용문 연구원
	불교목조각장	박병호 연구원
	방짜수저장	김남일 연구원
	강릉농악, 강릉 사천 하평 답교놀이	김경남 연구원
4:40~5:00	휴 식	
5:00~5:40	[범주별 토론]	김무림 토론자 최영진 토론자 안광선 토론자 이한길 토론자 임승범 토론자
5:40~6:00	[종합토론 및 자유토론]	참석자 전원
6:00	마무리	

학술행사에는 강릉단오제보존회, 강릉농악보존회를 비롯하여 전승자와 강릉 지역 무형유산에 대해 관심 있는 향토사학자와 지역주민들이 참석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을 위하여 승일한과와 토박이할머니순두부에서 100인분의 한과 및 두부과자를 후원하는 등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국립무형유산원과 강릉시의 또 다른 협력

2018 찾아가는 무형유산 아카데미 '짐생났소!'는 국립무형유산원과 강릉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강원도민, 강릉시민, 지역교원, 그리고 무형유산에 관심있는 국민들에게 무형유산을 더욱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찾아가는 무형유산 아카데미'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직접 찾아가 무형유산에 관한 이야기와 공연을 나누는 뜻 깊은 전통문화공연이다.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공연장에서 진행된 첫번째 공연은 이북5도 탈춤을 주제로 하였다. 특히 북한 지역에서 전승되어 온 우리의 탈춤 중에서 '사자춤'을 주제로 재담과 몸짓을 소개하는 자리가 되었다. 북청사자놀음(국가무형문화재 제15호)과 봉산탈춤(국가무형문화재 제17호)의 사자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 화려한 사자춤을 통해 무형유산 연희 종목의 예술성을 재조명하였다. 또한 지역 무형유산인 강릉농악(국가무형문화재 제11-4호)은 '소 모는 소리'와 더불어 '소춤'을 선보여 강릉의 무형유산에 대한 가치도 되새겨볼 수 있었다. 한편 전통의 소개뿐만 아니라 전통 사자춤과 사자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연희단 '샘;도내기' 공연도 마련되어 전통의 맥을 이어나가는 젊은 전승자들의 의미있는 노력도 만날 수 있었다. 2018년 8월 10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에서 3시까지 진행되었다.

2018 찾아가는 무형유산 아카데미 두 번째 공연인 '김영재의 금사풍류'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6호 거문고 산조 보유자인 김영재 명인을 강릉지역에서 직접 만나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신쾌동류 거문고산조와 거문고병창 '팔도유람가', 김영재류 해금산조, 청성곡, 철가야금과 산조 춤 소개로 진행되었다. 김영재 명인은 음악과 무용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예술 활동을 이어왔다. 행사명인 '금사琴史'는 김영재 명인의 호에서 따온 것으로, 한평생 예술가로서 삶을 꾸려왔던 명인의 이야기와 예술관 등을 대담을 통해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었다. 또한, 무형문화재의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거문고, 해금, 가야금 등에 이르는 전통악기들에 대한 명인의 깊이

있는 해설을 통해 전통음악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었다. '김영재의 금사풍류'는 2018년 9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에서 6시까지 명주예술마당 3층 공연장에서 열렸다.

이후,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강릉농악전수관 야외공연장에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농악과 전국 무형유산이 한자리에 모였다.

'강릉농악 공개행사 및 제12회 강릉농악인의 날' 행사는 15일, 오전 10시 강릉지역 마을농악대의 멍석말이 시연 후 개막식을 갖고 이어 강릉농악 공개행사를 진행하였다. 인사굿, 두루치기, 성황모시기, 멍석말이, 지신밟기, 십자놀이 등 총 16개 순서를 흐름대로 선보이며 강릉농악 원형을 그대로 재현하였다. 오후 1시부터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이 강릉을 찾아 역동적인 가면놀이를 선보이고 오후 2시부터는 강릉지역 내 16개 마을농악대와 풍물패가 모여 풍물잔치를 벌였다.

다음날 16일에는 '제12회 대한민국농악축제'가 오전 10시 강릉농악전수관 야외공연장에서 펼쳐졌다. '대한민국 농악축제'에는 농악과 굿, 탈춤 등 국가무형문화재가 참여해 전통과 개성 가득한 놀이를 선보였다. 강릉농악을 비롯하여 진주삼천포농악(국가무형문화재 제11-1호), 평택농악(국가무형문화재 제11-2호), 이리농악(국가무형문화재 제11-3호), 구례잔수농악(국가무형문화재 제11-6호)과 봉산탈춤(국가무형문화재 제17호), 남해안별신굿(국가무형문화재 제82호), 고성오광대(국가무형문화재 제7호) 등이 축제를 더욱 다채롭게 하였다.

17일에는 어린이들의 농악 잔치인 '제25회 어린이농악경

연대회'가 오후 1시30분 강릉농악전수관에서 사천초, 구정초, 성덕초, 강동초, 진부초, 장평초 등 도내 6개 초교 농악대가 참여한 가운데 경연을 펼쳤다. 전통타악그룹 '아작(A-Jack)'은 축하공연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대한민국 농악축제'를 통하여 주민들은 지역별 농악의 진가를 느낄 수 있고 다양한 무형유산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사공의 노래 속 경포팔경, 달 맞으러 강릉 가는 배' 무형유산 기획공연은 강릉시, 강릉문화재단이 협력하여 강릉의 자연유산과 무형유산의 조화로움을 관람객에게 전하고자 강릉의 대표 축제인 커피축제 기간에 기획공연을 준비하였다. 초당마을에 위치한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진행된 이 공연은 경포대가 되어 바라보는 여덟 가지 풍경(경포팔경), 경포호의 일출에서 달맞이까지를 강릉의 무형유산으로 재해석한 공연이다. 국가무형문화제 제13호인 강릉단오제, 국가무형문화재 제11-4호인 강릉농악,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0호인 강릉 사천 하평 답교놀이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였다. 2018년 10월 5일 금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지역축제를 찾은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강릉 무형문화유산의 가치와 특징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	2
3	4

1. 2018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강릉시 업무협약 체결
2. 2018 강릉시 찾아가는 무형유산 아카데미_김영재의 금사풍류
3. 2018 커피축제 연계 무형유산 기획공연(10월5일)
4. 2018 달맞으러 강릉가는 배 기획공연에 출연한 전승자들

II.
강릉의 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는 무형문화재 가운데 그 중요성을 인정하여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이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재청장이 무형문화재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무형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1.
강릉단오제

무형유산 범주

- 구분 :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
- 영역 : 전통적 놀이・축제

무형유산 내용

- 살아있는 축제 강릉단오제
- 기록으로 떠나는 강릉단오제의 길
- 자랑스러운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의 실상
- 신성하고 재미난 이야기의 주인공들
- 세계인의 축제가 되다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 강릉단오제의 가치
- 현대사회에서 축제의 의미

살아있는 축제 강릉단오제

지역공동체가 긴 역사와 독특한 성격의 축제를 갖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다. 공동체 문화의 저력이 정기적으로 폭발하는 충격적 시공간이 바로 축제이기 때문이다. 축제를 위해 공동체는 일 년 내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삶의 내용을 열심히 비축한다. 그리고 일정 기간 엄숙한 금기의 시간을 거치면서 자신을 점검한다. 마침내 정해진 시간이 오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희망과 열정을 뿜어내고 신명으로 솟구치는 마당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축제인 것이다.

천년 여 동안 단오제를 전승해온 강릉은 복 받은 고장이다. 강릉은 단오제를 통해 문화의 주체성을 지켰고 그 고유성을 튼튼하게 가꾸어왔다. 단오제를 통해 지역의 역사를 정립하고 공동체의식을 다졌으며 자연스럽게 전통문화를 다음 세대에게 교육할 수 있었다. 단오제는 바로 강릉을 강릉으로 정립시킨 힘이며 강릉의 존재성이다.

강릉단오제는 2005년 11월 25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종묘제례와 제례악, 판소리에 이어 세 번째였다. 특히 강릉단오제는 지역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축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강릉단오제는 천여 년 전인 고려 초부터 대관령을 신성하게 여기는 신앙으로 시작되었다. 고려 건국이후 강릉은 물론이고 고성부터 울진에 이르기까지 영동지역 사람들이 수도인 송도로 가기위해서 가장 많이 다닌 길이 대관령이었다. 그러나 아흔아홉 구비 대관령은 매우 위험한 고개였다. 이러한 위험은 자연스럽게 재해를 피하려는 신

앙을 낳았고 그 신앙이 구현된 것이 바로 강릉단오제이다. 강릉단오제는 조선조를 거쳐 현재까지 강릉에 전승되고 있다. 해마다 백만 명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모여든다. 강릉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강릉단오제는 축제의 핵심적 요소를 잘 구비하고 있는 전통축제이다.

강릉단오제의 공간은 매우 넓다. 대관령에서 신을 모시고 50리(20km) 산길을 내려와 강릉 시내 한 복판을 흐르는 남대천변에서 주 행사가 벌어진다. 시간으로 볼 때도 강릉단오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축제이다. 음력 4월 5일 신주빚기를 시작으로 4월 보름 대관령에 올라가 산신제 모시고 신목과 국사성황 모셔오기, 5월 1일부터 8일까지 강릉시내 남대천 모래사장에서 행사가 벌어지는데 장장 한달 이상 걸리는 행사인 것이다. 이러한 강릉단오제의 내용을 영상을 통해 순서대로 살펴봄으로서 축제의 현장을 체험해보기로 한다.

1) 신주빚기(4월 5일)

신과 사람은 같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 사람은 밥을 먹지만 신은 떡을 드신다. 사람은 물을 마시지만 신의 음료는 술이다. 익는데 열흘 이상 시간이 필요한 신주는 가장 먼저 준비하는 제물이다. 따라서 정성스레 술을 빚는 일은 모든 제사의 시작이 된다. 신주를 빚을 쌀은 강릉시민들이 조금씩 추렴하여 준비한다. 각 집마다 깨끗한 쌀을 골라 식구들의 이름을 쓰고 바치는 행사는 단오를 맞이하는 강릉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의식이다. 또한 과거 강릉부사가 쌀과 누룩을

내려주었다는 전통에 따라 요즘은 강릉시장이 신주빚을 쌀과 누룩을 바친다.

신주는 과거 관청이었던 칠사당七事堂에서 빚는다. 제관들은 이른 아침 왼새끼를 꼬아 칠사당 대문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피워 부정을 막는다. 칠사당 대청마루에 신주미가 준비되면 무녀가 주위에 잿물을 뿌리고 또 한지에 불을 붙여 모든 부정을 가신다.

무녀가 신주미에 잿물 등을 뿌려 부정을 가시는 모습





제관들이 누룩을 섞어 독안에 담는 모습

술빚는 제관들은 쌀을 쪄서 술밥을 만들고 누룩을 섞은 뒤 차곡차곡 독안에 담는데 사이사이 솔잎을 넣어 향기를 더한다. 배가 볼록한 독안에 가득 술밥이 담겨지면 창호지로 깨끗이 주둥이를 여며 따뜻하게 보관한다. 이 술은 음력 4월 보름이면 알맞게 잘 익어 대관령에 계신 국사성황께서 흠향하게 되는 것이다.

2) 4월 보름 대관령국사성황 모시기

(1) 산신제와 국사성황제(4월 15일)

음력 4월 보름날은 강릉시민들이 대관령으로 국사성황을 모시러 가는 날이다. 대관령 정상에서 약 2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산신당과 성황사가 있다. 먼저 산신제가 유교식 제례로 진행된다. 성황제에서는 강릉시장이 초헌관을 맡아 공동체의 안녕을 빈다. 이어 무녀가 부정굿과 서낭굿을 한다. 굿이 끝

나면 성황사 앞마당 넓은 뜰에서는 신에게 바쳤던 제물을 나눠먹는 음복이 행해진다. 신의 음식을 나눠먹으면서 복을 받는 행복한 시간이다.

(2) 신목모시기

갑자기 징, 장고 소리가 요란하여 돌아보면 무녀와 악사들이 성황사 앞마당을 돌며 지신을 밟고 있다. 그 가운데 신목을 잡을 신장부가 긴장된 얼굴로 서 있다가 문득 산을 오르기 시작한다. 성큼성큼, 빠르지만 서둘지 않는 걸음이다. 신목을 찾아 나선 길이다.

과연 어느 나무에 신이 깃들어 계실까. 신장부는 확신있는 걸음으로 산을 올라가더니 문득 어느 단풍나무 앞에 선다. 신장부의 시선과 신의 뜻이 하나가 된 순간 나뭇잎이 갑자기 떨리는 듯 하고 그 때를 놓칠세라 신장부는 나무를 움켜쥐고 흔든다. 무녀는 제금을 치며 신이 강림하시기를 기원한다. 제관들이 톱으로 나무밑동을 베면 그 순간 신목은 국사서낭신의 신체가 된다. 이를 신목모시기라고 하는데 이 날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신이 나무를 타고 인간 세상에 내려오신다는 신앙은 단군신화의 신단수에도 보인다. 땅과 하늘 사이에 우뚝 서있는 나무는 인간의 뜻을 하늘에 계신 신에게 전해주고 신의 뜻을 인간이 받을 수 있는 통로로서 가장 적절한 상징물이다. 신과 인간을 잇는 일종의 다리인 것이다.

신장부가 신목을 모셔들고 산을 내려오면 사람들은 다투어 홍색, 청색의 예단을 걸며 소원성취를 빈다. 예단은 신에게

바치는 옷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대관령국사성황신위라고 쓴 위패와 신목을 모신 일행은 신명나는 무악을 울리면서 대관령을 내려온다. 이른바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는 신의 행차인 것이다.

⑶ 구산서낭제와 서낭굿

구산은 대관령에서 강릉시내로 들어오는 길목의 작은 마을인데 조선조 때는 말을 갈아타는 역원이 있었다. 길가에 작은 서낭당을 모시고 있다. 걸어서 대관령을 내려왔던 옛날에는 이쯤 오면 날이 저물어 피곤한 일행들이 다리도 풀고 음식도 먹으며 쉬었다고 한다. 요즘도 구산에서 점심을 먹는다. 구산서낭당에서 대관령국사성황이 잠시 쉬시는 동안 마을어른들은 제사를 모시고 무당이 굿을 해준다.

⑷ 학산서낭제와 서낭굿

학산은 대관령국사성황이라고 믿는 범일국사가 태어난 마을이다. 대관령국사성황일행은 학산 마을서낭당에 들려 인사를 한다. 일 년에 한번 태어난 고향을 찾아주는 국사성황을 환영하면서 마을주민들은 영산홍이라는 노래를 부른다.

꽃밭일레 꽃밭일레 사월 보름날 꽃밭일레
지화자 지화자 영산홍
영산홍 녹음 바람에 청들백들 배 걸렸네
지화자 지화자 영산홍

옛날에는 이쯤이면 날이 어두워져 강릉시내의 사람들이 저마다 횃불을 들고 신을 마중 나갔다고 한다. 영산홍꽃은 바로 신이 내려오시는 길을 환하게 밝히려고 사람들이 손에 든 횃불을 말한다. 횃불이 봄날 들판을 붉게 물들이는 영산홍을 닮았다는 아름다운 노래이다. 학산에서도 구산과 같이 주민들은 서낭제를 올리고 무당이 서낭굿을 한다.

⑸ 봉안제

대관령을 다 내려온 국사성황 일행은 먼저 강릉시내를 한 바퀴 돈다. 신의 일행이 지나간 길은 잡귀가 물러가고 신성한 공간으로 변한다. 시내를 돌 때는 일제강점기부터 국가무형문화재가 될 때까지 강릉단오제의 비용을 대고 실질적으로 주관해온 중앙시장에 꼭 들린다. 이때 장사하는 할머니들은 황황히 앞치마에 손을 씻고 길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신을 환영한다. 시내를 돈 일행은 홍제동에 있는 국사여성황사로 간다. 머리를 땋아 내린 고운 처녀의 그림이 있는 당 안에 대관령국사성황과 대관령국사여성황, 두 분의 위패와 신목을 모셔놓는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단오제가 시작되는 5월 3일까지 위패와 신목은 여성황사 안에 안치한다. 국사성황이 정씨처녀를 데려다가 혼배한 날이 바로 4월 보름이었다니 어쩌면 이날부터 단오제가 끝나는 날까지가 두 분의 정기적인 신혼여행기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3) 종교의례 : 영신제, 국사성황행차, 조전제, 무당굿

(1) 영신제와 국사성황행차(5월 3일)

5월 3일 저녁 6시, 무당과 제관들은 국사여성황사에 가서 위패와 신목을 모셔 내온다. 무녀는 신목에 대를 내려 신이 강림하신 것을 확인한 뒤에 다 함께 여성황사를 떠난다. 위패와 신목을 앞세운 일행은 사후 국사여성황이 되었다고 믿는 정씨처녀의 생가에 들려 잠시 굿 한마당을 한다. 지금은 강릉 최씨가 살고 있는데 옛날 이 집에서 대관령국사성황이 보낸 호랑이에 물려간 정씨처녀가 대관령국사여성황이 되었다고 전한다.

이어서 신의 행차는 시내를 돌아 단오장으로 간다. 맨 앞에 국사성황의 신위와 신목이 가고 제관들과 무당패, 탈놀이패가 간다. 그 뒤를 이어 강릉의 유지들과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단오등을 들고 신의 행차를 따라서 남대천 단오장으로 나가는 것이다. 단오등으로 신의 길을 밝히면서 따라가는 일종의 호위인 셈이다. 그러나 만 명이 넘는 인파가 신을 따라가는 길놀이는 가장 신명나는 단오제의 풍경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읍면동 단위로 놀이를 꾸민 강릉시민들이 이 행차에 참여하고 있다. “신통대길길놀이”라는 제목의 이 행사에는 시민들이 마을의 역사와 민속, 단오풍경들을 주제로 흥미로운 놀이를 선보이면서 길놀이의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 제관들은 남대천에 마련된 가설 굿당에 신목과 신위를 모셔놓는다. 앞으로 5월 8일 단오제가 끝나는 날까지 대관령국사성황부부는 이곳에서 강릉시민들과 찾아온 모든 사람들의 절을 받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무당들은 춤으로 신이 오신



국사성황행차

것을 환영한다. 벌써부터 단오장에는 수많은 천막들이 쳐 있고 오색등불이 화려하다. 이를 임시로 서는 난장이라고 하는데 고대부터 축제의 요소 중 없어서는 안 될 항목이다. 신을 모셔놓은 뒤 남대천 난장은 축제 특유의 흥청거림으로 사람들을 유혹하여 모여든 사람들을 결국 감자적과 단오신주에 취하게 만드는 것이다.

(2) 조전제와 무당굿

강릉단오제의 종교의례는 유교와 무속신앙이 혼합된 양상을 보인다. 이는 상하공동의 의례라는 고대 축제가 전승되는 가운데 사회 분화에 따라 생긴 현상으로 지배계층의 종교와 피지배계층의 신앙이 공존하면서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해왔음을 말해준다. 음력 5월 4일부터 8일까지 단오제가 계속되는 동안 매일 아침 가설굿당에서는 조전제朝奠祭를 올린다.

강릉 시장을 비롯한 기관장들과 지역 유지들이 제관이 되는 조전제는 유교식 제례로 공동체의 안녕을 빈다. 조전제가 끝난 후부터 저녁 늦도록 계속되는 무당굿은 단오제에서 실질적인 종교의례의 기능을 한다. 강릉단오굿은 대대로 집안으로 내려오는 세습무당이 의례를 진행한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굿하는 방법을 익혀 상당한 기량을 학습하여 예술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무당들이다.

4) 단오장의 놀이와 난장

강릉단오제의 핵심은 대부분 전통축제가 그렇듯이 종교의례이다. 하지만 이제 제례나 굿은 거대한 단오제 행사의 일부가 되었고 단오장 곳곳에서 벌어지는 각종 민속놀이가 훨씬 더 사람들의 흥미를 끈다. 민속놀이 마당은 관의 노비들이 놀았다는 탈놀이와 농악, 그네뛰기, 씨름장, 그 외 투호와 각종 공연이 벌어지는 야외무대 등으로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단오민속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어서 교육적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요즈음 단오장을 압도하는 것은 단연 난장이다. 드넓은 남대천 단오장은 색색의 천막이 쳐있고 온갖 장사꾼과 사람들로 항상 붐빈다. 먹거리는 물론이고 다양한 공연과 싸구려 물건들이 손님을 끈다. 강릉단오제의 난장은 해마다 커지고 있는 추세인데 대규모의 매매행위를 가능케 하여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송신제 · 소제

호개등, 용선, 탑등, 연봉, 지화 등을 손에 든다. 일행은 작은 다리를 건너 단오섬으로 가서 모든 것을 태운다. 그동안 단오제의에 사용했던 모든 것을 태워 신의 세계로 되돌려 보내는 것으로 긴 단오제를 마치는 것이다. 신이 떠나시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한없이 절하는 사람, 안타까움에 우는 사람도 있다. 모두 허전한 얼굴들이다. 하지만 내년 5월이면 대관령국사성황은 또 다시 강릉시민과 영동지역 주민들의 삶을 돌보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올 것을 알기에 다음을 기약하는 강릉사람들이다.



단오제 제의에 사용한 것을 태우는 모습

기록으로 떠나는 강릉단오제의 길

1) 기록을 통해 본 강릉단오제의 역사

강릉은 아주 오래전부터 축제의 전통이 있는 지역이다. 강릉은 옛 동예東濊의 땅인데 2세기 후반에서 3세기 전반에 이르는 기록에 의하면 예국에서는 10월에 무천舞天이라는 종교적 축제를 행했다고 한다. 하지만 10월에 열리는 무천과 강릉단오제는 개최시기가 판이하게 달라 역사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어렵다. 그렇다면 강릉단오제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첫 번째 기록은 1451년 완간된 『고려사高麗史』에 있다. 태조 때 강릉의 왕순식王順式 장군이 왕건을 도와 견훤의 아들 신검神劒을 토벌하러 갈 때 대관령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강릉단오제는 대관령의 국사성황을 모시고 벌이는 축제

이다. 지금도 대관령에 올라가 강릉으로 신을 모셔오기 때문에 대관령 치제致祭의 시작을 보여주는 이 기록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대관령은 언제부터 강릉사람들에게 신성한 장소가 되었을까? 신라 때까지 강릉을 비롯한 영동지역 주민들은 대관령을 넘어 영서지역을 오갈 필요가 없었다. 지방 사람들이 가장 왕래를 많이 하는 곳은 수도이다. 통일신라까지는 수도가 경주였기에 강릉에서 가려면 동해 바닷길이 요긴했을 것이다. 바람만 잘 타면 육로보다 배가 훨씬 빠른 법이다. 하지만 고려가 들어서자 수도인 송도로 가기위해서는 백두대간을 넘어 영서지방으로 가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그 길이 대관령이었다. 하지만 대관령은 아흔아홉 구비 험한 고개이다. 무서운 산짐승도 있고 어쩌면 더 무서운 산적도 있다. 위험한 것은 신성하게 여겨지고 신앙의 대상이 된다. 고려 건국을 계기로 영동사람들이 대관령을 신성하게 여기게 되었고 제사지내던 전통이 강릉단오제의 연원이 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이 왕순식 장군이 대관령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과 시기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고려 때의 기록은 대관령 치제에 국한되어 있다. 조선조에는 생육신의 한 명이었던 남효원이 강릉의 민속신앙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남효원(1454~1492)의 『추강집秋江集』에는 영동지역에서 매년 봄에 택일하여 산신제를 지내는데 사흘동안 음주가무를 했다는 기록이 있다. 봄이라는 시기에 지내는 산신제의 전통과 대관령을 신성하게 여기는 신앙심을 토대로 오늘날의 강릉단오제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처음으로 강릉단오제에 관한 기록을 남긴 사람은 홍길동전의 작가로 유명한 허균이다. 1613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허균의 문집『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에 의하면 허균은 선조 36년인 1603년 5월 1일 강릉에서 대관령의 산신인 대령신大嶺神을 맞이하는 행사를 보았다. 허균은 관청에서 일하는 관리의 수장인 수리首吏에게 그 연유를 물었고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대령신은 곧 김유신金庾信으로 공이 젊었을 때 명주에서 공부하였다. 산신이 검술을 가르쳐주었고 또 선지사에서 명검을 주조하여 고구려와 백제를 평정하였다. 죽어서 대관령의 산신이 되었는데 지금도 신령스런 이적이 있어 고을사람들이 해마다 5월 초하루에 번개旛蓋와 향화香花를 갖추어 대령에서 맞아다가 명주부사溟洲府司에 모신다고 하였다. 특히 신이 기뻐하면 하루 종일 개蓋가 쓰러지지 않아 풍년이 들고 신이 화를 내면 개蓋가 쓰러져 풍수의 천재지변을 준다고 믿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은 성격이 드러난다. 첫째 제의 대상 신격이 대관령 산신으로 좌정한 김유신으로 되어 있고, 둘째 대관령에서 모셔온 신을 명주부사인 관청에 모셨다는 사실과 허균이 그 내용을 수리에게 물었다는 것으로 보아 향리들이 관여한 행사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이 즐거우면 풍년이 들고 노하면 풍수의 천재지변을 준다는 것, 그 영험함을 신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번개旛蓋를 들어보는 것으로 점치는 내용이 있어 관민이 함께 고을의 안과태평과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인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속이 관여했으니 당시 제사의 틀은 유교식이었을 것이나 실질

적인 내용은 축제의 성격을 띠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허균의 뒤를 이은 기록은 강릉의 향토지 『임영지臨瀛誌』로 영조 때 출간되었다. 1933년에 『증수임영지增修臨瀛誌』가 발행되었는데 여기에 이속인 호장이 주관하면서 무당굿과 잡희를 하는 강릉단오제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다. 『증수임영지』는 『임영지』의 내용을 보완한 것이어서 이 기록은 영조 때일 가능성이 있다.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매년 4월 15일에 본부의 호장이 무당을 거느리고 대관령 산위에 있는 신사에 가서 고하고 무당으로 하여금 나무에 다가 신령을 구하게 한다. 나무에 신이 내려 그 가지가 저절로 흔들리게 되면 신령의 뜻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며 그 나무의 가지를 하나 꺾어서 힘 센 젊은이에게 이 나뭇가지를 들게 하고 오는데 이 행차를 국사의 행차라고 말한다. 화각이 앞에서 인도하고 무당들이 징을 치고 북을 울리면서 뒤따르고 호장이 대창역마를 타고 천천히 그 뒤를 따른다. 이 행차가 오는 길가에는 구경하려는 사람들이 담을 둘러싼 것 같고 구경꾼 중에는 종이나 헝겊을 신목의 가지에다 걸기도 하고 술과 음식을 장만하였다가 무당들을 위로하기도 한다.
>
> 황혼에 관아에 이르면 횃불이 들판을 메우고 관청에 속한 사람들이 이를 맞아 성황사에 안치하였다. 5월 5일이 되면 무당들이 각색의 비단을 모아 고기비늘과 같이 오색이 찬란하게 만들어 장대 끝에 매달아 우산을 드리운 듯한 화개를 만들어 힘이 센 사람에게 들려 앞세우면 무당들이 풍악

을 울리며 따르고 창우배들이 잡희를 하다가 저물면 성남문을 나와 소학전에 이르러서 이 놀이를 그친다. 대관령에서 모셔온 신목을 그 다음날 성황사에서 불태워 버린다. 이와 같은 마을의 풍습은 항상 그렇게 하였고 그 역사도 퍽 오래되었다고 한다. 만약 이런 행사를 하지 않으면 비바람이 곡식에 피해를 주게되고 금수의 피해가 있다고들 한다.

『임영지』의 기록은 오늘날 강릉단오제와 내용이 거의 유사하여 4백여 년 동안 전통을 충실하게 지킨 축제임을 증명하고 있다.

2) 강릉단오제를 막은 일제, 강릉단오제를 지킨 중앙시장 상인들

조선조의 강릉단오제는 관이 주관하던 읍치성황제였다. 강릉단오제는 1909년 무렵 전승이 중단된다. 호장이 주관하던 행사였기에 피치 못하게 조선의 몰락과 운명을 함께 한 것이다. 일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대성황사가 소실되자 그 자리에 일본국교의 상징인 신사를 세웠다. 강릉단오제는 과거의 영화를 잃어버리고 자칫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하였다. 이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강릉단오제를 전승하고 오늘까지 이어오게 한 조직은 바로 중앙시장이었다. 강릉단오제는 조선 후기부터 상인들의 영향력이 세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탈놀이를 할 때는 반드시 시장에 들러 놀곤 했다. 원래 단오제는 농민들이 주축이 되었으나 무엇보다 물자의 원활한 유통이 중요한 상인들로서는 대관령이 매우 중요한 길이 아

닐 수 없었다. 상인들은 대관령치제의 중단이 매우 불안했다. 장사를 하려면 위험한 고개를 넘나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관령국사성황의 가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래서 결국 중앙시장 상인들이 나서서 단오제의 맥을 잇게 된 것이다.

중앙시장 상인들은 추렴을 하여 비용을 마련하였고, 제사를 지내고 무당을 불러 굿하는 것으로 그 맥을 이어왔다. 조선 시대의 단오제는 제례 및 굿은 대성황사에서 했던 것으로 보인다. 탈놀이는 화개를 앞세우고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했고 제례나 무당굿은 신목과 함께 대관령에서 제관들이 가슴에 품고 내려와 국사성황의 신위를 모신 대성황사에서 행했다. 그렇지만 후에 대성황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상인들은 본인들의 터전인 중앙시장 인근에서 행사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까지 이어져온 남대천 단오장이다. 모래벌에 천막을 치고 난장벌림을 하게 된 것이다.

상인들이 맡으면서 읍치성황제로서의 단오제 모습은 하나 둘 사라지게 된다. 제일 먼저 전승이 중단된 것은 놀이집단이 해체된 관노가면극이다. 관노가면극은 1967년 강릉단오제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때 비로소 복원되었다. 가장 전승력이 강한 것은 무당굿이었다. 1928년 이미 대성황당이 없어진 시기에 아키바는 이렇게 기록했다. "그래도 5월 1일부터 7일까지 읍내에 장이 서고, 시장 한쪽 구석에서 무녀의 가무가 행해지고 있어 역시 옛 신앙의 흔적이 샛별처럼 남아있는 듯하다." 굿은 중앙시장 상인들이 비용을 대어 상업의 번창과 대관령을 지나면서 무사안전을 빌기 위해서 했다. 그러나 이 굿에는 상인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었다.

중앙시장은 원래 5일장이지만 단오 때는 임시로 난장을 텄다. 난장에는 구경꾼들이 몰려오기 마련이고 상인들은 단오제를 전승하는 동시에 시장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은 전통적인 단오제를 축구대회 같은 운동회로 대치하려는 노력을 계속했다. 하지만 강릉단오제는 여전히 공동체의 안녕과 풍요를 빌었고 특히 기우제의 성격이 강했다. 단오제는 대개 모내기가 끝난 뒤 행해졌는데 '단오 끝나면 비가 온다.'는 믿음이 아직도 남아 있다. 상인들이 주관한다고 해도 단오제는 풍농을 기원하던 세시풍속의 하나로 여겨 머슴들은 단오빔을 해 입고 단오장 씨름판이나 농악놀음판으로 몰려들었다. '단오 때는 보리밭이 남아나지 않는다.'는 말은 단오굿이 수행해온 질펀한 놀이성의 표현인 것이다.

3)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 지정과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의 의미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전쟁을 겪었지만 강릉단오제는 여전히 중앙시장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행사를 해왔다. 단오제가 처음으로 큰 변화를 겪은 것은 강릉단오제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을 때이다. 1967년 강릉단오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되었다. 지정분야는 제례, 관노가면극, 무당굿 등 3개 분야였는데 그 때부터 이 세 종목은 강릉단오제의 핵심으로 전승된다. 관의 노비들이 하던 관노가면극은 조선왕조와 운명을 함께 하여 이미 전승이 끊어진 상태였으나, 당시 생존해있던 연희자들의 구술로 복원했다. 이는 강릉단오제가 지정 당시 전승되던 상태가 아닌 지정 종목을 중심으

로 강릉단오제의 내용을 새롭게 재편성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기점으로 강릉단오제의 면모가 바뀐 것이다.

또 한 번 도약의 계기는 정부로부터 왔다. 한국관광공사는 1994년을 '한국방문의 해'를 선포하였고, 450만 명의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강릉단오제는 외국인에게 보여줄 10대 축제 중 하나로 정했다. 정부의 후원에 힘입어 1993년부터 단오장터가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비만 오면 진흙바닥으로 변하던 단오장의 길은 깨끗이 포장되었다. 모든 행사장을 스탠드와 평행되게 배치함으로써 쉽게 구경할 수 있게 만들었고 야간공연을 위해 상설 야외무대도 설치했다. 단오장 한 가운데에는 커다란 그네 터가 마련되었고 굿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낮은 층계 객석이 마련되었다.

강릉단오제
축제현장(남대천)



이러한 기반시설 외에 강릉단오제를 세계인의 축제로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택한 것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초점을 맞추었다. 강릉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이 다각도로 추진되었다. 국사성황신위를 가설굿당으로 모셔가는 행차는 그동안 2백여 명의 중학생들이 등불을 들고 행진해왔었다. 하지만 이 해부터 시장, 국회의원을 비롯한 기관장들과 시민들로 구성된 대규모의 행렬이 등을 들고 단오장으로 가게 기획했다. 단오 등燈에는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어 축원을 해주었다. 또한 도시축제라는 점을 감안하여 야간공연을 대폭 늘렸다.

2005년 강릉단오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로 인해 강릉단오제는 인류가 함께 지켜가야 할 축제가 되었다. 그 후부터 강릉단오제는 세계화의 길을 걷고 있다. 해마다 강릉에서는 세계의 무형유산을 초청하여 공연하고 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강릉단오제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자랑스러운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의 실상

강릉단오제는 전통축제이다. 축제는 종교행사도 있고 민속놀이도 있고, 장도 서고, 각종 문화행사도 있고, 공연도 있어서 매우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다. 그런데 강릉단오제는 1967년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시민의 축제 강릉단오제와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는 같은 것일까? 아니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이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우 혼동하는 내용이다. 사실 둘은 같다

고 해야 할 것이다. 강릉단오제라는 축제가 없었다면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승의 주체를 누구로 보느냐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강릉단오제의 전승주체는 강릉시민이다. 그렇지만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의 전승주체는 보다 좁다. 즉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분야에 속한 소수 전승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국가무형문화재가 되려면 반드시 지정분야가 있어야 한다. 당시 지정분야는 제례, 무당굿, 그리고 관노가면극이다. 강릉단오제는 강릉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축제이지만 적어도 제례와 굿 그리고 탈놀이가 있어야 전통을 지켰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제례, 무당굿, 관노가면극 분야마다 각각 보유자가 인정되었고 그 아래 전수교육조교와 이수자, 전수자들이 이름을 올린다. 소위 인간문화재라고 부르는 보유자들은 살아있는 문화현상으로 존재한다. 강릉단오제를 할 때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물론 외부에 강릉단오제를 알리는 역할도 한다. 전수교육조교는 보유자와 함께 그동안 몸에 익힌 기량을 보존회원들에게 가르치는 임무를 지닌다. 보존회원들은 처음 전수자로 들어오지만 전체 내용을 소화할만한 기량을 확보하면 이수자가 된다. 이로서 강릉단오제는 전통을 지키면서 강릉과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맥을 잇게 되는 것이다.

1) 제례

조선시대 강릉단오제를 주관한 계층은 향리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호장이 중심이 되어 강릉단오제를 조직하고 진행했다. 비록 신분은 중인이었지만 유생이었던 이들이 제례를 중

시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제례는 대관령에서 지내는 산신제와 국사성황제를 비롯하여 강릉시내에 있는 국사여성황사에서 올리는 봉안제, 영신제 그리고 남대천에서 본격적으로 축제가 열리는 음력 5월 4일부터 8일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조전제를 올린다. 조전제는 단오장에서 매일 아침 올리는 제례이다. 제례는 엄격하게 유교식으로 지내는데 주로 향교출신의 보존회원들이 집행을 맡고 있다. 강릉시민을 대표하여 잔을 올리는 삼헌관에는 강릉시의 시장을 비롯한 시의회 회장, 고위관리와 유지들이 선정된다. 특히 4월 보름 대관령국사성황제와 단옷날 조전제의 초헌관은 반드시 강릉시장이 맡아 대표성을 갖는다. 제례를 통해 공동체의 안녕과 만물의 풍요를 기원한다. 단옷날 조전제 축문을 통해 제의의 내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년 오월 오일 강릉시장 △△△가 대관령국사성황신, 대관령국사여성황신께 아뢰옵니다. 삼가 생각하기로 존령은 저희의 중요한 자리에 계시는 국사님입니다. 오랫동안 전해오는 단오절입니다. 초전蕉典을 닦고 받드오니 저희를 보살펴주소서. 재앙과 환난을 막으시고 화를 돌려 복이 되도록 해주신 모든 것은 성황님의 은공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
> 인간은 신에 의지하고 신은 인간에게 감명을 받습니다. 시민이 생업에서 바라는 것은 물과 불, 가뭄의 재앙과 전염질병을 막고 거슬리는 것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알맞은 비와 고른 바람을 주시어 때맞추어 풍년이 들도록 해주시



제례에 참석한
강릉시장 및
보존회원들

고 육축六畜(소, 말, 돼지, 양, 닭, 개)이 번성토록 하시고, 삼농三農(오곡농사, 산림, 바다)을 풍년 되게 해주십시오.
이에 좋은 날을 가려서 정성껏 제수를 마련했습니다. 비록 변변치 못하오나 정성을 다하였사오니 돈독함을 더하도록 해주십시오. 엎드려 존령께 바라옵건대 부족한 성의 오나 흠향하여 주옵소서.

제례는 엄격하게 홀기에 따라 진행한다. 순서를 보면 먼저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역할을 호명하는 분방을 한다. 초헌관이 손을 씻어 몸과 마음을 정하게 한 뒤에 홀을 가슴에 꽂고 제장에 나아가 엎드린다. 절 한 뒤에 잔을 올리고 축을 고한다. 다시 절한 뒤에 물러나면 아헌관이 잔을 올린다. 마지막으로 종헌관이 잔을 올리고 물러나면 초헌관은 음복한다. 마지막으로 축을 태운 뒤에 마친다. 제례분야의

보유자는 김신묵, 김진덕에 이어 현재는 조규돈이 맡고 있다.

2) 무당굿

강릉단오제에서 무당이 하는 굿은 실질적인 민중들의 종교로서 기능을 갖는다. 원래 강릉단오제는 무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축문에 전도무격前導巫覡이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행사에 무당이 앞을 서며 굿이 빠지지 않는다. 신주빚기부터 대관령에 올라가 국사성황을 모시고 내려오는 과정에도 굿을 하고, 강릉시내에서 벌어지는 단오제 기간 중에도 아침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무당굿이 계속된다.

강릉단오굿은 대대로 집안으로 내려오는 세습무당이 진행한다. 조선시대 무당은 천민이었다. 세습무들은 결혼도 같은 신분끼리 했기에 직업을 바꿀 수 없었다. 하지만 세습무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굿하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상당한 기량을 학습하기 때문에 뛰어난 예술성을 보여준다. 세습무들이 추는 춤이나 반주음악인 무악, 굿당을 장식하는 각종 꽃이나 무구들은 우리나라 민속예술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굿에서 신의 내력담을 노래하는 무가들은 지금도 살아있는 신화로서 여러 예술분야에도 영감을 주고 있다. '바리데기', '당금애기'와 같은 신의 이야기들은 무용이나 연극, 만화 등에서 매우 인기가 좋은 이야기인 것이다.

'지모' 또는 '무당각시'라고 부르는 무녀는 굿에서 사제의 역할을 담당한다. 춤과 노래로 신을 모실 뿐 아니라 대를 통해 신을 굿당에 강림시키는 일도 맡는다. '양중' 또는 '화랭이'라고 부르는 남자들은 일차적으로 악사이다. 무녀가 춤을



2018 강릉단오제
(무당굿)

출 때 반주음악을 연주하면서 소위 '바라지'를 한다. '바라지'는 곧 뒷바라지와 같은 것으로 무녀가 굿을 잘 할 수 있도록 음악을 연주하고 흥을 돋우는 등의 모든 역할을 말한다. 또한 '양중'들은 음악연주 외에 굿놀이를 하여 배우의 자질을 뽐내기도 한다. 그리고 지화나 무구를 만들어 굿청을 장식하고 마을대표들과 평소 인간관계를 잘 맺어 굿을 맡을 수 있도록 일종의 매니저 역할을 하는 것도 '양중'의 일이다.

무당굿의 보유자는 장재연, 박용녀, 신석남의 뒤를 이어 지금은 신석남의 며느리 빈순애가 맡고 있다.

(1) 강릉단오굿의 내용

강릉단오굿은 닷새동안 23석 내외의 굿을 한다. 먼저 부정굿으로 굿당의 부정을 가신다. 부정은 굿을 준비하면서 생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을 포함한다. 무녀는 무가를 불러

부정을 가신 후 다시 물과 불로 굿청을 깨끗이 정화한다. 이어서 청좌굿을 한다. 청좌굿은 무속이 신앙하는 여러 신들을 모셔와 굿청에 앉히는 일이다. 무속은 다신교이기 때문에 수많은 신을 믿는다. 이런 신들을 빠짐없이 청하여 좌정시킨 후에 굿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서낭굿이라면 청좌굿에 이어 골매기서낭굿을 한다. 대개 굿청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별도의 넓은 장소에 차린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서낭대를 들고 서낭당에 가서 굿하는 장소로 신을 모셔오는 것이다. 하지만 강릉단오굿에는 이 절차를 이미 끝냈다. 4월 보름에 대관령에 올라가서 서낭님을 모시고 내려온 것이다. 따라서 서낭굿이 생략되고 하회동참굿으로 이어진다. 하회동참굿은 여러 신들이 모두 동참하여 굿을 받으시라는 의미이다. 동시에 남녀서낭신의 화해를 촉구하는 굿이기도 하다. 평소 대관령과 강릉시내에 떨어져있던 남녀서낭신이 단오를 맞이하여 반갑게 만났다. 두 분이 화해하고 모든 신들이 동참하여 굿을 받으시라는 의미인 것이다. 이렇게 신들을 모시고 나면 드디어 굿은 개별적인 신들에 대한 의례로 들어간다.

가장 먼저 하는 굿은 조상굿이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조상 없는 자손이 어디 있으랴. 조상은 집안의 뿌리이고 근본이다. 그래서 단오굿도 강릉의 모든 집안의 조상을 모시는 굿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무녀는 먼저 푸너리로 신을 청한다. '푸너리'라는 단어의 뜻은 정확하지 않지만 모든 굿을 여는 음악이다. 무녀는 '푸너리장단'에 맞춰 춤을 추면서 굿을 준비하게 된다. 이어서 무녀는 조상을 모시는 무가를 부르고

자손들을 잘 돌보아 주기를 기원한 뒤에 축원한다. 마지막으로 무녀는 술잔과 포 하나를 놓고 간단하게 자신들의 조상을 위해서 빈다. 이를 신장풀이라고 하는데 역대 단오굿에 왔던 모든 무당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원한다.

시준굿은 세존굿이라고도 부르는데 생산신을 모시는 굿이다. 이때 무당이 부르는 당금애기 풀이는 오늘날 미혼모 이야기로도 해석될 수 있어 아주 인기가 있다. 당금애기는 부모와 오라버니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석가세존 스님(시준님)과 연분을 맺는다. 스님은 떠나고 임신한 당금애기는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고 가족에게 쫓겨나지만 혼자 힘으로 아들 셋을 낳는다. 성장한 아들들은 서천서역국으로 아버지를 찾아가 만나고 마침내 가족들은 화해한다. 세 아들은 삼불제석이 되고 당금애기는 아기를 주는 삼신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무가구연이 끝나면 무녀는 바라춤을 추고 양중들이 중잡이놀이를 한다.

성주굿은 집안의 가신을 모시는 굿이다. 강릉시 대동 안에는 수많은 집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성주 없는 집은 없는 법이다. 그래서 무녀는 성주굿을 정성스럽게 하여 집안이 편안하고 식구들이 모두 건강하고 부귀를 누리도록 축원하는 것이다. 성주굿은 집을 지을 재목을 구하는 과정을 코믹하게 표현한 뒤에 집안의 풍요를 빌어준다. 마지막에는 홍두깨 위에 성주상을 세우는 묘기로 신의 영험함을 증명하기도 한다.

천왕굿은 명칭에서 불교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 무녀는 치국잡이를 한 뒤에 천왕을 모시고 일반적인 축원을 한다. 굿을 마친 뒤에는 양중들이 새로 부임하는

원님이 길을 닦으라고 아랫사람들을 들볶더니 일은 안 하고 기생타령만 하는 것을 풍자하는 원님놀이를 하여 사람들을 웃긴다. 군웅장수굿은 장수신을 모시는 굿인데 무녀가 상을 세 개 포개어놓고 위에 커다란 놋동이를 올린 채 그것을 입으로 무는 묘기를 보여준다. 심청굿에서는 효녀 심청의 일대기를 창하는데 안질 예방이 목적이라고 한다. 이 때 무녀는 창호지를 잘라 총채처럼 만든 손대를 어깨에 메고 굿을 하는데 눈이 나쁘거나 아픈 사람은 손대에 돈을 단 후 그 종이로 눈을 문지른다. 이어서 수명장수를 주는 칠성, 산신과 터주신인 지신을 모신 후 손님을 청하여 천연두와 홍역을 예방한다. 제면은 무당의 조상신으로 무당의 내력담을 이야기한다. 무녀는 팔도무당 흉내를 내며 굿판을 흥겹게 끌어가고, 마지막에는 집안의 자손떡이라면서 계면떡을 나눠준다.

굿은 다 끝났다. 이제부터는 신을 보내는 절차로 들어간다. 먼저 여러 명의 무녀들이 함께 꽃을 들고 노래하며 춤추는 꽃노래굿을 한 뒤에 무당들과 구경꾼들이 함께 배를 흔들면서 노래하는 뱃노래굿이 이어진다. 여러 무녀들이 초롱등을 들고 춤춘 후에 주무가 커다란 탑등을 들고 춤추는 등노래굿이 화려하게 펼쳐진다. 이렇게 신이 가시는 길을 꽃으로 환송하고 배를 타고 가시라고 권하고 또한 가시는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등노래굿을 하는 것이다.

사이사이 무당은 무가가 아닌 노래를 불러주기도 한다. 할머니들이 가장 좋아하는 레퍼토리는 과부타령이다. 시집간 지 일 년이 못되어 남편 잃고 시집살이 하다가 중이 되어가는 과부타령을 들으며 할머니들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손뼉도 치고 한숨도 쉰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무당은 유행가도 부르고 흥겨운 관광버스 춤을 추어 아직 눈가에 이슬이 맺혀있는 할머니들의 얼굴을 온통 주름투성이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양중들은 탈놀이도 하는데 처첩갈등을 무당의 굿으로 해소하는 소박한 내용이지만 남자들이 여장을 하고 춤을 추는데서 사람들을 흥미를 느낀다. 굿이 끝나는 날 저녁에 하는 대맞이굿은 그동안 국사성황이 굿을 반가이 보고 즐기셨는지 대를 내려 알아보는 굿이다. 무녀의 축원으로 신목이 떨리면 닷새 동안 굿을 잘 받으신 것으로 믿고 신목과 꽃, 등, 지방 등을 모두 태워 신을 돌려보내는 환우굿으로 모든 절차를 마친다.

단오굿판은 발 딛을 틈도 없이 빼곡하게 끼어 앉은 할머니들의 잔치이다. 신명이 나면 제 자리에서 춤도 덩실덩실 추고 보리밥 한 그릇에 배를 채우며 자리를 지키는 할머니들은 그러나 단지 굿 구경에만 정신을 팔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할머니들의 가장 중요한 소임은 단옷날 굿청에 나와 집안을 대표하여 국사성황님께 정성스레 절하고 소지 한 장을 올려 아무려나 집안이 평안하고 아이들 공부 잘하기를 비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집안의 어른이자 종교적 대표자로서 노인의 할 일이라고 믿어 해마다 단오 때면 당당하게 자식에게 차비와 용돈을 받아 단오장으로 온다. 하지만 서낭님께 올리는 소지값은 그동안 어렵게 모아 바지춤에 넣어놓은 주머니에서 나오게 마련이다. 그것이 바로 자식을 위하는 어머니의 마음인 것이다. 이러한 할머니들의 신앙심이 없었다면 단오제는 벌써 오래전에 전승이 단절되었을 것이다.

3) 관노가면극

관노가면극은 관의 노비들이 놀았던 우리나라 유일의 가면무언극이다. 가장 하위계층인 노비들이 놀았기에 일반적인 탈놀이에 비해 풍자가 약하고 대사 없이 행동으로만 보여주기 때문에 내용도 단순한 편이다. 관노가면극의 특징은 다른 지역의 탈놀이와는 달리 아직 굿에서 독립되지 못하고 강릉단오제라는 제의의 한 부분으로 공연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더군다나 연행자가 관의 노비라는 신분을 가져 민간인에 의한 놀이가 아닌 점도 특이한 사항이다. 이는 강릉단오제를 주관하던 계층이 향리였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관노는 향리의 수족이라고 할 수 있기에 탈놀이를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탈놀이는 화개花蓋 즉 괫대를 앞세우고 시내 곳곳을 다니면서 놀았다. 괫대는 긴 나무에 쇠붙이를 둥글게 달고 오색천을 매달았다. 신목은 굿청에 모셔두었음으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신체의 하나로써 괫대를 만들어 모시고 다니면서 놀이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관노가면극이 신이 강림해 있는 상태에서 벌이는 신성한 연극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과거에 본 단오제는 5월 1일에 시작하여 단옷날인 5일에 마쳤는데 이 동안 괫대를 성황으로 모시고 다니면서 지금은 없어진 약국성황, 소성황 등에서 놀이를 하고 다시 시장과 여러 관청 앞에서도 성대한 연희를 했다고 한다.



2018 강릉단오제
(관노가면극)

(1) 관노가면극의 등장인물

관노가면극의 등장인물을 보면 양반광대 1명, 소매각시 1명, 시시딱딱이 2명, 장자마리 2명 이다. 놀이판에 서서 연주하는 악사는 꽹과리, 징, 장고, 북, 새납으로 구성된다. 양반은 전국의 모든 탈놀이에 등장하는 인물로서 연희자들이 지배계층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풍자하는 주요 대상으로 삼았었다. 관노가면극의 양반도 배꼽까지 내려오는 수염을 기르고 담뱃대를 들고 위엄을 부리지만 정작 행동은 여자를 쫓아다니는 희극적 인물로 표현된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품위있는 얼굴이고 특히 세모뿔 모양의 모자가 독특하다. 소매각시는 쪽진 머리에 하얀 얼굴, 이마와 양쪽 볼에 연지를 찍은 젊은 여자로 양반의 상대역이다. 시시딱딱이는 무서운 모습의 벽사가면을 쓰고 손에는 칼을 들고 등장한다. '입은 두껍고 한자 오푼 이상 째졌고 코는 울뚝불뚝하고 빽

빽하게 얽고 눈도 그렇게 째있고 붉은 칠, 검은 칠을 한 아주 무서운 탈'이라고 옛날 어른들은 증언했다. 장자마리는 일명 '보쓴 놈'이라고도 하는데 가면이 없이 머리부터 자루 모양의 장삼 비슷한 것을 땅에 끌리도록 쓴다. 머리를 상투처럼 매어 꼭지가 달리게 하고 허리에는 둥근 대를 넣어 뚱뚱하며 그 대를 두 손으로 안고 춤을 춘다. 옷에는 여기저기 곡식과 해초를 달았다.

(2) 관노가면극의 공연내용

제1과장 : 장자마리 개시

포대자루와 같은 가면을 뒤집어 쓴 두 명의 장자마리가 나와 요란하게 먼지를 일으키며 불룩한 배를 내밀면서 마당을 빙빙 돌아다닌다. 관중을 희롱하기도 하고 선 사람을 앉히는가 하면 모의 성행위와 같은 춤도 추면서 놀이마당을 정리한다.

장자마리 개시 장면



제2과장 : 양반광대, 소매각시 사랑

양반광대와 소매각시가 양쪽에서 등장한다. 양반광대는 뾰족한 고깔을 쓰고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점잖고 위엄 있게 등장하여 소매각시에게 먼저 사랑을 구한다. 소매각시는 얌전한 탈을 쓰고 노랑저고리 분홍치마를 입고 수줍은 모습으로 춤을 춘다. 양반광대와 서로 뜻이 맞아 어깨를 끼고 장내를 돌아다니며 사랑을 나눈다.

제 3과장 : 시시딱딱이 훼방

무서운 형상의 탈을 쓴 시시딱딱이가 양쪽에서 호방한 칼춤을 추며 뛰어나온다. 양반광대와 소매각시의 사랑에 질투하여 밀고 잡아당기며 훼방하다가 결국 둘의 사이를 갈라놓는다.

소매각시와
시시딱딱이



제 4과장 : 소매각시 자살소동

양반광대와 소매각시의 사이를 갈라놓은 시시딱딱이는 소매각시를 희롱한다. 이를 본 양반광대는 크게 노하며 애태우나 어쩔 수 없이 분해 하다가 드디어 시시딱딱이를 밀치고 소매각시를 끌고 온다. 소매각시가 잘못을 빌어도 양반광대가 질책하자 소매각시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양반광대의 긴 수염에 목을 매어 죽은 척을 한다.

제5과장 : 양반광대, 소매각시 화해

소매각시는 양반의 수염을 목에 감고 자살을 기도하여 결백을 증명하려한다. 모든 사람이 놀라고 살리려고 애쓰는 가운데 죽은 척 하던 소매각시가 마침내 살아난다. 탈놀이는 흥겨운 화해와 공동체 마당으로 끝을 맺는다. 악사와 배우, 관중이 함께 어울려 춤을 춘다.

⑶ 강릉지역수호신들이 연극의 주역으로 등장

관노가면극의 내용은 아주 소박하다. 그러나 축제마당에서 인격화된 신과 인간들이 하나가 되는 체험을 주는 신성한 탈놀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관노가면극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실제 강릉지역에서 신앙하는 신들이 캐릭터를 가지고 인격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강릉지역 서낭당에는 대부분 세 분의 신위를 모셔놓았다. 가운데 성황지신城隍之神이 있고 양 옆으로 여역지신癘疫之神, 토지지신土地之神을 모신 것이다. 이들 신들이 곧 관노가면극의 인물들이다. 먼저 양반과 소매각시는 남녀성황신에 해당한다. 시시딱딱이

는 여역지신, 장자마리는 토지지신이라고 볼 수 있다. 토지신인 장자마리의 탈은 특히 의미가 있다. 장자마리는 얼굴에 쓰는 탈이 아니라 포대천을 뒤집어 쓴 모습이다. 탈은 원래 신탈에서 비롯된다. 탈을 씀으로서 신에 빙의하여 신격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가장 원초적인 탈은 곡식가루를 얼굴에 뿌리는 것이다. 지금도 라다크의 굿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얼굴에 밀가루나 쌀가루를 뒤집어쓰면 그 사람은 곧 신이 들려 춤을 추게 되는 것이다. 다음 단계가 바로 천을 뒤집어쓰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탈이 두 개 있다. 하나는 장자마리이고 또 하나는 제주도 영감놀이에 등장하는 도깨비 영감탈이다. 마지막으로 흔히 우리가 아는 탈이 있다. 나무, 바가지, 종이 등으로 만든 탈이 그것이다. 장자마리는 영감탈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형에 속하는 탈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몸통에 곡식과 해초를 달고 있는 것은 그 캐릭터의 뿌리가 토지지신에 있음을 증명한다.

(4) 관노가면극의 주제와 축제정신

극 안에서 장자마리는 판을 꾸미고 성적골계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면서 웃음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양반과 시시딱딱이의 갈등, 양반과 소매각시의 갈등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해낸다. 시시딱딱이는 잡귀를 물리치는 성격을 유지하면서 양반과 적대적 입장에 선다. 비록 다시 소매각시를 빼앗기지만 소매각시 역시 죽은 척 함으로서 양반을 골리는 캐릭터이기에 완전히 진 것은 아닌 셈이다. 결국 관노가면극은 관객을 포함하여 양반에게 적대적인 모든 인물들이 양반 하나를 놓

고 골려먹는 것이 핵심이다. 관노가면극 역시 양반 풍자라는 우리나라 탈놀이의 기본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축제정신이기도 하다. 평소 억눌려있던 양반이나 지배계층의 구속을 일상의 질서를 뒤엎어버리는 축제를 통해 발산하는 것이다.

계층갈등이 사라진 현대사회에서 무언극인 관노가면극의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사가 있는 인형극으로 재해석하거나 해학적인 연출을 통해 당시의 계층갈등을 표현해내고 있다. 관노가면극의 보유자는 김동하, 차형원, 권영하에 이어 현재 김종군이 맡고 있다.

신성하고 재미난 이야기의 주인공들

대개 전통축제의 배경에는 강력한 공동체 신앙이 있다. 강릉단오제 역시 지역을 수호하는 신을 모시고 의례를 베푸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제의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은 대상신격이다. 공동체가 함께 모시는 신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꿈과 희망, 삶의 목적과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강릉단오제에서 신앙하는 신은 산신, 국사성황, 국사여성황을 비롯하여 여러 신들이 있는데 분명하게 드러나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인격신이고 대부분 전승설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사성황은 범일국사, 여성황은 정씨의 딸, 대관령 산신은 김유신장군, 육성황肉城隍은 창해역사, 소성황素城隍은 김시습이라고 한다. 산신은 자연신이고 서낭은 지역수

호신인데 어느 시점에서인가 인격신으로 변모했다. 육성황은 고기를 좋아하는 신이고, 소성황은 고기나 비린 것을 받지 않는 신이라는 의미인데 실제 인물과 연결시킨 것이다. 조선시대 이후 육성황과 소성황의 제사는 모시지 않고 있다.

1) 대관령국사성황 범일신화

범일은 신라 말의 유명한 선승으로 현재 대관령국사성황신으로 신앙되고 있다. 국사성황이 된 시점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나 실존했던 인물이 신격화된 것이다. 범일의 속성은 계림鷄林김씨(현 강릉김씨)이고 조부는 명주도독 겸 평찰을 지낸 술원述元이다. 어머니는 문씨이며 강릉 출신이다. 범일은 신라 헌덕왕 2년(810) 강릉에서 태어나 진성여왕 3년(889) 강릉 굴산사에서 입적하였다. 15세에 출가, 836년에 입당入唐, 선종禪宗을 계승하고 847년 귀국한 뒤 851년 강릉 굴산사 주지가 되어 그 후 40여 년간 영동지역에 선불교를 퍼뜨리는 활동을 하였다. 또한 범일은 구산선문九山禪門의 하나인 사굴산파의 창시자이다. 구산선문은 9세기에서 10세기 사이 9개의 골짜기에서 파생한 선종의 대표적 승려집단으로 주관적 사유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선종이 신라 사회에 하나의 사상으로 등장하는 것은 9세기 이후라고 한다. 중앙정치세력의 분열과 사회적 혼란으로 불교계의 통제 역시 약화되면서 선종은 지방 불교로서 그리고 지방 호족의 난립을 뒷받침하는 혼란기의 사상으로 등장했다. 871년 경문왕, 880년에는 헌강왕이 국사國師로 초빙했으나 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이 후 그의 이름에는 국사라는 명

칭이 붙게 되었다.

이처럼 실존했던 범일국사는 어느 시점에서인가 대관령의 국사성황이 되었다. 어떻게 사람이 신으로 좌정할 수 있었을까. 신격화 과정을 설명해주는 것은 『임영지』의 기록과 설화뿐이다.

> 신라 때 양가집 딸이 굴산에 살고 있었다. 나이가 들도록 시집을 가지 못하고 우물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햇빛이 뱃속을 비추자 돌연히 산기가 있었다. 지아비가 없이 아들을 낳자 집안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것 같아 아기를 얼음 위에다 버리니, 새들이 날아와 아기를 덮어 감쌌으며 밤이 되자 하늘에서 상서로운 빛이 비쳤다. 아기를 도로 거두어 길러 이름을 범일梵日이라 하였다. 나이가 들어 성장하자 머리를 깎고 중이 되니 신통하고 성불의 세계에 든 것 같아 오묘한 조화를 헤아릴 수 없었다. 신복과 굴산 두 산에다 두 개의 큰 절을 창건하고 탑산을 축조하여 지맥을 보충하였다. 후에 오대산에 은거하다가 시적하였다고 한다. 『증수임영지』

> 학산이란게 이 전엔 굴산이야. 굴산사란 절에 한 여자가 우물가서 물을 길더니 해가 입으로 쏙 들어 갔단 말야. 그 후부터 태기가 있었어. 그래 열 달 되어가지고 떡 아를 나니 이거는 비인도적 인간이요, 사람으로 안 만든다고 가서 내던진다고 저 학바위란 바우가 그 바위 밑에다 떡 갖다놓으니, 그 후 학이 와서 나래를 품고 앉았단 말야. 그래서

기이하다고 해서 집에 갖다가 키웠단 말야. 키우니 재주가 일남특기야. 그래서 그때는 불도를 숭상한 까닭으로 범일 국사가 어제 불도를 벼슬해 가지고 국사로 됐단 말야. 국사란게 이전에 나라 임금의 스승이 됐단 말야. 그래서 강릉에 있는 절이란 거는 범일 국사를 위해 지어놓은 절인데, 낸중에 죽으니 그런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여, 대관령에 국사 선황이라는 나라 국자 스승사자를 만들었어.

1980년, 78세 김인영 구술

『임영지』에서 범일전승은 출신지역을 강조하는 전설적 요소와 신화적 윤색을 보여준다. 시기는 신라 때로 명시되어 있지만 아버지는 특별한 성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천신계의 태양신으로 등장한다. 어머니 역시 성씨가 밝혀지지 않은 채 다만 굴산 출신의 여자라고만 기록하였다. 이는 특정 가문이 아니라 오히려 지연을 강조한 서술로 특정 집안 출신에서 특정 지역의 인물전설로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범일의 어머니는 우물에서 빨래를 하다가 햇빛에 의해 아기를 잉태한다. 우물이나 빨래터는 모두 물이 있는 장소다. 따라서 범일의 어머니는 수신계 신앙과 관련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아비 없이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아기는 얼음 위에 버려진다. 얼음은 온기가 없는 물, 즉 태양이 사라진 물이다. 태양이 없이 물만으로는 생명을 키워낼 수 없다. 따라서 아기는 죽음에 직면하는 것이다. 하지만 새들이 날아와 아기를 보호한다. 여기서 새는 바로 천신의 사자로 해석할 수 있다. 밤이 되자 하늘에서 상서로운 빛이 비쳤다고

한다. 밤은 원래 태양이 지고 없는 시간인데 아기는 여전히 태양의 힘을 받아 살아남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임영지』의 기록은 범일과 태양과의 긴밀한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범일의 삶은 일반적인 고승들이 그러하듯 입적함으로서 끝난다. 천부수모계天父水母의 탄생과 낳자마자 버려지고 다시 구조되는 성장과정, 업적의 달성 등은 영웅의 일대기를 따라 신화적 면모를 충실하게 보이고 있으나 사후의 신격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설화속의 범일전승은 보다 완벽한 신화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범일의 아버지가 태양신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햇빛이 해로 바뀌었고, 해가 입으로 쏙 들어갔다던가, 바가지에 담긴 해를 마시고 잉태했다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학이 아기에게 붉은 구슬을 먹여 살렸다는 이야기도 전승되는데 이 또한 부계의 태양신적 성격이 강조된 결과일 것이다. 민간에서는 바가지에 뜬 해를 마시고 잉태했다는 전승에 의지하여 이름을 뜰범자 범일泛日(해가 물에 떴다)로 쓰기도 한다. 한편 어머니 쪽도 신화화가 이루어진다. 신분을 알 수 없는 촌가의 여인은 우물에서 물을 긷다가 해를 마시게 된다. 『임영지』에서는 우물 위 빨래터라고 했는데 우물로 바뀐 것이다. 빨래터와 우물은 같은 물이라고 하지만 그 층 위에서 차이가 난다. 우물은 용왕신앙의 발생지이고 신성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자가 우물에서 물을 길었다는 설화는 『임영지』에 비해 보다 강력하게 수신계 신화로 윤색된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천부수모형의 신화구조는 어디에서 근거한 것

일까? 범일전승이 실제 범일의 생애와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신화구조를 차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범일전승은 주몽신화와 상당히 유사한 면을 갖고 있다. 주몽역시 태양신인 해모수와 수신계인 유화에게서 태어났고 햇빛에 의해 잉태되었다는 점도 같다. 그러나 주몽은 알로 태어나 버림받는데 범일전승에서는 아버지 없는 아이라는 세속적인 이유로 버려진다. 후에 주몽은 죽어 산신이 되고 범일은 국사서낭이 된다는 신격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동일한 발상이라고 하겠다. 고려는 고구려를 이은 나라이다. 강릉지역은 적극적으로 고려에 복속했기 때문에 범일전승이 주몽신화를 모델로 윤색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범일전승이 어느 시점에서 신화화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고려시대는 단군신화나 주몽신화가 민족적 신화로 기록되고 정착한 시기여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2) 대관령국사여성황 정씨여인 신화

대관령국사여성황 역시 실존했던 정씨여인이 신으로 좌정하기까지의 내력담이 전승되고 있다. 국사성황이 대관령에 좌정해있는 것에 반해 여성황당은 강릉시내에 있다. 전하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 옛날 강릉, 현 최씨네 집에 정씨가 살고 있었다. 과년한 딸이 있었는데 정씨 꿈에 대관령성황신이 나타나 장가오겠다고 했다. 정씨는 사람이 아니기에 거절했다. 그 후 정씨네 딸이 툇마루에 앉아있는데 호랑이가 업고 달아났다. 가족들이 대관령국사성황을 찾아가보니 성황과 함께 서있

는데 죽어 정신은 없고 몸만 비석처럼 서있었다. 그러나 몸이 떨어지지 않아 가족들이 화공을 불러 화상을 그려 세우니 비로소 몸이 떨어졌다. 이처럼 국사성황이 호랑이를 사자로 보내 처녀를 데려가 처로 삼은 날이 바로 4월 15일이므로 이 날 대관령에 올라가 국사성황님을 모셔다가 여성황사에 모셨다고 한다. 최철, 『영동민속지』

여성황의 친정으로 알려진 집은 과거 초계정씨 경방파가 살던 곳이다. 현재는 강릉 최씨가 살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단오제 기간 중에 국사성황 부부가 그 집에 들르고 무당이 굿을 해주고 있다. 그러면 정씨여인이 호랑이에 물려간 뒤에 국사여성황으로 좌정했다는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임영지』는 강릉단오제 목적의 하나로 금수의 피해를 막는 것을 들었다. 금수 가운데 가장 인간에게 피해가 컸던 것은 호랑이였다.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은 대개 극단적인 금기로 나타나는데 호식장이 바로 그것이다. 호환에 간 사람은 정상적인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 시신이 발견된 자리에 땅을 파고 묻은 뒤 시루를 엎어두었다. 그리고는 물렛가락이나 숟가락을 시루구멍에 꽂아두는 것이 바로 호식장이다. 시루는 하늘을 상징하고 숟가락은 자물쇠이다. 죽은 영혼이라도 세상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늘을 잠근 것이다. 그만큼 호환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러나 강릉단오제에서는 호환에 간 여인이 국사여성황으로 좌정하여 신앙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국사여성황 신화는 전형적인 무속적 심성을 반영하고 있다. 죽음을 다루는 것은 종교의 가장 중요한 분야이다. 유교는 조상을 중시하여 제사를 중심으로 신앙의 맥을 잇고 있다. 그런데 유교제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제법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남녀 모두 정상적으로 혼인하여 자식을 두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제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는 양자를 두어서라도 제사의 대상이 되려고 했었다. 하지만 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사를 받을 수 없었고 결국 무속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유교와 달리 무속에서는 비정상적인 죽음을 더 중시한다. 결혼한 사람보다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영혼을 중요시 여기거나, 피를 흘려 가거나 비명에 가거나, 물에 빠져 죽거나 객사를 하는 등 비정상적인 죽음을 당한 영혼을 담당하는 것이 무속의 일인 것이다. 이렇게 험한 죽음을 당한 영혼은 한이 깊어 저승에 들지 못하고 이미 죽었으니 이승에 남을 수도 없다. 결국 이승과 저승을 떠도는 잡귀가 되어 사람들을 해친다고 믿는다. 그래서 반드시 굿을 하여 한을 풀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집안에서 무속적 행사가 있을 때마다 융숭한 대접을 받는다. 이런 조상은 위로의 대상인 동시에 두려움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여 무속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죽은 사람의 한이 아주 깊으면 원혼의 영향력이 집안을 넘어 마을전체로 퍼져가고 결국 집단신앙의 대상이 되는 경향이 있다. 이 같은 경우로 하회별신굿의 서낭신이

15세에 죽은 김씨여인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강릉에서도 이러한 흔적이 남아있는데 안인의 해랑신은 미역을 따러 바다에 나갔다가 풍랑에 휩쓸려 죽은 처녀이고 주문진의 진이서낭은 수청을 들라는 현감의 청을 거절한 대가로 온갖 고초를 겪다가 자살한 여인이다. 대관령국사여성황인 정씨여인도 청춘에 호랑이에 물려가 죽은 한 많은 원혼이 집안의 범위를 넘어 지역의 신으로 좌정한 예의 하나로 보인다. 호랑이에게 물려죽은 것 역시 비정상적이고 험한 죽음이기 때문에 무속신앙이 관장하는 영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굿을 통해 민중의 소망을 풀어주었던 단오제에서 무속적 심성이 반영된 여성황의 신격화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3) 대관령성황당에서 재운을 얻은 머슴이야기

강릉의 한 젊은 머슴이 소같이 열심히 밭과 논을 갈면서 살았다. 어느 날 옛 친구를 만났다. 그 역시 남의 집 머슴이었는데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머슴은 마을을 떠나 생선장수를 했으나 돈을 벌지 못했다. 다시 친구를 만나니까 대관령 너머에 좋은 돈벌이가 있다고 했다. 머슴은 장사를 하기 위해 대관령을 넘어가다가 생선장사 할 때 번 돈의 절반을 갈라 지게에 매어놓고 대관령성황당에 맡겨놓았다. 길가던 나그네가 보고 돈을 가져갔다. 나그네는 곧 죽을 병이 들었고, 굿을 하자 성황당에서 훔쳐온 돈의 두 배를 가져다놓으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나그네의 병이 나았다고 한다. 그런데 계속

그런 나그네들이 많이 생겨서 성황당에 맡겨놓은 돈은 크게 불어났다. 내용을 알 리 없는 머슴은 몇 해가 지난 후에 대관령을 넘어오면서 여비나 보탤 마음으로 그 돈을 찾았다. 그랬더니 돈이 많아져서 부자가 되었다.

최철, 『영동민속지』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이다. 과연 이 이야기의 숨겨진 의미는 무엇일까. 강릉단오제는 원래 풍농을 기원하는 성격이 강했다. 단오 때 비가 오지 않으면 토룡을 만들어 용굿을 했다는 사실이나 "단오굿 치고 나면 비 온다"는 말들은 이러한 성격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것은 농민의 이해를 반영하는 행사였다는 의미이다. 그렇지만 대관령성황은 상인들의 수호신이기도 했다. 조선조 강릉단오제에서는 무당일행이 대성황, 약국성황, 소성황, 성내의 시장, 관청 등을 다니면서 의례를 행했다고 한다. 성황사, 관청과 함께 시장이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상인들이 강릉단오제 행사에 깊이 관여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농사를 짓던 머슴이 생업을 바꾸어 대관령을 오가는 장사를 하는데 성황의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의 이 설화는 농민이 아니라 상인이 대관령 성황을 믿는 집단으로 새롭게 등장하게 된 과정을 말해주고 있다. 오랜 세월 백두대간과 치 높은 고개 대관령은 영동사람들로 하여금 편벽된 곳에서 땅 파고 고기 잡으면서 사는 고립된 삶을 강요해왔다. 오직 농사와 해사만이 생업이었다. 하지만 점차 길이 생기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대관령은 서울과 영서로 가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

대관령을 통해 고립이 아니라 소통의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원활한 물자의 교통을 위해서 무엇보다 길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인들이 대관령의 성황을 믿게 된 것은 자연스런 결과라고 하겠다.

상인들이 대관령의 성황을 중시한 것은 갑오경장 이후 관에서 단오제를 중단하자 이를 맡아 전승한 사람들이 바로 중앙시장의 상인들이란 사실이 입증하고 있다. 상인들은 일제강점기에도 단오제를 전승시킨 장본인이다. 지금도 4월 15일 대관령 산신제의 아헌관은 상공회의소 소장이 맡고, 대관령 산신제와 국사성황제의 종헌관은 반드시 화물자동차나 택시협회 등 강릉시 운수회사 대표가 맡고 있다. 강릉단오제의 목적이 지금도 상업과 무관하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로서 강릉단오제는 지역의 역사와 함께 발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강릉이 농사를 위주로 하는 봉건사회에서 상업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사회로 변모하고 있음을 증언하는 이야기인 것이다.

세계인의 축제가 되다 : 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 강릉단오제의 가치

2005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는 강릉단오제를 외부의 관점에서 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양한 세계 문화 속에서 강릉단오제의 독자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기회가 된 것이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신청서를 통해 발견한 강릉단오제의 가치를 살펴본다.

1) 역사성

강릉단오제의 가치는 오랜 역사에 있다. 강릉단오제는 대관령 신앙을 중심으로 본다면 천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935년 왕순식이 왕건을 도와 견훤의 아들 신검을 토벌할 때 대관령에서 제사를 지낸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과 매우 비슷한 내용을 갖춘 단오제의 기록은 1603년 허균선생이 남겼다. 당시 행사는 이속이 주관하는 읍치성황제로서의 강릉단오제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 기록만 검토해도 적어도 4백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축제인 것이다.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진 축제는 전국에서 강릉단오제가 유일하다. 특히 강릉단오제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도 단절되지 않고 오늘까지 내려왔다는 점에서 매우 강한 문화전승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2) 종교화해의 양상

강릉단오제는 전통시대에 존재했던 모든 종교의 화해를 구현해낸 축제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강릉단오제는 축제를 통해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고 인간과 인간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강릉단오제의 배경에는 종교성이 있는데 이처럼 신앙을 배경으로 하는 것은 전통축제의 보편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그런데 단오제는 특정 종교의 산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별한 가치가 있다. 유교, 불교, 도교, 무속신앙 등 우리나라에 존재한 모든 신앙이 강릉단오제 안에서 화해하고 있는 것이다.

강릉단오제의 종교의식은 유교제례와 무당굿으로 구성되

어 있다. 그런데 제례의 경우 형식은 유교를 따르고 있지만 강릉에서는 인격화된 대상 신격이 유교적 인물이 아니라고 믿기에 자칫 충돌의 여지가 있다. 제례를 받는 대상은 대관령국사성황이다. 하지만 전승되는 이야기에 의하면 국사성황은 신라 말 고려 초의 실존했던 승려 범일국사이기 때문이다. 유교식 제사를 불교승려가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렇지만 단오제 안에서는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즉 공동체의 신앙 안에서 불교와 유교가 화해하면서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조당시 무속신앙의 사제인 무당은 천민이었다. 조선의 지배이념이었던 유교와 무속신앙은 그 성격이 판이하여 공존하기 어려웠다. 유교가 관념적이고 이성적인 반면 무속은 즉흥적이고 감성에 호소하는 신앙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릉단오제 안에서 유교는 지배계층의 신앙을 담당하고 무속은 민중 신앙의 구심점이 되면서 아무런 갈등 없이 공존하고 있다.

단군과 주몽이 사후에 산신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산신신앙은 그 뿌리가 깊다. 산신은 무속신앙에서도 중요한 신이고 절에서도 산신각을 모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신은 신선사상과 습합하여 도교적 성격을 띤다. 상당수 산신도의 노인이 노자의 얼굴모습을 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4월 보름 대관령에 올라가 제일 먼저 하는 행사는 산신제이다. 형식은 유교식 제사이지만 도교적 성격을 포함한 의례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강릉단오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앙해온 전통종교가 모두 모이고 화해하는 현장이 된다. 불교 유교 도교는 삼국시대에 들어와 이미 토착화한

종교이고 무속은 토속신앙이다. 이들은 서로 다른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강릉단오제 안에서는 상충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면서 오로지 공동체의 안녕과 번창을 위한 목적을 위한 정신적 배경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세계전쟁에서 핵심적인 갈등의 하나가 종교이다. 신앙이란 주어진 유일한 답을 사는 것이기에 믿는 사람에게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절대성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종교 역시 절대적이라는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강릉이라는 작은 공동체가 실현한 종교의 화해가 어쩌면 인류평화의 지침일 수 있겠다.

3) 공동체의식을 강화하는 축제

강릉단오제는 공동체의식을 강화하는 축제이다. 이것은 강릉단오제에서 신앙하는 신격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단오제에서 모시는 신은 세분이다. 산신인 김유신장군, 국사성황신인 범일국사, 국사여성황인 정씨여인은 모두 강릉 출신이거나 강릉과 일정한 관련을 갖는 실존 인물들이다. 김유신장군은 7세기에 삼국을 통일한 장군이고 범일국사는 고려건국에 영향을 준 영동지역의 정신적 지주였다. 김유신은 무신이고 범일은 승려였지만 모두 건국에 깊이 관계했던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역사에서 승리한 인물들로 후대에 추앙되었다. 특히 범일은 신라왕실의 교종불교와 대립하면서 선종을 지켜 영동지역의 수호신이 되었다. 지역의 정신적 중심인물인 셈이다. 이렇게 김유신이나 범일국사는 모두 영웅적 인물이었기에 신으로 좌정했다고 볼 수 있

다. 하지만 국사여성황의 경우는 전혀 내용이 다르다. 국사여성황인 정씨처녀는 호랑이에 물려 죽은 가엾은 여인이다. 호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처참한 죽음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호환은 자연의 재해를 비롯하여 역사의 뒤 안에서 억울하게 당한 모든 억울한 죽음, 모든 희생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대개 역사는 이긴 편에서 기록된다. 하지만 강릉단오제는 승리자뿐 아니라 호환에 간 가엾은 죽음도 기억하는 축제이다. 수많은 인류의 삶 가운데 사실 역사에서 승리한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 이름없이 사라진다. 전쟁에서, 자연의 재해로, 또는 사고로 비참하게 죽어간 사람들도 많다. 기록에 남지는 않았어도 그들의 삶 역시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성공한 삶과 실패한 삶이 결국 역사를 형성하는 것이다. 강릉단오제는 실패한 사람들의 아픔까지 헤아리면서 포용하고 정기적으로 기억하려는 의례이다. 그리하여 공동체는 균형을 잡고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이다. 이처럼 강릉단오제는 강릉의 역사와 삶의 내용을 반영하면서 특히 강릉 출신의 인물들을 수호신으로 축제의 중심에 놓음으로서 공동체 화합의 기능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4) 강릉역사의 발전과정을 반영하는 축제

강릉단오제가 강릉역사의 발전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조선조 때 강릉단오제는 읍치성황제의 하나로 이속들이 주관했다. 조선조가 패망하자 대부분의 읍치성황제는 맥이 끊겼다. 그렇지만 강릉단오제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도 살아남았

다. 이는 관에서 하던 단오제를 중앙시장 상인들이 전승했기 때문이다. 원래 강릉단오제는 농민들이 주축이 되는 행사였다. 단오제를 지내지 않으면 일기가 불순하고 자연의 재해가 있었다는 기록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조 후기에 단오제를 이끌어간 계층은 상인들이었다. 서울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던 대관령을 신성시 여기는 단오제는 상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행사였다. 길로 대표되는 교통은 자본주의로의 발전에서 빠질 수 없는 축이다. 대관령을 통해 동서를 잇는 물자소통이 이루어졌기에 상인들은 단오제를 통해 상업의 번창을 기원했던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강릉단오제는 강릉이 봉건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단오제는 강릉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반영하는 축제인 것이다.

5) 강릉단오제 무당굿과 탈놀이의 뛰어난 예술성

강릉단오제는 뛰어난 민속예술의 보고이다. 단오제를 구성하는 의례와 탈놀이, 농악, 민요 등은 매우 수준높은 예술성을 보유하고 있어 민속예술로써 가치가 있다. 그중 세습무들이 주관하는 무당굿은 춤과 노래, 신화, 타악, 지화공예, 촌극 등으로 구성되면서 각 부분에서 높은 예술성을 보여준다.

무당굿은 단오제 신앙의 핵심이다. 집안 대대로 내려온 이십여 명의 세습무들이 춤과 노래, 그리고 연극적인 내용으로 신을 대접하고 인간의 소원을 빌어준다. 한국의 토속신앙인 무속은 다신교이어서 수많은 신을 모시고 있다. 무속의 신들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보여주



2018 강릉단오제(무당굿)



기에 신의 성격을 통해 소위 한국인의 가치관을 짐작할 수 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굿을 익힌 세습무들의 굿은 매우 세련된 공연물이기도 하여 예술적으로 상당히 수준이 높다. 4시간 이상 무당이 혼자서 노래하는 신의 일대기는 재미있으면서 원초적인 신화의 세계를 보여준다. 또한 무당의 춤과 노래를 반주하는 음악은 상당한 수준의 음악전문가가 아니면 채보가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하고 정교한 가락을 갖고 있는 세계적 타악으로 인정받고 있다.

단오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은 탈놀이다. 조선조 때 관의 노비들이 놀았다는 관노가면극은 강릉단오제 때에만 연희한 한국유일의 무언가면극으로 원시적인 단계의 탈, 흥겨운 장단, 정교한 춤사위로 유명하다. 관노가면극은 남녀서낭, 여역신, 토지신 등 강릉지역의 가장 보편적인 지역수호신들이 인격화된 모습으로 등장하는 제의적인 연극이다. 남녀서낭신은 양반과 각시로 등장하고 토지신은 장자마리, 잡귀를 몰아내는 여역신은 시시딱딱이로 등장하는데 이런 인물들은 신의 고유 성격을 유지한 채로 인간 삶의 갈등을 표현하고 있다. 양반과 각시는 사랑하는 남녀로 등장하고 험상궂은 얼굴의 시시딱딱이는 양반과 각시의 사랑을 훼방하는 존재로 무섭게 표현되며 배불뚝이 장자마리는 풍농주술을 성적인 골계로 나타내고 있어 신성한 놀이의 성격이 가장 잘 유지된 가면극으로 독보적 가치가 있다.

6) 문화전승의 통로

오늘날 강릉단오제는 문화전승의 통로로써 기능하고 있

다. 강릉단오제는 의례, 놀이, 난장이 함께 있는 전통축제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일제강점기, 6.25전쟁, 새마을운동, 급격한 서구화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문화 전승이 순조롭지 못했다. 이럴 때 축제는 이미 생활에서 유리된 전통과 민속문화를 자연스럽게 전승할 수 있도록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축제 때만은 전통의상을 입고 절기음식을 먹으며 민속놀이를 즐기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축제는 어려서부터 관습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지식을 습득하고 정서적으로 동화되기 마련이다.

오늘날 강릉단오제는 전통문화를 교육하는 또 하나의 학교이다. 강릉단오제는 강릉의 역사와 전통문화가 오롯이 모여 있는 현장이다. 사라진 민속을 우리 삶 속에 되살리고 전통을 잇게 하는 주체적 힘이다. 이로서 강릉단오제는 참가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전통 문화를 배우고 익히고 체득하여 마침내 강릉사람으로, 나아가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되찾게 하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축제의 의미

강릉사람들에게 단오제는 절대적 가치를 갖는다. 단오가 되면 강릉사람들은 누구나 남대천으로 나온다. 옛날 아낙들은 이른 새벽 아침을 지어먹고 몇 시간을 걸어서 단오장에 와서 맛난 음식을 사먹고 구경하다가 저녁에 다시 걸어서 집으로 갔다고 한다. 머슴들은 단오빔으로 받은 새 옷을 입고 용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씨름이나 농악을 하거나 술을 마시곤 했다.

결국 새로 지은 단오빔이 너덜해지면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이런 단오장 풍경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단오장은 하루 종일 늦은 밤까지 남녀노소 사람들로 붐빈다. 어린 아이들은 엄마나 선생님의 손을 잡고 구경을 하고 학생들은 사물놀이 경연대회나 청소년 가요제같은 공연에 참여하여 스트레스를 푼다. 남자들은 저녁에 친구를 만나 막걸리 한잔을 걸치고, 여자들은 전국에서 가장 싸다는 단오장에서 쇼핑에 여념이 없다. 할머니들은 굿당을 찾아와 대관령국사성황에게 절하면서 가족의 안녕을 빈 후 무당굿을 즐긴다. 모두 특별한 하루를 즐기면서 행복하다.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놀이이다. 대관령 신앙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지만 정작 대부분의 사람들은 굿청에 소지 한 장 올리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행위를 마감한다. 그리고는 곧장 각자의 놀이터로 가서 다양한 놀이를 즐기는 것이다. 제의, 놀이, 난장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통적인 축제의 모습이다. 기록된 바, 부족국가 시대부터 주야로 남녀가 한데 어울려 음주가무를 하였다는 전통이 여기 살아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축제는 왜 필요할까?

우리가 사는 일상은 매우 단조롭고 지루하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초하루부터 월말까지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살아간다. 축제는 이런 지루한 반복에서 유일한 쉼표로 기능한다. 축제는 사람들을 삶의 구속에서 해방시켜 마음껏 자유를 맛보게 한다. 한 치의 틈도 허용치 않는 일상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을 해방시키는 기능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는 일상의 질서를 완전히 바꿔놓는

다. 축제의 우리말은 난장벌림이다. 난장판이다. 위아래가 도치되고 신분이 바뀌고 어느 정도의 일탈이 용서되는 것이 바로 축제이다. 그래서 이 날은 평소 무서웠던 양반이 날카로운 풍자의 대상이 되고 갇혀있던 아낙들도 자유를 맛보았던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축제 참가자들이 단지 억눌린 일상에서 해방될 뿐 아니라 집단적으로 인간의 내면세계가 확장되는 체험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긍지와 강한 소속감을 나누게 된다는 것이다. 즉 다 함께 어울려 우리가 각기 흩어져있는 존재가 아니라 보다 큰 테두리 안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는 소속감과 동질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강릉단오제는 또 다른 기능을 하고 있다. 우리는 사라져가는 거의 모든 '우리 문화'를 강릉단오제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제례와 굿은 물론이고 그네와 씨름, 농악, 민요, 탈놀이 등이 그것이다. 이런 면에서 생각할 때 강릉단오제는 전통문화를 전승시키고 보급하는 중요한 통로의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강릉을 비롯한 영동지역 사람들은 단오제를 통해 우리의 전통문화를 지키고 보급시켜왔으며 주민이 자발적으로 함께 하는 축제의 체험을 통해 무엇이 우리의 것인가를 흔들림없이 인식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축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동질감을 회복하고 자신이 전승하는 전통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는 바 오늘날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문화라고 하겠다.

2.
강릉농악

무형유산 범주

- 구분 : 국가무형문화재 제11-4호
- 영역 : 전통적 공연・예술

무형유산 내용

- 신명나는 농악으로 풀어낸 농사풀이 대서사시
- 풍년을 기원하며 손발을 맞추니 주술의 세계에서 신명의 세계로
- 전통민속예술의 향기 가득한 강릉농악

신명나는 농악으로 풀어낸 농사풀이 대서사시

농악은 농부들이 모심기, 논매기 등 농사를 지을 때나 여러 의식 및 세시풍속, 마을 행사를 할 때, 농악기를 치면서 흥겹게 춤추는 것을 근래에 일컫는 말이다. 예전에는 다양한 명칭

으로 쓰였다. 농악기의 의미로 말 할 때에는 풍물, 풍장, 사물이라고 부르고, 종교적인 의미로는 굿, 매굿, 지신밟기, 마당밟이라 하였다. 노동 예능으로 볼 때는 두레라 하고, 풍류적으로 말 할 때는 풍장, 풍물이라고도 하였고 직업적인 농악단의 뜻으로는 걸궁, 걸립이라는 말로 통용되어 왔다. 특히, 『후한서』, 『예기』, 『주례』 등의 기록을 보면 '매악昧樂은 무용이다.', '매昧는 무용이다.'라고 하였다. '매악'이라는 말은 당시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무용, 음악 등을 통칭하여 이르는 말이었다. 과거 정초에 농악을 크게 놀았는데 이때의 농악을 '매귀춤', '매귀', '매굿'이라고 하였다. 정초 농악인 '매귀춤'은 농사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해의 온갖 잡스러운 것을 털어버리고, 새해맞이 하던 음악을 '매귀춤'이라 하였다. 마을농악패들이 농악을 치자는 말을 흔히 '매구치자'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여 '매구치자, 매구놀자'라는 말은 농악을 하자는 말이었다. 이러한 농악의 기원은 한민족이 한반도에 정착하여 농경생활을 시작했던 기원전 7세기경의 제천의식에서 농악이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농악은 농사일과 함께 발전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속음악이며, 민속무용이다.

농악은 가을을 추수가 끝나고 마을 사람들이밤낮으로 춤과 노래로 지냈다는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예맥의 '무천'과 같은 제천의식에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고대에 '매악'이라고 한 것도 농악과 같은 음악과 무용을 포함하여 지칭 하였으리라 짐작된다. 농악은 우리나라에서 농업이 발달함에 따라 널리 퍼져 나갔을 것이며, 특히 농사일을 도와주

며 노동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으로 하는 노동조직이 성행함에 따라 더욱 발전하였을 것이다. 공동체로 마을 노동을 장려하고, 우리 농촌의 미풍양속을 반영하며 형성되어 발전하였다.

강릉은 예부터 소박한 향토농악을 비롯하여, 독특한 전통문화 예술이 보존, 전승되어 내려오고 있는 영동지방의 중심지이다. 강릉은 오랜 옛날부터 수릿날이 되면 농악이 전체행사의 분위기를 복 돋아줄 뿐만 아니라 이끌어가며 주민들 전체를 흥겹고 즐겁게 해주며, 친목과 화합의 기틀을 다지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



2018 강릉농악(지신밟기)

강릉농악의 특색은 서낭굿이 없고 지신밟기가 있다. 각각의 사설이 길고 다양하며, 횃불놀이나 두레굿 그리고 바닷가에서 펼치는 풍어제[뱃굿]가 있다. 농악대원의 수는 사물四物, 소고, 법고, 무동이 각각 동수로 편성되며, 복색은 벙거지와 상모가 독특하며 고깔이 이색적이다. 또한 음악적 특색은 가락이 외가락인 점과 무용에서는 소고춤과 무동춤 그리고 농사풀이의 판굿 연행에서 독특한 춤사위를 찾아볼 수 있다.

강릉농악의 편성은 농기수, 호적[새납, 날날이], 상쇠, 부쇠, 삼쇠, 징수, 장구수, 큰북수, 소고수, 법고수, 무동 등으로 되어 있는데, 판굿을 할 때의 진풀이가 '멍석말이'와 '진놀이'정도로 단조롭다. 인사굿, 뒷굿, 발맞추기, 무등타기는 근래에 판굿을 짜면서 생긴 놀이라 할 수 있다. 강릉농악에서 다른 지방의 농악에 비하여 특별히 다른 것은 '농사풀이'라는 농경모의적 주술적 몸짓춤이라 할 수 있다.

강릉농악은 1985년에 국가무형문화재 제11-4호로 지정되었으며, 2014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오늘에 이른다. 농악패 무동 출신으로 홍제동 농악대를 이끌다가 답교농악을 조직한 상쇠 박기하朴基河(1920~)가 예능보유자로 인정되었다. 1989년에는 사천면 하평농악을 이끌다 함께 답교농악 조직에 참여한 부쇠 김용현金龍泫(1929~2003), 2006년에는 월호평동 농악대의 상쇠 정희철鄭喜澈(1934~)이 추가로 인정되었다. 전수교육조교로는 두산동 풍물패의 상쇠·새납 최현규崔鉉圭(1919~2008)가 1987년, 저동 풍물패의 상쇠 차주택車柱鐸(1940~), 최동규崔東圭(1942~)가 1992년, 사

천농악대 소고의 김남수金南洙(1955~)와 성덕농악대 상쇠·장고의 손호의(1959~)가 2006년에 인정되었다. 이후 강남농악대 상쇠·장고의 서수희徐秀姬(1964~)가 2014년에 인정되었다.

강릉농악이 마을농악과 마을 공동체적 예술세계를 잘 보여주며, 이는 세시풍속과 조화롭게 우리 강릉지역의 특질과 함께 잘 맞물려 세시농악으로 발전해 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는 과거 우리 농촌의 삶이 농악과 함께하는 것이었으며, 다목적의 기능을 가진 멋스러운 종합예술이었음을 알 수 있겠다. 농악의 악기 연주는 음악이요, 힘찬 몸짓은 무용이요, 그 속에서 부르는 고사소리나, 비나리 그리고 김매기 소리는 노래였다. 그야말로 가무악歌舞樂의 실제가 그 속에 녹아 들어있다.

강릉농악 시연하는 전승자 모습



1) 정월지신밟기농악

정월 대보름날부터 사나흘 동안 마을 집집을 돌며 덕담고사를 하고 지신을 밟아 주는 농악이다. 이때 지신밟기 하기 전에 마을의 당에서 서낭굿을 친다. 서낭굿은 '서낭님 서낭님 동구밖에 서낭님'이라는 사설과 그것에 맞는 가락을 친다. 서낭굿－문전굿－마당굿－조왕굿－성주굿－측간굿－용왕굿(우물고사)－장독굿 순으로 집안의 구석구석 지신을 밟아 준다. 마을의 대가집에서는 마당굿을 할 때 멍석말이, 황덕굿, 진놀이, 농사풀이, 자매놀이 등의 판굿을 더 얹어서 놀아 준다.

(1) 문전굿 : 농악대가 대문 앞에 당도하여 가락을 잠시 멈추고 상쇠가 문전굿풀이를 한다. 문전굿풀이는

'주인님 주인님 문열어 주시오 많이많이 복을 안고 이 문전에 들어가니 주인님 문열어 주십시오.'

라고 한다.

(2) 덕담고사 : 농악대가 마당 앞에 와서 한바탕 놀고 나면, 안주인은 고사상을 차린다. 고사상 앞에서 바깥주인이 절을 두 번 하고 물러나면, 상쇠가 고사상 앞에 나가 절을 두 번 하고 덕담고사를 한다.

(3) 조왕굿 : 고사덕담을 마치고 부엌으로 들어가 조왕굿을 친다. 조왕굿에는 사설이 없고 삼채가락만을 신나게 치는 것으로 대신한다.

(4) 장독대굿 : 뒤꼍에 있는 장독으로 농악대가 옮겨가 장독대를 둘러싸고 삼채로 한바탕 굿을 친 후 사설을 한다.

'아아 흐이 금년에 온 이 명당에 들어들어 만사를 대통하고

장독정신 댁내 축원 바람 드리오니 명랑이 하감 하실적에 가내家內정신 장독정신 사해용왕님은 호방지신님 차차례 세세히 감동하옵시고 이 명당에 금년에 가온 만복을 가득가득 도와주옵소서.'
라고 한다.

(5) 용왕굿 : 용왕굿은 우물 앞에서 한다. 농악대가 우물을 사이에 두고 삼채로 굿을 한바탕 친 후 상쇠가 용왕굿풀이를 한다. 용왕굿을 마지막으로 다른 집으로 옮겨간다. 용왕굿풀이는

'아아 흐이 용왕님전 비나이다 비나이다 사해 용왕님전 비나이다 동해는 광리왕 남해는 광연왕 서해는 광비왕 북해는 광덕왕 사해 용왕님이 이 명당에 왕림하셔 물이 출렁출렁 이 명당에 가득가득 사해 용왕님전에 축원 바람 드리오니 세세강림을 하옵소서.'
라고 한다.

2) 정월대보름 달맞이농악

강릉에서는 정월대보름날 마을의 높은 산에 올라 달맞이를 하며 한 해의 소원 성취를 기원한다. 이 때 보름달이 떠오르면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농악놀이를 하는데 이를 정월대보름 달맞이농악이라 한다.

3) 정월대보름 다리밟기농악

이 농악은 정월대보름날 달맞이를 하고 나서 농악대를 앞세우고 마을 사람들이 마을의 다리를 밟으러 나갈 때 한다.

이를 다리밟기농악이라 한다.

4) 2월 좀상날 답교농악

이 농악은 2월 초엿새 좀상날에 다리를 밟으며 하는 농악이며, 2월 좀상날 다리밟기농악 이라고도 한다. 이 농악은 주로 사천면 하평리 마을에서 전승된다. 하평마을에서는 대보름과 좀상날에 두 번이나 다리밟기를 하였다. 다리를 밟을 때 농악대의 상쇠가

"앗따! 이다리 잘 놓았다. 술렁술렁 건너가자"

하고 소리를 메기면 나머지 사람들이 합창으로 함께 따라 부른다. 또한 다리의 중간쯤에서 달을 향하여 상쇠가

"술령수 ○○년 이월 좀상날 이 다리 밟고 금년 농사 대풍으로 이루어주시오"

라고 술령수를 치고 다리밟기를 계속한다.

5) 횃놀이농악

이 농악은 정월대보름날 달맞이를 하고 나서 농악대를 앞세우고 마을 사람들이 마을의 다리를 밟으러 나간다. 이 때 하는 농악을 다리밟기농악이라 하고, 달맞이나 다리밟기를 할 때 마을과 마을 사이에 싸움이 있었는데 이를 다리뺏기싸움이라 하며, 이 때 울리는 농악을 횃놀이농악이라 한다.

6) 걸립농악

강릉지역 농악패들이 마을 농악대의 기금과 마을 공동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각 가정을 방문하여 벌이던 농악이다. 예전

에는 절걸립, 서낭걸립, 다리걸립, 서당걸립도 했지만, 다리걸립이 후대까지 많이 남았다. 이 농악은 상쇠의 인솔로 먼저 마을 서낭당에 들려 서낭굿 농악을 한다. 그리고 서낭님을 농기(굿대)에 모시고 마을 우물에서 우물고사를 지낸다. 이후 각 가정을 방문하여 본채와 장독, 부엌, 측간(화장실)을 차례로 돌며 고사반을 하고 주인과 함께 마당에서 지신밟기를 하며 가정의 평안과 복을 기원한다. 농악대의 걸립굿이 끝나면 주인은 음식을 장만하여 농악대를 위로하고, 곡식이나 현금을 내 놓으면 이를 모아 마을기금이나 농악대의 기금으로 활용한다. 강릉지역에서는 다리걸립이 유명했었다.

7) 화전놀이농악

화전놀이농악은 봄농사가 끝나고 모심기를 하기 전 마을 사람들이 농악을 갖추고 화전놀이를 하러 간다. 이 때 하루 꽃구경과 함께 농악놀이를 하였다.

8) 질먹기농악

모내기와 아이, 두벌, 세벌 김매기가 끝나면 그 동안 질을 짜서 일을 했던 품 계산을 하고 농군을 위로하기 위하여 마을마다 날을 받아 질먹기를 하였다. 집집마다 좋은 음식과 술을 장만하여 농군들을 잘 대접하였으며 이 때 마을 주민과 전체가 어울리는 흥겨운 농악이 질먹기농악이다.



2018 강릉농악(질먹기농악)



9) 강릉단오대관령 서낭제길놀이농악

음력 5월 3일 강릉단오제의 대관령국사서낭님 내외분을 모시고 강릉여서낭당에서 남대천 가설굿당으로 행차하는 영신행차에서 하는 길놀이 농악이다. 강릉농악 가락의 흥겨움이 강릉단오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한다.

10) 뱃놀이농악

뱃놀이농악은 여름농사가 끝나고 마을 농악대를 꾸려서 농군들이 바닷가 마을에서 배를 빌려 하루를 흥겹게 노는 것을 말한다. 대체로 이 뱃놀이가 끝나면 가을농사 절기로 접어든다.

풍년을 기원하며 손발을 맞추니 주술의 세계에서 신명의 세계로

강릉농악은 농기수 1, 쇄납 1, 상쇠 1, 부쇠 1, 삼쇠1, 열두발상모 1, 징수 2, 장고수 2, 북수 3, 법고 8, 소고 8, 무동 8명으로 편성된다. 강릉농악에는 잡색이 없다.

1) 편성

강릉농악의 악기 구성은 꽹과리, 징, 장구, 북, 소고, 법고, 쇄납[호적, 날라리] 등이 있으며 소고와 법고가 구별된다.

(1) 농기 : 흰바탕 광목에 검은 글씨로 '農者天下之大本'이라 썼고, 옆은 검은색의 삼각술을 달고 하단에는 붉은색, 노란색, 청색의 술을 길게 달았다. 20m 정도의 농기 꼭대기에는 꿩장목을 매단다.

(2) 꽹과리 : 악학궤범에 소금小金으로 기록하고 있다. 강릉

에서는 이를 '꽹쇠'라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음색이 강하고 높은 것을 '숫꽹과리'라 하고 상쇠가 치며, 음색이 부드럽고 낮은 것을 '암꽹과리'라 하고 부쇠가 친다. 농악놀이의 전 과정은 상쇠의 지휘에 따라 진행 된다. 강릉농악은 상공(상쇠), 부쇠, 삼쇠로 구분한다. 꽹과리 채 끝에는 청, 황, 홍 또는 백, 홍, 연두의 삼색천 너설을 30㎝정도로 매단다.

(3) 징 : 이 악기는 악학궤범에 대금大金으로 기록하고 있다. 정鉦, 금정金鉦, 금金, 금라金鑼, 나鑼 등 여러 이름이 있으나 모두 같은 종류의 악기로 '징' 같은 것이다. 전두리에 뚫린 구멍에 끈을 달고 한 뼘 정도의 나무로 손잡이를 만든다.

(4) 북 : 경기농악의 북과 같다.

(5) 장고 : 오른손에 채 장杖를 들고 오른손으로 북쪽을 친다 하여 장고杖鼓라 하였다 한다. 또 공명통의 양쪽머리는 크고 중간 허리는 가늘다 하여 세요고細腰鼓라는 이름도 있다.

(6) 소고 : '소구'라고도 부르며, 작은 법고와 구별된다. 남부 지역에서는 '매구북' 이라고도 한다. 통의 지름 26㎝, 높이 6㎝정도, 자루는 9㎝정도다. 양쪽 면에 개가죽을 대고 팽팽하게 얽어맨다. 대나무로 30㎝정도의 채를 만들어 친다. 소고잽이는 8명으로 '상소고', '둘째소고' 식으로 불러 마지막 소고를 '끝소고'라 한다.

(7) 법고 : 흔히 '벅구' 또는 '미지기'라 부르는데, 소고보다 작으며 지름이 18㎝, 높이 4㎝정도의 개가죽을 양쪽에 붙여 만든다. 자루가 없이 손으로 끈을 감아쥐고 치고, 법고채는 가는 막대기를 사용한다. 잽이는 '상벅구'에서 '끝벅구'로 구분해서 부른다.

(8) 태평소 : 흔히 '쇄납', '호적', 또는 '날나리'라고도 한다. 이러한 명칭은 외래 악기임을 암시한 이름이다. 호적은 호인胡人 즉, 몽골인의 피리라는 뜻이다. 태평소와 비슷한 악기를 이란에서는 '수르나이', 인도에서는 '쉐나이', 터키에서는 '소르나'라고 부른다. 중국에서는 '소나라'라고 하는데 이것이 쇄납을 중국어 발음으로 읽은 것이다. 태평소는 의식음악과 함께 농악에서 흥을 돋우고 불교음악, 시나이, 무용반주 등에서 널리 사용한다.

(9) 상모 : 상모지가 달린 벙거지를 상모라 한다. 이 상모는 짚으로 엮어서 만들거나 문종이를 붙여서 만들었다. 상모 꼭지는 나무로 깎아서 '우늘' 또는 '꼬두마리'라는 작은 꼭지를 단다. 꼬두마리에는 실을 꼬아 고리를 만들고, 고리 끝에 구슬을 꿴다. 구슬이 없으면 올무를 써서 굵은 실을 1척 가량 다는데 이것을 '채'라 한다. 채 끝에는 '상모지'라 하여 길이 90㎝정도의 백지를 달고 끝은 제비초리와 같게 가운데를 잘라낸다. 구슬이 없으면 한 치 정도 되는 흰 종이를 가늘게 썰어서 빽빽하게 다는데 이를 '펵' 이라 한다. 상모는 상모지기 달린 것과 상모지를 달지 않은 방망이 상모 두 종류가 있다.

(10) 고깔 : 무동과 기수, 쇄납이 머리에 쓰는 것을 고깔이라 한다. 한 변이 30㎝쯤 되는데 문종이를 네모로 접어서 만든다. 얇은 종이를 백, 청, 황, 적색으로 물들여 만든 종이꽃을 30~40개까지 빽빽하게 다는데 우리나라 농악대 중에 꽃의 수가 가장 많다고 한다.



2018 강릉농악
(질먹기농악)

2) 복식

농악 복식은 기본적으로 삼베옷 또는 흰색 바지저고리를 입는다. 그리고 신발은 짚신을 신고, 무동을 제외한 전 농악대는 행전을 친다.

(1) 농기수 : 흰 바지저고리를 입고 양 어깨에 청색, 홍색, 황색 삼색 띠를 어깨와 허리에 두르고 고깔을 쓴다. 행전을 친다.

(2) 쇄납 : 복장은 농기수와 같다. 행전을 친다.

(3) 상쇠 : 강릉농악에서는 상쇠를 상공이라고도 한다. 흰 바지저고리에 남색 등지기를 걸친다. 그 위에 삼색 띠를 매고, 상모지가 달린 채상에 벙거지를 쓴다. 행전을 친다.

(4) 부쇠 : 상쇠와 다르지 않다. 부쇠는 남색등지기를 입지 않는다. 행전을 친다.

(5) 삼쇠 : 상쇠와 다르지 않다. 삼쇠는 남색등지기를 입지

않는다. 행전을 친다.

(6) 징수 : 흰 바지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삼색 띠를 매고, 상모지가 없는 방망이 상모를 쓴다. 행전을 친다.

(7) 장고수 : 흰 바지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삼색 띠를 매고, 상모지가 없는 방망이 상모를 쓴다. 행전을 친다.

(8) 북수 : 흰 바지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삼색 띠를 매고, 상모지가 없는 방망이 상모를 쓴다. 행전을 친다.

(9) 소고수 : 흰 바지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삼색 띠를 매고, 퍽을 단 벙거지를 쓴다. 행전을 친다.

(10) 법고수 : 흰 바지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삼색 띠를 매고, 상모지가 달린 상모를 쓴다. 행전을 친다.

(11) 무동 : 붉은 치마에 노랑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쾌자를 걸친다. 삼색 띠를 매고, 고깔을 쓴다. 지금도 남자가 무동을 할 때는 말총머리를 매달기도 한다.

3) 쇠가락

강릉농악의 가락은 억세고 활달하며 강건한 느낌을 준다. 이는 가락의 속도가 다른 지역의 가락에 비해 빨라서 그러하다. 외가락을 길고 반복하게 써서 맺고 풀어가는 변화가 단조롭다. 하지만 힘이 있고 그 가락을 따라 많은 인원의 농악대원이 일사불란하고 역동적으로 뿜어내는 춤사위는 마을농악 즉, 공동체 농악의 힘을 보여주는 것으로 강릉농악의 가장 특질적인 요소인 것이다. 중요한 쇠가락은 강릉농악에 쓰이는 쇠가락에는 일채, 이채, 삼채, 사채, 길놀이(신식행진가락), 굿거리, 구식길놀이 따위가 쓰인다.

(1) 일채 : 마당굿(판굿)에서 흔히 쓰이는 쇠가락이다.

(2) 이채 : 2분박 좀 빠른 4박자이며, 꽹과리는 아래와 같이 친다.

(3) 삼채 : 3분박 좀 빠른 4박자(8분의 12박자)이다.

(4) 사채 : 3분박 빠른 4박자(8분의 12박자)이다.

(5) 길놀이 : 신식행진가락이라 한다. 행진에는 길놀이 가락을 치는 것이나, 최근에는 행진에 2분박 좀 빠른 4박자(4분의 4박자)로 친다.

(6) 굿거리 : 춤출 때 치는 가락으로 3분박 좀 느린 4박자(8분의 12박자)이다.

(7) 12채 : 구식 길놀이 가락이라 한다. 행진할 때 치는 가락으로 3분박 보통 빠른 4박자(8분의 12박자)로, 경기농악의 굿거리와 같다.

4) 춤사위

강릉농악의 소고춤과 무동춤은 매우 역동적이다. 여러 과장에서 만날 수 있고, 등장하는 소고와 무동의 춤사위는 바로 일상적인 동작으로 달리듯 뛰어 나오는 동작이다. 그리고 음악 가락과 모두 조화되어 경쾌하고 힘이 있으며 진취적이다.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간단한 동작이 연속적으로 반복될 때 분출되어 나오게 되는 상승의 힘인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그 힘이 공동체적으로 수 십 명의 힘이 합쳐질 때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사풀이 과장은 농사짓던 모습을 그대로 모의동작과 춤으

로 함께 엮어낸다. 그야말로 일과 놀이가 한데 어우러지고 하나 되어 조화롭게 흥을 돋우어 일의 능률을 높이고 생산력을 향상시킨다. 실제 농사일의 몸짓이 가락을 타면서 춤사위로 정형화하여 쉽고 간단하게 무언극처럼 나타내는데, 그러한 과정이 춤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악기와 소도구를 모두 농기구화 하여 농무農舞로 보여 준다. 상모춤과 열두발상모춤에서는 다양한 춤사위가 있다.

〈상모사위〉

○ 외상치기(외사) – 머리에 쓴 상모를 한 쪽으로 돌리는 사위이다.

○ 양상치기(양사) – 상모를 양쪽으로 번갈아 돌리는 것을 말한다.

〈열두발상모사위〉

○ 서서 돌리기 – 선 자세로 상모를 돌린다.

○ 팔짱끼고 돌리기 – 팔짱을 낀 채로 돌린다.

○ 책상다리 앉기 – 책상다리로 앉아서 팔짱 끼고 돌린다.

○ 옆 누워 돌리기 – 옆으로 누운 채로 돌린다.

○ 구르는 사위 – 데굴데굴 구르는 시늉을 하며 상모를 돌린다.

○ 거북 사위 –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기어가는 걸음걸이로 상모를 돌린다.

○ 개구리 사위 – 순간적으로 개구리처럼 펄쩍펄쩍 뛰어가며 돌린다.

특히 강한 가락과 이에 맞추어 투박한 남성이 춤을 추는 소고춤과 무동춤은 강릉농악에서만 볼 수 있는 특유의 몸짓이자 곧 춤사위다. 이것이 강릉농악의 명품이다. 강릉농악의 춤사위는 예쁘게 추는 춤사위가 아니었다. 남성들의 거칠고 억세고 힘찬 춤사위가 강릉농악 춤의 상징이다. 이처럼 강릉농악에서 볼 수 있는 춤은 삶의 어려운 응어리를 한 번에 풀어내는 감동의 예술세계이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게 한다. 진정 신명나는 신바람의 놀이판이자, 춤판이다. 이러한 판이야말로 우리 농악의 모습이다. 남녀노소가 참여한 진정한 의미의 화합의 공동체 예술마당이다. 그것은 바로 우주 자연과 일치한 건강하고 역동적인 삶의 살아있는 예술적 승화의 '판'을 이루는 것이다.

강릉농악은 단순한 오락물이 아니며, 생산현장에서 생산을 돕는 노동무의 구실이 컸고, 풍요를 기리는 제사의식까지 확대되어 음악을 바탕으로 한 가무악歌舞樂의 종합예술로 발전한 것이다. 또한 걸립농악은 보통 마을의 공동기금을 모으기 위한 것으로, 먼저 서낭굿을 하고 마을우물에 가서 용왕굿을 한 다음 가가호호의 고사굿을 해주고, 대가집의 마당에 모여 걸립농악패의 특기를 보여주는 판굿을 한다. 농악무는 흔히 굿거리, 자진모리, 휘모리와 같은 장단으로 연행되며, 굿거리 춤사위는 구성지고 부드러우며 자진모리 춤사위는 흥겹고 휘모리 춤사위는 씩씩하고 활기찬 남성 춤사위를 보여 준다.

강릉농악의 판굿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사굿 – 두루치기 – 발맞추기 – 성황모시기 – 칠채멍석말이 – 오방지신밟기 – 황덕굿 – 농사풀이 – 오고북놀이 – 삼동고리 – 열두발상모 – 굿거리 – 뒷풀이

오늘날 강릉농악의 판굿은 강릉농악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받으며 거의 굳어진 상태이다. 이러한 사정은 지정 받을 당시의 가락과 춤사위 그리고 판굿을 원형대로 지켜야 한다는 보존의 철학이 철저하게 지켜진 까닭이다. 앞에서도 살폈듯이 강릉지역에는 여러 종류의 농악이 존재했다. 그러나 60년대~70년대를 지나면서 농사풀이 중심의 판굿이 강릉농악 판굿의 대세를 이루었다. 이를 바탕으로 인근지역 즉, 영동농악문화권의 판굿에 그대로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 농사풀이 판굿은 강릉농악의 가장 큰 특질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여타의 농악에 그대로 영향을 주어 현재에는 지신밟기농악이나, 걸립농악의 모습은 찾아보기가 그리 쉽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전승되고 있는 판굿도 농사풀이 중심이어서 다른 종류의 농악에서 볼 수 있는 좋은 내용을 발견하기가 어려워 졌다. 판굿은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가락이나 마당을 상쇠가 적절하게 연출하여 그 모양새를 좋게 판으로 짜는 것을 말한다. 강릉농악의 판굿에서 인사굿, 두루치기, 발맞추기의 경우, 이는 판굿의 내용으로 보기 보다는 음악의 가락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황덕굿과장은 판굿의 농악놀이에서 어두워지면 큰 불을 피워 놓고 하던 놀음이다.



강릉농악 마당굿

마당굿[판굿]은 질 먹을 때, 걸립굿 중에서 대가댁 마당놀이 때, 봄철의 화전놀이 때에 농악대가 갖가지 기예를 펼쳐 보이는 것이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제11-4호로 지정된 강릉농악도 이 마당굿을 중심으로 연행된다. 강릉농악의 마당굿의 보편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인사굿 : 농기, 날나리, 상쇠, 풍물, 소고, 법고, 무동 등의 순으로 12채 길가락을 치면서 한 줄로 서서 놀이판으로 들어온다. 장단이 4채로 바뀌면 상쇠, 농기, 날나리는 앞에 서고, 풍물, 소고, 법고, 무동이 각각 한 줄씩 4열 횡대로 구경꾼을 향해 판을 짠다. 판이 다 짜이면 제자리에서 가락이 1채 → 2채 → 3채로 빨라진다. 삼채에 맞추어 전 대원이 좌우로 움직이고, 1채, 2채로 가락이 바뀌면서 상모를 돌리고,

발을 올리는 등 무동의 춤사위가 빨라진다. 그리고 구경꾼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이는 근래에 농악이 공연화 되면서 생긴 것이다.

⑵ **두루치기** : 인사가 끝나면 4채를 치면서 인사굿 판을 큰 원으로 푸는 과정이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과정이다. 상쇠가 풍물패를 데리고 먼저 시계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면 소고, 법고, 무동이 각각 뒤를 따라서 큰 원을 만든다.

⑶ **발맞추기** : 대형이 네 개 가락에 맞추어 큰 원을 이루면 3채・2채・1채로 가락이 변하면서 발을 맞춘다. 3채 가락에서는 모든 대원들이 한 발 한 발 오른쪽 옆으로 돈다. 2채・1채 가락에서는 제자리에서 상모를 돌리고 발을 교대로 올리고 무동들의 춤사위가 빨라진다. 한바탕 놀고 난 뒤 성황모시기로 들어간다. 발맞추기 또한 근래 제식훈련의 영향으로 생긴 것 같다.

⑷ **성황모시기** : 성황모시기는 마을의 서낭신을 모시는 의식이다. 강릉농악에서도 지신밟기 농악을 하기 전에 서낭당에 가서 서낭굿을 친다. 서낭굿을 치고 나면 다시 농악대들은 서낭기를 앞세우고 악기를 치며 가가호호 지신밟기를 원하는 집에 들러 지신밟기를 하게 된다. 이 놀이는 우리 민속놀이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제의부분에 해당된다. 우리 민속놀이는 신을 제일 먼저 위하고 모셔서 그 신의 가호 아래에서 복을 빌고, 재액을 물리치고 놀이를 했던 원초적 의식의 하나이다.

성황모시기 가락에 맞춘 사설은 다음과 같이 '성황님, 성황님, 동구 밖에 성황님'이 된다. 발맞추기의 원형에서 가락이 4채로 바뀌면, 농기가 끝무동 앞에 가서 전체 대형을 중앙으로 말아 들인다. 대형이 완전히 말리면 농기 주위에 서 있던 무동들이 자리에 앉고 상쇠가 사설을 한다. 상쇠의 간단한 사설이 끝나면 반절을 하고 무동들이 일어나서 성황을 놀린다. 그런 다음 모든 농악 대원들이 큰절을 두 번 하고, 가락이 3채, 2채, 1채로 바뀌어가면서 한 번 논다. 4채로 가락이 바뀌면 상쇠가 앞장서서 말아 들어올 때와 역순으로 풀어내면서 큰 원을 만든다.

⑸ 칠채 멍석말이 : 4채 가락으로 큰 원이 만들어지면 7채를 치면서 상쇠가 앞장서서 멍석말이를 했다가 풀어 나온다. 멍석이 다 풀려지면 4채 가락으로 다시 큰 원을 만든다.

⑹ 오방 지신밟기 : 4채를 치면서 풍물은 풍물대로, 소고는 소고대로, 법고는 법고대로, 무동은 무동대로 작은 원 네 개를 만든다. 상쇠가 이들 원의 중앙에 서서 가락을 3채, 2채, 1채로 바꾸면서 놀다가 상쇠가 쇠를 한 번 꺾으면 모든 대원들이 제자리에서 앉았다 일어서면서 한 바퀴 빙 돈다. 다시 4채를 치면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간다.

⑺ 황덕굿 : 황덕은 영동 지역의 말로 '횃불', '모닥불'의 다른 말이다. 황덕굿이란 바로 마당에 불을 피워놓고 노는 것을 말한다. 예전에 동네 안에서 집터를 다질 때나 다른 마을로

농악대가 불려가서 놀 때는 주로 저녁에 연행되었기 때문에 놀이판에는 항상 황덕이 피워졌다. 그래서 황덕굿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축제의 놀이판에서 불(火)로써 나쁜 모든 것을 정화淨化하고자 하는 주술의식의 하나이다. 이는 불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질병과 죽음으로 위협하는 해로운 존재들을 태워버림으로써 정화하는 기능으로 불(火)이 사용되었다는 이론에 비추어 볼 때 놀이 또한 불의 주술적 성격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놀이 과장이라 하겠다. 대부분의 과장이 큰 원대형에서 다음 과장으로 넘어가지만, 황덕굿(소고, 법고, 무동), 농사풀이 등은 ㅁ자형 대형에서 주로 연희가 이루어진다. 4채를 치면서 큰 원의 대형을 풍물, 소고, 법고, 무동의 순으로 ㅁ자 대형을 갖춘다. 풍물패들은 항상 같은 자리에서 장단을 친다. ① 무동 황덕굿, ② 법고 황덕굿, ③ 소고 황덕굿의 순서로 친다.

① **무동 황덕굿** : 사각형 대형이 만들어지면 무동들이 놀이판 중앙으로 들어가서 원형을 이루어 삼채, 이채, 일채에 맞추어 놀다가, 가락을 꺾어주면 제자리에서 앉았다 일어서면서 한 바퀴를 돌고 다시 사채 가락에 맞추어 풀어나가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동안 나머지 대원들은 제자리에서 좌우로 움직이면서 가락을 치며 논다.

② **법고 황덕굿** : 법고패가 놀이판 중앙에 들어가 한바탕 논다. 가락과 연희 방법은 소고 황덕굿과 같다. 법고 황덕굿을 놀 때는 무동패가 법고패 자리로 와서 놀다가 법고 황덕굿이

끝나면 법고패의 뒤를 따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③ **소고 황덕굿** : 앞의 무동, 법고 황덕굿과 동일하게 연희한다.

⑻ **농사풀이** : 농사풀이는 강릉농악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대목으로, 농민의 마을농악, 두레농악의 특색을 지니고 있다. 연희는 ㅁ자형 대형에서 이루어지고, 소고, 법고, 무동들이 나와서 1년 동안의 농경생활을 동작으로 나타내는 이른바 농경모의農耕模擬가 시작된다.

농사풀이는 강릉농악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주목할 만한 대목으로 농민들의 소박한 풍년기원의 마을농악과 두레농악의 특색을 지니고 있다. 이 놀이는 한 해 동안의 농경생활을 동작으로 나타내는 이른바 농경모의적 모방주술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 ○ 가래질 : 꽹과리, 징, 장고, 무동들은 제자리에서 연주하고, 세 사람은 가래질하고, 한 사람은 땅을 밟아주며, 또 한 사람은 땅을 고르는 동작을 한다.
- ○ 논갈이와 논삶기 : 한패는 농부가 되어 논갈이하는 동작을 하고, 한패는 써래질로 땅을 고르는 모의적 동작을 한다.
- ○ 못자리 누르기 : 잽이 쪽을 보고 못자리를 누르는 동작을 한다.
- ○ 모찌기 : 모를 양손으로 찌는 흉내를 내면서 전진한다.

○ 모심기 : 한 패는(소고, 법고잽이들) 모를 심는 동작을 율동적으로 하고, 다른 한 패는 (무동패들) 모를 나르는 흉내를 낸다.

○ 논매기 : 소고, 법고, 무동들이 원형이 되고 원 중심에 징과 부쇠가 들어가 논매기소리를 부르면서 논매는 시늉을 하고, 원의 중심으로 들어간다. 이때 부르는 논매기소리는 자진아리랑이며 선후창으로 부른다.

아리아리 아리아리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매어주게 매어주게 바다같은 요논매미 매어주게
아리아리 아리아리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슬아침 만난 동무 해가 지니 이별일세
아리아리 아리아리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넘어가세 넘어가세 대관령 맑으로 해넘어가세
아리아리 아리아리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 낫갈기 : 소고와 법고가 한 줄로 앉아서 소고를 발 사이에 끼고, 소고채로 낫을 가는 흉내를 낸다.

○ 벼베기 : 소고와 법고가 한 줄로 앉아서 채로 벼를 베어서 묶는 동작을 하고, 무동패는 들고 날며 볏단을 나른다.

○ 벼광이기 : 무동 8명이 한 덩어리가 되어 상쇠의 지휘로 사람들을 X형으로 세워 볏단을 세우는 모의 동작이 되게 한다.

○ 태치기 : 법고들이 나와서 도리깨질을 하고, 소고는 태치기를 한다.

○ 벼모으기 : 풍년가를 부르면서 무동들을 벼무지가 되고, 소고와 법고는 벼를 원의 중심부로 모으는 흉내를 낸다.

○ 방아찧기 : 법고는 방아가 되고, 소고 등은 방아의 중심대가 되며, 무동은 방아찧기와 키질을 한다.

(9) **오고북놀이** : ㅁ자형으로 만들어진 대형에서 오고북(북 3개, 장구 2개)이 제일 안쪽에 위치하여 북장단과 쇠가락을 교차시킨다. 오고북이 제일 안쪽에, 둘째 줄이 무동, 셋째 줄이 법고, 넷째 줄에 소고가 에워싼다.



강릉농악 삼동고리 시연

(10) **삼동고리** : 삼동고리는 3층 무동타기를 말한다. 제일 아래쪽에 4명이 앉고, 그 위에 2명, 제일 위에 1명이 앉는다. 풍물잽이들의 잔가락에 맞추어 제일 아래층이 서고, 두 번째 층, 세 번째 층 순서로 선다. 모든 층이 다 서면 제일 위층에 올라간 사람이 상모를 돌린다. 앉을 때는 제일 위층에서 차례차례로 앉는다. 삼동고리가 다 만들어진 후에는 한바탕 어울린다. 이러한 개인 놀이는 마당굿 끝에 보여주는 것으로 동고리, 열두발 상모, 법고춤 등 여러 가지가 있다.

(11) 열두발 상모 : 열두발 상모를 쓰고 놀이판 중앙에 나가 노는 과장이다. 뒤에서 손을 합치고 외사, 뒤에서 손을 합치고 양사, 땅에 엎드려 외사 등의 묘기를 이채에 맞추어 보여준다.

(12) 굿거리 : 굿거리 장단에 추면서 무동을 제일 안쪽으로 하여 모여들었다가 3채, 2채, 1채, 굿거리로 다시 풀어 나온다.

(13) 뒷풀이 : 뒤풀이는 구경꾼과 농악패들이 어우러져 노는 열린마당이다.

전통민속예술의 향기 가득한 강릉농악

1) 역사성

농악은 농사일과 함께 발전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속음악이며, 민속무용이다. 농악은 우리나라에서 농업이 발달함에 따라 널리 퍼져 나갔을 것이며, 특히 농사일을 도와주며 노동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으로 하는 노동조직이 성행함에 따라 더욱 발전하였을 것이다. 공동체로 마을 노동을 장려하고, 우리 농촌의 미풍양속을 반영하며 형성 발전 하였다.

강릉농악은 역사시기 문헌에서 그 흔적과 편린을 찾을 수 있다. 조선시대의 성현, 남효온, 허균 등의 시문집에서 그 기록이 나타나고 일제강점기 일본학자의 강릉단오제 조사보고서에도 그 일면의 기록이 보인다. 강릉농악의 양태가 두드러지는 시기는 일제강점기의 1930년대 농악경연대회가 그것인바, 대회의 규모로 보아 강릉지역의 농악의 실태는 실로 대단

한 지역 공동체 예술의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후 1985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1-4호로 지정되었으며, 2014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오늘에 이른다.

2) 향토성

강릉농악은 강릉시 일원에서 특유의 쇠가락이나 판굿이 연행된 것이다. 강릉농악을 영동농악의 대표로 지칭하고 있어서 강릉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 일대로 그 영향을 주고 있었던 사실로도 향토적 정체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공동체성

강릉농악은 강릉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으로 지속이 되었으며, 기층적인 종교인 서낭제의 의식과 색채를 지닌다. 동시에 판굿공간은 열린 공간으로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의식과 놀이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축제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 또한 강릉시의 전통문화예술을 풍요롭게 하고 강릉시민들의 문화적, 예술적 긍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4) 예술성과 전문성

강릉농악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면 가무악의 다양한 예술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음악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한 쇠가락을 볼 수 있으며, 무용적인 측면에서는 법고, 소고, 무동들이 함께 어우러져 엮어내는 춤사위는 독창적이고 역동적이며 예술적인 모습으로 연행되고 있다. 특히 강릉농악의 소고춤

은 다른 농악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춤사위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지신밟기, 걸립농악에서 볼 수 있는 사설의 내용과 양태 또한 다양하고 긴소리를 지니고 있다. 강릉농악은 연행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음악, 무용 등의 풍부하고 훌륭한 종합예술적 가치와 전문성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5) 학술성

강릉농악은 신명이나 신바람 그리고 흥이 있는 놀이다. 춤과 풍물 그리고 소리, 이 모든 것이 신명을 피우고 흥을 돋으면서 노는 놀이다. 강릉농악의 이 신명의 근원은 원초적으로 마을제의와 관련을 맺고 있다. 마을의 제의, 마을 굿은 주술적인 것임을 말할 나위가 없다. 서낭신을 모시고 마을 전체의 생생력生生力과 풍요豊饒를 확보하기 위한 굿인 것이다. 그 굿의 축소판이 바로 농악놀이이다. 이 놀이 속에는 기쁨과 주술적인 목적이 성취된 것처럼, 모든 것이 풍요롭게 충족된 것처럼 만드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 모든 것이 주술이라는 관념적 인식이 작용하여 서낭신과 인간이 함께 하며, 남녀노소, 상하귀천의 구별 없이 모두 흥겹게 열린 축제의 장場으로 어우러져 공동체 조직의 단합과 그 힘을 과시할 수 있게 하는 공동체예술, 전통예술의 정수로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70년대 근대화,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여럿이 함께 하는 힘이 차츰 약화 되었다. 그리고 점차 농악을 치고 노는 기회가 줄어들었다. 예전에는 누구나 마을 사람이면 할 수 있던 농악을 이제는 기능인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었다. 농악은



강릉농악(질먹기농악)



스승을 정하여 배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마을 농악대의 놀이판에서 모두와 잘 어울리며, 일도 배우고, 삶의 지혜도 배우고 그리고 농악도 자연스럽게 익히고 살았다. 강릉농악은 몇몇이 어울려 노는 그런 농악 하고는 사뭇 다르다. 이는 개인놀음에 충실한 그런 농악이 아니다. 모두 함께 할 수 있었던 가락이고, 춤사위이며 소리였다. 강릉농악은 여전히 살아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는 그 지역 고유의 정서 및 풍속 등 향토색이 짙고 지역적 특성이 뚜렷한 무형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시·도무형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3.
강릉 학산 오독떼기

무형유산 범주

- 구분 :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5호
- 영역 : 전통적 공연・예술

무형유산 내용

- 땅과 흥이 나락에 열린 노동요의 세계
- 오독떼기 소리로 전해온 역사를 알다
- 땀의 소리 땅의 노래가 세상에 울리다
- 즈믄 해를 이어온 삶의 소리 오독떼기

일과 흥이 나락에 열린 노동요의 세계

강릉 학산 오독떼기 민요民謠는 민간가요이며 민속노래이다. 『시경』에서 '도가왈요徒歌曰謠'라 하였듯이 민간대중의 노래가 민요라고 할 수 있다. 민요는 민간에서 생성되어 전승되는

무형문화재로서 무형의 자원(Intangible Asset)이며, 가창歌唱 연행演行된 구비전승문학口碑傳承文學이다. 민요는 원시생활에서부터 생산노동과 결합되어 노동의 피로를 경감하며 집단적 노동을 통괄하여 온 그 생산적 기능으로 하여, 그리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억제할 길 없이 가슴 속에서 샘과도 같이 북바쳐 흘러나오는 그 창조적 의욕의 단적인 표현이다. 강릉지역 농업노동요로서 강원도 무형문화재인 '강릉 학산 오독떼기'는 지난 1988년 5월 18일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되었다.

현재 전승되는 노동요는 민요 가운데 가장 원시적이고 본원적인 것으로 농업적 측면에서 모심기노래가 보편적이고 그 중심이라고 평가한다. 일노래인 오독떼기는 땅과 일체감에서 흥겹게 부른 삶의 소리, 땅의 소리, 땀의 소리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질적이고 생명의 핵심을 노래한 정직한 구비문학(Oral literature of candor)이 노동요라고 할 수 있다.

2018 강릉 학산 오독떼기 시연 모습



민요는 노래로 된 구전물이다. 민요는 노래며 동시에 음악이고 문학이다. 민요는 노래이면서도 다양한 소리를 담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소리'라고 말한다. 민요는 기능상 노동노래, 의식노래, 유희노래가 있고, 가창방식에 따라 선후창, 교환창, 독창, 제창으로 나뉘고, 율격에 의해 1음보에서 4음보까지, 분연체와 연속체로 나뉜다. 또한 장르에 따라 서정, 서사, 희곡, 교술 민요로 분류하고, 창자에 의해 남자노래, 여자노래, 어린이노래가 있고 시대에 따라 옛날노래, 근대노래로 나눌 수 있다. 지역별로 경기민요, 남도민요, 서도민요, 강원민요, 영남민요, 제주민요로 나눈다.

노동요는 무엇보다 힘들지만 수확을 기대하는 즐거운 노동요다. 즐거움은 곧 노동의 효율성과 연결된다. 농토가 아닌 일자리는 사실상 어디든 있다. 노동요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농업노동노래 뿐 아니라 토목노동노래, 제분노동노래, 어업노동노래, 채취노동노래, 수공업노동노래, 운반노동노래, 길쌈노동노래, 가내노동노래 등 다양하다. 노동과 부합된 '노동 부합형'이 있으며, 노동과 무관하게 자유로운 가사를 담은 '노동 개방형'도 있다. 농업노동노래인 학산 오독떼기도 예외가 아니다.

학산지역 민요는 오독떼기를 위시하여 무려 13가지가 전한다. 오독떼기, 자진아리랑, 사리랑(세모꺾기), 싸대소리(쌈싸기), 벼베기소리(불림), 타작소리(마댕이소리), 짐지고 가는 소리 등 '노동 부합형'이 존재한다. 다음에는 영산홍, 놀양사거리, 오동동, 새쫓는 소리, 날머리소리, 강릉아리랑 등은 '노동 개방형'에 속한다. 오독떼기의 어원에 대하여 1971년 전주에서



2018 강릉 학산
오독떼기 시연 모습

개최된 제12회 전국민속경연대회에 강원도 대표로 출연한 '강릉 오독떼기 자료집'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오독떼기'의 어원은 '동서남북 중앙의 오독(五瀆)을 떼기(개척)한다'는 뜻이라 하며, 지금도 사투리에 논과 밭을 논떼기, 밭떼기라고 불리운다. 또한 '다섯 번 꺾어 부른다'하여 '오독독'이라고도 한다. 한편 '오들떼기' 또는 '오돌떼기'라고도 불리우는데, '오'는 신성하고 고귀함을 뜻하며, '들떼기'는 들판을 개간·개척함을 뜻하며 신라시대 강릉지방이 변경에 속하여 있어 농경지를 확장할 때 이 노래를 불러 단결과 협동 그리고 일의 능률을 고취시키는 데 활용되어 왔으나 현재는 김매는 때에 제일 많이 불리는 집단노동요이다.

강릉은 옛 글에 '강릉산수갑천하江陵山水甲天下'라고 하여 산수풍광이 으뜸이라 하였다. 이 가운데 학산은 '생거모학산生居茅鶴山(살기에 좋은 곳은 모산과 학산)이라는 말이 전한다. 음양의 풍수를 두루 갖춘 강릉에서 양택풍수로 살기 좋은 학산리인데 유서 깊은 학산팔경은 오래 전부터 전해온 이야기이다. 이 마을은 군자봉으로 둘러싸여 있고 갈미봉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삼석천을 따라 금광평과 같은 넓은 들판을 형성하여 산과 들과 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한 백두대간의 오대산으로부터 기봉한 산자락이 대관령과 성산, 매봉으로 십여 개의 산봉우리가 이어져 마을을 감싸 안아 마치 학이 날개를 펴고 있는 형상이다. 모산에서 학산마을에 이르기 까지 일찍이 인재가 많이 나온 명당길지라 말한다. 문곡골에서는 글 읽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으니 진사급제를 한 사람이 많아 사부향師父鄕이라했고 자손들을 키우기 좋아 양자손養子孫할 곳이라 말했다. 이 마을에는 아직까지 최진사댁, 김진사댁, 정참봉댁, 조진사댁 등의 택호가 불린다.

또한 고려불교의 중심인 굴산사를 창건한 범일국사가 탄생하고 사찰을 건립한 곳으로 불교전통이 이어지는 곳이며, 굴산사 부도탑, 당간지주는 보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오독떼기 농요가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유·무형문화재가 도처에 자리 잡고 있다.

학산마을은 1955년 강릉읍이 성덕면과 경포면이 합쳐져 강릉시가 될 때 그 나머지 지역이 명주군이 됨으로써 명주군 구정면 학산리가 되었다. 이후 1995년 도농통합으로 강릉시와 명주군이 통합되어 강릉시에 편입되었다. 학산리는 강릉

시 남쪽 6㎞에 위치한 350여 호 3개리로 구성된 농촌마을로 마을에는 군자봉을 비롯하여 작은 산이 자리 잡고, 보기 드문 개척대 넓은 평야가 펼쳐지고, 칠성산에서 발원한 깨끗한 학산천이 마을을 가로질러 동해로 흘러든다. 멀리 서쪽으로는 강릉의 안산인 대관령, 남쪽에는 칠성산 남동쪽은 망덕봉 등 수려한 산세가 감싸고 있다.

학산 1리는 양지마을과 버당마을, 음지마을, 서지골이 있고 2리는 새잇마을, 뒷골, 재궁마을, 설래, 옥봉이 있고 3리는 개척대, 광명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마을은 특히 꽤(자두)나무, 감나무, 은행나무, 소나무가 많고 보리, 감자, 고구마, 수수 등의 작물과 배추, 고추, 무 등의 채소를 경작한다. 학산마을은 빼어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 수향秀鄕이라고 하는데 이를 모아 학산팔경이라고 부른다. 그 첫째는 천 년이 넘은 다섯 그루 은행나무로 이것은 학산의 역사이며, 둘째는 그곳에 자리잡은 수 천 마리 흰 학들은 학산의 기상을 보여주고, 셋째는 봄이 되어 온 동네 가득하게 피는 꽤 꽃은 학산의 향기로움이며, 넷째로 고려역사를 말해주는 왕고개와 장안성은 역사의 땅이며, 다섯째로 신라 범일국사는 강릉의 수호신이 되었으며, 여섯째로 굴산사지와 석천우물은 국가문화유적이며, 일곱째 풍년을 노래하는 학산 오독떼기는 우리나라 대표농요로, 여덟째 집집마다 글 읽는 소리는 문향文鄕으로서 선비마을의 전통을 이어주고 있다고 전한다.

학산리의 문화재는 8개로 한 마을에 이처럼 많은 유·무형 문화재가 있는 곳은 아주 드물다. 국가지정 보물인 굴산사터 부도가 제85호, 굴산사터 당간지주가 제86호가 있으며, 굴산

사터와 석불좌상은 강원도 지방기념물 제11호와 문화재 자료 제38호 지정되었고, 정의윤 가옥은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93호, 조철현 가옥은 문화재 자료 제87호이며, 학산 오독떼기는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되었고, 강원도와 강릉시 보호수로는 은행나무 3그루와 소나무 한 그루가 지정되었다.

오독떼기, 소리로 전해온 역사를 알다

학산마을 오독떼기는 명칭도 특이하지만 소리 역시 메나리나 아라리와 달리 논농사를 지을 때 김매기 소리로 불린다. 삼척 메나리는 밭농사에 주로 불리고 정선아라리는 생활 속에 언제 어느 때나 다양하게 불린다.

오독떼기는 강릉을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동해시 망상(옛강릉권)에서 부터, 북쪽으로는 양양군 현남지역까지 분포되어 불렀던 김맬 때 부르는 농업노동요다. 한 해 동안 농사과정에서 모찌기, 모내기, 김매기, 벼베기, 타작소리 등 각기 다른 소리가 불리나 논맬 때 부르는 소리가 다양하고 음악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오독떼기를 주된 이름으로 삼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였다.

학산 농민들은 흔히 자신들은 "소리를 떠나서 살 수 없다"고 한다. 그것은 이 소리가 농촌생활 속에 침잠되어 일과 소리가 함께 공존한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소리는 농업노동요이면서도 가슴으로 부르는 혼의 소리, 땀의 소리라고 할 수 있다. 학산에는 "소리를 잘해야 일꾼, 소리를 못하면 꼴꾼"이라는 말도 전한다. 진정한 농군은 소리를 잘 불러야 한다는 뜻이다. 들판에서 힘든 일을 할 때 오독떼기를

불러야 일꾼 값을 한다고 하는데 소리를 못하면 풀이나 베는 '꼴꾼'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소리를 하면서 일을 해야 힘도 안 들고 기운이 버쩍버쩍 난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에는 힘든 소리가 격에 맞는다고 한다. 학산마을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소리와 함께 산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들은 마을회관에 써놓은 '원류전승原流傳承'이라는 굳은 정신과 함께 '구전심수口傳心授'라는 흙냄새 나는 방법으로 이 소리를 불러왔다. 특별한 기교나 화려한 장식이 없는 오독떼기 소리를 오죽하면 "똥꼬[궁둥이] 힘으로 부른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강릉 오독떼기는 그 소리의 형태나 구성, 음악성 등을 살펴보면 역사가 아주 멀리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고형태古形態의 전래소리라고 할 수 있다.

2018 강릉 학산
오독떼기 시연 모습





『삼국사기』, 「잡지」 악조집-하서군악 사진 : 장정룡 제공

그러한 역사를 추정하면 멀리 삼국시대 진평왕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삼국사기』잡지 악조에 의하면 이곳에는 '덕사내德思內'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이것이 강릉의 옛 이름인 '하서군'의 음악으로 '하서군악河西郡樂'이라는 것이다. 이 노래는 내용이나 가락 춤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것은 시골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하는 까닭에 만들어진 것이다此皆鄕人喜樂之所由作也."라는 설명으로 미루어 농촌에서 불린 소리, 즉 농가農歌임을 알 수 있다.

이 소리가 조선시대에도 전승된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자료는 조선 세조 임금이 오대산을 가면서 소리꾼들을 불러서 농가대회를 개최한 사실이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세조 임금이 오대산 상원사에 가기 위해 세조 12년(1466) 윤3월 14일 강릉 연곡리에 머물러 농가대회를 개최하였다. 세조대왕은 강원지역 농가農歌를 매우 중시했다. 세조는 1466년(세조12) 윤3월 10일 동해 바다신에게 제사하게 하고, 11일 간성 명파리에 머물렀다. 13일에 세조대왕은 정희왕후貞憙王

后, 세자와 같이 낙산사 법당에 향폐香弊를 드리는 불사를 행하고, 세조는 동년 윤 3월 14일 연곡 사거리 장막帳幕안 어전御前에서 농가경창대회를 개최하였다. 양양의 관노 동구리同仇里가 가장 잘 부르자, 악공樂工의 예例로 어가를 따르게 하고 유의襦衣를 한 벌 내려주니 동구리는 일약 나라의 소리꾼으로 등용되었다. 지금부터 550년 전 강릉 연곡리 사거리에서는 임금이 주재한 가운데 농가경창대회가 개최되었다.

"14일, 임금의 가마가 강릉 연곡리에 행차했을 때, 명하여 농인으로 농가를 잘 부르는 자를 모아서 장막 안에서 노래를 부르게 했다. 양양의 관노 동구리가 가장 잘 불렀으니 명하여 아침과 저녁식사를 먹게 하고 악공의 예로 가마를 따르게 하였다. 또한 저고리 한 벌을 하사하였다."고 하여 농사짓는 사람 가운데 농가를 잘 부르는 사람을 뽑았으니, 양양의 동구리를 '선농가자善農歌者'라고 기록하였다.

이때 부른 농가 즉 농업노동요 가창자는 강릉인근의 최고 소리꾼들이 거의 모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학산마을에 전하는 이야기로 옛날 어느 원님이 이 고을에 왔을 때 고려가 망할 때 공양왕이 피신해서 넘었던 고개라는 전설이 담긴 왕고개를 넘다가 오독떼기를 듣고 그 소리가 좋아 향청으로 불러 노래를 들었다고 한다. 왕고개가 구정면 소재지에서 학산으로 넘어가는 길목이다. 이밖에도 많은 이 소리가 사방 오리까지 퍼져서 근처를 지나던 높은 관원들이 듣고 모두 찬탄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이러한 '강릉 오독떼기'에 대하여 그 기원과 유래에 대한 설들이 많으나, 이와 관련된 명칭과 의미를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신라 때 화랑도와 관련된 노래에서 기원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강릉지방의 한송정을 비롯하여 경포대 등은 신라시대 화랑들이 낭도를 거느리고 풍류도를 수양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산수를 찾아 소요하던 곳이다. 이곳에 머물던 화랑의 무리들이 즐겨 따라 부르던 '덕사내'라는 노래가 지금까지 전해오는 '오독떼기'라 하며 가사는 시대에 따라 변해 왔으며 곡조만 면면히 계승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라고 하는 설이다. 이것은 신라화랑과 연관 지어 진평왕 때 그들이 따라서 부른 덕사내를 이 지역 민요로 생각한 것이다.

두 번째는 농사방식에 따른 어원으로 '오독떼기'는 "동서남북 중앙의 오독五瀆을 떼기(개척)한다"는 뜻이라 볼 수 있다. 지금도 이 지역 사투리로 논과 밭을 논떼기, 밭떼기라고 하는데 김을 맬 때 '다섯 논두렁을 뗀다'는 뜻으로 오독떼기라 불렸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독'이라는 한자어와 '떼기'라는 고유어가 합성된 것이다.

세 번째는 음악적 분석에 따른 어원으로 학산 사람들은 흔히 "다섯 번 꺾어 부른다"고 한다. 이 '꺾어 부른다'는 뜻은 다섯 악구로 나뉜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민요는 노랫말이 4.4.4.4체나 4.4.5.4체로 2악절 네 악구가 기본인데, 학산 지역만 2악절 다섯 악구로 나뉜다. 이것이 학산 오독떼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다. 처음 1.2 악구를 독창으로 메기고, 3.4.5악구는 제창으로 함께 부르는 선입후제창방식이며 선창자가 제2악절의 첫 음과 노랫말을 띄어주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강릉이라/남대천에" 2악구를 한 사람이 메기면 나머지 사람들이 "빨래/방망치/둥실떴네"

로 3악구를 함께 받아서 부르는 형식이다. 뒷부분 3악구의 시작인 '빨래'의 '빨'자를 선창자가 '띄워준다'며 먼저 불러준다. 그러므로 앞 뒤 악구를 합치면 모두 5악구다. 따라서 소리를 다섯 악구로 떼어서 부른다고 하여 오독떼기로 명명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네 번째는 오독떼기의 이름이 풀이름 어원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다. 오독떼기는 '낭독'이라는 식물의 이름인데 우리말로 '오독도기', '오독또기'라고 부르며 한자로는 '오독독지五獨毒只'라고 쓴다. 오독떼기와 유사한 이름으로는 '오들떼기' 또는 '오돌떼기', '오돌또기'가 있다.

다섯 번째는 이 소리가 사방 5리까지 퍼져서 그 거리를 지칭하는 의미에서 오독떼기라고도 하고, 마지막은 세조 임금이 '오'자가 들어간 곳에 가면 덕을 입는다고 하여 오대산 가는 도중에 이 소리를 들었다고 하여 세조와 연관 지어 '오

2018 강릉 학산 오독떼기 시연 모습



덕덕이'라 부른 것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독떼기 명칭에 대한 견해를 정리하면, '덕사뇌'의 '덕'과 오독떼기의 '독'이 상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음운설, 김매기하는 농경방식에서 오독을 떼는 방식을 지칭한 농경설, 오독떼기 소리를 다섯 번 꺾고 다섯 곳으로 되었다는 음률설, 풀의 이름에서 나왔을 것으로 보는 식물설, 세조의 오대산 행차와 관련있는 어가설御駕說, 소리가 사방 5리에 퍼진다는 전파설 등 여러 가지다.

땀의 소리 땅의 노래가 세상에 울리다

강릉 학산 오독떼기 가사는 향토색 짙은 것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모심을 때 아리랑을 부르고 점심 먹고 한 참, 두 번 참을 먹게 되는데 김을 매면서 '참'때가 되면 배가 출출해지므로 "지어가네(늦어가네) 지어가네 점심참이 지어가네"라는 오독떼기를 부르면 논 주인이 알고 새참을 가지고 온다고 한다.

석양녘에 부르면 소리가 구슬프고 멋이 들어가는데 "이슬아침 만난 동무 석양 전에 이별 일세"라는 가사가 이때 불리며 그 소리가 사방 5리까지 간다고 한다.

그러나 오독떼기는 부르기가 힘들어 수십 년 부른 가창자들도 목이 힘줄이 생길 정도로 고음과 장식음, 세목을 사용하여 부르며 곡조를 제일 중요시하여 지금도 가락이 맞지 않으면 가창을 불허하는 불문율이 남아 있을 만큼 원형에 가장 가까운 음곡을 내야 한다. 강릉 학산 사람들은 '참매미소리가 나야한다.'고 하는데 김맬 때 무릎을 꿇고 벼 포기를 잡고

김매기 소리를 하면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힘이 든다고 한다.

강릉 학산 오독떼기 가사는 전체 16자 내외이며 한 곡을 부르는데 약 55초가 걸린다. 강릉지방에서도 지역에 따라 약간씩 곡조가 다르다. 세 가지로 나누는데 냇골內谷오독떼기, 수남水南 오독떼기, 하평下坪 오독떼기이다. 이중 '냇골 오독떼기'가 원류라고 하며, 학산 오독떼기는 내곡동과 접한 냇골로 학산물이 더 세고 소리도 세다고 한다. 또한 하평 오독떼기는 느리고 소리가 순하며, 냇골 오독떼기는 빠르고 강한 것이 특징이라 학산 오독떼기를 '냇골 오독떼기' 또는 '자진 오독떼기'라고도 부른다.

학산 오독떼기가 주목을 받고 방송에 모습을 나타낸 때는 1968년으로 강릉 KBS방송국에 황석관 · 정덕화 · 김세중 · 동기달 · 김철기 · 김문기 · 정대화가 처음 외부로 나가 출연하였다. 이후 1970년 황석관 · 정덕화 · 조각현 씨의 고증으로 학계에 알려졌으며, 웃말의 황덕억, 아랫말의 김덕문 씨가 특히 잘 불렀다.

또한 1971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강원도 대표로 강릉 학산 오독떼기가 출연하여 전국에 소개되었다(『제12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전주), 강릉오독떼기 민요자료집』, 강원도, 1971, 1~17쪽). 당시 부른 가사는 "남문열고 파래치니 계명산천 밝아오네", "강릉이라 남대천 물에 빨래 방망치 게둥실 떴다(떴네)"를 비롯하여 "해 넘어간다 해 넘어간다 용수골 너머로 해넘어간다", "매어주게 매어주게 욱신욱신 매어주게", "요 질매고 저 질매고 임의 논질을 매어주게", "안국절 중놈 세모시 고깔은 정방 처자의 솜씨로구나" 등이 있었고 이 밖에 수집된 가

사는 다음과 같다.

1. 동해 동천 돋는 해는 서해서산으로 넘어간다
2. 점심 참이 진다 말고 일심 받아서 매어주오
3. 머리 좋고 실한 처자(처녀) 줄뽕남에 걸 앉았네 (註) 좋고 : 길고. 뽕남 : 뽕나무
4. 줄뽕 참봉 내 따주마 백년언약百年言約 나와 맺자
5. 술 맛 좋고 딸 둔 집에 아침 저녁 놀러가세
6. 너로구나 너로구나 오매불망(다시 보니) 너로구나
7. 양구 양천 흐르는 물에 배채 씻는 저 처자(녀)야 (저 아가씨야) (註) 배채 : 배추
8. 오늘 해도 건주 갔네 골골마다 정자졌네 (註) 건주 : 거의. 정자 : 그늘
9. 해는 지고 저문 날에 어린 선비 울고 가네
10. 양근 지평 썩 나서니 경기 바람 완연하네
11. 연줄이 가네 연줄이 가네 해 달 속으로 연줄이 가네
12. 상돌 빗돌 받침석 하니 망두석이 마주 섰네
13. 말을 몰고 꽃밭에 드니 말발굽에서 향내가 난다
14. 오동동 추야월에 달도 밝고 명랑하다
15. 오동 목파 거문고 타고 나니 돈 달란다
16. 저녁을 먹고 썩 나서니 월편에서 손짓한다
17. 일락서산에 해가 지고(해 넘어가고) 월출동령(녁)에 달 솟았네
18. 만두레미(맨드라미) 봉숭아(봉선화) 꽃은(을) 동원 뜰이 달 붉혔었네

19. 방실 방실 웃는 님을 못다복 해 넘어가네
20. 월정이라 오대산 물은 청심대로 돌아든다
21. 삼척이라 오십천 물에 빨래 방망치 두둥실 떴네
22. 이슬 아침 만난 동무 해질 거름에 이별이라
23. 술렁술렁 배 띄워놓고 강릉 경포대 달마중가자(세) (註)
    달마중 : 달맞이
24. 오동추야 달 밝은 밤에 임의 생각이 절로 난다
25. 임아 임아 정든 임아 날 버리고 어디로 가나
26. 천 길 만 길 떨어져 살아도 님 떨어져선 못 살겠네

현재 전승되는 강릉 학산 오독떼기를 비롯한 학산 농요는 10여 가지가 넘는데, 먼저는 모심을 때 자진아라리를 불러 소리와 일을 맞춘다. 다음은 사리랑으로 '사리살짝 넘어가는 소리'라 하여 잡가와 더불어 김매기소리를 한다. 다음은 김맬 때 오독떼기를 부른다. 오독떼기는 아랫배에 힘을 주고 힘들여 높은 음으로 불러야 한다. 다음은 논 김매는 것이 끝날 무렵 둥글게 모여 김을 매는 것이 마치 쌈을 싸 듯 한다고 하여 싸대라 부른다. 그리고 벼를 베는 소리로 '불림'이라고도 하고 '벼베기 흥조'라고도 한다. 다음은 물푸레나무로 만든 도리깨를 돌리며 타작을 하는 타작소리가 있는데 일명 마댕이소리라고도 한다. 이외에도 물 푸는 소리인 파래소리, 소 모는 소리, 모찌는 한춤소리, 볏단을 지고 오는 등짐소리가 있으며 영산홍이라는 민요는 해마다 대관령국사성황신을 모시고 내려올 때 부르는 영신가로 산유가라고도 부른다.

지난 1977년 6월 7일 강릉시 문화공보실 문화계장 박춘동

이 수집한 강릉민요조사표에는 농업노동요가 조사되었다. 이 자료에는 지신밟기(궐이가 또는 터지짐노라), 상여소리(허무가), 보리타작노래 등이 더 있다. 강릉지역에서 불린 민요를 현지 조사한 것이므로 참고로 인용하고자 한다.

[모내기노래(자진아라리)](1)

1.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를주게, 원앙에 줄모를 심어주게 아리아리 아리아리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네 (후렴)
2. 세월아 네월아 가지를마라, 아까운 靑春이 다늙는다
3. 나돌아 왔다고 인사말고, 幸州치마 입에 물고 방긋웃게
4. 南大川 골물이 술만 같으면, 어느네 친구를 못사주랴
5. 가며는 가고서 말며는 마지, 삿갓을 쓰고서 시집을 갈가
6. 신작로 복판에 눈오나마나, 어린가장 품안에 잠자나 마나
7. 술은야 수술술 잘넘어가고, 찬물에 냉수는 중치가 멜가
8. 노다가 가거라 잠자다 가게, 저 달이 뜨도록 노다가세
9. 청천하늘에 잔별도 많고, 이내의 가슴엔 희망도 많다
10. 咫尺은 千里인데 고개는 사이, 함박꽃이 아른아른 안 보이네

김병기, 남, 1977.6.7., 강릉시 근교

[모내기노래(자진아라리)](2)

1. 바다같은 이논자리 모를 심어, 장일이 죽죽 영화로다
2. 오천만가지 농사법은 잘두나냈는데, 젊은과부 수절법은

그 누가냈나

3. 뒷집에 김도령님 오셨는데 입인사를 못하고,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벙긋하네
4.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서러마라, 명년 춘삼월 다시보세
5. 산천초목은 나날이 젊어가는데, 우리 인생은 늙어만가네
6. 세월이 갈려면 제 혼자가지, 아까운 우리청춘 왜 데려가나
7. 넘어가네 넘어가네 등넘어가네, 처녀총각이 손목을 잡고 등넘어가네
8. 새끼백발은 울테나매지, 인간백발은 쓸데도 없네
9. 청초마 밑에다가 약주병달고, 오동나무 정자로 임찾아가네

(후렴) 심어주게 심어주게, 오종종 줄모를 심어주게
아라리요 아라리요 아라리 났네, 아라리 고개로 넘어가네

김흥기, 남, 1977.6.7., 강릉시 근교

[모내기노래](3)

1. 심어주게 심어주게 오종종 줄모를 심어주게
2. 오종종 줄모를 못심는다면, 먹줄로 친듯이 심어주게
3. 노다가 죽어도 설다고하는데, 일하다 죽어가면 할말이 있나
4. 꽃보고 탐내질말고, 모진손으로 꺾지를말게
5. 꽃핀 끝에 열매열고, 열매 끝에 낙이로다
6. 요놈의 총각아 내손목놓게, 이빠진 쌀람박에 돌넘어가네
7. 힐금에 핼금에 뒤돌아보지말고, 심중에 있는말을 내게나 하소

8. 산이높아야 골길도 높지, 조그마한 여자속이 깊을수 있나
9. 당신으로 하여금 병드신 몸이, 인삼녹용 패독산도 무효로다
10. 서로상자와 만날봉자는 유정터니, 이별별자 떠날이자는 나는 원수로다
11.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웃지마라, 너희들도 잠깐이면 백발일세

정태영, 남, 1977.6.7., 강릉시 근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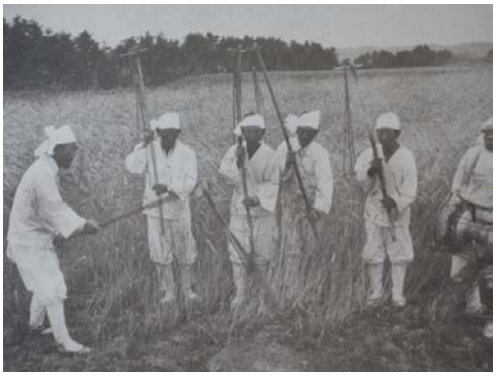
[모내기노래](4)

(후렴) 심어주게 심어주게 오종종 줄모를 심어주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1. 넘어가는구나 넘어볼가요, 바다같은 이논맴 넘어를 가요
2. 한폭에 두폭에 못심어도, 원앙에 줄모로만 심어를 주게
3. 산이야 고와서 여기를 왔나, 임계시는 곳이라 여기를 왔네
4. 산이 깊어야 골이야깊지, 조그마한 여자속이 깊을 소냐
5. 너하고 나하고 정들을 적에, 뒷동산 금잔디가 다부셔졌네
6. 으스름 달밤에 흰소복하고, 요리가자 저리가자 왜 날속여

최금수, 남, 1977.6.7., 강릉시 근교

다음에 소개하는 사진들은 상단 왼쪽이 1990년대 학산 주민들이 도리깨질소리를 하는 모습이다. 나머지 사진은 1930년대 농촌의 김매기, 모심기, 파래질 사진들이다.



1990년대 학산주민들의 도리깨질하는 소리 사진 : 장정룡 제공



1930년대 농촌의 김매기 사진 : 장정룡 제공



1930년대 농촌의 모심기 사진 : 장정룡 제공



1930년대 농촌의 파래질 사진 : 장정룡 제공

이처럼 강릉 학산 오독떼기에 포함된 민요는 곡조상 메나리조가 중심이며 곡조의 변조방식도 정해진 가락을 반복하면서 사설을 다르게 부르는 유절형식의 노래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노래는 불규칙한 리듬이 많이 쓰이는데 농사현장에서 전승되기 때문이다. 대부분 농업노동요로서 가사에는 작업내용이 포함되는데 오독떼기 사설은 삼척메나리와 서로 혼용되고 있다.

강원 동해안에서 강릉을 제외한 남쪽의 삼척과 북쪽 양양, 속초, 고성에는 논매는 소리로 메나리가 불리는데 사설은 오독떼기와 같은 것이 많으나 곡조상 남쪽 메나리는 단순하고 짧고 북쪽은 복잡하고 화려하고 장식음이 많아 오독떼기와 유사한 점이 많다. 이것은 옛날의 양양이나 속초권이 강릉 오독떼기 영향권을 공유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오독떼기는 16자 내외의 사설을 다섯 개의 악구로 나누어 부르고 메나리는 4개의 악구에 충실하게 부른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강릉 학산 오독떼기는 소리의 구성과 곡조에서 강원도 영동지역 내에서도 독특한 개별적 영역을 가지고 있는 역사 깊은 농요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강릉 학산 오독떼기보존회에서는 (1) 물푸는소리 : 파래소리 (2) 논갈이소리(소모는소리) (3) 모찌기소리 : 한춤소리 (4) 모심기소리 : 자진아라리(강릉아리랑) (5) 김매기소리 : 오독떼기・꺾음오독떼기・잡가・사리랑・담성가・싸대 (6) 벼베기소리 : 불림소리 (7) 타작소리 : 마댕이소리(도리깨질소리) (8) 등짐소리 (9) 영산홍 등으로 구성하여 부르고 있다.

지난 1984년에 발행한『강릉・명주 향토민요집』에는 (1) 평민민요 : 영산홍, 놀양사거리, 자진아리랑, 강릉아리랑(긴아리랑), 사리랑(세모꺽기), 오동동 (2) 농업노동요 : 오독떼기(오돌또기), 싸대소리(쌈싸기), 벼베기소리(불림), 타작소리(마댕이소리), 새쫓는노래, 날머리소리 (3) 가내노동요 : 베틀노래, 둥기노래 (4) 토목노동요 : 목도노래, 파래노래, 지짐이소리(달구소리) (5) 의식요 : 상여소리, 덜구소리(회다지소리), 종종덜구소리가 들어 있다. 참고로 1980년대 오독떼기(해설 및 가사, 명주군)

자료집에 수록된 해설문을 전재하면 다음과 같다.

고려 태조(918년)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강릉지방 민요로서 1. 영산홍 2. 자진아라리 3. 오독떼기 4. 꺾음오독떼기 5. 잡가 6. 사리랑 7. 싸대 8.불임 9. 타작가 등이 있다. 이른 봄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가꾸어 가을에 결실을 하면 만 들에 황금이 물결칠 때 추수를 하며 타작에 이르기까지 우리 선조들이 일하며 불러온 민요이다. 특히 영산홍이라고 부르는 민요는 무형문화재 제13호인 강릉단오제 행사 때 매년 음력 4월 보름날 대관령 산신당에서 국사성황신을 모셔다가 강릉단오제 행사에 다시 영신제를 올리고 단오제 현장에 내모셔 놓고서 단오굿을 치게 되는데 연륜을 더듬어 보면 1천년이라는 전통 속에서 계승된 참으로 고귀한 민요이다.

○ 자진아라리는 모내기를 할 때 부르는 농요로서 합창 후렴을 하는데 한 사람이 가사를 선창하고 다함께 합창 후렴을 하는 것이다. 자진아라리는 협동심과 단결력이 창에 잘 표현되어 있다. ○ 오독떼기는 신라시대부터 불려왔으며 우리 조상들이 가장 즐겨 불러온 대표적인 농요로서 마을마다 '들계'를 구성하여 들에 나가 김을 맬 때 2인 이상 병창으로 여러 조로 나눠 교대식으로 부르는 농요이다. 오독떼기의 종류는 냇골 오독떼기, 수남 오독떼기, 하평 오독떼기가 있으며 석양 무렵 오독떼기 부르는 소리가 들과 계곡으로 흘러 퍼질 때는 구슬프고 멋진 가락에 감동되지 않

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제7대 세조 임금이 동해안 일대를 순시할 때 강릉지방 농민들 가운데 오독떼기를 잘 부르는 사람을 뽑아서 임금 앞에서 부르게 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때로는 오독떼기 소리를 듣고 감탄을 금치 못하고 칭찬과 함께 상을 내렸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이 지방 부사들도 구정면 학산 마을을 행차하다가 들판에서 들려오는 오독떼기 가락을 듣고는 행차를 멈추고 즐겨 들었으며, 동헌에 초청하여 주안상을 차려놓고 농민들에게 술을 권하며 즐겨 들었다는 이야기도 전해 오고 있다. 고려 말엽 32대 우왕이 한때 귀양을 와서 즐겨 들었다는 구정면 학산리 왕고개 부근이 이 농요의 생지로 전하고 있으며, 이 마을에서 오독떼기 농요가 가장 뚜렷이 전승되고 있다. ○ 꺾음오독떼기라는 것은 지름시조와 같이 몇 소절 줄이고 몇 음을 꺾어서 부르는 것을 말하며 가사 내용은 오독떼기와 동일하다. ○ 잡가라고 부르는 농요는 오독떼기의 부속으로서 역시 김을 매면서 부르는데 이 가락은 창법이 너무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자 하였으나 평생을 두고 배워도 다 못배웠다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 사리랑도 역시 오독떼기의 부속으로서 오독떼기를 부른 뒤에 한바탕 부르면 더욱 흥미로운 농요이다. ○ 싸대라는 것은 오독떼기를 부르면서 김을 매다가 참 때나 점심때가 되면 김을 매던 농민들이 논 가운데로 향해 위치를 바꾸어 둥글게 원을 형성하여 좁혀 가면서 부르는 오독떼기의 부속으로 김을 쌈처럼 싸서 들어낸다는 뜻이다. ○ 불임은 농민들이 이른 봄부터 씨앗을 뿌려 애써 가꿔온 곡식이 가

을에 결실되면 의기양양하게 벼를 베면서 부르는 소리이다. ○ 타작가는 추수한 곡식을 여러 일꾼들이 모여 타작을 하면서 부르는 소리로 상놀이가 도리깨를 치면서 소리를 메기면 다 같이 따라서 합창 후렴을 하며 노래에 맞추어 흥겹게 타작을 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노래와 함께 슬기롭게 일하며 살아 왔으나 근래 기계화 영농으로 점차 그 자취를 잃어가는 이러한 고귀한 농요의 계승은 참으로 보람된 우리의 과제이다.

즈믄해를 일궈온 생명의 소리 오독떼기

강릉 학산 농요보존회는 1987년 5월 11일 황근각을 초대 회장으로 추대하면서 결성되었으며 각종 민속예술경연대회와 민요경창대회, 향토민요발표회, 언론매체 등을 통해 강릉 학산 오독떼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현재의 최종설 보존회장을 중심으로 매년 발표회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교육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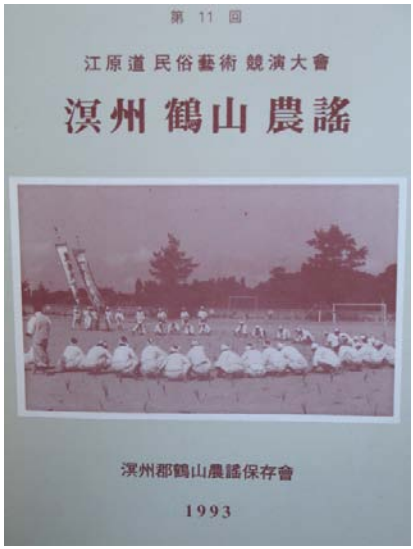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보면, 1971년 제12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강원도 대표로 참가한데 이어 1980년과 1981년 강릉문화원 초청으로 강릉단오제때 정기발표회를 가졌으며 1984년 한국브리태니커에서 출간한 뿌리깊은 나무 팔도소리 강원편에 명주농사짓기소리로 학산농요가 수록되었다. 이 음반에는 영산홍, 명주농사짓기소리로 모내기소리(잦은아라리), 김매기소리 오독떼기, 잡가, 사리랑, 싸대, 벼베기소리(불림), 타작소리가 들었다. 소리는 1984년 4월 7일 동기달, 김철기, 조영원, 김문기, 조창재, 최찬덕이 불렀다.

강릉 학산 농요보존회의 활동은 1987년 6월 28일 제5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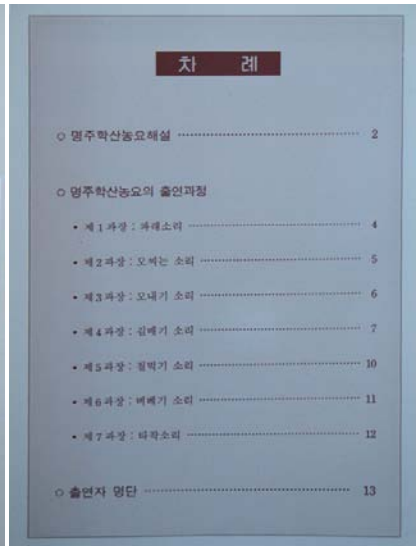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종합우수상을 차지함으로써 1988년 5월 18일 '강릉 학산 오독떼기'라는 이름으로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5호가 되었다. 지정 당시의 기능보유자는 동기달·김철기·윤흥용·최찬덕이었으며 동기달·최찬덕·김철기는 타계하고, 윤흥용이 명예보유자가 되었고, 최삼영·정완화 등 2명이 보유자로 활동하고 있다.

학산농요의 가창자를 세대별로 분류하면 1세대는 황덕억, 김덕문이었으며 2세대는 황석관, 정덕화, 조각현 씨, 3세대는 동기달, 최찬덕, 김철기, 윤흥용으로 이어지고 4세대는 현재 최삼영, 정완화, 손병선, 이상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학산 농요보존회에서는 강릉민요보존회, 강릉문화원과 공동으로 1992년 6월 5일 강릉단오제를 기하여 '강릉 명주지역 토속민요 발표회'를 개최하였으며, 1993년 제11회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명주군 학산 농요보존회에서 '명주 학산농요'로 출연하였다. 출연과장은 제1과장 파래소리, 제2과장 모찌는소리, 제3과장 모내기소리, 제4과장 김매기소리, 제5과장 질먹기소리, 제6과장 벼베기소리, 제7과장 타작소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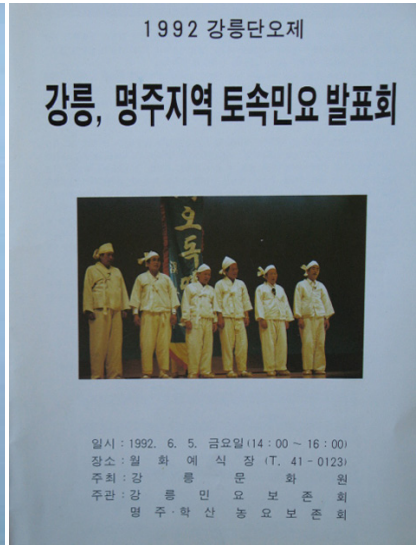
1993년 제11회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명주학산농요 리플렛 표지 사진 : 장정룡 제공



1993년 제11회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명주학산농요 리플렛 차례 사진 : 장정룡 제공



1990년 학산 농요보존회의
전통의 고장 학산마을 리플렛 표지 사진 : 장정룡 제공



1992년 강릉단오제 강릉명주토속민요 발표회
리플렛 표지 사진 : 장정룡 제공

1994년 MBC문화방송의 한국민요대전 강원편에 모심기소리로 자진아라리, 논매기소리로 오독떼기, 꺾음오독떼기, 잡가, 사리랑, 담성가, 싸대소리와 벼베기소리인 불림소리, 타작소리로 도리깨질소리가 담겼고 이밖에 벼등짐소리, 영산홍, 긴난봉가 등이 실렸다. 또한 1994년 3월 25일 서울KBS에 '땅의 소리 땀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전국에 라디오로 방송되었으며 1994년 6월 28일 서울MBC라디오 기획특집으로 학산농요가 방송되었고 1994년 12월 6일 강릉KBS에서 학산 오독떼기로 전국에 TV로 방송되었다. 현재도 매년 자체적으로 '학산 오독떼기 경창대회'와 '발표회'를 개최하여 전승활동에 노력하고 있다.

2015년 9월 4일 대한민국 아리랑대축제에서 강릉아리랑을 강릉 학산 오독떼기보존회에서 주관하였으며 모심기공연, 자진아라리 등을 보존회에서 공연하였다. 현재 보존회의 활동사항을 요약하면 (1) 보유자의 전통계승 (2) 가사의 학습전승 (3) 보존회의 대내외 활동 (4) 학술연찬과 연구서 발간 등이 추진되고 있다. 2015년 학산 오독떼기 논문집을 발간하였고, 2017년 학산 오독떼기 CD 4종을 제작하였다. 2018년에는 학산 오독떼기 30주년 기념집 발간과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역대 학산 오독떼기 예능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전수장학생의 명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보유자]

故 조영원, 1916년 12월 6일생, 1988년 5월 18일 인정, 해제

故 조경재, 1917년 3월 20일생, 1988년 5월 18일 인정, 해제

故 동기달, 1925년 12월 25일생, 1988년 5월 18일 인정, 해제

故 최찬덕, 1923년 2월 14일생, 1991년 5월 9일 인정, 해제

故 김철기, 1928년 9월 12일생, 1988년 5월 18일 인정, 해제

윤홍용, 1925년 5월 17일생, 1991년 5월 9일 인정(2010년 명예보유자)

최삼영, 1938년 8월 17일생, 2003년 4월 25일 인정(보유자)

정완화, 1938년 12월 20일생, 2005년 7월 1일 인정(보유자)

故 손병선, 1937년 4월 5일생, 2011년 4월 21일 인정, 2017년 작고, 해제

이상욱, 1939년 6월 20일생, 2011년 4월 21일 인정(2016년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故 구기오, 1930년 3월 1일생, 1992년 6월 9일 인정, 해제

故 조규은, 1933년 8월 5일생, 1992년 6월 9일 인정, 해제

김원기, 1945년 5월 25일생, 2005년 7월 1일 인정

김근한, 1937년 7월 23일생, 2011년 4월 21일 인정

권중현, 1949년 12월 10일생, 2011년 4월 21일 인정

임성규, 1952년생, 2016년 인정

[이수자]

조관현, 1964년생, 2015년 이수증 발급

윤용식, 1953년생, 2015년 이수증 발급

한순휴, 1959년생, 2015년 이수증 발급

심춘옥, 1956년생, 2015년 이수증 발급

[전수장학생]

조득현, 1967년생, 2017년 전수생 선정

이연수, 1969년생, 2017년 전수생 선정

조병길, 1975년생, 2017년 전수생 선정

박재숙, 1969년생, 2017년 전수생 선정

천순남, 1971년생, 2017년 전수생 선정

2018년 강릉 학산 오독떼기 현황을 보면, 보존회 회원은 회장(최종설)을 포함하여 남자 24명, 여자 16명 합계 4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있다. 2018년 보존회 사업은 강릉시보조금 1100만원을 수령하여 강릉단오제 정기공연 4회, 전수학교 운영 20회, 홍보책자를 제작하였다. 강원도와 강릉시 공개행사 보조금 750만원을 수령하여 제32회 전승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전수관 활성화사업 보조금 1500만원을 문화재청으로부터 수령하여 '자진아라리 그리고 강릉아리랑 소리극' 공연 1회, '학산에 살어리랏다 소리극' 공연 1회를 하였다. 타 시·도 무형문화재 교류 공연은 1회로 강릉단오제 위원회 후원(300만원)으로 2015년 충남홍성 '결성농요', 2016년 전북순창 '금과 들소리', 2017년 제주탐라문화재 공연, 2018년



2018 강릉 학산 오독떼기 시연 모습

경북안동 '저전동농요'와 교류하였다. 또한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해 500만원을 강릉시보조금으로 수령하여 구정초등학교, 금광초등학교 등에서 전수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현재 강릉 학산 오독떼기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가창자의 고령화등으로 전승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4.
강릉 사천 하평 답교놀이

무형유산 범주

- 구분 :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0호
- 영역 : 전통적 놀이・축제

무형유산 내용

- 좀생이별 보고 점을 치고
- 슬기로운 삶의 지혜와 즐거움의 세계가 있는 사천 하평 답교놀이
- 좀상주 마시고 다리밟고 즐거우니 올해도 대풍이로세!

좀생이별 보고 점을 치고

강릉은 해동에 있어 정政・경經・문文의 중심지가 되어 오늘에 이른다. 옛날 예국의 구도舊都이며 하서량, 하서부. 아슬라, 명주, 명주도독부, 소경, 예, 임둔, 경흥, 동온, 명원, 동원, 철

국, 도원경, 북빈경, 동원경 등의 별칭을 가지고 있는 영동의 관문이다. 이와 같이 강릉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적 지방 도시로 2,000년 전, 예국의 도읍지로 시작된 이래 시대의 변천과 거듭하면서 현재는 영동지역의 유일한 행정, 문화, 사회, 경제, 교육의 중심지가 되어 왔다. 강릉은 어느 지방보다 인정의 교류가 두텁고 이곳 주민들은 신앙 면에서도 자연신에 대한 외경과 그로 인한 관념을 오늘날까지 전승시켜 왔다. 이런 까닭에 이 지역에는 다양한 신가, 민속예술, 민속놀이 등이 독창적으로 생성 발전하여 현재까지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사천은 서기 757년 신라 경덕왕 16년, 명주현령으로 사화면이라 불렸고, 후령을 두어 고을을 다스리게 했다. 고려 태조 19년에는 동원부라 칭하고 임영관을 건립했다. 고려 성종 2년에는 하서부랑이라 개칭하였다가, 서기 896년 성종 5년 명주도독부 사천현이라 하였다. 그 후 조선 태종 4년 강원도

2018 강릉 사천 하평 답교놀이 시연 모습



설치에 따라 강원진영으로 영속되었다가 서기 1855년 고종 3년에 강릉군 사천면으로 개칭되었다.

사천은 강릉시 북쪽 10km지점인 강릉과 주문진의 중간 중북부에 위치하고 있다. 경도 및 위도 상으로 본 사극은 극동동경 128° 53′, 극서동경 128° 44′, 극남북위 37° 51′, 극복북위 37° 44′ 로서 동쪽으로는 연곡면에 접하고 있으며 주민의 생활권이 강릉시에 속하여 강릉시에서 각 마을로 통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9개 노선이며 7번 국도가 면소재지를 통과하고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 총면적은 70.78㎢로 농경지 면적은 11.6㎢이다. 그 가운데 전 3.1㎢ 답 8.4㎢으로 논농사의 비율이 크다 하겠다. 행정구역은 법정리 9개리, 행정리 15개리와 79개반 및 53개의 마을로 형성되어 있다.

강릉 사천 하평 답교놀이는 자연적 환경 속에서 생성된 농경문화의 대표적 민속놀이라 할 수 있다. 이 놀이는 조선시대 집촌화 과정과 자연촌의 독립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발생한 놀이라 할 것이다. 이는 수도작 재배 중심의 노동집약적 마을 공동체 중심 문화로서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는 세시풍속과 결합된 대동놀이의 출현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 놀이는 조선 초기부터 유래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하평마을에서는 3~4백 년 전부터 있어온 놀이라 하겠다.

음력 2월 초엿새를 강릉에서는 좀상날(좀생이날)이라 한다. 좀생이는 묘성昴星을 말한다. 이날 초저녁에(저녁 6~7시 사이) 달이 떠오르면 달과 좀생이와의 거리를 보고 그 해 농사의

풍년과 흉년을 점치는 것이다. 좀생이란 28성수星宿 중의 묘성의 속명으로 좀성·좀생이·조무생이라고도 한다. 서양에서는 '폴레아데스'라고 하는 작고도 오밀조밀한 많은 별들의 무리의 이름이다. 육안으로는 6~14개, 망원경으로는 100개 이상, 사진으로는 2천 개 이상이 촬영된다.

조선시대 김매순金邁淳의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1819)에는

> 2월 6일 농가에서는 초저녁에 묘성과 달의 멀고 가까움을 보아 한 해 운수를 점친다. 둘이 같이 가거나 한 치 못되는 거리를 두고 앞서가면 한 해가 길하고 만약 앞이나 뒤로 한 치 이상 멀리 떨어져 가면 그 해는 흉년이 들어 어린 것들이 먹을 것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징험해 보면 자못 들어맞는다.

라고 하였다.

좀생이가 달에 가까이 따라가면 그 해는 흉년이고, 좀생이가 달에서 멀리 떨어져서 따라가면 그 해의 농사는 풍년이라고 믿었다. 달은 '밥을 이고 가는 여인' 또는 '밥을 얻어먹기 위해 따라가는 아이'를 상징한다고 한다. 이날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함께 좀생이를 보며 농사의 길흉을 점쳤다. '좀상날(좀생이날)'의 의미는 농경사회의 달과 별의 거리 관측으로 오랜 체험 속에서 얻어진 자연력이며 이는 곧 생산력과 직결되는 우리 세시풍속과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직접적인 월점月占, 점성占星으로 기풍祈豊과 점풍행사인 것이다.

강릉에서는 좀상날(좀생이날) 여러 자연 마을 단위의 마을에서 다리굿, 다리밟기(답교), 쇠절금, 돌싸움(석전), 횃불싸움 등의 놀이가 행하여 졌다. 특히 송정마을과 초당마을, 사천 하평마을과 진리의 좀상날 답교놀이는 유명하다.

슬기로운 삶의 지혜와 즐거움의 세계가 있는 사천 하평 답교놀이

강릉 사천 하평 답교놀이는 좀상날 마을에서 다리굿, 다리밟기, 쇠절금, 돌싸움, 횃불싸움 등을 행하고 있다. 사천 하평마을과 진리의 답교놀이는 유명하다. 하평마을에는 예전에 농악대의 다리걸립이 자주 있었다. 마을 앞에 개울에 나무다리[일명 통다리]가 놓였는데, 현재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동해선 철길 위에 다리를 놓아서 이용하고 있다. 예전에 놓였던 나무다리는 주변 방동리, 산대월리, 수포리, 저동 등 여덟 개 마을이 이용하였으며 이곳을 통해서 장을 보러 다녔다. 사천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하평마을과 진리는 예전부터 좀상날에 다양한 민속놀이 경합을 통해서 풍년 기원행사를 하여 왔다.



사천 하평 답교놀이 중 풍년기원행사

사천 하평 답교놀이의 구성은 먼저 마을에서 다리 입구에 높이 5m 정도로 송아리(소나무가지)를 엮어서 만든 솔문을 세워 놓고 다리굿을 친다. 솔문은 주술적인 상징물

로 액막이 기능을 한다. 다리밟기나 횃불놀이꾼들은 반드시 이 솔문을 통과하여 놀이에 참가하게 된다.

1) 다리굿

다리굿은 다리를 밟기 전 다리를 위한 농악굿의 하나이다. 이 지역에서 전승되는 농악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다리굿은 마을 농악대의 상쇠가 농악을 치면서

> 모십시다. 모십시다. 서낭님을 모십시다. 이월이라 좀상날에 국사서낭 모셔놓고.

라고 시작하며 다리밟기를 시작하게 된다.

2) 쇠절금

쇠절금은 '쇠겨룸'을 말한다. 두 마을의 농악의 으뜸인 상쇠들이 쇠를 치면서 하는 대결이다. 쇠절금은 강릉지역 농악에서 사용되는 12가락을 모두 사용한다. 이때에 상쇠들은 자신의 기량을 한껏 과시하는데 이러한 놀이는 농악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강릉농악의 다양한 특질이 쇠절금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뒤에 이어지는 돌싸움, 횃불싸움, 답교놀이 등 모든 놀이의 시작이기도 하다.

사천 하평 마을농악은 가식 없이 소박한 원형대로 농민들 속에서 호흡을 같이하며 진면목을 지켜오고 있다. 한편 단조

롭고 정적인 가락에 변화가 적은듯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마을에서 전승되고 있는 농악의 특징인 것이다.

3) 횃불싸움

횃불싸움은 정월대보름의 세시풍속으로 마을 청년들이 낮에 식구 수대로 싸리 또는 짚으로 홰를 만들었다가 저녁이 되면 각 마을 사람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풍악을 울리고 무리를 지어 들판으로 나가서 진을 친다. 달 떠오르는 때를 맞추어 어느 한 편의 주장主將이 먼저 상대편에 대하여 '술렁수' 하면, 상대편에서 '꼴래꼴래' 하고 갖은 욕설을 퍼붓기 시작한다. 이렇게 얼마 동안 욕설을 주고받다가 풍악을 울리면 젊은이들이 이마에 수건을 동여매고 홰에다 불을 붙여 들고 '자! 오너라.' 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횃불을 휘두르며 나가 싸운다. 그러면 상대편에서도 횃불을 들고 '!자 오너라.' 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달려들어 손에 든 횃불로 서로 때리며 넘어뜨린다. 이와 같이 서로 때리고 싸우는 가운데 자연히 하나 둘 항복하는 자가 생기게 되고 나중에 이 항복자가 많으면 지는 것이다. 이 놀이는 횃불이 없어지면 싸움도 그치게 되며 청년들은 청년끼리 소년들은 소년끼리 상대한다. 싸움이 벌어지면 이곳저곳에서 횃불이 번쩍거려 장관을 이룬다. 이 횃불싸움은 보기와는 달리 큰 부상자는 나지 않고 머리를 그을린다든지 옷을 태우는 정도이다. 이 놀이에서 진편은 그 해에 흉년이 들고 이긴 편은 풍년이 든다고 한다. 여러 마을이 편을 갈라 돌아가며 싸워서 당년의 풍흉을 점쳤으며 곡식에 해로운 새를 쫓는 뜻으로 백가지 새 이름을 부르며 쫓기도 하였

다. 강릉지역에서는 하평뿐만 아니라 금산마을, 회산마을, 초당과 송정마을 시동의 마을에서 유명했으며, 횃불싸움은 석전과 함께 사상자가 발생하여 관청에서 금지령을 내릴 절도로 유명했던 놀이다.

4) 답교놀이[다리밟기]

답교놀이는 정월대보름날 밤에 다리橋를 밟는 전통적인 민속놀이다. 이 날 다리를 밟으면 1년간 다리脚병이 없고 12다리를 밟으면 12달의 액을 면한다고 하는 속신적인 믿음이 있었다. 즉 다리橋는 다리脚와 같은 소리이므로 다리를 밟으면 1년 동안 다리에 병이 생기지 않는다는 생각이었다.

하평에서는 정월 대보름과 좀상날에 다리밟기를 하였다. 다리를 밟을 때 농악대의 상쇠가

횃를 들고 들판으로 나오는 마을사람들





2018 강릉 사천 하평 답교놀이 시연 모습

앗따! 이다리 잘 놓았다. 술렁술렁 건너가자

하고 소리를 메기면 나머지 사람들이 합창으로 함께 따라 부른다. 또한 다리의 중간쯤에서 달을 향하여 상소가

술령수 ○○년 이월 좀상날 이 다리 밟고 금년 농사 대풍으로 이루어주시오

라고 술령수를 치고 다리밟기를 계속한다.

좀상주 마시고 다리밟고 즐거우니 올해도 대풍이로세!

사천은 강릉시로 편입되기 전에는 명주군 사천면 진리였고, 강릉 시내에서 북쪽으로 약 8km 떨어져 있는 해안 농촌마을이다. 이 마을은 조선시대 문장가로 이름을 떨친 허균의 외가

댁인 애일당愛日堂 김참판이 살던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서는 마을에 일년 내내 우환이 생기지 않고 풍년들기를 기원하는 뜻으로 음력 2월 초엿새 좀상날이 되면 다리밟기와 횃불놀이를 즐겼다. 저녁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다리에 횃불을 들고 모여 그 해 농사가 잘되기를 빌고 마을의 안녕을 비는 다리밟기 농악을 즐겼다. 사천 하평마을에서 행하는 다리밟기·횃불놀이는 여타 강릉지방과 다를 바가 없지만 놀이의 시기가 좀상날에 하는 것이 유일한 경우이다.

예전에 좀상날에는 마을에 '좀상주'라고 부르는 막걸리를 준비해서 농악대에게 주었다. 이 좀상주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쌀을 거두어서 그것으로 동네 전체가 만든 술이다. 옛날에는 '초군방' 또는 '도방'이라고 하여 농악대가 모여서 노는 방이 따로 있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집에서 좀상주를 먹었다. 또한 이 날은 겨울 동안 영좌가 마을 머슴들에게 할당한 농사 준비를 위한 과제를 검사하는 날이기도 했다. 겨울 동안 새해 농사에 사용될 새끼, 가마니, 멍석, 짚신 등을 만들어 이날 영좌 앞에서 검사를 받았다.

좀상날 다리밟기·횃불놀이를 하게 되면 마을의 꼬마들이 지게를 메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장작을 모아서 횃불을 만든다. 그리고 산에 가서 송아리(소나무가지)를 마련하여 다리에다 솔문을 세운다. 이 솔문은 소나무 가지의 상징적이며 주술적인 상징물의 하나로 액막이 기능을 하게 된다. 저녁을 일찍 먹고 풍물을 울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횃불을 밝힌다.

사천 앞에 놓인 다리에서 행하는 답교놀이·횃불놀이는 여러 마을에서 참가한다. 아래 윗마을에서 횃불을 밝히고 준비

를 하고 있다가 "떴다"라는 신호가 떨어지면 마을에서 힘 좋은 사람이 다리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서 달려간다. 그래서 먼저 도착한 사람이 다른 마을 사람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장작으로 때리고 몸으로 밀치면서 그 다리를 점유하려 한다. 이렇게 치열하게 몸싸움을 하면서 다리를 차지하려는 것은 풍년을 기원하는 세시행사의 하나로 종교적인 측면과 놀이적 측면이 결합된 것으로 생각된다.

2월 좀상날 오후에 마을 회관에서 청장년들과 아이들이 모여서 솔문과 큰 횃불과 솜방망이를 만들고, 아낙네들은 제사를 지낼 음식과 행사 후 동네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했다. 저녁을 일찍 먹은 후 농악대가 풍물을 울리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마을사람들이 나와 횃불을 밝히고 다리 앞까지 걸어간다.

다리 입구에 도착하여 제관이 동해를 바라보면서 "술-령-수, 경축년 이월 좀상에 이 다리 밟거든 영동의 대풍을 점지하소서."하고 크게 외치면, 풍물패와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와-"하면서 크고 기쁘게 소리를 지른다.

다리 중간에 도착하여 동해를 향해 제물을 마련하고 제사를 지낸다. 근래는 마을 서낭당에서 제사를 올린다. 이때 드리는 축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維歲次丁丑二月庚戌朔初六日乙卯幼學○○○
敢昭告于
顯天地神明 伏以 今玆歲新
日月星辰 四海龍王
諸惡達去 災殃消滅



제관들이 동해를 바라보며 제를 올리는 모습

泰平成歲 時和年風
雨順風調 五穀成熟
荷坪洞里 萬事亨通
歲歲永昌 酒果脯醯
謹以淸酌 伏以 尙
饗



제를 올리는 모습

제사를 마치면 농악대와 마을 사람들이 함께 쇠절금, 횃불놀이, 다리밟기 그리고 뒷풀이를 하며 즐겁게 밤을 세우며 축제의 판을 펼친다. 이때 다리밟기에 사용했던 횃불, 솔문 등을 태워 황덕물을 해놓

으며 다시 마을로 돌아와 밤새워 논다. 바로 2월 좀상날 다음부터는 농사철이 시작됨으로 농한기의 마지막 놀이가 되는 셈이다. 사천 하평은 현재 130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이 하평동은 넓은 들이 많이 있고, 바다와 바로 인접해 있으나 전통적인 농촌으로 예부터 농악이 성했다. 농악대는 농사지을 때는 농사꾼, 상이 났을 때는 상두꾼, 굿을 칠 때는 풍물꾼, 마을의 풍속을 바로 잡는 규율대로서의 역할까지 담당했다. 그 구성원은 영좌, 공손, 회장, 총각대방, 대방, 총무, 무동 등으로 이루어졌다. 영좌는 마을에서 나이가 많고 유력한 분으로 최고의 어른이다. 공손은 부영좌격이라고 할 수 있다. 회장은 농악대 중심적 역할을 하고, 총각대방은 일꾼 중에서 나이가 많고 통솔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한다. 이 총각대방은 위로는 어른들을 모시고 아래로는 일꾼들을 통솔하는 규율부장이다. 영좌의 명을 받아 일을 잘하지 않는 머슴이나, 술먹고 패악을 부리는 사람,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있으면 총각대방이 잡아다가 영좌 앞에서 징벌을 한다.

농사철이 끝난 겨울철에도 이 조직은 유지된다. 농사일이 없는 겨울철에도 영좌는 각 머슴들에게 과제를 준다. 즉 새해 농사를 지을 준비로 가마니, 새끼, 짚신 등을 짜도록 한다. 그 집의 농사일을 가늠하여 각각 일을 분담해 주는데 그 검사는 2월 좀상날에 한다. 이날 각자의 결과물을 가지고 영좌 앞에서 검사를 받았다. 이에 영좌는 준비를 잘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기도 했다.

사천 하평에서는 예전에 다리걸립을 자주 했었다. 하평 앞에 개울이 있고 예전에는 이곳에 나무다리가 놓여 있었다.

현재는 일제강점기때 동해선 철길이었던 다리를 철로가 폐쇄된 후로 일반 다리로 이용하고 있다. 예전에 놓였던 나무다리는 주변의 방동리, 산대월리, 수포리, 저동 등 8개 마을이 이용하였고 이 다리로 장을 보러 다니는 등 교동의 요지였다. 이 다리를 주로 이용한 마을들에 대한 다리 걸립은 다리가 소재한 하평 농악대가 중심이 되어서 하게 된다.

다리걸립을 위한 농악대는 마을 자체 내에서 이루어진다. 다리걸립을 하기 위해서는 마을에서 서낭내림을 받아서 하게 된다. 사천면 하평동에는 옛날에는 서낭(당나무)이 있었다. '서낭모시기'에는 제물을 특별히 준비하지 않고 술을 부어 놓고 '서낭님 서낭님 동구밖에 서낭님'이라는 사설과 장단으로 꽹과리를 치면서 서낭굿을 한다. 걸립을 하러 마을에 들어가면 그 마을의 농악대가 마중을 나온다. 농악대가 없는 마을은

강릉 사천 하평 답교놀이 (달집태우기)



마을의 대표들이 나온다. 두 마을의 농악대가 만나면 서로 인사굿을 하고 마을 안에 있는 서낭당에서 서낭굿을 하고 그 마을의 영좌나 회장이 인도를 해서 각 집을 돌게 된다. 걸립을 하러 다니면 대부분 쌀을 주었다. 걸립에 참가한 농악대원들에게 품삯을 주지는 않았다.

이렇듯이 강릉 사천 하평 답교놀이는 이 지역주민들의 민속적 생활양식이 오롯이 담겨있는 전통문화의 하나인 것이다.

5.
방짜수저장

무형유산 범주

- 구분 :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4호
- 영역 : 공예 · 미술 등 전통기술

무형유산 내용

- 삶의 도구이자 우리문화의 상징, 수저!
- 수저문화, 그 역사의 깊이 속에서 각광받은 “방짜수저”
- 장인의 정열로 쇠를 녹여 땀방울을 더해 방짜수저를 만든다.
- 도가니 속 쇳물의 열기만큼이나 뜨거운 장인의 열정과, 강릉에 울려 퍼지는 망치소리가 강릉 방짜수저의 지속적 전승을 이야기한다.
- 방짜수저 전승노력과 문화정체성 유지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삶의 도구이자 우리문화의 상징, 수저!

"수저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고 있지요. 흔히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하거나, 세상을 떠날 때 밥숟가락을 놓았다는 표현들을 하곤 합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4호 방짜수저장 김우찬의 말이다.

왕왕 금수저와 흙수저 논란이 있다. 이 논란은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닌, 태어나면서부터 물려받아 보유한 재산과 능력을 빗대는 말이다. 또한 밥숟가락을 놓았다는 것은 생의 중요한 수단인 숟가락질을 멈춤으로서 삶을 마쳤다는 의미이다. 이 시대, 숟가락을 통해 우리사회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문화의 일면적 이야기라 할 수 있다.



방짜수저

문화는 우리 인간의 삶의 양식이고 그 표현이다. 그중에서도 우리 인류가 삶을 영유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 수단인 먹고 사는 것에 관한 양식이 문화의 으뜸이다.[1] 그리고 그 양식 중 인간의 경제행위로 연결되는 근원적 생존행위인 섭생을 위한 도구로서의 수저는 인간생활양식의 상징이기도 하다. 한반도 농경문화 속 음식 섭생 행

1) Culture의 어원은 라틴어의 cultura에서 유래하며, 가꾸다, 보살피다, 경작하다 등의 의미이다.

태와 이를 둘러싼 문화를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것이다.

우리가 사용해 온,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저는 그 모양과 재질이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오랜 세월 우리 조상들이 사용해 왔던 수저 중의 하나가 청동을 소재로 한 방짜수저이다. 즉, 방짜수저는 강릉지역을 포함한 우리 민족의 중요한 섭생도구로 사용되어 왔으며, 따라서 방짜수저의 제작과정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은 음식문화의 전통성과 전통적 삶의 구조로서 역사를 인식하고, 우리의 전통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일이다.

수저문화, 그 역사의 깊이 속에서 각광받은 "방짜수저"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먹는 행위는 그 도구의 사용에 따라서 문화적 차이와 삶의 수준을 보여주기도 한다.

농경문화에서 곡물을 입으로 가져가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서의 숟가락과 젓가락의 형태를 보면, 그 민족이 섭취하는 음식문화의 깊이를 알 수 있다.

우리 한반도인은 석기시대를 거치고,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를 거치면서 음식의 효율적인 섭취방법을 혁신적으로 발달시켰으리라 본다.

자연 채취물의 단순한 비 가공 섭취 형태에서, 기술진보와 함께 가공된 음식물 섭취를 위해 고안된 것이 수저였을 것이다. 즉 뜨거운 음식, 국물음식, 가루음식, 건더기 음식을 모두 섭취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수저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했던 우리 한국인의 전통적인 음식물 섭취 도구는 익힌 곡물과 기타 주변음식물을 효과적으로 입으로 가져가기 위한 수저가 대표적이다. 목축과 사냥 중심의 섭생문화 속에서 발달한, 육류를 자르고 집어 올리기 위한 포크와 나이프와는 크게 다른 도구로서의 문화적 차이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수저에 담겨 있는 우리 한국인의 문화성은 그간의 생존을 위한 경제행위로서의 문화성을 담고 있다. 즉, 단순 도구인 손을 이용해서 음식을 섭취하는 방법에서 음식의 종류에 따라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던 중 수저를 고안해 냈을 것이며, 이는 섭취도구의 재질 사용에 까지 진전을 이루어 가장 안전하고,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방짜수저가 탄생하였을 것이다.

"十二月ㅅ 분디남ᄀᆞ로 갓곤
아으 나ᄉᆞᆯ 盤잇 져다호라
니믜 알ᄑᆡ 드러 얼이노니
소니 가재다 므ᄅᆞᄉᆞᆸ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고려시대 가요 동동의 마지막 구이다. 사랑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젓가락을 소재로 하여 표현하였다. 전래 사랑노래 속에서 당시의 밥상문화 속 젓가락 사용과, 젓가락 소재 등을 살짝 들여다 볼 수 있다.

장인의 정열로 쇠를 녹여 땀방울을 더해 방짜수저를 만들다

강릉의 방짜수저장은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4호로, 전통적 방식에 의해 놋쇠로 각종 기물을 만드는 장인匠人 또는 그 기술을 말한다.

강릉 방짜수저는 장인의 열기로 구리와 주석을 녹여 섞고, 이를 다시 고된 망치질소리와 땀방울로 탄생하는 예술작품이다.

그러나 청동기시대부터 계속 발전해 온 유기 제작 기술은 일제강점기 이후까지도 성행하였으나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취사연료로 사용되는 연탄가스에 의해 쉽게 변질이 이루어지고, 또한 산업발달로 말미암아 보다 생산이 용이한 스테인레스 제품의 생산과 사용이 증대되면서 유기와 방짜제품은 실용제품으로서의 경제성이 감소하고, 그 생산이 완전히 중단되었다. 이런 가운데 한 때 우리 조상들에게서 실용성이 높았던, 전통 공예 기술로서의 강릉 방짜수저장은 전통금속공예기법을 전승하고 있는 중요한 무형유산이라 할 수 있다.



방짜수저 단련 전 모습

방짜란 품질이 좋은 놋쇠를 옥여 부은 다음 다시 두드려 만든 그릇으로 통용된다.

방짜수저의 제작내용을 보면, 구리와 주석을 일정비율로 혼합하여 쇳물을 만들고, 그 쇳물을 수저 형틀에 부어 수저모양을 형성하고, 이것을 다시 쇠망치로 수 천 번 두드려

가며 단련하여 성형하고, 다시 이를 깎아내고 연마하며 다듬어 수저를 완성한다. 이러한 단련과정을 거친구리와 주석의 합금은 단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주물제품에 비해 그 밀도가 훨씬 치밀해지고, 따라서 높은 내구성을 지님은 물론 일반 주물제품보다 원료의 양을 적게 사용하게 됨으로써 무게가 가벼워 사용이 훨씬 편리하다는 장점을 지니게 된다. 또한 단련 및 성형 과정 중에 미적 표현을 더한 예술성을 갖추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방짜수저는 그 생김새에 따라 망치 자국이 남아 있는 막수저, 무늬 없이 두툼한 온간자, 가늘고 약한 반간자, 자루 끝에 무늬가 있는 꼭지수저 등 다양한 종류를 지니게 된다.

방짜수저장은 방짜 공법으로 수저 만드는 기능을 가진 장인을 일컫는다. 그리고 제작과정의 특성상 방짜기술은 그 강도와 밀도의 차이로 인해 수저뿐만 아니라 주걱이나 그릇 등 기타 다양한 제품으로 만드는데 활용된다.

방짜수저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은 먼저, 질 좋은 구리와 상납(주석)을 구리 1근당 상안 4.5냥의 비율로 녹인 후에 손가락 크기보다 조금 길게 홈이 파인 무디판에 붓고 식힌 다음 무디가락을 만든다. 이 무디가락 한 개가 수저 한 개분의 원료로 이것을 숯불에 알맞게 달구어 머루돌에 올려놓고 위와 아래를 뒤집어 가면서 망치로 번갈아 두드리면 숟가락 모양이 된다. 이후 숯불에 15회 이상 담금질을 되풀이하여 두드리면 쇠의 조직이 치밀해지고 강도가 높고 광택이 난다. 망치자국이 난 숟가락을 나무틀에 고정시키고 호비칼(쇠칼)

로 불에 익은 때를 벗겨내면 반짝이는 놋쇠의 살결이 드러난다. 여기에 줄질을 거듭하고 자루와 자루 끝에 대나무 모양이나 연봉 등을 조각하여 하나의 숟가락을 완성한다. 방짜수저장이 사용하는 호비칼 등 각종 도구는 가문에서 대물림되는 것으로, 수십 년을 이어오기도 한다. 방짜수저는 생김새에 따라 망치자국이 남아 있는 거친 막수저, 무늬 없이 두툼한 은간자, 가늘고 약한 반간자, 자루 끝에 무늬가 새겨진 꼭지수저로 나눈다.

강릉의 방짜수저장은 '참방짜'라는 표현을 쓴다. '참'이라는 표현을 쓰는 강릉 방짜수저는 참 쇠로 만들고, 참 빛을 띠고, 참 소리가 나고, 참 모양을 이루고, 참뜻을 얻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나왔다고 한다.

즉, 합금을 이용한 방짜수저의 제작 과정에서 구리와 주석의 비율이 조금만 달라져도 너무 강도가 세어져서 제련이 힘들거나, 또는 너무 물러져서 제련과정에서 쇠가 터져나간다. 정확한 원료 비율의 합금을 제련해 만든 것이 '참방짜'인 것이다.

따라서 참방짜수저는 참 쇠를 두드리고, 펴고, 다시 두드리는 전통적 과정을 반복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야 '참' 방짜수저가 탄생한다. 이러한 과정은 매우 정교하고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방짜수저 제작 과정



방짜수저 줄질 모습

도가니 속 쇳물의 열기만큼이나 뜨거운 장인의 열정과, 강릉에 울려 퍼지는 망치소리가 강릉 방짜수저의 지속적 전승을 이야기 한다

1) 장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강릉 방짜수저가 탄생하고 성장하다

(1) 강릉 방짜수저의 뿌리를 내리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4호 방짜수저장은 2016년 강릉의 김우찬과 양구의 김기찬이 보유자로 지정되고, 현재 이들 두 장인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

이러한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4호 방짜수저장의 탄생은 김우찬의 조부 김치근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릉 방짜수저 제작의 씨앗은 경상북도 봉화군 신흥리 유기촌에서 옮겨왔다고 한다. 현 강릉의 방짜수저장인 김우찬의 증조부가 경북 봉화에서 출생하여 신흥리 유기촌에서 성장하고, 그곳에서 방짜수저 제작기술을 배우고 익혔으며, 유기촌 촌장을 지냈다고 한다. 그리고 김우찬의 증조부로부터

기능을 전수받은 김우찬의 조부 김치근 역시 방짜유기 명산지인 경북 봉화군 신흥리에서 출생하여 봉화유기마을에서 생활하며 방짜수저 제작기술을 익히고, 이후 강릉으로 이주하였으며, 숱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평생을 강릉 방짜수저 제작에 몸 바쳤다고 한다.

김우찬의 조부 김치근은 일제강점기 때 경북 봉화에서 강릉으로 이주하여 노암동 대장간 터 뒤편에 공방을 차리고 방짜수저 제작을 시작하였다. 강릉 방짜수저의 시작이다.

김치근의 방짜수저 제작기술은 매우 탁월하여 일제강점기 때 개최된 전국품평회에서 1등으로 당선되어 상금 15원을 받기도 하였으며, 이때 출품된 수저는 5원에 팔렸었다고 김우찬은 그의 선친에게 전해 들었다고 한다.

그의 선대로부터 방짜수저 제작기술을 전수받고 익혀 온 김치근의 방짜기술은 다시 그의 아들 김영락(1920~2006, 2003년 강원도 무형문화재 14호 지정)에게로 전수된다. 김치근의 아들 김영락은 1920년 강릉시 노암동에서 출생하여 성장과정부터 그의 부친으로부터 방짜수저 제작기술을 전수 받는다. 그는 14세 때부터 10여 년간 1940년대 까지 철원, 평강, 춘천, 진부, 대화 등지에서 그의 부친을 조력하며 방짜수저 제작기술을 전수받았다고 한다.






대물림되어오는 도구들

(2) 인고의 성장과정에서 탄생한 강릉 방짜수저

이러한 방짜수저장의 전승은 일제강점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몇 번의 전승위기를 거친다.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인들의 놋쇠 공출로 인해 방짜의 정착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일본인들은 놋쇠 공출과 함께, 놋쇠 공출물의 유실을 막기 위해 방짜수저 제작을 금하였다. 그러나 김우찬의 조부 김치근과 부친 김영락,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일본인들의 눈을 피해 몰래 방짜수저를 제작하여 왔다. 이 와중에 김우찬의

부친인 김용락이 일제에 강제 징용되면서 전승위기는 더욱 심화되었다.

해방이후 닥친 한국전쟁 역시 강릉의 방짜수저 전승에 커다란 위기의 연속으로 작용하였다.

김우찬의 조부 김치근은 한국전쟁이 격해지자 다시 경상북도 봉화로 피난을 가게 되는데, 이 피난과정에서 김우찬의 조모께서 다른 피난보따리를 포기 하고, 그 무거운 방짜수저 500벌을 등짐으로 지고 피난길에 올랐다고 한다. 말이 500벌이지 여인의 몸으로 놋수저 500벌의 무게를 감당하며 피난가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방짜수저에 대한 그들의 애착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그들 부부는 피난지 장터에서 이를 팔아 피난살이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고, 방짜수저 재료와 도구를 구입해 방짜수저 제작을 지속하며 삶을 이끌어 나갔다는 이야기는 무형문화재 전승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큰 감동으로 후세에 인식된다.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의 산업화가 본격화 되면서 가정의 취사와 난방원료로 연탄을 사용하고, 그에 따라 산화되기 쉬운 유기제품 대신에 주로 양은 및 스테인레스 식기를 사용하면서 방짜수저장을 비롯한 방짜유기장들은 호구지책으로 다른 일자리를 구하게 되는 등 방짜유기 산업은 명맥을 이어나가는데 또 다시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⑶ 강릉 참방짜 제작을 위한 방짜공방을 마련하고 그 맥을 잇다.

여러 가지 시대적 난관 속에서 방짜유기 산업이 쇠퇴하던 중 김치근 으로부터 참방짜 제작기술을 전수받은 그의 아들

김영락은 그 힘든 시기에 다시 강릉으로 이주하여 강릉시 입암동에 정착하게 되고, 1987년 강릉시 입암동 자택에 방짜수저 공방을 열고 다시 수저를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김영락은 1993년 강릉의 주요 관광지중 하나인 강릉 선교장으로 공방을 옮기고, 전통적 제작방식을 고수하며 방짜수저를 제작하는 등 방짜수저 보호 및 전승에 혼신을 힘을 기울인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방짜수저의 전승을 위해 1997년부터는 그의 아들인 김우찬에게 가업을 이어주기 시작하였다. 김우찬의 당시 나이는 16세였다. 선교장의 방짜수저 공방은 2003년 3월까지 운영되었고, 이후 선교장 공방에서 가업을 이어 받은 김우찬은 강릉시 노암동 그의 자택에서 현재까지 방짜수저 공방을 운영하며, 또 다시 그의 아들에게까지 기능을 전승하고 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4호 김우찬 장인



한편 이러한 강릉의 방짜수저 제작기술은 강원도 양구까지 전파된다. 강원도 양구의 김용락은 그의 형인 강릉의 김영락 장인에게서 방짜기술을 전수받고 양구에 정착하여 방짜기술로 생업을 이어가며, 다시 그 기술을 그의 아들인 김기찬에게 전승하게 된다. 그의 아들 김기찬은 현재 강릉의 김우찬과 함께 2016년 11월,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4호 방짜수저장으로 인정되어 현재 강원도 방짜수저장은 강릉과 양구 두 곳에서 맥을 이어가고 있다.

2) 강릉 방짜수저 제작의 예술혼이 문화재가 되다

(1)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4호 방짜수저장 인정과 전승

김우찬의 조부 김치근에서 시작된 강릉의 방짜수저장은 김우찬의 부친인 김영락에게 이어졌고, 김영락의 갖은 전승노력과 활동으로 2003년 4월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4호로 인정되었다.

김영락 장인은 생전에 방짜수저 중에서 다산다복多産多福을 상징한다는 죽절문竹節文을 수저 자루에 새기고, 끝에는 연꽃 봉우리를 새긴 수저를 잘 만들었다. 이와 같은 수저는 후손인 김우찬에게도 계승되고 있다. 이러한 전수 체계를 통해 강원도 전통 방짜공예품의 전승이 가능해졌다고 평가된다.

김영락의 방짜수저 전승과정에서 활동 및 수상경력을 보면, 1993년 제23회 전국공예품경진대회 강원도 예선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였으며, 동년 제18회 전국 전승공예대전에 입상, 1997년・1999년도 방짜유기 기능전수자, 2000년 제30

회 전국공예대전 강원도 예선대회 금상 수상, 2003년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4호 방짜수저장으로 인정되었다.

이후 김영락의 아들 김우찬은 2005년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되어 전승이 지속된다.

강릉의 방짜수저 제작기능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던 김영락은 방짜수저의 전승과정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으며, 강원도지역에서 빛나는 참방짜 문화를 보급하고 전승하다가 2006년 3월 29일 자택에서 사망하였다. 그의 아들 김우찬의 말에 의하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방짜수저 제작을 손에서 놓지 않았으며, 주위의 지인들에게 강릉의 방짜수저 전승을 위한 도움을 독려하였다고 한다.

3) 공방주위로 울려 퍼지는 망치소리로 강릉 방짜수저 전승의지를 말한다.

(1) 2대를 잇는 강릉 방짜수저 제작기술

현재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4호 방짜수저장인 김우찬은 16세 때부터 그의 부친 김영락으로부터 방짜수저 제작기술을 전수받기 시작하였다.

그는 방짜수저 제작기술의 전수를 위해 전수생 시절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김우찬은 2002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기능전승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이후 김우찬이 방짜수저장 전수교육 중 그의 부친이 돌아가시고, 김우찬은 홀로 부친의 유업을 받들어 더욱 방짜수저 전승에 노력을 기울인다.

홀로 쇳물을 녹이고, 힘겨운 망치질을 하며 스스로의 고단한 마음도 함께 단련해가며 방짜수저 전수노력 속에서 그는 2006년 강릉문화원에서 제1회 방짜수저 전시회를 가졌다. 물론 처음 전시회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행사를 갖게 되기까지 강릉시 및 강릉문화원, 그리고 주위 지인들의 지원도 함께 보태졌다. 제1회 방짜수저 전시회를 시작으로 2018년 현재 13회째 방짜수저 전시회를 마쳤다.

또한 그는 방짜수저 전시회 뿐만 아니라 강릉지역 내외 다양한 문화행사에 초대되어 수많은 전시・체험행사를 행하며, 그의 기량을 키우고 강릉의 방짜수저를 알리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수많은 세월동안 방짜수저를 알리는 노력과 방짜수저 기술을 연마하며 그는 전국공예품대전과 강원도 및 강릉시 공예품경진대회 등 전국의 수많은 대회에서 입상 한다. 또한 수많은 세월동안 수련을 한 결과로 국내 각지의 예술행사에 초대작가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4) 강릉 방짜수저의 미래를 보다

김우찬은 2005년 6월 28일 방짜수저장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받았으며 조교 인정 후 수많은 전승활동을 거쳐 2016년 11월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4호 방짜수저장으로 인정받았다.



강릉시 방짜수저장
체험장

현재 김우찬은 강릉시 입암동 자택에서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공방을 운영하며 전승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그의 노력은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인정되기 이전부터 남다르게 전개되어 왔다. 김우찬과 그의 주변 지인들 및 강릉시민들의 참여로 방짜수저보존회가 2008년 결성되어 제작 기법을 전승 보존하는 활동을 현재까지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대 시민 체험활동과 청소년 교육 등을 통하여 방짜수저에 대한 기능성과 활용성 그리고 문화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다.



김우찬 장인의 방짜수저

이제 강릉 방짜수저의 제작기술과

가치 등은 최근 김우찬의 아들 김종원 군에게까지 전승되고 있다. 김종원 군은 김우찬과 마찬가지로 학업과 전승을 병행하며 방짜수저 제작기술을 이어 받고 있다.

김종원 군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전승활동 및 노력을 보아 왔기에, 그 누구보다도 강릉 방짜수저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스스로 방짜수저장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였다. 현재, 아버지인 김우찬과 함께 방짜수저 체험장을 누비며 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공방에서 그 고된 방짜기술을 연마하고 있다. 현재 그의 나이 16세이다. 김우찬이 처음 방짜수저 제작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나이와 같다.

방짜수저 전승노력과 문화정체성 유지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현대인들의 관심이 줄어든 전통문화를 잇는다는 것은 방짜수저의 전승노력과정을 살펴볼 때 외롭고도 험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인 방짜수저가 지니는 문화적 가치를 현대인들에게 인식시키고 그들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기란, 단단한 금속을 견디기 힘든 뜨거운 열기로 녹이고 고단한 노동으로 고장 난 어깨에 주사를 맞으면서 까지 망치로 수 백, 수 천 번을 두드려 방짜수저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힘이 들었다. 이는 선대부터 뿌리내린 강릉 방짜수저를 지키겠다는 특별한 자부심과 쇠심줄 같은 장인의 외고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문화는 일부 형식과 포장이 바뀔 뿐 그 본질은 끝없이 이어져 간다. 한반도의 현대인들은 섭생을 위해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해 왔고 여전히 지속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 수저의 재질이 일부 바뀌었을 뿐이다. 그리고 수저라는 문명생활의 필수적 도구를 지키기 위해 장인들의 오랜 세월 흘려온 정성과 예술혼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수저 문화를 지속할 수 있었다.

오늘날 수저를 사용하는 현대 한국인들은 수저문화의 본질이 방짜수저를 통해서도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방짜수저가 지니는 문화적 본질성을 당연히 지키고 유지시켜야 할 것이다.

6.

강릉 갈골과줄

무형유산 범주

- 구분 :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3호
- 영역 :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무형유산 내용

- 잔치와 통과의례 반열에 오른 과줄
- 세계에 짝이 없는 조선최고의 과자
- 품격 높은 손맛, 무형문화재를 빚다
- 과줄로 꽃핀 미각, 문화전통을 잇다

잔치와 통과의례 반열에 오른 과줄

2013년 4월 12일, 갈골과줄 최봉석이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3호 기능보유자가 되었다. 강릉 갈골마을에서 집안대대로 과줄제조 기능을 이어와 2000년 한과최초로 전통식품명인



강릉 갈골과줄

지정을 받은 이래 꾸준히 전통을 계승한 결과였다. 최봉석은 동해안 모래를 사용하여 튀기는 모래과줄의 전통방식을 보유하였고 집안대대로 사용한 독특한 발효법과 고유한 제조방법으로 음식분야는 강원도 최초로 인정되었다.

'과줄'은 고유하고 특별한 우리의 별식 먹거리다. 이것을 강릉에서는 '과질'이라고도 발음하고 한자로는 '산자散子'라고 쓰는데, 여기에 쌀미米, 밥식食자를 변으로 보태어 '饊子·糝子'라 쓰기도 한다. 조선시대 실학자 성호 이익李瀷(1681~ 1763)은 『성호사설星湖僿說』에서 볶은 벼를 '산자'라 칭했다 하고, 찰벼를 껍질 그대로 솥에 넣고 볶으면 쌀이 튀어서 흩어지는 까닭에 그와 같이 불렀다고 한다. 별도로 떡을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어 기름에 튀기고 엿을 발라 튀밥을 붙인 것도 산자라고 하는데, 그것은 볶은 찰벼를 묻혔기 때문에 그와 같이 부른 것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가짜로 된 것을 '조造'라고 하는데, 처음에 꿀과 밀가루로 과일모양을 만든 데서 그런 이름이 붙게 되었으며 후세 사람들이 조과의 모양이 둥글어서 높이 쌓을 수 없었기 때문에 네모나게 만들었으나 이름만은 본래대로 조과라 불렀다고 하였다.

강릉 갈골마을에서는 산자의 바탕을 밀가루로 한 것을 과

질, 찹쌀로 한 것은 '과줄'로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현재 사용되는 '과줄'의 고어는 16세기경 자료에 '과즐' '과즐'로 기록한 내용이 전하는데, 그 명칭은 '과果'에 초점을 맞춘 '조과'라고 하겠다. 또한 본래 과줄의 한자어인 '산자'라는 것은 쌀을 튀긴 것으로 강정에 산자를 붙이게 되면서부터 '강정'을 '산자'라고 하여 이름만 같고 형태가 변한 것이라 하였다. 즉 생과生果와 달리 곡식으로 만들어 오래두고 먹을 수 있게 만든 실과라는 뜻에서 '조과造果'라고도 한다.

중국 원나라 사람들이 우리의 과줄을 고려병이라고 말한 것에서 '고려병高麗餠 과즐'이라고 쓴 책도 있으며, "과일 줄에 늘어놓았다" 는 의미로 '과열果列'이라 하고 '줄 열列'자 이므로 이를 훈차訓借하여 '과줄'이라 부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과줄'의 '과'는 과실果實에서 비롯된 것이고 '줄' 또는 '즐'은 제수용품으로 과일 줄에 나열하거나 줄을 지어놓았다는 뜻의 '열列'로 볼 수 있다. 다른 의미를 생각해보면 '바탕'을 뜻하는 '질質'에서 유래가 된 것이 아닐까 의심된다. 즉 언제나 시시때때로 대접하거나 먹을 수 있고 제물로도 사용하도록 '과일 맛을 낸 과자'라는 뜻의 '과질'로 추정할 수 있다. 과줄은 과일을 먹기 전이나 혹은 과일을 먹은 후에 먹는 당과류와 단음식으로 과일 옆에 차리는데,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과줄, 약과, 다식, 단빵류, 단떡류 등이 있다.

홍석모洪錫謨(1781~1857)가 쓴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도 유과인 건정乾飣(강정)류가 시장에서 많이 파는 시식으로 "이듬해 설과 봄철에 이르도록 일반 민가의 제수용품으로 과일 줄인 과열果列에 같이 들어가며, 또한 설음식으로 손님을 대

접할 때도 없어서는 안 될 음식이 되었다"고 하였다.

'과줄'은 쌀을 꿀에 반죽하여 기름에 지져낸 과자로서 임금님의 어상御床을 비롯하여 궁중음식과 상류계급의 기호식품으로 각광을 받았다. 문헌에 과줄이 등장한 것은 일연이 지은 『삼국유사三國遺事』 2권 가락국기 수로왕 기록에는 떡, 술, 차 등과 함께 제수로 쓰인 '과菓'가 나온다. "왕의 17대손 갱세급간이 나라의 뜻을 받들어 그 밭을 관장하고, 매년 세시 때 술을 빚고 떡, 밥, 차, 과 등의 음식을 갖추고 제사를 지내어 해마다 끊이지 않게 하였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과菓는 다과로서 차와 함께 쓰인 조과의 일종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과자菓子의 기원이 과일이 없는 계절에도 제수나 연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러한 형태로 만든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전하므로, 과실형태로 만든 과자인 조과造果를 대용하였던 것이며, 이 조과가 오늘날 과줄의 별칭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래 과자를 한과韓果라고 부르는 것은 서양에서 들어온 양과洋果와 구분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며, 과일모양으로 만든 과자를 조과라 부른 것은 실제 과일인 생과生果의 반대로 쓰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통일신라 때부터 불교신앙과 함께 차 마시는 풍속이 퍼지면서, 곁들여 먹는 각종 조과가 개발되었으며, 특히 고려시기에 들어와 불교신앙으로 육식이 금지되고, 차 문화가 성행하여 각종 조과류도 급속히 발전하였다. 조과류는 불교행사인 연등회나 팔관회 등 공사연회나 제례 등에 사용되었으며, 왕의 행차 시 사원이나 고을에서 만들어 진상하기도 하였다.

『고려사高麗史』에는 재료의 특성과 가공기술의 우수성, 특

이한 맛으로 인하여 중국까지 알려졌다고 전한다. 즉 고려 충렬왕 22년(1296)에 "왕과 공주가 원나라에 갔을 때 연회를 차렸는데 이날 연회에 모두 우리나라의 유밀과를 사용하였다"(『고려사』 권31, 세가 충렬왕 22년, 11월 임진)라고 하였다. 궁중 연회에 사용한 유밀과를 모두 가져가 절찬을 받았으므로 이때부터 우리나라 과줄을 고려병高麗餠이라 불렀다고 한다.

유밀과는 고급재료를 사용한 과자류에 속하므로 주로 연회와 결혼, 회갑과 같이 큰 의례 때나 만들어서 먹었으며 평민들은 만들지 못하게 금지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법전인 『대전회통大典會通』에도 "헌수, 혼인, 제향 이외에 조과를 사용하는 사람은 곤장을 맞도록 규정한다."고 하여 귀한 재료가 사용되는 과줄제조를 금지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유밀과는 조선시대에 약과, 조과 등으로 불리며 궁중음식, 의례음식 그리고 기호식품으로 민간에서 널리 퍼져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유밀과는 광의의 명칭으로 유과와 밀과로 나누기도 하고 약과와 강정(산자, 과줄)으로 분류하며, 약과는 밀가루, 꿀, 기름, 술, 생강즙을 한데 섞어 반죽하여 약과판에 찍든가,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 기름에 지져가지고 꿀에 재웠다가 잣가루, 계피가루를 뿌린 것으로, 그 종류는 만두과, 다식과, 중배끼 등이 있었다.

강정은 찹쌀가루를 술에 반죽하여 삭힌 것을 일정한 형태로 만들어 말린 다음 기름에 튀겨 물엿 또는 꿀을 바르고 산자를 붙인 것으로 일명 '산자'라는 '과줄'의 일종이다. 강정 재료로 쓰인 꿀, 깨, 찹쌀 등은 장수보약제로 널리 쓰인 것인데, 연사과軟絲果, 감사과甘沙果, 요화蓼花, 빙사과氷砂果 등이

이에 속하였다.

과줄은 강릉지역의 고유한 전통을 지닌 향토음식이자 의례음식으로서 각종 제례나 돌상, 혼례와 회갑상 등에서 당당하게 고임을 받으며, 사람들의 입안에서 달콤하게 녹아들고, 하얀 밥풀은 날아갈 듯 아름답기까지 하다. '바삭바삭 과줄' '쫄깃쫄깃 떡' '모락모락 밥' '아삭아삭 김치' '후룩후룩 국'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전통음식문화 가운데 밥, 국, 김치와 같은 일상적 음식과 달리 떡과 과줄은 고유한 전통의 먹거리 미학을 갖춘 셈이다. 이처럼 과줄은 고유한 강릉의 별식으로서 문향文鄕과 예향禮鄕을 중시하는 강릉에서는 민속적 의미가 남다르고 문화적 가치도 높다고 할 수 있다. 과줄은 이처럼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솜씨 있게 만들어 먹어온 맛있는 당과류로 제사와 연향宴饗에서 사용되는 대표적 민족음식이다.

세계에 짝이 없는 조선최고의 과자

과줄의 문화사적 전통은 민족문화로서 일정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문화사文化史는 다양한 시대와 지역의 정신, 문화적인 인간 활동의 연구와 그 기술이다. 문화사의 개념은 인류의 끊임없는 문화적인 발전이라는 계몽주의 신념에 근거한다. 문화 역사 요소는 가족, 언어, 풍습, 종교, 예술, 과학 등이다. 또한, 일상이라는 소재를 포함한 다양한 소재에 따라 서술된다.

인류의 음식문화발전이라는 문화사적 신념으로 본다면 전통 과자이자 제수로서 연회宴會음식, 제향祭享음식, 혼례婚禮음식, 시속時俗음식용으로 두루 사용된 과줄의 문화적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과줄'이 지닌 문화사적 의미를 강조하면 "세계에 자랑하고도 남는 조선음식"이며, "세계에 짝이 없을 만큼 특색 있고, 조선에서 만드는 최고급 과자 가운데 최고의 대표적 상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 과줄[油菓] 과줄이란 것은 상예물에 쓰는 것인데 그 재료로 말하면 밀가루를 꿀에 반죽하야 모양으로 판에 박아서 기름을 띠이는 것입니다. 영양분으로 말하면 밀가루보다도 꿀이란 것이 사람에게 대단이 유익한 까닭으로 맛으로 볼지라도 과자대신으로 쓸 수 잇고 중복에도 적당한 자랑거리가 되고도 남는 것입니다.
>
> 홍선표, 「세계에 자랑하고도 남는 조선음식의 재인식」, 『동아일보』, 1939.1.5.

> 밀ㅅ가루 반죽을 혹 넓적 혹 둥그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조각을 내여서 꿀과 기름에 흠씬 지져내는 것을 油蜜果라 하고 보통으론 藥果라고 부르니 조선에서 만드는 菓子가운데 가장 상품이오 또 전무력을 드려 투박스럽게 만드는 점으로 世界에 그 짝이 업슬만콤 특색있는 과자입니다. 조선의 잔치란 잔치와 이름잇는 제사에는 이것이 업슬수 업는 것이되고 나라의 큰 잔치에는 이것을 여러 천 여러 만식을 만드러야 하는데 그 소일무력이 심히 호대함으로써 국가의 긔구로도 이를 담당하지 못하야 혹 몃 해 몃十년식 이를 폐지하고 만들지 못하며 또 일반민간의 만드러씀을 엄령으로써 금단도 하얏습니다. 大典通編을 보건대 인민의 집

婚喪에 油蜜果를 쓰는 자는 곤장 八十을 맛는다고 정해잇습니다. 崔南善, 『朝鮮常識問答』, 東明社, 1946, 53쪽

俗에 과줄이라 하고(지방에서는 산자를 과줄이라는 곳이 많다) 자는 또 조과 약과라고도 쓴다. 진역에 잇는 최고급의 과자. 본대 불공의 소찬으로부터 발달하야 고려의 숭불시대에 공사제사에 어육을 피함을 따라 거긔 대하는 주요한 찬품이 되고 다시 번져서 일반향연상의 대표적 과종을 일운 것이라 한다.

崔南善, 『朝鮮常識 風俗篇』, 東明社, 1948, 163쪽

이처럼 과줄의 음식문화사적 가치는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도 평가된다. 지난해 북한에서 '과줄만들기'라는 명칭으로 국가비물질문화재(한국의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것도 깊은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 전통 과자류는 과정류 또는 한과류라고 부른다. 과정류는 주재료가 곡물, 꿀, 기름이 갖추어진 것으로 이것으로 과정류를 만든 것은 삼국통일 이후라고 한다.

'과줄' 용어는 약 4백 년 전의 문헌인 『계축일기癸丑日記』에서 나타나는데, 이를 보면 늦어도 광해군 이전인 17세기 무렵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과줄'을 유과류로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과자 가운데 으뜸이라고 평가하며 유과는 산자(과줄), 강정, 빙사과 등으로 그 모양과 고물에 따라 이름이 다르나 경사 때, 제사 때 꼭 차리는 명절음식으로 입에 넣으면 바삭하게 부서지면서 사르르 녹는데 매력이 있다.

강릉시 사천면 사화산을 배경을 한 노동중리는 전래지명이

'갈골'이다. 이와 같이 불리는 이유는 '갈대밭'과 갈 숲이 많아서 갈대의 '갈'자와 마을이라는 뜻의 '고을'을 줄인 '골'을 합쳐서 불렀다고 전하며, 그런 이유로 노동蘆洞이라고 썼다. 그러나 일부 주민의 의견은 갈대보다는 갈참나무 즉 상목橡木이 많아서 '갈골'이라 불렸을 것으로도 전하고 있다.

옛날에 갈골 마을은 강릉 최씨와 풍천 임씨가 처음 개척했으며, 마씨 성을 가진 집안도 이곳에서 살았다고 한다. 이 마을은 풍수지리적으로 태백산맥 줄기인 운계봉 줄기를 타고 뒤쪽에는 흰재가 있고 앞에는 사천천이 흘러 배산임수의 넓은 들이 형성된 곳으로 농토가 비옥하다. 조선시대 강릉사천 출신으로 최초의 한글소설 홍길동전을 쓴 교산蛟山 허균許筠(1569~1618)은 음식평론서인 『도문대작屠門大嚼』을 1611년에 썼는데, 밀병으로 약과, 산자 등을 언급하며 제사나 손님접대에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 마을 입구에는 '절드루'라 하여 절이 있었던 들판이 있다고 하며 갈대가 생존할 늪이 있었던 곳은 찾지 못했다. 『훈몽자회訓蒙字會』에 의하면 '坪(평)'은 드루'라 하였으며, 이것은 '들'을 뜻하는데, 예를 들면 북평을 '뒷드루'라고 표기한 것과 같다. 조선시대에 이 마을에는 원씨와 마씨가 와서 살았는데 마씨의 경우 풍수지리상 "말이 갈밭에서 살면 먹는 것이 풍족하다"고 하여 이 마을에서 성공할 것으로 알았는데, 결국 잘살지 못하여 마을을 떠났다는 전설이 전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 풍천 임씨들이 이곳에 정착해서 살 때에도 늪이 없었고 떡갈나무밭이 우거져 있던 곳이라고 한다.

갈골마을 자연지명으로는 버당마을, 청룡안, 청룡밖, 절드

루(절두루) 등이 있는데 전하는 말로는 "갈골에 살려면 청룡안에 살아라" 하는 말이 전할 정도로 명당지에 속한다. 청룡안에는 서당도 있었고, 진사하신 분이 나왔는데 최봉석의 6대조 최식이다. 조선조 말에 진사급제한 교지가 지금도 집안에 전하고 있다. 최식 진사는 부친 가선대부 최시박과 효부로 소문난 정선 전씨의 아들로 혼인 후 살림을 내서 청룡안 물건너에 살았었는데, 나무로 새를 깎아서 올려놓은 조간형태의 깃대를 집 앞에 세워놓았다고 한다.

사천지역의 인물로는 7번 국도 안에서 사기막에 초시한 분이 있고, 최봉석의 집안에 진사한 분만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성산내령이라고 하여 산대월 쪽에서는 벼슬한 분들이 많이 났고, 하평에는 조선 중기 판서를 한 애일당 강릉김씨 집에 인물이 많이 났으며, 박감찰집이라 하여 덕실리 위의 터에서 인물이 났다고 한다. 그러므로 갈골 청룡안의 최씨 집안에서 진사도 났을 뿐 아니라 16대의 3백여년을 한 터에서 살았다는 것은 강릉에서도 드물다고 할 수 있다.

품격높은 손맛, 무형문화재를 빗다

최봉석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살고 있는 사천마을에는 지명에 있듯이 바다와 가까이 있으므로 모래를 이용하여 과줄을 만들어냈다. '금산은 기계과줄, 사천은 모래과줄'이라는 말이 전할 정도로 이곳 모래과줄의 전통을 최봉석 보유자 가문에서 전통으로 지켜나가고 있다.

최봉석 과줄은 맑은 물에 담근 찹쌀을 습도와 온도를 맞추어 발효시키는 전통방식을 사용하는 한과 중 유일하다. 발효

과정에서 냄새가 나지만, 김치나 장류처럼 발효식품의 효능은 인간에게 유익하기 그지없다.

최봉석의 갈골과줄 만드는 과정을 보면 만드는 이의 정성과 숙성의 인내가 그대로 반영되며, 또한 이 가문만의 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고유한 제조기법, 기술력들이 숨겨져 있다. 이러한 점을 소개할 수 없으나 일반적인 제조과정에 따른 순서는 무려 15차례를 거친다.

① 찹쌀발효 ② 세척하기 ③ 절구찧기 ④ 체치기 ⑤ 콩물만들기 ⑥ 반죽하기 ⑦ 찜들이기 ⑧ 꽈리치기 ⑨ 바탕펼치기 ⑩ 바탕썰기 ⑪ 바탕건조 ⑫ 1차튀기기 ⑬ 2차튀기기 ⑭ 엿바르기(집청) ⑮ 튀밥입히기

과줄은 먼저 찹쌀을 보름정도 발효시킨 뒤 곱게 빻아 콩물로 반죽한다. 이 반죽을 시루에 쪄서 작은 공기인 꽈리가 일도록 방망이로 충분히 두들겨 준다. 이 꽈리치기를 충분히 잘해야 이른바 '속빈 강정'이 아니라 미세한 공기구멍이 고르게 퍼진 바삭하면서도 부드러운 과줄이 된다. 공기를 충분히 머금은 반죽을 얇게 펴서 찹쌀편을 만들어 16℃정도의 그늘에서 말린다. 이것을 수시로 뒤집어 양쪽이 잘 말라 손톱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바짝 말린 편을 적당한 온도에서 두 차례 튀긴다. 기름이나 모래에 튀기는 과정도 고도의 숙련성이 요구된다. 손가락만한 찹쌀편이 손바닥보다 크게 늘어나면, 여기에 조청을 바르고 밥풀, 깨 등을 살짝 입히면 맛있고 품위있는 갈골과줄이 탄생한다.

갈골과줄은 일반과줄에 비해 같은 크기의 바탕에서도 튀긴 후에 부풀어 오르는 두께가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산자는 많이 부풀수록 좋은 것으로 인정하는데 이것은 옛부터 궁궐이나 일반 민가에서도 정월 초하룻날 부풀어 오른 두께에 따라 승부를 겨루는 놀이가 있을 정도였다. 따라서 발효식품인 갈골과줄의 부드러운 맛은 사천쌀의 청정함과 한과에 바르는 천연 백청인 조청맛, 발효기술, 반죽 꽤리치기의 바탕기술 등 옛날방식 그대로 재현해 내는 독특하고 숙련된 비법으로 미각을 확보하고 있다.

제조과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발효식품인 찹쌀과줄 및 찹쌀강정은, 그 제조과정에 있어서 대부분의 일반 한과가 기름에 튀길 때 부풀어나는 시간이 2~3초정도 걸리는 것에 비해 갈골과줄은 그 절반인 1초~1.5초 만에 부풀어 오르는데 이것은 바로 바탕을 만들 때 기술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다음 두께의 차이를 보면, 갈골과줄은 일반과줄에 비해 같은 바탕의 크기에서도 기름에 튀긴 후 부풀어 오르는 두께가 2배정도 차이가 나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예로부터 과줄은 많이 부풀어 오를수록 좋은 것으로 인정 하였는데, 우리의 민속놀이에 정월 초하룻날 아녀자들이 부풀어 오른 과줄의 높이에 따라 승부를 겨루는 놀이가 있었던 것에서 알 수 있다. 과줄 속의 구멍인 기포의 차이는 과줄을 씹을 때 부드러운 느낌의 차이는 바로 과줄 속의 기포와 공간의 크기에서 결정된다. 강릉의 과줄이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끄는 이유 중의 하나가 씹을 때 입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깊고 부드러운 전통 그대로의 맛 때문이다.











찹쌀발효 하는 모습	세척하는 모습
반죽하는 모습	바탕 썰어 건조하는 모습
	튀기는 모습







엿 바르는 모습	튀밥 입히는 모습
완성된 모습	

과줄의 주원료는 찹쌀과 조청 그리고 종실류 등의 곡물 즉 알칼리성분으로 이루어져있다. 곡물로서의 쌀은 열량원으로의 기능 외에 단백질원으로서도 육류를 앞지르는 좋은 재료이며 표면에 묻히는 튀밥인 종실류의 성분도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비타민B1, B2도 많이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을 주성분으로 한 종실유가 서양 주식인 육식류에 비해 콜레스테롤이 적으므로 건강위생 상으로도 전통과줄은 매우 좋다.

또한 분해가 잘되어 식물성기름과 쌀조청, 옥수수조청, 꿀 등 설탕이 아닌 양질의 당질을 사용함으로 영양식품으로서도 건강식품으로서도 매우 뛰어난 우리의 전통식품이다. 우리의 전통한과는 만드는 방법에 따라 기름에 지지는 과줄(유밀과류), 기름에 튀기는 과줄(유과류), 판에 찍어 내는 과줄(다식류), 조리는 과줄(정과류), 엿에 버무리는 과줄(엿강정류), 고는 과줄(엿) 등이 있다. 최봉석의 찹쌀과줄, 찹쌀강정, 매화과줄, 모래과줄 만드는 법을 차례로 소개한다.

ㅁ찹쌀과줄

갈골찹쌀과줄은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납작하게 만든 조각(바탕)을 말려 두 번 기름에 튀기고 꿀이나 조청을 발라 각종 고물(튀밥, 깨 등)을 앞뒤에 붙인 유과다. 찹쌀과줄은 속이 꽉 차 있고 벌집처럼 형성되어 있어 그 맛이 일품이다. 과줄은 지금도 잔칫상, 회갑상, 돌상, 제사상 등에 널리 사용하고 있다.

[재료] 찹쌀, 멥쌀, 꿀, 조청, 콩물, 고물(각색), 감자전분,

식용유 등

[만드는 법] ① 찹쌀을 물로 씻어서 10~15일간 정도 물에 담갔다가 섭씨 25~30도로 발효를 한 다음, 빻아서 가루를 내어 가는 체로 내린다 ② 가루가 된 찹쌀을 엷은 콩물에 반죽하여 가마솥에 넣고 찐다 ③ 다 쪄진 찰떡을 방망이로 꽈리가 많이 일어나도록 떡치듯 치기를 하여 더욱 찰지고 연하게 만든다 ④ 차지게 다진 찹쌀반죽을 안반 위에 감자전분가루를 뿌리고 그 위에 찰떡을 붓는다 ⑤ 찰떡을 얇게 민 다음에 가로와 세로 약 10㎝ 정도로 일정하게 썰어서 몇 번씩 뒤집는다 ⑥ 찹쌀바탕을 그늘에 말리면서 하룻밤이나 24시간 정도 숙성시킨다 ⑦ 충분히 말린 바탕을 섭씨 70~100도의 기름에 1차로 살짝 불린다 ⑧ 1차로 불린 바탕을 섭씨 200~230도의 기름에 튀긴다 이때 숟가락이나 도구를 이용해 바탕 전체가 골고루 부풀어 일어나도록 균형을 잡아준다 ⑨ 노릇노릇하게 익은 바탕을 꺼내 기름을 빼낸 후 꿀이나 조청을 고르게 충분히 스며들게 앞뒤로 바른다 ⑩ 조청을 바른 바탕에 튀밥쌀을 앞뒤로 골고루 묻힌다

ㅁ찹쌀강정

강정은 제례, 혼례잔치에 쓰이는 필수 과정류의 하나며 그 모양이 마치 누에고치 같다하여 견병繭餠이라고도 부른다. 강정의 바탕은 찹쌀로 만들고 표면에 묻히는 고물(튀밥)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며 그 재료에 따라 분류하기도 한다.

[재료] 찹쌀, 멥쌀, 꿀, 조청, 콩물, 고물(각색), 감자전분,

식용유 등

[만드는 법] ① 찹쌀을 물로 씻어서 10~15일 정도 물에 담갔다가 섭씨 25~30도로 발효시킨 다음, 빻아서 가루를 내어 가는 체로 내린다 ② 가루가 된 찹쌀을 엷은 콩물에 반죽하여 가마솥에 넣고 찐다 ③ 다 쪄진 찰떡을 방망이로 꽈리가 많이 일어나도록 떡치듯 치기를 하여 더욱 찰지면서 연하게 만든다 ④ 차지게 다진 찹쌀반죽은 안반 위에 감자전분가루를 뿌린 다음 그 위에 찰떡을 붓는다 ⑤ 찰떡을 두께 0.5~0.7㎝, 길이 3~4㎝ 정도로 썰어 그늘에서 말린다. ⑥ 찹쌀바탕을 하룻밤에서 24시간 정도 숙성시킨다 ⑦ 충분히 마른 바탕을 섭씨 70~100도의 기름에 1차로 살짝 불린다 ⑧ 1차로 불린 바탕을 섭씨 200~230도의 기름에 2차로 튀긴다 ⑨ 손가락 모양으로 튀겨진 강정을 건져내어 꿀이나 조청으로 버무린다 ⑩ 이렇게 버무려진 강정에 튀밥쌀을 묻힌다

□ 매화과즐

[재료] 찹쌀, 찰벼, 꿀, 조청, 콩물, 감자전분, 식용유, 집청꿀 등

[만드는 법] ① 찹쌀을 물로 씻어서 10~15일간 정도 물에 담갔다가 섭씨 25~30도로 발효를 한 다음, 빻아서 가루를 내어 가는 체로 내린다 ② 가루가 된 찹쌀을 엷은 콩물에 반죽하여 가마솥에 넣고 찐다 ③ 다 쪄진 찰떡을 방망이로 꽈리가 많이 일어나도록 떡치듯 치기를 하여 더욱 찰지고 연하게 만든다 ④ 차지게 다진 찹쌀반죽을 안반 위에 감자

전분가루를 뿌리고 그 위에 찰떡을 붓는다 ⑤ 찰떡을 얇게 민 다음에 가로와 세로 약 10㎝ 정도로 일정하게 썰어서 몇 번씩 뒤집는다 ⑥ 참쌀바탕을 그늘에 말리면서 하룻밤이나 24시간 정도 숙성시킨다 ⑦ 충분히 말린 바탕을 섭씨 70~100도의 기름에 1차로 살짝 불린다 ⑧ 1차로 불린 바탕을 섭씨 200~230도의 기름에 튀긴다 이때 숟가락이나 도구를 이용해 바탕 전체가 골고루 부풀어 일어나도록 균형을 잡아준다 ⑨ 노릇노릇하게 익은 바탕을 꺼내 기름을 빼낸 후 꿀이나 조청을 고르게 충분히 스며들게 앞뒤로 바른다 ⑩ 찰벼를 물에 축여 그릇에 담아 재우고, 이튿날 솥에 불을 세게 하여 찰벼를 조금씩 넣고 튀긴 다음 키로 까불러 모양이 예쁜 것만을 모은다 ⑪ 튀긴 매화밥을 집청한 산자에 줄지어 박는다. 기름에 튀겨낸 산자에 매화밥을 줄지어 박는다.

ㅁ모래과즐

[만드는 법] ① 모래채취 ② 모래선별 ③ 모래세척 ④ 모래가열 ⑤ 바탕털기 ⑥ 바탕튀기기 ⑦ 모래털기 ⑧ 모래파내기

최봉석이 제조하는 과줄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제조과정의 특징이다. 발효과정을 거치는 갈골과줄은 그 제조과정에 있어서 대부분 일반 한과가 기름에 튀길 때 부풀어나는 시간이 2~3초 정도 걸리는 것에 비해 그 절반인 1초 내지 1.5초 만에 부풀어 오른다. 이것은 바탕을 만드는 기술력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둘째는 두께의 차이다. 갈골과줄은 일반 과줄에 비해서 같

은 바탕의 크기에서도 기름에 튀긴 후 부풀어 오르는 두께가 두 배 정도 차이난다. 이것은 큰 차이로서 예로부터 과줄은 많이 부풀어 오를수록 좋은 제품으로 인정하였다. 정월초하룻날 강릉의 부녀자들은 과줄의 부풀어 오른 높이로 승부를 겨루기도 하였다.

셋째는 과줄 속 구멍의 차이다. 과줄은 입에 넣고 씹을 때 부드러운 느낌이 식감을 좌우한다. 이것은 과줄 속의 기포와 공간의 크기에서 결정되는데 꽈리치기를 하기 때문이다. '꽈리'는 공기구멍인 기포氣泡로서 『규합총서閨閤叢書』에는 '꼬아리'라 하였다. 갈골과줄이 호평을 받는 이유는 기포가 충분하여 입 속에서 느끼는 깊고 부드러우며 달콤한 맛 때문이다.

넷째는 갈골과줄은 바탕으로 사용되는 찹쌀을 발효시켜 그 맛을 제고하는 기술력이다. 한국인의 발효식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김치와 장류가 있는데, 과줄도 발효과정을 통해서 인체에 유익함을 추구하고, 콩물을 사용하여 고소함과 찰기를 유지시키는 대를 잇는 가승 비법이 전승된다.


강릉 갈골과줄

다섯째, 약식동원藥食同源이라는 말과 같이 갈골과줄은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으로 방부제나 표백제, 팽창제, 보존제 등 화학첨가물을 일체 사용하지 않은 순수 자연식이며, 비타민과 지방이 풍

부한 건강식품으로 저장성과 보존성이 탁월하며 시각적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등 수백년 조상들의 지혜를 계승하여 고유하고 깊은 맛을 유지하고 있다.

과줄의 역사는 구전 뿐 아니라 여러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과줄의 한자어는 '산자散子'이다. 이것을 강릉에서는 과질, 과즐, 가질, 몰개뼉따구 등으로도 부른다. 고어로는 '과즐' '과ᄌᆞᆯ' 등으로 기록되어 있는바, 조선 명종 8년(1553) 인목대비의 내인이 썼다는 『계축일기癸丑日記』에 '과ᄌᆞᆯ'이라 했으며, 역관 강우성康遇聖이 지은 『첩해신어捷解新語』(1676년)에는 '과즐'이라 하여 "과즐과 건물과 머글거슬 다 머검즉이 쟝만ᄒᆞ엿 ᄉᆞ오니"라고 하여 먹거리로 먹음직하게 장만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 『동문유해』(1748년)에는 '유과자油果子 과즐'이라 했으며, 『한청문감』(1770년)에는 '고려병高麗餠 과즐'이라 하였고, 이만영李晩永이 1798년에 쓴 『재물보才物譜』에 의하면, 약과에 속하며 과일과 같이 차려지는 반열 줄에 들어서 '과열果列' 속어로 '과즐'이라 불렀다 한다. 이렇듯이 '과줄'은 '과즐'에서 유래한 우리 전래과자이다.

강릉농가에서는 세서연洗鋤宴(호미씻이)를 '질먹기'라 한다. 강릉의 질먹기하는 날 농가축제가 개최되는데, 오래된 역사를 지닌 농민의 날이다. 이 날은 영좌의 지휘아래 농악대가 신명을 돋우고, 농가마다 40여 가지가 되는 반찬을 장만하는 큰 상을 차려서 머슴을 대접하였다. 이러한 질먹기는 강릉 농촌민속의 특징을 지니며 계승한 것으로 일꾼들이 하루 동안 주인이 되는 이 반전의 민속놀이인 질먹기를 통해서 뒤집기 한마당이 통쾌하게 열리는 것이다. '질'은 한자로 쓰면

'차례 질秩' 또는 '한 질'처럼 완전한 하나로도 볼 수 있으며, 일과 휴식의 차례 질서에 속한 일이라는 뜻과 농사의 완전한 일로도 해석된다. 동시에 강릉에서는 '질'이 음식을 뜻하는 표현이기도 하여 '질먹는다'고 하면 즉 '잔치음식먹기'로도 볼 수 있다. 염근수 기자는 강릉농악대회의 우승팀인 이랠농악대를 찾아서 7월 30일 이곳의 질먹기를 자세히 취재하였다. 『동아일보』 1938년 8월 7일, '내지방의 여름명절 – 강릉농가의 머슴날(상) 강릉지국 염근수 기자'라고 한 이 기사는 강릉 질먹기와 질먹기 농악의 원류를 밝히는 매우 귀중한 내용이다.

> 상우에 내놋는 음식은 과연가지를 놀라게 할만하엿다. 대체 닭알채와 실고추와 석이와 국화잎파리와 맨드래미 련당화 꽃닢을 따서 지근 기름 적이며 파적 고추적 등 어엽분 그릇에 곱게 보기조케 담어서 읽읏붉읏 한 것이 마치 꽃밭을 이룬 듯 차려내놓는데 여간 교자상도 그럴 수가 없다. 기자가 슬그머니 가지수를 세어보니 오이채, 잡채, 두부, 새우젓, 짐, 대구포, 계란, 두부찌개, 오이김치, 적, 고추찐 것, 섭, 메루치, 행우, 식케(반찬식케), 깍둑이, 문어, 가지나물, 버섯, 과실, 과자, 과줄, 호박전, 국수, 밥, 고기국, 참외, 시루떡, 송편, 곽단주, 꾸레미떡, 가제미, 등 모두 파와 고춧가루와 간장에 짭짤하고 매웁게 지지고 복가서 침이 저절로 넘어가게 만들엇다. 내가 한사람더러 '아니, 그런데 정말 굉장한데요?' 하니 '그러치, 장가를 간들 이렇케 만이 볼수가 잇나요. 농군들에게는 이날이 제일 명절

입니다' 과연 그런 것 같다. 상을 나르는데 한 사람이 앞에 두 상식, 한 상은 밥과 가까운 반찬, 한 상은 떡이며 적이며, 다른 반찬이다. 그중 김서방이라는 한 사십여세 먹은 일군앞에는 빈상 두 개를 놋더니 그 우에다 미닫이 우에 차려놓은 기마키게 큰 상을 올려놋는다. 또 안서방이라는 젊은 머슴앞에 참 굉장한 상이 노혓다. 가지수를 세어보니 김서방은 사십, 안서방은 설흔 두가지다. 그러니까 주인되는 사람이 모두 앞에 와서 말석에 나려앉어 밥을 가치든다. 머슴은 상석에 버티고 앉아 여러 음식을 먹는다. 이 날만은 머슴이 주인이 되고 주인은 머슴이 된다. 내 집 농일을 도맡어보는 일꾼을 위해서 하로만은 머슴노릇을 하는 것이다.

요즘에도 강릉지역에서는 대부분 '과질'이라고 발음한다. 『강릉방언총람』에는 그 용례를 다음과 같이 수록하였다.

제수용 실괘(실과)중에 과질은 참 우떠하든지 간에 꼭꼭 챙기네만은, 그 밸아처먹을 딧다(들입다) 다다하기만한(달기만한) 그 놈의 양가재(서양과자)들이 몰레와서(몰려와서) 아덜(아이들) 입맛으(입맛을) 싹 베렛아(버렸어)

김인기, 『강릉방언총람』, 한림출판사, 2004, 172쪽

과줄은 제수용, 의례음식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강릉에서는 특히 중시된다. 일찍이 글 잘하는 문향文鄕, 책을 소중히 여기는 문헌지방文獻之邦으로서 강릉향교에는 우복 정경세의 홍

학비興學碑가 세워져 있다. 향교와 서원, 서당이 번창하고 오죽헌, 선교장, 해운정, 경포대 등 누정이 강릉을 에워싼 성현 율곡 이이와 교산 허균의 향리로서 유학을 숭상하여 관혼상제를 지켜왔다. 이러한 시기에는 가문의 전승 상차림에 의례음식으로 과줄이 빠지지 않고 고임으로써 문벌의 가문사를 계승하는 중요한 민속으로 등장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언급되었듯이 배움과 글하는 것을 숭상한 '상학문尙學文'의 전통을 이어왔으며 예의상선禮義相先의 미풍양속, 접빈객接賓客과 봉제사奉祭祀를 소중히 여긴 문향과 예향의 정신적 맥락이 지속적으로 계승되어 왔다는 점에서, 강릉과줄이 끼친 지역문화사적 가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가례로 전승되는 과줄은 관혼상제 때 이용되는 중요한 위치로 올라간다.

사진들은 1927년(정묘년) 5월 21일 강릉의 신혼기념식 사진에서 신랑 바로 앞의 상에는 강릉과줄을 높이 쌓아올린 모습과 1959년 강릉의 한 집안 회갑상 차림에도 과줄을 앞에 진설한 모습을 보여준다. 영동지방 특히 강릉지역에서는 폐백음식을 잘 차린다. 밤, 대추, 과질, 과일, 과자, 엿 등을 각각 다른 쟁반에 높이 고인다."고 한다. 또한 강릉지방에서는 '질알금'이라 하여 신랑집에서는 결혼한 사돈 간에 길을 트는 의미로서 신부댁으로 과질, 문어, 떡 등 많은 음식을 장만하여 보낸다. 이때 반드시 길상을 뜻하고 부풀어 번창을 의미하는 과질을 반드시 넣는 풍속이 전한다.



1927년(정묘년) 5월 21일 강릉의 신혼기념식 사진에서 신랑 바로 앞의 상에는 강릉과줄을 높이 쌓아올린 모습
사진 : 장정룡 제공



1959년 강릉의 한 집안 회갑상 차림에도 과줄을 앞에 진설한 모습
사진 : 장정룡 제공

우리나라 고문헌에 수록된 한과류는 현재 제조되는 것을 종합하면 약 80여 종에 달한다. 이를 유형별로 나누면 유밀과, 유과, 다식류, 전과류, 숙실과류, 과편류, 엿강정류 등 7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대표적인 한과류는 유과를 드는데 앞서

허균의 『도문대작』에도 유밀과류로 기록하였으며, 『음식지미방飮食知味方』, 『규합총서』, 『열양세시기』 등에 '강정'이란 이름으로 소개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전라도에서는 유과, 부수게, 산자라 하고, 경상도에서는 유과라고 하는데 그 명칭만도 23종류로 혼용된다.

산자는 강정과 같은 반죽을 하여 네모 모양으로 편편하게 만들어서 기름에 지져 꿀을 바르고 고물을 묻힌 것이다. 고물에 따라서 매화산자, 세반산자, 메밀산자, 밥풀산자, 묘화산자 등이 있고, 고물의 색에 따라 홍산자, 백산자, 홍백산자가 있다.

강정은 찹쌀가루에 술을 넣고 반죽에 찐 것을 꽈리가 일도록 저어서 공기가 섞이게 쳐서 갸름하게 썰어 말렸다가 기름에 지져 여러 고물을 입힌 것으로 모양, 고물, 색에 따라 여러 이름이 붙는다. 1678년 『음식지미방』에는 "찹쌀가루를 술과 콩물에 반죽하여 쪄서, 꽈리가 일도록 치대어 밀고 말려서 기름에 지져 부풀게 한 다음, 꿀을 바르고 흰깨와 물들인 쌀 튀김, 승검초 가루를 묻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강정과 산자는 여러 가지 종류나 만드는 방법은 같으며, 다만 모양과 고물에 따라 이름이 다르다. 강정의 유래는 중국 한나라 때 '한구'에서 찾는다고 하며, 진나라 때는 '환병'이라 불렀고, 당나라 때는 그 모양이 누에고치 같다 하여 '면견'이라 불렀다. 통일신라 때는 면견에서 유래된 것이라 하여 '견병'이라 부르기도 하였으며 민간에서는 강정을 지질 때 바탕이 부풀어 오르는 높이에 따라 서로 내기를 하였다. 즉 바탕을 만들 때 종이에 관계를 써넣고 나중에 강정속에서 나오는 종이 품

계에 따라 누가 더 높은가를 겨루는 놀이를 즐겼다고 한다.

1819년 작성된 김매순(1776~1840)의 『열양세시기』에 "설날과 보름에 인가에서는 선조 제사를 지낼 때 제수로 강정을 높이 친다. 도수가 높은 술로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 가늘게 썬 다음 끓는 기름에 넣으면 누에고치처럼 둥글고 크게 부풀어 오르는데, 그것에다 엿과 볶은 흰 참깨를 묻힌 것이 강정이다. 혹은 볶은 콩가루를 묻히기도 한다."고 하였다.

홍석모(1781~1857)가 지은 『동국세시기』에도 "찹쌀가루를 술에 반죽하여 크고 작게 썰어 햇볕에 말렸다가 기름에 튀기면 고치같이 부풀어 오르는데 속은 비게 된다. 이것에 흰깨, 검정깨, 누런 콩가루, 파란 콩가루 등을 물엿을 이용하여 붙인 것을 강정이라고 한다.…강정은 이 달부터 시절음식으로 시장에서 많이 판다. 또 오색을 넣은 강정이 있으며, 또 잣을 박거나 잣가루를 묻힌 잣강정이 있으며 찰벼를 볶아 꽃모양으로 튀겨서 엿을 묻힌 매화강정이라는 것도 있는데 홍색과 백색 두 가지다. 이것들은 이듬해 설과 봄철에 이르도록 일반 민가의 제수용품으로 과일 줄에 같이 들어가며, 또한 설음식으로 손님을 대접할 때도 없어서는 안 될 음식이 되었다."라고 하였다.

약 2백년 전에 빙허각 이씨(1759~1824)가 편찬한 『규합총서』 병과에는 석탄병, 신과병, 혼돈병, 석이병, 송편, 증편, 잡과편, 빙자떡, 강정, 빙사과, 매화산자, 밥풀산자, 묘화산자, 약과접 등이 들어 있다. 1950년대 기록에 과줄은 "지예쪄서(천천히 쪄서) 말린 밥압들을 기름에 튀해서 부스지(부시지) 말고

온통으로 무치는 것이니, 튀긴 산자에다가 조청을 발느고(바르고) 튀긴 밥풀을 무치라"라고 하였다.

강릉 과줄은 바삭한 강릉전통의 어머니 손맛, 네모난 갈골과줄 한입 베어 물면 어느새 스스로 단꿈에 젖어 가볍게 날아갈 듯하다. 그 무게도 가볍지만 입맛은 산듯하고 고소하게 튀긴 밥풀이 하얀 매화꽃으로 피어나서 먹기조차 아깝다. 쌓아올려 높임을 추구하고, 신과 인간의 소통에 소용되는 예물로서, 명절과 연회에서 맛갈나는 별미로서 특별한 날에 빠지지 않는 민속적 의미를 두루 갖추었다. 강릉의 풍속에서 예의상선禮義相先이라는 말이 전한다. 서로 먼저 예의를 갖추는 예절의 고장 즉 예향禮鄕의 전통은 문향文鄕 강릉의 큰 축으로 전승되고 있다. 문향과 예향 강릉의 각종 의례나 연회 경축행사 등에는 반드시 '과줄'이 등장하였다.

강릉과줄은 조율이시의 과일 줄에 들어가 '상우두머리'를 차지하며, 다른 것보다 높이 쌓아서 담는 적덕積德의 의미를 담는다. 이 음식이 '높다'는 것 또는 '대접받는 대상을 높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괴임새', '굄새' 또는 '고임질'을 하는데 있어 과줄만큼 높이 쌓아올리고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것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쌀이나 바탕을 튀겨,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하는 성장추구의 유감주술적類感呪術的 의례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강릉과줄은 이른바 발효와 꽈리틀기를 통해서 많은 기포를 생성함으로써 특별히 맛이 바삭하고 입에 딱 달라붙으며, 집안 살림이 불어나라는 뜻을 지닌다.

흰 쌀을 튀겨서 튀밥한 것은 백색상징의 대표성이다. 광명

을 추구하고 흰색이 주는 벽사진경의 깨끗함을 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설명절이나 한가위, 혼례, 돌, 백일, 환갑 등 이른바 길상을 뜻하는 잔치상, 연희, 손님접대에 주로 이용되었다는 점이다. 과줄은 그 맛이 깊고 은근하며, 곡물과 견과류를 보탠 건강보양식으로 높은 영양가를 갖추고 있다. 특히 과일이 없는 계절에도 먹을 수 있게 과일 맛으로 멋을 낸 조과로서 그 모양이 예쁠 뿐 아니라 장기간 두고 먹을 수 있으며, 보관 또한 편리한 장점을 갖고 있다.

강릉지역에서는 신라화랑들의 순유차 강릉 한송정에서 와서 차를 마시던 음차풍속에 다과茶菓전통으로 계승되었으며, 나말여초 사굴산파의 개종인 굴산사의 불교제례에 제물로 쓰이고, 조선시대 유학자의 접빈객 시에 애용되었다. 또한 강릉 여성들의 화전놀이 때, 농촌의 호미씻이나 질먹기, 관례에도 차려졌으며, 돌잔치, 회갑, 결혼 등 경축연회에도 반드시 자리를 차지한 강릉의 고유한 음식문화라 하겠다.

과줄로 꽃핀 미각, 문화전통을 잇다

현재 최봉석은 노동중리 현재의 터에서 16대째 5백년을 살고 있다. 2013년 4월 12일 강릉 갈골마을에서 집안대대로 과줄 제조 기능을 이어와 2000년 한과최초 명인으로 인증 받았다. 그리고 최봉석은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3호로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현재 생가터인 강릉시 사천면 노동중리 446번지 청룡안 집터는 진사로 급제한 강릉최씨 희영공파 진사댁으로 최봉석의 4대조인 최광철(1846~1884) 씨와 아내 풍천 임씨(1846~1914)로부터 현 주택에 거주하여 그 아들 최상하와 강릉

함씨에게 이어졌다.

1868년생인 최상하 씨는 최장희, 최진희, 최대희, 최명희 씨를 네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부인 강릉함씨(1864년생)와 함께 첫째 며느리인 최창규(1902~1980), 둘째 며느리 이원섭(1898~1994)에게 과줄 만드는 법을 전수하였다.

최봉석의 직계조모인 최창규(1902년생) 할머니는 성산면 위촌리(우추리)에서 시집와 종가댁 종부로서 대소사를 이끌었으며, 작은댁 할머니 이원섭(1898년생)은 1920년대에는 모래과줄을 만들었다. 최봉석 댁에는 택호가 있었는데 '퇴일집'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것은 최창규 할머니가 살던 곳이 위촌리(우추리) 퇴일이라고 하여 시집와서도 그렇게 불렀고 이원섭 할머니는 '청냉이(청량리)집'이라고 불렀다.

노동리 과줄로 알려진 이원섭 할머니는 청냉이에서 시집와 과줄을 함께 만들어서 갈골한과의 명성을 이어나갔다. 사천과줄이 상품화되어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한 것은 이원섭 할머니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 할머니는 6.25전쟁 중에 남편을 잃고 생계가 어려워 과줄을 만들어서 주문진 시장 도매집에 갖다 주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할머니가 시집올 때 짐꾼에게 오색산자를 한 짐 지워왔다고 하는데 과거 강릉에서는 다섯 색을 넣어서 만든 산자가 있었다. 이원섭 할머니는 "과줄이 과자로는 상 우두머리였제. 푸시시 불어나는 과줄처럼 집안 살림 불라고 잔칫상 가운데엔 무시로 과줄이 놓여 있었구마."라고 말했다.

갈골한과의 시조인 최창규, 이원섭 두 할머니는 동서지간으로 두 분 모두 생활력이 강하여 과줄로 가정을 일으켰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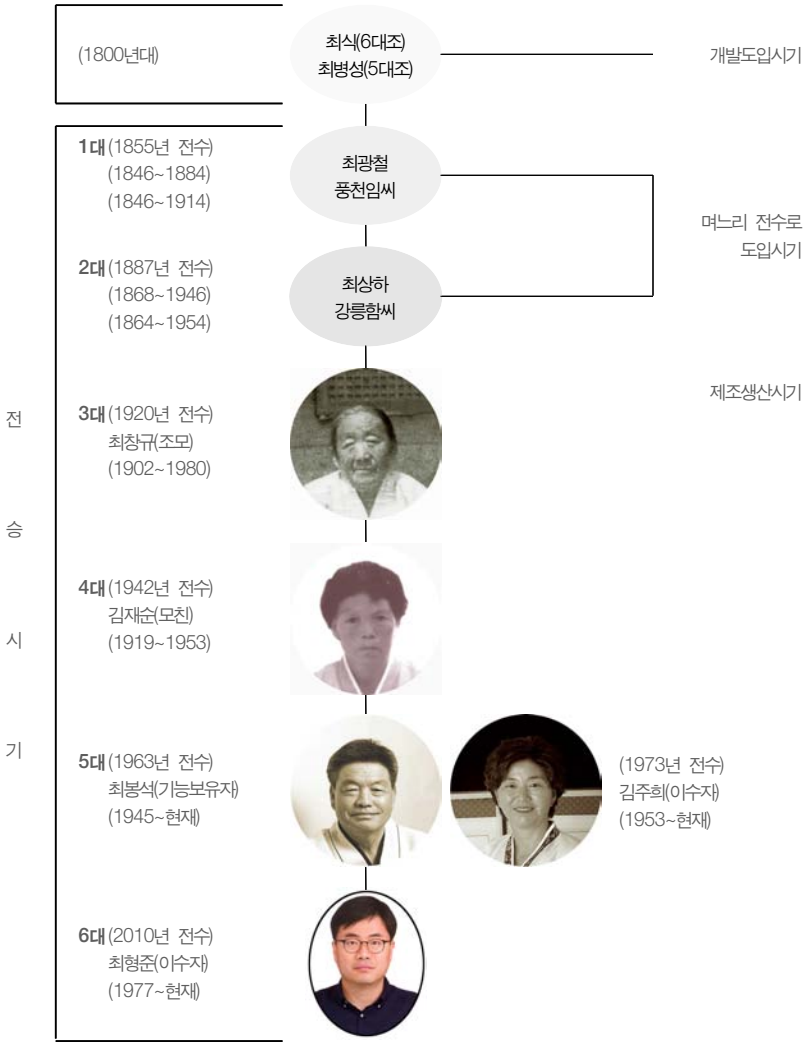
교육열이 강하여 자녀들을 모두 학교에 보냈다. 이처럼 갈골의 과줄은 가정생활 뿐 아니라 자녀교육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이 분들은 1920년대 시집을 와서 모래과줄을 만들었으며, 60년대를 전후하여 과줄을 지게에 지고 강릉과 주문진 시장으로 내다 팔았다. 이로부터 갈골한과는 그 명성을 쌓아나갔다. 두 할머니는 친 동서끼리지만 거래처를 서로 많이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고 한다.

일찍이 강릉은 예향禮鄕이라 불릴 정도로 전통예법을 지켜왔는데 제사나 혼례 때 제물을 고이면 과줄은 당연히 제일 높게 올려 쌓았으며 큰 자리를 차지하였다.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최봉석의 아버지는 유복자로 태어나셨다고 한다. 최봉석은 현재의 생가터에서 이사를 한 번도 가지 않고 한 집에서 16대를 지켜왔으며, 어머니는 금산 기계과줄집에서 시집을 왔다.

예로부터 사천은 모래과줄, 성산면 금산은 기계과줄로 유명하였다. 최봉석의 부친은 최지일(1921년생) 씨이며 모친은 강릉 김씨 김재순(1919년생) 씨로 모친도 과줄을 잘 만들었는데, 본래 금산 기계과줄 집에서 사천 모래과줄집으로 시집을 온 셈이다. 시집을 와서 이곳의 사천 모래과줄을 만들었으니 과줄명가가 합쳐진 셈이다. 최봉석의 모친은 조모인 최창규 할머니에게 직접 과줄 만드는 손기술을 자세히 배웠다.

그러므로 강릉 갈골마을의 과줄의 역사는 지금부터 130여 년 전인 1870년경부터 국내 최초로 지정된 한과명인이자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3호로 인정된 최봉석(김영순 씨의 남편)의 4대조인 최상하 씨와 부인 강릉함씨로부터 시작되어 5대에

걸쳐 전승되었으며, 김영순 씨의 시할머니인 최창규, 이원섭 씨에 의해 19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되어 오늘날까지 백년전통이 계승되고 있다. 현재는 최봉석과 부인 김영순, 그리고 아들 형준 씨가 강원도 무형문화재 23호 이수자로서 7대째 가업을 잇고 있다. 전승가계도는 아래와 같다.



최봉석의 집안에서는 각종 대소사에 부조를 할 경우 전통적으로 과줄을 보낸다고 한다. 과거 술 거르는 도가집에서 술 한동이를 애경사에 부조하듯이 과줄 만드는 집의 전통은 이와 같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도 갈골과줄은 달콤한 먹거리로 대접받을 뿐 아니라 설이나 추석명절에는 따뜻한 정이 담긴 전통상품으로 각광받고 있고 혼상제례의 상차림에 빠지지 않고 있다.

강릉에서는 결혼식 때 음식을 전달하는 풍습으로 '질알금'이 있다. 이것은 사돈 간 '길알림'으로 신부집에서는 신랑집에 한 접이나 두 접씩 맞추어서 보냈다. 결혼식 피로연 음식에도 과줄은 반드시 놓였다. 그것이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신혼집의 재산이 부푼다는 의미로 빠트리지 않고 장만하였다. 또한 제사가 많은 집에서는 조과라 하여 과줄을 만들어 썼는데 보통 한 접에 백 개짜리를 세 접에서 다섯 접까지 맞춘다.

갈골마을에서도 1960~70년대까지 십여 가구에서 과줄을 만들어서 대소사나 명절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만들기가 번거롭고 한 접 두 접 씩 시장에서 사다가 쓰는 집이 늘어나면서 갈골마을도 하나 둘 점차 사라졌다. 그러던 중 1980년부터 최봉석이 과거의 전통을 계승하여 활발하게 한과마을을 알리고 제품을 널리 홍보하면서 활성화되어 이제는 60여 가구로 늘어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강릉에서는 과거 30년 전에 식품허가가 받은 곳이 문암정에 있던 고려식품 등 두 곳이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뻥튀기 한과를 만들었다. 그러나 사천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모래과

줄을 만들다가 점차 콩기름으로 튀기는 기름과줄로 전향되면서 튀기기 쉽고 맛이 좋아졌다고 한다. 한때 강릉에서는 여러 색소를 넣은 '색밥과줄'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것은 다양한 색을 넣은 과줄로 밥을 쪄서 물감을 들여서 여러 가지 결혼식 때 괴울 때 색밥강정을 만들어서 썼다고 하며, '박산'이라 하여 쌀을 튀겨 조청을 발라 눌러서 썰어놓은 것도 있다. 갈골마을에서는 색밥과줄을 만들지 않으나 박산은 여러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다.

최봉석에 의하면 한과 가운데 만들기 가장 어려운 것은 과줄이라고 한다. 일부에서 '과질'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탕을 밀가루로 반죽을 한 것이라 한다. 약과도 찹쌀과 밀가루가 있듯이 바탕을 밀가루로 한 것을 과질, 찹쌀로 한 것은 '과줄'이라고 부른다고 구분하였다. '남자가 한과를 만들면 사내구실 못한다.'고도 했는데 요즘의 갈골마을은 사정이 달라졌다. 남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농사가 부업이고 과줄생산이 주업이 되고 있다. 이 마을은 과거 곡식 수매 때는 쌀 수매에 응하지 않는 마을로 알려질 정도로 직접 생산한 곡물로 과줄을 만들어서 내다 파는데 치중하였으며 그러한 전통이 오늘의 한과마을을 형성한 기층이 되었다.

이 마을에서는 농촌이 살 수 있는 길을 일찍이 택했는데 그것은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생산으로 과줄을 통한 부가가치를 높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강릉뿐만 아니라 '갈골'하면 과줄의 명품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옛날에 비해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고 한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3호 최봉석 장인

최봉석은 얼굴이 없던 시대의 먹거리를 갈골한과라는 명품화로 고급브랜드를 만들었으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고 정식으로 한지박스, 꽃바구니, 복바구니 선물세트 등을 생산함으로써 '갈골한과' 전통식품을 강릉의 특산품 반열에 올려놓기에 이르렀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3호인 최봉석은 갈골마을에서 16대 5백여년 동안 거주하였으며, 지금부터 130여년 전인 1870년경부터 최봉석의 4대 조상으로부터 시작되어 5대에 걸쳐 전승되었다. 최봉석의 부인 김영순의 시할머니인 최창규, 이원섭 두 분에 의해 192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가업으로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음식문화적 가치와 전승적 의미를 강조함에 손색이 없다. 이 마을에는 갈골한과전승체험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체험자들이 연중으로 많이 찾고 있다. 전승상 현재의 과줄의 기능전수는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7.

불교목조각장

무형유산 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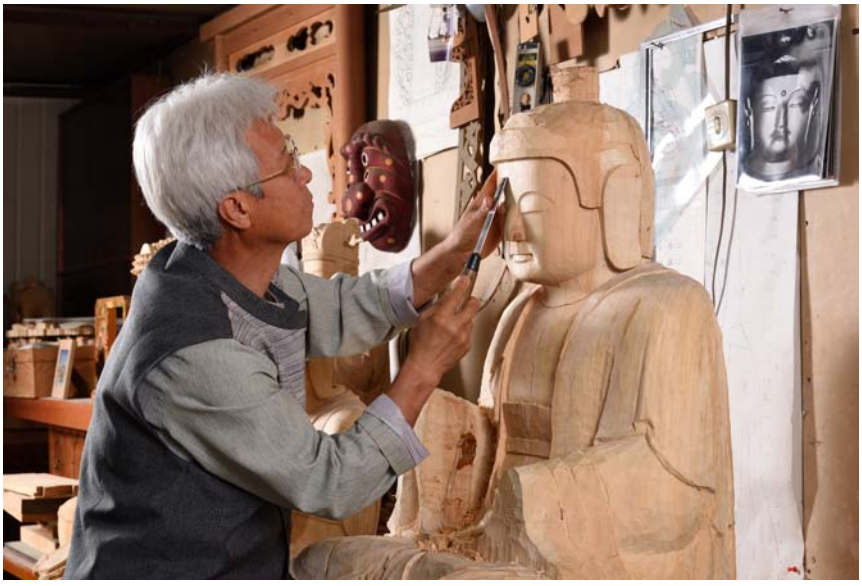
- 구분 :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9호
- 영역 : 공예・미술 등 전통기술

무형유산 내용

- 강릉 불교목조각장의 영역
- 강릉 불교목조각장의 전승
- 강릉 불교목조각장의 내용
- 강릉 불교목조각장의 사회문화적 기능
- 강릉 불교목조각장의 보존 및 계승

강릉 불교목조각장의 영역

불교목조각은 불교와 관련된 종교용품을 목재로 제작한 것을 말하며 그 범위는 가장 대표적인 불상을 비롯하여 불단, 대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9호 고윤학 장인

좌, 광배, 닫집, 목어 등이다. 불교목조각장은 제작현장에서 전통적인 불교목조각을 고도의 기술과 이론, 전통을 배우고 이어온 장인으로 전통 불상을 비롯한 불구의 제작과 복원을 전통방식으로 모든 과정을 구연하며 불교목조각 전통적인 기법을 원형대로 실연할 수 있는 전승기반을 갖추고 실현하는 우리의 중요한 전통문화유산이다.

강릉 불교 목조각장의 위치

강원도 강릉시 성덕로 185번길 56호

강릉 불교 목조각장의 전승

2016년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9호 불교목조각장으로 지정된 고윤학은 대목수였던 부친 고여종과 모친 정윤화 사이에서

태어나 초등학교시절부터 부친으로부터 대패나 자귀, 조각 끌, 조각도 등의 수공구를 갈거나 심부름을 하면서 목공예를 배웠으며 목재를 다루는 솜씨가 뛰어나 각종 생활용품이나 기구, 조각품 등을 만들면서 장인의 삶을 시작하였다.

그 후 70년대 초반 서울로 상경하여 목공예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한 후 당시 서울공예사를 운영하던 스승 석우일(경주신라역사박물관 관장)을 만나게 된다. 석우일은 그의 목조각 기술 전승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다. 목공예사로 유명한 서울공예사의 뛰어난 솜씨의 장인들사이에서도 고윤학은 우수한 재능을 기반으로 갈고 닦은 기술과 성실한 자세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고윤학은 스승 석우일의 문하생으로 1992년까지 불상을 비롯한 전통 목조각기술을 익혀 자기만의 기술로 발전시키는 한편 장인으로서의 기반을 닦았다.

1994년 강릉에서 보물 제1292호 동해 삼화사 철조노사나불좌상 원형복원 작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강원지역의 불교목조각에 본격적으로 심취하며 연구하게 되었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현재 고윤학은 강원도를 대표하는 강원도 무형문화재 불교목조각장으로 강원도 지역 대다수 전통사찰의 불상, 수미단, 닫집 등의 작업과 매년 전시회를 통한 작품 발표를 하고 있으며 문하에 딸 고아름 등이 있다.

강릉 불교 목조각장의 내용

1) 불교목조각의 역사

불교목조각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불상을 비롯하여 불단,

광배 등의 불교용품을 조각의 범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목공예의 범주로 보아 판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뚜렷이 특정 장르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다만 각각의 장르에 있어서 사전적인 의미에 국한하여 보면 공예는 쓰임과 미적인 요소를 필요로 하지만, 조각은 미적인 요소만으로도 가치를 인정받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불교목조각 또는 불교목공예를 논하는데 있어 역사성, 목재의 재료적 특성, 불교미술의 특성 등이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삼국시대에 한반도에 전래된 불교는 미술의 주제로 가장 심오하게 다루어진 예술이라는 것을 여러 유물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다. 현존하는 불상, 불단, 목어, 법상 등의 불교용품과 불교건축 등 거의 모든 유물의 재료가 목재로 제작된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불교목조각의 역사는 삼국시대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부터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 시기의 사찰건축물, 불상, 불단 등 불교의식과 관련된 불구들이 제작된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그 역사는 약 1,500년이 넘는다. 그동안 수많은 전란과 화재로 유물의 상당수가 소실되어 남아있지 않아 전통불교목조각 기술의 계승과 보존의 더욱 중요하다.

사람마다의 판단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신이 내린 최고의 자연재료인 목재는 인류의 기원과 같이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인간의 일상, 환경,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목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지나치지 않으며

특히, 목재로 된 불교용품의 제작은 재료가 가지는 특성으로 가장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대량으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불교가 전래된 4세기 후반과 불상을 제작한 시기로 추정되는 6세기는 중국의 불상과 유사하게 제작한 것으로 보이며 점차 우리나라만의 특징을 살린 불상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불상의 특징은 사실적인 표현을 하기 보다는 고구려만의 기상이 나타난 특징이 있으며 백제는 백제미술의 전반적인 특징인 세련된 정교한 미, 신라는 다소 소박한 미가 강조된 것으로 여겨진다.

고려시대의 특징은 초기에는 지방에 따라 특징적인 부분이 나타나며 후기는 한국조각에 있어 부흥기로 우람하며 담대한 형상을 띤 불상이 제작되었으며 부드러우면서 온화한 특징을 나타내었다. 조선시대는 숭유억불의 시대적 정서로 침체기를 겪지만 나름의 특징을 나타내기도 한다.

불교조각을 대표하는 불상은 서울의 뚝섬에서 출토된 금동불좌상이 초기의 불상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중국의 것과는 유사한 점을 들어 중국 전래품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목조불상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경남 합천 해인사에 소장된 비로자나불상으로 다시 금칠을 하는 개금과정에서 통일신라 883년에 제작된 것으로 묵서명 연기문을 발견하면서 밝혀졌다.

강원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불상은 강릉 성산의 보현사 보살좌상이 고려시대 전기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2011

년 5월의 보현사가 의뢰한 조계종 및 전문가의 조사에서 보현사 목불의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식 면에서 개심사 아미타 삼존불상보다 앞선 12세기 고려 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목재로 제작된 불교목조각품은 수많은 전란과 화재, 재료가 가지는 내구성, 보존의 어려움 등으로 상당수가 소실되거나 분실되어 현존하는 유물이 많지 않다. 다만, 강원도의 경우는 여러 사찰에서 목조불상이 현존하고 있는 점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강원도의 대표적인 목조불상은 오대산 상원사 문수보살 동자상으로 국보 제221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목조불상은 조선시대 세조世祖의 피부병치료와 관련된 설화의 문수동자상으로 그 근거를 찾기는 힘들지만 관련성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안정된 자세와 화려하며 섬세한 표현력, 조선초 및 강원지역 목조불상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불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 외,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강릉 관음사 목조관음 보살좌상(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49호)은 강원지역의 목조불상과 다른 희귀성으로 인하여 지정된 문화재이다.

2016년에 인정된 고윤학 강원도 무형문화재 불교목조각장은 그동안 양양군 진전사의 적광보전 수미단, 강릉 천동사 법당 수미단 등을 조성하였고 평창군 월정사 내 상원사 무수전의 인등용 문수보살을 조성하였다. 그 외 천동사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등 수많은 목조불상과 불단, 닫집 등의

조성을 통하여 불교목조각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이어가고 있다.

2) 불교목조각의 문화요소

(1) 무형문화재의 이력

고윤학은 목조각에 입문한 시기를 포함하여 7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강릉의 작업장에서 꾸준히 한결같은 정신과 자세로 강원도산 나무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의 목조기법과 맞춤기법을 이용하여 전통사찰의 불상, 보살상, 불단, 닫집, 불교조각 등을 조성해 온 무형문화재로 평가된다. 그동안 불교목조각장이 되기까지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고윤학은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에서 대목수인 부친 고여종과 모친 정윤화 사이에서 태어났다. 4남 2녀의 대가족이 대목수인 부친의 일을 도우면서 목재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대목의 공구인 대패, 자귀, 조각도, 끌, 톱 등의 목공연장의 심부름부터 연마하는 방법, 제작하는 것까지 여러 형제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고 한다. 그 시절 시골의 모든 가정이 그러하듯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서울로 상경하여 목공예업체에 취업하여 목공예 기능을 배운 후 70년대 초, 마포의 서울공예사로 이직하여 본격적인 불교조각을 배우게 된다. 이때 평생의 스승으로 모시는 석우일(경주 신라역사박물관 관장)을 만나게 되며 당시의 공장장이던 김명철은 고윤학의 뛰어난 재능과 근면하며 성실한 작업 자세를 가졌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1992년까지



고윤학 장인의 불상 제작 모습



석우일의 지도아래 전통불상을 깎는 조각기술과 맞춤기법 등을 연마하면서 장인으로서의 마음가짐도 갖추게 되며 이시기에 목조각 기술은 상당수준의 경지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여겨지며 같은 목조각에 종사하던 김향자와 결혼을 한 시기도 이 무렵이었다.

1994년 강릉에 보물 제1292호 동해 삼화사 철조노사나불좌상 원형복원작업을 맡아 강원지역의 불상을 접하며 연구하게 되었고, 강원도 지역의 목재로 작업을 하면서 강원지역 목재의 재질이 우수한 점과 수종의 확보가 쉬워 강릉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 후 90년대 후반 오대산 상원사 설암스님(현재는 강릉 사천의 용연사 주지스님)과의 인연으로 꾸준히 불교목조각에 종사하게 되었으며 현재도 그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고윤학이 보유하고 있는 불교목조각 제작기술의 특징적 요소는 부처님의 상호를 성인의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다. 기술적으로도 목조각은 입체를 표현하는 것으로 상, 하, 전, 후, 좌, 우의 비례가 완벽하게 맞아야 어색함을 느낄 수 없으며 불단 위에 모셔져야 할 상으로 부처님의 시선처리도 고윤학 장인만이 표현할 수 있는 조각기법이 숨어 있다. 부처님의 그윽하며 부드러운 눈매와 미소를 통하여 대중에게 주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표현하는 것은 수많은 시간을 시행과 착오의 과정을 거쳐야 가능한 점을 인식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고윤학의 불상제작을 위한 과정은 먼저 불상의 종류를 택한 후 초본을 그린다. 초본에 의하여 목재를 선택하게 되는데 비자나무, 느티나무, 홍송, 전단향, 침향목, 피나무, 은행나무,

참박달나무, 오동나무 등이 많이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원목 그 자체의 질감과 재색의 특징을 살려 제작하는 경우가 있으며 채색이나 개금작업을 하는 불상 재료로 보통 은행나무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 편이다. 그 이유는 은행나무는 침엽수로 충해에 매우 강한 장점이 있으며, 수종의 특성상 특유의 향이 있으며 오랫동안 썩지 않고 보존이 가능하다.

선택된 목재를 제재한 다음 필요한 크기만큼 재단한 후 가접목하여 전체 형태 제작을 위한 크게 윤곽을 잡는다. 재 분리한 다음 속(복장)을 파내는 작업을 하여 아교로 다시 튼튼하게 접목작업을 한다. 이후 과정은 정밀한 세부 조각과정으로 고윤학만이 구사할 수 있는 100여 개 조각도로 다양한 조각기법이 활용되는 과정이다. 앞서 언급된 불상의 상호를 조각하는 어려운 작업과정을 거친 다음 좌대와 광배를 완성한다.

조각으로 불상이 완성되면 모시를 입혀서 옻칠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옻칠은 모시의 질감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되며 이 과정이 끝난 후 사포로 10여 회 연마를 한다. 이후의 작업은 금을 입히는 과정, 얼굴을 표현하는 개안작업 등이 있으며 스님들의 점안 의식을 통하여 불상으로 태어나는 전 과정을 이루어진다.

때로는 스님과의 교감부족으로 인한 재작업이 이루어질 때는 표현하기 힘든 감정의 불안함이 엄습하지만 이 또한 새로운 발전을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며 꾸준한 사명감으로 작업에 매진하며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는 지를 돌아보며 보완, 정진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다.



고윤학 장인의 목공기계실 사진 : 박병호 제공



고윤학 장인의 작업공간 및 전시장 사진 : 박병호 제공



고윤학 장인의 조각실 사진 : 박병호 제공



고윤학 장인의 작업공간 및 전시장 사진 : 박병호 제공

현재, 작업장의 문하에는 부인인 김향자(1959년 생)씨와 둘째딸 고아름(1989년 생)양이 가업을 잇고 있다.

(2) 불교목조각의 기법 종류, 재료, 제작도구

① 불교목조각의 종류

불교목조각은 목재를 이용하여 불교용품을 제작하는 것으로 상당부분은 공예적인 요소가 많이 내포되어있다. 특히, 조각을 필요로 하는 불상이나 대좌 등의 조각적인 요소가 강한 용품을 제외하고 목공예의 맞춤기법이 적용되는 곳이 많아

정교한 목공예기법이나 가구제작기법이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불교목조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불상 : 일반적으로 불상은 사찰의 법당에 모셔놓은 상을 일컫는데 넓은 의미에서 불교상이라 불리우며 여래상如來像, 보살상菩薩像, 나한상羅漢像, 신장상神將像 등으로 나눈다. 근본적으로 불교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어 수 많은 부처가 존재하지만 실제 불상의 형상으로 조각이 되는 것은 몇몇에 불과하다.

불상을 조성하는 이유는 예술작품으로의 창작물의 개념보다는 불자들이 부처의 형상을 제작하여 관불 또는 예배를 목적으로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부처의 신성하며 위엄스러운 권위가 잘 표현되어야 하며 인간의 형상과는 구별되는 존엄함이 표현되어야 하며, 부처만이 가질 수 있는 32길상의 구체적인 표현방법이 있다. 불상이 예술적인 가치보다는 신앙의 예배 목적의 가치가 더 중요한 요소라 하더라도 역사성과 창의성이 담보되는 문화재로의 가치성은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불단 : 부처님을 모시는 단을 불단佛壇, 상단上壇, 수미단須彌壇이라 하며 좌불형태의 불상을 모시기 위하여 불단이 제작된 것이다. 우리나라 불단은 대부분이 장방형 형태의 수미단으로 되어 있다.

수미단의 제작은 그 형태와 제작기법이 조선시대의 가구제작기법과 궤를 같이하고 있으나 장식기법은 불교의 세계를

뚜렷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수미산에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수많은 동식물과 연꽃의 문양이 독특한 미를 발산하며 표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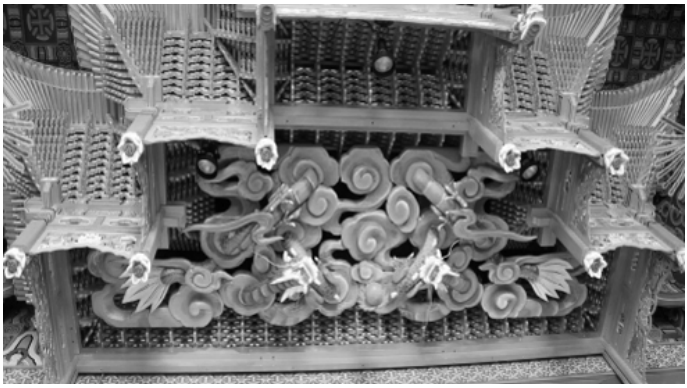
-광배 : 부처님의 몸에서 발산되는 신비하고 성스러운 빛을 형상화하여 원형, 배모양의 형태로 표현한 것을 광배光背라 하며 부처의 위대함을 상징하며 머리에서 발산하는 두광頭光, 몸에서 발산하는 신광身光, 몸 전체를 감싸면서 발산하는 거신광擧身光, 전신광全身光으로 나눈다. 불상, 보살, 나한상, 천인상에도 광배가 있으며 그 형태와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여러 가지의 문양을 표현하여 장엄함을 강조한다.

-닫집 : 불전 내부의 불상 위 작은집 형상을 닫집이라 부르며 집 내부에 따로 지은 또 하나의 집을 뜻하며 천개天蓋라고도 한다. 『대승경전大乘經典』에 보면 "부처님의 백호白毫가 칠보의 대개大蓋로 변하여 하늘을 가렸다."는 대목이 있다. 인도는 더운 나라이므로 부처님이 설법할 때는 햇볕을 가리기 위하여 산개傘蓋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후에 불상조각에 받아들여져 닫집이 된 것으로 여겨진다.

대체적으로 목조각 형식으로 제작하며 사각, 육각, 팔각형이 있으며 천장에 달기도 하고 장대에 달기도 한다.

그 외 불교목조각 용품은 목어, 윤장대, 북대, 업경대, 소통, 축원패, 위패, 법상, 촛대, 등잔 등이 있다.

고윤학 장인이
제작한 횡성 봉복사
대웅전 닫집
사진 : 박병호 제공



고윤학 장인이
제작한 연곡 현덕사
아미타불과 삼척
삼장사 대웅전
수미단
사진 : 박병호 제공





고윤학 장인이
제작한 강릉 용연사
명부전 탁자 및 닫집
사진 : 박병호 제공



② 불교목조각의 재료

전통적으로 우리네 생활상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목재는 소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향나무, 오동나무, 참나무, 참죽나무, 피나무, 주목, 비자나무 등인데 불교목조각에 사용되는 목재 또한,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불교건축물에 사용되는 목재는 소나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반면에 건축물 내부의 불구제작에 쓰이는 목재는 다소 다르며 불구의 종류에 따라 사용되는 목재도 각기 다른 목재를 사용한다. 불교목조각의 주재료인 목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은행나무 : 특유의 향기를 지니고 있으며 나뭇잎의 형태와 달리 침엽수로 구분된다. 황백색을 띠며 재질이 연하고 행자목杏子木, 공손수公孫樹라 불린다. 조각하기가 쉬워 불상조각의 주재료로 많이 이용되며 탄성이 뛰어나 바둑판재, 소반의 재료로 널리 이용되었다. 심재는 황백색을 띠나 옹이를 중심으로 파도와 같은 특유의 문양이 생겨나기도 한다.

-피나무 : 모피목毛皮木, 백가白椵라고 불리우며 심재가 담황백색을 띤다. 목재 조직이 연하고 가벼워 조각이 쉬우며 불상조각이나 장구통, 북통, 베틀의 북을 깎는데 사용하였으며 가지부분에서 파도형상의 무늬가 나타나기도 한다.

-박달나무 : 강원도에서는 참박달이라 부르며 단목으로 불리기도 한다. 황갈 또는 적갈색을 띠며 그 성질이 치밀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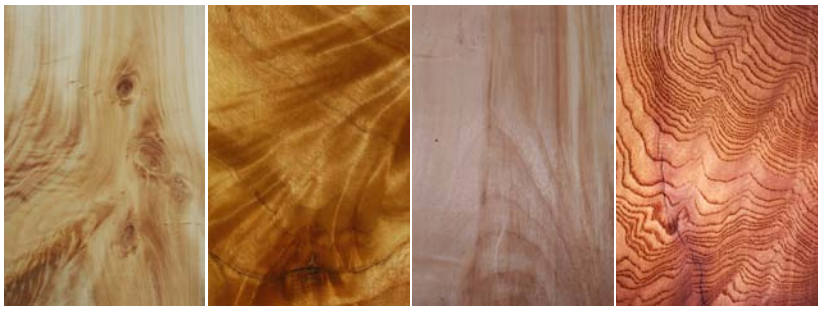
단단하며 매우 무거운 목재이다. 주로 홍두께, 방망이, 목탁, 얼레빗, 목활자 등에 이용되었고 소형 불상의 제작에 많이 이용된다.

-느티나무 : 괴목槐木, 규槻라고 불리우며 재색이 누르스름하고 광택이 나는데, 고사목의 경우에는 홍자색을 띠어 한층 좋은 목재로 아낌을 받고 있는 고급목재이다.

우리나라 대표수종으로 조선시대의 모든 목가구에 널리 귀하게 사용하였다. 특유의 구름형상을 띤 문양과 반점을 띤 문양 등이 느티나무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오동나무 : 오동梧桐나무는 적색, 자색에 선명하지 않은 백색을 띠며 재질이 가볍고 연하며 뒤틀림이 없는 수종이다. 무늬가 아름다우며 음향성이 매우 우수하다. 예부터 거문고, 가야금 등의 악기 제작에 많이 사용하였으며 좀벌레가 생기지 않아 가구재로도 많이 사용하였다. 나이테가 뚜렷하여 공예적인 가치가 높은 수종이다.

-향나무 : 노송나무라 불리기도 하며 주로 홍갈색을 띤다. 특유의 향기를 지니고 있으며 조직이 치밀하며 균질한 편으로 조각도로 깎기가 용이한 수종이다. 특유의 향기와 재색으로 향료, 연필의 재료로 사용하였고 불상, 불구재, 재단용품재 등에 많이 이용되었다. 재면에 나타나는 문양은 안개와 같은 무늬와 재색으로 인한 무늬, 파도와 같은 무늬 등, 다양한 형상의 무늬가 나타나기도 한다.



은행나무 피나무 박달나무 느티나무



오동나무 향나무 홍송 주목

불교목조각에 사용되는 목재 사진 : 박병호 제공

-홍송 : 우리나라에서는 잣나무로 오엽송五葉松, 신라송新羅松으로 불리며 붉은색을 띤 갈색을 나타낸다. 가공이 비교적 용이하며 조각재, 기구재, 가구재로 많이 활용되며 불교의 수미단제작에 많이 이용된다. 특히, 최근에는 수입되는 홍송이 곧고 넓은 면적의 판재가 많아 국산재를 대신하고 있으며 짙은 나이테로 인한 아름다운 무늬를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

-주목 : 강원도에서는 적목赤木이라 불리며 경기지역에서는 경목慶木으로 불리기도 한다. 붉은색을 띤 갈색으로 재색

이 아름답고 썩지 않아 공예재나 특수한 용도(나무벼루, 귀새 등)에 사용하며 광택과 향기를 지니고 있어 불상제작, 불단제작, 여러 가지 불교용품, 세공재, 조각재 등에 많이 이용된다. 촘촘한 나이테의 간격과 재색으로 아름다운 무늬가 목재의 전면에 나타난다.

③ 제작도구

-톱 : 목재를 자르거나 켜는데 사용하며 톱의 형태와 톱니의 구조가 다르게 되어있으며 톱니는 목재를 절단하는 방향에 따라 켜는 톱니, 자르는 톱니, 막니 등 3가지로 구분한다. 톱은 제작용도에 따라 켜는 톱, 자르는 톱, 켜기와 자르기 겸용의 양날 톱, 등대기 톱, 붕어톱, 쥐꼬리 톱, 실톱 등이 있다.



고윤학 장인이 사용하는 각종 톱 사진 : 박병호 제공

-대패 : 대패는 대팻집과 대팻날, 덧날의 3부분을 구성되어 있으며 대팻집은 보통 곧은결의 참나무계열 목재를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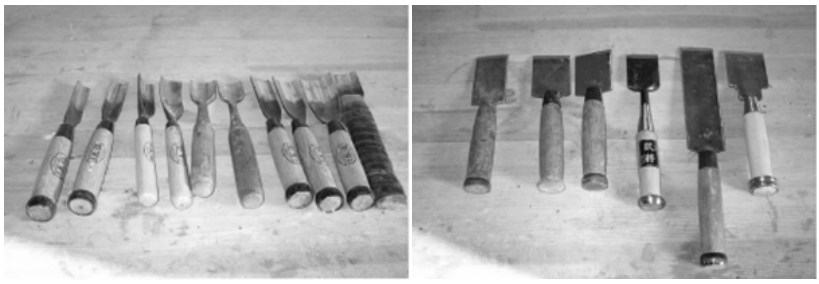
고윤학 장인이 사용하는 평대패 변탕대패 개탕대패 사진 : 박병호 제공

한다. 크기는 두께 25~35mm, 길이 120~450mm, 너비 50~150mm 정도이다. 보통 대팻날의 앞날 각도는 25~30°로서 갈아서 쓰며 대팻날을 끼운 물매, 즉 절삭 각도는 단단한 나무인 경우 40~45°, 무른 나무인 경우 31~35°이나, 보통은 38°로 하여 사용된다.

대팻날은 연강의 앞날에 공구강을 뒷날에 단합시켜 제작하며 대패질은 대팻날의 연마도 중요하지만 대팻집 밑면의 수정이 매우 중요하다. 대팻집 밑면은 평면인 것 같지만 용도에 따라서 밑면의 높낮이가 위치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대패는 평대패 외에 용도에 따라 턱대패(변탕대패), 홈대패(개탕대패), 배대패, 남경대패, 대패집고치기 대패 등이 있다.

-조각끌 : 끌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자루와 끌목, 끌몸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른 나무용 일수록 앞날 각이 작으며 단단한 나무일 수 록 앞날 각이 크며 보통 사용하는 각은 20~30°이다.



고윤학 장인이 사용하는 둥근끌과 평끌 사진 : 박병호 제공



고윤학 장인이 사용하는 둥근칼 창칼 평칼 아사칼 삼각칼 사진 : 박병호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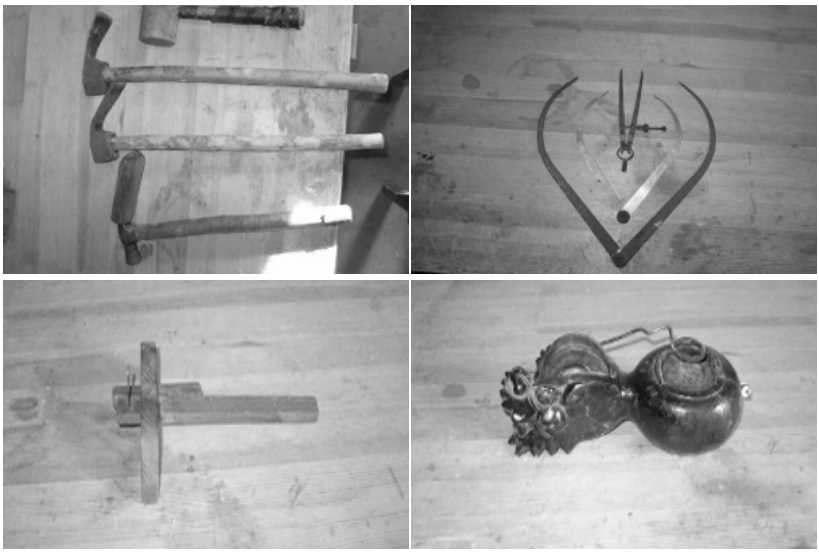
–조각도(칼) : 조각도는 용도에 따라 보통 둥근칼, 창칼, 평칼, 삼각칼 등으로 나누며 평칼은 칼몸의 생김새, 앞날의 경사각도, 날 끝의 폭에 따라 종류가 결정된다. 평칼은 앞날의 경사 각도에 따라 사용 기능이 조금씩 다르며 경사 각도가 20° 정도인 경우는 은행나무, 오동나무와 같은 무른 나무의

조각에 적합하며, 25~30°의 경우는 느티나무와 같은 단단한 나무를 깎는데 적합하다.

창칼의 종류는 날끝 한쪽으로 경사진 각도와 날몸의 모양, 날끝의 폭으로 결정된다. 평칼과 같이 앞날 경사진 각도에 따라 단단한 나무용과 무른 나무용으로 구분되며, 오른손용과 왼손용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칼날의 경사가 45°정도인 것이 보통이다. 창칼은 날끝 한쪽으로 경사진 각도와 앞날 경사각도 및 날몸 모양에 따라 그 종류와 사용 기능이 다르다.

둥근칼의 종류는 U자형의 구부러진 모양과 날끝 폭과 날몸의 생김새에 따라 평환도, 심환도, 굽은 평환도, 굽은 심환도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둥근칼의 크기는 칼날의 원호의 규격으로 결정된다. 둥근칼도 앞날 경사진 각도에 따라 단단한 나무용, 무른 나무용으로 구분되며 조각칼 중에서 칼 종류가 가장 다양하다. 앞날의 경사각은 일반적으로 25~30° 정도 이다. 둥근칼의 U자형 호에 따라 깎인 모양이 다르며 용도는 주로 곡면 상에서 표면에 문양을 표현 하거나 평면상에서 凹凸의 변화가 큰 입체적인 형태를 대략적으로 표현하는데 널리 활용된다. 특히 문양의 형상을 깊게 파낼 때에도 많이 사용된다.

삼각칼의 종류는 날몸의 생김새, 날폭과 V자형의 각도에 따라 결정된다. V자형의 각은 45°, 60°, 90°등이며 앞날 경사각도에 따라 단단한 나무용, 무른 나무용을 구분된다. 앞날의 경사각은 통상 25~30° 정도이며 주로 평면이나 곡면에서 직선, 곡선 등의 선 문양을 새기는 데 사용된다. 삼각칼 중에서



고윤학 장인이 사용하는 자귀 콤파스 캘리퍼스 그무게 먹통 사진 : 박병호 제공

굽은 삼각칼의 용도는 깊은 곡면에 선 문양을 새길 때 적합한 칼이다.

그 외 원목을 대략적으로 형태를 다듬기 위해 사용하는 자귀, 치수 측정에 사용하는 콤파스나 캘리퍼스, 고무망치, 동일치수를 여러 번 표시할 때 사용하는 그무게(촌목), 먹통 등이 목조각 및 맞춤기법에 사용된다.

⑶ 목불의 제작과정

고윤학 불교목조각장이 진행하였던 석가모니 좌상의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출조과정



치목과정1



치목과정2



건목과정1



건목과정2



접목과정1



접목과정2



접목과정3



수평잡기 과정



복장파기 과정1



복장파기 과정2



완성과정

목불 제작과정 사진 : 박병호 제공

① 출초 과정(초그림)

제작하고자 하는 불상을 결정하고 얇은 한지에 불화의 초처럼 불상을 크기에 맞추어 밑그림을 먼저 그리는 과정이다.

② 치목 과정

불상의 용도에 맞는 목재를 선별하여 톱이나 자귀, 망치 등의 목공 수공구를 사용하여 밑그림의 크기와 맞도록 켜거나 자르는 과정이다.

③ 건목치기 과정

치목된 목재를 자귀, 끌, 망치 등으로 전체형태를 잡는 과정이다.

④ 접목하는 과정

전체의 형태를 잡기 위한 가 접목과정으로 목재용 접착제로 접목한다.

⑤ 수평 맞추는 과정

부처의 상호와 전체형태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수평을 정확하게 잡는 과정이다.

⑥ 복장 파는 과정

밑그림에 따라 전체 비례에 맞도록 치수를 재어 먹으로 표시한 후 나무의 속을 파내는 과정이며 이 후 아교를 이용하여 튼튼하게 재 접목한다.

⑦ 불상형태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

최종적으로 불상조각에 있어 상호나 기타 표현을 조각도로 완성하는 과정이며 기능보유자의 유무형적 능력이 발휘되는

과정이다.

(4) 불교목조각의 문화공간

현재 강원도 무형문화재 불교조각장 고윤학은 강원도 강릉시 성덕로 185번길 56호의 작업장을 겸한 자택에서 부인 김향자와 함께 불교목조각을 제작하고 있다. 자택의 맞은편에 지붕만 있는 다소 넓은 공간이 목공기계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자택의 우측은 살림집이며 좌측 약 2~3평의 작업실이 조각이 이루어지는 공간인데 협소하고 열악한 조건으로 특히, 겨울철에는 작업환경의 여건이 급격히 나빠지는데도 꾸준히 우리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킨 점은 매우 높이 평가할 만하다.

불교목조각장의
공방 전경



2016년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인정된 후에도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은 크게 개선되지는 않고 있으며 목재를 재료로 사용하는 특성상 건조된 목재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과 완성된 불교목조각 작품을 보관하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 세부조각을 할 수 있는 공간의 확충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강릉시의 도움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동안 활동해온 전시는 한국문화재 기능인 작품전, 전통문화재 조각회전, 강릉 미술협회전 등 작품발표를 통하여 자기개발과 연구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인정된 후에는 매년 무형문화재 정기 발표회를 통하여 점차 깊이를 더하는 작품을 발표하고 있으며 강원도의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강원도의 무형문화유산이다

강릉 불교 목조각장의 사회문화적 기능

불교목조각은 우리나라의 조각사나 공예사에서 민족적 정서나 예술, 기술 등 모든 영역에서 가장 대표적이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문화유산으로 평가 할 수 있다. 특히, 강원도는 지역적 특성상 예로부터 목재가 많이 생산되어 목재로 된 생활용품과 공예품, 조각품 등이 다수 제작되어 꾸준히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전통에 기반한 목조각분야는 해를 거듭할수록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 상황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며 그 문화적 가치는 배가 되고 있다.

오늘날에는 플라스틱을 비롯한 인공재료의 다양화와 양산, 컴퓨터를 이용한 조각기술 등의 등장으로 불교관련 용품이

대량생산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전통적인 목조각기법으로 우리의 문화를 지키고 보존하며 이것을 이어가고자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불교조각과는 구별되는 정체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의 문화를 지켜 전승해야 할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불교목조각은 수 많은 전란이나 화재, 부실한 관리, 목재가 가지는 보존의 어려움으로 인한 훼손이나 소실 등으로 원형을 알 수 없거나 일부의 형태만 남아 있는 것들이 많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불교목조각 작품을 제작하고 그 기능과 정서를 고수하며 전승하는 것은 무형의 문화자원으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강릉 불교 목조각장의 보존 및 계승

현재 고윤학은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9호 불교목조각장으로 인정되어 40여 년간에 걸쳐 꾸준히 우리나라의 전통 불교와 관련된 목조각을 배워 여러 사찰에 전통 불상을 비롯한 보살상의 복원과 여러 종류의 불구를 전통 방식으로 만들며 모든 과정을 구연할 수 있는 장인으로 인정받아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9호 불교목조각장으로 지정받은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고윤학이 무형문화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불상을 비롯한 불교목조각에 대한 강원도 무형문화재로서 정서적 측면과 기술·기능적 능력을 전승에 기반하여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과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다.

8.

전통자수장

무형유산 범주

- 구분 :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30호
- 영역 : 공예・미술 등 전통기술

무형유산 내용

- 여인의 손끝으로 탄생한 전통자수
- 한 땀 한 땀, 사랑과 정성을 담다
- 강릉자수로 꽃핀 여인의 규방문화
- 강릉자수 천년의 맥을 이어가다

여인의 손끝으로 탄생한 전통자수

자수는 천과 바늘, 실. 그 밖에 여러 가지 재료와 용구를 사용하여 다양한 기법으로 아름다운 효과를 나타내는 섬유예술의 한 분야이다. 자수는 선을 기본으로 표현하며, 색상, 명도,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30호 김순덕 장인

채도의 변화 뿐만 아니라 계절에 따른 광택과 질감의 변화까지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한국의 전통자수는 자연 형태를 바탕으로 하여 우아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독특한 예술로서 여성의 섬세한 감각과 손으로 한 땀 한 땀 실을 천에 꽂아 엮는 정성과 단정한 몸가짐과 아름다운 마음가짐이 담긴 예술이기도 하다.[1)]

1) 삼국시대

『삼국지三國志』 부여전에 사람들이 흰옷을 즐겨 입었으며, 외국에 나갈 때는 회繪, 수繡, 금錦, 계罽로 만든 옷을 입었다

---

1) 남상민, 「우리나라 자수의 변천과 종류」, 『여성의 손끝으로 표현된 우리의 멋』, 국립민속박물관, 1999, 122~123쪽.

는 기록이 있다. 수는 옷감 위에 여러 가지 색채로 수놓은 비단으로 삼국시대에 이미 수를 놓은 비단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음을 알 수 있다. 자수는 복식 자수로 의복문화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왕족과 귀족들의 사치 욕구는 자수의 기법과 문양을 다양하고 세련되게 발달시켰다.

4세기 말에서 5세기경의 고구려 감신총 고분벽화에 당초문과 왕자문이 채색된 비단으로 그려져 있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는 고구려 궁인들이 공적인 자리에 갈 때 수놓은 비단옷을 입고 금과 은으로 장식했다는 기록이 있다. 고구려 상류사회에 수놓은 의복이 일반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고이왕조에 백제풍속에 관하여 "오월초 길일에 소매통이 넓은 자주빛 옷을 입고 푸른빛 바지에 금빛 나는 꽃과 새를 수놓은 관을 쓰고 가죽대를 두르고 가죽신발을 신고 조회를 거행했다."는 기록이 있다.

신라는 500년(소지왕 22년)때에 이미 금수색견錦繡色絹을 민간에서 사용하였으며, 650년에 진덕여왕은 태평송太平頌을 지어 손수 수를 놓아서 당나라 고종에게 보냈다는 기록도 있다. 그밖에 병풍, 부채, 마차의 장식, 집안의 치장 등 실생활에 자수가 성행하였다. 삼국시대는 한국의 전통 자수가 정착했던 시기로 볼 수 있으며, 이 시대의 자수 문양은 자연주의적 양식이 짙게 나타난다.

2) 통일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는 불교가 크게 융성한 시대이다. 비구니 원해圓海는 문헌에 전하는 유일한 여류 자수 작가이며, 석가상

을 수놓은 번幡이 그녀의 작품으로 전해진다.

『삼국사기』 색복조에는 834년(흥덕왕 9년) 복식금제 기록이 있다. 그 중 특히 수를 놓은 비단옷을 진골과 고위 관직자들에게 적용시켰고 6두품과 5두품은 여성들에게만 적용시키고 있다. 당시에 수를 놓은 비단옷은 최고 귀족계급이나 여성 귀족들 사이에 널리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수품은 의복 뿐만 아니라 말안장, 부채, 발, 버선, 병풍 등 생활용품에도 널리 사용되었다.

통일신라시대는 생활용품을 만드는 공방들이 세분화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길쌈과 염색, 바느질 등을 전담하는 공방들이 전문화되었다. 자수를 맡는 공방의 이름은 보이지 않으나 무늬가 놓인 비단을 짜는 조하방朝霞房, 무늬가 놓인 비단을 맡는 기전綺典, 바느질을 맡았던 침방 등이 있었으므로 자수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였을 것이다.

3) 고려시대

고려시대에 이르러 자수가 더욱 성행하여 귀족은 물론 일반인의 옷에도 장식으로 수를 놓는 일이 많아졌다. 불교문화의 융성으로 자수 작품도 자신의 종교적 염원을 담아 사회 전반에 걸쳐 쏟아져 나왔다. 현재 전해지는 자수 작품으로는 사계분경도四季盆景圖, 기호산신도騎虎山神圖가 있다. 한편 감상을 위한 자수품이 등장하였으며, 수도繡圖(수그림)가 바로 그것이다. 수도는 일종의 실내 장식품으로 붉은색 바탕에 녹색으로 선을 두르고 짐승, 새, 과일, 대나무 같은 것을 수놓아 정교하게 만든 작품이다.



화관(김순덕)

4) 조선시대

조선시대의 자수는 이미 여성 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으며, 한국 전통자수의 특징을 갖추게 되었다. 현존하는 작품 대부분이 조선시대의 것으로 자수의 형태 역시 더욱 뚜렷해졌다.

초기에는 양반층에서만 사용하던 자수가 후기에는 민간에 널리 퍼졌다. 신분제도의 혼란과 상업 및 수공업의 발달로 부를 축적한 중간 계층이 출현함으로써 자수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었다. 여인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자수를 놓았다. 현존하는 자수유물은 조선 중기 이후의 작품들로 주머니, 노리개, 보자기, 베갯모, 안경집, 인두판, 골무, 굴레 등이다.

(1) 궁수宮繡

궁에는 수방이나 관의 조직에 의해 훌륭한 기술과 시설이 갖추어졌으며, 밑그림을 그려주는 전문 화공이 있었고 민가

에서는 보기조차 어려운 금사와 은사 및 여러 가지 염색사를 이용하여 세련된 자수 작품을 만들었다. 궁수는 기법이 매우 우수하고 문양은 정교하고 세련된 것이 특징이다. 조선전기 이래 궁중에는 자수를 전문적으로 놓는 직공과 침선비들이 있었으며, 중기 이후에는 수방이라는 전문공방이 있었다. 보補, 흉배胸背, 적의, 활옷, 원삼 등의 왕실 복식의 자수가 대표적인 궁수 작품이다.

⑵ 민수民繡

민수는 궁수처럼 세련되지는 못했지만 내용과 유형이 풍부하고 다양하였으며, 특히 백성들의 일반생활을 소재로 한 풍속화나 자연풍경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산수화, 민화에 큰 영향을 받았다. 자수품에 여인들의 남편과 자녀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담겨있으며, 엄격한 유교의 규제 속에서 여성들의 예술적 표현과 도덕적 심성을 반영하고 있다.

조선시대 후기 민수는 지방마다의 특색이 있었다. 북쪽지방의 자수는 장식성이 강하며, 문양과 색상도 매우 화려하다. 전라도의 순창자수는 수법과 문양이 단순화되어 소박한 베갯모로 유명하다. 강원도 자수는 특이한 기하학적인 문양과 오방색을 사용하며, 자수를 놓은 보자기의 바탕 옷감이 무명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다른 지방의 자수 보자기의 바탕 옷감은 비단이나 명주를 주로 사용하였다.

5) 현대

조선 말기의 전통자수는 일제침략과 서양문물로 인하여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였다. 서구 문물이 밀려들면서 전통자수는 사양길에 접어드는 위기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의복을 비롯하여 수저집, 이불, 각종 함, 버선장, 문갑 등 모든 생활용품에 수를 놓을 만큼 실생활에 밀접했던 자수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실용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바쁜 현대생활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버렸다.

현대 자수는 일정한 형식에서 벗어나 현대적 감각에 맞는 다양한 형태와 자유로운 소재 선택, 개성적인 색조, 다채로운 배색과 다양한 기법 등 창의적이고 조형감각에 맞는 표현방법이 돋보인다. 수와 그림을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회화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입체적이고 추상적인 작품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한 땀 한 땀, 사랑과 정성을 담다

작업대, 자수감, 실을 준비하고 도안을 옮겨 그린 후 수틀을 메워서 수놓을 준비를 한다.

1) 수놓을 준비

(1) 작업대 다루기

수놓기 전에 수틀에 알맞게 좌우 수틀대의 간격을 조절한다. 수틀대와 몸의 거리는 10cm 내외로 하며, 공구 상자를 옆에 둔다.

(2) 자수감과 실 다루기

자수감은 수놓을 용도와 범위를 파악하여 도안의 크기보다 여유있게 재단하며, 직물(광목, 공단, 실크 등)의 성질에 따라 손

실이 없도록 마름질 한다. 푼사의 실끝을 찾아 실거는 고리에 달고 실꼬기를 한다.

⑶ 도안 옮기기

도안지와 수놓을 감 사이에 복사지를 넣는다. 바탕감과 도안이 움직이지 않도록 양쪽을 핀으로 고정시킨 후 도안지 위에 셀로판지를 놓고 도안을 그린다.

⑷ 수틀 메우기

자수감의 올이 풀리지 않도록 휘갑치기를 하거나 풀칠을 한다. 자수감의 주변에 광목을 대고 박은 후 맞은편을 당겨서 수의 면쪽을 압정으로 누른다.

2) 전통자수의 기법[2)]

전통자수는 반드시 실을 꼬아 재질감을 강하게 하였으며, 강릉자수는 면의 둘레를 무채색이나 면과 같은 재질의 색과 금사, 은사로 둘러서 화려하고 확실하게 표현한 점이 특징이다. 기법은 이음수, 평수, 자련수, 씨앗수(매듭수), 징금수 등의 기법이 많이 사용되었다.

⑴ 이음수

주로 잎의 줄기나 윤곽선 등에 이용된다. 땀수의 겹침에

---

2) 기법의 사진자료는 김순덕 전통자수장의 작품이다.

따라 한줄 세우기, 두 줄 세우기 세줄 세우기로 수놓을 수 있다. 수놓는 순서와 방향은 곡선인 경우 곡선의 연장선을 그으면 항상 원이 되는 바깥에서 바늘을 뽑아 안쪽으로 수를 놓아야 한다.

선수라고도 하며 서양의 아우트라인 스티치와 비슷한 기법이다. 땀수의 겹침에 따라 한 줄기 세우기(1/3겹침), 두 줄기 세우기(1/2겹침), 세 줄기 세우기(2/3겹침)로 수놓을 수 있다. 땀이 많이 겹칠수록 굵고 조금 겹칠수록 선은 가늘어진다.

⑵ 평수

평수는 주로 작은 꽃, 열매, 잎, 문자 등에 많이 이용되고 특히 매화꽃을 놓는 대표적인 기법이다. 실의 간격이 없이 작은 도면에 고루 펴서 놓는 기법으로 실 사이에 중복되거나 틈이 없이 실을 늘려서 덮는다. 방향에 따라 사선 평수, 수직 평수, 수평 평수로 수를 놓을 수 있다.

실의 간격 없이 고루 펴서 놓는 기법으로 실 사이에는 중복되거나 틈이 없이 실을 늘려서 덮는 수이다.

앞뒤가 같으므로 안팎수라고도 하며, 가장 기본이 되는 기법으로 작품에 따라 속수를 놓을 수도 있으며 서양자수의 새틴스티치와 같은 기법이다.

⑶ 가름수

가름수는 대개 작은 잎을 수놓을 때 사용되며, 단풍잎의 표현에도 적합한 기법이다. 가름수는 평수를 잎맥 사이에 양쪽을 사선 방향으로 수놓은 것으로 경사는 잎맥에서 25~35

각도로 기울어져야 결이 곱다. 수의 방향에 따라 광선을 받아 색이 다르게 보이므로 변화가 있다.

색의 배색은 우련수를 하면 자연스러운 배색이 된다. 배색의 비율은 3 : 2 : 1로 한다. 잎과 잎의 만나는 점, 잎, 끝에서부터 수놓기 시작하여 잎의 윤곽선에서 잎맥쪽으로 향하여 수를 놓는다.

⑷ 관수

실의 굵기만큼 일정하게 간격을 띄우고 수평으로 수놓는 기법으로 실의 길이에 따라 그늘관수, 반관수, 양지관수로 나눈다.

그늘관수는 땀이 짧게 나오는 수이고 반관수는 표면에 나오는 땀을 길게 하여 서로 엇갈리게 놓는 수법으로 넓은 도안의 면을 가볍게 처리하는데 좋은 기법이다. 양지관수는 도안의 전면을 간격을 두어 메우는 기법으로 이 기법은 엇겨 놓기 밑수로 쓰이기도 한다.

⑸ 속수

속수는 겉수의 입체감을 내기 위해 양감을 표현하는 기법으로 인물, 꽃, 동물 등의 도안에 다양하게 쓰인다. 속수의 재료는 솜, 노끈, 창호지, 목실 등을 도안의 면과 선을 메꾸어 입체감이 표현되도록 적절하게 사용된다. 겉에 본수를 놓을 것을 생각하여 강조할 부분과 약한 부분의 차이를 주어 속수를 놓는다.

사물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거나 명암관계를 살려서 색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표현하는데 이용하는 기법으로 특히 색의



이음수



평수



가름수



관수



속수



자련수

사진 : 김용문 제공

배색과 수결의 방향에 유의해야 한다. 서양자수의 롱 앤드 쇼트 스티치와 유사하다. 넓은 면에서 좁은 면으로 자연스럽게 수를 놓아야 한다. 수놓을 때 방향과 바늘, 땀수를 잘 조정해서 배색을 해야 한다. 한 자리에서 두 번 이상 바늘을 꽂지 않는다.

장미, 목단, 목련, 함박꽃, 포도잎새를 수놓을 때 사용되는 기법이다.

(6) 자련수

자련수는 사물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거나 명암관계를 살려 색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표현할 때 이용되는 기법으로 특히 색의 배색과 수결의 방향에 유의해야 한다.

(7) 솔잎수

솔잎수는 소나무 잎을 수놓을 때 사용하는 기법으로 45도 각도의 원뿔을 세워 놓은 모양으로 꼭지점을 향하여 수놓는다. 실제의 솔잎을 수놓을 때는 하나하나의 솔잎수를 자련수와 같이 겹쳐서 수놓으면 입체적으로 표현 할 수 있다.

(8) 새털수

자수에 이용되는 새의 종류가 많으므로 그 특성을 강조하거나 약화시켜 수를 놓는다. 새의 각 부분을 자연스럽게 조화되도록 수놓아야 하며 전체적인 양감과 조화를 맞추도록 배색하고 수놓는다.

(9) 십자수

십자수는 정십자수, 입십자수, 삼각십자수, 사각십자수, 횡십자수 등이 있다.

입십자수, 횡십자수는 가로세로 땀이 서로 교차하여 도안의 면을 메우는 기법으로 거친 질감이 나고 면이 넓은 추상도안에 이용된다. 삼각십자수, 사각십자수 등은 방향이 어긋나도록 수를 놓는 것이 중요하다.

(10) 그물수와 귀갑수

그물수는 벌집수, 균열수라고도 하며 육각형을 변형시켜서 크기와 모양을 다르게 나열하여 수를 놓으며 균열된 모양이나, 거북이 등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다.

거북이 수는 주변의 배경에 따라 배색이 달라진다. 거북



솔잎수



깃털수



십자수



그물수와 귀갑수



징금수



매듭수(씨앗수)

사진 : 김용문 제공

이 등을 자련수로 수놓은 후 귀갑문양을 수놓는다. 거북이 등 옆과 발은 평수로 수놓으며, 윤곽선은 이음수로 수를 놓는다.

(11) 징금수

징금수는 노끈, 굵은실, 금, 은사 등을 도안선 위에 놓고 가는 실로 징그는 기법이다. 징그는 실이 보이지 않게 수놓는 방법은 윗실을 푼사로 굵게 꼰 꼰사로 하며, 그와 같은 색상인 샛털실을 꼬아 실의 꼬임 사이사이를 징근다. 도안에 따라 3mm, 5mm, 7mm 정도 간격으로 징근다. 모서리를 놓을 때는 두 번 징근 후 꺾는다.

금사를 징글 때는 실을 끊지 않고 실패만 돌려서 놓는다. 길게 줄을 사선으로 교차되게 치고 교차점을 징그기도 한다.

(12) 매듭수(씨앗수)

씨앗수는 바늘에 실을 감아 실을 뺀 자리 바로 옆으로 찔러서 수놓는 기법으로 바늘에 실을 감는 횟수에 따라 씨앗수의 크기가 결정된다.

주로 꽃의 암술 표현에 쓰이는 기법으로 씨앗수는 점을 표현하며, 계속 연결시키면 선의 표현과 면으로도 수를 놓을 수 있다.

강릉자수로 꽃핀 여인의 규방문화

강릉자수는 강릉수보, 주머니, 버선본 주머니, 베갯모, 골무 등 다양한 유물이 전해진다. 수보繡褓는 조각보와 함께 유품이 많이 전하는 대표적인 보자기로, 여기에서의 수보는 수가 놓인 보자기를 말하며 '수'는 자수刺繡를 의미한다.

보자기는 조선시대 주거 공간의 안채를 중심으로 한 여성들의 민속 유물이다. 일상생활용 공예품으로 종교적 성향이 강하거나, 중국에 의존해 온 사대부 중심으로 발달한 남성위주의 고급 미술도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 보자기들은 민간의 풍습과 풍속을 반영하고 민간의 미의식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그 속에 오랫동안 쌓여 온 생활의 지혜와 진실을 담은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보자기의 발달은 의례적인 측면에서도 물건을 주고받을 때 싸거나 덮는 포장의 기능뿐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오고가는

물건이 깍듯한 예의를 다한 마음의 표현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의미도 찾을 수 있다.

강릉수보의 주 제작지인 강릉은 사임당의 대표적인 화풍인 초충도草蟲圖를 밑그림으로 활용하여 초충도 자수를 전국적으로 보급시켰으며, 예로부터 독특한 자수 양식을 발전시킨 지역으로 유명하다. 또한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문양으로 세계성을 이미 인정받은 강릉수보를 탄생시켰으며, 기하학적인 비구상 문양의 강릉색실 누비쌈지를 통해 지역적인 독창성과 유래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강릉수보의 특징은 디자인의 내용적·형식적 요소에 부합하면서도 일반 보자기에 나타난 복을 비는 상징을 문양과 문자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독자적 양식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수보의 문양은 전통 민속 예술에 거의 공통되는 정신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의 기원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복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자연히 수보를 소중히 간직하려는 애착심이 여느 보자기와 달랐을 것이다. 혼례 시 예물을 싸던 보자기는 이러한 의미를 내포한 대표적인 예로, 혼례용보로 주로 쓰였던 수보는 보자기에 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더욱 분명하


주머니


바늘집


버선본주머니


쌍학흉배

강릉자수 유물 동양자수박물관 소장

게 보여 준다. 현재까지 발견된 수보는 대부분이 강릉을 중심으로 한 관동지방에서 나온 것으로 관동지방의 토착적인 자생 문화의 산물로 보고 있다.

강릉수보 역시 물건을 보호하고, 이동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강릉수보는 지방 특유의 문양이 새겨진 민보를 말하며, 제작 목적은 민간신앙을 기반으로 한 복을 기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된 문양에는 기호성, 주술성, 상징성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현재 관동지방은 산림의 비중이 높은 지역적 특성 때문에 산간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문화유적들이 산재해 있다. 강릉의 율곡제와 단오제, 영월의 단오제, 홍천의 한서제, 삼척의 죽서제竹西祭 등 무속신앙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가 매년 열리는데, 산악 지형의 영향으로 산지와 관련된 문화가 이 지방의 특색이 되고 있다.

특히 강릉은 예로부터 규방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예술을 만든 여인들의 고장으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신사임당申師任堂(1504~1551)과 허난설헌許蘭雪軒(1563~1589)이다. 신사임당은 율곡의 어머니로서 현모양처의 상징이며, 시·서화와 자수 분야에서 독특한 규방예술의 전형을 보여준 예술가이다. 허난설헌은 여성 특유의 섬세한 문학적 감수성으로 조선시대 여인이 겪어야 했던 시대적 아픔과 한을 아름답게 승화시킨 시들을 통해 관동지방을 비롯한 조선시대 여성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다.

규방소품에 표현된 문양의 대부분은 남성 상위구조에 의한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전통적 문양은 가정의 화목과 건강,

복락기원의 형태로 나타났다. 반면, 첩첩산중에 고립되어 자생적으로 발생하여 지역 색이 강한 강릉수보는 추상적 문양과 강렬한 색채를 특징으로 한다.

강릉수보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수보와 달리 문양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것은 대칭을 이루고 있는 나무 문양이다. 강릉지방은 지리적으로 험한 산세와 울창한 살림으로 둘러싸여 있던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나무가 자수의 주요 모티브로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나무는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신성시된 자연물 중의 하나로 상서롭고 영험이 있다고 여겨졌다. 따라서 이것이 길사에 쓰이는 수보에 이용된 것은 복락기원과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수화문 다음으로 빈번하게 사용되어진 문양으로 학, 봉황, 공작 등의 서조문과 나비, 풀벌레, 각종 잡새가 곁들여 있다. 이 밖에 꽃은 복을, 열매는 다산 특히 다남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사용되었다. 전체적으로 수보의 문양은 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꽃·열매·원앙 등의 길상문양도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였으며, 특히 석류 문양은 다산·다남의 전형적인 상징이었다. 이 외에 수, 복 문자문양도 적지 않은데 문자의 획 하나에도 여러 종류의 색실로 화려하게 표현하였고 보자기 중심부나 가장자리에 다른 문양과 어울려 수 놓여 있다.

다른 견해는 강릉단오제에 쓰이는 화개花蓋, 즉 괴대를 본뜬 모양으로 짐작하는 것이다. 보자기 전면 가득히 수놓아진 꽃 또는 나무 같은 문양과 색동 같은 알록달록함을 강릉 단오제의 괴대에서 기원을 찾기도 한다.

강릉을 대표하는 강릉단오제는 조선시대 문인 허균(1569~

1618)이 쓴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에 1603년 단오를 맞이하여 대관령 산신을 제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행사는 관이 주관하고 민중이 참여하는 축제의 성격이었다. 관동지방을 대표하는 축제인 강릉 단오제는 전통 민속 예술에 거의 공통되는 정신적 기반인 복락기원의 민속신앙과 불교신앙이 결합한 형태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조선시대의 엄격한 사회적 기풍 속에서 여성들 특히 양반층의 여성들은 친정 나들이를 제외하고는 외출이 거의 불가능했었다. 단오제에 관한 기록에 따르면 강릉 여성들은 단오굿을 하는 동안에는 외출이 허락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강릉수보의 창작자인 여성들은 단오제를 통해 굿에서 많은 것들을 볼 기회를 가졌을 것이며, 신대나 패대 같은 특별한 소재들이 수보의 모티브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이 수보에 표현된 문양의 주된 관념은 시대적 변천에 따라 단계적 차이는 있겠지만 강릉수보는 옛날부터 우리 민족의 생활신앙에 불교・도교・유교 등의 외래신앙에서 추출한 기복적 요소가 합쳐져서 강릉자수의 독창성을 이루었던 것이다.

500년 세월의 멋과 애환이 깃든 강릉수보는 독창적인 규방예술로 기품 있는 조형미와 신선한 색감의 조화, 특이한 색채구성으로 규방예술의 극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보 가운데 강릉수보를 으뜸으로 인정하는 것은 몇 가지 조형적 특징 때문이다.

첫째, 강릉은 예부터 문향의 도시이며, 예술을 숭상하는 예향의 특징인 문풍文風・예풍어린 단아端雅한 작품을 만들려

고 하였으며, 서민층에서는 호사함은 덜해도 절박한 재료와 솜씨로 함박꽃처럼 소담스러운 작품을 산출하고자 하였다.

강릉수보의 문양은 이전의 자수품에서 보이는 일정하게 정해진 사실적 표현에서 벗어나 대체로 비사실적이며 유동적인 표현 양상을 보여준다. 수화문을 예로 들면, 꽃송이를 각색실로 동심원을 표현하거나 몇 개의 색만을 사용하여 줄기와 가지를 암시하는 정도로 도식화 하였다. 줄기나 가지 끝에 달린 꽃이나 새, 풀벌레 등도 그 형태가 뚜렷하지 않아서 새로도 보이고 꽃으로도 보이도록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표현하였다. 즉, 수보의 문양은 자연에서 이끌어낸 것이지만, 추상화 단계를 거쳐 세세한 부분을 생략하고 그 자연물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요소만 남겨 절제된 형태적 선만으로 전체적으로 풍요로워 보이도록 구사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은 수보가 완성미를 추구했던 전대의 작품들과 달리 거의 무작위적인 자유로운 표현 양식을 추구한 후대의 조형적 특징을 구현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둘째, 문양의 배열 형태를 살펴보면 상류층에서는 전통적인 대칭형과 방사형을 따랐다. 대칭형은 하나의 점이나 직선을 중심으로 하여 양편에 같은 문양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하나는 방사형으로 서민층에서는 이와 다른 자유자재형을 구사한 점이다. 이것은 다른 지역 보자기에서 볼 수 없는 창의적이면서도 독자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간혹 상류층 수보에도 이와 같은 유형의 유물을 발견할 수 있다.

문양의 구도를 보면 다른 자수품들과 달리 위에서 내려다

본 모양, 부감된 형태로 묘사된 평면도 형식과 정면으로 바라본 모양 즉, 입면도 형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문양은 대부분 대칭으로 배열하였으며 보자기 중심부의 원형문이나 화문을 중심으로 또는 두 개의 대각선이나 십자가형으로 만드는 두 개의 직선을 중심으로 사방이 대칭되게 문양을 배치한다. 좌우 상견형이나 팔방대칭형도 다수 발견되며 문양이 보자기 전반에 방사상으로 퍼진 배열도 적지 않다. 또한 형태와 상관없이 자유로운 형식도 많다.

강릉 수보의 조형적 특징은 일반적인 수보와 다르게 보자기 중심에 십자 '+'를 중심으로 회전 또는 대칭형·방사선형·맞변형 등 문양을 도식화하여 표현하였다. 보자기 주제가 되는 문양과 배경이 되는 요소들에 대하여 강약을 살린 배치와 안정감을 최대한 고려한 구도, 기물의 형태적 특성을 고려한 문양의 배치와 안정감을 최대한 고려한 구도, 기물의 형태적 특성을 고려한 문양의 배치와 유사하거나 다른 동물 문양 간의 대칭을 통한 균형과 조화, 그리고 선과 면의 효율적인 안배를 통한 안정감, 운동감의 부여 등 제작자의 예술적 취향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강릉수보의 디자인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강릉수보의 기하학적 문양 동양자수박물관 소장

이러한 시각적 특징은 관동지역 특유의 문화적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국가의 숭불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타 지역에 비해 규제가 심하지 않았던 점과 단오제라는 민간신앙의 요소가 공존했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십자 '+'를 중심으로 문양을 배열한 조형적 구조는 강릉 지방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속신을 반영하며, 불교와 강릉단오제라는 민간신앙의 결합된 상징성을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강릉수보는 인간의 정체성, 자아실현과 같은 여성 내면의 사상들이 보자기라는 매개체를 통해 문양과 구도, 색상으로 체계화되어 표현된 것이다. 강릉수보에 나타난 조형성은 여성 자신의 의식을 담아냈던 정신의 산물이며, 나의 존재를 알리는 수단, 즉 이념과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매개체였다.

또한 보자기의 기복사상과 길상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당시 사회에서 공통된 일종의 기호라는 점에서는 이전의 맥을 이어나가면서 보다 대중성이 강화된 이미지로서의 문화적 표현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보자기는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 없음과 있음 사이를 이으며 중간 매개자 역할인 '이음'의 구실을 한다. 물건이 있으면 내부공간이 만들어지고, 물건을 꺼내면 외부공간으로 변한다. 여러 개의 물건을 한 공간에 모으고 풀어 놓으면 다시 무無의 공간으로 돌아간다. 보자기는 오랜 세월동안 한국인과 함께해 온 동양 특유의 자연관과 불교의 철학을 품고 있는 실용과 문화의 조화라고 할 수 있다.

한중일 모두 보자기 문화를 갖고 있으나 독창성 면에서 돋

보이는 강릉수보는 개인적 감성이 억눌린 시대의 여성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산물이다. 규방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인내로 세월을 보내면서 시대적 상황을 긍정적으로 승화하고 자신들의 삶을 문화 예술로 표현한 것이 강릉수보이며, 디자인이 현대적이고 화려하여 앞으로 강릉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에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다.

한국적인 미학의 한 축이 절제된 단아함이라면 다른 한 부분은 고려 불화, 민화, 단청, 한복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화려함과 섬세함의 어우러짐이 돋보이는 선과 색채의 조화로 자연에 근거한 우주를 담아낸다.

조선시대 규방자수 공예품의 색상별 비율을 보면 홍색(53.85%), 백색(12.35%), 청색(10.02%), 황색(6.7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홍색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붉은색이 귀신을 물리친다는 벽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수보와 문양에 주로 사용된 청색・적색・황색・백색・흑색은 음양오행설에서 말하는 오방색五方色에 해당한다. 여기에 금색을 포함하고 간색을 적절하게 구사하여 단순명쾌한 색채 효과를 주고 있다. 대체로 명도가 높은 색채를 띠는 수보 문양의 색상은 자연의 색채로부터 추상화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방색의 의미를 살펴보면 청색・동쪽・봄은 태양이 솟아오르는 동방으로 생성과 성장 및 풍요를 의미하며 양기가 강하다. 백색・서쪽・가을은 태양이 지는 곳으로 만물 운행의 정지를 상징하며 음기가 강하다. 적색・남쪽・여름은 만물의 무성함을 상징하며 양기가 왕성하다. 흑색・북쪽・겨울은 생명의 종식을 상징하며 음기가 강하다. 황색・중앙은

광명을 상징하는 양기의 정화로 태양과 가장 가깝다.

음양설에 의하면 만물의 생성 변화는 음양의 조화에 따른다. 따라서 음양이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화가 초래되어 흉작, 패전, 손재, 우환 등의 액이 든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음양오행설이 일상생활에 깊이 스며들어 재액을 가져오는 음귀를 물리치고 복을 가져오는 방법의 하나로 청색, 홍색, 황색의 양색을 사용한 사례를 민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혼사에 사용하였던 청홍색실을 둘러주면 아이에게 병이 없다고 믿었으며, 이불은 잇색과 쪽색으로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혼례복의 기본 색도 청홍색이다. 사주단자보 역시 청홍색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양의 색상을 청색, 적색, 황색의 삼색만으로 한정한 게 아니라 색상의 범위를 확대해 홍색, 주색 등은 적색 계열로, 남색, 초록색, 옥색 등은 청색과 동일 계열로 취급하여 상징성이 동일하였다. 이처럼 수보의 오방색 사용은 음양의 조화로서 제액초복을 꾀한 민간 신앙적 배려와 관계가 깊다고 하겠다. 즉, 민속적 관념의 색상은 수보의 문양이 지닌 길상 의미와 복합되어 수보에서 복락기원이라고 하는 민간 신앙적 요소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보에 나타난 문양과 배색에 나타난 조형적 특징은 전통 민속예술에 거의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세의 복락 기원과 관련되어 있고, 문양과 배색이 돋보이는 구성방식은 여타 자수품과 수보의 다른 점이다. 문양과 색의 사용에 있어서도 유교적 관념론인 음양오행사상이 반영되어 오방색을 주조로 한 배색 구성위에 음양을 상징하는 문양들을 사용하였다.



강릉수보 동양자수박물관 소장

강릉수보는 이전의 자수 작품에서 보이는 사실적인 표현에서 벗어나 추상적인 표현 양상을 보여 주고 있어 조선 후기 민화의 자유로운 표현법과 비슷하며, 관동지방의 특성과 생활양식, 민간요소와 결합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강릉수보의 소재인 바탕 옷감과 사용된 색채를 보면, 바탕 옷감은 당시에 많이 생산되거나 수입되어 널리 보급되었던 기계직 면직물과 비단이다. 동양자수박물관에 소장된 강릉수보와 김순덕 전통자수장이 제작한 강릉수보에 사용된 자수실의 색채는 화려하며, 음양오행설에 바탕을 둔 오방색과 간색을 적절히 사용하여 만들어졌다. 청색, 백색, 적색, 흑색, 황

강릉수보(김순덕)
사진 : 김용문 제공





색의 오방색과 녹색, 홍색, 벽색, 자색, 류황색의 간색을 혼용하였으며, 다양한 색으로 염색된 바탕천에 다양한 색감의 나무·꽃·새 등과 같은 문양을 빼곡히 수놓고 그 외곽선은 금사로 처리하여 화려함을 더해주었다.

조선시대의 엄격했던 색채에 대한 규제는 조선 후기로 갈수록 한층 느슨해진 양상을 보여준다. 강릉수보에는 이러한 시대상황이 잘 반영되어 있다. 예컨대 보자기 하나에 다양한 색의 수실이 사용되었는데, 개별 문양의 경계 안에서조차 2~4개의 색을 사용한 예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강릉단오제에 등장하는 괘대 신목에 걸려있는 오색 천을 보고 여성들은 수보자기에 화려하게 표현하였을 것이다. 문화적인 배경으로 발생한 화려한 색에 대한 욕구가 시대상황과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강릉자수 천년의 맥을 이어가다

1) 강릉자수의 현황

1973년에 관동대학교 성기희 교수에 의해 꽃 수예 모임이 창설되어 첫 작품 전시회가 열렸으며, 강릉수보 전승작품이 주를 이루었다. 1976년부터 시작된 전승공예대전에도 전통자수분야의 참여가 활발하여 자수 전승의 맥을 이어가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1980년대 서울의 자수박물관 허동화 관장에 의해 강릉수보 도록이 출간되어 국내외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현대의 자수 전문가들에 의해 강릉수보의 가치가 재평가되었다.

1991년 8월 12일 서울 그랜드백화점 강원도 전시관 개장을 기념하기 위하여 강릉 자수 작품을 전시하였다. 이 무렵 강릉



강릉 선교장의 자수 모임 사진 : 김용문 제공

자수의 맥을 이어야 한다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1994년부터 강릉자수 모임인 예림회가 결성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1999년 3월에 강릉 여성전통문화 전시회가 열렸고 1995년에 강릉 여성문화센터 자수반이 개설되어 전후기 각각 20명의 수강생을 배출하였다. 이후 10여 년 동안 김순덕 전통자수장은 매년 전후반기 2회에 걸쳐 자수 수강생 실기지도를 통해서 수백 명의 신세대 주부들에게 자수의 맥을 잇도록 하였다. 2004년 관동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에서 전통문화강좌에서 전통자수의 이론과 실기를 지도하였다. 2002년부터 율곡평생교육원 다도대학에서 전통혼례와 자수복식을 지도하고 있다. 매년 5월 문예경연대회 중 하나인 자수경연대회를 예림원이 주관하여 강원지방 여성 자수문화 전승과 보급에 기여하고 있다.

김순덕 전통자수장은 개인전, 자수실기 지도, 공모전 수상 등 꾸준한 활동으로 강릉자수를 전승해왔다. 2007년 강릉시 공예 특산품 전시판매장에 자수체험실을 운영하여 강릉 전통자수 회원들과 자수작품을 제작하며 자수 교육과 제자양성에

노력하고 있으나 강릉의 전통자수를 전승 및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강릉시의 지속적인 후원이 필요하다.

2) 강릉자수의 전승

(1) 강릉자수의 도안 개발

① 수화수보문樹花繡褓文

수화수보문 문양의 소재는 수목과 꽃이다. 주로 사용된 색채는 빨강, 노랑, 주황, 연두, 초록, 보라, 흰색이다. 문양의 배치는 좌우 대칭적이며, 비사실적이고 반추상적인 표현양식을 띤다.

수화수보문
(김순덕)



② 화훼수보문花卉繡褓文

화훼수보문 문양의 소재는 수목(진또배기)과 계수나무 꽃이다. 주로 사용된 색채는 빨강, 노랑, 주황, 연두이다. 문양은

십자형을 이루는 두 개의 직선을 대각선으로 배치하고 있다. 반추상적인 성격을 띠며, 주제를 부각시키는 표현양식을 가지고 있다.



화훼수보문 사진 : 김용문 제공

③ 화훼수보문花卉繡褓文

두 번째 화훼수보문 문양의 소재는 석류와 모란꽃이다. 주로 사용된 색채는 빨강, 노랑, 주황, 연두, 흰색, 파랑, 보라색이다. 문양은 십자형을 이루는 두 개의 직선을 대각선으로 배치하고 있다. 반추상적인 성격을 띠며, 주제를 부각시키는 표현양식을 가지고 있다.



화훼수보문 사진 : 김용문



초충도자수(김순덕) 사진 : 김용문 제공

④ 초충도 3자수

초충도 자수는 조선조 때의 여류문인이며, 서화가인 신사임당(1504~1551)의 작품이다. 신사임당의 초충도 자수는 네 폭이고 나머지 두 폭은 허백년許百練(1891~1977) 동양화가의 제찬題讚이다. 신사임당이 즐겨 쓰던 화제畵題는 수박, 오이, 가지, 꽃 등의 식물에 벌, 나비, 잠자리 등을 함께 그리는 것이 특징이다. 이 초충도의 양식은 화제 및 자수 솜씨에서 여성다운 섬세하고 정감 어린 의장意匠이 잘 표현되고 있다.

(2) 강릉자수를 응용한 다양한 문화상품 개발

김순덕 전통자수장은 강릉 자수를 응용한 자수 윷놀이판, 목걸이, 브로치, 넥타이 핀 등의 액세서리와 보석함, 구절판, 돋보기 등 다양한 문화상품을 제작하고 있다.



자수 윷놀이판



돋보기와 브로치



자수 찬합





액세서리와 보석함 사진 : 김용문 제공

3) 강릉자수 전승에 관한 제언

강릉수보는 강릉 특유의 표현양식과 고유성이 뚜렷하며, 자수의 도안이나 예술적 창의성에서도 지역적 독창성을 갖고 있다. 강릉수보를 강릉지방의 민수문화로 그 정통성을 확립하고 강릉자수를 대를 이어 전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과 시설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자수의 문양을 문화상품에 응용하기 쉽도록 도안을 현대적으로 개발해나가야 하며, 자수 실습용품 키트kit를 준비하여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한다.

강릉자수에 관한 특강과 자수 시연행사 개최를 통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강릉자수에 관심을 갖도록 조성하며 강릉자수를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강릉자수를 현대적으로 응용한 강릉시 주최 문화상품공모전 및 문화 프로젝트로 자수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전통자수장, 대학과 함께 젊은이들에게 실기교육을 전승하고 매년 자수경진대회를 학생, 일반인, 전문인으로 나누어 개최함으로써 강릉자수의 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비지정 무형문화유산

비지정 무형무형문화유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인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무형유산을 말한다.

9.
강릉 사투리

—

무형유산 범주

◦ 구분 : 강릉 비지정무형유산

◦ 영역 : 구전전통 및 표현

무형유산 내용

◦ 언어지리학적인 면에서의 강릉방언의 위치

◦ 문법 면에서의 특성

◦ 어휘 면에서의 특성

서론

강릉방언은 과거의 행정구역으로 강릉군江陵郡,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강릉시江陵市 권내에서 사용되는 방언이다. 말하자면 한 시군市郡 넓이를 방언권方言圈으로 한다. 바로 인접해 있는 남쪽의 삼척三陟이나 북쪽의 양양襄陽과 그 경계가 획연



2018 제25회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

히 그어진다. 그만큼 방언권이 매우 좁은 방언이다.

그러면서도 강릉방언은 그 개성이 유난히 뚜렷하다. 그 존재감이 크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다른 방언에서 볼 수 없는 이 방언 특유의 특성들이 무척이나 풍부하고 다채로울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한결같이 우리 국어의 지평地平을 넓혀 주는 귀중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것들이다.

이 글은 이 같은 강릉방언의 특성들을 간추려 제시함으로써 강릉방언이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가를 보이고자 한다. 그 가치는 음성과 음운 체계에서도 드러날 것이고, 조사나 어미 등의 문법요소에서도 드러날 것이며, 피동被動과 사동使動 및 복합어 등 조어법造語法 전반에 걸쳐서도 그 독자적인 가치가 부각될 것이다. 중세국어中世國語 내지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고어古語의 자취를 간직한 어휘를 비롯하여, 국어사전에 표제어로는 올라 있으나 그 어

디에서도 찾지 못해 올리지 못한 예문을, 그 살아 움직이는 예문을 보여주는 어휘 또한 이 방언의 가치를 보여 줄 것이다. 언어지리학적인 면에서도 이 방언이 매우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여기 제시되는 자료들은 필자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70대 이상의 노령층으로부터 수집한 것들이다. 강릉방언은 여느 방언과 마찬가지로 큰 변혁기를 맞고 있다. 그 조짐은 60대에서도 나타나지만 50대 이후만 되면 강릉방언의 전래적인 요소 상당 부분이 자취를 감춘다. 'ㅐ'와 'ㅔ'의 변별력도 사라지고, 'ㅚ'를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ㅟ'를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일조차 보기 어려워졌다. 많은 전래적인 어휘도 사용은커녕 알아듣지도 못한다. 그 점에서 이 글의 강릉방언은 그야말로 유산遺産으로서의 강릉방언이라 할 수 있다.

언어지리학적인 면에서의 강릉방언의 위치

우리나라 방언을 몇 개의 하위 방언으로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선 지금껏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나마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대개 도별道別로 경상도방언, 전라도방언, 평안도방언, 함경도방언, 제주도방언, 그리고 그 나머지 지역인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황해도를 하나로 묶은 중부방언中部方言 식으로 나눈 분류 체계다. 비록 행정구역이라는 비언어학적인 사실을 기준으로 삼았기는 하나, 언어적인 면에서도 뒷받침되는 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일반적인 인상과도 부합하는 점이 있어 오랫동안 이 분

류가 호응을 받아 왔다.

그런데 강릉방언을 놓고 보았을 때는 이 분류는 도무지 타당치 않다. 이 분류에 따르면 강릉방언은 중부방언에 속한다. 강릉방언이 서울말과 같은 방언에 속한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아도 지지를 받기 어렵다. '이랬나?' '저랬나?' 하던 친구가 서울 가서 좀 지내다 와서 '이랬니?' '저랬니?' 하면 얼마나 흉을 잡히고 저항을 받는가. 당장 춘천방언이나 원주방언과도 차이가 너무 크다. 강릉방언은 적어도 중부방언일 수는 없다.

우리나라 방언을 앞에서와는 달리 태백산맥을 분계선分界線으로 하여 동서東西로 양대분兩大分하자는 제안도 있다. 그러면 함경도, 경상도 및 강원도 영동嶺東 지방이 동부방언으로 묶이고, 그 나머지는 서부방언으로 묶이게 된다. 이 분류의 기준으로 제시된 것은 음장音長과 성조聲調다. 서부방언은 "저 눈 좀 봐!"의 '눈'을 길게 발음하면 하늘에서 오는 '눈雪'이 되고, 짧게 발음하면 우리 얼굴에 있는 '눈目'이 되듯, 장음長音과 단음短音의 구별이 있고, 동부방언은 그쪽에는 없는 고조高調와 저조低調의 구별이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한쪽은 음장언어音長言語요, 다른 한쪽은 성조언어聲調言語라는 것이다.

이 분류에 대한 논의는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않고 있으나,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뚜렷한 언어학적 기준이 있다는 것이 그렇고, 그것이 산맥이라는 지형적인 기준과도 부합하면서 선명하게 선線이 그어진다는 점이 그렇다. 국어사國語史 면에서, 중세국어는 흔히 성조언어로 알려져 있고, 그것이 후대에

표준어 쪽에서는 음장언어로 변화를 겪은 것으로 해석해 왔다. 그렇다면 동부방언은 중세국어의 흔적을 유지한 언어여서 그렇지 않은 서부방언과 결정적으로 중요한 차이를 지닌 방언인 셈이다.

이 분류의 타당성은 강릉방언을 놓고 보았을 때도 지원을 받는 점이 있다. 필자가 고등학교 때 서울로 전학을 갔을 때는 서울에서 사투리를 듣기 쉽지 않을 때여서 강릉방언이 신기하게 들렸을 법한데, 그때 자주 듣던 말이 고향이 경상도냐, 아니면 함경도냐 하는 것이었다. 대개 열 명 중 네댓 정도는 경상도 쪽이고, 두셋 정도가 함경도 쪽이었던 듯하다. 강릉방언이 이들 방언과 동일한 방언권으로 묶일 만한 공통점이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그들이 느꼈던 공통점은 무엇보다 성조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강릉방언은 성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선 뒤에서 좀 더 상세히 서술하겠지만, '새끼'를 앞에 고조를 넣어 발음하면(이를 앞으로 '˥새끼'처럼 음절 앞에 [˥]와 같은 악센트 기호를 넣어 표기한다) 강아지나 병아리와 같은 짐승의 '새끼雛'가 되고, 고조를 넣지 않은 '새끼'는 짚으로 꼬아서 만든 '새끼索'가 된다. "저 새끼 좀 봐!"라고 똑같은 문장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내용의 말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강릉방언은 지리적으로도 동부방언권에 있지만, 성조언어이기도 하여 동부방언의 일원이 될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강릉방언은 동부방언이다"라고 하고 말기에는 일이 그렇게 단순치 않다. 앞에서 보았듯이 동부방언에 들어갈 요건을 훌륭히 충족시키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서부

방언이 되게 하는 요건인 음장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본 '눈:雪'과 '눈目'의 구별을 강릉 사람들도 서울 사람들에게 하나도 뒤지지 않게 잘하는 것이다. '간다'도 '간'을 단음으로 발음하면 '학교에 간다'로 '온다'의 반대말이 되지만, '간:다'로 '간'을 장음으로 발음하면 '맷돌로 콩을 간다'의 뜻이 된다. 음장에 의해 의미분화를 일으키는 최소대립어最小對立語(minimal pair)가 표준어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

그 때문에 강릉방언에는 '말'이 '말:'처럼 길게 발음하면 입으로 말하는 '말言'이 되고, '/말'처럼 높게 발음하면 '소, 돼지, 말' 할 때의 '말馬'이 되고, 이런 음장 및 성조를 다 빼면 '되와 말'이라고 할 때의 '말斗'이 되는 따위의 예들이 많다. 한편 한 음절에 고조와 음장이 동시에 놓이는 예들도 많이 볼 수 있다. /솜:綿, /노:繩, /모:苗, /보:洑, /사:四, /개:미蟻, /끌:다引, /때:다燒, /배:다妊 등.

우리나라 어떤 방언도 성조와 음장을 이처럼 대등하게 함께 갖추고 있는 경우는 없다. 강릉방언은 이 점만으로도 우리나라의 어떤 방언보다 그 독자성이 두드러진 방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강릉방언을 쉽게 동부방언에 속한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결론적으로 강릉방언을 그 지리적인 조건까지 고려하여 동부방언으로 분류한다고 하면, 거기엔 단서가 붙어야 한다. 서부방언의 요소인 음장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동부방언의 하위분류에서 강릉방언은 따로 분리되어 나와야 할 것이다. 강릉방언은 우선 이처럼 언어지리학적인 면에서 매우 특이한 존재다.

그런데 앞에서 강릉방언은 한 시군市郡 넓이의 좁은 영토를 누리는, 그 방언권이 유난히 좁은 방언임을 말한 바 있다. 바로 인접한 삼척과 양양과도 획연히 구별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 조그만 고도孤島라고 할까, 방언권이 예외적으로 좁다는 것도 이 방언의 언어지리학적인 특성 중의 하나일 것이다.

문법 면에서의 특성

1) 조사 및 어미의 결합에서 보이는 특이성

조사나 어미는 표준어와 차이를 보이는 것이 많다. 가령 대격조사로 표준어의 '을/를' 대신 '으/르'를 취한다든가 주격조사 '가'를 대부분 '거'라 한다든가,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해라체 의문문 어미로 표준어 '-니' 대신 '나'를 취한다든가 등등. 그러나 여기서는 좀 더 특이한 현상 몇 가지만 보기로 한다.

(1) 모음 뒤에서의 주격조사 '이'

앞에서 '모:'가 모음으로 끝났으면서도 주격조사로 '가'가 아닌 '이'를 취하는 예를 본 바 있다. 강릉방언에서는 단어에 따라 이처럼 받침 뒤가 아닌 자리에 주격조사 '이'가 쓰이는 예들이 꽤 있다. 우선 예문부터 몇 개 보기로 한다.

(20) ㄱ. 내거 코이 좀 그그해서 ′그래요. 코이 ′메:서 그래요.
ㄴ. 그 터이 ′넓아. 한 칠백 평 ′돼:.

ㄷ. ′모이(모서리가) 너머 빼죽하잖나? 좀 똥그랗개 ′깎아!

ㄹ. ′여개는 바다이 멀어서 (바닷물을) ′이고는 못 와. ′지개더 ′지구 오든지 리야까더 실ㅎ:구 오지.

ㅁ. 우리 오:반애 ′동갑이 ′다섯이던 기, 다:′죽구 하나이 남었잔가. 하나이. 야:이그.

(21) ㄱ. 그기 그 집 가산이야. ′산소이 ′거:있잔가. 그 집 ′산소이.

ㄴ. 외가이 ′넢어야(높아야) 씨그운(쓴) 그 잘 먹는대. ′나는 씨그운 기 안 좋:더라구. 내거 ′외가이 ′낮어 그렇나 이러 생각해.

ㄷ. 지 ′차車이 있이니 드나들어요. 날마둥 드나들어요.

앞의 예문 (21)은 한자어들이고, 그 앞의 예문 (20)은 우리 고유어들이다. 이 고유어들은 중세국어에는 받침 'ㅎ'을 가졌던 단어들이다. 주격조사로 '이'를 취하는 것은 그 'ㅎ' 받침과 관련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즉, 표준어에서는 그 'ㅎ'이 사라지면서 주격조사도 '가'를 취하게 되었는데, 강릉방언은 비록 'ㅎ'은 사라졌으나 보수성이 높아 '바다히', '코히'라고 하던 버릇을, 어찌 보면 미련스럽도록 오래 지켜오고 있는 것이다. 예문 (21)의 한자어들도 말하자면 『훈민정음』 합자해의 "孔子ㅣ 魯ㅅ사ᄅᆞᆷ"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모음으로 끝난 명사가 대격조사와 방위격조사로 각각 '으'

와 ‘으루/우루’를 취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모음으로 끝난 만큼 ‘르’ 및 ‘루’를 취해야 하는데 마치 받침이 있는 양 ‘으’와 ‘으루/우루’를 취하는 것은 역시 ‘뒤’나 ‘나(나이)’가 중세국어 때 받침 ‘ㅎ’을 가졌던 단어들이기 때문인 것이다.

(22) ㄱ. 곧:수상하단 말이야. ′그래 그 뒤:으 따러갔지.
ㄴ. 그 새닥은 똑 그 뒤:우루만 댕기잔가. ′아주 숨어 댕긴다니. 얌:전하구말:구야.
ㄷ. 나:으루 보나 촌:수루 보나 으:런 대:접으 해:야지요.

이와 같은 고어古語의 흔적은 강릉방언의 성격 일단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뒤에서 어휘를 다룰 때에도 다시 논의되겠지만 강릉방언은 보수성이 그만큼 높은 방언인 것이다.

(2) 형용사에 결합하는 ‘-는’ ‘-는데’

표준어에서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일에 큰 기준으로 삼는 것이 어미 ‘-는’ ‘-는데’ 및 ‘-는다’다. 동사는 이들 어미를 취하는 데 반해 형용사는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강릉방언에서는 형용사도 이들 어미를 취한다. 적어도 이 점에서는 동사와 형용사가 구별되지 않는다.

(23) ㄱ. 이:쁘는데 왜 그래? 딴 집애서 ′은어 왔아. ′동지미 할라구. 이:빠.

ㄴ. ′단감이 ′아주 ′달더야. 큰댁 ′단감버덤 더 ′다는데 머.

ㄷ. 쌀ㅅ두 ′올 쌀으는 ′밥알이 찰ㅅ기거 있아. 베씨거(볍씨가) 좋:는 모예ㅇ(모양)이야.

ㄹ. 가서 잔치 ′하구, ′자잖:구 친저ㅇ어루(친정으로) ′오니, ′집이 머:는 사:람은 ′어러워요.

⑶ 과거시제의 관형사형 어미 '-언'

표준어에서는 '먹는 밥/먹은 밥'에서 보듯 과거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로는 '-은'을 쓴다. '드물다' '살다'처럼 받침이 'ㄹ'일 때는 '보기 드문 일/산 사람'처럼 '-ㄴ'을 쓴다. 그런데 강릉방언에서는 그 자리에 '-언'을 쓴다.

(24) ㄱ. 불이 나 ′가주구 머 하나나 끄냈소? 그저 이 ′입언 그만 있지 하낙두 읎:어요.

ㄴ. ′콩두 잘 ′여물언 기래야 좋:지, 들:′여물언 근 매ㅇ했아.

ㄷ. ′살언 근 ′살레 조:. ′죽언 그만 ′가주 와.

이 '-언'은 '-었는'이 준 말이다. 강릉방언에는 어미 쪽에서 이런 축약 현상이 일반화되어 있다.

(25) ㄱ. 책두 조:서(주어서) ′가주 왔는데 볼란?

ㄴ. ′먼 ′바지거 지럭지거(길이가) 그러 ′짧어서 쓰갠:?

ㄷ. ′바뻐 못:온다더니, 우떠 완:?

앞의 예문에서 문장 끝의 '볼란/쓰갠/완' 등은 '볼라나→볼란', '쓰갰나→쓰갠', '왔나→완'과 같은 과정을 거친 형태들이다. '쓰갰나'에서 '쓰갠'까지, 또 '왔나'에서 '완'까지의 변화는 단순히 축약이라고 하기에는 그 변화의 폭이 커서 따로 융합融合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어떻든 이 현상은 강릉방언의 한 특징을 이룰 만큼 일반화되어 있다.

예문 (24)의 '입언'이나 '살언'도 '입었는→입언', '살었는→살언'의 변화를 겪은 결과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국어사國語史에 기여할 귀중한 정보 하나를 얻게 된다. 표준어의 과거시제 관형사어미 '-은'은 그 기원을 '-었는'으로 추정한다. 실제로 경상도방언에서는 '먹었는'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그런데 그 '-었는'이 어떻게 '-은'이 될 수 있었을까에 대한 해명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거리가 너무 멀었던 것이다. 그런데 강릉방언의 '-언'은 그 중간에 비어 있던 공간을 채워 준다. 특히 그것이 '-었는→-언'의 결과라는 것은 국어사에서 오랫동안 풀지 못하였던 숙제를 강릉방언이 풀어 주는 것이다.

(4) 대과거시제의 선어말어미 '-었었-'

과거시제의 선어말어미先語末語尾 '-었-'이 겹으로 쓰여 대과거시제大過去時制를 나타내는 일은 표준어에도 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대개 문어적文語的 표현으로 여겨 왔다. 실제로 일상 대화에서 쓰는 일은 드물고, 대개는 글에서 쓴다. 그래서 강릉방언을 조사하면서 촌로村老들이 이 어미를 썼을 때 처음에는 좀 특별한 경우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데 아니었다. 보편적으로 널리 쓰였다. '-었었-' 대신 '-었댔-'을 쓰기도 한다.

(26) ㄱ. 크님(큰님, 천연두) 그기 사:벤에 많:었었어요. ′그래 ′가주구 마커 죽었잖소.
ㄴ. 저짝 바ㅇ아(방에), 끝엣 바ㅇ아 ′먼 ′홀애비거 둘:이 ′살었었아.
ㄷ. 진:만이 아버지두 마ㅇ:이 댕겠었지. 일하러. 그 비항장 ′이런 대.
ㄹ. ′바다에서 머 익사르 한다던지 ′이런 일:이 있었댔지요. 그 사:람덜이 ′술으 ′먹구 ′이래 ′노:니(놓으니) 고만.

2) 조어법에서 보이는 특이성

강릉방언은 조어법에서도 두드러진 특징들을 많이 보인다. 특히 피동형과 사동형을 만드는 파생접미사의 종류가 표준어보다 많을 뿐 아니라 그 쓰임이 활발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고, 복합어도 꽤 별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있다. 여기서는 그중 몇 가지만 추려 보기로 한다.

(1) 피동형과 사동형을 만드는 파생접미사

강릉방언은 표준어에 비해 피동형과 사동형을 만들어 쓰는 일에 더 적극적이다. 한 예로 '(누구의 그림이 어디에) 붙이키다'는 '붙다'를 사동형으로 만들고 그것을 다시 피동형으로 만든 것인데 표준어에서는 볼 수 없는 피동형이다. 이들을 만드는

접미사 종류도 '앉후다' '망후다' '상후다'의 '-후-' 등 별난 것이 많은데 여기서는 그중 '-키-'와 '-쿠-'에 의해 피동형과 사동형이 만들어지는 예를 중심으로 보기로 한다.

'-키-'는 피동형도 만들고 사동형도 만들며, '-쿠-'는 사동형을 만드는 접미사다. '-키-'에 의해 피동형도 되고 사동형이 될 때 그것이 성조로써, 때로는 음장까지 겹쳐 구별되는 일이 있어 주목을 끈다.

(27) ㄱ. ′댁내(댁네, 아내)한태 쥐케서(쥐이어서) 맘:대루 ′오기나 한다던?
ㄴ. 좀 바루 ′쥐케 조:라. 인재 제:워(겨우) 쥐:는 ′아:르 가지구.

(28) ㄱ. ′그때 서울 큰아들 집에 가니 ′그런 벤:손데, 시사 ㅇㅇ아, ′올러앉이니 ′똥두 안 뉘:키구 오짐두 안 뉘:키더라니.
ㄴ. 오짐 ′뉘키구 ′재와. 자더 ′이불에 오짐 싸.

'알다'의 사동형으로 '알쿠다'가 있는데 동시에 '알구다'도 쓰면서 이들이 의미를 달리해 쓰인다는 것도 흥미롭다. '알쿠다'는 지식 따위를 알려 주는 뜻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가르쳐 주다'에 가깝다. 거기에 반해 '알구다'는 소식 따위를 통지해 준다는 의미로 쓴다.

(29) ㄱ. 내거 운:재 손지 완 그 "′야, 나 고스톱두 못:하

니 벵:신 같터라. 이그 좀 알코 다:와!" ′이래니 "할머ㅇㅇ이 내 알코 주께." ′그래 ′배웠아.

ㄴ. 아무대두 ′알구지 말래. 요샌 잔차르(잔치를) 해: 두 그러 ′즈:찌리(자기들끼리) 한다는구만. 그래두 ′알굴 대는 ′알고야지.

'발쿠다'와 더불어 '올쿠다'가 쓰이는 것도 흥미롭다. '발쿠다'는 '바르게 만들다'의 뜻으로 표준어로는 '바루다'다. '올쿠다'는 이에 해당하는 표준어가 없는데, 이것은 잘못 가져온 것이나 뒤바뀐 것을 올바로 찾아오는 것을 가리킨다. '올쿠다'는 '옳구다'로 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30) ㄱ. 그 송:자ㅇㅇ아(송장을) ′끌어묻언 기, 우떠 구데ㅇㅇ이 ′집어눟더거 ′엎어 ′묻었거던. ′엎어 ′묻어 ′노: 니 이그 발쿨라니 지 ′혼저 발쿨 ′재주 있는가?

ㄴ. ′그때 마커 검덩 고무신으 ′신으니 좀 : 잘 바꾸키(바뀌)는가? 만:날 그그 가 올코 오느라구, 아이구.

⑵ 음절의 안정을 돕는 접미사 '-이'

국어의 접미사 중에는 새로운 의미를 보태기 위해서가 아니라 발음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있다. 사람의 이름 뒤에 붙이는 '영식이', '정순이'의 '-이'도 그 일종인데, '호랑이'의 '-이'도 '호랑虎狼'에 의미는 전혀 보태지 못하면서 다만 그 발음을 좀 편하게 해 주기 위해 붙는, 그럼으로써 그 음절을 안정시키는 접미사다.

이 접미사가 강릉방언에 좀 유달리 많이 쓰이는 경향이 있어, 표준어는 1음절인 단어가 2음절이 된 것들이 꽤 있다. 표준어의 '뱀' '빚' 등이 '뱀 : 이' '빚이' 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표준어 '형兄'은 '서ㅇ이' '허ㅇ이' '헤ㅇ이' '혀ㅇ이' 등 여러 형태로 쓰이는데 거기에도 접사 '-이'가 보인다. '수염'도 여기서는 1음절로 줄면서 '쇰 : 이'가 된다.

(31) ㄱ. ′뱀:이는 ′아주 ′뛰딜라문 싹 ′잡어야 된대. 대가리만 좀 ′냉게(남겨) ′노:문(놓으면) 산:다데. 땅내르 ′맡으문.

ㄴ. ′쇰:이가 하:영더라구. 이만치 좋:은 기, ′′쇰:이가 하 : 얘.

ㄷ. 에펜내르(여편네를, 아내를)) 그러 고사ㅇ아 ′씨기네. ′빚이르 저 ′가주구. ′빚이만 안 지문 들:한데.

ㄹ. ′서ㅇ이는 이왕 못 갔다 하더래두, 왜 동상두 안 가? 시바ㅇ아는 왜 장:개르 그러 안 가는가?

ㅁ. (벌초를) 얼른 해:야 펜하지. ′헤ㅇ이兄덜하구 연:락해 ′가주구 ′머 ′어느 날 하던지 해!

이외에도 '중僧'이 때로 "주ㅇ:이는 ′짐작했단 말이야 / 주ㅇ:이하:구 가 보따리르 ′뒤저 보니"처럼 '-이'를 덧붙여 쓰이기도 하고, '잙'도 "쪼끄만 봉다리래야지 ′잙이는 안되지"처럼 '잙이'로도 쓰인다.

표준어로 2음절인 단어에도 "눈깔이만 ′떨어지문"의 '눈깔

이'나, "내거 머 얼굴이르 봤:나, ′머 봤:나, 말:하는 ′소리 ′들어 보문, 하머 잘되구 못:된 그 알어요"의 '얼굴이' 또 "주토르 ′나:야 귀:신이 범:젭이르 못한대"의 '범:젭이犯接' 등 접미사 '-이'가 덧붙은 예들이 있다.

⑶ '새간'과 '끝말' 그리고 '지끔현에'

'초가집'의 '집'처럼 없어도 될 말을 덧붙이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초가'의 '가家'가 '집'을 뜻하는 말이라는 것을 몰라서일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의미가 확실히 전달되지 않을 것 같은 심리가 있어 안전책으로 '집'을 덧붙이는 것이다.

그런데 강릉방언에는 우리 고유어 뒤에 한자어漢字語를 덧붙이는 것들이 있다. 다음 예문에서 보듯 '새간-間', '끝말-末', '가근-近', '늘상-常', '지끔현-現' 등 '초가집'류와는 그 어순語順이 반대인 것들이 있는 것이다.

(32) ㄱ. 풀으 안 ′늫으문 그 새간으루 ′흙이 들어가 ′가주 불이 날래 꺼지게 된단 말이야.

ㄴ. 소곰으 새간새간 뿌리구, 꼭′ 싸서 복자ㅇ아더(복판에다) ′박어 놓구, 물만 뜨신물으 갈어 줌(주면) ′돼:요.

ㄷ. ′농사 많는 사:람이 (*모심는 순번을) 두:번 ′받을라멘은 첨:애 한 번 하:구, 그′담:애 끝말애 가야지 ′주지, 안 조:요.

ㄹ. 이 가:근으루는 ′탱주나무를 싱굴까 해.

ㅁ. 늘ㅅ상 와요. 와서 사:는 기 머.

(33) ㄱ. 지끔현:시장두 나올ㅎ 거구, 그 패덜이 다:(시장 후보로) 나올 사:람이래.
ㄴ. 지끔현:에두 집값이 읎:다 해:두 이:천만 원, 삼천만 원은 더 ′받는대.
ㄷ. 참전 용사르 잘해 조:야만 시방현:에 있는 군인덜으 갖다가 ′제대루 써 먹을ㅎ 수 있지.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는 쉽지 않다. 대개 '초가집'의 경우와 반대의 심리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다. '초가집'은 한자어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 고유어로 가라앉힌 것이라면, 이것은 한자어로 자기의 유식을 좀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다. 방언 화자들은 의외로 이른바 '문자'를 쓰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도 그와 같은 테두리의 현상이 아닐까 싶다.

(4) ′함때, 둡:때, 셉:때

강릉방언에는 표준어에 없는 '함때' '둡때' '셉때'라는 단어가 있다. 여기 '때'는 아래 예문에서 짐작되듯 표준어의 '끼'로 바꿀 수 있는 말이다. '하루 세 끼'라고 할 때의 '끼'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어원은 다르다.

(34) ㄱ. 소:설이 아침애 ′함때 ′먹자문, 그래두 ′꽤 마ㅇ:이 해:야 ′대:.

ㄴ. ′난 어엽게(무척 많이) 먹었다! 둡:때 먹을ㅎ 그 ′
함때 다:먹었다!
ㄷ. 하루 셉때르 똑:뜨신 밥으 해 디렌 기 머.

여기 '둡때' '셉때'의 'ㅂ'은 중세국어 'ㅃ'의 어두음語頭音 'ㅂ'의 잔재다. 표준어의 '접때/입때'에서도 여기 '둡때'의 'ㅂ'과 같은 성격의 'ㅂ'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함때'는 무엇인가? 여기서는 '한때'의 'ㄴ' 때문에 'ㅃ'의 어두음 'ㅂ'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던 것인데, 그럼에도 그 'ㅂ'이 'ㄴ'을 동화시켜 'ㅁ'으로 바꾸는 영향은 미쳤음을 볼 수 있다. 표준어의 '그맘때/이맘때' 등에도 같은 현상이 있다.

'함때/둡때/셉때'는 표준어에 없는 것들이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끌지만, 옛말 'ㅃ'가 '한/두/세'와 같은 수사 계통의 관형사와 결합하여 복합어를 이루는 수도 있다는 새 사실을 보여주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라 할 만하다.

어휘 면에서의 특성

1) 고어古語의 흔적을 보이는 어휘들

강릉방언의 보수성에 대해 앞에서 지적하여 왔지만 그 보수성은 특히 어휘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어휘에는 정말 고형古形들이 풍성하게 많다. 그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기 어려우므로 여기서는 아주 대표적인 것들을 현상별로 몇 가지만 보기로 한다.

(1) 평음을 유지하는 어휘들

우리나라 방언은 대개 표준어에 비해 된소리를 많이 쓴다. 강릉방언도 예외가 아니어서 '사위'를 '싸우'라 하고 '줄이다'를 '쭐구다'고 한다. 그런데 간혹 그 반대의 경우가 있다. 표준어에서는 된소리인 것을 평음平音으로 말하는 것들이 있다.

(35) ㄱ. 우리 둘:째 오라버니가 ′그랠ㅎ 저 ′단우端午에 가서, ′시름 해 ′가주구 쇠 타 왔어요.
ㄴ. ′시름하러 왔던 늠덜이 내가 ′시름자ㅇ아(씨름장에) 어르대:문, ′시름하러 안 ′들어오고, 구:경:만 ′하고 가는 늠덜이 있었다구.

(36) ㄱ.′모:르 싱구자문, 논으 스:래루 ′삶어 ′가주구 해:야지.
ㄴ. 스:래는 꼬제ㅇ이(꼬챙이) ′한 ′여섯 개나, ′다섯 개나 이렇게 ′박은 그 ′가주구, 쇠거(소가) 이러 ′끌:구 ′가멘은, ′흙으 ′깨:′주민서 논으 골고 주는 기란 말이야.

(37) ㄱ. 베씨(볍씨)르 인재 ′껀저 ′가주구, 또 ′삭으 좀 내:잖소. ′삭으 좀 내:′가주구, ′삭으 쪼끔씩 내:′가주구, ′모판에더 호루루루루 뿌레야지.
ㄴ. 귀:밀(귀리)은 막장 하는 대 젤:(제일) 좋:거던. 약간 ′삯으 내:′가주구 갈어더거 자ㅇ:아(醬을) 하문 그러 ′달어요.

(38) ㄱ. ′그래니 살이 지잖소. 살이 지더라구. 그러 ′머이 던지 잘 먹아.

ㄴ. 그래두 살만 젔던데 머. ′그래 "살만 젔네. ′머이 우째구 저째구 하더니" 내거 ′이래니, "내거 살이 ′벗:(부었)잖소" ′이래더라구.

'씨름'을 고령층에서는 철저히 '시름'이라 하는데, '시름'은 17세기 문헌에, 또 그 이전의 형태인 '실홈'은 15세기 문헌에 나오는 고형古形이다. 강릉방언의 '시름'은 그 옛 모습을 지켜 오는 것이다.

'스래'(또는 '스레')는 표준어로 '써레'인데 이 또한 16세기 문헌인 『훈몽자회訓蒙字會』의 '서흐레 把'로 이어진다. 표준어에서는 '써흐레'를 거쳐 '써레'가 되었는데 강릉방언에서는 고형을 알뜰히 보존해 오고 있는 것이다.

표준어 '싹'의 고어는 '삭' 및 '삯'이다. 그 고어를 강릉방언에서 두 가지를 다 그대로 쓴다. '삭'과 '삯'은 두 단어가 모두 15세기 문헌인 『원각경언해圓覺經諺解』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살이) 찌다'의 고형 '지다'도 15세기 문헌인 『월인석보月印釋譜』에 "술이 지다"가 나온다. 강릉방언의 '삭'과 '삯' 및 '지다' 등의 평음형 단어들은 그만큼 장구한 역사를 지닌 유물遺物들인 것이다.

이 외에도 "한 ′거풀 ′뻿게 내:구"에서처럼 '꺼플'을 '거풀로', "저 마:구에 가 쇠르 ′글러 가주구선"에서처럼 '끄르다'를 '그르다'로, "내거 가만˙이 손으 ′곱어 ′세:′보니"에서처럼 '꼽다'를 '곱다'로, "아무리 이′형제래:두 ′남어 페:르 ′지치구

사:는 기, 그 불안시룹거던"이나 "ㅣ야, 소:름 지친다야"에서처럼 '끼치다'를 '지치다(←기치다)'로 말하는 등 표준어의 된소리를 평음으로 말하는 사례가 많다.

이 평음의 어형들은 표준어에서조차 후대로 오면서 '평음→된소리'로 가는 방향을, 그 역사적인 흐름을 고집스레 거스르면서 고형을 지키고 있는 것이어서 특별히 주목을 끈다.

(2) 'ㅎ'을 유지하는 어휘들

'ㅎ'은 자음 중 가장 연약한 자음이다. 글자는 있으나 소리는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놓으니' '놓아라'에서 실제로 'ㅎ'이 발음되는 일을 듣기란 어렵다. 외국어에서도 h가 철자로는 남아 있어도 발음은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강릉방언에는, 표준어에서는 사라진 'ㅎ'을 지금껏 유지하고 있는 어휘들이 있다. '부:해', '뽀혛다', '뽀히하다', '뽀해지다' 등. '부:해'는 표준어 '부아'에, 그리고 '뽀혛다/뽀히하다' 등은 표준어 '뽀얗다/뽀얘지다' 등에 해당하는 것들로 표준어에 없는 'ㅎ'을 간직하고 있다. 『훈몽자회』의 '부화肺', 『마경언해馬經諺解』의 '보히며'의 'ㅎ'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39) ㄱ. ㅣ그날은 내거 ㅣ먹지두 않:구, 말:두 안했아. 부:해거 ㅣ하두 ㅣ올러와서.
ㄴ. 그그 ㅣ딲잖어 그렇잖소. ㅣ딲으문 뽀:혛는데. 잿갉(잿가루) ㅣ가주 ㅣ딲어야 하는데.
ㄷ. ㅣ꽂감, 그 ㅣ분ㄴ이 잘 ㅣ페:ㅣ노문, 뽀히:한 기, 그그

살살 ′ 핥어 먹음 ′ 진짜 맛있어.

ㄹ. ′ 멀 먹언지, 얼굴이 ′ 아주 ′ 뽀:해젔더라구.

강릉방언에서는 '고얀 놈'도 '고:햔 늠'이라 하는데, '고햔'이 옛 문헌에서 찾아지지 않으나 이 또한 옛말에 있던 'ㅎ'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강릉방언에서는 특이하게도 '좋은' '좋와'와 같은 자리에서 'ㅎ'이 분명하게 들리도록 발음하는 일이 있다. 고령층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것이야말로 옛말의 자취일 것이다.

(40) ㄱ. ′ 가:(개) 나이 인재 ′ 마흔 멑이나? ′ 인물은 좋:은[조:흔] 기, ′ 머이 어대 마땅한 대 읎:어 ′ 가주구.

ㄴ. ′ 뒹:박(뒤웅박)은 머 ′ 씨값두 ′ 늫고 ′ 이래문 좋:워[조:훠]요. ′ 씨값 여:러가지 요러 봉토더 ′ 너:(넣어)서 거더 ′ 너:′ 노:(놓으)문 좋:와[조:화].

ㄷ. 배두 ′ 불렀지, 그긋두 찾었지, "아이, 좋:어[조:허]라!" ′ 하구 밤새 ′ 집으루 왔단 말이야.

이들 외에 표준어의 '파양罷養'을 '파향'으로 말하는가 하면, 지명 '부연釜淵'을 '부현'으로 말하기도 한다. 이들 'ㅎ'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강릉방언이 역사적으로 'ㅎ'의 뿌리를 지키고 있는 일과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41) ㄱ. 그 쥔:(주인) ′ 늙은이가 양:재르 온 ′ 아:르 파:햐ㅇ아 한다는 기야. 그 ′ 기특한 ′ 아:르.

ㄴ. 부:현이라는 대, 부:현동이라는 대 ′그런 대 ′가문은, 그 나무거 큰 기 많다구. 엄나무가.

⑶ ‘낡’과 ‘잙’ 및 ‘싥’

강릉방언에는 ‘나무’ ‘자루’ ‘시루’를 나타내는 단어로 ‘낡’, ‘잙,’ ‘싥’을 쓴다. ‘자루’는 ‘쌀자루’라고 할 때의 ‘자루’일 수도 있고, ‘도끼 자루’라고 할 때의 ‘자루’일 수도 있는데, 어느 경우나 ‘잙’을 쓴다.

(42) ㄱ. 그 됀:(뒤꼍)애 두:′낡이재? 한 ′낡은 베 내:! ′거:머 ′응달만 ′지구, ′머하나?
ㄴ. 그 집은 야:주 감낡이 ′둘러싸 ′가주구, ′집이 베:키지두 안해.

(43) ㄱ. 감재르 깨 마ㅇ:이 ′잙에더 ′너:서 붙들어′매:가주 왔더라구.
ㄴ. ′잙으 벌리구선 ′대:구 ′담으라는 기야. 우떠해. 서울 ′보낼라구 ′돘:든(두었던) 그, 다:뺐겠다니.

(44) ㄱ. 도꾸 잙은 물푸레낡이 젤:이야.
ㄴ. ′잙이 ′뿌러질라 하잖나? 새루 해 맞초야지 안되갰다야.

(45) ㄱ. ′전에 우리 할머ㅇ이는 꼭:질금콩 ′가주구 온:게울(겨울) ′싥에더 ′나:가주 뽑어 ′먹었아.

ㄴ. ′가매(가마)더 하는 기 더 쉬:웠지. 더 마ㅇ:이 하
니. ′싥에더 하문, ′큰 ′대싥이지만 그만 못:해.

이들은 모두 중세국어의 자취들이다. '낡'의 고형은 '낢'이다.『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제2장에 나오는 "불휘 기픈 남ᄀᆞᆫ ᄇᆞᄅᆞ매 아니 뮐씨"의 그 '낢'이다. '낡'은 그 '낢'의 받침 'ㅁ'이 뒤의 'ㄱ'에 동화되어 'ㅇ'이 된 것이다.

중세국어에는 '낢/나모'가 뒤에 어떤 조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쌍형으로 쓰였는데, '잙/자ᄅᆞ', '싥/시르'도 마찬가지였다. 중세국어에서 유난히 특수한 규칙이었고 그만큼 특별한 주목을 받아 온 현상인데, 그 전통이 어떻게 강릉방언에 이처럼 고스란히 남아 있는지 신기한 느낌마저 일으킨다.

(4) '같다'와 '갇하다'

강릉방언의 '같다'는 표준어와 언뜻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잠깐만 깊이 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아니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강릉방언을 꽤 열심히 다루는 이들도 이를 전혀 눈치 채지 못한다.

그래서 강릉방언을 적으면서 무심히 '같고' '같다' '같지요'라고 적는다. 표준어와 똑같이 적는 것이다. 그러면 이들을 표준어에서처럼 [갇꼬] [갇때 [갇찌요]로 발음하여야 한다. 강릉방언은 그렇게 발음하지 않는다. [갇코] [갇타] [갇치요]로 발음한다. 가벼운, 얼핏 보아서는 무시해도 좋을 차이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또 표준어에서는 '같아요'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릉방언에서 '같애요' '같앴다'라 하는 것도

함께 묶이는 현상인데 이것들은 결코 가벼운 차이가 아니다. 먼저 예문부터 보자.

(46) ㄱ. "아무리 바:두 둘:이 똑 같탄 말이야." "같커나 말: 거나 ′형젠데 머."
ㄴ. 머 벨일이 있을 기 있소? 만:날 ′똑 같치요 머.
ㄷ. 그늠은 아:무래도 못:올 같터라구.

(47) ㄱ. ′머이 더 커? 다:같애. 같애두 ′아주 똑같애.
ㄴ. 사:는 곶이야 같앴지만, 머 그러 ′만낼 재주거 있는가?

'같다'의 중세국어 형태는 'ᄀᆞᆮᄒᆞ다'다. 'ᄀᆞᆮᄒᆞ니' 'ᄀᆞᆮᄒᆞ야' 'ᄀᆞᆮ홈도'와 같은 용례를 『용비어천가』나 『석보상절釋譜詳節』 등 아주 초기 문헌에서부터 수없이 볼 수 있다. 이것들은 같은 문헌에서 'ᄀᆞᄐᆞ니' 'ᄀᆞᄐᆞ야'로도 표기되었으나 그것은 표기법의 문제요, 'ᄀᆞᆮᄒᆞ다'는 기원적으로 부사 'ᄀᆞᆮ'에 동사 'ᄒᆞ다'가 결합한 단어다. '못하다'의 당시 형태인 'ᄆᆞᆫᄒᆞ다'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복합어인 것이다.

필자는 강릉방언의 '같다', 아니 '같타'는 'ᄀᆞᆮᄒᆞ다'의 흔적을 담은 형태로 분석한다. '같타/같쿠나/같치요'의 'ㅌ/ㅋ/ㅊ'에 들어 있는 유기음有氣音, 즉 'ㅎ'은 'ᄀᆞᆮᄒᆞ-'의 'ㅎ'과 연결시키지 않고는 해석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또 우리말에서 과거시제의 선어말어미 '-았/었-'이 '-앴-'이 되고, '-아서/어서' '-아도/-어도' 등이 '-애서/-애도'로 되는 것은

모두 '하다'와 연관된 것으로, '하다'만이 '해서/해도/했다'로 된다. 강릉방언의 '같애서/같애두/같앴다'의 '애' '앴'은 바로 'ᄀᆞᆮᄒᆞ다'의 'ᄒᆞ다' 곧 '하다'와 연결되어야만 풀린다. 조그만 단어 하나에, '같타' 하나에 강릉방언의 깊고 깊은 세계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⑸ 쥐 몃낸 흙

15세기 말 문헌인 『구급간이방救急簡易方』에 '쥐 몃낸 흙鼠坌土'이 나오는데 19세기 문헌인 『물명고物名攷』에 오면 '쥐 면ᄂᆡᆫ 흙鼠壤'으로 '몃'이 '면'이 된다. 오늘날 국어사전에도 '면내다'로 올라가 있고, 용례도 '쥐'항에 있는 '쥐 면내듯'뿐이다. '몃내다'의 '몃'이 따로 명사로 쓰인 용례가 없어 '몃'으로 받침 'ㅅ'을 살려 쓴 근거를 찾기 어려운 것이 늘 '내다'와만 어울리니 받침 'ㅅ'이 'ㄴ'으로 바뀌고 만 것이다.

그런데 강릉방언에 '메스낸다'가 있다. 있을 뿐만 아니라 노령층에게 물으면 누구나 친히 알고 있다. 역시 쥐와 어울리는 점은 같으나 'ㅅ'이 뚜렷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이 가히 극적劇的이라 할 만하다.

(48) ㄱ. 머이 비두 새구, 쥐거 사:방 ′메스내:가주고, 연기 거 구영마둥(구멍마다) 나오고, 사:는 기 말:이 아니래요.

ㄴ. 고간으 ′밑애르 파 가주구 ′흙으 이렇게 ′쌓:아 ′났:어요. 쥐거 ′메스내:못:′배게요. 쥐거 잭패(作悖/作弊)거 말:두 못 : 해요.

'메스'를 '메시'라 하는 수도 있다. 어느 것이든 이들의 'ㅅ'은 15세기의 '몃낸'에 받침 'ㅅ'을 쓴 것이 어떤 근거가 있었음을 일깨워 준다. 짐작컨대 자리에 따라서는 받침 'ㅅ'이 제대로 발음되는 용례가 있었을 법하고, 그 때문에 'ㅅ'을 받침에 살려 적었을 것이다. 이것은 중세국어 문헌에서 '맞나다'에 받침 'ㅈ'을 살려 적은 일을 상기想起시킨다. '맞나다'는 '맞아서 나아가다'라는 뜻으로 '맞다迎'와 '나다進'가 묶여 복합어가 된 단어다. 그것이 나중 '만나다'의 뜻으로 바뀌면서 어원 의식이 약해져 '맞-'의 받침 'ㅈ'이 뒤의 '나다' 때문에 'ㄴ'으로 바뀐 것이다. '몃내다'도 애초에는 받침 'ㅅ'이 명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내다'와 어울리는 자리에서만 쓰이게 되면서 받침 'ㅅ'이 그 설자리를 잃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강릉방언에서도 '메스'가 따로 쓰이는 일은 없다. 그 '메스'가 따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들 있다. 그러니 강릉방언으로 '몃내다'의 '몃'이 따로 어떤 의미였으리라는 것을 추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강릉방언의 '메스내다'는 중세국어의 '몃'의 받침 'ㅅ'이 근거가 있는 'ㅅ'임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중세국어의 '몃'이 거성去聲인데 여기 '/ 메스'가 고조인 점도 흥미롭다.

2) 표준어에서는 죽어 가나 강릉방언에서는 살아 움직이는 어휘들

외국 사전들에 비해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는 용례가 적다고 하여 근래에 나오는 사전들은 예문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이른바 말뭉치라는 것을 구축하여 각처에서 뽑은 예문

들을 풍부히 싣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표제어와 풀이만 있을 뿐 단 하나의 예문도 싣지 못한 것들도 많다. 조사가 부족하여 미처 예문을 찾지 못한 것일 수도 있으나, 어쩌면 그것들은 현실적으로 잘 쓰지 않는 단어일 수도 있다. 기왕의 사전에 올랐던 덕에 명맥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미 사어死語가 되어 가는, 아니면 이미 사어가 된 단어일 수도 있다.

그런 단어들 중 강릉방언에서는 활발히 쓰이는 것들이 있다. 이것은 죽어가는 단어들의 불씨를 강릉방언에서 잘 보관하고 있다는 뜻이 될 수 있다. 방언이 국어에 활력을 주는 경우라고 하겠는데, 그 몇 예를 보기로 한다.

(1) 사우

국어사전에 '사우祠宇'는 "사우=사당"으로만 되어 있고 예문은 없다. 이제 형체만 남고, 생명력은 없는 말이라는 인상을 준다. 실제로 우리가 '사당祠堂'이란 말은 자주 들어도 '사우'란 말을 듣기는 어렵다. 그런데 강릉방언에서는 여기저기서 '사우'를 쓴다.

(49) ㄱ. 그그(ㅣ 싫을) 씨구는 보:관하느라구 그 사우 안에 지끔 ㅣ두구 있어요. 옛날버텀 그 사우 안에 있더라구.

ㄴ. 내거 시집오니, ㅣ그땐 사우거 있었어요. 내:종 새루 ㅣ집으 ㅣ질:ㅎ 전 사우는 안 ㅣ젰:(지었)어요.

ㄷ. 곽 교:리校理 선생이라구 ㅣ사기막 ㅣ곽씬데, ㅣ여:와

서 사우르 짓:고 모:셌지, ′향교에 안 모시고.

강릉방언에서도 ‘사우’는 노령층에서만 쓰긴 하나 적어도 아직까지는 이 단어가 확고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실제로 사우를 따로 지어 모시는 집도 많이 있다.

(2) 향약계

‘향약계鄕約契’는 국어사전에 “조선시대에, 지방에서 양반과 유림儒林이 중심이 되어 교화적인 사교를 목적으로 만든 선비들의 모임”이라 하여 조선시대의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강릉에서는 지금 생존해 있는 사람도 그 계원이었을 정도로 꽤 후대에까지 이어져 왔다.

(50) ㄱ. 그기 ′햐ㅇ약게야. 자석덜이래두 ′잘뭇하문 내′쫓치구 이래는 ′햐ㅇ약게거던. 아버지 ′상서나구, 내거 열ㅅ다섯 살인데 ′그때′버텀 내거 댕겠아. 그기 우리 사천면 면ㅅ:게面契야. ′여:사천서 암만 잘하구 있더래:두 이새 ′가문 ′떨어진단 말이야. 면ㅅ게기 때민에. ′그때에 ′햐ㅇ약게거 ′워대 있언고 ′하니, 저:성산멘 우추리에 ′햐ㅇ약게가 ′있구, 우리 사천멘에 있었다구.

ㄴ. ′햐ㅇ약게는 우리 우추리 게:거 아니고 성산면 면:게야. 우리 집으는 ′증조할으버니부텀 ′시작해 ′네레오는데, ′햐ㅇ약게 댕기는데, ′여:이 사:람두 ′햐ㅇ약게원이고 같이 댕겠구만 말이야, 우

리 대代 와서 고만애 ′시대거 ′이래니까 ′싹 없:
어지고 ′말었지요 머 아:이.

이들의 증언에 의하면 향약계 계원이 작고하면 다음 대가 그것을 이어받고 그럴 때마다 또 술이며 음식을 차려 새 계원이 되는 절차를 밟았다고 한다. 그리고 앞의 예문에서도 보이듯이 그것은 한 면面에 하나 정도로 있는 제법 규모가 큰 조직이었음도 이들의 증언에서 알 수 있다. 왜정倭政 시대에 이것도 무슨 불순 조직이라 트집 잡아 해체시키려 했다는데 그래서 '강의계講義契'라는 이름으로 고쳐 명맥을 유지했다는 증언도 해 주었다. 국어사전의 피상적인 서술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방언에서 다채로운 모습으로 숨 쉬고 있는 것이다.

⑶ 죽살다

국어사전의 '죽살다'는 옛말로 올라 있다. 그런데 옛말의 '죽살다'는 고어사전이나 국어사전에서 으레 "죽고 살다"로 풀이하고 있다. 즉 '죽다'와 '살다'를 대등하게 병치竝置되는 상태로 풀이하여 놓았다. 그러나 그 유일한 용례인 『두시언해杜詩諺解』의 "그듸 이제 죽살 싸해 가ᄂᆞ니"의 '죽살'은 그렇게 태평스러운 분위기가 아니다. '죽을지 살지 모르는' 긴장되고 불안한 상황인 것이다. '죽살 싸해'의 원문 '死生地'의 뜻도 그러려니와 그 뒤에 이어지는 "기픈 셜우미 中腸애 迫切ᄒᆞ얘라"도 그것을 뒷받침한다.

그 '죽살다'가 강릉방언에 살아 있다. 형태만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도 죽을 지경으로 억지로 산다는, 그 본래

의 의미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강릉방언의 '죽살다'는 표준어에서 옛말, 곧 사어死語로 처리되어 있는 '죽살다'에 새 생명을 넣어줄 뿐만 아니라 고어사전의 잘못된 풀이를 바로잡아 주기까지 한다.

(51) 키거 작:은 근 ′죽사잖:구, 키거 좀 큰 늠은, ′그땐 ′모:거 좀 ′늦이문 키거 ′이랬다구. ′그래니 그기 ′죽산다구. 물이 많:으문, 물으 그뜩하게 ′대:′노:문 좀 들:한데, 물이 좀 즉:게 해 ′노:문, 물 ′우에 이러 나오니, 바람 부:니, 이늠엇기 ′이래 가주구, 이기 마커(모두) ′죽다시피 하더거 뿌레기서 ′요래 ′가주 새루 ′올러온다구.

(4) 이개, 그개, 저개, 딴개, 다른개

표준어에 '아무개'가 있다. 그런데 표준어에서는 이때의 '개'가 '아무개' 외에는 쓰이는 데가 없다. 그 때문에 '개'는 따로 형태소形態素로 분석되는 일이 없고 국어사전에 표제어로 오르지도 못하고 있다. 그 '개'가 강릉방언에서는 꽤 활발히 쓰인다.

(52) ㄱ. 그개는 ′오늘 못:와. 우떠 오는가? ′낼:시아버지 지:사祭祀라는 기.

ㄴ. 이개 좀 보개. ′먼 토ㅇ이 그러 큰가. 쪼금만 ′조:(줘).

ㄷ. 이개 저개 다 ′주구, ′니는 머 먹을라구 그래나?

ㄹ. 그늠은 아문개르 바:두 그러 절으 잘 하잖소.

ㅁ. (서류 작성을) ′똑 본인이 써야 한대. 딴개거 씨문 안된다 하더라구.

ㅂ. 다른개덜은 다:겐찮다는 기, 이 양:반만 체해 ′가지구 그러 고상하잖소.

이상의 예문에서 보면 '개'는 '그분' '그이' 등의 '분'이나 '이'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의존명사依存名詞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어법으로 보면 '분'보다도 낮고 '이'보다도 낮은 등급으로 대개 반말체를 쓸 정도의 사람을 가리킨다.

'개'는 강릉방언에서도 '분'이나 '이'만큼 활발히 쓰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의 예문만으로도 이것이 의존명사로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제 표준어 '아무개'의 '개'도 강릉방언의 힘을 빌리면 한 단어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표준어에 없는 강릉방언 고유의 어휘들

방언조사를 할 때는 대개 표준어로 조사 항목을 만들고 그것에 대응하는 방언형을 찾아 짝을 지우는 방식으로 한다. 그렇게 하여 짝을 찾으면 그 의미가 꼭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령 강릉방언의 '가산家山'은 비록 형태는 같아도 표준어의 어떤 단어와도 정확히 1대 1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더 딱한 것은 그 방식으로는 표준어에는 아예 그 개념조차 없는 것이 방언에서 독립된 단어로 있는 것을 찾아

내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방언조사에서 기쁨을 주는 것은 실은 이런 단어들인데 이것들을 대개는 놓친다. 강릉방언에서 그런 단어들 중 몇 개만 골라 본다.

(1) 뿟다/뿡다

강릉방언으로 소나무의 낙엽, 곧 '솔가리'를 '소갈비'라 한다. '소갈비'는 과거에 가장 중요한 땔감이었다. 농사철이 끝나면 산에 가 갈퀴로 '소갈비'를 몇 짐씩 '끌어' 대개 '정지밖'에 높이 가리를 만들어 한겨울을 대비한다.

그 소갈비를 끌기 위한 예비 작업으로 소나무 밑에 자란 싸리나무나 진달래 등 잡목을 제거하는 작업을 한다. 갈퀴질을 쉽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소갈비'에 잡목의 낙엽들이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그 잡목 제거 작업을 '뿟는다'고 한다. '뿡는다'고도 하는데, 이들이 '-어서'와 같은 어미를 만나 '뻐서'로 활용하면 어느쪽이 어간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 어떻든 이 구석진 일에 그것만을 위한 특별한 단어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우리의 주목을 끈다.

(53) ㄱ. 소갈비 끌:자문 그그 알뜰이 뿟:구서 해:야지 걸레서 안 되지. 낫으루 마커 ′뻐:′나:야지, ′그래구 ′끌:어야지, ′그양 하문 가리개처서 못:해.

ㄴ. 저:멀:리 ′가문은 뿡:잖어요. 큰:대 가문 ′거:는 ′아주 차솔가비야. 가차운 대 할라문, 낫으루 ′딜이(들입다) ′뻐:가주, 그′담:엔 깍제ㅇ이루(갈퀴로)

⑵ 팔레

강릉 풍속의 한 핵심에 '질'이라는 것이 있다. 특히 모를 심을 때 구성되는 팀을 이른다. 표준어로 '두레'라 할 수 있는데, 표준어 '두레'엔 여기 '질'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들이 없다. 여기서는 그 '질'을 언제 짜며, 가령 스무 집이 한 팀이라면 모를 심는 순번을 어떻게 정하며, 그때 첫 번째 순번을 '이ㅇ애걸이'라 하고, 끝번을 '망철'이라 한다든가, 그 순번을 벗어나 심는 일을 따로 뭐라고 한다는 등 매우 구체적이고 또 세세하다.

김매기까지 마치고 온 동네가 모여 점심을 먹는 행사도 '질'을 먹는다고 한다. 그 이튿날은 대개 '해목'이라 하여 바닷가에서 하루 해수욕을 하니 이틀 행사인데 여기에도 술은 어느 집에서 한다든가, 그날 특히 머슴들을 어떻게 특별하게 대접한다든가 등 역시 매우 구체적이다.

팔레는 대개 이 '질'과 관련되는 행사다. '질꾼'의 일원으로 함께 다니기는 하나 나이가 어려 일이 서투면 온전한 품값을 받지 못한다. 그러다가 이제 이만하면 대등한 한 몫을 한다고 인정될 때쯤엔 술이랑 음식을 장만하여 한턱을 낸다. 이것을 '팔레'라 한다. 말하자면 성인식成人式인 셈이다. '관례冠禮'와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하나 그 어원은 잘 잡히지 않는데 중요한 풍습을 전해 주는 것이어서 귀히 여겨지는 어휘다.

(54) ㄱ. 인재 나:거(나이가) 좀 차문, 우리 ′아:두 큰 일꾼으로 처 달라구, 떡하구 술하구 해:서는 ′멕에. 팔레 한다구. 팔레르 안 하문 일으 남버덤 잘 해두 제값으 안 처 조:.

ㄴ. 열다섯 살애 우리 아버지 ′돌어가시고, 이:월ㅅ달애 아버지 ′상서나고 ′삼월ㅅ달애 내가 팔레르 했:아. ′농샛거리두 읎:는데 품앗이 해:야 되니 팔레르 했:구.

ㄷ. "′그래 상:일꾼은 ′물레두 팔레꾼은 못:′물린다구 그래잔가." "팔레꾼은 ′물릴ㅎ 수 읎:지. ′은어먹구 ′이랬이니."

(3) 꽅얼금

강릉방언에서는 표준어의 명사 말음 'ㅊ'을 'ㅌ'으로 대응하는 규칙이 있다. '꽃/숮/낮/빛/윷' 등을 '꽅/숱/낱/삩/윹' 등으로 말한다. 따라서 '꽅얼금'은 '꽃얼금'인 셈이다. '꽅얼금'은 이른 봄에 피는 꽃이 추위로 입는 동해凍害를 뜻한다. 표준어에 '꽃샘추위'와 같은 고운 말이 있는데, '꽃얼금'은 없다. '꽃샘추위'만큼 참으로 잘 만든 예쁜 말이 아닐까 싶다.

(55) ㄱ. 매화거 ′올핸 ′틀레 먹었아. 꽅얼금으 해:서 마커 ′쏟어지구, 남처지(나머지)두 치신이 우:수와.

ㄴ. 꽅얼금 해 ′가주 복사ㅇ(복숭아)이구, 머 사괘(사과)구, 그기 마커 손:해거 나요.

(4) 해뜻

'해뜻'은 주로 해가 짧아지는 일을 두고 '해뜻'이 없어서 그렇다는 식으로 말한다. '해뜻'으로 말하기도 한다. '해의 의지' '해의 마음'에 따라 해가 길어지고 짧아진다는 발상도 재미있고, '해뜻'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쓰는 언어 감각 또한 신선한 느낌을 준다. 정말 이런 데에까지 새 단어를 만들어 쓴다는 것에 탄복을 하지 않을 수 없다.

(56) ㄱ. "ㅣ다섯 시문 해거 ㅣ넘어가, 요샌. ㅣ다섯 심(시면) ㅣ어두와." "요샌 해뜻이 읎:어 ㅣ죽갰아. ㅣ콩두 베:야 하는데."

ㄴ. 해뜻이 읎어 일ㅅ:두 못:해. 요샌 ㅣ돌아서문 해저, ㅣ들아서문 해 진다니.

ㄷ. "요샌 ㅣ낮:애는 해뜻이 읎:어 아무긋두 못:해." "ㅣ질어진 기 그래. ㅣ동지르 쇠문 할루 ㅣ입쌀 반:잔 데ㅇ이(잔등)만:치 ㅣ질어진다더구만.

(5) 몹쌀/몹쌀단지

'몹쌀'은 모내기를 할 때 쓰려고 보관해 둔 쌀이다. 모내기는 농사 중 가장 중요한 일이어서 그 쌀이 귀하던 때에도 이때만은 꼭 흰 이밥으로 일꾼들의 점심을 차린다. 이때의 밥은 표준어로도 '못밥'이라 따로 부르나, 그 자료인 쌀에 대한 별도의 이름은 표준어에는 없다. 그것이 '몹쌀'이다. 여기서는 '못밥'도 '몹쌀'에 이끌려서 '몹밥'이라 한다. '몹쌀'을 소중히 생각하여 그것만을 따로 단지에다 보관하는데 거기에도 따로

'몹쌀단지'라는 단어가 있다.

'몹'의 'ㅂ'은 '햅쌀'의 'ㅂ'과 마찬가지로 '쌀'의 고형古形 'ᄡᆞᆯ'의 어두음 'ㅂ'일 것이다. '햅쌀', '입쌀', '좁쌀' 등 'ᄡᆞᆯ'의 'ㅂ'을 흔적으로 간직한 단어들에 이 '몹쌀'은 우선 그 목록 하나를 추가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것을 소중히 여겨 따로 단어를 마련한 그 조어造語 감각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57) ㄱ. ′몹쌀 따루 도:(두어)요. 따루 모:서 ′나:야 ′대:요. ′몹쌀, 그근 여느 때는 세:상 읎:어두 안 먹어요. 모싱굴ㅎ 적이래:야 ′헐지.

ㄴ. ′바ㅇ아(방아를) ′찌:문 쌀으 먼저 ′성줏단지 ′늫구, 요왕龍王ㅅ단지 ′늫구, ′몹쌀ㅅ단지 늫구. ′그래 마커 도장(뒷방 위쪽의 작은 방)에 돘:(두었)어요.

(6) 지두룸

'기다리다'를 강릉방언으로 '지두리다'라고 한다. "지두리는데 생전 안 오잖나" "저 나가서 어머ㅇ이 오나 지둘러라" 식으로. 그 '지두리다'에서 파생된 명사가 '지두룸'이다. 마치 '기다리다'에서 '기다림'이 파생되는 것과 같은 식인데 표준어 '기다림'의 뜻과 '지두룸'의 뜻은 아주 다르다. '기다림'은 마음이요 행위인데 '지두룸'은 구체적인 물건이다.

(58) ㄱ. 모 싱굴 때 ′가매서 소꼴기(누룽지) ′긁으문, 젤:복장ㅅ 그는 오빠 지두룸이라구 손두 못:′대:게 했아.

ㄴ. ′방학만 ′되문 학산 ′외가 갔아. ′외가만 ′가문 먹을ㅎ 기 많:었거던. ′그런데, 아:이, 빼죽꽤(자두의 일종)만 따먹을라문 ′외할머니거 못:따 먹게 했:아. 서울 ′형 지두룸이라구. 고기 젤:맛있었거던. 그래 서울 가 공부하는 ′형 오문 준다구, 고근 꼭 지두룸으루 두더라구.

ㄷ. 아:이, ′싸우 지두룸이라구 우리 어머ㅇ이거, 만날 ′보름 약밥으 해 ′놓고 ′싸우르 지두리니, 우리 형부지 머, 우떠 그러 안 오나?

예문에서 보듯이 '지두룸'은 과일일 수도 있고 음식일 수도 있다. 대개는 외지外地에 나가 있는 가족을 위해 남겨 놓는 것들이다. 그야말로 누가 와서 먹기를 '기다리는' 그 무엇이다. 그 '기다리다'라는 단어를 명사로 바꾸어 새 단어를 탄생시킨 것이다. 그 조어법도 절묘하고, 거기에 담긴 마음도 아름답다. 무엇보다 그런 풍속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한다.

결론

방언이라면, 특히 사투리라면 어딘가 한 구석 온전치 못한 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표준어는 반듯하고 모든 게 잘 갖추어져 있음에 반해 방언은 체계가 없고 결함이 많은 말인 것처럼 경시輕視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막상 어느 한 방언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은 또 아주 다른 세계다. 그 세계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표준어

는 화단에 곱게 가꾸어진 화초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방언은 거기에 비해 드넓은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자라는 야생화들이다. 자유로움이 있고 다채롭기 그지없다. 물론 거기대로의 엄격한, 오히려 인위적이 아닌 대자연에서나 보는 질서가 있다.

강릉방언은 우리로 하여금 언어를 보는 우리의 시각視角을 바꾸게 해 준다. 무엇보다 그동안 우리말에 대해 바라보던 시야視野를 넓혀 준다. 국어사전에서 그 처리가 미흡하였던 점을 일깨워 주고,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숙제를 풀게 해 주기도 한다. 그리고 이제 죽어가는 단어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아직 싱싱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음도 알게 해 준다.

그런데 그 소중한 것들도 빠른 속도로 사러져 가고 있다. 그것은 언어도 세상 온갖 것과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을 수 없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농촌이 붕괴되어 가는 일이 무엇보다 큰 요인이다. 농촌에서는 이제 젊은이를 보기 어렵다. 무리를 지어 학교에 가는 아이들을 볼 수도 없고 시냇물에서 고기를 잡고 노는 아이들도 볼 수 없다. 할아버지 할머니에서 손자들까지 같은 지붕 밑에서 사는 풍경은 어디에 가도 볼 수 없다. 지게도 볼 수 없고, 논밭을 가는 소도 볼 수 없다. 논머리에서 무슨 축제인 듯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못밥을 먹는 풍경은 이제 상상도 잘 되지 않는 세계가 되었다. 말도 자연히 변할 수밖에 없고, 소중한 언어 자산資産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문화유산文化遺産이라 하지만, 유형有形이든 무형無形이든

언어만큼 소중한 문화유산도 없다. 언어에 모든 게 수용된다. 언어가 풍속, 믿음, 그리고 역사를 다 간직하고 있다. 강릉방언에서 '큰떡'은 혼례 후 신부 집에서 시댁으로 큰 함지에 담아 보내는 떡이다. 거기에 엄격한 법도가 있어 밑에서부터 절떡, 인절미, '우겡이'를 차례로 담을 뿐 아니라 그 비율도 지켜야 한다. '큰떡'은 국어사전에 올라 있지 않다. 오른다 해도 이런 자세한 내용은 대개 없다. '큰떡'이라는 단어에 강릉 문화가 녹아 있다. '몹쌀'이며 '지두룸'이며 '질'(또는 '질먹는다')과 같은 간단한 단어 하나에 강릉의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들의 실체가 없어져도 이 말들이 살아 있으면 기억으로라도 그 실체를 떠올릴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이 사라지고 나면 그것을 어디에 가 건져 올릴 수가 없다. 우리가 오래 소중히 지켜 나갈 것으로 언어만큼 소중한 것도 없다.

필자는 지난 10년 가까이 새삼스레 강릉방언을 조사하면서 언어박물관이라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곤 하였다. 강릉에 그야말로 강릉방언박물관이 하나 서서 각종 자료를 전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인간문화재 얘기도 자주 하고 다녔는데, 세상이 이렇게 변하였어도 신기할 정도로 강릉방언의 진수眞髓를 고스란히 지키고 있는 분들이 있었다. 그런 분들의 말을 녹음해 박물관에 수장하여 듣고 싶을 때 언제든지 듣게 하면 그처럼 확실하게 강릉방언을 살아 있게 하는 길도 없을 것이다. 사라져 가는 농기구를 전시하고 그 명칭들을 적어 전시하는 길도 있을 것이다. 강릉방언이 대단하다고 너도나도 목소리는 높

이면서도 그 가치를 바로 알고 높여 가려는 고민은 의외로 적다. 대학이든 문화원이든 시市에서든, 올바른 뜻만 있다면, 좋은 길은 저절로 찾아지리라 믿는다. 사실 강릉방언이 없으면 강릉은 강릉이 아니다.

10.
연화부인설화

무형유산 범주

- 구분 : 강릉 비지정무형유산
- 영역 : 구전전통 및 표현

무형유산 내용

- 천년의 정화, 잉어편지 이야기
- 연화부인과 무월랑의 명주가
- 월화정, 월화거리에 꽃핀 사랑

천년의 정화, 잉어편지 이야기

강릉 연화부인과 관련된 이야기는 일찍이 고려시대 문헌인 『고려사』 악지에 명주가 배경설화로 등재되어 있으며, 조선시대 허균의 『별연사고적기』, 『동국여지승람』, 유득공의 시문 등에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지난 1923년에 춘천 출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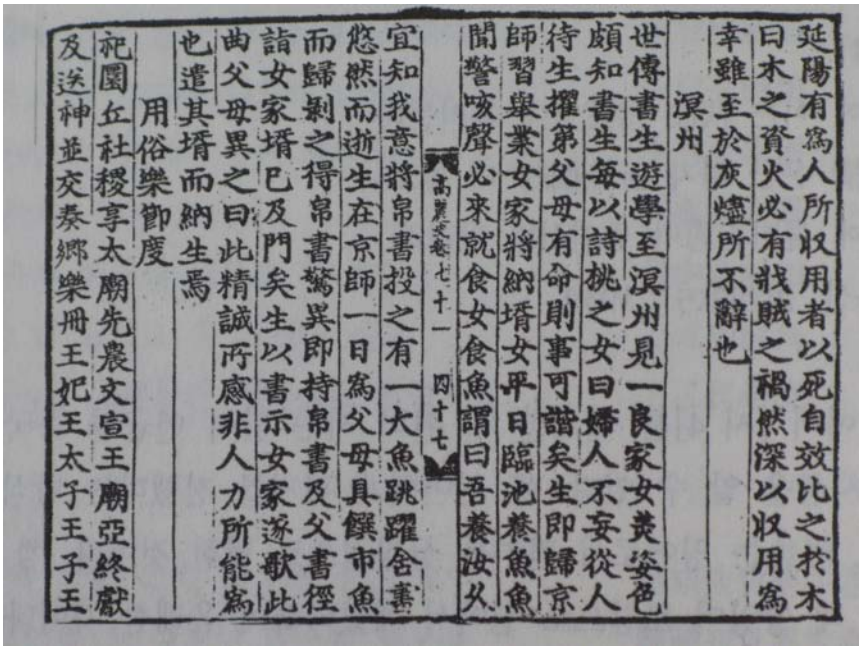
차상찬이 직접 강릉남대천 연화지蓮花池를 방문하여 그 감상을 한시문으로 썼으며, 시조시인으로 유명한 안자산(본명 安廓)도 1939년에 한시 한 편을 남겼다. 이와 같이 신라 때 이야기가 시공을 넘어서 고려와 조선시대, 그리고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불멸의 정화情話로 전하고 있음을 매우 특별한 일이다. 김형기金亨起의 설화자료는 1929년 『매일신보每日申報』 향토전설에 소개된 「강릉연화사江陵蓮花寺의 정화情話」 상하 2편의 글이다.

신라 때 경주와 강릉, 김무월랑과 박연화의 연화부인 전설은 명주가의 배경설화로서 그 문학적 가치와 의미가 풍부하다. 이 연화부인 배경설화를 바탕으로 황순원은 〈비늘〉이라는 현대소설로 창작하기도 하였다. 이 전설은 평범한 만남이 아니라, '시공을 넘나드는 사랑의 이야기'라고 할 정도로 신어전신神魚傳信, 어서원기魚書遠寄의 설화적 러브스토리이다. 1920년대의 이 설화자료는 신라 시대 연화사와 명주가, 연화부인과 김무월랑의 설화는 천년의 향기로운 역사전설, 인물전설의 화소로 지속적으로 전승되었다.

강릉 출신 연화부인 관련 설화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자료에 수록되어 있다. 연화부인은 조선시대에는 강릉 대성황사大城隍祠에 모신 12신 가운데 한 분으로 신봉되기도 하였다. 실존인물의 이야기가 전승되면서 지역신화 인물로서 신격화되기에 이르렀다. 주요내용은 경주의 서생書生 무월랑이 강릉 연화봉 밑에서 살았던 연화부인과 잉어의 도움으로 결혼했다는 이야기다. 연화부인 설화에 대한 『고려사』의 전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고구려 속악부에 명주곡이 있다. 서생이 돌아다니며 배우다가 명주에 이르러 한 양가 여자가 얼굴이 아름답고 글도 조금 아는 것을 보고 서생이 시로 유인하였다. 여자가 말하기를 "여자는 함부로 남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 그대가 과거에 뽑히는 것을 기다려서 부모의 명령이 있으면 일이 성취될 수 있다."하였다. 서생이 곧 서울(경주)로 돌아와서 과거 공부를 하였다. 여자의 집에서는 장차 사위를 맞으려 하였다. 여자가 평일에 못에 임하여 고기를 기르는데 고기가 여자의 말소리만 들으면 반드시 몰려와서 먹이에 나왔다. 여자가 고기에게 먹이며 이르기를 "내가 너희를 기른 지가 오래니 내 뜻을 알 것이다."하고 비단에 쓴 글을 던졌다. 큰 고기 한 마리가 펄쩍 뛰어 글을 물고 유유히 가버렸다. 서생이 서울에 있어 하루는 부모를 위하여 반찬을 만들려고 고기를 사가지고 돌아와서 가르다가 비단글을 얻었다. 놀라고 이상하게 여기어 곧 비단글과 아버지의 편지를 가지고 바로 여자의 집으로 갔다. 사위는 이미 문에 당도하였다. 서생이 글을 여자의 집에 보이고 드디어 이 명주곡을 노래하였다. 여자의 부모가 이상하게 여기어 말하기를 "이것은 정성에 감동한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하고 그 사윗감을 돌려보내고 서생을 맞아들였다고 하였다.

『高麗史』 卷七十一, 志第 卷二十五, 樂二 溟州


延陽有爲人所收用者以死自效比之於木
曰木之資火必有戕賊之禍然深以收用爲
幸雖至於灰燼所不辭也
溟州
世傳書生遊學至溟州見一良家女黃姿色
頗知書生每以詩挑之女曰婦人不妄從人
待生擢第父母有命則事可諧矣生即歸京
師習舉業女家將納壻女平日臨池養魚魚
聞警咳聲必來就食女食魚謂曰吾養汝久
宜知我意將帛書投之有一大魚跳躍舍裏
悠然而逝生在京師一日爲父母具饌市魚
而歸剖之得帛書驚異即持帛書及父書徑
詣女家壻已及門矣生以書示女家遂歇此
曲父母異之曰此精誠所感非人力所能爲
也遣其壻而納生焉
用俗樂節度
祀圜丘社稷享太廟先農文宣王廟亞終獻
及送神並交奏鄉樂冊王妃王太子王子王

『고려사』 권71 「지제」 권25 악2 명주 사진 : 장정룡 제공

조선시대 유득공柳得恭(1749~1807)이 쓴 『이십일도회고시二十一都懷古詩』에도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 삼국사에 신라 선덕왕宣德王이 죽고 아들이 없음에 여러 신하들이 의논하고 족자族子인 주원周元을 세우려 하였다. 주원의 집이 서울 북쪽 20리에 있는데 마침 큰 비가 내리어 알천閼川이 창일하여 건널 수가 없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하늘이 혹시 주원을 세우지 않으려고 함인지 모른다. 지금의 대상大上等 경신敬信은 전왕의 아우이고 덕망이 본디 높아서 인군의 체모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여러 사람의 의논이 합치되어 경신을 세웠다. 조금 뒤에 비가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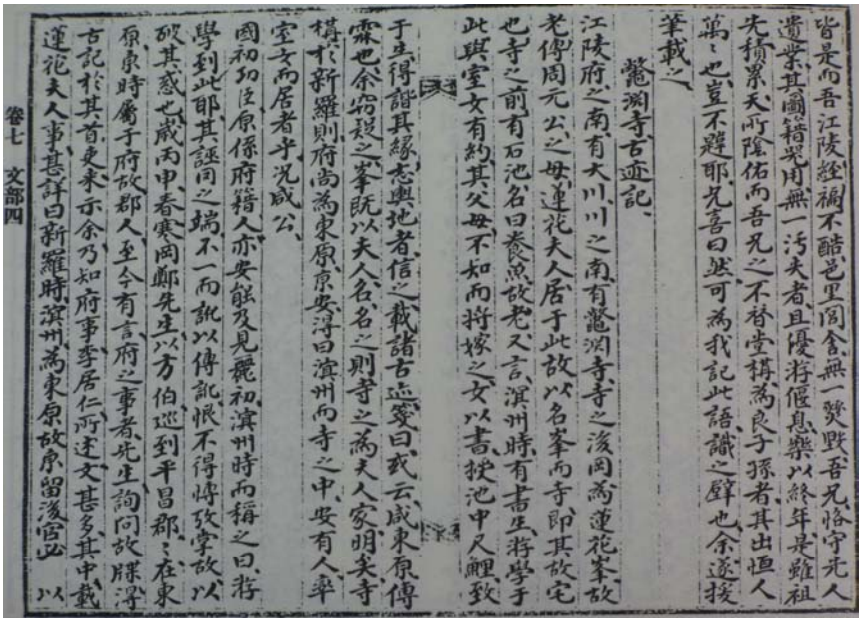
침에 나라 사람들이 모두 만세를 불렀다."하였고 여지지輿地志에 "주원이 화를 두려워하여 물러가 명주溟州에 살고 조회하여 뵙지 않았다. 2년 뒤에 주원을 봉하여 명주군왕을 삼고 명주, 익령翼嶺, 삼척三陟, 근을어斤乙於, 울진蔚珍 등 당을 떼어 식읍을 만들었다."하였고 문헌비고에 "명주는 지금의 강릉부"라 하였다. "계림의 진골 대왕의 지친鷄林眞骨大王親, 구치를 좌해가에 나누어 공봉한다九雉分供左海濱. 가장 생각키는 건 꽃 같은 못가의 여자最憶如花池上女, 고기글을 멀리 유환하는 사람에게 부쳤다魚書遠寄倦遊人. 진골은 삼국사에 "신라 사다함은 계통이 진골에서 나왔다." 하였고 또 설계두가 말하기를 "신라의 사람 쓰는 것이 골품을 의논한다" 하였고 영호증의 신라국기에 "그 나라 왕을 제일골이라 이르고 나머지 귀족을 제이골이라 이른다."하였다. 구치九雉는 문헌비고에 "신라의 제도가 왕은 하루에 밥쌀이 서말이요 수꿩이 아홉 마리라."하였다. 어서원기魚書遠寄는 고려사악지에 "고구려 속악부에 명주곡이 있다…" 강계지에 신라왕의 아우 무월랑의 두 아들 맏이는 주원이요 다음은 경신이다. 어머니는 명주 사람인데 처음에 연화봉 밑에 살았으므로 호를 연화부인이라 하였다. 주원이 명주에 봉하여짐에 연화부인이 주원에게 봉양을 받았다. 명주곡은 곧 연화부인의 일이요 서생은 무월랑無月郎을 가르킨 것이다. 또 명주는 신라 때에 설치한 것이요 고구려 때의 이름이 아니니, 명주곡은 마땅히 신라악新羅樂에 붙여야 한다 하였다.

『명원세기溟源世紀』의 언급처럼 김무월랑의 '월'과 연화부인의 '화'자를 따서 '월화정'이라 명명했으며 명주가의 작자인 서생은 신라 진평왕 때 왕족으로 유후관으로 이곳에 왔던 김무월랑 즉 김유정金惟靖이고, 양가녀는 연화부인 박씨로 『강릉김씨파보』와 『명원산고溟源散稿』 등에도 기재되어 있다. 강릉 출신으로 한글소설 〈홍길동전〉 저자 허균許筠(1569~1618)이 쓴 『성소부부고』 별연사고적기鼈淵寺古迹記에도 자세하게 전하고 있다. 그 내용과 전승설화 각편을 예로 든다.

> 강릉부의 남쪽에 큰 내가 있고 그 내의 남쪽에 별연사鼈淵寺가 있으며, 그 절 뒤쪽 언덕은 연화봉蓮花峰이다. 노인들이 전하기를 주원공周元公의 어머니 연화부인蓮花夫人이 여기에 살았으므로 이것을 따서 봉우리 이름을 삼았고 절은 곧 그 옛집이라 한다. 절 앞에는 석지石池가 있는데 이름을 양어지養魚池라고 한다. 노인들은 또 이렇게 말했다. 명주 때 한 서생이 있었는데 이곳으로 공부하러 왔다가 처녀와 혼약을 했다. 그 부모는 알지 못하고 장차 시집을 보내려 하니 여자가 편지를 못 속에 던지자 한 자쯤 되는 잉어가 그것을 물어다가 서생에게 전하여 그 인연을 이루었다고 한다.…신라 때 명주는 동원경이었으므로 유후관留後官은 반드시 왕자 및 종척宗戚・장상將相・대신大臣으로 하여금 맡게 하고, 범사에 그 예하 군현에는 편의대로 출척黜陟하게 하였다. 왕의 아우 무월랑無月郞이라는 사람이 있어 어린 나이로 그 직을 맡았는데 업무는 보좌관을 말을 좇아 대신 다스리게 하고 자기는 화랑도를 이끌고 산수 간에서

놀았다. 하루는 혼자 소위 연화봉에 올랐더니 한 처녀가 있었는데 용모가 매우 뛰어났으며 석지石池에서 옷을 빨고 있었다. 낭은 기뻐하여 그 여자를 유혹하였더니, 처녀는 "저는 사족士族 출신이라 예를 갖추지 않고 혼인할 수 없습니다. 낭께서 만약 미혼이시다면 혼약을 행할 수 있으니 육례를 갖추어 맞이하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미 낭께 몸을 허락하였으니, 다른 데로 시집가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하였다. 낭은 이를 허락하고, 이후에 안부를 묻고 선물 보내기를 끊이지 않았다. 임기가 차서 낭이 계림으로 돌아가 반 년 동안 소식이 없자 그 아버지는 여자를 장차 북평北坪 집안 총각에게 시집을 보내고자 이미 날까지 받아놓았다. 여자는 감히 부모에게 아뢰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몰래 걱정하다가 자살하기로 결심하였다. 하루는 연못에 가서 옛날의 맹세를 생각하고 기르던 연못 속의 황금 잉어에게 "옛날에 잉어 한 쌍이 서신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너는 내게 양육 받은 적이 많았으니 낭이 계신 곳에 나의 뜻을 전할 수는 없겠니?"하였다. 그러자 갑자기 한자 반쯤 되는 황금 잉어가 못에서 튀어 올라와 입을 벌려 승낙하는 것 같았다. 여자는 이를 이상히 여기고 옷소매를 찢어 글을 쓰기를 "저는 감히 혼약을 위배하지 않을 것이나, 부모님의 명령을 장차 어길 수 없습니다. 낭께서 만약 맹약을 버리지 않으시고 달려와 아무 날까지 도착하시면 그래도 가능하나, 그렇지 못하면 저는 마땅히 자살하여 낭을 따르겠습니다."하였다. 이것을 잉어의 입 속에 넣어 가지고 큰 내에 던졌더니 잉어는 유유히 사라졌다. 그 다음

날 새벽 무월랑은 관리를 알천閼川에 내보내 고기를 잡아오게 했는데 관리가 횟거리 생선을 찾다보니, 금빛 나는 한 자짜리 잉어가 갈대 사이에 있었다. 관리가 낭에게 갖다 보였더니, 잉어는 펄쩍 뛰면서 재빨리 움직여 마치 호소하는 듯했으며 잠시 후 거품을 한 되쯤 토했는데, 그 속에 흰 편지가 들어있어 이상히 여기고 읽어보니 여자가 손수 쓴 것이었다. 낭은 즉시 그 편지와 잉어를 가지고 왕에게 아뢰었다. 왕은 크게 놀라면서 잉어를 궁중의 연못에 놓아주고 빨리 대신 한 사람에게 명하여 채색 비단을 갖추게 하고 낭과 함께 동원경으로 말을 달려가게 하므로, 즉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 겨우 기약한 날짜에 대었다. 도착해 보니 유후 이하 여러 관리와 고을 노인들이 모두 장막에 모였는데 잔치가 무척이나 성대하였다. 문을 지키는 관리가 낭이 오는 것을 괴상히 여기고, "무월랑이 옵니다."고 소리쳐 전했다. 유후관이 나와 맞이해 본즉 대신이 따라왔다. 드디어 사연을 갖추어 주인에게 알렸다. 북평北坪의 신랑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대신이 사람을 시켜 멈추게 하였다. 여자는 하루 앞서부터 병을 핑계 대고 머리도 빗지 않고 세수도 하지 않았으며 어머니가 강요해도 듣지 않아 꾸지람과 가르침이 한창 더했는데 낭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는 벌떡 일어나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아가, 양가의 혼인을 잘 이루었으므로 온 부중 사람이 다 놀래어 신기하게 여겼다. 부인이 아들 둘을 낳았는데, 장남은 곧 주원공이고, 차남은 경신왕이다.


卷七 文部四

皆是而吾江陵經禍不酷邑里閭舍無一毀缺吾兄恪守先人遺業其圖籍器用無一污失者且優游假息樂以終年是雖祖先積累天所隆佑而吾兄之不替堂構為良子孫者其出恒人萬也豈不難耶兄喜曰然可為我記此語識之辟也余遂援筆載之

鷲洞寺古迹記

江陵府之南有大川川之南有鷲洞寺寺之後岡為蓮花峯故老傳周元公之母蓮花夫人居于此故以名峯而寺即其故宅也寺之前有石池名曰養魚故老又言溟州時有書生將學于此與室女有約其父母不知而將嫁之女以書投池中尺鯉致于生得誦其緣志與地者信之載諸古迹爰曰武云咸東傳霖也余嘗疑之峯既以夫人名名之則寺之為夫人家明矣寺構於新羅則府尚為東原東原安得曰溟州而寺之中安有人率室女而居者乎況咸公

國初知臣原係府籍人亦安能及見麗初溟州時而稱之曰將學到此即其誤問之端不一而訛以傳訛恨不得博攷掌故以破其惑也歲丙申春寒岡鄭先生以方伯巡到平昌郡在東原東時屬于府故郡人至今有言府之事者先生詢問故牒浮古記於其首吏來示余乃知府事季居仁所述文甚多其中載蓮花夫人事甚詳曰新羅時溟州為東原故原留後宮必

성소부부고
별연사고적기
사진 : 장정룡 제공

[전설] ① 월화정은 읍의 남쪽 남대천가에 있던 연화봉 옛 자리에 있음 ② 신라 때 연화부인 박씨蓮花夫人 朴氏가 고기를 길렀는데 그 고기가 김무월랑金無月郎에게 편지를 전해 주었다는 옛 자취가 있음 ③ 후손들이 양어지養魚池 바위 위에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새로 지음.

瀧澤誠, 『증수임영지』, 강릉고적보존회 1933

[전설] ① 연화봉의 아래 남대천에 커다란 못이 있고 그 옆집에는 연화라는 딸이 있었음 ② 무월랑이 강릉에 유학 왔을 때 백년가약을 맺음 ③ 낭군 떠난 지 10년이 되도록 무소식 ④ 한 마리 연못의 고기가 연화의 치마 속에 튀어 오름 ⑤ 연화는 고기 입에 글월을 넣어줌 ⑥ 고기가 경주에 도착하여 무월랑의 낚시대에 걸림 ⑦ 무월랑이 연화의 글

을 읽고 후에 함께 살았음 ⑧ 월화정은 무월랑의 월月자와 연화의 화花자를 따서 짓고 정자세움.

崔善萬,『江陵의 歷史變遷과 文化』,
江陵觀光協會, 1962, 82쪽.

이상의 연화부인 연기緣起설화는 문헌과 구전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천 년 전 문헌설화의 서생과 양가녀가 허균의 별연사고적기에서는 무월랑無月郎과 연화蓮花로 이름이 나오고 있으며, 이후에 김월랑金無月郎과 박연화부인朴蓮花夫人으로 구체화 되었다. 또한 1930년대 강릉지역에서는 연화부인 설화를 바탕으로 한 월화정 정자를 짓고 강릉지역의 아름다운 정화를 알렸다. 이 정자는 1936년 병자년 포락에 떠내려갔으나 2004년 신축하였다.

『강계지疆界志』에 의하면 무월랑은 신라왕의 아우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이는 주원周元이요 다음은 경신敬信이라 하고 주원이 명주군왕에 봉해지자 연화부인이 주원에게 봉양을 받았다고 한다. 명주곡溟州曲은 곧 연화부인의 일이요, 서생은 무월랑을 지칭한 것이라 했다. 또 명주는 신라 때 설치한 것이고 고구려 때 이름이 아니므로 명주곡은 신라악新羅樂에 당연히 속한다고 했다. 김무월랑은 실존인물로서『강릉김씨파보江陵金氏派譜』에 따르면 "二十世子惟靖, 一曰爲靖, 侍中, 妃大溟州蓮花夫人…無月郎似是惟靖公別號 …" 라고 하여 무월랑은 별호로서 실명은 김유정공金惟靖公으로 시중벼슬을 했다고 하였다. 김유정 공의 부인은 강릉(명주)의 연화부인이라 믿고 있다. 이들 두 사람의 결연 즉 소위 어서원기魚書遠寄

는 잉어의 뱃속에서 흰 비단에 쓴 편지가 나왔다는 이어척소鯉魚尺素 고사를 잉용하여 신이성神異性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 잉어보은의 한 유형이기도 하다. 이것은 중국의 악부樂府 '음마장성굴행飮馬長城窟行'의 내용과 소재적 유사성을 지닌다. 명주가는 신라 경덕왕과 혜공왕 시기인 서기 757~779년 사이에 유정 곧 무월랑이 지은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인물설화의 내용상으로 볼 때 최초의 문헌에서 밝혀지지 않던 인물들이 차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체화되었다.

어머니의 고향 강릉 땅에서 명주군왕으로 재위한 김주원공에 대한 사적이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등에 밝혀진 것으로 분석할 때 그 신격화된 줄거리 구성을 살필 수 있으며, 훗날에 연화부인은 무월랑과의 약속을 지킨 열녀로서 강릉 12신격 중 한 분으로 신봉되기도 하였다. 향토전설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신문자료는 1929년 9월 10일과 11일에 매일신보에 「新羅使臣과 絶代佳人 神魚傳信으로 百年偕老」라는 제목으로 삽화와 함께 실렸다. 원문과 함께 현대어 맞춤법에 따라 고쳐서 함께 소개한다.

[원문1] 江原 江陵에는 南大川이라는 江이 잇고 그 川邊에는 蓮花寺라는 조고만 古刹이 잇서섯다. 그러나 그 古刹은 너머도 오래된 것이엇섯고 또 긋업시 頹落한 것이엇서슴으로 얼마 전에 묻혀서 업서지고 지금은 본즉 兀然한 바위만 남아잇서 古刹을 말하고 잇슬뿐이다. 터만 남은 그 古刹에도 千餘年 前부터 傳하여 나려오는 달콤한 情話가 잇스니 그것은 新羅 眞平王時代 無月郎과 蓮花夫人에 對한 향내 나는

이야기이다. 그 이야기의 실마리는 이러케 풀려나간다.
(강원 강릉에는 남대천이라는 강이 있고 그 천변에는 연화사라는 조그만 고찰이 있었었다. 그러나 그 고찰은 너무도 오래된 것이었었고 또 끝없이 퇴락한 것이었으므로 얼마전에 묻혀서 없어지고 지금은 본즉 올연한 바위만 남아있어 고찰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터만 남은 그 고찰에도 천여 년 전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달콤한 정화가 있으니 그것은 신라 진평왕시대 무월랑과 연화부인에 대한 향내 나는 이야기이다. 그 이야기의 실마리는 이렇게 풀려나간다.)

[원문2] 當時 無月郞은 重臣으로 잇다가 江陵使臣으로 任用되어 赴任하여왓것다. 그는 매우 豪俠하고 또 杜牧之의 風采를 가진 快男兒로 江陵에 赴任하여 온 뒤로부터 寂寂한 客愁를 스스로 禁치 못하고 잇섯는데 그때 또 南大川邊에는 淸楚한 一間茅屋에 蓮花夫人이라는 江陵一帶의 美人이 살고 있섰다. 그 夫人이 엇더한 姿態를 가지고 잇서길레 夫人이라고 傳하엿는지는 評論치 안호나, 하여간 그 女子는 當時 絶世의 佳人이엇섯고 또 얼골이 아름다운 것과 가치 마음도 그만큼 아름다웟것다.
(당시 무월랑은 중신으로 있다가 강릉사신으로 임용되어 부임하여 왔었다. 그는 매우 호협하고 또 두목지의 풍채를 가진 쾌남아로 강릉에 부임하여 온 뒤로부터 적적한 객수를금치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또 남대천변에는 청초한 일칸 모옥에 연화부인이라는 강릉일대의 미인이 살고 있었다. 그 부인이 어떠한 자태를 가지고 있었길래 부인이라고

전하였는지는 평론치 않으나 하여간 그 여자는 당시 절세의 가인이었었고 또 얼굴이 아름다운 것과 같이 마음도 그만큼 아름다웠었다.)

[원문3] 이 絶代의 佳人과 一代의 豪快男兒 그 두 사람 새에는 果然 天生의 緣分이 잇지나 안헛는가 엇던 따듯한 봄날의 아츰, 無月郎은 鬱寂한 心懷를 펼치기 위하야 南大川邊으로 玉步를 옮기고 잇섯다. 佳人과 快男兒의 마조 친 情景 그 因緣으로 兩人心思 人知가 되야 두 사람의 胸中에는 熱烈한 相思의 情火가 타오르기 비롯하엿다. 그 후 蓮花夫人은 無月郎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그의 품안에 안기어 뜨거운 사랑을 밧고 잇섯다. 蓮花夫人도 역시 그를 끗업시 사랑하면서… 그러나 세상에는 好事에 多魔라. 그 두 사람의 사랑은 오래 계속되지를 못하엿다.(상)
(이 절대의 가인과 일대의 호쾌남아 그 두 사람 사이에는 과연 천생의 연분이 있지나 않았는가. 어떤 따뜻한 봄날의 아침, 무월랑은 울적한 심회를 펼치기 위하여 남대천변으로 옥보를 옮기고 있었다. 가인과 쾌남아의 마주친 정경, 그 인연으로 양인심사 인지가 되어 두 사람의 흉중에는 열렬한 상사의 정화가 타오르기 비롯하였다. 그 후 연화부인은 무월랑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그의 품안에 안기어 뜨거운 사람을 받고 있었다. 연화부인도 역시 그를 끝없이 사랑하면서… 그러나 세상에는 호사에 다마라. 그 두 사람의 사랑은 오래 계속되지를 못하였다.)

[원문4] 無月郎은 그동안 모든 用務를 마치엇슴으로 朝廷으로부터 곳 還朝하라는 王命이 잇섯다. 할 일 업시 두 사람은 作別을 안할 수 없게 되엇다. 無月郎는 江陵을 떠나면서 夫人의 손목을 잡고 後日 서로 言約을 어기지 말자고 눈물로 구든 盟誓를 하엿다.

(무월랑은 그동안 모든 업무를 마치었으므로 조정으로부터 곧 환조하라는 왕명이 있었다. 할 일 없이 두 사람은 작별을 안할 수 없게 되었다. 무월랑은 강릉을 떠나면서 부인의 손목을 잡고 후일 서로 언약을 어기지 말자고 눈물로 굳은 맹서를 하였다.)

[원문5] 그 後 蓮花夫人의 집에는 後庭에 큰 바위가 잇고 또 그 아래는 池塘에 養魚를 하기에 歲月가는 줄을 잇고 잇섯다. 그만흔 養魚중에는 神魚 한 쌍이 잇서 각금 夫人을 對할 적마다 꼬리를 치면서 고맙다는 듯한 信號를 보히엇다. 어느듯 그 해도 다 지나가고 이듬해의 새 봄이 도라왓다. 戀書를 보낸 蓮花夫人은 전혀 무슨 消息올가하고 허구해 날을 고대하고 잇섯섯으나 一年이 맛도록 아모 消息이 업슴으로 그 夫人은 그만 긔가 막힐 地境이엇다.

(그 후 연화부인의 집에는 후정에 큰 바위가 잇고 그 아래는 지당에 양어를 하기에 세월 가는 줄 잊고 있었다. 그 많은 양어 중에는 신어 한 쌍이 있어 가끔 부인을 대할 적마다 꼬리를 치면서 고맙다는 듯한 신호를 보이었다. 어느덧 그 해도 다 지나가고 이듬해의 새 봄이 돌아왔다. 연서를 보낸 연화부인은 전혀 무슨 소식 올까 하고 허구 해

날을 고대하고 있었으나 일 년이 맞도록 아무 소식이 없으므로 그 부인은 그만 기가 막힐 지경이었다.)

[원문6] 하로는 한 꾀를 생각하야 그 神魚 한 쌍을 불러 便紙 한 張을 써서 입속에 너허주며 新羅 無月郎에게 傳하여 달라고 付託하엿다. 그 神魚는 아럿다는 듯이 꼬리를 치고 곳 그 못을 떠나 東海를 거쳐 新羅 無月郎池로 들어갓다. 그때 無月郎은 고기잡이를 하고 잇다가 魚網에 異常한 고기 한 쌍이 끌려나옴으로 곳 잡아보니 입에서 便紙 한 장을 배야라 놋는다. 너모도 神奇하야 뜻고 보니 夢寐中에서 잇지 못하는 蓮花夫人에게서 온 簡札이엇다. 그는 너머도 깃부고 반가워서 곳 答信을 고기에게 다시 傳하여보냇다. 그리하야 그 神魚는 다시 江陵 蓮花夫人의 池塘으로 도라와 自己의 使命을 다하얏다. 그 神魚의 傳信으로 後人 새에는 가약하야 華燭의 婚禮를 밝히고 百年을 偕老하엿다. 그 이곳 江陵金氏의 始祖인 溟州郡王의 父母님이라고 傳한다. (하)

(하루는 한 꾀를 생각하여 그 신어 한 쌍을 불러 편지 한 장을 써서 입 속에 넣어주며 신라 무월랑에게 전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신어는 알았다는 듯이 꼬리를 치고 곧 그 못을 떠나 동해를 거쳐 신라 무월랑지로 들어갔다. 그때 무월랑은 고기잡이를 하고 있다가 어망에 이상한 고기 한 쌍이 끌려나오므로 곧 잡아보니 입에서 편지 한 장을 뱉어 놓는다. 너무도 신기하여 뜯고 보니 몽매 중에서 잊지 못하는 연화부인에게서 온 간찰이었다. 그는 너무도 기


鄕土傳說

新羅使臣과絕代佳人

神魚傳信으로百年偕老

【一】江陵蓮花寺의情話【金亨起】


鄕土傳說

新羅使臣과絕代佳人

神魚傳信으로百年偕老

【一】江陵蓮花寺의情話【金亨起】

1979년 9월 10일 · 화

『매일신보』 상

『매일신보』 하 사진 : 장정룡 제공

쁘고 반가워서 곧 답신을 고기에게 다시 전하여 보냈다. 그리하여 그 신어는 다시 강릉 연화부인의 지당으로 돌아와 자기의 사명을 다하였다. 그 신어의 전신으로 후인 사이에는 가약하여 화촉의 혼례를 밝히고 백년을 해로하였다. 그 이곳 강릉김씨의 시조인 명주군왕의 부모님이라고 전한다.)

이러한 화소는 만남의 단서라고 할 수 있다. 신어전서, 잉어전서의 고전적 화법을 활용하여 만남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편지전달의 상징화법으로서 1950년대 김규환은 편지

내용을 '오매불망寤寐不忘 상사오년相思五年 명주연화溟州蓮花(자나 깨나 잊지 못해 그리워한 지 5년입니다. 명주에 사는 연화)'라는 12자의 글씨라고 소개하였다.

연화부인과 무월랑의 명주가

연화부인 전설과 관련하여 살펴본다면, 오늘날 전승되는 구비문학은 역사와 긴밀하다. 특별히 역사전설과 역사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역사전설은 민중들의 역사진행과정에서 창조한 일종의 구두문학口頭文學으로 역사적 진실면모를 상당하게 반영하고 있다. 전설의 유형은 인물, 자연, 풍습, 문화유물로 크게 나누기도 하는데, 이 가운데 역사전설은 역사시기의 민중생활상황과 정신면모, 생활과 쟁투를 반영하며 이들은 특정역사사건이나 역사인물에 의거한다.

전설은 그 발생목적에 따라 설명적 전설aetiological legend, 역사적 전설historical legend, 신앙적 전설religious legend로도 분류하는데, 역사적 전설은 역사적 사실로부터 성립하고 성장하며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지닌 사람이 그 사건의 설명으로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민중의 기억이나 지식에 결합되어 생긴다.

역사전설과 역사의 관계는 대체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사실 혹은 사실적 전설에 접근한 것, 둘째는 순수하게 허구적 전설에 속한 것, 셋째는 진실 혹은 거짓의 역사전설 등이 있다. 민간구술民間口述의 전승물 가운데 인물전설은 사실상 실제로 있었던 인물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인물전설은 어떤 인물이 어떤 사회적 환경과 부딪히면

서 살아간 이야기이므로 역사적 성향을 지닌 서사문학으로 평가되고 크게 역사전설의 범주에 들어간다.

따라서 역사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기도 하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시각을 보여주어 지역과 상보적 관계를 형성한다. 나아가 지연의식을 강화하며 향토애를 기르는 사회 통합의 기능도 있으며, 그 지역출신 또는 그 지역과 연관된 인물의 행적을 일깨우고 선양하므로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 애향심을 갖게 해 준다.

인물전설은 역사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나 나라와 민족사에 크게 공적을 이룬 인물의 비범성과 특이한 기질, 그 업적들이 구전되는 과정에서 구비문학화된 것이다. 그러므로 인물전설은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과 결부되어 해당 사건이나 사실의 진행과정에 그 인물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구연된다. 간혹 어떤 인물전설과 사화史話를 구별하기 어려운 것도 역사적으로 실재한 인물이 구체적인 사건과 결부되어 구전되는 사정과 관련된다. 그러나 인물전설은 사화와 엄격히 구별된다. 사화는 그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등의 물음에 대하여 정확한 해답을 주나 전설은 아무리 역사적 진실성을 갖고 있다 해도 비현실적인 허구적 환상과 신비로운 색채가 들어갈 수 있다.

청오 차상찬(1887~1946)은 춘천 출신으로 개벽과 신여성 등의 잡지에 강릉 연화부인 양어지 전설을 썼으며, 1920년대에는 직접 강릉 남대천을 방문하고 시문을 남겼고, 이후에도 몇 편의 글을 썼다. 그는 1925년 『신여성』 11월호에 차청청車靑靑(=차상찬)이 「無月郎의 養魚池」를 소개하였고, 안자산安廓

은 1939년 『조광』 7월호에 「명주가」 시조 한 편을 남겼다. 1949년 최상수의 「월화정 전설」, 차상찬의 「강릉의 미인 연화」와 1959년 김규환의 설화 「연화부인」(『명주잡지』 4호) 등이 나왔다. 이 설화는 1963년 황순원의 단편소설 「비늘」의 소재가 되었으며, 1966년 강릉시 향토교육자료집에 「養魚池의 傳說」로 수록되었다. 또한 1950~60년대 북한에서 출판된 자료에 「고기를 기르는 여자(명주곡의 유래)」 「명주곡」 등이 소개된 바 있다. 차상찬이 기록한 세 가지 연화부인 설화는 아래와 같다.

[자료1] 平昌古記, 云新羅眞平王時, 有無月郎者, 爲江陵仕臣, 其時有蓮花女, 見而兩心相合, 郎政滿還京, 謂其女曰若有宿緣, 當作夫婦, 女家在大川南, 宅北, 有深淵, 女當以飯, 食其魚, 其中有神魚一雙, 女之父母欲定婚嫁, 女與神魚語曰, 願傳信書於無月郎, 魚如有應聲, 三日不見, 潛通東海, 到新羅無月之捕魚所, 郎捕神魚, 魚吐信書 郎卽作書與魚, 遂迎其女作爲夫婦云, 今南大川下有蓮花峰卽其舊池云 按此說與輿地勝覽所載少異而此記 明宗七年 江陵府使李居仁所著則亦非無根之言也. 「靑吾 車相瓚」, 『開闢』 12월호, 제4권 제12호, 개벽사, 1923, 100쪽(강원도 특집호), 關東雜詠, 養魚池.

(평창의 옛 기록에 이르길 신라 진평왕 때 무월랑이 있었는데 강릉사신이 되었다. 그때 연화녀를 보고 두 사람 마음이 합쳤다. 무월랑이 임기가 차서 경주로 가면서 연화녀에게 말하기를 '만일 오랜 인연이 있다면 부부가 되리라.' 여자의 집은 대천의 남쪽에 있었고 집 북쪽에는 깊은 연못

이 있었다. 여자는 먹이를 그 고기에게 주었는데 그 중 신어 한 쌍이 있었다. 여자의 부모는 시집을 보내려고 하였다. 여자는 신어에게 말하기를 '원컨대 이 편지를 무월랑에게 전해다오' 신어는 대답하듯 하고 삼일간 보이지 않았다. 물속으로 동해를 통해 신라 무월랑이 고기 잡는 곳에 이르렀다. 무월랑은 신어를 잡자 고기는 편지를 토해 낭에게 편지를 전하여 드디어 그녀를 맞아서 부부가 되었다. 지금 남대천 아래 연화봉이 그 옛 연못자리다. 이 설은 여지승람의 기록과 조금 다르므로 기록한다. 명종 7년(1552) 강릉부사 이거인의 글에도 이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였다.

[전설2] 고기가 편지를 전하얏다면 지금의 사람들은 퍽 이상이 넉일 것이다. 그러나 넷적에 중국이나 우리 조선에는 그러한 사실이 잇섯다. 중국의 일은 여긔에서 말할 필요더 업거니와 우리 조선으로 말하면 바로 강원도 강능江原道 江陵에서 그런 일이 잇섯다. 즉 지금으로부터 약 일천 삼백여 년전의 일이다.

신라 진평왕新羅 眞平王 때에 그 나라에는 무월랑無月郎이라는 남자가 잇서서 강원도 강능의 군수郡守가 되엇섯는데 그 때마츰 그 짱에는 년화蓮花 라하는 어엽븐 처녀가 또잇섯다. 두 사람은 어느새에 서로 정이 통하엿던지 지금말로 소위 연애가 생겻섯다. 그들의 짯틋한 정은 날로 날로 깁허져서 비록 동해의 물이 마르고 오대산五臺山이 마를지라도 조금도 변치 안을만치 되엿섯다. 그러나 진소위 호사다

마라고 얼마안이하야 무월랑은 벼살이 갈리여서 신라로 도라가게 되니 두 사람의 안타가운 리별은 참으로 형언하기 어렵게 되엿다.

손에 손을 잡고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다만 후일에 서로 부부가 되기를 단단이 언약하고 써낫섯다. 이 리별에 애가 타는 년화는 마음을 부칠 곳이 전혀 업서서 날마다 자긔의 집 북편北便 년당蓮塘에 가서 꼿구경하기와 고기의 밥주기로 일을 삼아 적이나 고적한 회포를 푸럿섯다.

그런데 그 여러 고기 중에도 한쌍의 고기는 이상하게도 어엽부고 활발하야 그 처녀가 특별히 사랑하고 밥도 만이 주엇섯다. 아모것도 모르는 고기지만 하루 이틀 가는 새에 자연 정이 들러서 그 녀자가 연당에를 가면 그 고기가 밧듯이 나왓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의 부모는 그녀자를 엇던 곳으로 시집을 보내랴고 혼설을 내였섯다. 그것을 안 연화는 엇지 할 줄을 모르고 다만 무월랑이 잇는 신라의 나라를 바라보고 애처러운 눈물만 색릴 짜름이엿다.

하루는 편지 한 장을 써가지고 연당에 가서 고기를 밥 먹이면서 무심이 하는 말이 "고기야! 고기야! 네가 만일 인정이 잇거덜랑 멀고 멀은 남쪽나라에 가서 나의 사랑하는 무월랑에게 편지나 한 장 젼하야 주려무나"하얏다.

그 고기는 여자 말을 듯는 드시 두 귀가 불룩불룩 하더니 또 대답하는 드시 머리를 쑤벅쑤벅 하엿섯다. 여자는 이상이 녁여서 그 고기에게 편지를 던지엿더니 고기는 그만 편지를 물고 어대로 갓섯다. 그런지 삼 일이 되도록 고기는 형체도 볼 수가 업더니 그 고기는 마츰 동해를 통하야 무월

랑의 낙수질釣 하는 곳에 가서 낙수에 걸리매 무월랑은 그 고기 입에서 연화의 편지를 어더 보고 하도 이상이 생각하야 다시 답장을 써서 고기에게 부처 보내고 즉시 그 여자를 다려다가 부부가 되어가지고 자미스럽게 잘 살엇섯다. 그런 사실이 잇슴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 연못을 이름하야 양어지養魚池라 하얏스니 지금 강능 남대천江陵 南大川의 연화봉蓮花峯 밋이 바로 그 못 터라 한다.

(고기가 편지를 전하였다면 지금의 사람들은 퍽 이상히 여길 것이다. 그러나 옛 적에 중국이나 우리 조선에는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 중국의 일은 여기에서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우리 조선으로 말하면 바로 강원도 강릉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즉 지금으로부터 약 일천삼백여년전의 일이다.

신라 진평왕 때에 그 나라에는 무월랑이라는 남자가 있어서 강원도 강릉의 군수가 되었었는데 그때 마침 그 땅에는 연화라 하는 어여쁜 처녀가 또 있었다. 두 사람은 어느 사이에 서로 정이 통하였던지 지금말로 소위 연애가 생겼었다. 그들의 따뜻한 정은 날로날로 깊어져서 비록 동해의 물이 마르고 오대산이 마를지라도 조금도 변치 않을 만치 되었었다. 그러나 진소위 호사다마라고 얼마 아니하여 무월랑은 벼슬이 갈리어서 신라로 돌아가게 되니 두 사람의 안타까운 이별은 참으로 형언하기 어렵게 되었다.

손에 손을 잡고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다만 후일에 서로 부부가 되기를 단단히 언약하고 떠났었다. 이 이별에 애가 타는 연화는 마음을 부칠 곳이 전혀 없어서 날마다 자기의

집 북편 연당에 가서 꽃구경하기와 고기의 밥주기로 일을 삼아 적이나 고적한 회포를 풀었었다. 그런데 그 여러 고기 중에도 한 쌍의 고기는 이상하게도 어여쁘고 활발하여 그 처녀가 특별히 사랑하고 밥도 많이 주었었다. 아무 것도 모르는 고기지만 하루 이틀 가는 사이에 자연 정이 들어서 그 여자가 연당에를 가면 그 고기가 반듯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의 부모는 그 여자를 어떤 곳으로 시집을 보내려고 혼설을 내었었다. 그것을 안 연화는 어찌 할 줄을 모르고 다만 무월랑이 있는 신라의 나라를 바라보고 애처로운 눈물만 뿌릴 따름이었다. 하루는 편지 한 장을 써 가지고 연당에 가서 고기를 밥 먹이면서 무심이 하는 말이 "고기야! 고기야! 네가 만일 인정이 있거들랑 멀고 멀은 남쪽나라에 가서 나의 사랑하는 무월랑에게 편지나 한 장 전하여 주려무나"하였다.

그 고기는 여자 말을 듣는 듯이 두 귀가 불룩불룩 하더니 또 대답하는 듯이 머리를 꾸벅꾸벅 하였었다. 여자는 이상이 여겨서 그 고기에게 편지를 던지었더니 고기는 그만 편지를 물고 어디로 갔었다. 그런지 삼 일이 되도록 고기는 형체도 볼 수가 없더니 그 고기는 마침 동해를 통하여 무월랑의 낚시질釣 하는 곳에 가서 낚시에 걸림에 무월랑은 그 고기 입에서 연화의 편지를 얻어 보고 하도 이상이 생각하여 다시 답장을 써서 고기에게 부쳐 보내고 즉시 그 여자를 데려다가 부부가 되어가지고 재미스럽게 잘 살았었다. 그런 사실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그 연못을 이름하여 양어지養魚池라 하였으니 지금 강릉 남대천江陵 南大川의 연화

봉蓮花峯 밑이 바로 그 못 터라 한다.

車靑吾, 「無月郞의 養魚池와 迎烏郞의 日月池」,
『新女性』 제3권 제11호, 1925, 37~38쪽.

[전설3] 앞으로 만리일벽萬里一碧의 창해를 임하고 뒤로 웅준수려雄俊秀麗한 오대산을 등져서 한송정, 경포대의 명소를 형성하고 창해역사며 이율곡, 최원정崔猿亭같은 위인 달사를 산출한 관동의 성지 강릉에는 자래로 미인이 또한 많았다. 그중에는 제일 미인으로 향기로운 이야기꺼리를 많이 전한 사람은 옛날 신라 진평왕 시대에 유명하던 연화라는 여자이다. 그때 신라에는 무월랑無月郞이란 풍류남자가 있어서 강릉 고을에 벼슬을 살러갔다가 이 연화와 우연한 기회에 서로 알게 되어 하루 이틀 서로 교제를 하는 동안에 피차간 사랑이 생겨서 남 유달리 친밀하게 지냈었다. 그러나 진소위 호사다마로 얼마 아니하여 무월랑이 벼슬이 갈리어 신라의 서울로 돌아가게 되니 두 사람의 안타까운 이별은 참으로 형언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인정상 차마 놀 수 없는 손을 놓고 단장의 이별곡을 부르며 후일에 다시 만나 백년의 부부가 되기로 굳은 약속을 하였다.

이 이별에 애가 타오른 연화는 그날부터 자기마음을 붙일 곳이 없어서 날마다 날마다 자기집 북창 앞에 있는 연당蓮塘에 가서 꽃구경하기와 고기밥주기로 일을 삼으며 고적한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여러 달을 두고 고기밥을 주니 고기들까지도 그와 아주 정이 들어서 아침저녁으로 그의 붉은 치마빛이 연당에 비치기만하면 수백 수천의 고기떼들

이 입을 한데 모아가지고 뛰어 나와서 밥 주기를 기다렸다. 그 중에도 한 쌍의 고기는 이상하게도 어여쁘고 활박하여 그 처녀가 특별히 사랑하고 밥도 특히 많이 주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고기지마는 그 여자가 그렇게 사랑하니까 역시 다른 고기보다 특별한 정이 있는 것 같아서 그가 밥을 줄 때는 다른 고기보다 먼저 뛰어나와 그의 앞에 춤추듯이 한참 활발하게 뛰어놀고 밥을 먹고 갈 때에도 다른 고기 모양으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한바탕을 뛰어 논 다음에 감사하다는 듯이 머리를 꾸벅꾸벅하며 갔다.

그렇게 몇 해를 지내던 중 그 여자의 부모들은 그 여자를 어떤 곳으로 시집을 보내려고 혼설을 내었다. 그것을 아는 연화는 어찌할 줄을 모르고 다만 자기의 애인인 무월랑이 있는 신라의 남쪽하늘을 바라보고 혼자 애처로운 눈물만 흘릴 따름이었다. 하루는 연화가 편지 한 장을 써가지고 연당에 가서 고기밥을 주며 무심히 혼자 하는 말이 "고기야 고기야, 너는 인정이 있거든 저 멀고먼 남쪽 바다에 가서 나의 사랑하는 무월랑에게 편지나 한 장 전해 주려무나. 나도 잘못하여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게 된다면 네 주던 밥도 또 주지 못하게 될까보다…"라고 하였다. 그 고기는 여자의 말을 알아듣는 듯 두 귀가 불뚝불뚝하더니 또 머리를 꾸벅꾸벅하며 대답하는 것 같았다. 연화는 그 고기의 행동이 다른 때와 다른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실험적으로 그 고기에게 편지를 던져주니 고기는 그 편지를 물고 어디로인지 가고 말았다.

그런지 삼 일이 되도록 그 고기는 그림자도 볼 수 없더니

사일 만에 그 고기는 뜻밖에 무월랑의 답장편지 한 장을 물어다 주었다. 그것은 그 고기가 그 동네에 동해를 거쳐서 무월랑의 집 근처 어떤 물에서 놀다가 무월랑의 낚시질하는 낚시에 짐짓 걸리어서 무월랑으로 하여금 그 고기를 잡아 입에 물은 편지를 받아보게 하고 또 무월랑께서 주는 답장을 물고 온 것이었다. 연화는 그 편지를 보고 크게 기뻐할 뿐 아니라 무월랑도 그 편지의 전한 것을 퍽 이상히 여기고 또 연화가 자기와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와 같이 지성스럽게 하는 것을 크게 감사히 생각하여 그 답장을 한지 얼마 아니하여 연화를 데려다가 결혼하고 재미스러운 부부의 생활을 하였다. 그리하여 그 뒷사람들이 그 연못을 이름하여 양어지養魚池 또는 서출지書出池라 하였으니 지금 강릉군 남대천 남편에 있는 연화봉蓮花峰 밑이 바로 그 옛날 그 연못터라고 한다. 나는 몇 해 전에 그곳을 놀러갔다가 우연히 옛말을 생각하고 변변하나마 한시 한 수를 지은 일이 있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끝에 기념 삼아 그것을 기록한다. 蓮花峰下水盈塘(연화봉 밑 연못에 물 가득한데) 潑剌遊魚吹細浪(펄펄노는 고기떼 물결을 뿜네) 時有佳人來浣錦(때마침 미인 와서 빨래질하니) 恰如當日寄書娘(옛날에 편지하던 그 처녀인 듯)

車相瓚,「강릉의 미인・연화(蓮花)」,『海東艶史』, 漢城圖書株式會社, 1949, 236~239쪽.

연화부인전설은 신라 명주가의 배경설화이자 월화정 창건설화, 전설과 역사를 신비적 화법으로 엮은 인물전설로 전승

된다. 인물전설은 사실상 실제로 있었던 인물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으로 어떤 인물이 어떤 사회적 환경과 부딪히면서 살아간 이야기다. 이것은 지연의식을 강화하며 향토애를 기르는 사회 통합의 기능도 있으며, 그 지역출신 또는 그 지역과 연관된 인물의 행적을 일깨우고 선양하므로 지역 자부심과 지역민의 긍지, 애향심을 갖게 해 준다. 1920년대 춘천 출신 역사학자인 차상찬은 지금부터 약 1,300년 전의 역사에 기초한 설화문학으로 연화부인 전설을 대상화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는 관동잡영에서 시 한편을 기록하면서 양어지 전설을 기록하였고, 무월랑과 양어지에 대한 내용도 소개하였다.

월화정, 월화거리에 꽃핀 사랑

연화부인과 관련된 연화사, 양어지에 대한 전설은 신라 때 실존인물이었던 김무월랑과 연화부인 박씨의 결연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으로 신화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잉어가 편지를 전해주었다는 이어척소 고사가 신어가 편지를 전달한 신어전서神魚傳書로 신비화 되었다. 즉 "전설적 배경-주인공의 만남-주인공의 별리-신어의 연결-주인공의 만남-혼인"으로 이어지는 필연적 만남에 대한 설화적 화법의 영속적 구조와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 설화자료는 전설의 신화화라는 상승을 통하여 신비한 만남을 추구한 인물전설로 볼 수 있다. 『고려사』 악지에는 신라의 음악으로 강릉 명주가가 수록되어 있는데 연기설화는 신라 이후 조선시대와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화소로 전승되고 있음이 특별한 위상을 갖는다.

그만큼 이야기의 전승상에 있어서 허구적 환상과 신비적 색채 화소가 상존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는 곧 두 주인공의 영속적인 만남이라는 주제화소가 지고한 사랑의 성취라는 속성을 지녔기에 불가능을 극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신라 연화부인 전설은 강릉의 아름다운 노래요, 영원한 사랑의 가치와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겠다.

현재 강릉남대천변에는 1936년 병자년 포락으로 물에 떠내려간 2004년 월화정을 복원하였다. 연화부인 전설은 강릉예총 주관으로 뮤지컬 〈월화전〉이 공연되고 있으며, 연극으로도 연출하였다. 강릉 시내를 관통하던 구 철도를 철거하고 그곳에 월화거리로 문화권역을 조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2017년 연화부인 전설과 관련하여 무월랑과 연화부인의 이름을 딴 월화거리가 준공되었다. 반세기 동안 강릉도심을 관통해 열차가 달렸던 철도길이 사람과 문화, 과거와 미래를 잇는 명품거리로 조성되었다. 원주~강릉 철도건설에 따른 도심구간 지하화로 발생하는 철도 유휴부지에 대한 공원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명칭을 '월화거리'로 정했다. 월화거리의 명칭은 강릉시 시내와 강남동을 잇는 철교 남단에 위치한 월화정은 김무월랑과 연화부인의 관련된 전설에서 착안한 것이다. 월화거리는 강릉역에서부터 강남동 부흥마을까지 총 2.6km이며, 강릉 도심을 관통하는 관광 실크로드가 탄생한 것이다. 강릉에 조성된 월화거리는 이야기가 있는 문화거리로 자리매김하면서 강릉 시내를 관통하는 관광 실크로드가 탄생되어 시민들의 생활문화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

다. 강릉의 연화부인 설화는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자원으로 날로 활용되고 있다(사진은 2004년 복원한 월화정, 1936년 이전에 건립된 월화정).

월화정
사진 : 장정룡 제공



월화정의 잉어상
사진 : 장정룡 제공



월화정 예전 모습
사진 : 장정룡 제공



11.
홍장고사

무형유산 범주

- 구분 : 강릉 비지정무형문화재
- 영역 : 구전전통 및 표현

무형유산 내용

- 경포팔경 홍장야우의 풍류담
- 한송정곡 시조 부른 기녀 홍장
- 홍장이야기, 강릉문화로 꽃피다

경포팔경 홍장야우의 풍류담

강릉은 아름다운 경치만큼 전해오는 이야기도 풍성하다. 강릉 경포대와 관련된 이야기 가운데 경포호수 바위에 새겨진 홍장암紅粧嵓의 전설은 강릉기녀 홍장고사를 생각나게 한다. 강과 호수, 계곡과 산으로 둘러싸인 강릉은 3강江5호湖, 5계溪

9산山의 산자수명山紫水明한 경치를 지녀 일찍이 '산수갑천하山水甲天下' 또는 '동대문밖은 강릉'이라는 칭송을 들었다. 기록과 구전을 통해서 나타나기는 오래전부터 경포대와 한송정은 그 아름다움을 노래한 많은 시문이 전한다. 시인묵객이나 관원의 발걸음 또한 그치지 않아 "한송정을 어느 날 호랑이가 물어갔으면 좋겠다."는 불평도 했지만 강릉의 아름다운 풍광은 강릉 출신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 허난설헌과 교산 허균 등 뛰어난 인물들을 통해서 더욱 빛나고 있다.

13개의 누정으로 둘러싸인 경포의 호수에는 고려시대 홍장의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는데 홍장은 「한송정寒松亭」 시조를 지은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일찍이 강원도관찰사로 관동별곡을 노래한 송강 정철은 경포대에 올라 "이보다 경치가 더 잘 갖추어진 곳이 또 어디 있겠는가"라면서 감탄하면서 박신과 홍장이야기에 대하여 '홍장고사紅粧古事를 헌ᄉᆞ타 ᄒᆞ리로다(홍장고사가 야단스럽기도 하구나!)'라고 읊었다. 천하와 동방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경포의 호수(경호, 경포개라고도 함)와 한송정은 전설과 시문학으로 오랫동안 전했는데, 경포 호수는 과거에 30리 둘레라 하였고, 호수 중앙에 그림배를 띄워 놓았으며 선교장 방해정 앞에는 '홍장암'이 있다.

고려 말 32대 우왕禑王(1374~1388)때 태어나 조선조 초기 강릉도호부 관아에 소속되었던 관기官妓 홍장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강릉 고을의 기안妓案에 올라 있는 200여명 가까운 기녀 가운데 단연 출중하여 '江陵名妓'라고만 전하고 있고 『해동가요海東歌謠』에는 우리나라 '명기9인名妓九人'중의 한 명으로 꼽았다.

「한송정곡寒松亭曲」 시조를 남긴 그녀를 '기생이라 부르기 민망한 여인'으로 평가하는데, 박신이 홍장을 한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부실副室을 삼았다고도 하며 그 후에도 서로 먼 거리에 있으면서 연연戀戀의 정이 더욱 간절하였다고도 전한다. 일부 기록에는 홍장이 홍장암 바위 위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하는데, 경포팔경 다섯째 경치인 '홍장야우紅粧夜雨'의 배경인 홍장암 전설은 다음과 같다.

> 홍장紅粧은 이조 초기 석간石磵 조운흘趙云仡 부사가 있을 즈음에 부예기府藝妓로 있었다고 전한다. 홍장암은 방해정放海亭 앞에 이가원李家園이라 새긴 바위이며 이 바위 위에서 홍장이 죽었다 한다. 이로서 이름 붙인 것이 오늘날까지도 홍장암이라 전하여 온다. 홍장이 죽은 뒤로부터 그의 미모와 재원을 아끼는 마음이 누구나 할 것 없이 간절하여 이름 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날의 꽃배에 화려하였든 경포 호수의 일경을 회상하기 위한 기념으로서의 일경一景이다.
>
> 崔善萬, 『江陵의 歷史變遷과 文化』, 江陵觀光協會, 1962, 34쪽.

> 홍장은 경포 북안北岸에 있는 기묘奇妙한 형상의 암석을 말한다. 옛날 이 암석에서 홍장이라는 미녀가 청유淸遊하다가 전락轉落한 후에 이 암석을 홍장암이라 불렀고, 야우夜雨는 한적한밤중에 구슬픈 추우秋雨에 애수의 원한怨恨을 차탄嗟歎한 것이다.
>
> 臨瀛誌增補發刊委員會, 『臨瀛誌』, 文旺出版社, 1975, 240쪽.

'부예기府藝妓' 또는 '강릉기江陵妓' '명기홍장名妓紅粧'으로 뚜렷하게 여러 기록에서 평하고 있을 정도로 재색을 겸했다고 하겠는데, 30세 초반의 안렴사 박신에게 홍장을 소개하고 재미로 그를 속였던 조운흘 강릉부사의 안목과 흥취가 짐작된다. 홍장이 교주강릉도 안렴사인 박신을 만난 때는 1393년으로 당시 조운흘 부사는 재임 두 해 째로 환갑의 나이였다. 고려 우왕 원년인 1374년 전후에 홍장이 출생한 것으로 본다면, 홍장의 나이가 대략 20세 전후라 하겠다.

송강 정철(1536~1593)이 45세이던 1580년 정월 강원도관찰사로 제수除授되어 관동풍경을 두루 돌아본 다음 관동의 산수를 찬미한 유명한 「관동별곡關東別曲」을 남겼는데 여기에서도 홍장이 언급될 정도였다. 그는 강릉을 돌아보고 경포대 정자에 올라서 호수를 보면서 약 200년 전의 '홍장고사'를 다시 말했다.

또한 1603년 허균(1569~1618)은 한양에서 벼슬을 그만두고, 금강산을 돌아보고 난 뒤 외가댁인 강릉북쪽 사촌沙村 애일당을 8년 만에 다시 찾아왔다. 그리고 경포호 정자에 올라서서 홍장고사를 생각하며 아름다운 가을 시 「호정湖亭」 한편을 풍악기행에 남겼다.

연기안개 푸르러 호수빛 넘실넘실	烟嵐交翠蕩湖光
가을 꽃 밟고 밟아 죽방에 드노라	細踏秋花入竹房
흰 머리로 팔년 만에 이곳을 오니	頭白八年重到此
그림배에 홍장 싣고 갈 뜻 없어라	畵船無意載紅粧

경포팔경 가운데에는 홍장과 관련된 팔경은 '홍장야우紅粧夜雨'와 '홍장문적洪莊聞笛'이 있다. '홍장문적'은 우암 송시열(1607~1689)이 지은 팔경시를 심상룡沈相龍이 차운하여 지었다는 경호팔경시로 홍장암 부근에서 들리는 피리소리를 듣는 경치다.

태연하게 핀 바위 꽃이 홍장을 붉게 비추고
어부는 배에서 피리 불고 손님은 돛에 기대네
파려옥 같은 만 이랑 들판에 밝은 달 비친 밤
피리소리 들리니 신선이 하강했나 의심한다네
岩花綽約映紅粧　　漁篷船中客倚檣
萬頃玻瓈明月夜　　鸞笙疑是絳仙郎

고려 명종(1170~1197)때 사람인 김극기金克己가 지은 강릉팔영江陵八詠은 ① 녹균루綠筠樓 ② 한송정寒松亭 ③ 경포대鏡浦臺 ④ 굴산종崛山鐘 ⑤ 안신계安神溪 ⑥ 불화루佛華樓 ⑦ 문수당文殊堂 ⑧ 견조도堅造島 등이다. 조선 정조(1176~1800) 17년(1793)에 강릉부사를 역임한 홍의호洪義浩가 지은 임영팔경臨瀛八景은 『관동읍지關東邑誌』에 전하는데 ① 만리창해萬里蒼海 ② 오대영악五臺靈嶽 ③ 경호명월鏡湖明月 ④ 한송백사寒松白沙 ⑤ 학동심진鶴洞尋眞 ⑥ 용연청폭龍淵聽瀑 ⑦ 남천타어南川打魚 ⑧ 북평관가北坪觀稼 등이다.

1933년에 나온 『증수임영지增修 臨瀛誌』의 경포팔경은 경포대 위에서 본 여덟 가지의 경치다. 그것은 ① 녹두일출菉荳日出 ② 죽도명월竹島明月 ③ 강문어화江門漁火 ④ 초당취연草堂

炊煙 ⑤ 홍장야우紅粧夜雨 ⑥ 증봉낙조甑峯落照 ⑦ 환선취적喚仙吹笛 ⑧ 한사모종寒寺暮鐘 등으로 여기에 홍장야우가 들어 있다. 이는 홍장과 박신의 고사를 빗댄 팔경의 하나로, 호수에 달이 세 개 뜬다거나 다섯 개가 뜬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홍장 시화에 나온다.

허균의 시에도 적시되어 있듯이 경포 호수에는 '화선畵船' 또는 '화방畵舫', 즉 그림배를 띄웠는데 기록에는 '경포화방鏡浦畵舫'이라 하였다. 경포호수 홍장전설은 관장官長과 기녀의 사랑이야기로 치부될 것만이 아니다. 이 설화배경인 호수에 내린 '홍장야우紅粧夜雨' 밤비와 신선이 불던 환선취적喚仙吹笛의 피리소리 그리고 고려사 악지에 한시로 전하는 장연우張延祐가 창작한 「한송정곡寒松亭曲」을 한 편의 아름다운 시조창으로 재창작한 홍장의 문학적 감흥이 합쳐진 작품이라 할 것이다.

이른바 '홍장고사'라 전하는 강릉기녀 홍장과 안렴사 박신의 사랑이야기는 조선시대 태조 2년(1393)의 일로서 이것이 기록으로 전해지기는 이로부터 약 80년 후인 1474년 서거정徐居正(1420~1488)의 『동인시화東人詩話』가 처음이다. 이후 1530년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44권 강릉대도호부조에도 이 내용이 전재되어 있고, 『대동야승大東野乘』에 다시 실린 내용은 조선중기 학자 권별權鼈이 1670년경에 완성한 『해동잡록海東雜錄』에서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이 다시 전하기는 정약용丁若鏞(1762~1836)의 『목민심서牧民心書』 등이다.

[자료1] 혜숙 박신은 젊었을 당시 명성이 있었다. 강원도 안렴사였을 때 강릉기생 홍장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정이 자못 진중하였다. 임기가 차 장차 돌아가려고 함에 부윤인 석간 조운흘이 속여 말하기를 "홍장이 이미 죽어 선녀가 되었다."고 했다. 박신은 애도하는 마음 그리운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안정시킬 수 없었다. 강릉부에는 경포대가 있는데 뛰어난 경관으로 관동에서 제일이다. 부윤이 안렴사를 모시고 나가 노는데 몰래 홍장을 아름다운 의복으로 단장시키고, 별도로 화선畵船을 마련하여 수염과 눈썹이 흰 나이든 관원을 선발해서 의관과 두루마기를 장대하게 입혀 처용처럼 모습을 꾸며 홍장을 함께 실었다. 또 채액彩額을 배에 걸고 그 위에 "신라 성대의 노인 안상安詳이, 천년 풍류를 아직 잊지 않았노라. 사신 경포에서 노닌다는 말을 듣고, 난주蘭舟에 차마 홍장을 싣지 못하노라."라는 시를 쓰고, 서서히 노를 저어 포구에 들어가 해안 사이를 배회하며 맑고 원만한 관현악이 공중에 울려 퍼지도록 명령하여 시켰다. 부윤이 안렴사에게 말했다. "이곳에는 옛 신선의 유적이 있는데 산정에는 차를 다리는 부뚜막이 있고 그곳에서 수 십리 되는 곳에 한송정이 있는데 그 정자에는 또한 사선비四仙碑가 있습니다. 지금도 신선 무리들이 그 사이를 오가는데, 꽃피는 아침이나 달뜨는 저녁이면 사람들이 혹 목격하기도 합니다만 멀리서 바라볼 수 있을 뿐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습니다." 박신이 말하였다. "산천이 이와 같고 풍경이 특이한데도 마침 정황이 없습니다."하는데 눈물이 흥건하였다. 이윽고 배를 타고 순풍에 나아가는데 곧바로

앞을 잠깐 보니 어떤 노인이 배를 대고 노를 살피고 있었다. 노인의 차림새는 기괴하였고, 배 안에는 붉게 단장한 기녀가 가냘프고 아리따운 몸매로 너울너울 춤추고 있었다. 박신이 몹시 놀라며 말하였다. "틀림없이 신선 가운데 사람일거요." 눈여겨 자세히 들여다보니 홍장이었다. 모여 앉아 있던 많은 사람들이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고 즐거움을 지극히 한 뒤 놀이를 파하였다. 그 후 박신이 '기관동시寄關東詩(관동에 부치는 시)'를 지었는데 다음과 같다. "젊었을 적 절을 잡고 관동을 안찰하며, 경포에서 즐겨 놀았던 일 꿈속에 있네. 누대아래 다시 배 띄워 놀 생각하지만, 단장한 기녀가 늙은이 비웃을까 두렵소."

(徐居正, 東人詩話 卷下 "朴惠肅信少有時譽 按江原 愛江陵妓紅粧 情頗珍重 秩滿將還 府尹趙石磵云仡詿云 粧已仙去 朴悼念思想頗不自聊 府有鏡浦臺 形勝爲關東第一 尹邀廉使出遊 密令紅粧靚飾艷服 別具畵船 選一老官人鬚眉皓白 衣冠褒偉狀類處容者 戴紅粧 又揭彩額題詩其上曰 新羅聖代老安詳 千載風流尙未忘 聞說使華遊鏡浦 蘭舟不忍載紅粧 徐徐擊楫入浦口 徘徊洲渚間 絲管淸圓如在空中 尹語廉使曰 此地有古仙遺跡 山頂有茶竈 距此數十里有寒松亭 亭亦有四仙碑 至今仙曹神侶往來其間 花朝月夕人或見之 但可望不可近也 朴曰 山川如此 風景殊異 適無情況 涕淚盈睫 俄而舟行順風一瞥直前 老人艤船相棹 形貌詭奇 船中紅妓謌舞綽約蹁躚 朴駭愕曰 必神仙中人 熟視乃紅粧也 一座抵掌大笑 極懽而罷 後朴寄關東詩曰 少年持節按關東 鏡浦淸流入夢中 臺下蘭舟思又泛 却嫌紅粉笑衰翁")

[자료2] 공은 일찍이 관동안렴사關東按廉使가 되어 강릉기생

홍장을 사랑했었는데, 강릉부윤 석간 조운흘趙云仡이 말하기를 "홍장이 이미 죽었습니다."하니 박신은 슬픈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였다. 조석간이 안렴사를 초청하여 경포에 나가 놀았는데, 비밀리 홍장에게 단장시키고 별도로 그림 그린 배를 준비하여 모습이 처용處容과 같은 한 아전을 뽑아서 홍장을 싣고, 또 채색 현판을 걸고 거기다 시를 쓰기를 "신라 거룩한 시대의 안상安詳은 천 년 전의 풍류놀이를 아직 잊기 못했도다. 듣건대 사화使華(염사)가 경포대에서 논다 하기에, 참지 못하고 난주蘭舟에다 홍장을 실어 왔노라."하였다. 그 배가 천천히 포구로 들어와 물가에 돌아다니거늘, 조석간이 염사에게 말하기를 "이 땅은 옛날 신선의 유적이 있어 지금도 신선들이 오가는 일이 있어 꽃핀 아침이나 달 밝은 저녁이면 사람이 혹 보기도 하지마는 다만 바라볼 수는 있어도 가까이 하지는 못하옵니다."하니 박이 말하기를 "산천은 이와 같고 풍경이 특이하다."하면서 눈물이 글썽하여 자세히 배 안을 보니 곧 홍장이었다. 온 좌석이 크게 웃으며 극히 즐거이 놀다가 파했다.

權韠, 「海東雜錄1」, 『大東野乘』 第十九卷.

[자료3] 박신이 젊어서 명성이 있었는데, 강원도 안찰사가 되어서는 강릉의 기생 홍장을 사랑하여 정이 자못 두터이 들었다. 부사 조운흘이 거짓으로 "홍장은 이미 죽었습니다."고 하니 그 애도함이란 어쩔 줄을 몰랐다. 강릉부에 경포대가 있는데, 부사가 안찰사를 맞이하여 나아가 놀면서 몰래 홍장으로 하여금 예쁘게 꾸미고 고운 옷으로 단장

케 하며, 따로 놀이배를 마련하고 늙은 관인 한 사람을 골라 눈썹과 수염을 하얗게 하고 의관을 크고 훌륭히 차리게 한 후, 홍장을 배에 태우게 하였다. 또 채색 액자를 배에 걸고 그 위에 시를 지어 붙이기를 "신라 성대의 늙은 안상이 천년 풍류를 아직 잊지 못하여, 경포대에 임금의 사신이 놀이한다는 말을 듣고는 아름다운 배에 다시금 홍장을 실었네."하였다. 천천히 노를 저어 포구로 들어오면서 물가로 배회하는데 맑고 둥근 음악소리가 공중에 떠오는 것 같았다. 부사가 "이곳에는 신선들이 있어 왕래하는데 단지 바라다만 볼 것이요,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하니 박신은 눈물이 눈에 가득하였다. 갑자기 배가 순풍을 타고 순식간에 바로 앞에 다다르니, 박신이 놀라 말하기를 "신선의 무리임이 분명하구나."하고는 익히 살펴보니 곧 홍장이었다. 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었다.

丁若鏞,『牧民心書』律己六條 第一條 飭躬.

[자료4] 호수의 중앙에는 홍장암紅粧巖이라고 하는 큰 바위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옛날 국조 때에 순찰사 박충숙신朴忠肅信(=雲峰人 官吏判)이 강릉미인 홍장이라는 기생과 놀던 곳이다. 그때에 박충숙 신은 순찰사巡察使로 강릉에 갔다가 홍장이 강릉에서 상당히 예쁜 여자라는 말을 듣고 친히 찾아가서 일시의 아름다운 인연을 맺고는 항상 생각하며 꿈속에서도 그리워서 잊지 않고 있더니 그 뒤에 각 군의 순찰을 마치고서 돌아오는 길에 다시 홍장의 집을 찾으니 홍장은 간 곳이 없고 다만 빈집만 남아있는데 무정한 개는 옛

주인의 정랑을 알지 못하고 문 앞에서 멍멍 짖고 의구한 달빛만 창공에 비치어 고객의 회포를 일으킬 따름이었다. 순찰사는 낙심천만하여 아무 말도 없이 초연히 여관으로 홀로 돌아갔다. 그때에 강릉부사 조석간운흘趙石磵云仡은 역시 풍류남아로 그 순찰사와는 퍽 친절한 친구 사이었다. 순찰사를 찾아서 그 여관으로 갔더니 순찰사는 홍장에게 얼마나 반하였던지 아무 말도 하기 전에 먼저 홍장의 소식을 물었다. 부사는 그 순찰사를 한번 속이고 조롱하려고 거짓 대답하기를 "홍장은 원래 다정한 가인인 까닭에 상관上官을 한번 이별한 뒤로 주야로 생각다 못해 상사병相思病이 걸리어서 서너 달 전에 이 세상을 떠났소이다."고 말하였다. 순찰사는 자기가 자나 깨나 언제까지나 마음속에 사모하고 사랑하던 홍장이 죽었다는 말을 들으니 더욱 심화가 비창하여 구곡의 간장이 굽이굽이 끊어질 듯이 만사가 다 무심하여 아무 일도 보지 않고 주야로 머리를 싸고 여관에 누워 있었다. 그런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다. 밤은 고요하여 인적이 끊어지고 처량한 달빛은 여창을 가득히 비치었는데 순찰사는 지난날의 옛 추억이 머릿속을 오락가락하여 자못 감회가 깊은지라 일어나서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앉았다 누었다 이리 딩굴 저리 딩굴하던 차에 우연히 강릉부사가 찾아와서 말하되, "달도 밝고 밤도 고요하니 산보나 하러 가지 않겠느냐?"하고 말하면서 또 말하기를 "우리 강릉에는 경포대라는 명승지가 있는데 그곳은 참 별유천지別有天地의 선경仙境인고로, 달이 밝고 바람이 맑은 좋은 밤이면 언제나 하늘에서 옥퉁소 소리와 선학

仙鶴의 소리가 들리며 천상의 선녀들이 놀러 오는데 홍장이도 인간의 절대 가인佳人이었으니까 죽은 뒤에도 혹은 선녀가 되어 서왕모西王母의 동쌍성董雙成이나 허비경許飛瓊 사자연謝自然 같은 선녀들과 짝이 되어 이러한 선경에 놀러 올런지도 알 수 없으니 만일 상관과 이 세상의 연분이 다 끊어지지 않았다면 옛날의 유완劉玩이가 천태산天台山에서 선녀를 만난 것과 같은 기연奇緣이 있을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하고 능청스럽게 말하였다. 순찰사는 홍장이를 연연불망戀戀不忘할 뿐 아니라 객지에서 고격한 회포를 잊지 못하던 중에 부사의 그러한 말을 들으니 무엇보다도 반갑게 생각하고 쾌히 승낙하였다. 그래서 두 사람은 여관을 떠나서 일엽의 편주一葉片舟를 잡아타고 경포대로 향하니 때는 마침 추칠월秋七月 보름경이었다. 만 리 창공은 씻은 거울 같이 깨끗하고 반공에 솟은 둥근 달은 만리창해萬里滄海에 마주 비치어서 만곡의 금파가 출렁출렁하며 좌우의 갈 숲蘆林에는 흰 이슬이 새로 내려 점점이 옥을 이루었으니 참으로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선경이었다. 부사와 순찰사는 모든 흥취에 겨워서 배를 타고 마음대로 오르락내리락 하더니 홀연히 운무雲霧가 자옥한 속에서 이상한 향기로운 냄새가 나며 옥퉁소 소리가 은은히 멀리서 또는 가까이서 들여오는데 도저히 어느 방향에서 부는 지 알 수가 없었다. 순찰사는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이 황홀하여 의관을 잘 갖추며 부사더러 어찌된 영문인가를 물었다. 부사는 조금도 서슴지 않고 대답하기를 "아까 말하던 선녀들이 놀러 온 모양인데 아마 상관上官과 선녀 간에 무슨 기연奇緣이

있어서 그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순찰사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반가이 여기면서 혼자 생각에 오늘밤에는 참말로 선녀를 만나 볼 수 있구나 하고 무릎을 꿇고 향을 피우며 단정히 앉았다. 조금 있다가 본즉 한 조각 적은 배가 순풍에 돛을 달고 한가운데로 쫓아내려오는데 돛 위에는 채필로 쓴 다음 같은 시구詩句가 뚜렷이 보이고, 신라성대노안상新羅聖代老安詳 천재풍류상미망千載風流尙未忘 문설사화유경포聞說使華遊鏡浦 난주불인재홍장蘭舟不忍載紅粧 "신라 성대의 늙은 안상이(안상은 신라 때 사람의 이름이다) 몇 천 년 되어도 그 풍류를 잊지 않고 들으니 사신이 경포에 논다하니 홍장을 배에 싣고 차마 못 가겠구나." 그 위에는 한사람의 백발노인이 선관우의仙官羽衣를 입고 단정히 앉았으며 앞에는 두 청의동자靑衣童子가 호로병葫蘆甁을 차고 옥퉁소를 빗겨 들고 섰고 그 곁에는 나이 올해 스무나믄 살 된 예쁜 여자 하나가 화관花冠을 쓰고 옥패玉佩를 쟁쟁히 울리며 푸른 소매 붉은 단장에 옥잔玉盞을 들고 시립侍立하였으니 그의 곱고 어여쁜 태도는 참으로 월궁의 항아月宮姮娥도 같고 낙포의 선녀洛浦仙女와도 같았다. 순찰사는 한번 바라보니 너무나 황홀하여서 정신이 아찔하여 꿈인지 생시인지 알지 못하고 다만 묵묵히 있을 뿐이었다. 한참 있다가 정신을 차리어 다시 바라본 즉 그 선녀는 전에 자기가 사랑하던 홍장과 비슷하였다. 순찰사는 죽은 사람을 다시 만난 듯이 반가워하며 앞에 선뜻 나서서 절을 하며 사례하면서 "하계下界의 속인俗人이 예의를 알지 못하여 천상의 선관이 강림하시는데도 멀리 영접치 못하였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하니 그 노인은 크게 웃으면서 "그대는 아무 일 없이 잘 지냈는가? 상계의 선관으로 인간 세계에 귀양 온 지가 벌서 사십년이 되도록 피차에 소식이 없더니 오늘밤 경포대 호상湖上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니 이것도 또한 기연이 아니고 무엇인가?"하고 말하더니, 또 곁에 있는 미인을 가리키며 웃으면서 말하되 "그대는 이 여자를 아는가, 이 여자는 본래 옥황상제의 향안시녀香案侍女로 죄를 짓고 잠시 인간 세상에 귀양살이를 하러 왔더니 죄의 풀릴 날이 멀지 않아서 지금 천상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그대와 연분이 있어서 오늘밤 이곳에 와서 만나게 되는 것이니 그리 알라."하였다. 순찰사는 더욱 반가워서 그 여자를 자세히 바라보니 과연 지난날 자기가 사랑하던 홍장이었다. 구름 같은 머리를 달 아래서 숙여들고 춘산같은 아미를 찌푸리며 무한한 정과 한을 머금고 있으니 제아무리 강장强壯한 남아라도 한 번에 반하지 않고서는 못 배겼다. 순찰사는 홍장의 옥 같은 손을 덥석 잡고 눈물을 흘리며 "너는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고 물으니 그 여자도 또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되 "첩은 진세塵世와 인연이 벌써 끊은 즉 아무리 다정한 사또라도 이제 다시 어찌할 수는 없으나 사또가 첩을 생각 하신다는 소문이 하늘에까지 사무치므로 옥제께서 특히 하렴하셔서 오늘밤 이곳에서 만나게 된 것이 올시다."라고 말하였다. 순찰사는 다시 그 노인 앞에 가서 절하며 간청하되 "이미 옥제의 명령이 계시다 하니 홍장과 하룻밤의 인연을 더 맺게 하여 주십시요."한 즉 그 노인은 대답하되 "이미 상제의 명령이 계셨

으니까 그대가 홍장과 잠시 같이 가는 것이 좋겠으나 나는 본래 인간의 진연人間塵緣을 꺼리는 까닭에 같이 갈 수가 없으니 둘이서만 가는 것이 좋으니 부디 둘이서 잘 가라." 하고서 또 홍장을 보면서 "이것도 천생의 좋은 인연인즉 이 손님과 같이 가되 날이 밝기 전에 돌아오너라."하고 말하였다. 순찰사는 그 노인에게 사례하고 홍장과 같이 배를 타고 일진의 청풍으로 돛을 돌려 상륙한 후 여관으로 돌아가니 그날 밤의 진진한 정은 마치 칠월칠석에 견우직녀가 서로 만난 것과 같았다. 그러나 무정한 것은 시간이라 두 사람이 단꿈을 다 마치기 전에 어느덧 동창이 벌써 밝아서 날이 새게 되니 순찰사는 놀라 깨며 혼자 생각하기를 홍장은 약속한 대로 벌써 갔으려니 했다. 그러나 눈을 부비고 자세히 본즉 홍장은 아직까지 의연히 있어서 아침 단장을 하고 있었다. 순찰사는 한편 이상하게 여기면서 홍장에게 그 연고를 물으니 홍장은 아무 대답도 없이 다만 웃을 뿐이었다. 그러자 강릉부사가 들어오면서 웃으며 말하되 "어제 밤에는 얼마나 재미 보셨오. 나는 죽은 홍장을 능히 살리기도 하고 또 중매도 잘 하였으니까 단단히 한 턱을 하여야 되겠소."하고 조롱하였다. 순찰사는 그제야 비로소 부사에게 속은 줄을 알고 또한 같이 껄껄 한바탕 크게 웃으면서 술상을 차려놓고 재미있게 마시며 놀았다. 이것은 본래 부사가 그 순찰사가 원래부터 기생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 조롱하기 위하여 그러한 장난을 꾸민 것이었다. 그 뒤에 순찰사는 서울에 와서 강릉부사에게 이러한 시를 지어 보냈다. 소년시절접관동少年時節接關東 경포청류입몽중鏡浦淸流

入夢中 대하난주사우범臺下蘭舟思又泛 각혐홍장소쇠옹却嫌紅粧笑衰翁 '전날 소년 때 관동에 갔더니 경포의 맑은 물결 꿈속에 완연하다. 그곳에 배를 띄고 또 한번 놀려고 하니 어여쁜 홍장이 다 늙은 나를 비웃을가 혐의 하노라.' 그런데 그때에 그 순찰사와 홍장이 서로 만나던 곳에 큰 바위가 있으므로 그 뒤 사람들이 그 바위를 홍장암紅粧巖이라고 이름 지었다.

車相瓚,「江陵妓 紅粧과 風流巡察使」,
『韓國野談・史話全集』5, 東國文化社, 1959, 129~134쪽.

[자료5] 고려 32대 우왕 때 강원감사로 있던 충숙 박신朴信은 넓은 도량度量과 깊은 인자仁慈로 백성을 다스려 칭송이 드높았다. 박신은 강릉기생 홍장紅粧을 사랑하였는데 그 사랑이 깊고 깊어 세월歲月이 감에 따라 주위周圍 사람들의 관심關心이 쏠리게 되었다. 그때 강릉부사 조운흘이 홍장과 박신의 사이를 아는지라 박신을 놀려 줄 셈으로 박신이 순찰巡察을 마치고 홍장을 찾았으나 홍장이 없으므로 조부사는 홍장이 죽었다고 박신에게 알리었다. 박신과 조부사의 사이는 옛 친구인지라 박신은 틀림없음을 알고 몹시 슬퍼했다. 하루는 조부사가 박감사를 초청하여 경포대에 뱃놀이를 나갔는데 석양夕陽깃든 산기슭의 철쭉꽃을 짓이겨 밟아 새 수레를 타고 경포호수로 내려오니 십리十里나 뻗쳐 있는 하얀 얼음과 같은 비단을 드리우고 다시 다린 것과 같은 호수물이 큰 소나무가 무성茂盛한 속에 실컷 펼쳐 있으니 물결의 아름답기가 비길 데 없었다. 때에 배의 닻줄

을 풀어 매어놓고 정자위에 올라 거나하게 취하여 홍장을 생각할 즈음 문득 그림배 한 척이 나타나며 그 속에서 미인美人이 노래 부르고 춤추는지라 박감사가 놀라 "이는 진정 신선이로구나."하며 놀랬다. 그러나 한참 후 그 미인이 신선이 아니라 홍장인지라 "네가 사람이냐 귀신이냐?"하고 물음에 "사람이 옵니다."하는 홍장의 목소리에 박감사는 조부사의 속임을 당했음을 깨닫고 경포호 그득히 웃음을 날렸다. 지금도 새 섬 가까이 그들의 유령선의 이야기가 민중民衆의 사람들 사이 꽃을 피우고 있으며 그들의 사랑을 못내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홍장과 박감사는 후일後日 한양漢陽으로 자리를 바꾸어 행복幸福하게 살았다고 한다.

江陵市敎育廳, 『鄕土敎育資料集』, 1966, 50~51쪽.

이상의 전승된 다섯 편의 홍장설화 각 편을 통해서 홍장고사의 실상을 파악하였다. [자료1]은 홍장고사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중심자료로 서거정의 『동인시화』에 게재되어 있다. 권별에 의해 전재轉載된 [자료2]와 정약용이 인용한 [자료3]은 [자료1]과 큰 상이점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자료3]은 관원이 자신을 가다듬는 일인 율기律己 칙궁飭躬의 사례로 언급하였다. 칙궁은 자기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로서 기거起居를 절도 있게 하고, 주색酒色과 연악宴樂을 삼가는 일인데 안찰사 박신과 강릉부사 조운흘의 사례를 들어서 경계한 것이다.

[자료4]는 사화史話로서 종전의 내용이 훨씬 풍부하게 전개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박신이 노경에 조운흘에게 보낸

한시를 보태는 등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보태어 서사적 구연 화법으로 기술하였다. 박신의 시호를 충숙忠肅이라 한 것은 오류로서 이능화의 자료부터 보인다. [자료5]는 홍장이 박신의 후실後室이 되어 한양에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결론을 맺고 있어 주목된다. 다른 자료들에는 박신과 뱃놀이 하던 홍장이 바위에서 떨어져 죽은 것에서 유래했다고 언급하였다. 만일 이 설화의 핵심이 억울하게 죽은 홍장의 죽음에 집중되었다면 '아랑형전설阿娘型傳說'과 같이 억울하게 죽은 기녀를 위한 해원적解寃的 내용의 전승설화가 있을 것이나 현재로서는 그러한 흔적을 찾기 힘들다.

이들 전승설화에는 관원의 직명이 혼란스럽게 나오는데 박신을 강원도안렴사, 관동안렴사, 강원도안찰사, 순찰사, 강원감사 등으로, 조운흘을 부윤, 부사로 적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이들이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재직했던 관원들이므로 왕조가 바뀌면서 신분명칭도 달라진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박신은 교주강릉도 안렴사 당시에 강릉부사 조운흘과 만났다.

교주강릉도는 고려 우왕 14년(1388)에 교주도交州道와 강릉도江陵道를 합친 명칭이며, 강원도라는 이름이 처음 사용된 것은 조선 태조 원년(1392) 음력 8월 23일이었다. 정탁鄭擢이 교주강릉도 안렴사에 임명된 것은 태조 원년 음력 9월 11일이었으며 박신이 안렴사로 임명된 것은 태조 2년(1393) 음력 3월 23일 무진이었고, 유량柳亮이 교주강릉도관찰출척사에 임명된 것은 태조 2년 음력 9월 13일이었다. 이후 이지직李之直이 강원도안렴사라는 이름으로 임명된 것은 태종 2년(1402)

이었고, 성석인成石因이 강원도관찰사로 임명된 것은 태종 3년(1403) 음력 6월 29일이었다. 이와 같이 강원도 최고 책임자를 교주강릉도안렴사로 정한 때가 고려 우왕 때이며, 조선조에 들어와 교주강릉도관찰출척사, 강원도안렴사, 강원도관찰사 등으로 그 직명이 바뀌었다. 이상의 설화 각 편에 등장하는 홍장고사는 사실에 입각한 인물전설과 홍장암 암석전설이 중심이되 기녀설화다. 박신과 조운흘이라는 관원과 시조를 창작한 홍장이 등장하고 그 배경은 경포 호수가 주무대이지만 강릉의 명소인 경포대와 한송정이 언급된 누정문학으로도 볼 수 있다.

한송정곡 시조 부른 기녀 홍장

기녀설화의 핵심화소는 관원과 관기라는 신분을 지닌 남녀의 만남, 그리고 관원이 관원을 '속이고 속는 풍류담'이라고 할 수 있다. 1474년 기록된 『동인시화』의 홍장설화를 중심으로 '조우遭遇'와 '기망欺罔'화소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 조우 → 홍장과 박신의 만남 → 강릉명기名妓 – 홍장 시조 〈寒松亭曲〉
2단계 : 기망 → 조운흘의 박신 속임 → 홍장선거仙去 – 조운흘 한시 〈新羅聖代〉
3단계 : 조우 → 홍장과 박신의 만남 → 경포화방畵舫 – 박신의 한시 〈寄關東詩〉

위와 같이 '만남 – 속임 – 만남'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홍장

과 박신은 만났다가 잠시 헤어졌으나 조운흘이 박신을 속여 홍장이 죽어 선녀가 되었다고 기망하자, 크게 낙심했으나 홍장이 환생한 것처럼 꾸며 다시 만나게 되면서 만남의 기쁨은 배가가 되었다. 관원과 기녀의 특별하지 않은 만남이 '속이고 속는' 과정을 거치면서 조우와 별리 그리고 조우라는 구조를 갖추었다.

특히 첫째 단계에서 경포화방의 뱃놀이를 통한 만남의 정경에서 「한송정곡」이 불렸으며, 조운흘이 박신을 속이기 위해 한편의 시를 지어 배에 붙였다. 홍장고사의 마지막으로 박신은 홍장과 가을 칠월의 경포 호수 뱃놀이를 잊지 못하여 조운흘에게 '관동에 부쳐'라는 한시를 써서 보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시화에 대하여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관원의 몸가짐에 대한 경계의 의미로 홍장고사를 예로 들었으며, 한편으로 "박안렴사는 본디 색에 빠진 사람이지만, 조공趙公이 꾸며서 상관을 놀려준 것도 잘못이다."라고 하였다. 조선시대 중앙에서 지방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를 직접 파견하였는데 이들을 접대하기 위하여 지방관아에는 방기房妓라는 수청기가 생겨났으며 그 폐단도 없지 않았다.

1422년(세종4)에 강원도 관찰사가 된 유사눌柳思訥(1375~1440)은 경포대를 찾아와 조운흘이 꾸몄던 홍장고사를 상기하며 한 편의 시를 썼다. 유사눌은 박연 등과 함께 아악보雅樂譜를 짓는 등 조선 초기 악학樂學정비에 공로가 큰 인물로 「한송정곡」에도 관심이 컸을 것이다.

소문 듣고 말 몰아 관동을 찾아와서　聞說奇觀我馬東
그림 속에 안긴 경치 마음껏 즐기네　當年行樂畵圖中
곧바로 조각배를 띄우기는 했다마는　如今直欲蘭舟去
경포대에서 석간이 마중하지 않구려　臺上應無石磵翁

경포 호수는 둘레가 삼 십리에 달했으며 거울처럼 맑아 '경호鏡湖', '감호鑑湖', '경포개'라고도 불렀다. 깊이 또한 어깨에 미치지 않은 '군자호君子湖(어진개)로 비천비심非淺非深의 군자적 풍모를 지닌 것으로 평했다. 경포대에서 바다와 호수를 바라 본 안축安軸(1282~1348)은 "먼 곳의 물은 푸르고 넓은 바다가 끝없이 넘실대어 연무 같은 물결이 산처럼 높고, 가까운 곳의 물은 경포호수가 맑고 깨끗하여 맑고 깨끗하여 바람 따라 물결을 일으키며 찰랑거린다."고 하였다.

이처럼 경포대는 시서화의 주요대상으로 산수유상을 하는 이로 하여금 담담한 분위기와 무한한 사유의 세계로 이끄는 매력을 자아내는 명승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경포대 '누정시'는 관인으로 생활했던 사람, 치사致仕후 처사處士로 생활한 사람, 야인野人을 포함한 기타의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1653~1722)도 경호의 홍장고사를 인용한 누정시를 남겼다.

경포호수 둘레는 삼 십리로서　鏡湖三十里
물 깊이 어깨에 미치지 않네　深不沒人肩
그 옛날 홍장이 머문 이 호수　紅粧舊臨水
자취와 풍류가 아직 남았구려　片石尙風流

이처럼 둘레가 삼십 리였던 강릉 경포 호수는 300년 전 조선 영조 때 실학자 이중환(1690~?)의 『택리지擇里志』에 장자못 전설이 전한다. 경포 장자못 전설은 승려등장, 인분人糞뿌림, 금기제시, 가족수몰, 가족석화石化, 지명유래, 적곡조개 등의 화소가 나타난다. 이중환은 "세상에 전해오는 말에 호수는 옛날 부유한 사람이 살던 곳이라 한다. 하루는 중이 쌀을 구걸하였는데 그 사람이 똥을 퍼주었더니 살던 곳이 갑자기 빠져 내려서 호수가 되고 쌓여 있던 곡식은 모두 작은 조개로 화하였다고 한다. 매년 흉년이 되면 조개가 많이 나고 풍년이 들면 적게 나는데 맛이 달고 향긋하여 요기할 만하므로 지방 사람들이 적곡積穀조개라 한다."고 기록했다.

교산 허균도 『도문대작屠門大嚼』에서 "제곡齊穀은 작은 조개로 껍질이 자색이다. 경포에 있는데 흉년에는 이것을 먹으면 굶주림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곡식과 같다는 뜻에서 제곡이라 하였다."는 기록을 남겼다. 이밖에도 조선 영조 병인년(1746)에 강릉부사 조적명趙迪命이 배에다 여러 색으로 그림을 그리고 배 이름을 경포화방鏡浦畵舫이라 하고 시를 지어 함께 걸었다는 기록도 있는데, 경포 호수에는 적곡(제곡)조개 유래, 장자못 전설이야기로 전승되는 시루봉과 할미바위 등과 함께 아름다운 홍장암 전설이 전하고 있다. 홍장설화의 등장인물을 다음과 같다.

박신朴信(1362~1444)은 고려 말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운봉雲峰, 자는 경부敬夫, 호를 설봉雪峰, 시호는 혜숙惠肅이라 했으며 정몽주 밑에서 수학하였다. 1385년(우왕 11) 문과에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 사헌규정司憲糾正이 되었다가

예조・형조정랑에 승진되었다. 조선왕조 개국공신으로 1392년(태조 즉위년)에 원종공신原從功臣에 봉상시소경이 되었으며, 이듬해인 1393년 교주강릉도안렴사交州江陵道按廉使 등을 역임하고, 호조・병조・이조판서 등을 지냈다. 1400년 태종이 즉위하자 승추부좌승지로 발탁되었고 1404년 개성유후, 한성부윤을 역임하였다. 한때 대사헌이 되어 언사로써 왕의 비위에 거슬려 아주현에 귀양 가기도 하였다. 1418년 세종이 즉위하자 다시 이조판서가 되었으나, 선공감제조로 있을 때 선공감 관리가 저지른 부정사건에 연루되어 13년 동안 통지현에 유배되었다가 1432년에 풀려났다.

박신은 그의 나이 31세 때인 1393년(태조 2) 안렴사로 관동지역을 순시하면서 강릉에 이르러 포은 정몽주 밑에서 동문수학한 당시 61세의 강릉부윤 조운흘을 만났으며 그의 주선으로 경포 호수에서 뱃놀이를 하였다. 이러한 과거의 일을 회상하며 조운흘에게 당시 기억을 잊지 못하는 시 한 수를 보냈다.

조석간 운흘에게 준 혜숙 박신의 시贈趙石磵云仡朴惠肅信

젊었을 때 절을 잡고 관동을 안찰하며 少年持節按關東
경포에서 즐겨 놀았던 일 꿈속에 있네 鏡浦淸遊入夢中
누대 아래 다시 배 띄워 놀 생각하지만 臺下蘭舟思又泛
단장한 기녀가 늙은이 비웃을까 두렵소 却嫌紅粉笑衰翁

조운흘趙云仡(1332~1404)은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본

관은 풍양豊壤이다. 1357년(공민왕 6)에 문과에 급제하여 안동서기가 되고 합문사인을 거쳐 1361년 형부원외랑에 올랐다. 1364년 국자감직강, 삼도안렴사를 지내고 1374년 전법총랑을 사직하고 상주 노음산에서 은거하였다. 1377년(우왕 3) 좌간의대부가 되고 판전교시사로 있다가 1380년 사임하였다. 1388년 전리판서로 기용되고 밀직제학에서 서해도 관찰사로 내려가 왜구를 토벌했다.

1390년(공양왕 2)에 계림부윤이 되었고 1392년 강릉부사로 제수되어 가을 7월에 왔다가 이듬해 사직하고 광주로 내려가 검교정당문학이 되었으나 관직을 떠나 스스로 묘지를 짓고 1404년(태종 4) 73세로 죽었다. 문집 『석간집石磵集』이 있다고 하나 전하지 않고 편서로 『삼한시귀감三韓詩龜鑑』이 있다. 조운흘이 박신을 만난 때는 1393년으로 홍장을 언급한 한시가 『동인시화東人詩話』에 전하고,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牧民心書』에는 조운흘과 기녀에 대한 한 편의 시화가 전한다. 차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신라 성스런 시대의 노인 안상이	新羅聖代老安詳
천년 풍류를 아직 잊지 않았노라	千載風流尙未忘
사신 경포에서 노닌다는 말 듣고	聞說使華遊鏡浦
난주에 차마 홍장 싣지 못하노라	蘭舟不忍載紅粧

한송정과 시가, 그리고 기녀문학은 떼놓을 수 없는데 '홍장'이라는 출중한 기녀에 의해서 신라 때부터 화랑의 순유지로 다도명소인 한송정이 부각되었다. 홍장은 강릉관기로 고

려 말 우왕 때 강원도 안렴사 박신과 아름다운 정화를 남겼다.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에 "홍장고사를 헌ᄉᆞ타 ᄒᆞ리로다"라고 읊을 정도로 후대까지 잘 알려졌다. 이 이야기는 박신이 교주강릉도안렴사를 지내는 동안 동문수학하였던 강릉부사 조운흘(1332~1404)이 일부러 박신을 놀렸던 풍류담이지만 홍장의 시조에 의해 더욱 진실성이 첨가되었다. 만기가 되어 떠난 박신을 그리는 기녀로서의 한계에 부딪치면서 애태웠던 심정은 김수장의 해동가요에 시조로 실렸다.

寒松亭 ᄃᆞᆯ붉은 밤의 鏡浦臺의 물결잔 제
有信ᄒᆞᆫ 白鷗는 오락가락 ᄒᆞ것만은
엇덧타 우리의 王孫은 가고 안이 오는 이

이 시조는 김수장의 『해동가요海東歌謠』에 홍장의 작품으로 기록되어 있고 『가곡원류歌曲源流』에는 강릉기江陵妓라 하고 종장도 아래와 같이 다르다.

寒松亭 달밝은 밤에 경포대에 물결잔 제
유신ᄒᆞᆫ 백구는 오락가락 하건마는
엇지ᄐᆞ 우리의 왕손은 귀불귀는 ᄒᆞ는고

상기 시조는 박신을 그리워하는 홍장의 심사가 잘 표현되었다. 특히 중장의 '유신有信'은 박신朴信을 지칭한 중의적 화법으로 「한송정곡」의 인용으로 보이고 종장이 첨가되어 백구처럼 왕손도 다시 돌아와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신의를

지킬 것으로 믿는 홍장 자신의 신념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임의 이름을 불러 은유적으로 표출한 기교 넘친 표현이다. 백구가 오락가락 한다는 의태어는 왕유王維의 '귀불귀歸不歸'와 한송정곡의 '내우거來又去'와 연계되어 있다.

즉『고려사高麗史』악지에 전하는 장연우의「한송정곡」인 "월백한송야月白寒松夜 파안경포추波安鏡浦秋 애명래우거哀鳴來又去 유신일사구有信一沙鷗"라는 5언 절구시에다 종장을 더 넣어 시조로 재창작한 홍장의 문학성을 엿볼 수 있다.

> 세상에 전해지기는 이 노래는 슬瑟 밑바닥에 쓰여져 강남에까지 흘러갔으나 강남사람들이 그 가사의 뜻을 풀지 못했다. 광종조에 국인 장진공張晉公이 사명을 받들고 강남에 갔었는데 강남 사람들이 그에게 가사의 뜻을 물었다. 진공이 시를 지어 노래의 뜻을 풀이하였다. '달빛 밝은 한송의 밤, 물결 가라앉은 경포의 가을, 슬프게 왔다가는 또 가버리는, 소식 지닌 한 마리의 갈매기'
>
> 『高麗史』卷七十二,「志 第二十五, 樂二, 寒松亭.

홍장의 시조는 장연우의 한시를 원용하면서 시에 사랑하는 임의 이름을 삽입하는 기법으로 주제를 드러내는 효과를 얻고 있으며, 당대 사대부들이 기녀에게 써주었던 증기시贈妓詩의 한 양식으로도 볼 수 있다. 홍장의「한송정」시조는 사설시조로도 불려『진본 청구영언』에 실려 있다.

> 寒松亭 자긴 솔 버혀 죠고만 배 무어ᄐᆞ고

술이라 안쥬 거믄고 伽倻ㅅ고 奚琴 琵琶 笛 觱篥 杖鼓 舞鼓 工人과 安岩山 ᄎᆞ돌 一番

부쇠 나젼대 귀지삼이 江陵女妓 三陟쥬탕년 다 몰속 싯고

ᄃᆞᆯ ᄇᆞᆯ근 밤의 鏡浦臺에 가셔

大醉코 扣拙乘流ᄒᆞ여 叢石亭 金蘭窟과 永郎湖 仙遊潭에

任去來를 ᄒᆞ리라

이 사설시조에 나오는 한송정 솔과 경포대 달, 그리고 강릉 여기江陵女妓 등은 홍장의 시조와 밀접함을 알 수 있고, 후에 강릉민요 경포팔경 뿐만 아니라 경기민요 노랫가락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한송사 솔을 베어 조그맣게 배를 모아

술렁술렁 배밀어라 강릉 경포대 달마중 가자

에라 만세

저 건너 갈비봉(대관령)

안개 구름에 비 묻었네

우장쓰고서 김메러 갈가나

한송정 달밝으니 밤은 다시 고요하고

경포대 물결잘제 가을 더욱 맑아있네

백로는 무슨일로 슬피울며 오락가락

홍장의 시조로 다시 태어난 「한송정곡」은 고려 광종 때 사람인 장연우張延祐(?~1016, 일명 張晉公, 張晉山)의 한역에 도움을

받았다. 장연우는 나말여초의 상질현인으로 신라 말 부친 장유張儒를 따라 중국에 피난 갔다가 그곳에서 중국어를 배운 후 귀국하여 중국 사신이 오면 매양 접대하였는데 광종(949~975)때 중국 사신으로 가서 거문고 밑에 쓰인 가사를 한역한 것이 지금 전하는 「한송정곡」 한사다.

장연우는 흥덕장씨興德張氏의 시조로서 부친이 신라 말에 난을 피해 오월吳越(5대 71년, 908~978)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전씨錢氏에게 화어華語를 배웠다고 한다. 장연우에 의해 되살아난 원전 「한송정곡」은 처음에 신라 향가로서 불러졌을 가능성이 크다. 소위 동곡이조同曲異調로 신라 때는 향가, 고려 때는 한시, 조선조에는 기녀 홍장의 시조로, 그 이후는 민요로 다시 불렸다. 기녀로서 문학성을 발휘한 예는 황진이 등이 있으나 홍장은 한 편 시조를 남겼다.

이와 같이 홍장의 시조에 등장하는 한송정은 신라 때 사선이 차를 마시며 놀던 곳으로 화랑 무리 3천명이 소나무를 각자 한 그루를 심었다고 전하는 강릉팔경의 하나다. 그 경치가 아름다워 많은 관리들이 몰려들어 민폐가 심하자 고을 사람들이 "한송정을 어느 날 호랑이가 와서 물어갔으면…"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강릉지역에는 관동팔경에 들어가는 경포대 뿐 아니라 강릉팔영, 임영팔경 등 지역의 명승을 여덟 가지로 한정하여 그 정수를 정하였다.

홍장이야기, 강릉문화로 꽃피다

홍장설화는 경포 호수에서 뱃놀이하던 관원과 기녀의 사랑이야기가 핵심이다. 고려 말 실존 인물들의 정화情話와 함께 기

녀시조인 「한송정곡」이 불리고, 이들의 조금 야단스런 사랑의 이야기도 오랫동안 전해내려 왔다. 홍장설화는 홍장과 박신의 인물전설 그리고 연기설화緣起說話로 홍장암 지명암석전설이 기본적 구조다. 홍장과 박신 그리고 조운흘이라는 인물이 거짓으로 속고 속이는 방식을 통해 만남과 헤어짐, 그리움의 농도를 짙게 하였다.

홍장고사로 불리는 이 설화는 1393년 교주강릉도 안찰사였던 박신이 관동지역 순시차 강릉에 와서 홍장을 만나면서 전개되는데, 이들 사이에 강릉부사 조운흘을 개입하여 두 사람의 만남을 돈독하게 하였다. 즉 만남과 헤어짐에 있어서, 홍장이 선거仙去했다고 속여서 재상봉의 기쁨을 배가한 것이다.

이 설화는 홍장암을 배경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라 때부터 다도의 명승으로 알려진 한송정을 함께 노래하고 있다. 경포주변은 선사유물과 주거지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유적지며 신라화랑이 가장 많이 찾았던 명소다. 그리고 주변에는 3~4백년 된 건물인 선교장, 방해정, 해운정을 비롯하여 아름다운 13개의 누정이 자리 잡고 있어 선비문학의 산실이자 이른바 경포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

홍장의 시조 「한송정」은 고려 광종 때 중국 강남에 사신으로 갔던 장연우張延祐가 한역한 고려사 악지의 「한송정곡」을 시조로 환골탈태한 증관시贈官詩였다. 따라서 홍장설화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실명담으로 경포호를 배경으로 하면서 자연과 사람의 환상적 만남을 그려내고 있다. 산자수명한 자연에 걸 맞는 사랑이야기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설화는 홍장야우紅粧夜雨 밤비와 환선취적喚仙吹笛의 피리소리 그리고 『고려사』 악지에 한시로 전하는 「한송정곡」을 환골탈태하여 한 편의 아름다운 시조창으로 재창작한 홍장의 문학성이 합쳐진 이야기로 평가할 수 있다. 서거정에 의해 처음 기록된 홍장설화는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옮겨 가면서 몇 차례 문헌에 채록되었다. 이에 따라 서술내용이 풍부해졌고, 한시도 몇 수 창작되고 시조창으로 불리면서 박신과 홍장이야기는 관원과 기녀의 대표적 사랑이야기로 주목을 받았다. 자칫 평범한 기생이야기가 강릉부사 조운흘에 의해 한 편의 연극적 사랑놀이로 재탄생했다고 하겠다. 홍장설화는 자연의 아름다운과 함께 펼쳐진 예기藝妓의 순수한 마음, 그리고 관원의 감흥을 한 편의 구비문학적 구술상관물口述相關物로 펼쳐놓았다.

현재 강릉경포호변에는 홍장공원이 조성되었다. 고려 말 강릉기녀와 관련된 홍장고사의 유래와 이야기 전개를 돕는 조각 작품을 만들어 놓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이곳은 경포 호수와 홍장암, 경포팔경 홍장야우의 고사가 어우러진 명소가 되었다. 홍장설화를 강릉 사투리로 극화한 〈홍장홍장〉 연극공연이 이루어지는 등 구전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다.



홍장암 사진 : 장정룡 제공



홍장고사 기념상 사진 : 장정룡 제공

12.
초당두부

무형유산 범주

- 구분 : 강릉 비지정무형유산
- 영역 :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무형유산 내용

- 두부가 없었다면 어떻게 모진 세월을 살아냈을까
- 우리 식당 두부는 이렇게 맹금니다!
- 초당 : 소나무 그늘아래 두부가 익는 마을

모락모락 김이 올라온다. 깔끔하고 고소한 냄새가 함께 풍긴다. 소박한 앉은뱅이 상위에 놓인 두부 한 모. 묵은지 한 접시, 그리고 종지에 반쯤 담긴 양념간장. 잘 썰어놓은 하얀 두부는 네모 반듯반듯, 잘 보면 두부 표면에 살짝살짝 뚫린

작은 구멍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매끈하다. 썰어놓은 상태에서도 느껴지는 탄력감에 자신도 모르게 슬쩍 손가락을 대본다. 건드려보면 탱글탱글, "뭐 찰랑한기 애기 엉덩이 같지요!" 할머니의 말이 생각난다. 젓가락으로 한 조각 집어 올린다. 몇 번 씹지도 않은 것 같은데 부드럽게 입안에서 녹아버린다. 알싸하게 시큼한 묵은지 한 조각에 싸먹으면 고소함이 더욱 진하게 느껴진다. 바로 초당두부의 맛이다.

하지만 초당두부의 참맛은 초두부에 있다. 초두부는 첫두부初豆腐라는 한자용어에서 나왔다고 한다. 가마솥에서 처음 뜨는 두부를 초두부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 소나무 사이사이 편안하게 들어앉은 초당의 식당들은 저마다 분주하게 두부를 만든다. 밤새 불려놓은 콩을 갈고 거름천 위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서 콩물을 내린다. 큰 무쇠 솥에서 콩물을 한번 끓인 후 강문에서 퍼온 바닷물을 조심스레 붓는

강릉 초당두부



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가운데부터 몽글몽글 뭉치는 두부. 이걸 조심스럽게 바가지로 뜨면 곧 초두부이다. 너무나 부드러워서 입에 넣자마자 스스로 녹아버리는 초두부. 아직 따뜻한 초두부는 바닷물 덕분인지 특별히 간을 하지 않아도 딱 먹기 좋다.

이제 초당두부는 우리나라 두부의 대명사가 되었다. 초당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초당두부는 아는 사람이 많으니 최근에 와서 초당은 두부를 통해 존재감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초당은 마을의 역사와 경관이 남다른 곳이다. 동해바다와 경포호수를 곁에 두고 하늘 높이 솟은 푸른 솔밭 속에 편안하게 자리 잡은 마을. 초당사람들은 스스로 '일 강릉 일 초당'이라고 자랑한다. 강원도에서 제일 좋은 곳이 강릉이고, 강릉에서 제일 좋은 곳이 초당이라는 뜻이다. 자랑의 근원은 초당이 강릉에서 사람이 가장 먼저 살기 시작한 마을이라는데 있다. 6천5백 년 전 신석기시대부터 사람이 살았으니 풍요로운 고장임에 틀림없다. 그 후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이 살아온 흔적이 켜켜이 쌓여있어 지금도 집을 지으려고 땅을 파면 신석기시대 집자리가 발견되고 다양한 유물이 나오곤 한다. 경포팔경에도 초당이 빠지지 않는다. '초당취연草堂炊煙'은 초당마을 저녁 무렵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다. 식구가 두런두런 다 함께 모여 저녁이 있는 삶을 가졌던 마을이 바로 초당이었던 것이다. 최근에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지만 초당은 논농사를 주로 하던 농촌으로 전쟁 전까지 2백 집이 넘는 대촌이기도 했다.

두부는 기원전 150년 전후에 한나라 회남왕淮南王 유안劉安

이 처음 만든 것으로 『만필술萬畢術』에 기록되어 있다. 안휘성安徽省 회남시淮南市에는 유안의 무덤이 있고 두부 발상지라고 적힌 비석이 서 있다. 지금도 유안의 생일인 9월 말이면 두부의 종주국이 중국임을 주장하는 두부축제를 성대히 열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중국에서 두부가 전래되었지만 그 시기는 분명하지 않다. 두부가 기록에 처음 등장한 것은 고려 말기 성리학자 이색李穡의 『목은집牧隱集』이다. 「대사구두부내향大舍求豆腐來餉」이라는 제목의 시詩에 "나물죽도 오래 먹으니 맛이 없는데, 두부가 새로운 맛을 돋우어 주어 늙은 몸이 양생하기 더없이 좋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두부가 등장한 것이다. 이런 기록에 따르면 두부는 고려 말기 중국 원元으로부터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두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기는 식품이다. 그 가운데서도 초당두부는 강릉의 대표 음식으로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강릉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미 두부는 대량생산이 되는 식품이지만 초당두부는 각 식당에서 우리 콩으로 바닷물을 사용하여 직접 만드는 두부를 지칭한다. 지금 초당에는 소나무 숲길 사이사이 30여 개의 식당이 영업 중이고 바닷물로 두부를 만드는 두부공장이 하나 있다. 마을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초당두부의 내력담, 초당두부의 제조과정, 그리고 초당두부의 전통을 지키는 토박이의 식당이나 오래 된 식당의 스토리를 조사하여 무형문화유산 내지 관광자원으로서 초당두부의 가능성 등을 타진해본다.

두부가 없었다면 어떻게 모진 세월을 살아냈을까

강릉의 명물 초당두부는 동부승지와 삼척부사를 지낸 허엽(1517~1580)에게서 유래되었다고 전한다. 허균과 난설헌의 아버지인 허엽선생의 호가 바로 초당이다. 허엽은 관청 뜰의 맛좋은 우물물을 길어 두부를 만들었는데 이때 간수 대신 동해바닷물로 콩물을 응고시켰다는 것이다. 허엽이 손수 만든 두부의 맛이 좋다는 소문이 나서 그 후로 강릉사람들이 허엽의 호를 붙여 초당두부라고 불렀다고 전한다. 강릉소나무는 유난히 키가 훤칠하게 크고 멋지다. 지금도 초당의 싱싱한 소나무 숲속에는 허난설헌 생가터가 있어 초당 허엽의 흔적이 남아있다. 사대부가의 관료가 손수 두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사실 신빙성이 약하다. 다만 초당에서 바닷물로 두부를 만들어먹은 전통이 깊었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겠다.

그러나 강릉이라는 지역사회에서 초당두부가 일종의 브랜드와 같은 뚜렷한 이름을 갖게 된 것은 6.25 전쟁이후의 일이다.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던 6.25 전쟁은 우리 민족의 삶을 처참하게 파괴했다. 그 중에서 초당은 가장 잔인한 아픔을 겪은 지역의 하나이다. 굳이 역사를 추적해본다면 몽양 여운형(1886~1947)선생이 초당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친 20세기 초로 올라간다. 선생은 초당의 부호 최용집 씨가 1906년 설립한 초당의숙의 선생으로 초빙되어 학생들을 가르쳤다.[1] 특히 교과목에 영어가 들어있어 일명 영어학교로도 불렀던 초당의

1) 초당의숙에 관련하여서는 여운형선생이 1910년, 또는 1911년 강릉에 왔다는 기록이 많다. 1906년부터 1909년 사이라는 기록은 이규대 교수의 주장이다(강릉초당마을).

숙은 1909년 일제에 의해 폐교되었다. 조선조가 몰락하고 아직 본격적인 식민지통치가 시작되기 직전인 을사보호령 시기에 여운형선생이 초당의 젊은이들을 가르쳤던 것이다. 4년여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초당의 젊은이들이 남다른 구국의식과 민족의식을 고취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해방에 이어 전쟁이 났고 우익과 좌익이 첨예하게 대립한 시대의 갈등 속에서 수많은 초당의 젊은이들이 희생되었다. 곽기섭 노인에 의하면 전쟁당시 초당에는 220호가 살았는데 인명피해가 90명이었다고 한다. 아직도 차마 입을 떼기 어려운 역사의 고난은 고스란히 여자들의 몫으로 남았다.

전쟁으로 가장을 잃은 아낙들은 살 길이 막막했다. 두부는 원래 집집마다 만들어먹던 음식이다. 천일염이 나지 않는 강릉에서는 간수 대신 바닷물을 넣어 두부를 만들어 먹었는데 경제적으로 긴박한 상황에 내몰린 초당 아낙들이 두부장사에 뛰어든 것이다. 어쩌면 초당 아낙들의 솜씨가 특별히 좋았던 것도 같다. 누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오로지 살기 위해서 초당의 아낙들은 바닷물을 길어 맛좋은 두부를 만들었고 이를 시장에 팔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20여년 이상 초당에서는 두부 안하는 집이 없다고 할 만큼 두부로 돈을 벌어먹고 살고 자식들을 공부시켰다. 1970년경에는 96집이 두부를 만들어 팔았다고 하니 정말 두 집에 한 집은 두부를 했던 것이다.(곽기섭 담)

그렇지만 정작 두부 장사를 하는 초당 아낙들의 삶은 고단하기 짝이 없었다. 두부를 만들어서 판다는 일은 잠을 잘 시간도 없이 온 식구가 매달려서 일을 해도 하루 두 끼니 먹기

가 바쁜 일상의 반복이었다. 저녁에 물에 담가둔 콩은 새벽까지 불린다. 이르면 새벽 2시부터, 늦어도 4시에는 일어나 맷돌로 불린 콩을 간다. 혼자 갈기 힘드니 자는 아이들을 깨워 고사리 손을 빌 때도 많았다. 한 시간 반 정도는 갈아야 두부 20모 양의 콩을 갈 수 있다. 콩을 가는 동안 무쇠 솥에 물을 끓인다. 무슨 땔감이 있었는가. 함부로 산에 가서 나무를 할 수도 없으니 제재소에서 사온 톱밥과 피죽 몇 개를 넣고 물을 끓인다. 젖은 톱밥은 좀체 불이 붙지 않아서 풍구로 바람을 내야 했다. 부엌은 연기로 자욱하고 갑자기 바람이 내불면 불길이 치솟아 아낙의 머리카락이나 치마를 태우는 때도 적지 않았다. 이럭저럭 간 콩에 끓는 물을 부어 콩물을 내리면 다시 한 번 솥에 넣고 끓인다. 그리고 바닷물을 부어 마침내 초두부가 완성되면 이제 틀에 넣고 모두부를 만들어야 한다. 두부를 만드는 과정은 단순하지만 콩물을 끓이거나 바닷물을 넣는 시간, 넣는 방법 등 미묘한 순간포착이 중요하여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해야 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두부를 만들면 오전이 다 간다. 이제 더 중요한 일이 남았다. 두부를 팔아서 돈을 버는 일이다. 강릉에 버스가 들어온 것은 1960년 이후였다. 초당에서 중앙시장까지는 걸어서 4킬로미터가 넘는다. 한 시간 이상 거리. 점심을 든든히 먹은 아낙은 두부함지박을 머리에 이고 길을 나선다. 겨울이면 고무신에 새끼줄을 동여매어 미끄러지는 것을 막아야 했다. 버스가 다닐 때는 모두부는 머리에 이고 손에는 초두부가 담긴 양동이까지 들고 그렇게 시장에 나가 두부를 팔았다. 중앙시장에는 초당두부 파는 아낙들이 쪼르르 앉아서 장사를

했다. 20모를 다 파는 것은 쉽지 않았다. 도저히 팔리지 않는 날은 물물교환을 할 때도 있었다. 어쨌든 두부를 팔아야 그 돈으로 다시 콩을 사고 땟거리를 장만하며 제재소에 들려 톱밥을 사올 수 있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도 머리에 인 짐이 만만치 않았다. 콩에 쌀에 톱밥까지 머리에 이고 골이 빠개지도록, 자라목이 되어 걸어서 다시 집에 오면 한밤중일 때가 많았다.

전쟁이후 두부를 만들어 중앙시장에 팔던 할머니들은 이제 대부분 사망했다. 현재 만날 수 있는 노인들은 팔순이 넘었지만 1960년대부터 두부를 만들어 팔았다고 한다. 하지만 선대의 고통도 본인이 겪은 일인 양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몇 분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1) 권영애(여, 83세, 고부순두부)

권영애 할머니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9살에 해방을 맞이했다. 14살에 전쟁이 났다. 어려서 돌림병으로 부모를 여의고 큰어머니 손에서 자라 21살에 시집을 왔다. 시아버지 대부터 초당에 살았던 집안인데 남편은 농사를 지었다. 시집을 온 후에 시어머니가 두부를 만들어 팔았다. 아들이 농사지은 콩으로 두부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여유가 있었지만 두부는 큰돈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촛물과 비지로 키운 소로 목돈을 벌었다. 맷돌로 콩을 갈아서 두부를 만들어 중앙시장에 내다 팔았다. 보통 하루에 20모씩 팔았다. 나중에 버스가 다니면서부터는 양동이에 초두부를 넣어가서 함께 팔았다.

콩 7되 정도를 불리면 두부 20모가 나온다. 저녁에 콩을 불려놓고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갈았다. 제일 힘든 일이 바로 맷돌로 콩을 가는 것이다. 매일 새벽 시어머니와 앉아서 한 시간 정도 갈았다. 콩은 확 퍼드러지게 통통하게 퍼지면 잘 불린 것이다. 콩을 거품이 날 때까지 두면 두부가 쉰다. 날씨에 따라 콩 불리는 시간이 달라지는데 시간 맞추는 것이 어렵다. 약간 덜 분 것은 괜찮아도 너무 불면 냄새가 난다.

당시는 물을 끓일 땔감을 구하는 것이 어려웠다. 나무가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이 많았다. 초당 허균생가 앞쪽에 산이 있어서 일본사람들이 아카시아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함부로 갈 수 없었다. 그래서 톱밥을 섞어서 불을 땠다. 권영애 할머니 집은 농사를 지으니까 남작이라고 맛좋은 감자를 한 가마니 옥천동에 있는 사촌언니네 강릉제재소에 가져다주고 톱밥을 얻어왔다. 피죽을 넣으면 좋지만 비싸서 쓰지 못했다. 톱밥에도 간혹 자잘한 나무 조각이 들어있어서 그런 것을 좀 넣고 풍구질을 하면 확실히 불이 좋았다.

콩을 다 갈면 광목이나 베보자기의 네 귀를 꼭 매어 거름망을 만든다. 거름망 안에 콩을 넣고 가마에서 끓인 물을 부으면서 큰 주걱을 가지고 뒤적거리면서 슬슬 거른다. 다 거르면 꼭꼭 짜서 콩물을 가마에 넣어 또 끓인다. 콩물을 끓일 때는 불의 세기가 중요하다. 너무 세면 콩물이 탄다. 이때 주걱으로 계속 저어준다. 저어주지 않으면 단내가 난다. 어느 정도 올라오는 거 알면 넘지 않도록 신경 쓰고 보고 또 본다. 두부가 끓으면 불을 끄고 폭 덮어 놓는다. 이를 뜸 들인다고 하는데 한 5분 정도 둔다.

뜸을 들인 후에 바닷물 서너바가지 넣고 좀 있다가 서너바가지 또 넣어 주면 기가 막히게 두부가 된다. 아주 예쁘게 된다. 바닷물은 송정 뒤끔에서 떠왔다. 강문 바닷물에는 갯물이 좀 섞여있어서 바닷물을 더 많이 넣어야 한다. 그 갯물이 내려간 곳으로 좀 내려와서 퍼다 하면 두부가 더 잘 된다. 바닷물은 해변가에서 바로 떠도 되고, 파도가 셀 때는 바위 있는 데 가서 떴다. 바닷물을 옹구에 담아서 머리에 이고 온다. 해 본 사람들은 잘 이고 다닌다. 바닷물이 남으면 단지에 부어놓았다.

바닷물을 넣을 때는 세 바가지를 먼저 넣는다. 그리고는 한 5분 덮어놔두는데 그동안 주변 먼지 쓸어내고 청소를 한다. 다시 세 바가지 더 주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적당히 봐서 조금씩 넣는다. 집에서 농사지은 콩으로 만들면 칼랑칼랑하게 맛있게 잘 된다. 구름처럼 하늘하게 응고가 지면 좋다. 바닷물이 좀 싱거워서 많이 주어야 한다. 하지만 바닷물이라고 어느 바닷물이나 다 두부를 만드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옛날 한 해 겨울에 울산에 살다가 온 남자가 두부를 가르쳐달라고 왔다. 한 달 정도 배우고 울산에 가서 바닷물을 퍼서 했는데, 두부가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삼척까지 올라와서 바닷물을 퍼 가니 두부가 되더라고 했다.

바닷물을 세 번 주어 두부가 구름처럼 하늘하게 응고되면 잘 된 것이다. 주걱으로 저어보면 느낌을 안다. 초두부를 뜬 후에 모두부를 만든다. 모두부는 돌로 눌렀다. 모두부는 칼랑칼랑 야들야들한 게 좋다. 너무 딱딱하게 되면 보자기 위가 하미(벌써) 뻣뻣하다. 모두부를 쌀 때는 옥양목보다 곱고 얇은

천이 좋다. 자주 삶아서 이물질이 쏙 빠져야 두부가 예쁘게 나온다. 옛날 할머니들은 잿물로 삶았다. 요즘 콩물 거르는 천은 한복치마 안감을 두 겹으로 쓴다. 세마를 사다가 반으로 접으면 딱 맞다.

두부는 중앙시장에 가서 팔았다. 거의 한 시간 정도 걸어야 한다. 중앙시장 골목에 하수구 물 내려오는 곳이 있었는데 초당사람들은 주로 그 가장자리에 앉아서 두부를 팔게 했다. 남대천 쪽 도랑에 앉아서 팔았는데 지금은 그 도랑이 없어졌다. 초당에서는 20집 정도가 두부를 해서 팔았다. 두부공장이 생기자 개인이 만들어서 파는 것은 불법이라고 단속을 했다. 그래서 공장에서 하루 30모 정도씩 떼어다 몇 번 팔았다. 5백 원에 받아다가 7백 원을 받고 팔았지만 집에서 하는 것보다 못해서 그만두었다. 이제 옛날에 팔던 사람들이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신다. 내가 20대에서 시작해서 83세가 되었다.

식당을 시작한 것은 1996년이다. 며느리와 함께 하는 장사라서 고부순두부라고 지었다. 아무거나 짓자고 하니까 이름이 중요하다고 하여 본인이 지었다면서 웃었다. 처음 식당을 열고는 주로 아침에만 장사를 했다. 초두부만 팔았고 전골은 나중에 시작했다.

2) 김순자(여, 81세)

시집을 와보니 시할머니, 시어머니가 두부를 만들어 시장에 내다팔고 있었다. 시증조 할머니, 시할머니, 시어머니 3대가 과부인 집이었는데 시누이와 시동생까지 6식구가 살고 있었다. 두부는 당시 50세였던 시어머니가 만들었다. 시어머니

는 매일 저녁 콩을 물에 담그고 잤다. 새벽 4시쯤 일어나 맷돌로 콩을 갈고 물을 끓여서 두부를 만들었다. 모두부까지 완성되면 오후 한 두시쯤 된다. 점심을 든든하게 먹은 뒤 시어머니는 두부를 이고 한 시간 이상 걸어서 시장에 나가 두부를 팔았다. 두부가 팔리지 않는 날에는 쌀과 바꾸는 등 물물교환을 하였다. 돌아올 땐 다음 날 두부 만들 콩을 한 말 사고 제재소에 들러서 물 끓일 때 쓸 톱밥을 얻어 머리에 이고 왔다. 집에 오면 이미 한밤중, 열시가 훌쩍 넘곤 했다. 다시 콩을 불릴 시간이었다.

당시 초당은 집집마다 두부를 했다. 집집마다 맷돌에 콩을 갈고 바닷물을 길어 부어서 두부를 만들어 팔고 있었다. 두부 만들 때 제일 힘든 일은 콩을 가는 것이다. 잠자는 아이들을 깨워 붙잡고 두부를 갈았다. 온 식구가 다 함께 갈아도 두세 시간 이상 걸렸다. 김순자는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살림하느라 두부는 좀 늦게 시작했다. 하지만 사는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먹고 살기 힘들어서 김순자 역시 두부 전선에 뛰어들게 되었다.

바닷물은 강문에 가서 바가지로 퍼서 한 동이씩 이고 왔다. 두부를 만드는 과정은 그닥 복잡한 일은 아니다. 먼저 적당히 불린 콩을 갈고 물을 한 가마니 끓인다. 보자기를 달아놓고 콩 위에 물을 부어서 거른다. 콩물은 아래로 떨어지고 위에 남은 것이 바로 비지이다. 거른 콩물을 다시 끓인 뒤에 바닷물을 부으면 뭉실뭉실해지면서 초두부가 된다. 갓 나온 초두부가 가장 맛이 좋다. 모두부를 만들려면 틀 위에 소창보자기를 펴놓고 거기에 두부를 붓는다. 적당한 무게의 돌로 누르면

촛물이 마구 떨어진다. 사방으로 보자기를 당겨서 네모반듯하게 모양을 만들면 예쁜 모두부가 된다. 한 시간 남짓, 어느 정도 다 눌러지면 적당한 크기로 자른다. 이것이 바로 모두부이다. 모두부는 대개 한 판에 20모이고 작은 것은 12모 짜리도 있다.

김순자의 두부인생은 경포대역鏡浦臺驛과 운명을 함께 했다. 영동선의 종착이었던 경포대역은 1962년 11월 6일 문을 열어 1979년 4월 1일에 폐역이 되었다. 이 기간 동안 김순자는 주로 수학여행 학생을 받는 대형여관에 두부와 콩나물, 메밀묵을 대주었다. 두부공장이 생긴 이후에는 공장두부를 배달해줬다. 이문은 적었지만 집에서 하는 두부는 무허가라서 어쩔 수 없었다. 공장두부는 아무래도 맛이 떨어져 시장에서 인기가 없었다. 그래서 초당아낙들은 집에서 두부를 만들었는데 불법으로 곧잘 걸리곤 했다. 시장가는 길목 곳곳에 시청직원들이 나와 있다가 두부를 뺏거나 금을 그어 못쓰게 만들기도 했다. 이 시기를 거쳐 초당에는 식당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3) 김복자(여, 80세)

남편이 병으로 죽은 뒤에 두부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밖에 나가서 돈을 벌려고 하니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웠지만 아이들을 거두는 것도 문제였다. 그래서 두부를 배워 장사를 시작했다. 처음부터 두부를 배운 것은 아니었다. 사실 두부는 소를 키우면서 촛물을 얻으러 다니다가 배우게 되었다. 당시 초당에서는 소를 많이 키웠다. 한 집에서 3마리까지 키웠는

데 먹이는 것이 큰일이었다. 그래서 두부집에 가서 일을 거들어주고 촛물을 얻어오고 싼 값에 사온 비지와 깍지를 섞어서 소여물을 주었다. "나무가 귀하니까 쩔쩔 끓는 촛물을 얻어다가 비지와 사료를 섞어서 소에게 주면 소가 잘 먹어. 간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소가 잘 먹는다구." 촛물은 두부를 응고시킬 때 나오는 물로 뜨겁기 때문에 여물을 다시 끓일 필요가 없어서 연료가 절약되었다. 또한 촛물에는 영양분도 풍부하게 있어서 소가 통통하게 살이 올랐다. "촛물만 얻으려고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내게 촛물 차례가 오나. 그러니 그 집에 가서 일을 거들어 주는 거지. 두부를 눌러도 주고, 보자기로 싸서도 주고, 풀무질도 해 주고, 두부가 끓어 넘는지 봐주고, 두보 보자기도 빨아주고 그래야 촛물 차례가 오지." 이렇게 일을 거들다보니 두부를 배우게 되었다.

70년대 초까지는 맷돌로 콩을 갈았다. 하루에 콩 한 말을 했다. 8되로 두부를 만들면 20모가 마침 맞다. 가장 힘이 드는 일은 맷돌을 돌려 불린 콩을 가는 일이다. 콩을 가는 데만 서너 시간 걸리기 때문에 새벽 2시에 일어나야 한다. 어린 아이들을 시킬 수도 없어서 혼자 죽을 고생을 했다. 아이들이 커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자 비로소 콩 가는 기계가 나왔다.

새벽 4시 버스는 타고 나가야 했다. 사람들이 아침에 두부를 살 수 있도록 첫 차를 타고 나가서 시장에 있는 식료품 가게에 갖다 주었다. 엄마들이 아침 시장을 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 초두부를 갖다 준 것이다. 아침에 두부를 갖다 주고 집에 돌아와 밥 한 술 뜨고, 보자기 빨고 청소 다 한

뒤 두부를 또 만들기 시작했다.

두부밖에 팔 것이 없어서 일을 했지만 두부는 이문이 박했다. 재료값을 빼고 나면 삼분의 일 정도 품삯이 떨어진다. 그 돈으로 다시 콩을 사고 저녁거리를 사려면 남은 돈이 쌀 작은 한 되 값도 채 되지 않았다. 밥을 못 해 먹고 죽을 쒀먹어야 했다. 당시는 두부 팔아서 허연 이밥을 못 먹어봤다. 뿐만 아니라 연료 값도 충당해야 했다. 시장에 갖다 주고 오는 길에 제재소에 들려서 톱밥을 사오곤 했다. 자루를 함께 가져가서 돌아오는 길에는 강릉제재소, 일광제재소, 용강동 구렁다리 제재소 등지에서 톱밥을 받아왔다. 당시에는 난로를 많이 때서 톱밥도 귀했다. 머리에 인 두부다라이(대야)가 무거워서 목을 오그리고 다녔다.

강릉고 맞은편에 살았는데 자가용이 보편화되면서 집으로 두부를 먹으러 오는 사람들도 생겼다. 새벽에 두부를 하면 사람들이 초두부 먹으러 차를 끌고 집으로 왔다. 혼자 두부를 만들다보니까 집에 사람이 없었다. 사람들이 초두부를 한 대야씩 떠서 먹고 밥을 한 솥씩 해 놓으면, 밥도 먹고 돈은 자리 밑에 넣어두고 가곤했다.

우리 식당 두부는 이렇게 맹금니다!

처음 정식으로 두부를 만들어 판 식당은 초당할머니순두부이다. 경북 영천 출신으로 미군부대에 다니던 남편을 따라 강릉으로 온 박응순 할머니가 1982년 무렵부터 식당을 시작했다. 침례교인이었던 박응순 할머니는 원래 교회 땅을 빌어 이름도 없는 식당을 열었다. 타고난 음식솜씨를 갖췄던 박응순은

친정에서 배운 방식에 바닷물을 넣어 두부를 만들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초당할머니순두부라는 상호도 단골손님들이 지어준 것이다. 그 후 1986년 원조초당순두부가 문을 열었다. 1930년 태어난 조동인 할머니는 전쟁 이후 두부를 만들어 중앙시장에 팔다가 식당을 열었다. 원조초당순두부는 초당 출신이 연 첫 번째 식당이다. 초당 출신이 운영하는 식당으로는 고분옥할머니순두부, 고부순두부, 고향산천, 토담순두부 등이 더 있다. 초당이 두부마을로 이름이 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의 일이다. 자가용이 보편화되면서 초당두부를 먹으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 후 많은 식당들이 생겨 지금과 같은 30여 개에 육박하는 초당두부마을이 형성되었다.

초당의 식당에서 두부를 만드는 방법은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 콩을 씻고 불리고 갈아 콩물을 내린 후 한번 끓인 다음 바닷물을 사용하여 두부를 응고시키는 과정은 비슷하다. 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맛을 좌우하는 법이다. 구체적인 제조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식당마다 다르고 특징이 있다. 초당두부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온 사람들의 삶과 식당의 내력을 알아본다.

1) 초당할머니순두부(김영환)

초당할머니순두부는 본격적으로 초당에서 문을 연 최초의 두부전문 식당이다. 하지만 1982년 처음으로 식당을 시작한 박응순 할머니는 초당사람도, 심지어 강릉사람도 아니었다. 경북 영천 출신으로 결혼 후 만주봉천에 살다가 미군부대에

근무하던 남편을 따라 강릉으로 오게 되었다.

그래서 박응순 할머니 두부의 시작은 초당 고유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원래 타고난 손맛이 뛰어났다. 옛날에는 집집마다 제사 때 두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친정에서 익힌 솜씨에 초당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바닷물로 만드는 기술을 더하여 지금의 초당할머니순두부가 탄생한 것이다. 처음에는 상호도 없었다. 그냥 두부 파는 집이라는 의미에서 식당에 '순두부'라고 써놓았다. 그 후 잠시 초원식당이었다가 초당휴게실로 바뀌었다가 손님 중에 유식한 분이 조언을 해서 초당할머니순두부가 되었다고 한다. 초당할머니순두부로 식당이 등록된 것은 1986년 무렵이다.

박응순 할머니는 침례교인이어서 침례교회 땅을 빌어 두부를 팔았다. 그래서 초당할머니순두부는 초창기에 술을 팔지 않는 식당으로 유명했었다. 식당은 작았지만 앞의 솔밭이 좋았다. 손님들이 솔밭에서 두부를 먹었는데 솔밭 보호정책으로 금하자 식당을 옮기게 되었다. 현재 식당은 세 번째로 확장, 옮긴 장소이다. 초당할머니순두부는 초당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도 하루 평균 두 가마 정도의 콩을 사용하는 장사가 잘되는 식당 중 하나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두부를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아들 김영환 사장은 뒤늦게 어머니 일을 거들기 위해서 강릉으로 와 성공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콩은 직접 구매하지 않는다. 20년 단골 홍제상회가 대행하는데 철원, 연천 등에서 수매한 콩을 저온창고에 보관하였다가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쓴다. 콩은 작은 것이 좋다. 작은 콩이 고소하고 단맛이 더 나며 양도 많이 나오는 것 같다.

두부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일은 콩을 불리는 것이다. 콩을 불리는 것이 맛을 결정하는 제일 요소이다. 적정시간을 불려야 한다. 시간을 넘기면 맛이 빠져나가고 양도 줄어든다. 덜 불어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덜 불리는 것보다 더 불리는 것이 가장 좋지 않다. 제대로 불었는지 여부는 콩을 까봐야 안다. 갈라보면 콩 씨앗의 핵이라는 부분이 옆에 있는 자엽 부분과 색깔이 같아질 때가 있다, 진한 노란색이었다가 점점 희석이 되면서 색깔이 같아질 때가 적정타임이다. 그런데 콩을 불리는 시간은 수온에 따라서 달라진다. 한겨울 물이 찰 때는 40시간 이상 불린 적도 있었다. 최근에는 계속 데이터를 수집하여 적정시간을 맞춘다. 한여름에는 10시간 30분 정도 불린다.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12시간, 16시간, 20시간 불리고, 24시간 불려야 될 때가 있다. 모두 수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콩을 잘못 불렸을 경우에는 나중에 바닷물을 넣을 때 절반만 들어가도 전부 엉긴다. 맛도 다를 뿐 아니라 양도 준다. 그래서 콩 불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잘 불린 콩은 맷돌로 갈았다. 요즘은 맷돌의 원리를 따른 파쇄기가 있어서 그걸 사용한다. 전에는 가마솥에 물을 끓여서 걸러서 콩물을 받아낸 후 다시 끓였는데, 요즘 기계는 갈면서 동시에 콩물이 빠져나온다. 콩물은 '샤'라는 천으로 거른다. 흔히 '통샤'라고 부르는데 통으로 되어있다는 뜻이고 천의 이름은 '샤'이다. '샤'는 두 겹으로 사용한다. 거른 콩물은 다시 끓이는데 이때 주걱으로 저어야 타지 않는다. 저으면

서 적당할 때 불을 끄는 것이다. 어느 온도에서 불을 꺼야할지가 관건이다. 1도만 차이가 나도 순두부가 안 될 수 있다. 전에는 이것을 감각으로 했다. 물이 끓을 때 물방울이 올 때와 같을 느낌이 있는데 바로 불을 끄는 것이다. 주걱도 빳빳하여 감각이 그대로 전달되는 북미산 미송으로 만들어서 저었다. 그렇지만 요즘은 굳이 저을 필요가 없다. 적외선 온도계로 찍어서 표면 온도가 88도 정도 되면 불을 끄기 때문이다.

이제 끓은 콩물에 바닷물을 넣을 차례이다. 바닷물은 콩물의 15~20%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바닷물이 적게 들어가면 덜 엉기고 두부가 제 모양을 이루지 못한다. 반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두부가 돌덩어리처럼 딱딱해진다. 적정량의 바닷물을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넣는다. 천천히 반 정도 넣어주고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응고 상태를 보면서 5분 간격으로 조금씩 보충해준다. 바닷물 넣어 응고시키는 시간은 30분 정도 걸린다. 바닷물은 가장자리부터 붓는다. 가마솥이 크기 때문에 엉기는 속도가 같을 수 없다. 잘못하면 위는 딱딱해지고 밑은 부드러워서 한 시간 이상 걸러도 두부가 성형이 안 된다.

두부가 엉기면서 생기는 촛물은 용도가 많다. 여름이면 순두부가 금방 쉬어버린다. 이때 촛물을 바꿔주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 설거지할 때도 이보다 좋은 세제가 없다. 머리감을 때나 동상에 좋다고 촛물을 얻으러 오는 사람도 있다. 바닷물을 준 후에 거품을 걷어내면서 기다리는데 이를 뜸 들인다고 한다.

처음 나오는 두부가 바로 요즘 순두부라고 부르는 초두부

이다. 나무틀에 천을 싼 다음 순두부를 넣고 천을 덮고 나무 뚜껑 덮고 무거운 것으로 눌러서 물기를 빼면 그게 모두부다. 초두부 한통으로 두부를 만들면 9모 밖에 안 나온다. 순두부 한 통이 50인분인데, 50인분 순두부를 압축해야 두부가 9모 나온다. 모두부가 가장 맛난 정도는 손으로 눌러서 확인해 볼 수밖에 없다. 약간 찰랑찰랑한 느낌이다. 아기 궁둥이 살을 두드린다 생각하면 된다. 너무 몰랑몰랑하게 되면 틀을 뺄 때 두부가 넘어져버린다. 일반적으로는 30분 정도 누르지만 모두부를 부드럽게 먹으려면 50분 정도 눌러야 한다. 가벼운 무게로 오랜 시간 누르고 있으면 물기가 조금 덜 빠진 상태에 식감이 부드럽다. 모두부가 완성되면 바로 찬물에 넣는다. 금방 상하기 때문이다. 찬물에 담갔다가 손님에게 대접할 때는 촛물에 데운다.

초당할머니순두부의 주 메뉴는 초두부와 째복순두부이다. 째복순두부는 김영환 사장의 처가 개발했다고 한다. 박응순 할머니와 아들 김영환의 대를 이어 현재는 막내아들 김영훈(1986년생)이 두부를 만들고 있다. 3대를 내려가는 셈이다.

2) 동화가든(안송자, 우승원)

동화가든은 요즘 짬뽕순두부로 유명하다. 하지만 동화가든의 시작은 돼지갈비 식당이었다. 안송자(여, 67세) 씨가 25년 전쯤 초당에 연 동화가든은 돼지갈비를 파는 식당이었고 그래서 식당이름에도 가든을 넣었던 것이다. 안송자는 충북 출신으로 영월에서 성장했다. 결혼 후에 한전 다니는 남편을 따라 강릉으로 왔다. 원래 양식당을 하다가 초당으로 들어왔

는데 식당이 초당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침에는 두부를 팔았다. 두부는 친정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셨다. 동화가든이 본격적으로 두부에 승부를 건 것은 10여 년 전의 일이다. 2003년 12월에 광우병으로 미국 소고기 파동이 나면서 점차 고기를 포기하게 되었다. 사위 우승원은 대구에서 사업을 하다가 장모의 부탁으로 20여 년 전부터 함께 동화가든을 운영하고 있다.

두부를 만드는 콩은 작은 메주콩이 좋다. 알갱이가 작아야 구수하다. 청국장 만들 때도 좋고 두부 만들 때도 좋다. 강릉 지역 콩보다 석회성분이 많은 지역의 것이 낫다. 삼척이나 제천도 괜찮고, 그 중에서 충청도 단양 콩이 제일 좋다고 여겨서 요즘은 단양 보발리의 콩을 쓴다.

콩을 불리는 시간은 여름에는 10시간에서 12시간, 겨울에는 하루 이상 불려야 한다. 아주 추우면 하루 반나절 정도 걸린다. 콩은 맷돌이 들어있는 전자동 기계를 사용하여 가는데 콩과 물의 비율을 2대 1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콩물은 삼베로 거른다. 두 장을 겹쳐야 찢어지지 않고, 너무 촘촘하면 물이 빠지는 속도가 느리다. 콩물을 내린 후 끓이기 위해서 가마솥에 부을 때 체를 받쳐서 부으면 입자가 고와진다. 콩물을 가마솥에 넣어서 40분 정도 끓인다. 콩물은 처음에 중불에 끓인다. 약한 불로 시작하면 두부가 삭는다. 한번 거품이 올라오면 약한 불로 조절한다. 불이 세면 밑이 눋기 때문이다. 그런 후에 뜸을 들인다. 콩물이 너무 뜨거우면 바닷물이 잘 안 먹고 맛도 없다. 끓는 온도에서 5도 내지 10도 정도를 내린 후에 바닷물을 넣는다. 바닷물을 넣는

온도가 너무 뜨겁다고 두부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식히면서 한 5분 정도 뜸을 들이면 좋다.

동화가든은 두부공장이 사용하는 바닷물을 쓴다. 공장에서는 심해에서 바닷물을 끌어오고 정수기로 여과하기 때문에 가장 깨끗하다고 생각한다. 바닷물을 넣을 때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처음부터 많이 주면 안 되고 너무 늦게 주면 식어버리고 유막도 많이 낀다.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은 경험이다. 바닷물은 3회에 걸쳐서 한 5분 정도씩 간격을 주면 좋다. 처음에 한 50~60퍼센트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나눠서 주는데 경험이 필요하다. 바닷물을 다 넣으면 초두부가 된다. 초두부에서 촛물을 걷어낸다. 두부는 내려가고 촛물은 뜨는데 두부 높이까지 촛물을 걷어낸다. 촛물은 미용에 좋고 머리 감을 때도 좋다. 또한 기가 막힌 육수 역할을 하여 두부전골이나 비지를 끓일 때 넣으면 맛이 좋다. 비지찌개는 따로 육수를 만들지 않는다. 촛물이 최고의 육수이기 때문이다.

초두부를 틀에 넣어서 모두부를 만든다. 누를 때는 돌멩이를 썼지만 사실 누르는 무게만 되면 아무 것이나 되는 것이니까 사각 통에 물을 넣어서 누르기도 한다. 처음에는 무겁게 누르다가 나중에 물을 좀 덜어서 가볍게 누른다. 돌은 하나씩 빼기도 했다. 어느 정도가 좋은지는 두부의 탄력으로 안다. 베보자기에 넣어서 하는데 두드려보면 탄력감이 느껴진다. 탁 칠 때 탱글탱글 들어갔다가 튀어나오는 느낌이랄까. 모두부는 자른 뒤에 곧장 물에 넣는다. 두부는 금방 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물에 담그지 않으면 쪼그라든다. 손님에게 내놓을 때는 촛물에 한

번 더 데워서 대접한다.

동화가든이 유명해진 것은 2013년 무렵에 시작한 짬순이, 즉 짬뽕순두부가 소위 대박을 쳤기 때문이다. 풍부한 해물과 매운 불 맛이 중독성 있는 짬뽕순두부 덕분에 동화가든에는 손님이 일 년 내내 끊이지 않는다. 또한 짬뽕순두부의 성공은 초당두부의 다양한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10년 전부터 동화가든은 초당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을 했다. 초당은 아침 순두부를 파는 것이 주업인데 해장국집이 늘어나면서 손님이 줄고 있었다. 초당두부 식당은 아침 일찍 문을 열기 때문에 대부분 저녁 장사를 하지 않는다. 아침·점심장사로는 수지를 맞추기 어려웠다. 동화가든은 두부를 바탕으로 한국인이 좋아하는 건강한 맛, 여자들이 좋아하는 맛을 집중적으로 찾아 마침내 짬뽕순두부를 만들게 되었다. 짬뽕순두부 개발에는 약 2년이 걸렸다. 7백도 이상으로 짬뽕국물을 끓이기 때문에 일반 순두부를 넣으면 흩어지고 만다. 그래서 강한 짬뽕국물과 단단한 순두부를 만들어야 했다. 짬뽕순두부에 들어가는 두부는 바닷물을 치는 방법이 초두부와 다르다고 한다. 현재 동화가든은 가장 성공한 식당에 속한다. 처음엔 315평으로 시작했는데 주변의 땅을 사들여서 지금은 9백 평이 넘는 규모를 자랑한다.

동화가든 역시 대를 물리는 식당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현재 우사장의 아들 우철우(27살, 대학생) 씨가 수업을 받는 중이다. 머지않아 3대가 함께 일하는 식당이 될 것이다.

3) 고부순두부(권영애, 김영미, 곽종욱)

고부순두부는 초당 토박이인 곽영탁 씨의 며느리 김영미(여, 1960년생)가 1996년 시어머니 권영애와 함께 시작한 식당이다. 남편이 IMF로 직장을 그만 두게 되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게 되었다. 하지만 곽씨 집안의 여인들이 두부 장사를 한 역사는 길다. 강칠용 시할머니가 시어머니 권영애를 데리고 두부 장사를 했다. 뒤늦게 김영미가 식당을 열었고 최근에는 막내아들인 곽종욱(31세)이 두부를 만들고 있다. 곽종욱이 전담하여 두부를 만든 것은 이제 1년 되었다.

김영미가 시집을 왔을 때 시어머니는 집에서 두부를 만들어 시장에 팔고 있었다. 강릉시에서 개인이 두부 만들어 파는 것을 막자 시어머니는 공장두부를 받아다가 중앙시장에 팔았다. 새벽 6시면 버스를 타고 나갔다. 집에서 만들 때는 두부 20모에 순두부를 조금 떴다. 아침 일찍 나가면 오후 4시나 4시 반쯤 돌아왔다. 김영미는 시어머니가 두부 만드는 것을 지켜봤기에 별 어려움 없이 식당을 할 수 있었다.

처음 식당을 열었을 때는 시골로 직접 다니면서 콩을 수매를 했다. 1년 치를 한꺼번에 사는 일이 쉽지 않았다. 아무래도 남보다 좀 일찍 사니까 채 마르지 않아서 썩는 콩이 너무 많이 나왔다. 고부순두부는 수입 콩을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콩은 월호평동, 금광리, 사천 석교리에서도 샀다. 한때 정선에서도 사다 써봤는데 우리 지역 콩이 더 좋은 것 같다고 한다. 요즘은 시내의 상회에 부탁해서 콩을 구입한다. 콩의 크기는 대두가 좋다. 굵어야 순두부도 더 부드럽게 나온다.

콩을 불리는 시간은 계절에 따라 다르다. 여름에는 전날

저녁에 8~9시간 정도 상온에서 불리고 겨울에는 12시간 정도 걸린다. 여름에 콩을 오래 불리면 거품이 생긴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불린 콩을 소쿠리에 건진다. 그런 뒤 물에 약간씩 넣으면서 기계로 간다. 가는 시간은 10분도 안 걸린다. 하루에 한 말에서 두 말 정도 콩을 사용한다. 콩 한 말에 큰 모두부 20모와 순두부가 조금 나온다.

갈아놓은 콩물 위에 가마솥에 끓인 물을 부으면서 거른다. 두부의 엑기스를 빼내는 일이다. 너무 빨리 빼면 엑기스가 다 안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거른다. 콩물이 다 내려앉으면 가마솥에 넣고 뚜껑을 덮어서 끓인다. 한 번만 팍 끓으면 된다. 콩물이 끓으면 넘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한다. 끓는 게 보이면 불을 끄고 10분 정도 뜸을 들인다. 온도를 낮추는 것이다. 너무 고온에서 바닷물을 주면 두부가 뻣뻣해지기 때문에 주걱으로 저어 수증기를 날려 보내는데 그건 감으로 한다. 괜찮아지면 두 번에 나눠서 고루고루 바닷물을 준다. 처음에 네 바가지, 두 번째 세 바가지 넣고, 상황에 따라 더 첨가할 수도 있다. 바닷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두부가 딱딱해진다. 바닷물을 처음 넣으면 구름처럼 모이는 게 보인다. 두 번으로 나눌 때 시간 간격은 육안으로 확인하지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는 않는다.

두부가 구름처럼 모여 다 되었다고 생각되면 초두부를 뜨고 촛물을 퍼낸다. 촛물은 설거지할 때 쓴다. 촛물로 찌개를 해 보니 거품이 버글버글 일었다. 모두부를 만들 때는 틀에 면보자기를 깔고 초두부를 바가지로 떠 넣는다. 돌로 눌러 물을 빼고 단단하게 만드는데 누르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

다. 모든 건 감으로 해야 한다. 두세 시간 누를 때도 있고, 두 시간 누를 때도 있다. 두부는 천천히 눌러야 맛있다.

모두부를 만들기 전에 초두부를 먼저 남긴다. 모두부는 12모 할 때도 있고, 20모 할 때도 있고 그날에 따라서 다르다. 모두부가 완성되면 12에서 1시쯤까지만 판다. 그 후에는 다시 데워야 하니까 따뜻할 때만 파는 것이다. 대신 두부가 식어도 관계가 없는 전골을 판다. 전골에는 간 돼지고기를 사용한다. 그 외의 반찬도 모두 직접 만든다. 김치, 감자, 고추가 기본 구성이고 다른 반찬은 그때그때 다르다. 고추는 짜지 않으면 보관이 어려워서 많이 짜다. 소금물, 식초, 설탕을 넣어 삭혔다가 꺼내서 된장이랑 무친다. 황태가 생기거나 명절 때 가자미를 사오거나 도루묵이 생기면 밥식혜를 해서 내놓는다. 계절에 따라서 매실장아찌도 한다. 모든 재료는 국산인데 고춧가루는 중국산을 쓴다. 국산이 너무 비싸서 수지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갓 나온 순두부는 정말 맛있다. 아침 순두부는 완전히 계란탕 같은데 그때가 반짝 맛있다. 대개는 손님들이 두부전골을 더 많이 먹는다.

아들 곽종욱은 젊은 사람이지만 어머니보다 원칙을 지키려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어서 바닷물을 줄 때 한번 준 후에 20분 정도 두었다가 다시 준다. 그리고 두부 모양을 보면서 좀 더 줄까 여부를 결정한다. 손님이 와서 기다린다고 해도 그 시간을 절대로 줄이지 않는다. 콩도 훨씬 오래 불렸다. 날씨가 좀 차가워진 10월 중순에는 오후 4시에 불리기 시작했다. 새벽 6시에 콩을 가니까 14시간을 불린 셈이다. 콩은

중간보다 좀 큰 정도의 사이즈를 쓴다. 7시에 불을 끄고는 10여분 이상 뜸을 들인 다음에 바닷물을 준다. 바닷물을 급하게 주면 두부가 미워진다. 즉 딱딱해진다는 것이다. 모두부는 20모를 만드는데 3시간 가까운 시간을 들여 아주 천천히 눌렀다. 그래야 두부가 더 부드럽다고 한다.

4) 토박이할머니 순두부(김규태)

토박이할머니순두부는 3대째 두부를 만드는 집이다. 어릴 때 할머니 이복녀와 어머니 이금자가 두부를 만들어서 팔았다. 아버지 김명덕(1945년생)은 옛날 고모부가 시내에서 두부공장을 했는데 그 영향으로 1976년 초당에 두부공장을 짓고 두부사업에 뛰어들게 되었다. 2006년에 문을 연 토박이할머니순두부는 김규태(1970년생)가 어머니 이금자(1945년생), 처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초당에는 개인적으로 두부를 만들어 파는 할머니들과 공장이 있었다. 가장 오래된 공장은 최돈채 씨가 했다. 성공회 교회 바로 옆집 자리에 있는 창고 같은 건물이 바로 옛날 두부공장이다. 1976년에는 김규태의 아버지 김명덕 씨가 초당으로 들어와 두부공장을 지었다. 아버지가 운영한 두부공장에서 두부를 떼어다가 시장에 파는 초당 아낙들도 많았다. 1976년 당시 강릉에는 두부공장이 6개 있었는데 강릉시가 그걸 조합으로 만들었다. 6개 공장이 모여서 공동으로 만들고 거래처에 판매하고 다 똑같이 분배하는 행정처분이 있었던 같다. 지분도 동일하게 가졌던 것 같다. 부친 김명덕이 그때 제일 젊어서 일을 많이 하게 되었다. 일은 많이 하고 분배는

동일하게 하니까 결국 아버지는 중간에 그만 두었다고 한다. 6개 공장을 합친 두부공장은 용지각 근처 새마을금고 건너편 구길 앞에 있었는데 오래 가지는 못했다. 현재 초당에서는 최선윤 씨가 두부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아버지의 영향인지 김규태는 지금도 두부공장에 대한 꿈이 있다. 식당보다는 손수 만들어서 직접 파는 즉석 판매식 공장을 계획했는데 지금도 그 꿈을 가지고 있다.

콩은 11월에 1년 치를 일괄 수매하여 저장창고에 보관한다. 콩은 굵은 것이 좋지만 실제로는 섞여 있다. 그래서 굵기보다는 윤기가 나고 잘 여물었는지 여부를 보고 콩을 선택한다. 잘 여문 콩이 여름을 지나고 습기를 먹어도 고소하고 맛있다. 콩을 불리는 시간은 날씨와 기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 한여름 열대야 같은 날씨에는 6시간이면 다 분다. 물 온도가 10도 이하가 되어 살얼음이 낄 정도에서는 콩이 불지 않는다. 실온에서 20도 정도면 평균 8시간에서 10시간 사이에 분다. 더울 때 오래 불리면 거품이 생긴다. 거품이 생기면 안 좋고, 거품이 생기기 전이 딱 좋다. 콩을 반 갈랐을 때 덜 불면 안이 좀 더 진하다. 다 불면 색깔이 균일한데 이 시간을 맞춰야 한다.

콩은 물을 넣으면서 조금 질다 싶게 간다. 그래야 콩물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잘 섞인다. 콩물을 거르는 거름망의 천은 '통샤'라고 부르는 한복 속치마감이다. 옛날에는 베를 썼을 것이다. 세 겹으로 쓴다. 거름망을 막대기에 걸어두고 그 안에 갈아둔 콩을 넣는다. 그 위에 가마솥에서 끓인 뜨거운 물을 부으면 밑에 받쳐놓은 그릇으로 콩물이 떨어진다.



초당두부 제작 과정

물을 부으면서 골고루 콩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주걱으로 열심히 저어준다. 그래야 콩물이 많이 내려온다. 콩물이 다 떨어지고 거름망 속에 남는 것이 바로 비지다. 콩물을 받을 때 첫물 한 양동이는 따로 받아놓는다. 맨 마지막에 내려온 묽은 콩물은 두부를 만들지 않고 비지찌개를 끓일 때에 넣는다. 콩물은 다시 가마솥에 넣고 끓인다. 아직 콩물이 익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가마솥에 넣어서 익혀야 하는 것이다. 처음 받은 콩물을 한 양동이 받아놓는 이유는 콩물이 진하면 가마솥에서 끓일 때 잘 타기 때문이다.

콩물을 끓이는 불세기는 집집마다 차이가 있지만 토박이순두부는 중간 불 정도로 한다. 콩물은 딱 한번만 끓으면 된다. 너무 오래 끓이면 고소한 맛이 떨어진다. 두부 맛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이 콩물을 끓이는데 있다. 어느 정도의 열로 끓이는가 하는 것이 결국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콩물을 끓일 때 적당하게 불을 유지하면 굳이 저을 필요도 없다. 콩물이 싹 끓을 때 처음에 양동이에 받아놓은 콩물을 다시 부어서 끓는 것을 가라앉힌다. 그리고는 불을 줄여서 뜸을 들인다. 처음 콩물이 끓을 때는 100도이다. 하지만 콩물이 응고되는 온도

는 그보다 낮다. 그래서 첫 콩물을 두어 온도를 약간 낮추면서 뜸을 들이는 것이다. 불을 아주 약하게 낮추고 5분에서 10분 정도 뜸을 들인다. 뜸을 들이지 않으면 두부가 잘 굳지 않는다. 영양분은 많다지만 두부에 필요 없는 거품을 걷어낸다. 뜸을 들이는 동안 거름망인 샤를 씻고 비지 퍼내고 그릇을 씻는다. 시간을 조금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

이제 바닷물을 부을 차례이다. 강문의 바닷물은 염도도 좋고 전국에서 깨끗하다고 들었다. 바닷물을 골고루 주는 것이 중요하다. 고루 퍼지게 하려고 주걱을 대고 바가지의 바닷물을 천천히 흘러내리게 준다. '두부야 잘 되어라' 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바닷물을 준다. 바닷물의 양은 콩물의 15~20% 정도이다. 바닷물이 별로 짜지 않아서 그 정도면 잘 굳고 또 약간 간간해서 초두부를 그냥 먹어도 된다. 바닷물은 여름이면 한 번에 다 준다. 겨울에는 한꺼번에 다 넣으면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 전체 온도에 차이가 나니까 두세 번 나눠서 넣는다. 바닷물을 주면 굳기 시작한다. 가마솥은 크고 불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중간부터 굳는다. 그래서 초두부는 먼저 굳는 중간부터 뜬다. 가장자리는 조금 나중에 뜬다.



초당두부 제작 과정

모두부 틀에 옥양목을 넉넉히 넣고 그 위에 바가지로 두부를 퍼 넣는다. 토박이순두부에서는 모두부를 만들려고 가마솥의 두부를 뜰 때 촛물도 함께 뜬다. 처음에는 두부가 다 굳은 뒤에 촛물을 걷어내고 초두부만 건졌다. 지금은 촛물과 초두부를 함께 두부 틀에 넣고 모두부를 누른다. 물 빼는 데 시간도 배 이상 많이 걸리고 어렵지만 두부가 더 부드러워진다. 이렇게 누른 모두부는 푸딩처럼 만들 수도 있다. 두부를 누를 때는 맷돌을 세 개 올린다. 솥을 닦으면서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맷돌을 빼고 찰랑이는 두부가 담긴 옥양목 네 귀퉁이를 다듬어서 주름을 편다. 그래야 두부가 예쁘게 된다. 다시 맷돌 세 개 올리고는 기다리는 것이다. 천천히 한 시간 정도 누르면 모두부 20모를 얻을 수 있다. 마무리 작업은 솥을 닦는 것이다. 철수세미는 안 된다. 씻고 남은

모두부



물을 모두 퍼낸 후에 들기름 붓고 불을 올리고 기름칠을 한다. 일종의 코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안 하면 녹이 난다.

김규태는 전통을 잇겠다는 경영철학을 가지고 있다. 원래 초당의 식당에서는 두부와 함께 묵은지를 냈다. 그뿐이었다. 그래서 모두 김장을 하고 땅에 묻은 김치를 사용했다. 하지만 요즘은 김치를 사서 쓰는 집이 많다. 토박이할머니순두부는 고춧가루도 국산만 사용하여 직접 김장을 하고 일 년 내내 손님상에 낸다. 원래 초당에는 청국장이 없었는데 차현희 농촌순두부에서 청국장을 히트시키면서 많이 찾게 되었다. 그래서 토박이순두부도 청국장을 판매한다. 그런데 여름에는 집에서 청국장을 띄우기가 어렵다. 공장에서 띄운 청국장은 쓰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는 안 팔고 가을부터 봄까지만 판매한다.

초당 : 소나무 그늘아래 두부가 익는 마을

초당은 강릉의 대표적 관광지이다. 멋진 강릉소나무 숲속에는 허난설헌을 비롯한 허씨 문장가들의 예술혼이 빛나고 초당 전체가 선사시대 유적지라 땅을 파기 겁난다는 오래된 주거지이기도 하다. 주변에는 아름다운 경포호와 경포해변이 있다. 빡빡한 일상에서 긴 숨을 내쉴 공간을 제공해주는 천혜의 자연환경, 역사와 예술, 스토리가 있는 인문환경만으로도 초당은 현대인에게 매력적인 마을이다. 그런데 요즘은 관광에서 먹거리가 빠질 수 없는 필수요소이다. 초당에는 이미 일정 브랜드를 획득한 두부라는 건강한 먹거리가 있으니 현대 관광지로서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고 할 것이다.

두부는 단백질이 많고 탄수화물은 적은 우수한 식품이다. 지난 10월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하는 포장두부 17개 제품의 안전성, 품질 등에 대해 시험 평가한 결과를 내놓았다. 그리고 17개 제품가운데 비록 공장에서 만든 두부이지만 국산 콩으로 만든 초당두부가 단백질 함량과 식이섬유 함유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조건들을 생각할 때 초당두부는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이 무한하다고 본다. 초당두부는 2018 동계올림픽을 할 때 강릉의 대표적 향토음식으로 선정되었다. 병산옹심이마을, 사천물회마을, 주문진해물마을과 더불어 초당두부마을을 올림픽에 오는 외국인과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곳으로 선정하고 음식도 개발하였다. 기존의 초두부와 모두부 외에도 순두부전골, 두부전골, 청국장, 두부조림, 짬뽕순두부를 소개하였다. 당시 대표적 식당으로 뽑힌 곳은 초당고부순두부, 초당엄마손순두부, 토박이할머니순두부, 초당순뚝배기, 초당한솔순두부, 그옛날초당순두부, 초당할머니순두부, 원초당순두부, 토속초당순두부, 동화가든, 고분옥할머니순두부, 소나무집초당순두부, 농촌차현희청국장, 고향산천순두부, 토담순두부 등 15개였다. 이 집들은 모두 각자 집에서 직접 두부를 만들고 있다. 그 외에 강릉시는 '솔향 명품 상차림'이라는 이름으로 순두부버섯들깨탕, 요구르트소스 연두부냉채, 순두부흰살생선찜, 해초두부부침과 밀쌈 등을 선보이면서 두부요리의 다양화를 꾀하기도 하였다. 초당 내부에서도 새로운 두부요리가 개발되는 중이다. 최근 가장 성공한 것은 냄새 안 나는 청국장과 짬뽕순두부, 그리고 두부를 넣은 젤라또이

다. 그리고 째복순두부도 인기가 있다.

초당두부와 관련하여 용어문제가 제기된다. 흔히 순두부라고 하지만 초당사람들은 초두부라고 불렀다. 그렇지만 초당에서도 요즘 초두부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있다. 사라지게 된 원인은 초두부를 모르는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이를 모양이 비슷한 순두부라고 부르면서부터였다. 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맞추다 보니 순두부라는 명칭이 보편화되었다. 거기에 아예 순두부라는 명칭을 사용한 식당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초두부라는 말이 오히려 생소해진 것이다. 하지만 초두부는 다른 지역의 순두부와 상당히 맛이 다르다. 입속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넘어가는 부드러운 맛은 바닷물로 응고시킨 초당초두부 고유의 맛이다. 어디에도 이런 맛은 경험하기 어렵다.

거기에 강릉사람들에게 초두부는 아련한 기억을 소환하는 음식이기도 하다. 무쇠솥 뚜껑을 열면 바닷물에 엉키는 초두부에서는 아가의 달콤하면서 비릿하고 시큼하기도 한 젖냄새가 난다. 때로는 어두운 방안에서 삼삼는 엄마 무릎을 베고 누었을 때 맡았던 구수한 땀냄새도 난다. 순두부가 갖고 있지 못한 행복한 추억을 소환하는 냄새이고 맛이다. 원래 말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변한다. 초두부가 순두부가 되었다고 해서 그 본질이 달라진 것도 아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오랜 세월 사용하던 단어가 상업주의에 밀려 사라지는 것은 역시 쓸쓸한 일이다.

초당에는 강릉시 초당두부보존회가 있다. 지난 9년 동안 우승원 사장이 회장을 지냈고 현재는 토담순두부 곽수동 사



강릉의 초당두부

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 약 30여개 식당이 참여하고 있는데 보존회는 반드시 국산 콩을 쓰고 직접 두부를 만들며 바닷물을 사용하는 옛날 제조과정을 지키려는 모임이다. 이러한 조직이 활성화되면 보다 맛있고 건강하고 문화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초당두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바닷물은 초당두부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 바닷물은 식당마다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가져오고 있다. 두부공장에서는 무료로 바닷물을 제공하고 있어 몇몇 식당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식당에서는 횟집에서 모터로 길어 올리는 바닷물을 쓴다. 바닷물을 끌어 올리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 바닷물이다 보니까 쉽게 부식되고, 모터로 끌어올릴 때 바닷물뿐만 아니라 모래도 함께 올라와 관리도 쉽지 않다.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바닷물을 상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초당두부 마케팅의 기본이 될 수 있기에 더욱 의미가 있는

일이다. 보존회 차원에서 관계부처의 도움을 받아 초당두부만을 위한 바닷물 라인을 확보하면 보다 건강한 두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초당두부는 식당가로서 존재한다. 몇몇 유명한 식당들이 장사를 하여 돈을 버는 것일 뿐 두부문화를 파는 경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강릉원주대학교에서 두부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고 그 안에 보존회가 운영하는 두부체험관이 있어서 일정 금액을 내고 신청하면 직접 두부를 만들어볼 수 있다. 그렇지만 전국에 알려진 초당두부의 명성을 생각하면 너무 초라한 규모이다. 단순히 맛난 식당이 있는 마을이 아니라 두부와 함께 자연스럽게 초당의 문화적 저력을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13.
위촌리 도배

무형유산 범주

- 구분 : 강릉 비지정무형유산
- 영역 :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무형유산 내용

- 대동사회의 염원이 깃든 합동세배
- 설명절의 효 문화를 이어온 대동계
- 경로효친, 미풍양속으로 살아나다
- 위촌리 설맞이 전통, 450년 이끌다

대동사회의 염원이 깃든 합동세배

위촌리 도배都拜는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 주민들이 음력 정월 초이튿날 행하는 마을단위의 대동사회적 염원이 깃든 합동세배이다. 도배는 위촌리 주민들에 의해 4백여 년 동

안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시풍속으로서 매년 정월 초이튿날 행해지는데, 이때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결함이 없는 촌장 집에서 행해진다. 도배는 각각 집에 세배를 다니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고령의 촌장을 위해 동네 사람들이 한 번에 촌장에게 세배를 하고, 이웃 간에도 함께 세배를 나누는 명절의례이다.

설날은 한해의 시작을 알리는 음력 정월초하룻날로서 '설'의 어원은 한 해를 뜻하는 '살'이나 새 것을 뜻하는 우리말 '사라'에서 나온 것으로 보기도 한다. 다른 말로 신일愼日, 원단元旦이라고 한다. '원元'은 '시始' '단旦'은 '신晨'의 뜻을 갖고 있어서 한 해 첫날을 말한다. 이때는 한해의 출발로서 세시일월歲時日月이 비롯되는 달이다. 우리 민족은 한 해의 첫째 날을 민속적으로 중요한 의례일로 생각하므로 세수歲首를 '설' 또는 '설날'이라 부르는데 이는 고유한 명칭이다.

강릉 위촌리 도배 행사모습



한민족이 한 해 시작인 새해 들어 신에게 예를 표했던 것은 오래된 문화역사이다. 『수서』 동이전 신라조에 매년 정월초하룻날 서로 축하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를 했다고 하며, 일연의 『삼국유사』에는 이날을 '달도怛忉'라고 하여 온갖 일을 꺼리며 조심하여 감히 움직이지 않고 백가지 일을 금기하고 꺼렸다고 하였다. 새해가 되면 가정에서는 사당이나 안방에 제상을 차려놓고 조상께 차례를 올린다.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에도 "사당에 세알歲謁하니 병탕餠湯에 주과酒果로다."라고 하였듯이 가정마다 조상에게 차례茶禮를 올리는데 떡국, 술과 과실을 놓았다. 새해에는 가정에서 새 옷을 갈아입고 차례와 세배를 하는데 '설빔', 즉 '세장歲粧'을 입고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신에게 감사를 올렸다.

매년 행하는 새해 '세배'는 공경의 예를 표한다. 조상, 부모, 일가친척을 찾아서 배례를 올리며 한 해 건강, 행복을 기원한다. 세찬으로는 떡국이 시식으로 쓰이고 제사에도 '떡국차례'라고 올린다. 홍석모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도 병탕餠湯을 만들어 공사접객供祀接客의 필수적인 것으로 나이를 더 보태는 첨치의례添齒儀禮였다. 떡국을 만드는 방법도 적혀 있는데, 멥쌀로 백병白餠을 만들고 이것을 얄팍하게 돈같이 썰어서 장국에다 넣고 쇠고기나 꿩고기에 함께 끓여 고춧가루를 친 것이라고 하였다.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는 설날 떡국을 고유한 우리 음식으로 평하였고 이때 만든 떡을 '권모拳模'라 했는데 가래떡, 골무떡을 말한 것이다.

설날에 쓰는 술을 '세주歲酒'라 하여 집에서 만들어 의례에 썼다. 또한 강릉지역 농악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로 유명하다. 농악대가 마을마다 지신밟기행사로서 액막이 고사반을 하면서 한 해 마을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였다. 강원지역에서는 전통명절로 설,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등을 지내고 있는데 이러한 세시풍속 가운데 설과 보름, 단오, 추석의 전통이 강한 편이다. 강릉의 경우 설명절과 인류무형유산걸작인 단오명절이 특히 두드러지는데, 위촌리 도배례는 지역성과 특수성을 지닌 설명절 의례로 볼 수 있다.

도배례가 행해지는 위촌리渭村里는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에 속한 법정리로서 약 400여 년 전인 조선 인조때 경상북도 풍기 군수를 지낸 강릉 김씨 위촌渭村 김상적金尙迪이 벼슬을 그만두고 낙향하여 살았기에 김상적의 호를 따서 생긴 이름이다.

2018 위촌리 도배례



위촌리는 다른 명칭으로 우추리라고도 한다. '우추리[牛出]'는 위촌리 가장 안쪽에 있는 골아우[鯨巖]에 '소가 반듯하게 누워 있는 형상인 와우형臥牛形형국이 있는데 이곳에서 소가 나왔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라고도 전한다.

본래 강릉군 성산면 지역으로 '우출'이라 부르다가 1916년에 골아우, 새잇말, 송두골, 항생골, 지암을 합해 위촌리라 했다. 1955년 9월 1일에는 강릉 읍이 강릉시로 승격됨에 따라 명주군에 편입되었으며, 1995년 1월 1일 도농 통합에 따라 강릉시에 통합되었다.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의 현재 세대수는 260가구이며, 인구는 총 586명(남 301명, 여 285명)이 살고 있다. 전형적인 농촌마을로서 역사가 오랜 문화전통이 숨 쉬고 있으며, 좋은 자연환경과 함께 어울려 사는 마을로 정주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위촌리에서 배출된 인물 가운데 김상적金尙績은 만력 정축 8월에 태어나서 숭정 경진 정월 64세로 세상을 떠난 인물로 호는 위촌이다. 계유년 대과에 급제하여 예조좌랑, 공조좌랑을 거쳐 인조 때 경상북도 풍기군수를 역임했다. 그의 아들 김세록은 만력 신축 4월에 태어나서 숙묘 기사 3월 89세로 세상을 떠난 인물로 호는 위천渭川이며 대동계를 주도적으로 결성하였다. 『전고대방典故大方』에는 그가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하며, 특히 대나무를 잘 그려 바람이 불면 대나무에서 소리가 났다고 한다.

이곳은 경치가 관련하여 9경이 전해오는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구위촌 8경과 신위촌 8경으로 나뉜다. 구위촌 8경은 가령낙조駕嶺落照(마을 뒤 높이 솟은 멍애재에 비치는 저녁놀의 모

습), 옥천비폭玉泉飛瀑(골아우에서 흘러온 물이 옥천으로 떨어지는 물줄기의 날리는 모습), 휴암상하鵂岩賞花(봄철 마을 뒤에 있는 부엉재에 핀 진달래꽃의 모습), 석탑노송石塔老松(솔안돌무더기 옆 석탑에 서 있는 늙은 소나무의 자태), 학교수류鶴橋隨柳(방학교를 따라 냇가 양옆으로 길게 뻗어 있는 버드나무의 모습), 황계명월璜溪明月(마을 가운데로 흐르는 황계에 달빛에 비치는 모습), 계산파무稽山罷霧(계산 꼭대기에서 흩어지는 안개의 모습), 연봉소죽硯峰疎竹(연적봉 일대에 숲을 이루고 있는 산대나무의 모습)이다.

신위촌 8경은 위양서성渭陽書聲(위양서당에서 학동들이 글 읽는 소리), 송현연궁松峴延弓(송현에서 활을 매어 당기는 모습), 죽관청풍竹館淸風(죽관에서 부는 시원한 바람), 수봉관어水鳳觀魚(마을 들머리 수봉구에서 뛰노는 물고기를 바라보는 모습), 가령낙조駕嶺落照(마을 뒤 높이 솟은 멍애재에 비치는 저녁놀의 모습), 옥천비폭玉泉飛瀑(골아우에서 흘러온 물이 옥천으로 떨어지는 물줄기가 날리는 모습), 황계명월璜溪明月(마을 가운데로 흐르는 황계에 달빛에 비치는 모습), 계산파무稽山罷霧(계산에 흩어지는 안개의 모습)이다.

설명절의 효문화를 이어온 대동계

도배는 여러 사람이 다 모여서 절을 하므로 모두 도都자를 사용하는데 합동세배를 뜻한다. 도배례 절차는 100년이 넘게 촌장의 집 마당에서 행하였다. 마당에 멍석을 깔고 일시에 모두 함께 절을 하는데 촌장의 세배가 끝나면 연배 순으로 교배례를 거행한다. 도배식이 끝나면 이장의 주관 하에 각자가 가지고 온 담배나 술, 양말 등의 여러 가지 선물을 나누어

준다. 과거에는 계원의 자녀 가운데 결혼을 하여 성인이 된 사람은 이날 성인 신고식을 하여 품앗이의 제 품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한 해 농사를 위한 두레를 짜기도 하고 준비한 음식을 늦게까지 먹으면서 윷놀이로 한 해를 점치고 화합을 다졌다고 한다. 이곳은 인근에서 예향으로 유명한 곳이며 유서 깊은 전통문화가 숨 쉬는 곳이다. 특히 중시되는 바는 위촌리 사회조직이다.

위촌리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동계大同契이다. 대동계는 지금부터 약 450여 년 전 율곡이 만든 『서원향약』(1571년)과 『해주향약』(1577년)에 힘입어 김세록, 함상헌, 이수근 등이 뜻을 같이하여 주민들의 덕화, 상호협조, 위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규약을 만들어 결성하여 지금까지 이어져온다. 1899년(광무 3년 기해년)에 규약을 중수하여 오늘날까지 주민들의 규범으로 지켜오고 있다.

대동계는 마을의 중요한 행사에 관여하고 이장을 선출하거나 마을에 큰 공사를 할 때도 관여한다. 행실이 바르지 못한 마을 사람을 타이르고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으면 관가에 고발하였다. 계원 가운데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계원을 모략하여 반목을 심화시키면 임시총회를 열어 제명시키기도 한다. 대동계는 직계존속이 잇는 경우를 '승계'라 하며 맏아들이 잇는 '승입'과 차남이나 손자가 계원자격을 계승하는 '추입'이 있다. 계원의 추천으로 새로 들어오는 계원은 '신입'이라 한다. 대동계에서는 매년 촌장을 모시고 도배례를 주관하고 있는데 계원의 유일한 축출은 불효자로서 엄격한 효 전통의 규율이 지켜지고 있다. 촌장은 계원 중에서 존숭례尊崇禮를 거

쳐서 추대되고 있다.

위촌리 대동계에는 4대 덕목이 있는 바, 어질고 착한 업적은 서로 권해주는 덕업상권德業相勸, 잘못은 서로 규제해주는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으로 서로 어울리는 예속상교禮俗相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서로 근심하고 돕는 환난상휼患難相恤이 그것이다.

위촌리 대동계 수칙守則은 향약 4대 강목을 실천하자, 우리문화 알고 보존하자, 창조 창의로 생활화하자라고 하였다. 대동계의 회원은 위촌리에 거주하는 직계 자손으로 구성하고 계수는 가장 연장인 사람이 자동으로 되고, 총무와 유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예전에는 지체가 높은 사람으로 한정했다. 계원 가운데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으로 계수를 정하고, 존숭례를 거쳐 촌장으로 추대하는데 임기는 종신이다. 계수로 추대되면 빠른 시일 내에 존숭례를 치르며 비용은 계에서 쟁반(쇠고기 10근)을 준비하고, 나머지 비용은 자식들이 보탠다.

이곳에는 집안끼리 자녀들의 혼례를 준비하는 혼인계(관대계)도 있었다. 혼인계는 혼례 때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직했는데, 신랑 신부의 혼례복인 관복, 행사 때 쓰는 차일, 휘장, 가마 등을 빌려준다. 성주이씨 문중, 강릉함씨 문중, 강릉최씨 문중에서 혼인계를 조직했으나 지금은 다만 친목을 다지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모인다. 상장계(상례계)는 장례를 대비하기 위한 계다. 상여를 관리하는 곳집을 운영하고, 상여, 제기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계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상여를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아 곳집을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데 충당한다. 위촌리에는 상장계가 2개 있으며 연말에 한 번

씩 만나 친목을 다진다.

종친의 모임인 종친계로는 마을에 많이 사는 성주 이씨들의 성위계星渭契가 있고, 강릉최씨계가 있다. 이 외에도 마을 사람들 가운데 글을 잘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만든 '글'계 '영주 음사'의 회원들은 만나서 시를 짓고 읊으며 즐기고, 나이가 같은 사람들끼리 친목을 위해 만든 동갑계도 있다. 이러한 위촌리의 계 문화는 도배례 마을의 전통적 풍속으로 지속되고 그 역사가 전승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경로효친, 미풍양속으로 살아나다

위촌리 도배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촌장에게 참가자 일동이 세배를 하면 촌장이 답례로 덕담德談을 말한다. 덕담의 내용은 매년 일정하지는 않으나 "○○년에 건강하고 소원성취 하십시오."라는 내용이다. 이어 차위 연장자 2명에게 함께 세배를 하고 나서 참석자들이 상견례로 맞절을 한다. 도배식을 주관하는 촌장은 갓과 두루마기를 입고, 도배식에 참석하는 고령자들은 모두 갓을 쓰고 두루마기, 도포를 입는다. 갓을 쓰지 않는 주민들도 두루마기는 반드시 입고, 젊은이들은 평상복을 입는다. 촌장 앞에는 다과상이 마련된다.

위촌리 도배례는 2005년 강릉시에서 '전통문화전승관'을 세운 다음에는 실내행사로 치루고 있다. 과거에는 촌장댁 앞마당에서 병풍을 쳐놓고 진행하였으며 촌장은 갓을 쓰고 삼베도포를 차려입는다. 2014년 갑오년 위촌리 도배례 분방分榜을 보면 촌장님 조규상 씨曺圭上 91세, 부촌장님 박철동 씨朴哲東 89세, 부촌장님 김원경金源卿 89세, 총무 이석봉, 집례



2018 위촌리 도배례 및 덕담



김진후, 유사 엄명섭, 유사 김마일 등이었다.

이곳 위촌리의 세시풍속 가운데 가장 중시하면서 가장 먼저 준비하는 의례가 설날이다. 가정마다 설날 아침에는 가족끼리 모여 떡국을 끓여 조상신께 차례를 올린다. 그 다음 어른께 세배를 하고 덕담을 나눈다. 세배를 마치고 나면 일가친척 피붙이들과 함께 한해 운수를 보거나 윷놀이를 하면서, 연중 생활계획을 세우며 근신하며 지낸다.

정월 초이튿날 마을 사람들은 의복을 반드시 갖추는바,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촌장집에 모여 제일 어른인 촌장에게 세배를 한다. 갓을 쓰지 않는 주민들은 두루마기를 입는데 그렇지 않은 주민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참례한다. 촌장은 갓과 도포를 입고 좌정하며 부촌장과 함께 앉는다. 이때 촌장에게 올리는 세찬으로 문어, 떡, 소고기 산적, 과줄, 감, 사과, 세주, 감주 등을 차려놓고 세배를 올리며, 촌장이 참가자 모두에게 덕담을 나눈다. 이때 세찬 상에 올리는 과일이나 과줄 등은 높게 쌓아올린다.

다음에 연령 순으로 동네 사람들이나 참석자도 서로 교배례를 한 다음에 떡국을 나누어 먹으며 덕담을 나누며, 마을의 한 해 대소사를 함께 논한다. 도배례는 오래전부터 미풍양속을 계승하도록 동리 전체가 한자리에 모여 합동세배를 하므로 도배례都拜禮라고 부르고 있다.

도배례는 현대사회에서 예향禮鄕 강릉의 전통문화를 잘 보여주는 의례로서 단순한 설날 인사차원의 형식적 행사가 아니라 인륜도덕의 중시와 미풍양속을 계승하는 문화적 의미를 갖는다. 날로 각박해져가는 현대사회에서 윤리와 효의 가치

는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도리이다. 도배례는 도덕성을 중시하는 전통예절로서 정월 초이튿날 계원들이 정결한 마음가짐으로 마을의 정신적인 어른인 촌장을 모시고 집단으로 거행한다. 이는 어른을 공경하고, 상호존중과 문화민족의 자존감을 높이는 의식이며 장유유서長幼有序의 의미와 예속상교禮俗相交와 다름이 아니다.

이와 같이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촌장께 세배를 드리면 촌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덕담을 나누고, 정성껏 준비한 세찬歲饌을 나눠 먹는다. 설날 이튿날이므로 떡국을 만들어서 나누어 먹고 하객들이 많을 경우에는 소머리국밥을 만들어서 함께 먹는다. 주민들은 각자 형편에 맞게 담배, 술 등 촌장에게 설날 예물을 올리고, 이것은 주민들이 나눈다. 예전 도배례에는 계원들만 참여하였으나 지금은 계원이 아니어도 마을

2018 위촌리 도배례



사람이나 마을 출신이면 누구나 참여하며, 지역의 기관장도 참여한다. 도배례가 끝나면 대동계 주관으로 지난 한해 마을의 대소사를 보고하고, 새로운 한 해의 대소사를 협의하며 새해맞이 국악공연도 베풀어진다.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 대동계(회장 최규승)주관으로 전통문화전승관에서 매년 도배례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언론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 설 명절 행사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기록에 남아 있는 촌장 명단과 재임기간은 아래와 같다.

- 초대 : 최명환崔命桓 1841년생, 81~91세(10년 재임)
- 2대 : 최호집崔顥集 1850년생, 82~87세(5년)
- 3대 : 함병기咸炳璣 1855년생, 82~84세(2년)
- 4대 : 최주하崔胄河 1860년생, 79~80세(1년)
- 5대 : 최우식崔禹植 1862년생, 77~79세(2년)
- 6대 : 최정집崔廷集 1864년생, 80~82세(3년)
- 7대 : 조병한曺秉漢 1865년생, 81~95세(14년)
- 8대 : 최돈설崔燉卨 1878년생, 81~84세(3년)
- 9대 : 함재봉咸在鳳 1879년생, 82~90세(8년)
- 10대 : 조봉환曺鳳煥 1882년생, 87~98세(10년)
- 11대 : 김재봉金在鳳 1892년생, 87세(1년)
- 12대 : 이광은李光殷 1895년생, 85~96세(11년)
- 13대 : 곽순조郭順祚 1902년생, 88~91세(3년)
- 14대 : 심학길沈鶴吉 1910년생, 82~92세(10년)
- 15대 : 김영달金榮達 1913년생, 89~91세(2년)
- 16대 : 이태기李泰基 1917년생, 87세 취임

- 17대 : 고제환高濟煥 1918년생, 91~96세(5년)
  2013년 촌장재임
- 18대 : 조규상曺圭上 1924년생, 90~93(3년)
  2014~2016년 촌장재임
- 19대 : 박철동朴哲東 2017~2018년 촌장재임
- 20대 : 이계원, 2018년 촌장 취임

2018년 임명되는 제20대 위촌리 촌장은 존숭례尊崇禮를 거쳐서 아촌장(이계원)이 촌장으로 승입하게 된다. 촌장은 마을에서 연세가 많아도 대동계원이어야 한다. 이 마을의 대동계 총무 김진후, 고문 이석봉, 대동계원 엄명섭 씨 등은 마을 자체로 행하는 도배례의 규모가 커지고 문화관도 10년이 넘어서 노후 된 상태로 행사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였다. 과거에는 촌장집 마당에서 차일을 쳐놓고 행사를 했으나 문화관 건립 후에는 이곳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의관을 갖추고 제물을 차려서 정월 보름 1리 서낭당 제사를 지내고 있다. 당집은 없고 서낭목인 노송 신목아래 제물을 차려놓고 매년 제를 진행한다. 또한 성산면 무후제(후손이 없는 이의 제사)에도 주민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위촌리 설맞이 전통, 450년 이끌다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 합동 도배례는 4백년 넘게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왔다고 전한다. 이 마을에는 〈도배연혁都拜沿革〉, 〈좌목座目〉, 〈대동계명부〉, 〈대동계유사록〉, 〈사치부私置簿〉, 〈외촌리 도배례 홀기笏記〉 등 문서와 삼베로 짜서 만든 위촌리 대동계

차일遮日 임자초하壬子初夏에 제작한 기물 등도 보관하고 있다.

강릉에서 열리는 마을 단위의 합동 세배인 도배都拜는 웃어른을 공경하고 어버이를 효성으로 받드는 경로효친 사상이 담겨있는 강릉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꼽힌다. 위촌리에서는 매년 음력 정월 이튿날 마을의 가장 웃어른을 모시고 온 마을 사람들이 세배를 드리는데 조선 중기인 1577년 마을 주민들이 대동계를 조직한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위촌리 도배례를 주도하는 대동계의 역사도 이와 같다.

설 이튿날 오전 위촌리 도배례가 위촌리 전통문화전승관(강릉시 성산면 위촌1리 소목길 194)에서 펼쳐지며 수백년을 지켜온 무형문화유산인 도배례의 전승과 함께 강릉지역 20여개 마을에서도 미풍양속의 도배식이 전파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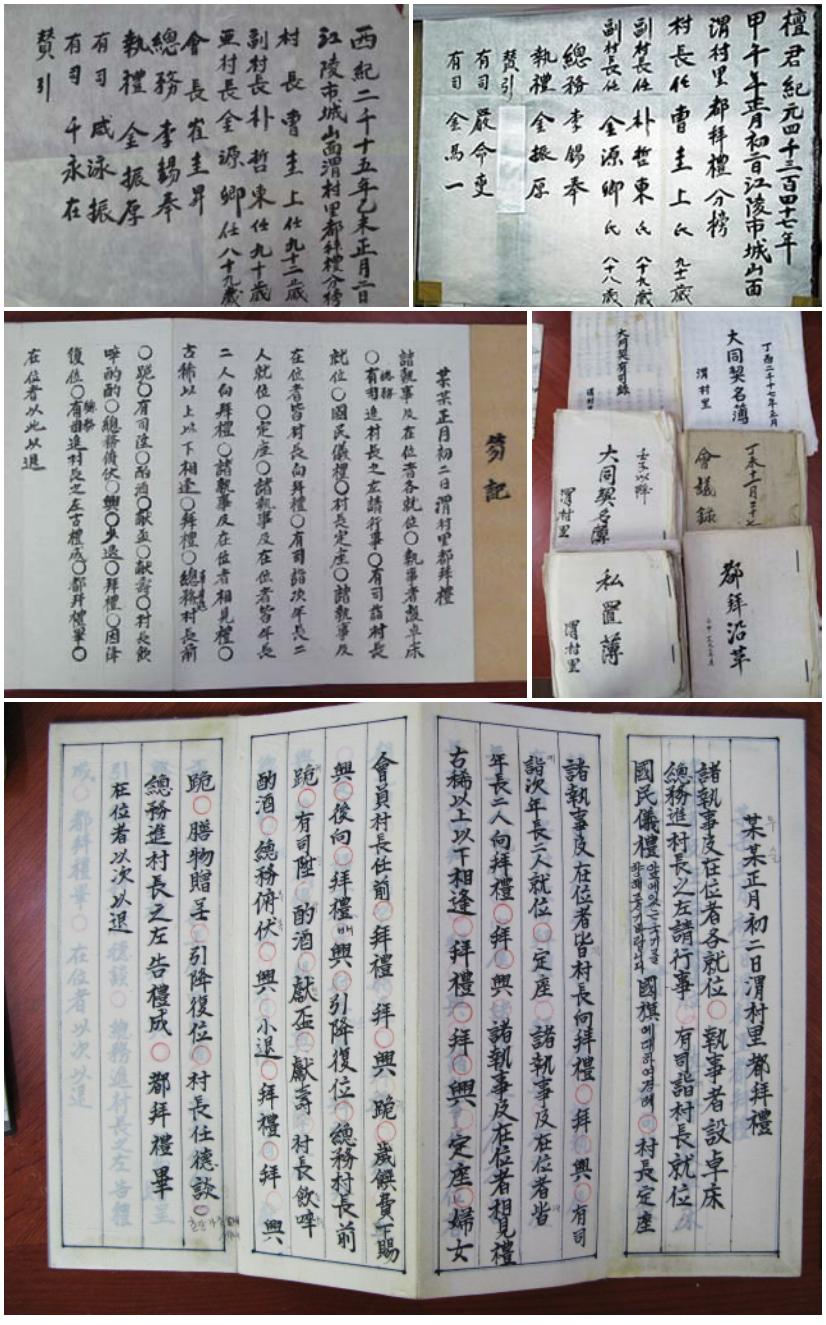
음력 설 명절 다음 날이면 마을 주민은 물론 출향 인사들이 정갈한 옥빛 도포와 검은색 두루마기에 갓을 쓰는 등 의복을 갖추고 모여 촌장을 비롯한 마을 어른들께 합동 세배를 올린다. 근래 도배례에는 주민뿐 아니라 국내외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지도자 등 수백 명이 참여하여 큰 성황을 이룬다. 먼저 마을 주민들이 촌장을 가마에 태우고 와서 좌정하며, 모두가 합동 세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한다. 마을 주민끼리 서로 맞세배를 하며 새해의 안녕을 기원한다. 촌장이 덕담을 마을 주민들에게 건네면 준비한 음식을 나누고 서로 덕담을 나누며 마을 화합을 이어간다.

강릉에서는 이와 같은 설날의례의 문화사를 계승하고 있음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마음과 정신으로 시작하는 새해 시작을 맞이하여 섬김과 나눔의 정신

적 가치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아름다운 풍속을 계승하는 이 마을 도배례는 농경사회의 생활모습을 보여주는 으뜸 생활문화의 일종으로 세월의 변화 속에 점점 잊혀져가는 경로효친사상과 마을 공동체 의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위촌리 도배례는 사라져가는 설날의례의식을 되살리는 예향강릉 전통계승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위촌리 도배는 문화관광부와 (재)전통공예예술진흥재단이 선정한 2012년 '작은 공동체 전통예술잔치 우수축제마을'로 선정되는 등 전국제일의 효를 실천하는 도배례 마을로 널리 알려졌다.

또한 2018년 설 명절 이튿날 강릉에서는 임영대동도배례가 강릉대도호부 관아에서 펼쳐져 세계인의 주목을 끌었다. 이는 강릉고유의 전통문화올림픽을 선보이고자 한 것으로 강릉시 20여개의 마을 도배례를 한 곳에서 행한 개최한 흥겨운 설축제 마당이었다. 행사는 2천명의 시민들이 한복을 입고 참가하여 농악대 가락에 맞추어 가마로 마을촌장모시기 행사, 촌장맞이하기, 진연선포進宴宣布, 수제천 축하연주, 전통음식을 올리는 찬안饌案, 장수를 기원하며 술을 올리는 진화進華,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선물을 올리는 헌궤獻饋와 헌사獻辭, 합동세배, 퇴찬退饌의 순서를 전통의례방식인 홀기笏記에 따라 진행하였다. 현재 위촌리 도배례는 확고한 전승의 기틀이 마련되어 강릉전통을 알리는 미풍양속의 본보기로 자리매김하였다.



위촌리 도배례 홀기 등 사진 : 장정룡 제공

14.

강문 진또배기 서낭굿

무형유산 범주

- 구분 : 강릉 비지정무형유산
- 영역 :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무형유산 내용

- 강과 바다 사이에 있는 아름다운 강문마을의 어려움
- 5성급 호텔 밑에서 벌어지는 강문의 동제와 진또배기 서낭굿
- 강문은 진또배기 서낭의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을까

강과 바다 사이에 있는 아름다운 강문마을의 어려움

강문江門은 과거 강릉 시내를 관통하는 물줄기가 동해바다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어촌이다. 지금은 물줄기가 바뀌었지만 강문은 '강이 흐르는 문', 또는 '강이 흐르는 입구'라는 뜻

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있는 마을이었다. 강문은 예부터 아름다운 포구로 알려졌는데 무엇보다 경포8경의 하나인 강문어화江門漁火로 유명하다. 여름밤 고깃배 불빛이 바다와 호수에 비친 모습이 아름다워서 그렇게 불렀던 것이다. 지금도 한여름 오징어배가 바다에 뜨면 집어등 불빛이 강문어화의 장관을 재현하곤 한다. 강문은 정철의 관동별곡에도 등장한다. 정철이 경포대에 올라가 강문교 넘어 바다를 보면서 "넓고 아득하구나 저 동해의 경계여.. 이보다 아름다운 곳이 또 어디 있을까" 라고 노래한 곳이 바로 강문 포구였다.

행정상으로 강문은 초당동 4통과 5통이다. 2018년 현재 4통에 97세대, 171명, 5통에 77세대 144명이 살고 있고 토박이가 많은 편이다. 초당이 전형적인 농촌이었는데 비해 강문은 어업을 생업으로 살아왔다. 과거 강문에서는 명태를 많이 잡

강문 진또배기 용왕굿 중 뱃기 흔드는 모습



았고 미역 채취도 활발했다. 오리암에서 송정 공군휴양소까지가 강문바다인데 미역바위들이 많아 자원관리선이 18척이나 있던 시절도 있었다. 그 외에는 인근에서 조업하여 광어, 가자미, 우럭, 놀래미, 도루묵 등을 잡았다. 하지만 초당에 비해 강문은 살기 어려웠다고 한다. 아무리 고기를 많이 잡아도 쌀값을 당할 수 없었고 그나마 어획량도 불안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을 수 없는 바다에서 일하는 어업은 위험했다. 생존의 위협과 가난 때문에 어촌에서는 현실 기복적 성격이 강한 무속신앙의 전승이 활발했다. 특히 동해안은 해안이 밋밋하여 자연항이 없다. 강문에서는 최근까지도 해안에 통나무를 깔고 인력으로 배를 끌어올리곤 했다. 작은 배를 타고 인근 연안 조업을 했기에 위험은 더 클 수밖에 없었다. 강문도 예외가 아니어서 무속을 바탕으로 한 마을신앙이 발달했다. 강문사람들은 마을의 안과태평과 생업을 보호

강문 여성황당 모습



하는 여러 신들을 의지하고 살아왔다. 그 신들은 바다를 향해 있는 마을의 중요한 장소마다 좌정하여 주민들의 삶을 보호해주었다. 여서낭, 골매기서낭(남서낭), 그리고 진또배기가 바로 그 지킴이들이다.

강문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처는 바닷가에 자리 잡은 여서낭당이다. 여서낭당은 강문교 건너편 죽도봉 아래에 있다. 주변에 기와를 얹은 담장을 쌓았고 당집은 팔작지붕의 3칸 목조건물이다. 주민들은 여서낭당에서 정기적으로 동제와 굿을 하고 바다 일을 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찾아와 사고방지와 풍어를 기원하기도 한다. 여서낭당에서는 여서낭과 수부, 두 분의 신격을 모시고 있다. 당집 한가운데 가장 안쪽에 여서낭을 그린 화분(무속에서 모시는 신령을 그린 그림)을 모셔놓았다. 족두리에 활옷을 입은 여서낭은 두 명의 시비를 거느린 모습이다. 이 화분은 오래 되었다고 한다. 수부당은 서낭당 입구 오른쪽에 있는데 역시 화분을 그려서 모셨다. 수부는 투구를 쓴 장군의 모습으로 장검을 가운데에 세워서 잡고 서있다. 수부도 월도를 든 두 명의 시종을 거느리고 있다. 수부는 굿을 할 때마다 창호지에 그려서 붙였다고 하는데 2008년 즈음 현재 그림으로 교체했다. 수부는 여서낭을 수호하는 신으로 믿는다. 여서낭당은 1915년에 지은 것으로 짐작한다. 1980년 문지방이 너무 낮아서 증축했는데 상량문에 대정 4년이라고 쓰여 졌다는 것이다.[1]

---

1) 손재복 강문 진또배기보존위원회 회장 인터뷰, 2008년 11월 2일, 강문노

남녀조화가 중요하니 여서낭이 있으면 당연히 남서낭도 있을 것이다. 남서낭은 골매기서낭, 골목서낭이라고도 부르는데 당집은 여서낭당 서쪽 약 백 미터 지점 소나무 숲속에 있다. 이곳은 수령 2백년이 넘는 소나무를 포함하여 30여 그루의 해송들이 아름다운 마을 숲을 조성하고 있다. 여서낭당보다는 규모가 작아서 한 칸 목조건물에 함석지붕을 얹었다. 당 안에는 가운데에 성황지신을 모시고 양 옆으로 토지지신, 여역지신의 신위를 모셔놓았다. 남서낭당은 강릉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당집이다. 남서낭당은 초당의 권씨 집안에서 세웠다는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다. 원래 그 앞에 개울이 흘러 마을과 단절되는 위치였다고 한다.

하지만 널리 알려진 강문의 상징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쁜 솟대라고 말했던 진또배기이다. 긴 장대위에 올라앉은 세 마리의 새는 조형미도 아름답지만 푸른 동해바다와 어울려 그 자체로 전통마을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진또배기는 영동지역에서 흔히 짐대, 짐대서낭이라고 부르는 솟대이다. 짐대는 진대, 즉 긴대를 의미한다. 진또배기는 강문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로 '진(긴)'에 박혀있다는 '박이'가 합성된 것으로 보인다.

진또배기는 길이 5미터쯤 되는 긴 장대위에 둘레가 35센티미터 가량 되는 물오리 세 마리를 올린 모습이다. 기둥은 낙엽송을 쓰고 오리는 해송으로 깎는다. 나무오리는 세밀히 조

인회관.

각되어있어 머리 부리 목 몸통 다리가 뚜렷이 구분되고 모두 한 방향, 즉 서북쪽의 경포대를 향하고 있다. 각각 수재, 화재, 풍재의 삼재를 막아준다고 믿는다.

그런데 진또배기의 위치는 여러 번 바뀌었다. 1988년 정승모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원래 진또배기는 남서낭당 앞에 있었다. 당시에는 남서낭당 앞의 자리가 바로 마을입구였다고 한다.[2] 1979년 제방이 없어지고 개천이 생기면서 침수의 위험이 생기자 여서낭당에서 남쪽으로 백여 미터 떨어진 버스종점 공터로 옮겼다. 그곳에는 공동우물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2007년 길을 내면서 위치를 변경하여 다시 원래의 남서낭당 근처로 옮겼다. 진또배기는 굿을 할 때마다 하나씩 깎아서 세워두는 것이지만 지금은 수십 개의 진또배기를 세워 숲처럼 조성하여 놓았다. 이 때문에 마을의 신성한 신앙물이라기 보다는 외부의 시선을 끄는 볼거리로 기능하고 있다.

강문의 신들은 각각 고유의 맡은 분야가 있다. 여서낭은 풍어나 사고방지 등 바다와 관련된 일을 맡고 남서낭은 마을 주민 전체의 안녕을 관장했으며 진또배기는 특별히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액을 막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처럼 신의 보호를 받으면서 강문사람들은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온 것이다. 강문마을 사람들은 신에게 감사하기 위해 해마다 정월보름, 4월 보름, 8월 보름에 동제를 모셨고 격년으로는 무당

2) 국립민속박물관, 『강원지방 장승 솟대신앙』, 『민속박물관학술총서』 제 6집, 국립민속박물관, 1988, 85쪽.

을 불러 서낭굿을 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동제와 서낭굿을 통해 강문이라는 지역공동체를 단단하게 유지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했다. 강문도 시대의 흐름을 타고 변하는 중이다. 어촌이었던 강문은 이제 관광지에 더 가깝다. 상당수 집들이 민박을 하고 바닷가에서는 20여 개의 횟집이 성업 중이다. 상대적으로 어업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어서 현재 어촌계원은 20명에 불과하다. 배는 문어를 잡는 1톤짜리 13척과 관리선 1척이 있을 뿐이어서 어촌이라고 부르기에 민망한 수준이다. 10여 년 전만 해도 자망선 11척, 관리선 2척, 형망선 3척, 그리고 약간의 낚시어선들이 있었는데 줄어드는 속도가 아주 빠르다. 강문은 항구가 없어 큰 배를 댈 수 없는 현실에서 앞으로 다시 어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아직 강문은 토박이들을 중심으로 힘겹게 동제와 서낭굿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진또배기를 마을의 상징으로 삼아 외부에 알리려는 작업도 하고 있다. 강문교에 진또배기를 세우고 남서낭당 옆에 진또배기 숲도 만들었으나 널리 알려지지는 못한 상태이다. 하지만 어업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그나마 경제적 기반이 될 수 있는 대부분의 횟집은 외지인들이 운영하고 있어서 앞으로 전통을 이어갈 수 있을지 전망이 밝지 않다. 2018년 음력 4월 보름 강문은 강릉시와 수협에서 받은 지원금에 남아있는 어촌계 자금을 모두 털어서 진또배기 서낭굿을 했다. 현재 어촌계에는 더 이상 굿을 위한 자금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과연 강문의 진또배기 서낭굿은 그 맥을 이어갈 수 있을까?

5성급 호텔 밑에서 벌어지는 강문의 동제와 진또배기 서낭굿

1) 경건한 동제

강문은 일 년에 세 번 동제를 모신다. 정월 보름, 4월 보름, 그리고 8월 보름이다. 철저하게 보름을 기하여 제사를 모시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세시민속 명절은 흔히 홀수가 겹치는 날이나 보름날에 전승된다. 설이나 삼월 삼짓, 단오는 홀수가 겹치는 민속명절이다. 반면 추석이나 정월 대보름은 만월을 기리는 명절이다. 4월 보름, 강문에서는 서낭굿을 반드시 이때에 한다.

동제는 삼헌관과 축관, 도가, 집사 등을 선정하여 경건하게 올린다. 사흘 전에 당과 도가집 앞에 금줄을 치고 금기한다. 제물을 장만하는 도가는 특히 부정한 것을 보거나 만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4월 보름 제사는 특별히 중요하다. 그 까닭은 여서낭당 제물로 숫소 한 마리를 올리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송아지를 통째로 바쳤다고 하지만 지금은 소머리와 4족, 내장, 특히 우랑牛囊을 준비하여 소 한 마리의 구색을 갖추어 올린다. 숫소는 여서낭에게 바치는 특별 제물이라고 한다.

강문 동제에는 원칙적으로 여자가 참여하지 못한다. 자정 무렵이 되면 제관들은 몸을 정하게 한 뒤에 도가가 마련해온 제물을 괸다. 중요한 제물은 서낭당 안에서 직접 장만한다. 당 입구에는 소머리를 삶는 터가 마련되어있고 당 앞 왼쪽에는 새옹메를 짓는 장소가 있다. 새옹 세 개를 넉넉히 올릴

수 있도록 길고 편편하게 땅을 파놓았다. 먼저 조개탄을 피워 3개의 새옹을 올린다. 반짝이는 불 위로 잘 닦은 새옹이 놓이고 밥이 익어간다. 새옹메는 절대로 뚜껑을 열어보면 안 된다. 하지만 도가와 제관들은 묵묵히 그 옆을 지키고 있다. 메가 다 되고 자정이 넘어가면 제사를 올린다. 제사는 삼헌관들이 배례하고 축을 고하는 유교식을 따른다. 다만 강문에서는 반드시 절을 네 번씩 한다.

여서낭당에서 제를 올리는 동안 일부 주민들은 남서낭당과 진또배기에 간다. 남서낭당에는 메를 올리고 진또배기에는 포와 술을 올린다. 절하고 제물을 음복한 뒤에 돌아온다. 여기에 사용한 제물은 절대로 다시 여서낭당으로 가지고 오지 않는다.

4월 보름에는 제사가 끝나면 특별히 당주무당을 불러 비손을 함께 한다. 현재 당주는 강릉단오굿의 인간문화재인 빈순애이다. 무녀는 제사가 끝난 뒤에 징을 치면서 고사를 드려 바다에서 아무 사고 없고 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축원한다. 이어서 서낭당에 모인 제관과 선주들의 앞날을 점쳐주고 소지를 올려준다. 다음 날 노인회관에서 주민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음복을 한다.

2) 토박이들의 잔치 : 강문 진또배기 서낭굿의 현장

(1) '강문 진또배기 풍어제'라는 새로운 명칭

2008년 강문 서낭굿은 음력 4월 보름부터 사흘 동안 열렸다. 원래 3년 두리[3]로, 즉 격년으로 굿을 했는데 2006년에는 하지 못했다. 2007년에 진또배기를 남서낭당 옆으로 옮기고

처음 하는 굿이었다. 굿은 여서낭당 안에서 했는데 서낭당 입구에는 커다란 플랜카드가 걸렸다. 플랜카드에는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 강문 진또배기 풍어제 / 일시 2008년 5월 19일~21일 / 장소 강문 진또배기 성황당' 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 플랜카드는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는 강문에서 하는 이 굿이 강릉단오제와 관련이 있고, 행사의 명칭은 "강문 진또배기 풍어제" 이며, 장소가 "강문 진또배기 성황당"이라는 것이다.

난데없이 왜 강릉단오제가 들어가는 것일까? 뜬금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강릉단오제와의 관련성은 강문이 굿이 시작하는 4월 보름날에 있다. 이날 강릉단오제도 중요한 행사를 하는데 바로 대관령에 올라가서 신목을 베어 모시고 내려온다. 보통 마을에서 하는 굿의 진행상황을 보면 부정굿을 한 다음에 산이나 기타 정해진 장소에 가서 신목에 당신堂神을 내린다. 동해안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대나무를 사용하는데 강릉단오제의 경우는 단풍나무이다. 신목에 마을수호신을 내려 굿청에 모셔온 다음 그 즉시 굿을 시작하는 법이다. 하지만 강릉단오제는 신목을 모셔온 후에 약 2주 이상의 공백을 둔다. 4월 보름날 신목과 대관령국사성황신위를 시내에 있는 대관령국사여성황사에 모셔놓고 5월 3일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언제부터 이런 풍속이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

3) 3년 두리라는 것은 격년을 말하는 것으로 굿을 준비하는 해, 굿을 하는 해, 앞으로 굿을 할 해를 합해서 3년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대관령에서 대관령국사성황의 신위와 신목을 모셔온 4월 보름부터 강릉은 신과 함께 숨 쉬는 신성한 공간이 된다. 바로 그 첫날 강문 서낭굿이 시작되기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강릉단오제와 연결을 짓는 것이다.

그러나 "강문 진또배기 풍어제"라는 명칭은 새롭게 붙여진 것이다. 전승되어온 명칭은 강문 서낭굿이고, 굿하는 장소 또한 강문 진또배기 서낭당이 아니라 강문 여서낭당이라야 맞다. 진또배기 서낭당은 남서낭당 앞에 엄연히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강문 주민들은 굳이 굿의 이름을 바꾸었고 심지어 굿하는 당의 이름도 바꿨다. 이는 마을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진또배기'를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강문과 경포를 잇는 다리에도 진또배기 모형을 세웠다. 식당 간판에도 진또배기를 그려놓았고 가로등 꼭대기에도 진또배기가 올라 앉아 있다. 진또배기를 마을의 상징으로 외부에 알리려는 주민들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고 하겠다.

이처럼 강문사람들이 '진또배기'라는 명칭에 집착하는 이유는 1979년 주민들이 〈강문 진또배기〉란 이름으로 민속놀이를 구성하여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출전한 경험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당시 강문 진또배기는 문화공고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놀이의 내용을 보면 마당에 서낭당과 진또배기를 세워놓고 무녀가 서낭굿을 한 뒤에 어부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다. 고기를 많이 잡아 풍어를 이룬 뒤 뱃노래를 부르면서 들어와 한바탕 놀이를 펼친 후 퇴장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강문 진또배기는 그 후 서울 여의도에서 했던 국풍 81행사에

다녀왔고, 1984년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이런 경험들이 강문사람들로 하여금 서낭굿과 진또배기라는 상징물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던 것이다.

동해안에서 전승되는 마을 굿의 명칭은 서낭굿, 별신굿, 풍어제 등이 있다. 모두 마을의 안과태평과 생업의 번창을 기원하는 굿으로 실제 내용은 거의 같다. 이 가운데 풍어제는 최근에 등장한 명칭이다. 풍어제는 굿의 목적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동시에 굿이라는 명칭이 주는 미신의 시각을 벗어나려는 노력이 만들어낸 이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풍어제라는 명칭은 공동체의식을 강화해온 마을 굿의 역사성을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⑵ 아름다운 강문의 서낭당

강문 서낭당은 세 군데에 있다. 가장 크고 잘 알려진 서낭당은 바닷가에 있는 여서낭당이다. 강릉의 최고급 호텔로 아름다운 바다 조망과 현대적 시설을 자랑하는 씨마크 호텔 바로 아래에 있다. 웅장한 규모의 최신식 호텔 발아래 있는 단청이 아름다운 작은 서낭당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이다. 비록 크기는 호텔에 비할 바 없이 몇 백분의 일에 불과한 작은 당집이지만 그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통의 도시인 강릉의 자존심처럼 느껴진다. 물론 이런 느낌은 사라져가는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려는 눈물겨운 시선에 한정된 것일 수도 있다.

강문 여서낭당은 아마도 강릉에서 제일 예쁜 당집일 것이다. 돌담 사이에 작은 대문에는 "강문 진또배기 성황당" 이라는 현판이 붙어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널찍한 마당이 나온다. 입구 왼쪽에는 땅을 파서 만든 불판이 있다. 정월 보름은 말할 것도 없고 4월 보름 동제도 밤에는 춥기 때문에 불을 피우는 곳이다. 예전에는 이곳에서 큰 무쇠 솥을 걸어놓고 소머리도 삶고 제물을 준비했다. 정면으로 당집이 있다. 3칸의 단청이 고운 한옥이다. 지붕은 작은 동산으로 이어지는데 이 산이 바로 오죽헌에서 내려왔다는 죽도봉이다. 하지만 그 위로 웅장한 씨마크 호텔이 서있어서 마치 당이 호텔 발아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한때 마을에서는 당을 옮기는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었다. 당위에 있는 호텔에서 별사람들이 다 먹고 자는데 서낭님이 거처하시기에 깨끗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해사를 담당하는 여서낭당은 반드시 바닷가에 있어야 하는데 이미 해안은 온갖 식당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당집을 옮길만한 자리가 없었다. 마을 안쪽으로 옮길 것인가 그냥 둘 것인가 논의가 팽팽했는데 결국 당집을 그냥 두기로 하였다. 당시 당을 옮기면 안 된다고 강경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민들은 바다에서 일하는 어촌계원들이 아니라 할머니들이었다. 할머니들의 신앙이 더 완고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여서낭당이 있는 죽도봉과 여서낭은 모두 외부에서 떠들어왔다고 한다. "떠들어온 섬"이고 "떠들어온 서낭"인 것이다. 마을에 전승되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강문에 죽도봉이 있고 그 봉 동쪽 낙맥 숲에 암서낭당이 있다. 아주 오랜 옛날 죽도봉이 마을 서쪽에 있는 오죽헌 뒤에 있었다. 어느 해 포락에 물에 떠내려 와 이곳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때 궤짝 하나가 같이 떠내려 오다가 나뭇가지에 걸렸다.

어느 날 마을에 사는 노인이 꿈을 꾸었는데 신령이 나타나 "내가 있는 여기가 내 자리니 집을 지어주시오" 하고 사라졌다. 꿈을 깬 노인이 죽도봉에 가보니 궤짝 하나가 나뭇가지에 걸려있었다. 노인이 그 궤짝을 열어보니 빨강색, 노랑색, 파랑색의 헝겊에 글씨가 쓰여져 있었다. 그래서 노인은 그 자리에다 집을 짓고 그것을 모셨는데 이곳이 현재의 암서낭이다. 마을 사람들은 고기가 잘 잡히지 않으면 암서낭에 와 치성을 올린다. 그러면 고기가 잘 잡혔다고 한다.[4]

이 신화에 의하면 강문의 죽도봉과 여서낭의 신체는 포락으로 오죽헌에서 떠내려 온 것이다. 그런데 산이나 서낭신이 출발한 장소가 바다가 아니라는 점이 특이하다. 심곡이나 삼척의 덕봉산의 경우 모두 바다에서 떠들어왔기 때문이다. 떠들어온 신의 신성성은 노인의 현몽으로 증명된다. 외부에서 들어온 존재가 마을신앙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신성의 후광이 필요하다. 현몽모티프의 차용은 여서낭 신화의 신성성

4) 김기설, 『강릉에만 있는 얘기』, 민속원, 2000, 139쪽.

을 보장해주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마을에 영향력이 있는 노인의 꿈은 여서낭을 당으로 모시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궤짝 안에는 글씨가 써진 빨강, 노랑, 파랑색의 헝겊이 들어 있었다. 이런 물색 헝겊은 배에서 모시는 서낭에게 바치는 천과 유사하다. 이런 경위로 여서낭은 자연스럽게 바다를 관장하는 신으로 좌정하게 되었을 것이다. 여서낭을 모신 후 마을에 풍어가 들었다는 영험성은 결국 신성성을 담보하게 되어 마을신앙으로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꿈을 꾼 노인과 여서낭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될 수 있을까. 지역에서는 이런 노인을 흔히 수부라고 부른다. 대부분 영동지역 서낭당에는 마당에 수부당이 따로 있다. 그리고 당제사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수부를 대접한다. 수부는 마을에서 서낭당 제사를 극진히 모시던 사람의 넋이라고 한다. 이처럼 꿈을 꾼 노인을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신격으로 모심으로써 현몽 모티프는 더욱 신성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강문 서낭당에도 수부당이 따로 있다. 현재 모습은 장군처럼 설정되어있지만 노인과 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한편 강문에는 여서낭이 정착한 죽도봉과 관련한 이야기도 전승되고 있다.

> 죽도봉은 원래 용의 형국이라고 한다. 후에 철도를 놓을 때 용허리를 끊어 사람들이 다쳤고 또 현대호텔을 지을 때

도 그곳이 바로 용아가리인지라 짐승의 피해가 있었다고 한다.[5]

죽도봉은 강문교 북쪽에 있다. 옛날 이 봉에 대나무가 많이 있어 생긴 이름으로 나라에 진상했다. 일본 사람들이 용이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곳 바위 세 군데에 철을 박았다.[6]

두 이야기 모두 죽도봉이 용처럼 생겼음을 말하고 있다. 이는 죽도봉이 수신의 성격을 지녔다는 의미이다. 어촌에서는 용왕을 중시하여 흔히 용왕제나 용왕굿을 한다. 하지만 물은 농사에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용은 농촌과 어촌에서 모두 중요한 신격인 것이다.

여서낭당과 호랑이에 얽힌 이야기도 전승되고 있다. 옛날 제를 지내면 꼭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호랑이는 여서낭당 뒤편 팽나무에서 나타나 강문 포구에 있는 호랑바위에 앉아 제사를 지켜본 뒤 다음 남서낭당에 가서 쉬었다가 죽도봉으로 사라졌다고 한다. 재해가 일어날 조짐이 있으면 호랑이가 꼬리로 바위를 쳐서 알려주었다고 전한다. 여서낭당에서 새옹메를 짓고 있는데 호랑이가 나타나 모래를 뿌린 적도

5) 장정룡, 『강릉의 민속문화』, 대신출판사, 1991, 112쪽.
6) 김기설, 『강릉에만 있는 얘기』, 민속원, 2000, 135쪽.

있었다고 한다. 강문 포구에 있던 호랑바위는 1999년 포구를 확장하면서 강문어촌회관 앞으로 옮겼다. 지금은 그 앞에 호랑이 상도 만들어 세워놓았다. 강릉단오제에서 신앙하는 국사여성황은 호랑이에 물려간 정씨여인이다. 강문의 여서낭과 호랑이의 관계 역시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

⑶ 진또배기 서낭굿의 준비과정

강문에는 대동계가 있어서 집집마다 돈이나 쌀을 추렴하여 이장(일제강점기에는 구장) 주관 아래 굿을 해왔다. 1961년 어촌계가 생긴 이후 자연스럽게 이관되어 오늘에 이른다. 하지만 굿을 할 때가 되면 어김없이 이번은 힘드니까 한번 넘기자, 또는 아예 그만 두자 등등 의논이 분분하다. 결국 지난 2004년에 굿을 하고는 2008년까지 5년 동안 굿을 하지 못한 적도 있었다. 마을의 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굿을 할 때에는 강릉시와 강원도수협의 보조금을 받지만 넉넉한 것은 아니다. 강문의 어촌계원은 해마다 줄어들어 2008년 33명에서 2018년에는 20명이 남았다. 이들 소수의 어촌계원들이 내는 수입으로는 굿 비용 마련이 어렵다.

2008년에는 그 전년도에 진또배기 서낭을 옮긴 터이라 굿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을에서는 정월 보름 줄을 당긴 후에 지신밟기를 해서 250만원을 마련했다. 강릉시가 서낭당 단청도 새로 해주고 금액도 지원해서 굿을 하게 되었다. 2018년에는 수협과 강릉시의 지원금을 바탕으로 어촌계가 나서서 굿을 진행했다. 인근의 어촌계와 주민들 가운데 약간

의 후원금이 있다. 이번에도 예외 없이 굿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의가 분분했다. 지원금이 있어도 어촌계의 지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만약 지원금마저 끊긴다면 더 이상 유지는 어려울 것이다.

굿을 하려면 먼저 도가와 제관을 선정해야 한다. 중간에 10여 년 동안 부녀회가 제물을 맡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깨끗하지 않다는 여론이 있어서 최근에는 다시 도가를 선정하고 있다. 도가를 맡으면 다음 굿을 할 때까지 마을을 위해서 부정한 일을 삼가야 된다. 상가喪家를 가거나 먼 길을 떠나는 등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도가맡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부부만 살고 있어 비교적 깨끗한 노인을 설득하여 도가를 맡긴다. 초헌관은 어촌계장이 맡고, 아헌관과 종헌관은 초당동장이나 어촌계원 가운데 고령자가 맡는다. 그 외에 대잡이와 집사를 선정한다. 굿을 할 때는 적어도 준비하는 날을 포함하여 4일 동안 모든 어촌계원들이 바다에 나갈 수 없다. 조업을 못하니까 아무래도 경제적 손실이 크다. 정성을 들이면 서낭님이 더 많이 잡게 해주신다는 돈독한 신앙심이 약화된 시대에 큰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진또배기는 굿을 하기 전에 새로 깎았다. 진또배기는 특별히 전문가의 솜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전승되는 형태 자체가 이미 예술성을 갖추고 있는 흔치 않은 경우라고 하겠다. 진또배기는 오래 도가를 맡았던 김용이, 김기호 노인이 잘 깎았다. 최근에는 잘 깎는 노인들이 돌아가셔서 굿을 할 때마다 깍지는 않는다.

제물 가운데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것은 제주이다. 제주는

도가가 직접 담는다. 제주를 담은 항아리는 여서낭당 뒤에 있는 나무 아래에 묻어두었다가 제사 직전에 거른다. 제주를 봉한 후에 비로소 서낭당과 도가 집 대문에 금줄을 쳤다. 그렇지만 죽도봉 위에 호텔이 들어서면서 술독을 묻던 아름드리 나무가 담 밖으로 나가 지금은 호텔 소유가 되었다. 4월 보름제사와 굿에서는 소가 가장 중요한 제물이다. 전에는 서낭당 안에서 숫송아지를 잡았지만 요즘은 소머리와 족 4개, 우랑, 간, 천엽 등을 올린다. 여전히 소머리는 서낭당 안에서 삶는다. 선주들이 직접 바다에서 잡은 큰 고기를 가져오던 풍습은 사라진지 오래이다. 하지만 시장에서 가장 좋은 어물을 사서 올린다. 문어, 가자미, 우럭, 명태 열기 등을 준비하고 떡을 시루째 올린다. 대추, 밤, 곶감과 배, 사과, 과줄은 보기 좋게 괸다. 메는 역시 당 안에서 새옹에 짓는데 여서낭, 남서낭, 수부 앞으로 각각 하나씩 올린다. 메를 짓는 동안 도가는 뚜껑을 열어볼 수 없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옆을 지킨다. 진또배기에는 주과포와 술만 가져가고 메는 올리지 않는다.

서낭당 마당에는 흰 차일을 치고 하늘 높이 괫대를 달았다. 마당은 탑등과 용선으로 장식하고 연봉 두 개를 비롯하여 지화로 굿청을 장식하였다. 제물은 서낭당 가장 안쪽에 모신 여서낭 화분 앞에 진설하였다. 경포와 강문을 잇는 강문교에는 청사초롱을 달고 특히 당 앞에는 뱃기들을 꽂아놓았다. 바람에 휘날리는 화려한 뱃기들이 축제의 분위기를 띄운다. 가능한 화려하게 주변을 장식함으로써 외부인들에게 축제를 알리려는 의도가 보였다.

⑷ 강문 진또배기 서낭굿의 순서와 내용

2박 3일 진행하는 굿은 매일 아침 열시쯤 시작해서 밤 열시쯤 끝났다. 전에는 밤늦도록 굿을 했지만 민원이 많아져서 일찍 마치는 편이다. 사흘째 되는 마지막 날은 철상을 하고 바다에 나가서 용왕굿과 거리를 메긴 후 점심이 되기 전에 모든 굿을 마쳤다. 굿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부정굿** : 굿을 준비하거나 구경하는 모든 사람들의 부정을 물리는 굿이다. 무녀는 신칼을 들고 부정무가를 부른 후에 물과 불로 부정을 가신다.

② **당맞이굿** : 마을지킴이인 서낭을 맞이하는 굿이다. 서낭대를 잡은 대잡이를 앞세우고 무당일행과 주민들은 먼저 남서낭당으로 간다. 당 안에 메, 떡, 어물, 삼실과, 과일, 술 석잔으로 간단한 제물을 진설한 뒤에 무녀가 부정치고 신을 모시는 굿을 한다. 대잡이가 당 앞에 서면 무녀는 제금을 치면서 대를 내린다. 앞으로 사흘 동안 굿을 하게 되니 아무쪼록 신이 대에 설설이 내리시어 여서낭당으로 가시자는 내용이다. 저절로 대가 떨리면 신이 응답한 것으로 알고 서낭대에 모시고 가는 것이다.

이어서 일행은 진또배기 앞으로 간다. 진또배기 앞에서는 주과포를 진설한 뒤에 무녀가 간단히 부정가시고 축원해준다. 대개 진또배기에는 무당이 가지 않고 주민 대표 서넛이 주과포를 진설하고 잔을 올린 뒤 절하는 것으로 마친다. 여서낭당으로 돌아온 무녀는 세습무의 전통에 따라 술 한 잔을 부어놓은 뒤 이 마을에서 굿을 하던 무당조상들의 안식을 기

원하는 신장빌기를 한다.

③ **청좌굿** : 모셔온 서낭신을 비롯하여 무속에서 신앙하는 여러 신들을 굿청에 앉히는 굿이다.

④ **화해굿** : 모셔온 남서낭과 여서낭이 화합하기를 기원한다.

⑤ **조상굿** : 조상 없는 집안이 어디 있겠는가. 마을에 살고 있는 여러 집안의 조상들을 대접하는 굿이다.

⑥ **세존굿** : 여자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당금애기 굿이라고도 한다. 당금애기는 부모와 아홉 오라버니가 출타한 사이에 열두 대문을 진언을 쳐서 열고 세존과 인연을 맺는다. 죽을 고비를 넘긴 후 당금애기는 혼자 세 아들을 낳아 키운다. 그렇지만 아비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세 아들을 위해 남편을 찾아 나선다. 마침에 부자가 만나 결합하는 긴 스토리의 무속신화를 구연하는 굿이다. 무가구연이 끝나면 무녀는 삼오장 장단에 빠른 춤을 추고 바라춤을 춘다. 이어서 제관 중 한 명에게 중 옷을 입히고 시주를 걷게 하는 중놀이를 한다. 세존굿의 마지막은 양중들이 나와서 마을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중도둑잡희라는 굿놀이로 끝난다.

⑦ **산신굿** : 산신을 모시는 굿이다. 여러 지역의 큰 산의 산신을 불러 대접한다.

⑧ **지신굿** : 풍요를 주는 땅의 신을 위해서 굿을 한다.

⑨ **성주굿** : 무녀는 한지 두른 갓을 쓰고, 당 앞에는 쌀이 그득 든 말에 초를 한 자루 꽂은 성주상을 준비해놓았다. 성주굿은 집을 짓는 과정을 자세히 묘사한 뒤에 온갖 복을 불어주는 굿이다. 무녀가 마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시주받으러 가는 사이에 다른 무녀들과 동네 할머니, 아낙들도 나와서 춤춘다.

마지막에는 홍두깨 위에 성주상을 세우는 묘기를 보여준다.

⑩ **심청굿** : 무녀는 갓을 쓰고 한지를 오려 총채처럼 만든 손대를 들었다. 사람들은 다투어 손대에 돈을 건다. 판소리 심청가와 같은 내용을 무녀가 노래한다. 하지만 이 굿의 목적은 눈총을 맑게 하고 심청이같은 효녀가 마을에 많이 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무가구연이 끝나면 무녀가 장님인 심봉사의 역할을 하면서 제관들을 불러 앉히고 점을 친다. 마지막에 무녀는 약수를 눈에 바르고 눈을 뜬다. 사람들 역시 약수를 바른다. 이렇게 하면 눈이 맑아진다고 믿는다. 할머니들이 나와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여흥을 즐긴다.

⑪ **놋동이굿** : 군웅 장수를 모시는 굿이다. 무녀가 무거운 놋동이를 입술로 물어올리는 묘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명칭이 붙었다. 굿이 끝난 뒤에 무녀들이 모두 나와서 춤을 추었다. 수비(장군신을 따라온 하위급의 잡귀)푸는 것으로 굿을 마친다.

⑫ **천왕굿** : 신의 성격이 모호하지만 불교적 색채가 강한 천왕을 모시는 굿이다.

⑬ **손님굿** : 천연두나 홍역을 주는 마마신을 모시는 굿이다. 무녀가 손대를 어깨에 걸고 등장하면 사람들이 돈을 건다. 손님을 속이고 무시한 아버지 때문에 아들 철영이가 천연두로 죽은 뒤 결국 손님의 마부가 되었다는 긴 이야기를 구송한다. 굿이 끝나면 무녀는 어촌계장을 꿇어앉히고 말놀이를 한다.

⑭ **제면굿** : 무당의 조상이라는 제면할머니를 모시는 굿이다. 무녀는 팔도무당굿 흉내를 내어 사람들을 웃기고 제면떡을 나눠준다.

⑮ **칠성굿** : 수명장수를 주는 칠성을 모신다.

⑯ **꽃노래굿** : 무녀들이 굿상의 꽃을 들고 춤을 춘다. 신이 돌아가시는 길을 환송하는 의미가 있다.

⑰ **뱃노래굿** : 굿청에 달아놓았던 용선을 내려 앞뒤로 흔들면서 노래한다. 역시 신이 돌아가시는 길에 타고 가는 배라고 생각한다.

⑱ **등노래굿** : 초롱등을 들고 여러 무녀들이 춤을 춘 다음 탑등을 들고 무녀가 혼자 춤을 춘다. 신이 돌아가시는 길을 밝혀준다는 의미가 있다. 등노래굿이 끝나면 제물을 철상하고 바닷가로 나간다.

⑲ **용왕굿** : 바닷가에 뱃기를 꽂아놓고 용왕을 모시는 굿을 한다. 선주들을 비롯한 어민들이 모두 나와서 굿에 참여한다. 무녀는 물동이를 타고 공수를 준다. 이어서 다시 대를 내린다. 대잡이는 서낭기를 들고 무녀의 말에 따라 대를 움직인다. 2008년 굿에서 대를 잡았던 장용복씨는 마을에 큰 재물이 들어온다는 것과 정씨, 박씨, 윤씨를 조심하라고 했다는 무녀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굿이 끝난 뒤 마을에 큰 고래가 들어와서 2천3백5십만 원에 팔았다. 고래를 발견한 사람들이 마을에 3백만 원을 내어놓아 잔치를 했다고 한다. 2018년에는 그동안 애를 많이 쓴 어촌계장을 비롯한 주민들을 위로하고 관광객들 가운데 사고 조심하라고 일렀다. 앞으로 풍어가 들 것이라는 예언도 하면서 많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⑳ **거리굿** : 굿에 따라든 잡귀들인 수비 영산을 풀어먹이는 굿이다. 이 굿은 남자들끼리 한다. 양중이 장구잡이를 상대로

연극적으로 굿을 진행한다.

㉑ **뒤거둠** : 굿이 다 끝난 뒤 사흘째 되는 날 뒤거둠을 한다. 흔히 재고사라고 하는데 무당을 부르기도 하고 제관 중 한 사람이 맡기도 한다. 간단하게 제물을 장만하여 제사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비는 것이다.

(5) 2018년 강문 진또배기 서낭굿의 현장

굿을 하는 사흘 동안 서낭당에는 구경꾼이 많지 않았다. 마당 가득 의자들을 놓았지만 만석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렇지만 열성적인 부녀자들과 몇몇 젊은 어촌계원들, 그리고 마을일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노인들이 한 마음으로 굿을 진행하였고 사이사이 신명풀이도 했다. 날이 어둡기 전부터 이미 술에 취한 아저씨는 무당보다 더 열심히 춤을 추고 무당이나 악사들에게 돈을 꼽아주기도 하면서 굿 고유의 흥청대는 분위기를 유지했다.

여서낭의 화분을 모셔놓은 앞마루에는 소지를 올리러 온 부녀자들이 끊이지 않았다. 가볍게 절을 한 아주머니가 주저앉아 무녀에게 이리저리 집안 사정을 말하면 귀 기울여 잘 들은 무녀는 얇은 소지종이를 말아 쥐고 축원하면서 촛불에 붙여 호르르 날려 보낸다. 인자한 얼굴의 여서낭님께 간절한 소원을 고한 부녀자가 깊숙이 절을 하고 물러나면 다음 아주머니가 그 자리에 앉는다. 굿청에서는 남쾌자 자락을 뒤로 느직하게 매고 흰 치마저고리 입고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른 무녀가 열심히 굿을 하고 있다. 팔이 빠져라 채를 두드리는 장구잡이는 구슬땀을 흘리면서 바라지를 하고 서넛이 함께



강문 진또배기 서낭굿 현장



치는 양중들의 꽹과리소리가 신명을 돋운다. 늙은 무녀는 조화로운 구음으로 춤과 악기사이를 조절한다. 굿청 바로 옆 마당에서는 차마 무녀들의 공간인 당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한 아주머니들이 무악에 맞춰 막춤을 추고 있다. 글쎄 신명으로 말하면 무당 못지않은데 이쪽이 더하면 더하지 않을까.

강문 서낭굿의 분위기는 저녁이 되면서 더욱 훈훈해진다. 당 입구에는 널찍한 조개탄 불판이 있어서 쌀쌀한 초여름 바닷가 바람을 막아준다. 노인들은 의자에 앉아 흐뭇한 얼굴로 굿 구경을 하고, 지나가던 관광객들이 호기심에 들어왔다가 눈을 반짝이면서 자리를 뜨지 못하기도 한다. 젊은 무녀가 칠성굿을 했다. 무녀는 우주가 생성된 뒤 단군, 신라, 고려,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반만년 우리나라 역사를 서술하는 치국잡이 무가로 굿을 시작했다. 문득 조금 전까지 열심히 춤추던 아주머니 한 분이 옆에 앉으면서 말을 건다. "근데 왜 무녀가 저렇게 말을 하면 왜 눈물이 날까요?", '그래 그런 게 있다.' 무당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도 그 의미와 상관없이 굿은 참 사람을 신명나게도 하고 슬프게도 만든다. 인간 감정의 진폭을 가장 크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굿의 놀라운 힘이 아닌가.

호텔의 호의인가. 호텔 주차장 한 편에 마련된 과방에서는 끝없이 술과 안주가 나온다. 부침개도 있고 떡도 있고 과일도 있다. 어느새 한복으로 갈아입은 부녀회원들은 굿 구경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술과 안주를 대접하면서 본인들도 한 잔씩 마시는 것을 잊지 않는다. 밤이 깊어간다. 이제 굿이 마지막으로 접어들어 무녀들이 유행가를



용왕굿

부르기 시작하면 굿판은 문자 그대로 난장판이 된다. 일상의 질서가 뒤바뀐 진정한 의미의 굿판이다. 굿을 받은 서낭님은 자손들 정성을 받아 기분이 좋으시고 동네 어른들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이렇게 또 한 번 전통을 지켜내어 흐뭇하고 아낙들은 막춤으로 스트레스 풀어 좋으며 관광객들은 예상치 못한 광경에 즐겁고 무당들은 돈을 벌어 좋다. 이렇게 신성한 놀이를 통해 신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장면이 바닷가 작은 서낭당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강문 진또배기 서낭굿에서 가장 중요한 굿은 아마도 마지막 날에 하는 용왕굿일 것이다. 용왕굿은 바다에 나가서 한다. 먼저 배임자들은 자신들의 뱃기를 해안에 꽂아놓는다. 이제 강문에는 배가 몇 척 되지 않는다. 그나마 모든 선주들이 참여하지 않아서 뱃기는 대여섯에 불과했다. 하지만 뱃기들은 바닷바람을 안고 휘날리고 무녀는 물이 담긴 항아리에 올라가 용왕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잊지 않고 굿을 해주니 고맙다는 위로와 감사의 말, 앞으로 아무 사고 없이 막아준다. 마지막으로 비록 경기는 좋지 않으나 영검하신 용왕님이 아니신가. 앞으로 발전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무녀들은 저마다 해안에 꽂아두었던 뱃기를 하나씩 뽑아 마음껏 휘두르면서 바닷물에 적신다. 뱃기와 용왕님이 직접 만나는 상징적인 행위이다. 초여름 강렬한 햇빛이 사정없이 내리쪼이는 바닷가에서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펄럭이는 뱃기들. 해안에 옹기종기 모여앉아 용왕님의 분부를 듣는 사람들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다. 위험하지만 풍요로운 바다. 그 바다를 의지하고 살던 토박이 자손들이 강문의 전통

과 어촌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서낭굿이 끝났다.

⑹ 강문 진또배기 서낭굿의 특징

강문 서낭굿의 내용은 동해안 지역에서 전승되는 굿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 동해안 어촌은 남서낭과 여서낭을 모신다. 남서낭은 마을의 안과태평을 주관하고 여서낭은 해사를 보살펴준다고 믿는다. 동제는 함께 모시지만 굿은 주로 해사를 관장하는 여서낭을 중심으로 하면서 생업의 풍요를 보장받는다. 특히 강문에서는 여서낭에게 바치는 제물 가운데 반드시 우낭이 들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소 한 마리를 바친다고 하지만 제물의 핵심은 우낭에 있다. 이는 강릉 안인이나 삼척 신남에 전승되어온 남근신앙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바다를 관장하는 신이 여성이라는 점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남성이라는 음양대비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용왕굿

굿을 하는 시기도 강릉의 다른 서낭굿에 비해 특이하다. 동해안지역 마을의 별신굿이나 서낭굿은 음력 3월과 4월에 많이 하는데 대부분은 정해진 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날을 받아서 한다. 도가와

생기복덕을 맞춰 길일을 정하는 것이다. 강문은 4월 보름으로 정해져 있다. 4월 보름은 정월대보름이나 추석같은 명절은 아니다. 그러나 달의 운행은 해사와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름달을 중심으로 제의날짜가 정해 졌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날은 강릉사람들이 대관령에 올라가 국사성황신을 모시고 내려온 날이기도 하다. 강문에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대관령에서 큰 나무가 떠내려 와 진또배기를 만들어 세웠다는 전승이 있다.[7]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대관령의 산신과 강문의 해신이 만나는 신성한 자리가 바로 강문 서낭굿이라는 가설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녀서낭과 함께 특별히 진또배기를 모신다는 것이다. 진또배기는 다른 지역에서 흔히 솟대라고 부른다. 일찍이 손진태는 솟대를 소도蘇塗와 연결시켜 해석한 바 있다. 삼국지 마한전에 보이는 소도란 지역의 명칭이 아니라 마을과 마을의 경계 표시로써 신앙된 것이며 그 신간은 지금까지 솟대로 원형이 전수되고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손진태는 이를 몽고의 오보와 연결시켜 연구하였다. 그렇지만 솟대의 정확한 연원이나 기능은 말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전승되는 솟대는 대개 장승과 함께 마을입구에서 마을을 지키는 역할을 맡는다. 서있는 장소로 본다면 손진태가 말한바 오보처럼 지역경계표시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필영은 솟대의 원형적 모습은 신과 인간, 하늘과 땅을 이어

7) 코리아루트, '이 땅의 꿈－솟대지기'(2004년 9월 26일 EBS방송).

주는 신성한 나무, 우주의 나무라고 해석했다.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는 천신의 사자로써 기능한다는 것이다.

정승모는 강문 진또배기를 골맥이성황이라고 보았다. 고을을 막아준다는 의미를 지닌 골맥이성황의 명칭은 영동지역 내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컨대 짐대, 진대, 진또배기, 짐대베기, 진대배기, 짐대성황, 진대성황, 오릿대 등인데 명칭의 차이와는 관계없이 대부분 이를 골맥이성황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마을에 따라 새가 향하는 방향은 각각 다른데 강문의 경우 경포 쪽을 향해있다. 그 방향으로부터 오는 액을 막기 위한 것이다. 새의 방향이 갖는 의미에서 나타나듯이 골맥이성황은 재앙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고자하는 민간신앙의 발로라고 해석했다.[8] 하지만 강문에는 남서낭을 골매기서낭이라고 부른다. 즉 골매기서낭과 진또배기 서낭이 공존하는 것이다. 그런데 진또배기 서낭이 있던 자리는 원래 마을 입구였다고 한다. 마을입구에서 서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액을 물리는 역할이 가장 강한 것이 바로 강문 진또배기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강문의 진또배기는 수살, 화살, 풍살을 막아준다고 믿고 있다. 한편 오리는 수신水神의 기능이 있어 농사를 잘 되게 하는 기능도 갖는다. 이처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솟대의 성격은 강문 진또배기에 대부분 해당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8) 정승모, 「영동지역 주민들의 골맥이성황 신앙」, 『강원지방 장승 솟대신앙』, 국립민속박물관, 1988, 23쪽.

강문은 진또배기 서낭의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을까

어업은 위험할 뿐 아니라 투기성이 강하여 현실적인 종교인 무속신앙에 크게 의지하여 왔다. 또한 조업과정에서 공동 작업이 요구되고 생산 수요의 관계에 따라 가격이 일정하지 않은 관계로 판매에서도 보다 유리한 값을 받기 위해서는 협동이 필요하다는 삶의 조건이 굿 전승의 바탕이라고 하겠다. 또한 마을의 전통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는데 굿이 매우 유용하다는 경험적 인식과 축제 자체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 역시 굿이 전승되는 중요한 이유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부 중심의 연안 조업이 늘어나면서 공동체의식이 약화되고 있고 무엇보다 자원 고갈로 인한 어업의 수익악화로 마을 굿이 줄어들고 있다. 강문 역시 예외가 아니다. 특히 강문은 항구가 없어 큰 배를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업이 발전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결국 특별한 지원이 없는 한 강문의 서낭굿은 곧 전승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 작은 마을에서 상당한 비용이 드는 서낭굿을 지금까지 전승해온 것만도 기적에 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문은 동해안 고유의 마을신앙을 지키는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첫째는 지리적으로 위치가 좋다는 것이다. 강문마을은 경포해변 끝자락에 있다. 유명한 관광지 경포해변은 물론이고 경포호수와도 가깝다. 근처에는 씨마크 호텔을 비롯하여 강릉에서 내로라하는 호텔들이 즐비하다. 사람들이 몰리는 관광지 한복판에 서있는 셈이다. 가장 현대적인 건축물 사이에 작고 예쁘고 어쩌면 원시적인 작은 서낭당은 그 자체로 존재감이 있다. 다만 서낭당은 늘 잠겨있다. 당당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오가는 사람들에게 개방하면 어떨까. 그래서 마을주민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풍요를 빌어주는 신격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면 강문 서낭굿의 미래는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로 강문의 강점은 역시 진또배기 서낭에 있다. 이제 진또배기 서낭은 남서낭당 소나무 숲속에 자리를 잡았다. 크지는 않지만 숲이 좋아서 조금만 가꾸면 많은 사람들의 쉼터가 될 만하다. 마을에서는 다양한 크기의 진또배기를 깎아서 관광상품으로 판매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강릉뿐 아니라 전국 관광지에서 진또배기를 모델로 한 솟대들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정작 강문에는 보이지 않는다. 강문이 진또배기의 고향임을 널리 알리고 상품화하면서 무형문화의 발전을 함께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강문은 지난 2008년 10월 강문 진또배기 보존위원회를 설립한 바 있었다. 그동안 큰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 그렇지만 이런 조직을 살려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면 동제와 서낭굿, 진또배기의 전통을 함께 가지고 가는 향기 있는 마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적절하게 자신들이 지닌 문화를 개방하고 상품화하는 방안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지혜를 모을 시점이다.

15.

건금마을 용물달기

무형유산 범주

- 구분 : 강릉 비지정무형유산
- 영역 : 전통적 놀이・축제

무형유산 내용

- 대굴령 아래 가장 풍요로운 건금마을
- 모름지기 농사의 근본은 물에 있다
- 민속놀이, 공연이 되다
- 기로에 선 전승 : 단순한 공연인가, 건강한 민속놀이로의 전환인가

대굴령 아래 가장 풍요로운 건금마을

용물달기를 전승하고 있는 곳은 흔히 겡금, 갱금이라고 부르는 건금마을, 행정으로는 금산2리이다. 대관령 옛길을 내려

오면 왼쪽 산 아래 강릉 3대 평야의 하나인 금산평야가 펼쳐진다. 고속도로가 나면서 금산평야는 논이 많이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가을이면 황금빛으로 출렁이는 금산평야는 주렁주렁 빨간 감을 매달고 있는 감나무와 어울려 더욱 풍요롭게 보인다. 논 뒤에는 크고 작은 기와집들이 여유 있게 늘어서 있는데 이곳이 바로 건금마을이다. 금산평야 옆으로 강릉의 젖줄, 남대천이 흐르고 있어 건금마을은 농촌으로서 최고의 조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다.

건금建金이라는 이름은 강릉김씨 집성촌으로 강릉김씨가 세운 마을이라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그 후에 마을 뒤 산줄기가 옥녀가 거문고를 타는 옥녀탄금형玉女彈琴形이라고 하여 금산琴山이라고 부르다가 다시 강릉김씨들이 사는 마을이라고 하여 금산金山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건금마을은 근본 있는 농촌이다. 논농사가 주업이고 감나무가 많아서 곶감도 했다. 아무리 논이 너르고 좋다고 해도 대부분 소작인지라 먹고 살기는 쉽지 않았다. 농사 외에는 누에를 쳐서 목돈을 만졌고 여자들은 삼을 삼아 베를 짰다. 부잣집에서는 소를 키웠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럴 여유도 없었다고 한다. 지금은 주민 대부분이 노인들인지라 농사를 짓는 집이 많이 줄었다. 건금마을에는 현재 12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삼분의 일 정도가 토박이다. 토박이들은 나이가 많아도 하다못해 고추농사라도 집에서 짓고 있다. 그 외에 젊은 사람들은 시내가 가까워 직장을 다닌다.

건금마을에는 정정한 노인들이 많다. 평균나이가 70세이고 80세가 넘어도 대부분 건강하다. 지금도 노인회관에 가면



건금마을 전경

50여 명의 노인들이 모여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논다. 이처럼 노인들이 건강하고 단합이 잘되는 마을공동체의 전통은 일제강점기 전승이 중단되었던 "용물달기"를 다시 살리는 기폭제가 되었다. 건금마을은 2005년 농촌건강장수마을로 선정되었다. 당시 전국에서 1백 개 마을이 선정되어 사업을 벌였는데 그 가운데 건금마을이 일등을 하였다. 마을에서 추진한 사업에는 해바라기를 심어 기름을 짜는 공동노동도 있고 전통놀이를 복원한 용물달기도 들어있었다. 그 후 지금까지 주민들이 용물달기 놀이를 전승하고 있는 것이다.

모름지기 농사의 근본은 물에 있다

1) 임경당과 용물달기

농사를 짓는데 물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정월에는 물을 확보하기 위한 주술적 민속들이 전승되고

있다. "용알뜨기"가 대표적인 민속이다. 용알뜨기는 정월 대보름 이른 새벽에 아낙들이 동네 우물을 다니면서 제일 먼저 물을 떠서 자기네 집 우물에 붓는 풍속이다. 아무도 오지 않은 우물의 첫물을 뜨면 용의 알을 떴다는 의미에서 짚 한 올이나 똬리를 던져둔다. 그러면 그 뒤에 온 사람은 용알을 뜰 수 없다. 이렇게 세 곳 우물의 용알을 뜨면 한 해 동안 물이 풍족하고 농사가 잘 된다고 믿었다. 풍부한 물을 확보하기 위한 주술이라는 측면에서 용알뜨기와 용물달기는 서로 상통하는 면이 있다.

그렇지만 머슴들이 중심이 되어 놀이성을 확보하고 있었던 용물달기 민속은 건금마을 고유의 것으로 매우 독특한 것이다. 특히 용물달기는 건금마을의 유지였던 강릉김씨 임경당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련이 있다.

마을의 지명유래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건금마을은 강릉김씨 집성촌이다. 그런데 건금마을이 강릉김씨 동족마을이 된 것은 임경당臨鏡堂을 지은 김열의 아버지 김광헌이 살면서부터라고 한다. 김광헌은 진사벼슬을 했으나 중종 13년(1519)에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낙향하였다. 이때 김광헌이 심었다는 수령 5백여 년의 은행나무가 지금도 살아있다.

임경당은 건금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로 강원도지방 유형문화재 제 46호로 지정되었다. 조선조 선조 때 학자 김열이 지은 별채로 자신의 호를 붙여 임경당이라고 지었다. 율곡 이이는 김열의 아버지 김광헌이 심은 수백그루의 소나무를 잘 가꾸는 모습을 칭찬하면서 호송설護松說이라는 글을 지어주었다. 김열은 과거에 나가지 않았고 벼슬도 하지 않았

다. 그러나 강릉 출신으로 성리학의 가치규범을 충실히 지킨 12분을 모시는 향현사에 추배된 인물이기도 하다.

용물달기는 바로 이 임경당에서 전승해오던 정월 민속이다. 정월 대보름 이른 새벽에 임경당에서 일하는 머슴들이 짚을 꼬아서 만든 용을 끌고 이웃의 샘을 찾아다니면서 물을 떠와 임경당의 용천수에 부었는데 이를 '용물달기'라고 불렀던 것이다. '용물달기'란 명칭은 용이 물을 달고 온다는 의미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인다. 물을 떠서 임경당으로 돌아올 때 용을 들고 가는 앞의 사람이 '오나?' 하면 뒤에서 물을 운반하는 사람이 조금씩 물을 땅바닥에 흘리면서 '온다!' 또 '오나?' 하면 '온다!'라고 말을 주고받는다. 또한 "용아. 용아. 물달아라! 용아. 용아. 물달아라!" 라는 노래를 부르기도 하여 용물달기라는 명칭이 유래된 것으로 짐작한다.

용물달기는 외부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 자기네 집 우물에 넣음으로써 일 년 내내 농사지을 물이 풍족하고 만사가 형통하기를 바라는 기원에서 생긴 민속이다. 대개 이런 민속은 개인적으로 한밤중에 조용히 이루어지는데 부유한 임경당에는 머슴들이 많아서 규모가 커졌고 정월 민속놀이의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용천수는 물이 좋아서 마을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였기에 주민들의 참여도 활발했다. 건금마을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임경당의 사회적 위치도 용물달기가 단순히 한 집안의 행사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놀이가 되는데 일조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건금마을에서는 임경당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남의 우물의 용알을 떠오는 민속이 제법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월대보름 새벽이 되면 집안에 우물



건금마을 우물

이 있는 사람들은 행여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 우물의 용알을 떠갈까봐 밤새 지키곤 했다. 남의 집 우물을 찾아와 용알을 떠가려는 사람들과 이를 지키려는 사람들 간의 긴장과 갈등이 용물달기 같은 싸움놀이를 만들었을 것이다.

용물달기는 상수도가 들어오고 머슴문화가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전승이 중단되었다. 그 후 1997년 전국민속예술축제에 출전하여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당시 고증에 문제가 제기되어 마을에서의 전승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2006년 장수사업을 계기로 새롭게 시작한 용물달기는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마을 주민들이 전승하고 있다.

2) 주민들 인터뷰를 통해 본 용물달기와 건금마을 정월민속의 다양한 모습

(1) 용물달기

용물달기는 건금마을의 정월민속을 대표하고 있다. 그렇지만 30년 이상 전승이 중단되었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려웠다. 2003년부터 故 김형기 씨를 비롯하여 2007년에 인터뷰한 故 권망용, 김홍남, 최종하, 함봉식 노인들의 인터뷰를 통해 용의 모습과 용물달기의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다. 정월에는 새쫓기와 다리뺏기 놀이도 했다. 새를 쫓으면서 여자들이 임경당의 문을 두드렸다는 증언이나(김형기 담) 남대천 돌다리를 놓고 금산과 회산마을 주민들이 하던 다리뺏기 놀이는 건금마을의 정월을 풍요롭게 해준 중요한 민속놀이였다. 이러한 다양한 놀이들이 용물달기와 어우러져 건금마을의 정월민속놀이가 되었다.

용물달기에 대한 고증은 작고한 김형기 씨의 증언이 있다. 2003년 당시 85세였던 김형기 씨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 정월 14일 저녁에 주민들이 임경당에 모여 새끼를 꼬아 용을 만든다. 주인이 차려주는 상을 잘 먹은 뒤에 용을 끌고 남의 샘물에 물을 달러 간다. 첫 번째로 항생골 샘, 두 번째로 솔밑골 샘, 마지막으로 둔봉에 있는 둔지샘으로 간다. 각각 임경당에서 북쪽, 서쪽, 남쪽에 있는 샘이다. 샘에 도착하면 용이 물에 완전히 젖을 때까지 푹 담궜다가 꺼낸다. 그 후 따라간 사람들이 바가지나 주전자 등에 물을 뜬다. 용잡이가 용을 질질 끌고 앞장서서 임경당으로 가면 동네

사람들이 뒤를 따라오면서 손으로 용에게 물을 뿌린다. 이 때 "용아. 용아. 물달아라, 용아. 용아. 물달아라" 라고 소리를 지른다.

2007년 강원도 민속예술축제 참가를 앞두고 여러 노인들을 인터뷰한 자료를 소개한다.

약 40여 년 전에 직접 보았다. 짚으로 용을 만들어 끌고 가면서 우물에 담궜다가 양동이에 물을 담아서 앞에서 조금씩 부으면서 "물 달으러 간다." 고 외치면서 갔다. 용은 임경당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는 길로 해서 우물로 갔다. 용물달기는 3년을 더 구경한 뒤에 전승이 중단되었다.
용은 상상의 동물이니 본 사람이 없다. 당시에는 귀가 없었다. 귀를 만든 것은 작년에 우리가 용물달기를 하면서 만든 것이다. 꼬리는 두 개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3개씩 갈라진 모습으로 옛날 밧줄 꼬듯이 만들었다. 발도 안 만들고 그냥 새끼를 감아가지고 끄트머리를 꼬드라. 용은 반드시 땅에 끌고 온다. 물에 적신 후 땅에 질질 끌고 임경당까지 오는 것이다. 권망용, 노인회장, 2007년 인터뷰.

임경당에서 물을 달아오는 곳은 항생골 우물, 솔밑골 우물, 둔봉우물인데 이렇게 셋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임경당에서 용물을 단 우물에는 아랫장골 샘터우물도 있었다. 샘이 잘 나는 개인집 우물을 달아오는데 사실은 훔쳐오는 것이다.

물 달아 오는 일은 주로 머슴들이 했다. 오뉴월 가뭄이 들면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물을 훔쳐오는 것이다. 정월 열나흗날 밤이면 머슴들을 행랑방에 모아놓고 술과 음식을 줄테니 새벽 한 시에 물을 훔쳐오라고 시키는 것이다. 물을 달아 오면 가물어도 우물이 마르지 않으니 여기에서 유래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집도 우물 맛이 좋다고 평이 났었다. 행인들이 다닐 때에 우리 우물에 와서 먹고 쉬었다. 정월 대보름날 우리 우물 훔치러 온다고 하면 아버지, 할아버지가 머슴과 우리들에게 우물을 지키게 했다. 밤 한시까지 지키고 앉아있다 보니 어떤 때는 졸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른 집에서 물을 훔쳐가는 수도 있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초저녁에 우물 위에 무거운 안반이나 베(벼) 마댕이 태치는 돌을 올려놓았다.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밧줄로 아주 단단히 동여 매놓는다. 만약 물을 훔치러 오는 사람하고 맞부딪히면 싸움이 났다. 격투가 벌어지는 것이다.

김홍남, 노인회부회장, 2007년 인터뷰.

용의 귀는 내가 의견을 내어서 작년에 만들었다. 귀가 없으니까 이상해보이더라. 여의주도 만들었다. 젊은 시절에 서울에서 학교 다니다가 마을에 온지 30년인데 이미 용물 달기가 없어진 후라서 보지는 못했다.

함봉식, 2007년 인터뷰.

우리 클적에 물푸러 가만대기 오잖소. 지키지 뭐. 둘이 푸

러 오잖아. 둘이 와가지고는 앞에 주전자에다 물을 뜨고 그 물을 좀 떨구고 '오나' 뒤에게 '온다', '오나' 하면서 물을 조금 떨구고 '온다' 하면 가고. 지 집 우물에 가서 그 물줄기 따라오라고. '오나', '온다' 물을 조금씩 떨구매. 오나, 온다 이래면서 가지 뭐. 주전자 대신에 바가지로 했어. 고지바가지. 물을 많이 뜰 필요는 없어. 또 새벽에 그 물을 훔쳐다가 먹을 갈아서 글씨를 배웠지. 물을 뜨고 나면 짚으로 또바리를 해서 던져. 아주 일찍 가도 벌써 다녀온 사람이 있어. 짚또바리가 웅굴(우물)에 있거든. 그래도 그 물을 떠와서 먹을 갈아서 글 배웠지. 옛날 서당글.

최종하, 여 77세, 2007년, 친정은 유천동,
18세에 시집와서 금산리 거주.

위의 인터뷰들은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들을 증언하고 있다. 기본적인 내용은 임경당의 머슴들이 정월 대보름 새벽에 세 군데의 남의 우물물을 훔쳐왔다는 것이다. 정해진 우물이 있지만 다른 우물도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농사지을 때 물이 중요하니까 풍족한 물을 확보하려는 의지이다. 임경당 주인이 머슴들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면서 주술적 놀이를 부탁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민속은 임경당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머슴깨나 부리는 집에서는 남의 우물을 훔치기도 하고 또 자기 집 우물을 지키면서 밤을 샜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도 있다. 소위 싸움놀이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임경당 용물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용의 존재이다. 머슴들이 굳이 짚으로 용을 만들어서 물을 달아왔다는 것이다. 최종

하씨가 증언한 것은 용물달기가 아니라 용알뜨기이다. 목적은 같지만 용알뜨기 민속에는 용이 등장하지 않는다. 용알뜨기는 전국적으로 전승하는 민속인데 용을 만든 경우는 찾기 어렵다. 하지만 임경당에서 만든 용의 크기는 별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땅에 끌렸다고 하니까 지금처럼 여러 명이 어깨에 멜 정도의 크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용을 물에 적신 후 반드시 땅에 끌면서 돌아왔다는 점이다. 물을 조금씩 땅에 흘리면서 집까지 오는 것과 연결시켜 볼 때 물줄기를 끌어온다는 인식이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줄기가 땅으로 흘러가듯이 남의 물을 끌어온 것이다. 그래서 물에 젖은 용을 앞세우고 왔다는 증언이 특별히 재미있다.

⑵ 새쫓기

정월대보름 민속의 하나로 새를 쫓는 놀이가 있다. 보름날 이른 아침이면 울 밑에 가서 양푼을 두들기며 "웃녘 새야 아랫녘 새야 천지고불 녹두새야 우리 논에 들지 말고 저 건너 장재집 논에 가서 들어라 워이…" 하면서 새를 쫓았다.

짚가리나 소갈비 가리 같은 긴 작대기를 들고 막 펑펑 뚜드리면서 새를 쫓기도 했다. 특별히 새를 쫓을 때 여자들이 임경당 대문을 두드린다는 이야기는 김형기씨의 고증에 의한 것이다.

⑶ 다리뺏기 놀이

다리뺏기는 금산과 회산사람들이 하던 싸움놀이이다. 금산리의 항생골을 지나 남대천을 건너면 회산이다. 회산 사람

들이 남대천을 건너와 농사를 지었다. 정월대보름날이면 금산마을과 회산마을은 남대천 돌다리를 두고 다리뺏기 싸움을 했다. 돌도 던지고 해서 부상이 많았다. 언제인지 몰라도 고등법원 재판까지 갔는데 우리가 졌다. 그래서 그 후부터 (돌다리가 있는 냇물을) 회산냇물이라고 부른다(김형기, 2007년 인터뷰).

민속놀이, 공연이 되다

건금마을의 용물달기는 1991년 제 9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 나갔고 1997년 제 38회 전국민속예술축제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고증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평이 있었다. 원래 용물달기에 사용하는 용은 한 마리였는데 대회에 나갈 때 두 마리로 만들어서 싸움모티프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좋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대표 민속놀이로 자리 잡지 못했고 건금마을 내에서도 전승이 이어지지 못했다.

그 후 2007년 용물달기는 다시 한 번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출전하였다. 당시 건금마을 주민들을 심도 있게 인터뷰하여 재고증을 시도했다. 용물달기에는 한 마리의 용을 앞세우고 갔었다. 그렇지만 흥미로운 싸움모티프는 찾아볼 수 있었다. 우물이 있는 집에서 다른 집 사람들이 우물의 용알을 뜨러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집안의 장정들이 밤을 새고 우물에 안반이나 탯돌을 올려놓기도 했다는 증언을 얻어낸 것이다. 그러다가 만나면 한밤중에 우물을 놓고 본격적인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이러한 싸움과 새쫓기, 다리뺏기 등 정월민속을 포함하여 재구성된 놀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이 우물로 들어오는 장면

1) 건금마을 용물달기의 재구성

(2007년 제22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출전당시)

(1) 입장

용을 앞세우고 물 뜨는 각종 도구를 든 사람들과 농악대, 제관들이 입장한다. 용을 만드는 과정은 놀이에서 생략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짚을 깨끗하게 추슬러 새끼줄을 꼬아놓고 용의 몸체는 사람몸통 크기로 짚을 엮어 둥글게 만든다. 그리고 새끼줄로 용의 머리를 만들고 몸통과 꼬리를 감아 용을 완성한다.

(2) 우물뺏기 및 용물달기

이른 새벽 임경당 머슴들은 용을 앞세우고 솔밑골, 항생골, 둔지골 우물로 가서 우물을 지키는 사람들로부터 우물을 빼앗고 용물달기를 한다. 우물에 용머리를 담구고 용이 흠뻑 젖으면 용을 앞세우고 임경당으로 돌아온다. 이때 사람들은 '용아. 용아. 물 달아라.'라고 소리를 부르면서 신명나는 장단에 춤을 춘다. 다른 우물에서 양동이나 주전자에 떠온 물을 용천수에 붓고 용도 용천수에 담근다.



용물달기



용천제

(3) 용천제

3곳의 우물에서 용물달기를 한 다음 용천수 앞에서 물이 많이 나기를 기원하는 용천제를 지낸다. 이때 사람들은 농악을 치면서 함께 노래를 부른다.

모십시다 모십시다 용왕님을 모십시다
정월이라 보름날에 용왕님을 모셔놓고
만복을 점지토록 이 정성을 드립니다
일년은 열두달 날로는 365일
농촌이나 어촌이나 오곡이 가득가득
물없는 논에 물을 주고 마른논에 수한 맞춰
농사를 짓거들랑 대풍들게 하소서

(4) 새쫓기

새는 곡식을 파먹기 때문에 농사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주민들은 새쫓기 소리를 하면서 새를 쫓고 일부는 파대를 치기도 한다. 새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원이 담겨있다.

야들아 앞밭에 새들었다 새쫓거라
아랫녘새야 윗녘새야
안반밑에 기는 새야 안반위에 나는 새야
천지고불 녹두새야
우리 논에 앉지말고
저 건너 장재집 논에 들어가라
워이 워이



새쫓기

(5) 다리뺏기

건금마을과 회산리 주민들이 남대천을 사이에 두고 하던 다리뺏기 놀이이다. 돌다리 위에서 다리뺏기 싸움을 했다. 먼저 농악대가 쇠절금으로 어느 편의 농악이 센지 내기를 한다. 그 후에 돌을 던지면서 싸움을 한다. 이기는 마을에 대풍이 든다는 속신이 있어서 위험하지만 온 힘을 다 해서 싸운다.

2007년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참여한 용물달기의 내용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바로 당시의 놀이를 기반으로 오늘날까지 건금마을에서 용물달기를 전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변화는 용천제에 있다. 우물 앞에서 제사를 모시는 용천제는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각색된 것이었다. 용물달기를 할 때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나 증언은 없었고 임경

당에서 제공한 음식을 먹고 놀았다고 했다. 이것을 연출과정에서 제의로 만든 것이었다. 하지만 민속예술축제에서 선보였던 용천제는 제사를 모시되 농악대의 고사반을 강조해서 놀이분위기를 이어가려고 했었다. 2007년 강원민속예술축제에 나갔던 용물달기는 30분이라는 시간제한을 가지고 치밀하게 연출된 것이었다. 따라서 몇 시간 동안 주민들이 정월 보름 놀이를 즐기는 것과 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출전을 계기로 건금마을의 용물달기는 소위 구성을 갖게 되었다. 그 후 당시의 틀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다.

기로에 선 전승 -단순한 공연인가, 건강한 민속놀이로의 전환인가

2006년부터 건금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 정월 14일 오후에 용물달기를 하고 있다. 원래 정월 보름이 되자마자 한밤중에 몰래 남의 우물의 물을 훔쳐오는 민속이었던 용물달기는 대낮에 하는 마을축제로 그 성격이 변한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새벽에서 오후로 바뀌면서 날짜도 바뀌게 되었다. 즉 정월 14일로 하루가 당겨진 셈이다. 최근 건금마을 용물달기의 행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농악 및 각종 민속놀이

임경당 마당에서 농악을 친다. 건금마을 주민들은 용물달기만으로도 버겁기 때문에 성산면 농악대가 지원을 한다. 한편 주민들은 용을 앞세우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아 임경당으로 온다.



2018 용물달기 시연 모습

2) 임경당 용천제

용천우물 앞에서 제사를 지낸다. 용왕에게 물이 풍족하기를 비는 제사는 삼헌관을 선정하여 유교식으로 홀기에 따라 경건하게 지낸다.

3) 용물달기

요즘은 항생골 한 군데서만 용물을 달고 있다. 솔밑골도 했었는데 태풍 루사 때 떠내려가서 도랑이 되고 말았다. 항생골에도 물은 없다. 행사를 위해 우물을 복원해놓았고, 행사 때에는 미리 물을 부어서 채워놓은 뒤에 용물달기를 한다.

용은 많이 커졌다. 원래는 1미터 정도 크기로 한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꼬리가 땅에 끌리게 한다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열서너 명이 어깨에 메고 간다. 용은 여의주를 입에 물고 입에서 연기를 내뿜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한다. 양동이를 진 사람, 물동이를 인 아낙, 지게에 먹을 것을 든 사람들이 따라 간다. 항생골에서 달아온 물은 임경당 안의 용천수에 붓는다.

4) 뒷풀이 및 달집태우기

용물달기가 끝나기 전부터 임경당 앞 논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고기를 굽고 떡과 과일 등을 먹으면서 잔치분위기가 한창이다. 겨울 해는 짧다. 5시쯤 되면 벌써 논이 어둑해진다. 놀이판을 정리하고 달집을 태운다. 논 한가운데 세워둔 달집에는 오후 내내 사람들이 소원문을 적어 걸어두었다. 그 소원을 담아 하늘 높이, 대보름달까지 불꽃이 날아간다. 날씨는 춥지만 든든하게 먹고 재미나게 놀고 소원까지 하늘로 보낸 주민들에게 이 날 하루는 매우 즐거운 축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건금마을에서 전승하고 있는 용물달기는 탈 맥락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한밤중의 행사는 대낮으로, 세군데 우물 물 뜨기는 한군데로 줄어들어 시간과 공간이 바뀌었다. 우물을 놓고 벌이는 싸움놀이는 실종되었고 용을 메고 마을 전역을 돌아다니는 길놀이에 치중하고 있다. 짚으로 대충 만들었던 소박한 용의 모습도 해마다 화려하게 바뀌는 중이다. 예전 용은 땅에 끌렸다고 했지만 지금은 여러 사람들이 용을 메고 다니기 때문에 이 역시 전통에서는 멀어진 상태이다. 연원이 불분명한 용천제는 유교식으로 더욱 강화되었고, 용물달기의 마지막은 원래 강릉지역에 없었던 달집태우기가 장식하고 있다.

사실상 용물달기를 1960대 이전 오로지 하늘에 의지하여 물의 풍요를 기원했던 당시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물론 지금도 가뭄이 들면 농사가 어렵지만 마을

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많이 줄어들었고 더 이상 먹을 물이 부족한 시대는 아니다. 수도를 사용하면서 이제 마을에는 놀이 전승의 바탕이 되었던 우물도 없다. 용물달기의 주역이었던 머슴문화가 사라진지 오래인데다가 주민 대부분이 연로하여 예전처럼 한밤중에 놀이를 전승할 가능성은 매우 약해보이는 것이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정월대보름에 마을에서 이런 행사를 벌이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오후부터 저녁까지 임경당 마당에서는 농악을 비롯하여 떡치기 등 각종 민속놀이가 벌어지고 밖에서는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들과 함께 산더미 같이 쌓인 삼겹살을 구워먹으면서 행복한 축제를 만끽하는 것이다.

현재 마을에서 하고 있는 민속놀이는 전통적인 용물달기의 전승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지만 새로운 민속놀이는 아직

2018 건금마을
용물달기 행사 현장



농사를 짓고 있는 건금마을과 굳건하게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임경당, 그리고 주민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용물달기의 전통을 바탕으로 나름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금마을 용물달기는 마을에서 하는 행사 외에도 망월제, 신통대길 길놀이, 강릉단오제 본제 등 1년에 3회 이상 외부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2018 동계올림픽 때는 6회 이상 공연을 하면서 인기를 끌었다. 지역공동체 행사에 빠짐없이 출연하여 마을주민들의 긍지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용물달기를 한번 공연하려면 적어도 50여 명 이상이 참여해야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다. 지금까지는 건금마을 노인들이 모두 참여하여 행사를 치르고 있지만 젊은 사람들의 참여가 부진한 것도 곧 닥칠 문제이다. 정월대보름 마을에서 하는 행사도 마을을 찾아온 손님들을 대접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든다. 지난 4월에 열렸던 용물달기 정기총회에서는 임원진을 뽑는데 곤란을 겪었다. 용물달기의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나서서 선뜻 힘든 일을 맡을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시대의 변화와 함께 민속의 내용이 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이다. 마을에서도 사회의 변화를 인정하면서 가능한 탈 맥락화를 지양하는 수준에서 용물달기가 전승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의 삶 속에서 긴 역사를 지닌 소중한 강릉의 무형문화유산이 맥을 잇고 긍지가 되기를 열망한다.

16.
한송정 들차회

무형유산 범주

- 구분 : 강릉 비지정무형유산
- 영역 : 전통적 놀이・축제

무형유산 내용

- 한송정 들차회를 싹틔운 고운 손길들
- 나이 일천 오백 살에 가까운 한송정 세월 이야기
- 신선이 놀던 고장의 자랑스러운 물림상
- 상전벽해 속에서도 오롯이 남아있는 화랑의 차 유적
- 이름난 고려・조선 문인들이 한송정 차 유적을 다투어 예찬하다
- 한송정은 화랑의 차 문화가 최초로 꽃 핀 곳이다

한송정 들차회를 싹틔운 고운 손길들

일찍이 동해안은 산자수려하여 태고적太古的부터 인간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동해안 가운데 강릉 경포대와 한송정, 삼일포는 신라화랑의 대표적인 순례지로 이 가운데 한송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차 유적지로 알려져 차인들로부터 신앙처럼 받들려 오고 있는 곳이다. 다름 아닌 신라화랑이 국토순례를 하며 심신을 수련할 때 이곳에서 차를 달여 마셨기 때문이다.

한송정 들차회는 신라 최고급 문화집단으로 불리던 화랑들이 차를 달여 마신 유서 깊은 한송정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차 유적지임을 널리 알리고 그들이 남긴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매년 10월 좋은 날을 가려 오죽헌시립박물관과 (사)한국차인연합회 강릉동포다도회, 공군 제18전투비행단이 함께 개최하는 일종의 차 나누기 행사이다.

한송정 들차회를 개최하게 된 동기는 1993년 당시 강릉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영동문화창달을 위한 학술대회"에서 필자가 「한송정 다구 고찰」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부터 비롯되었다.

나이 일천 오백 살에 가까운 한송정 세월 이야기

한송정 들차회는 신라화랑의 차 문화를 선양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개최하고 있는 만큼 먼저 화랑 제도의 이해와 강릉 지역과의 인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신라 제24대 진흥왕(재위 540~576)대에 제정한 화랑제도는 임금과 신하가 나라에 동량이 될 인재를 얻기 위하여 시행한 제도다. 진흥왕은 나라를 일으키려면 먼저 풍월도를 만들어

야 한다고 하면서 양가 남자 중에서 덕행이 있는 사람을 뽑아 이름을 화랑이라 하고 최초 설원랑을 국선國仙으로 삼으니 이것이 화랑 국선의 시초다. 화랑의 시초 설원랑이 당시 우리지역 한송정을 순례하고 그 기념으로 비를 세웠다는 기록으로 보아 화랑과의 인연은 이미 1500여 년 전에 맺었던 것으로 보인다.

화랑은 출신 성분이 좋은 15~18세 가운데 출중한 청소년을 가려 뽑아 국토순례라는 집단생활을 하게끔 하여 이들의 집단생활을 통해 행실을 살펴본 후 발탁하여 나라 재목으로 쓰고자 한 것이었다. 화랑도 집단에 선발된 이들은 서로 도의로써 연마하고, 노래와 음악으로써 서로 즐기며, 아름다운 산천을 찾아 심신을 수련하며 국토의 소중함과 시대적 사명을 깨닫게 하였는데 이때 이들 가운데 집단생활에 모범이 되고 행실이 뛰어난 사람을 뽑아 조정에 추천하였다.

우리지역 인문지리서『증수임영지增修臨瀛誌』기록에 보면,

> 신라 풍속에 지체가 높은 가문이나 대신들 아들 가운데 용모가 준수하고 재주가 특출한 사람을 뽑아 화랑이라 하고 서로 교유하도록 하니 젊은 재사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그 가운데서도 뛰어난 인재만을 골라 왕이 작위를 주도록 하였다. 이들을 화랑도라 하였으며, 반드시 먼저 관동을 유람한 다음 조정에 들어가 벼슬을 하도록 하였으니 영랑, 술랑, 안상의 무리가 이들이었다. 강릉부 경내에 경포대와 한송정이 있었는데 모두 맑고 뛰어난 절경인지라 화랑의 무리들이 많이 노닐었다고 한다. 지금도 석구와 석조

등의 유물이 남아 있다. 옛 어른들의 말에 의하면 달 밝은 밤이면 구름 가까이에서 생황소리와 학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보이지 않는다고 하니 세상에 과연 신선이 있는 것인가? 만약 있다고 하면 반드시 강릉부 경내에 있을 것이라 하였다.

원광법사(555~638)는 화랑도가 목숨처럼 지켜야 할 윤리 덕목 다섯 가지를 강조 하였는데 "임금을 섬김에는 충성으로써 하고, 어버이를 섬김에는 효도로써 하고, 벗을 사귐에는 믿음으로써 하고, 싸움에 임해서는 물러남이 없게 하고, 생명이 있는 것을 죽일 때는 가려서 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김대문(생몰년 미상, 704년 한산주도독에 임명)은 화랑제도를 높이 평가하면서 "어진 재상과 충성스러운 신하가 여기서 솟아 나오고, 훌륭한 장수와 용감한 병사가 이로 말미암아 생겨났다."라고 했다.

신선이 놀던 고장의 자랑스러운 물림상

이들 화랑은 수련기간 중 "아름다운 산천을 찾아 노닐고 즐김에 먼 곳이라도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다."고 하였는데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며 도의道義를 연마한 곳 가운데 가장 많이 찾은 곳이 영동지역이며, 영동지역에서도 강릉(당시 명주)이 가장 유명하였다. 이곡(1298~1351)은 "신라 때 영랑, 술랑 등 네 선동仙童이 그의 집단 3천 명과 더불어 바닷가에서 놀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으며, "한송정에 사선비四仙碑가 있었으나, 호종단이란 사람이 물속에 넣어 버리고 오직 거북

모양으로 만든 비석 받침만 남아 있다."고 했다.

일찍이 우리 강릉은 사선이 놀던 고장이라 하였는데 이 사선은 바로 영랑, 술랑, 안상, 남석행 네 대표 화랑을 말한다. 당시 신라화랑을 신선이라 부른 것은 미륵신앙彌勒信仰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 시대 미륵彌勒을 신선이라 불렀다. 진평왕(재위 579~632) 때 화랑이었던 김유신(595~673)의 화랑 집단을 용화향도龍華香徒라 하였다. 용화는 미륵을 의미하고 향도는 한 믿음 아래 모인 불교 신도 단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화랑도가 미륵신앙과 결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라 최초의 사찰이었던 흥륜사의 주불은 미륵불이었으며, 진평왕 때 승려 진자는 이 미륵불 앞에서 "대성大聖이 화랑으로 화신化身하여 세상에 출현하여 줄 것을 발원하였다."고 했다. 화랑 죽지랑의 탄생설화도 미륵신앙이었으며, 화랑의 대표를 향도香徒라 부르고 대표화랑을 미륵선화彌勒仙花라고 하였다. 김유신(595~673)이 삼국통일을 위해 기도했다는 경주 단석산斷石山에 있는 신선사神仙寺의 신선은 미륵선화를 지칭하며 미륵선화가 신라화랑의 화신이므로 이곳 신선사가 화랑들의 삼국통일 염원이 서린 호국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옛 부터 이 강토에 사선이 놀아……"라는 강릉 시민의 노래 말이나, 936년 명주장군 김순식의 도움으로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 태조 왕건이 신선이 놀았다는 강릉에 객사客舍를 짓고 이름을 임영관臨瀛舘이라 한 '영瀛'자도 강릉은 신선이 산다는 '봉래蓬萊', '영주瀛州'에 견줄 만 하다라는 데서 비롯된 명칭이다. 이때부터 '임영'은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는 별호가 됐다. 뿐만 아니라 영동지방 유일한 강 이름 강동면 군

선강群仙江도, 군선강 포구에 있는 명선문溟仙門도 모두 신라 화랑 선유처仙遊處와 관련이 있는 곳이다.

율곡 이이(1536~1584)도 강릉대도호부관아江陵大都護府官衙 「동헌東軒」 시에서,

님 계신 구중궁궐 때 없이 그리나니　戀闕休須日抵年
한 평생 운수라야 하늘에 매인거지　此生行止摠由天
푸른 늪 말 빠지고 산 첩첩 천 겹인데　靑泥沒馬山千疊
목제에 봄기운은 천지를 둘렀구나　木帝回春地一邊
성 위에 고각 소리 나그네 꿈 깨우고　城角夜吟撓客夢
아침에 바다구름 마을 연기와 뒤 섞이네　海雲朝起雜村煙
관아에서 차 마시고 한가로운 틈에　鈴齋茶罷淸無事
부질없이 영주 땅 신선 얘기 주고받네　謾說瀛州別有仙

라 하여 율곡도 1569년 당시 김언침 대도호부사와 함께 임영관 앞 동헌에서 차를 마시며 사선四仙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조선전기 문신 성현(1439~1504)도 같은 시에서, "산과 바다 좋은 경치 새해 맞아 찾아오니 신선 땅 강릉에 봄빛이 무르녹네海山佳景入新年 春滿蓬壺洞里天"라 하여 화랑이 노닐었기 영주, 봉래에 비유한 것이다.

상전벽해 속에서도 오롯이 남아있는 화랑의 차 유적

1349년 고려 말 문신文臣 이곡(1298~1351)이 동해안을 여행할 때 "경포대 위에는 석조石竈가, 한송정 터에는 석조, 석지石池, 석정石井이 남아 있다"고 했으며, 조선 전기 대학자 서거정

(1420~1488)도 "한송정은 옛날 신선의 유적이 있었으며, 산꼭대기에는 차 화덕이 있었다寒松亭有古仙遺跡山頂有茶竈."고 했다. 경포대에도 화랑의 차 유적이 남아 있었는데 1530년 증보 간행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서쪽 언덕에 봉우리가 있고, 봉우리 위에 누대가 있는데 그 옆에 선약仙藥을 만들던 석조가 있었다."고 하였다.

재미있는 사실은 당시 신선으로 불리던 화랑이 '석조'에 차를 달여 마셨다고 하니 이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엉뚱하게 비석받침을 가져다 놓고 화랑이 차를 달이던 도구라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우리는 그것이 다구茶具인줄 알았다.

윤종의(재임1868~1870) 부사가 강릉에 부임하자 아전의 안내로 한송정을 돌아보고 샘가에 비석받침과 같이 생긴 돌이 있자 이것이 화랑이 차를 달이던 다구인 줄 알고 이 돌에다 "신라선인영랑연단석구新羅仙人永郎鍊丹石臼"라고 새겨 놓은 것이 발단이 되었다.



한송정 연단석구
사진 : 정항교 제공



경포대 연약석구
사진 : 정항교 제공

이 '연단석구'라고 하는 것은 석지石池도, 석조도 아니며 석구石臼와는 더욱 거리가 멀다. 한송정에 있는 것보다 크기는 조금 작으나 경포대에 있는 '연약석구煉藥石臼' 또한 마찬가지로 비석받침이다. 어느 호사가好事家가 가져다놓은 것이니 더 이상 웃음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한송정에서 화랑이 차를 달이던 도구 석지조石池竈는 엄연히 기록에 전한다. 고려시대 문인이자 대학자 이제현(1287~1367)이 쓴 「묘련사석지조기妙蓮寺石池竈記」를 통해 그 형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

1337년 순암법사順庵法師는 석지조를 발견하여 얻게 된 것을 경축하는 글을 친구 이제현에게 써 달라 하였고, 이제현은 "훗날 화랑이 차를 달이던 석지조의 이름만 듣고 이를 보지 못한 후세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글을 쓴다." 라고 하면서 기문記文을 남겼다.

삼장 순암법사가 임금의 분부를 받들고 금강산에 있는 절에 불공을 드리러 갔다 그 길로 한송정을 구경하였는데 그 위에 석지조가 있었다. 그 고장 사람들에게 물으니 옛 사람들이 차를 달여 마시던 것인데 어느 시대에 만든 것인지는 모른다고 하였다. 법사가 생각하기를 어렸을 적에 일찍이 묘련사에서 두 개의 돌덩이가 풀숲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생김새를 떠 올려 보니 어쩌면 이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여 돌아오자 말자 물색 하여 찾아가 보니 과연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의 돌덩이는 말처럼 네모나게 쪼아 다듬고 가운데를 절구처럼 둥글게 팠으니 이는 샘물을 담는 것이며, 밑에다 입구자 ㅁ 모양의 구멍을 냈으니 이는 열고 찌꺼기를 씻어낸 다음 다시 막아 맑은 물을 담기 위한 것이었다. 또 한 돌덩이는 두 군데가 오목한데 둥근 데는 불을 두는 곳이고, 타원형은 그릇을 씻는 곳이다. 또 조금 크게 구멍을 내어 둥근 데와 통하게 하였으니 이는 바람이 들어오게 한 것이다. 이를 합하여 이름 하기를 석지조라 하였다. 이에 인부 10여명을 동원하여 처마 아래에다 굴려다 놓고 손님을 청하여 자리에 앉게 한 다음 백설처럼 시원한 샘물을 길어다가 황금빛 나는 차 싹을 달였다.

이제현은 원나라에서 유학하였는데 돌아올 때 화전춘차火前春茶를 가져와 손수 달여 마시며 차인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으며, 송광사 스님들은 이제현에게 차를 선물할 정도로 뛰어난 차인이었다.



복원한 석조
사진 : 정항교 제공



연단석구와 복원한 석조
사진 : 정항교 제공

기문記文에 보이는 이 석지조는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화랑이 개발한 독특한 다구다. 당나라 때 『다경茶經』을 저술한 육우(733~804)가 758년 구리나 쇠를 부어 주조한 풍로라는 다구를 개발하였는데 화랑이 사용하던 다구 석지조는 이보다 앞선 시대에 개발한 세계 최초 다구가 아닌가 한다. 안

타깝게 기록으로만 전하는 석지조는 현재 남아있지 않아 후세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화랑의 다구를 「묘련사석지조기」를 근거로 1998년 오죽헌시립박물관에서 석조만 한송정에 복원하여 놓았다.

고려시대 문인 김극기(1170~1197)의 시에도 이 같은 다조茶竈가 보인다.

전략	前略
여기가 사선들이 유람하던 곳	云是四仙縱賞地
지금도 남은 자취 기이 하구나	至今遺迹眞奇哉
주대는 꺼꾸러져 풀에 묻혔고	酒臺欹傾沒碧草
차 화덕 내 딩굴어 이끼만 껐네	茶竈今落荒蒼蒼

1349년 이곡(1298~1351)이 동해안을 여행하고 쓴 「동유기東遊記」에도,

> 날이 아직 어둡기 전에 경포대에 올랐다. 옛날에는 대에 집이 없었는데 근래 호사자가 그 위에 정자를 지었다. 옛날 선인의 석조가 있었는데 차를 달이는 도구다. 삼일포의 경치와 우열을 가리기 힘드나 시원스레 확 트이기는 그보다도 낫다. 비가 와서 하루를 묵고 다음날 강성을 나와 문수당을 구경하였다. 사람들 말이 문수, 보현 두 석상이 땅에서 솟아 나온 것이라 했다. 한송정에서 송별연을 베풀었다. 이곳 또한 사선이 놀던 곳이었는데 고을 사람들이 한

송정에 유람 오는 사람이 끊이지 않자 이를 귀찮게 여긴 나머지 집을 헐어 버렸다. 소나무 또한 들불로 타 버리고 오직 석조, 석지와 돌우물만 그 옆에 남아 있는데 역시 사선의 다구라 하였다.

고려 · 조선시대 이름난 문인들이 한송정 차 유적을 다투어 예찬하다

강릉의 차 유적지는 강릉문화의 발상지이자 '제일강릉第一江陵'이란 어원이 생겨난 곳이다. 먼저 제일강릉이라 불리는 근원은 서거정(1420~1488)이 쓴 『운금루기문 雲錦樓記文』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 훌륭한 경치는 관동이 첫째이고, 관동에서도 많은데 오직 강릉이 제일이다.(……) 강릉에서도 가장 뛰어난 명승지는 경포대, 한송정, 석조, 석지, 문수대惟吾東韓山水之勝關東爲最多於關東惟江爲第一……江之最勝者曰鏡浦臺曰寒松亭曰石竈曰石池曰文殊臺也"라 하였다.

조선전기 문신 박시형도 같은 기문에서,

이름난 구역의 훌륭한 경치가 사방에 알려져 현귀한 사람이나 풍류를 좋아하는 무리들은 누구나 그 지역에 한 번 가서 평소 소원을 이루고자 한다. 어찌 인걸은 지령으로 말미암고 물화는 하늘이 내린 보배가 아니겠는가! 그 절묘한 자태를 관동에 집대성하여 유독 으뜸이 되게 한 것이다. 호수와 산의 아름다움이 유람하기 좋은데 이곳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다. 그 중에서도 한두 가지를 든다면 관아에 있는 의운이라 현판 한 것과 연당이 있는 운금이란 누각이

다. 동쪽으로 바닷가에 있는 정자는 한송이며, 북쪽으로 호수에 가까운 누대는 경포이다. 이것이 모두 명승의 으뜸이라 하겠다.

예로부터 인간은 명산대천의 승지를 찾아 심신을 수양하는 것을 제일 큰 즐거움으로 삼았다. 이는 요산요수樂山樂水의 다부진 유가儒家수양이 뿌리내린 전통이라 볼 수 있으며, 우리 본성이 친애 자연적 성향이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뛰어난 승지에는 발길이 잦게 마련이고 발길이 잦은 곳엔 으레 시부詩賦가 남기 마련이다. 그래서 "등고필부강산지조登高必賦江山之助"라고 했다. 한송정, 경포대도 마찬가지여서 신라 선인이 수련하던 곳으로 알려지면서 동경의 대상이 되었고 고려, 조선시대로 들어오면서 수많은 시인 묵객이 다투어 찾아와 시문을 쏟아 냈던 것이다.

고려시대 문인 이인로(1152~1220)는 한송정을 돌아보고,

까마득 옛 적에 사선 노닌 곳	千古仙遊遠
푸르른 소나무 우뚝 서 있네	蒼蒼獨有松
차 샘 속 달 만이 그 때 그 시절	但餘泉底月
어렴 풋 하나마 생각케 하네	髣髴想形容

라 하여 차 샘 속에 비친 달을 바라보며 당시 사선의 모습을 그렸다. "창창독유송蒼蒼獨有松"도 사선이 남긴 자취다. 이인로는 또 "한송정은 옛 적 사선이 놀던 곳으로 그를 따르던 무리 3천이 심은 소나무가 지금도 창창하여 마치 구름을 털

어 놓은 것 같다寒松亭昔四仙所遊其徒三千各種一株至今蒼蒼然拂雲”고 하였다.

그 옛날 뉘댁의 자손들일까	在昔誰家子
푸른 솔 삼천 그루 심은 분들이	三千種碧松
그들의 뼈는 썩어 없어졌지만	其人骨已朽
솔잎은 오히려 무성 하구나	松葉尙茸容

이 시로 볼 때 신라화랑이 단순하게 국토를 순례하며 심신만 수련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 영토에 소나무를 심어 가꾼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한송정에 소나무를 심은 기록이라 할 수 있다.

고려후기 문신 안축(1282~1348)도 한송정을 돌아보고,

사선이 한송정에 모였을 때는	四仙曾會此
맹상군 문전과 다름 없었네	客似孟嘗門
귀한 이 구름처럼 사라져 없고	珠履雲無迹
울창한 솔숲도 남지 않았네	蒼官火不存
푸른 솔 생각나 선경을 찾아	尋眞思翠密
옛 날을 그리며 황혼에 섰네	懷古立黃昏
물 길어 차 달이던 돌샘만이	唯有煎茶井
의연히 돌 뿌리서 솟아 나오네	依然在石根

안축이 1330년 강릉도존무사江陵道存撫使로 있을 때 한송정을 찾아 지은 것으로 보인다. 1349년 이곡(1298~1351)은 사선

이 놀았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손님이 넘쳐나 이를 귀찮게 여긴 마을 사람들이 정자를 헐어버리고 들불에 화랑이 심은 소나무도 모두 불에 탔다고 했다. 이보다 19년 전 안축이 돌아봤을 때에도 소나무는 이미 불에 타 없어졌다고 했다.

예로부터 차는 좋은 물로 끓여야 훌륭한 맛을 낼 수 있다고 하여 차인들은 "물은 차의 근본"이라고까지 했다. 여기서 좋은 물이란 우거진 솔 숲 바위틈에서 솟아나는 샘을 말한다. 여말麗末 삼은三隱의 한 사람인 이색(1328~1392)은 환암(1352~1392)국사가 열두 폭 병풍에 쓸 시를 부탁하자 "늙은 것을 부르면 응당 안화사安和寺 샘물로 차를 끓이겠지"라 하였으며, 같은 여말삼은이며 차인으로 유명한 이숭인(1349~1392)도 정도전(1342~1398)에게 차와 안화사 샘물 한 병을 선물로 보내면서 "송악산 바위틈 가는 실 샘은 솔뿌리 엉킨 곳서 솟아났다오."라 하였다. 개경 송악산 안화사 샘물은 『고려도경』에까지 기록될 정도로 유명했다. 화랑이 꽃피운 한송정 차 문화도 솔뿌리 엉킨 돌 틈에서 솟아난 샘물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곡 또한 한송정을 돌아보고,

오로지 좋은 경치 찾을 양으로	意專尋勝景
서둘러 성문을 훌쩍 나섰네	早出故城門
사선은 돌아가고 한송정 만이	仙去松亭在
화덕과 가지런히 남아 전하네	山藏石竈存
인정은 그 옛날과 사뭇 달라도	人情有今古
경치는 예나 지금 변함이 없네	物像自朝昏

일찍이 이런 곳을 찾잖았다면　　不是曾來此
맹랑한 소문이라 일축 했겠네　　聞言謂不根

말로만 듣던 사선의 유적지를 직접 돌아보고 느낀 감정을 사실대로 토로하고, 듣던 풍문이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김시습(1435~1493)도 한송정에 올라,

바닷바람 그쳤는데 물결은 일렁이고　海風吹斷浪滔天
솔바람 구름조화 뜻밖의 거문고네　松作雲和意外絃
깨진 섬돌 묻힌 위로 들짐승 지나가고　敗砌草埋狐兎過
해당화 떨어지고 자고새는 졸고 있네　野棠花落鷓鴣眠
사선이 놀던 옛 터 몰라보게 변하였고　神仙舊迹桑田變
부질없는 인생살이 세월만 덧없어라　塵世浮生甲子遷
높다란 정자에서 넓은 지경 바라보니　獨上高亭回首望
신선 사는 봉래도가 구름 속에 떠 있네　蓬萊島在五雲邊

"높다란 정자에서 바라보았다"는 표현으로 보아 한송정 오른쪽에는 풍호楓湖, 왼쪽에는 경포호, 앞에는 드넓은 동해바다를 한 눈에 조망 할 수 있는 불하산佛下山 정상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돌샘 옆에 있는 정자는 공군부대에서 장병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임시로 지은 것이다.

한송정은 화랑의 차 문화가 최초로 꽃 핀 곳이다

화랑들은 대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심신을 수련하며 차를 마신 것은 인간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을 회복함과 아

울러 마음에 청정심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새소리, 솔바람 소리, 차물 끓이는 소리, 무심히 흐르는 구름, 그 가운데 한 잔의 차는 그대로 도의 연마요, 청덕淸德, 적요寂寥, 진성眞性을 추구하는 그 자체였을 것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차는 한 번 마시면, 혼매함을 씻어 마음과 생각의 상쾌함이 천지에 가득하고, 두 번 마시면, 정신이 맑아져 홀연히 비가 뿌려 티끌을 가벼이 씻어 내는 듯 하고, 세 번 마시면, 문득 도를 깨쳐 어떤 괴로움과 번뇌도 닦아 준다."고 했다. 이러한 차의 효능 때문에 신라화랑이 마신 차를 '연단鍊丹, 연약鍊藥, 단약丹藥, 선약仙藥'이라 했다. 이는 도가道家에서 장생불사약長生不死藥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윤종의 부사가 한송정 빗돌받침에다 쓴 "신라선인영랑연단석구"라 한 것도 화랑이 선불仙佛과 융합된 단체였기 때문이다.

『열선전列仙傳』에는 신선이 먹는 선약仙藥을 '선단仙丹'이라고 했다. 차를 약이라고 한 기록을 살펴보면 북송 때 중국인 서긍에 의해 저술된 『고려도경高麗圖經』에 "관사 안에는 홍조를 놓고 그 가운데 차 도구를 두루 진열 한 다음 붉은색 사포로 만든 상보로 덮는다. 매일 세 차례씩 내는 차를 맛보게 되는데 뒤이어 또 끓인 물을 낸다. 고려인은 탕을 약이라 하는데 매번 사신들이 그것을 다 마시는 것을 보면 반드시 기뻐한다館中以紅俎布列茶具於其中而以紅紗巾冪之日嘗三供茶而繼之以溫麗人謂湯爲藥每見使人飮盡必喜."라고 하였다. 여기서 '약藥'은 '다탕茶湯'을 뜻하는데 뜨거운 물에 잎차를 우려 마신 것으로 보인다. 조선 초기 문인 유계문(1383~1445)도 「한송정寒松亭」 시에서 "약 짓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차 달이는 돌 부엌만

홀로 남았네鍊藥人何去 煎茶竈獨存."라 하였다.

한송정에서 꽃피운 신라화랑의 차 문화는 고려시대로 이어져 더욱 난만한 꽃을 피웠다. 신라의 차 문화가 귀족과 승려들에 의해 계승 발전되었다면 고려시대의 음다풍飮茶風은 왕실과 승려 외에 문인,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차를 즐겼다. 특히 차 문화는 불교와 인연이 깊기 때문에 고려시대는 한국 차 문화의 전성기였다고 볼 수 있다.

한송정 들차회는 민 · 관 · 군이 함께 하는 우리나라 유일 축제다

우리는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다실茶室에 모여 대화를 나누며 차를 마신다. 주인은 초대한 손님을 위해 좋은 차와 다구를 준비하여 물을 끓이고 차를 우리고 달인다. 차를 마시는 일은 좋은 인연을 함께하는 일이다. 한송정 들차회는 이러한 성격의 가회다례佳會茶禮로, 다만 다실이 아닌 샘터 뜨락 열린 공간에서 손님을 초청해 놓고 다담茶談을 나누며 잠시나마 차 생활의 멋을 즐기며 차의 풍미를 느낀다.

한송정 들차회의 특이한 점은 (사)한국차인연합회 강릉동포다도회, 오죽헌시립박물관, 공군 제18전투비행단이 함께 참여하여 치르는 우리나라 유일 민, 관, 군 합동 차 잔치라는 점이다. 화랑의 차 유적 한송정은 군부대 내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장병들은 늘 가까이서 이를 가꾸며 관리하고, 오죽헌시립박물관은 역사가 담긴 유적을 연구하고 보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강릉동포다도회는 이러한 전통 차 문화 유적을 가꾸며 연구, 보존하는 이들에게 정성껏 마련한 차와 정갈한 음식으로 고마움을 표시하며 전통 다도의 맥을 이어 가고 있

다. 특별 초청하는 강릉시민과 다도인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도가 하나의 문화생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함께 즐기며 좋은 인연을 맺어 가고 있다. 지금까지 함께해 온 소중한 인연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러한 들차회는 먼저 신라화랑에게 차를 올리는 추모 헌다례獻茶禮로 시작한다. 이 같은 의식은 우리지역에서 차 문화를 꽃피운 영랑, 술랑, 안상, 남석행 네 화랑에게 성스러운 유산을 남겨 준데 대한 고마움과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사랑받고 있는 화랑정신을 본받고자 차를 나누기 전에 행하는 절차다. 당시 화랑들도 삶에 허덕이는 민중을 구제하고 이상세계를 믿고 기다리는 신라인들의 염원을 기원하는 의식으로 미륵세존彌勒世尊에게 헌다獻茶를 했다. 신문왕(재위 681~692)의 두 아들 보천과 효명태자도 오대산에서 불도를 닦으며 문수보살에게 헌다를 했다. 헌다례는 정성을 다해 차를 올리는 의식으로 차인에게 있어서는 공경의 시작이요, 끝이며, 차 예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한송정에서 사선에게 올리는 헌다는 유儒・불佛식 혼합의 례로 진행되는데 홀기에 따라 먼저 초를 올린 다음 향과 꽃을 올리고 이 같은 의식이 끝나면 차를 올린다. 차를 처음 올리는 초헌관은 강릉시장이 되고, 아헌관은 전투비행단장, 종헌관은 동포다도회장이 된다. 그리고 초청된 내 외빈들이 차례로 차를 올린 다음 헌다례 의식은 끝나고 함께 차를 나누는 들차회 행사가 이어진다.



한송정 들차회 삭전 행사



신라화랑 헌다례



헌화





헌초



찻물 긷기



초대 동포다도회장 헌다



2대 동포다도회장 헌다

강릉시장 헌다





전투비행단장 헌다





예송다회 차 나누기





부대장병 차 나누기





문성고등학교 다도반



김한근 강릉시장 사모님 헌다



공군 제18전투비행단장 사모님 헌다



공군 제18전투비행단장 헌다

한송정 차 문화 문화재 대접 받을 때 됐다

흔히들 "차는 군자와 같아 그 성품이 사특함이 없다."고 한다. 이러한 차는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조화롭게 해주는 특성을 지녔다. 그러기에 우리 선조들은 차를 즐기면서 심신 수련은 물론 시와 풍류를 함께 하는 여유로운 차 문화 생활을 해왔다. 이미 6세기 무렵부터 한민족 고유의 풍류도 정신이 깃든 차 문화가 신라화랑들로 인해 이곳 한송정에서 꽃피운 것은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개발하여 사용한 세계 최초 석지조는 민족의 자랑이오, 차인들의 자긍심이다.

한갓 전설로만 묻혀 버릴 뻔했던 가장 오래된 차 유적이 그간 관심 있는 이들로 인해 차츰 그 진면목이 세상에 알려져

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사)한국차인연합회 강릉동포다도회원들은 다도 생활이 배부른 상류층 고급취향으로 매도하던 시기에도 한 결 같이 전통 차 문화 보급에 앞장서 온 그간의 헌신 때문에 오늘의 한송정 들차회가 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차 문화 행사에 함께 참여하는 차 문화 단체로는 임영다회, 예송다회, 사임당다우회, 한송차회, 관음선다회가 있다.

앞으로 전국 차인은 물론 세계 차인을 초청하여 헌다례와 들차회를 개최한 다음 경포대에서 한마당 달빛 들차회 자리를 갖는 것도 좋을 것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남아있는 기념비적 돌샘에 대한 물맛 되찾기이며, 한송정 인근에 묻혀 있을 최초 화랑 설원랑과 사선 기념비를 발굴하는 일이다. 기록에 전하는 석지石池도 복원해야하며, 석조石竈는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화랑이 꽃 피운 한송정 차 문화는 강릉시민은 물론 전국 차인들까지 자부심이 큰 만큼 한송정 헌다례와 들차회는 후세에 대물림해야 할 자랑스럽고 값진 무형문화유산이 아닌가 한다.

부록.

강릉의 비지정 무형문화유산 목록

강릉의 비지정 무형문화유산 목록

—

	목록	소재지	전승단체	전승현황	범주
1	강릉아리랑	강릉시	–	–	전통적 공연·예술
2	강릉목도소리	강릉시	–	–	
3	강릉 사투리	강릉시	강릉 사투리보존회	○	구전 전통 및 표현
4	강릉대보름망월가	강릉시	–	○	
5	염지봉선화가	강릉시	–	○	
6	안인 해랑 신화	강동면 안인진리	–	○	
7	연화부인 설화	노암동	–	○	
8	홍장고사	저동	–	○	
9	위촌리 도배	성산면 위촌리	위촌리 마을주민	○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10	질먹기	사천면 덕실리	사천 덕실리 질먹기보존회	○	
11	강릉초당두부	초당동	강릉초당두부마을(보존회)	○	
12	감자옹심이	강릉시	–	○	
13	강문 진또배기제	강문동	강문마을	○	
14	언별리 무후제	강동면 언별리	강동면 언별리	○	
15	학산서낭제	구정면 학산리	학산리 주민	○	

	목록	소재지	전승단체	전승현황	범주
16	강릉용굿	강릉시	임영민속연구회	○	민간신앙, 종교 등 사회적 의식
17	용신제	강릉시	마을별 어촌계	○	
18	운정동고봉제	운정동	운정동 고봉제전위원회	○	
19	풍어제	강릉 어촌지역	마을어촌계	○	
20	산메기	강릉시	–	–	
21	나무시집보내기	강릉시	–	○	
22	손모둠	강릉시	–	–	
23	시월상달	강릉시	–	–	
24	건금마을용물달기	성산면 금산리	건금마을 용물달기보존회	○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25	한송정 들차회	강동면 하시동리	각 다도 모임	○	
26	정월대보름강릉망월제	강남동	임영민속연구회	○	
27	태장봉화전가(화전놀이)	대전동	–	–	
28	고비고사리꺾기놀이	구정면 학산리	학산 오독떼기보존회	○	
29	청춘경로회	강릉시	강릉문화원	○	
30	소금강청학제	연곡면 삼산리	소금강청학제추진위원회	○	
31	구산영신횃불놀이	성산면 구산리	구산영신횃불놀이보존회	○	
32	항음주례	강릉시	–	–	

1. 강릉아리랑

구분	내용
명칭	강릉아리랑
영역	전통적 공연 · 예술
소재지	강릉시
전승자	
전승단체	
주요 내용	긴 아라리라고도 하며, 강릉에서 불리던 향토민요로, 흥겹게 노는 좌석에서 부르던 유희요의 하나이다. 때로는 모내기소리로도 불렸다고 한다. 현재 모내기소리로 전승되는 자진아라리와 곡조나 사설이 비슷하지만, 자진아라리보다 느리게 부르며 박자구조가 3소박 4박자이다. 메기고 받는 방식으로 부르며, 메기는 사설은 자진아라리나 오독떼기 와도 비슷하다. –가사–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주게 원앙에 줄모를 심어주게 (후렴) 아리아리 아리아리 아라리요 아라리 고개로 넘어 가네 워낭에 줄모를 못심으면 오종종 줄모를 심어주게 (후렴) 지어가네 지어가네 점심참이 지어가네 (후렴) 안국절 중놈 세모시 고깔은 정방 처녀의 솜씨로다 (후렴) 해 넘어간다 해 넘어 간다 용산골 너머로 해 넘어 간다 (후렴) 강릉이라 남대천 물에 빨래 방망치 게 둥실 떴네 (후렴) 연줄이 가네 연줄이 가네 해 달 속으로 연줄이 가네 (후렴) 오동목 파 거문고 타고 나니 돈 달란다 (후렴) 오동동 추야월에 달도 밝고 명랑하다 (후렴) 방실방실 웃는 님을 못다 보고 해 넘어 가네 (후렴)
사회적기능	전통예술의 전승과 문화정체성 확보/풍자를 통한 사회질서유지 추구
전승현황	1980년 경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의 황석관이 생전에 부르던 노래가 채록되어 전하나, 현재는 부르는 사람이 없다.

2. 강릉목도소리

구분	내용
명칭	강릉목도소리
영역	전통적 공연 · 예술
소재지	강릉시
전승자	
전승단체	
주요 내용	강원도 강릉 지역에서 통나무나 큰 돌처럼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부르던 일종의 노동요이다. 옮기려는 무거운 물건에 줄을 달고, 이 줄을 묶은 긴 나무를 좌우에서 메고 옮기는데 물건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두 사람이나 네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기도 한다. 무거운 물건을 나르며 부르는 소리이므로 가사 내용은 특별한 의미를 담지 않고, 그저 호흡을 맞추기 위한 입타령에 가깝다. 사설이나 선율이 짧게 구성되어 마치 구령을 부르듯 주고받으며 노래하는데, 박자 구조는 2소박 4박자이며, 선율은 메나리토리에 가깝다. –가사– 허이허이 허이여어/ 허기여 허/ 허기여 허/ 허기여 허/ 허기여/ 허기여/ 허기여/ 허기여/ 허기여 차아아 허여 허/ 허기영/……허여허 허영차/ 허여 놓고/
사회적기능	전통생활상의 전래
전승현황	단절

3. 강릉 사투리

구분	내용
명칭	강릉 사투리
영역	구전 전통 및 표현
소재지	강릉시/영동지역
전승자	
전승단체	(사)강릉사투리보존회
주요 내용	강릉방언은 과거의 행정구역으로는 강릉군, 현재의 강릉시에서 쓰는, 말하자면 한 시군(市郡)의 말을 일컫는다. 우리나라 방언을 말할 때 대개는 도(道) 단위로 경상도방언, 전라도방언 식으로 말하고, 충주방언이니 포항방언이니 하는 식으로 말하지 않는데 강릉방언은 강원도방언이 아니라 강릉방언이라 부르게 된다. 그만큼 강릉방언은 한 도의 방언이 가지는 만큼의 풍부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방언을 크게 둘로 나누어 태백산맥을 분계선으로 그 서쪽과 동쪽으로 나누면 서쪽의 방언은 음장을 가지면서 성조는 없고, 동쪽의 경상도, 강원도 영동, 함경도의 방언은 음장이 없고 성조가 있는 방언이다. 그런데 강릉은 그 양쪽의 요소, 즉 음장과 성조를 다 가지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강릉방언은 어떤 방언보다 두드러진 독자성을 보인다. 자음에서도 종성에서는 많은 특징을 보이지만, 특히 모음에서는 표준에서는 물론 어떤 다른 방언에서도 볼 수 없는, 'ㅛ[jo]'와 'ㅟ[jy]' 등 특이한 발음을 여러 종류 보이고, 조사와 어미 및 형태음소적 현상에서도 독자적인 특징들을 풍부히 보여 준다. 그 특징들 중에는 15세기 문헌에서나 볼 수 있는 고어의 모습이 많은데 그것은 특히 어휘 면에서 풍부히 나타난다. 방언이 대개 그렇지만 강릉방언은 보수적인 색채를 유난히 많이 띠고 있다. 이것들은 우리가 표준어만으로 풀 수 없던 문제를 풀게도 해 주고, 또 전체적으로 국어를 보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는 구실을 한다. 강릉방언 하나가 국어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면은 강릉방언을 깊이 보면 볼수록 무한하다는 느낌조차 준다. 한 좁은 지역의 방언이 이처럼 다채롭고 보배로울 수 있을까. 보면 볼수록 우리로 하여금 경탄하게 하는 게 강릉방언이다.
사회적기능	사투리의 보존은 표준말에 더해 더욱 풍부한 언어자산이라는 인식 속에서 공동체적 특성을 인식하고, 공동체 정체성에 기여
전승현황	강릉사투리보존회 중심으로 사투리대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승 및 확산보급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4. 강릉 대보름 망월가

구분	내용
명칭	강릉 대보름 망월가
영역	구전 전통 및 표현
소재지	강릉시
전승자	
전승단체	
주요 내용	강릉 대보름 망월가는 강릉지방 정월대보름 달맞이의 내용과 망월 풍속을 노래한 가사이다. 이 가사는 작자 불명의 여성이 정월대보름 풍속을 노래한 것으로, 고소설 필사본 「강릉 추월 옥소전(江陵秋月玉簫傳)」의 안쪽 면에 필사되어 있는 것을 장정룡이 찾아서 소개하였다. 작품의 창작 경위는 정월대보름 명절을 맞이하는 여성의 기쁜 심정을 가사로 표현한 것이며, 망월의 풍속을 전하려는 의도도 들어 있다. 전체 194행의 장편가사로 기승전결이 뚜렷하고, 구성은 서사, 본사, 결사로 나눌 수 있다. 서사에서는 “가소롭다 여ᄌᆞ일신 이갓치도 적막할가”라고 하여 규중 생활을 한탄하면서 놀이에는 남녀가 다르지 않다고 하고 있다. 본사에서는 “이때ᄂᆞᆫ 어나땐요 춘정월 망이리라 어와 벗님내야 망월ᄒᆞ로 가ᄌᆞ셔라”고 시작된다. 내용은 중국의 고사와 인명을 주로 인용하고 있는데 “달이떤내 달이떳내 동해동천 달이떳내”라고 하여 본격적인 망월행사를 노래한다. 이울러 망월의 이유에 대하여 “고향떠난 그ᄉᆞ람도 달을보고 부모생각 동유이별 그ᄉᆞ람도 달을보고 친구생각 정부에 깁흔졍도 달을보고 쳘이상ᄉᆞ 회포로 말을해도 너을보고 실푸도다”라고 하여 부모, 친구, 사랑하는 사람이 달에 떠오른다. “우리비록 여ᄌᆞ라도 달을좃ᄎᆞ 노다본이 남여가 다를망정 흥치야 다른손가”라고 남녀의 흥취가 다르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망월을 하면 무병하고, 재수 있고, 귀한 자식을 둔다는 말을 듣고 기대를 한다. 이러한 망월 후에 친구와 이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쓸쓸한 심정을 결사에서 노래한다. “각귀기가 ᄒᆞ올젹에 참아이별 못ᄒᆞ여서 셤셤옥수 셔로잡고 언제나 다시볼고. 애연이 손을노와 집을차ᄌᆞ 도라온니 명명ᄒᆞᆫ 져달빗치 ᄉᆞ창에 빈치여서 발기도 명난ᄒᆞᆫ니 젼젼불매 잠못드려 이리생각 저리생각 세상만ᄉᆞ 생각일세”라 하고 있다. 망월가는 여성의 처지에서 자유롭지 못한 외출이지만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달맞이를 하는 회포를 노래하고 있다. 여성의 처지 한탄, 벗님 상봉, 망월풍속, 망월 후 이별의 순차적 순서를 보여준다.
사회적기능	당시 대보름 풍속을 엿볼 수 있으며, 대보름 풍속의 전승에 기여한다. 강릉 대보름 망월제의 축제콘텐츠 확장성을 지니고 있다.
전승현황	문학작품

5. 염지봉선화가

구분	내용
명칭	염지봉선화가
영역	구전 전통 및 표현
소재지	강릉시
전승자	
전승단체	
주요 내용	조선 중기의 여류시인 허난설헌(許蘭雪軒, 1563~1589)이 지은 규방가사이며, 『난설헌집』에 실려 있다. 이 작품은 봉선화 꽃잎을 따서 손톱에 물들이던 고유한 풍속을 소재로 하여 여인의 아름다운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봉선화 물들이기는 미용과도 관계가 있지만 벽사(辟邪)의 의미도 있는 풍습으로 주로 어린 여자아이 등 여성이 행하고 있었다. 『난설헌집』 칠언고시에 실린 「염지봉선화가」 번역문과 원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금분에 자녁 이슬 각씨 방에 서리니. 金盆夕露凝紅房 미인의 열 손가락 예쁘고도 매끈해. 佳人十指纖纖長 애절구에 짓찧어 장다리잎으로 말아 竹碾搗出捲菘葉 귀고리 울리며 등잔 앞에서 동여맸네 燈前勤護雙鳴璫 새벽에 일어나 발을 걷다가 보아하니 粧樓曉起簾初捲 반가와라 붉은 별이 거울에 비치누나 喜看火星拋鐘面 풀잎을 뜯을 때는 호랑나비 날아온 듯 拾草疑飛紅蛺蝶 가야금 탈 때는 복사꽃잎 떨어진 듯 彈箏驚落桃花片 토닥토닥 분바르고 큰머리 만지자니 徐勻粉頰整羅髮 소상반죽 피눈물의 자국인 듯 고와라 湘竹臨江淚血斑 이따금 붓을 쥐고 초생달 그리다 보면 時把彩毫描却月 붉은 빗방울이 눈썹에 스치는가 싶네 只疑紅雨過春山
사회적기능	옛 풍속을 이해하고 당시의 시대상 이해
전승현황	문학작품

6. 안인 해랑 신화

구분	내용
명칭	안인 해랑 신화
영역	구전 전통 및 표현
소재지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전승자	
전승단체	
주요 내용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마을에서 주민들이 믿고 있는 여신의 이야기로, 해령산(海靈山) 정상에는 성황당과 해랑당(海娘堂)이 있으며, 해랑신을 모신 신당은 해랑당이다. 해랑당이 있는 해령산은 예로부터 어부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는 사당이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산 밑 자락바위는 용왕에 의해 용궁 속에 들어갔다는 김자락(金自洛)의 고사가 얽혀 있는 곳이며, 명선문(溟仙門)은 바다 용궁으로 통하는 입구와 유사하다고도 한다. 이처럼 이 지역은 용궁신화의 배경을 갖춘 곳이며 바위라는 신화소를 담고 있어서 해랑 신화가 생겨났다. 관련설화를 보면, 강릉부사가 관기를 거느리고 해령산으로 소풍을 갔는데, 그네를 뛰다가 떨어져 바다에 빠져 죽었다(일설에는 해랑이라는 처녀). 관기가 그네를 타다가 억울하게 바다에 빠져 죽었으므로 이를 불쌍히 여긴 부사는 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게 하였으며, 원혼이 될 뻔했던 관기는 마을제사의 대상이 되었고, 마을 노인들이 혼자인 여신에게 나무로 깎은 남근을 바치기 시작하자 마을에 풍어가 시작되었다고 전한다. 1930년경 구장의 부인에게 해랑신이 들어와 김대부신(金大夫神)과 혼배를 요구하여 혼인제를 지내준 후로부터 남근봉헌은 중지되었다. 관기는 영혼결혼을 통해 억울함을 푸는 해원(解冤)을 하여 여신이 되었으며 풍요와 어로안전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안치되었다.
사회적기능	사회안정과 풍농풍어를 기원하는 과정속에서 공동체 통합 도모
전승현황	해랑당과 서낭당 제의가 매년 택일하여 이루어진다.

7. 연화부인 설화

구분	내용
명칭	연화부인 설화
영역	구전 전통 및 표현
소재지	강릉시 노암동
전승자	
전승단체	
주요 내용	『고려사(高麗史)』에 전하는 「명주가」 배경설화의 주인공 연화부인은, 강릉김씨 시조로 명주군왕이 된 김주원(金周元)의 어머니 박씨로 전해지고 있다. 연화부인과 관련된 이어척소(鯉魚尺素) 설화는 아름다운 만남으로 전한다. 신라 왕족 김주원의 강릉 이주 문제와 함께 강릉 출신 연화부인과 경주의 서생 김무월랑의 결연(結緣)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설화가 전한다. 김무월랑은 서라벌에서 명주에 이르러 공부하다가 연화부인을 알게 되었고 시로 감정을 나누었다. 연화부인은 김무월랑이 과거에 급제 후 부모의 뜻에 따라 부부의 연을 맺자고 하였고, 무월랑은 서라벌에 다시 돌아가 공부를 하였다. 이후 서로 연락이 안 되었고 연화부인의 부모는 다른 사람을 사위로 맞으려고 하였다. 연화부인은 못에서 기르던 잉어에게 글을 쓴 비단을 전했고, 그 잉어는 얼마 후 부모를 위해 반찬을 만들려고 시장에 왔던 김무월랑을 만나 뱃 속의 비단편지가 공개된다. 김무월랑의 집에서는 놀라고 이상하게 여겨 서둘러 명주의 연화부인 집으로 김무월랑을 보내고, 연화부인 집에서 무월랑을 맞이하여 두 사람의 사랑이 맺어지게 된다. 연화부인을 중심으로 한 설화와 가요는 신라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잉어로 인해 다시 만나게 되는 상징성이 농후하여 다양한 문화적 분석이 필요하다. 연화부인 설화는 허균(許筠)의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 권7의 「별연사 고적기(鼈淵寺 古迹記)」가 가장 자세하다. 1596년 허균의 기록에 의해 설화 속의 남자 이름은 무월랑, 여자는 명주의 처녀로 알려졌다. 이것이 1930년대 『증수임영지(增修 臨瀛誌)』에 이르러 연화부인의 성이 박씨로 나타난다. 또한 김무월랑이 왕의 아우이며, 이름은 유정(惟靖), 벼슬은 유후관으로 명주에 왔다가 연화부인을 만난 것으로 허균에 의해 밝혀졌다. 이후 『강릉김씨파보』와 『명원산고』 등 자료에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 연화부인이 살았던 양어지(養魚池)의 잉어전서 고사는 중국의 고악부 「음마장성굴행(飮馬長城窟行)」을 모방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와 같이 신이한 형태로 전승되는 것은 안자산이 『조광』 7월호(1939)에서 말한 것처럼 '신비적 소설로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경주의 무월랑에게 잉어가 연화부인의 편지를 전했다는 것은 실제의 편지를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다. 쌍잉어는 편지를 봉할 때 쌍 잉어 모양으로 접어서 매었다 하여 유래한 것이다. 그러므로 전승되는 설화에 나오는 표현으로 잉어의 배를 갈랐다는 부이어(剖鯉魚)나 잉어를 삶았다는 팽이어(烹鯉魚)는 편지를 뜯어본다는 뜻이다. 척소서(尺素書)는 한 자 되는 긴 사연의 편지라는 뜻으로, 잉어에게 전한 편지는 비단에 쓴 것이므로 이와 같이 표현한 것이다.
사회적기능	강릉과 경주의 결연, 경주 왕족과 강릉 호족, 즉 김무월랑과 박연화부인 설화는 신화로 승격되었으며, 그 이면에는 정치적 · 사회적 상징성을 내포함.
전승현황	연화부인은 무월랑과의 약속을 지킨 열녀로서 강릉 12신의 한 분으로 신봉되었음. 현재 월화정이 복원되었고, 남대천 위를 지나는 월화의 거리에도 이 설화내용이 제시되어 있음. 남대천 가에는 '월화정터'라는 표지석이 남아있음.

8. 홍장고사

구분	내용
명칭	홍장고사
영역	구전 전통 및 표현
소재지	강릉시 저동
전승자	
전승단체	
주요 내용	강원도 안렴사 박신(朴信)과 강릉 기녀 홍장의 이야기로 강릉시 저동 경포호수의 바위에 얽힌 설화이다. 이 이야기는 정약용(丁若鏞)의 『목민심서(牧民心書)』에 수록되어 있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증수임영지(增修臨瀛誌)』를 비롯한 다른 자료집에도 실려 있다. 그 이야기를 보면, 박신은 백성을 잘 다스려 명성이 있었다. 강원도 안렴사가 되어서는 강릉의 기생 홍장을 사랑하여 정이 자못 두터이 들었다. 강릉 부사 조운흘이 거짓으로 "홍장은 이미 죽었습니다."고 하니 몹시 서러워하였다. 어느 날 조운흘이 박신을 초청하여 경포대 뱃놀이를 베풀었다. 조운흘은 홍장으로 하여금 예쁘게 꾸미고 고운 옷으로 단장케 하며, 따로 놀잇배를 마련하고 늙은 관인 한 사람을 골라 눈썹과 수염을 하얗게 하고 의관을 크고 훌륭하게 차리게 한 후 홍장을 배에 태우게 하였다. 또 채색 액자를 배에 걸고 그 위에 시를 지어 붙이기를 "신라 성대의 늙은 안상이 천년 풍류를 아직 잊지 못해 경포대에 이금의 사신이 놀이한다는 말을 듣고 아름다운 배에 다시금 홍장을 실었네."하였다. 천천히 노를 저어 포구로 들어오면서 물가를 배회하는데 맑고 둥근 음악 소리가 공중에 떠오는 것 같았다. 강릉 부사가 "이곳에는 신선들이 있어 왕래하는데 단지 바라다 볼 것이오,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하니 박신은 눈물이 눈에 가득하였다. 갑자기 배가 순풍을 타고 순식간에 바로 앞에 다다르니 박신이 놀라 말하기를 "신선의 무리임이 분명하구나."하고는 익히 살펴보니 곧 홍장이었다. 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었다. 이 이야기의 중심 모티브는 크게 박신과 홍장의 사랑, 사대부의 풍류로 구분된다. 자연을 매개로 한 사대부의 풍류가 전개되면서 그 이면에 박신과 홍장의 사랑이 놓여 있다. 박신, 조운흘, 홍장이라는 등장인물이 남녀의 사랑과 사대부의 풍류를 서사적으로 표출하는 데 있어 '속임수'가 중요한 설화소로서 작용한다. 이 속임수는 사랑과 풍류를 더욱 극대화시키는 장치로서 역할 한다.
사회적기능	사회상의 이해와 시대적 삶의 이해, 시대 속 풍자
전승현황	오래 전에 이미 문헌에 실려 기록으로 전하는 이 고사는 강릉 경포대와 관련하여 전승되고 있다. 경포호에는 아직까지 '홍장암'이라 새겨진 바위가 있어 이 설화의 명맥을 이어주고 있다.

9. 위촌리 도배

구분	내용
명칭	위촌리 도배
영역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소재지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
전승자	
전승단체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
주요 내용	도배는 위촌리 주민들에 의해 전승된 합동세배이다. 각각 집에 세배를 다니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고령의 촌장을 위해 동네 사람들이 한 번에 촌장에게 세배를 하고, 이웃간에도 함께 세배를 나누는 의식이다. 이는 450년 동안 하나의 전통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매년 정월 초이튿날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결함이 없는 촌장 집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도배의 기원은 조선 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라가 어지럽고 쇠퇴해지자 사회는 어수선해지고 사람들은 일할 맛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새해의 한 달을 세배를 이유로 일가친척이나 이웃을 찾아 술을 마시며 허송세월을 하였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힘없는 나라, 가난한 동네, 뒤진 사람으로 전락될 것이며 시간의 낭비라 생각하고 동리 전체가 한자리에 모여 합동세배를 하여 번거로움을 덜고 생업에 열심히 몰입할 수 있도록 시작한 행사가 바로 도배례(都拜禮)다. 이러한 도배례는 정월 초이튿날 계원들이 마을의 제일 어른인 촌장을 모시고 촌장의 집에서 집단으로 세배를 올리고,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촌장께 세배를 드리면 촌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덕담을 나누고, 세찬을 나눠 먹는다. 도배례가 끝나면 지난 한해 마을의 대소사를 보고하고, 새로운 한 해의 대소사를 협의하며 결의한다. 아랫사람들이 웃어른을 섬기는 장유유서로써 마을의 위계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기능	공동체 질서 유지와 결집
전승현황	예전의 도배례에는 계원들만 참여하였으나 지금은 계원이 아니어도 마을 사람이나 마을 출신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유지 전승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도배례는 여타 마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10. 질먹기

구분	내용
명칭	질먹기
영역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소재지	강릉시 사천 덕실리
전승자	
전승단체	강릉시 사천 덕실리 질먹기 보존회
주요 내용	강릉에서는 농사일을 공동으로 하기 위하여 마을단위로 조직하는 두레를 '질레'라고 하는데, 질먹기는 질레에 속하는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먹는다는 뜻이다. 이러한 질먹기는 대개 논김을 매고 난 후 김장을 심을 무렵인 음력 칠석(七夕)이나 백중(百中) 무렵에 농군들이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벌이는 잔치이다. 원래는 농사꾼들을 위해 집집마다 장만해온 모밥(모내기 잔칫밥)에 고등어 자반음식 등을 차려놓고 나이 순서대로 멍석자리를 깔고 앉아 음식을 즐기는 데서 비롯되었다. 질먹기는 두레 형태의 논농사에서 생겨난 뒤풀이 민속으로, 일꾼들의 고생을 보답하는 차원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논김을 다 매고 난 다음 써레를 씻고 잔치를 베푼다는 의미의 스레씻이, 스레쓰시미라고도 하는데, 밭농사의 민속인 호미씻이(세서연)와 유사하다. 일꾼들은 각자 상을 받는데, 이 밥상에는 팥가루를 뿌린 모밥과 감나무 잎에 고등어 등을 싸먹는 음식들이 올려진다. 질먹기를 할 적에는 기수, 날라리, 쇠, 징, 장구, 북 등 총 7~9명으로 구성된 두레패[농악대]가 조직되곤 했다. 두레패는 논밭에 나가고 들어올 적에 농악을 치는데, 질을 먹을 적에 차리는 상을 질살이라고 하고, 두레패의 회장이 이를 주관했다. 회장은 품삯을 계산하고 농사일의 규모와 농가의 형편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양의 술과 음식을 차려놓는다. 질상을 물린 후에는 풍물을 치고 놀면서 가장 농사를 잘 지은 농군을 장원으로 선정해 장원주(막걸리)를 상품으로 내리고 장원을 소 등에 태워 마을을 한 바퀴 돌곤 했다. 이날 질을 먹고 나서는 동네 공동의 일을 의논하기도 하며, 집안에 장성한 아들이 있는 집에서는 '질을 헤친다' 또는 '질을 먹인다'며 주민들에게 음식을 베풂으로써 품앗이 성년식을 치르기도 한다.
사회적기능	전통문화의 전승, 사회적 통합기능
전승현황	영동지역 여러 곳에서 전승되어 왔다.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와 강릉시 유천동의 질먹기는 대체로 모심기 작업이 끝나는 말복이 지난 다음에 하며 마을 입구의 서낭당에서 서낭신에게 먼저 술잔을 올린 다음에 풍년을 기원하며 먹는다. 사천면 덕실리에서 2015년 제26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 '강릉사천덕실리 질먹기'란 작품으로 출연하였다.

11. 강릉 초당두부

구분	내용
명칭	강릉 초당두부
영역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소재지	강릉시 초당동
전승자	
전승단체	강릉시 초당두부마을(보존회)
주요 내용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에서 제조하는 특산 두부로 바닷물을 간수로 사용하여 제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메주콩을 깨끗이 씻어 약 6~12시간 동안 물에 불렸다가 맷돌에 갈아 콩즙을 걸러낸다. 끓는 가마솥에 콩즙을 부어 끓인 후 10분 정도 뜸을 들이고 바닷물을 넣는다. 간이 배어 말랑말랑하게 응고가 되었을 때 뜨면 초두부이고 무거운 것으로 눌러 성형하면 모두부가 완성된다. 이러한 초당두부는 청정한 해변의 해수를 천연 응고제로 이용하므로 다른 응고제를 넣은 두부보다 수분 함량이 높아 조직이 부드럽고 결착성이 높다. 초당두부의 시작은 조선 명종 때 강릉 지역에 삼척부사로 역임한 허엽(許曄, 1517~1580)이 집 앞의 맛좋은 샘물로 콩을 가공하고 깨끗한 바닷물로 간을 맞추어 두부를 만들게 하였는데, 이렇게 만든 두부의 맛이 좋기로 소문나자 두부에 자신의 호 '초당(草堂)'을 붙이도록 하였다는 설이 전하기도 한다.
사회적기능	지역음식문화를 대표하며, 환경적 영향의 전통경제적 생활구조를 보여준다.
전승현황	초당마을에는 초당두부를 수공업으로 만드는 가구가 운집해 집집마다 각자의 비법을 살려 경쟁적 제조가 성행하였으며, 1979년부터 3~4대째 두부를 만들어 판매하던 사람들이 솔밭 주변에 하나둘씩 음식점을 내기 시작하면서 초당마을에는 30여 곳 이상의 순두부 음식점이 성행하고 있다.

12. 감자옹심이

구분	내용
명칭	감자옹심이
영역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소재지	강릉시
전승자	
전승단체	강릉시민
주요 내용	감자옹심이는 간 감자를 동그랗게 빚어 멸치 육수에 갖은 채소와 함께 끓인 강릉 지역 향토음식이다. 감자를 간 것을 새알심처럼 빚어 만들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주원료인 감자는 강릉지역의 기후에 적합할 뿐 아니라 어떤 땅에서도 잘 재배되어 예전에는 중요한 구황식품으로 애용되었다. 감자옹심이는 쌀이 모자라던 시절에 많이 해 먹었던 음식이다. 감자옹심이를 만드는 법은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1시간 이상 끓여 육수를 만들고, 호박, 표고버섯, 냉이는 손질하여 썰어 놓는다. 감자는 껍질을 벗겨 강판에 갈아 건더기와 앙금을 섞어 반죽하여 동그랗게 빚어 옹심이(새알심)를 만든다. 육수가 끓으면 옹심이를 넣어 익어 떠오를 때 채 썬 호박, 표고버섯, 냉이 등을 넣어 함께 끓여 그릇에 담고 그 위에 깨소금, 김 가루, 양념장을 얹어 낸다. 옹심이와 메밀국수, 칼국수를 같이 끓여 내기도 한다. 이러한 요리는 감자를 곱게 갈아서 자루에 넣고 감자 물을 알맞게 빼 주어야 감자의 아린 맛이 제거되고 빛깔이 곱다. 1시간쯤 가라앉힌 뒤 웃물을 따라 내고 감자건더기와 앙금을 반죽해 만든다. 감자옹심이는 감자건더기와 감자 전분을 적당히 섞어 만들므로 탄력이 넘치고 씹는 맛이 쫄깃쫄깃하다.
사회적기능	지역 토속음식의 보존과 섭취를 통해 지역성의 인식과 전승, 전통먹거리 제공을 통한 공동체 문화의 인식
전승현황	감자옹심이는 강릉시 전통음식으로 선정되었으며, 강릉 지역에는 감자옹심이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 여러 곳이 있다.

13. 강문 진또배기 서낭굿

구분	내용
명칭	강문 진또배기 서낭굿
영역	민간신앙, 종교 등 사회적 의식
소재지	강릉시 강문동
전승자	
전승단체	강문마을
주요 내용	강문에는 세 개의 서낭당이 있다. 바닷가에 위치한 여서낭당이 가장 크고 해사에 영향을 미치는 신으로 믿는다. 죽도봉 아래에 위치한 여서낭당은 1990년에 중수하였는데 5칸 기와집이다. 중앙에는 좌우에 부채를 든 시녀를 거느린 여서낭이 족두리를 쓰고 자주빛 당의를 입은 모습으로 모셔져 있다. 여서낭당에서 1백여 미터 떨어진 솔밭 한 가운데 있는 남서낭당은 작은 한 칸 집이다. 위패는 토지지신, 성황지신, 여역지신의 3신위를 봉안하였다. 강문이 원래 초당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남성황신을 초당마을에서 모셨다고 한다. 또한 강문마을 입구에 강문 진또배기가 서있다. 강문동에서는 마을 서낭제의가 행해져오고 있으며 이러한 강문동 서낭제의 역사는 약 천여 년 이상 되었다고 한다. 서낭에 지내는 의례는 음력 정월 보름과 4월 보름, 8월 보름으로 세 번에 걸쳐 하고 있다. 정월보름에는 제사를 지내고 무당을 불러 간단히 비손하는 고사를 지낸다. 하지만 4월 보름에는 격년으로 2박3일 동안 무당굿을 한다. 8월 보름에는 다시 추수제를 지낸다. 이러한 강문동 서낭제의 중에서 진또배기제는 4월 보름에 굿을 할 때 특별히 진또배기를 모심으로써 붙여진 이름이다. 진또배기는 영동 지역에서 흔히 짐대서낭, 진대로 부르는 솟대의 일종이며, 진또배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곳은 강문동뿐이다. 1975년 '강문 진또배기제'라는 이름으로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출전한 뒤 강문동의 서낭굿을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 진또배기는 서낭신을 보필하고 삼재(수재, 화재, 풍재)를 막아 마을의 안녕과 풍어, 풍년을 가져다준다고 믿는다. 진또배기의 높이는 약 4.5미터이고 둘레는 35센티미터로 소나무로 만들었다. 장대 끝의 나무오리는 세 마리를 세우는데 상당히 세밀하게 조각되어 있다. 세 마리의 오리는 모두 서북쪽의 경포대를 향하고 있다. 강문에서는 3년에 한 번씩 4월 보름날 굿을 하는데 이때 진또배기를 새로 깎아 모시고 굿도 받는다. 진또배기는 원래 마을 입구였던 남서낭당 앞에 서있었다고 한다. 진또배기제의 구성과 전승형태를 보면, 강문 진또배기제에서 제관과 도가는 제사 보름 전에 어촌계 총회에서 결정하되 깨끗하고 우환이 없는 가정 가운데에서 정한다. 금줄은 전에는 일주일 전에 쳤으나 도가집의 일상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에는 사흘 전에 친다. 제물은 치성드리기 하루 전날에 남자들이 강릉 시내에서 사온다. 제물은 삼실과와 어물과 소고기를 사용한다. 어물은 어민들이 잡은 것과 시장에서 사온 것으로 한다. 소는 예전에는 직접 잡아서 했었는데 지금은 사서 쓴다. 축은 마을에 있는 원본을 그대로 사용하고 매번 새로 작성하지는 않기 때문에 태우지 않는다. 소지는 4월 제사 때만 올리고 정월이나 8월에는 올리지 않는다. 소지는 선주를 중심으로 올린다. 치성 비용은 어촌계 예산에서 주로 담당하고 마을에서 정월에 걸립패를 형성하여 걷어두었던 돈으로 충당한다. 강문동은 서낭제때 마을 사람들이 함께 놀면서 대동단결의 장을 만든다. 강문 진또배기 서낭굿은 굿을 서낭당 안에서 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낭당 안에 제물을 진설하고 마당에 자리를 깔고 무녀가 굿을 한다. 주민들은 굿청을 빙 둘러 앉거나 서서 구경한다. 굿의 제차(祭次)는 부정굿, 청좌굿, 서낭굿과 진또배기제, 하회동참굿, 조상굿, 세존굿, 산신굿, 성주굿, 천왕굿, 심청굿, 군웅장수굿, 손님굿 등을 행한다. 마지막 날은 바닷가에서 용왕굿과 거리굿을 한다. 강문 진또배기 서낭굿에서 가장 중요한 제물은 숫소이다. 특히 소의 낭신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정월과 8월에는 소고기와 소의 낭과 신을 올리고, 4월 대치성 때는 소고기와 소의 낭, 신에 소머리와 족을 더 놓는다. 메는 14일 밤 12시에 도가를 맡은 사람이 성황당 앞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직접 메 3그릇을

	짓는다. 쌀은 놋그릇 각각에 한 되 반씩을 넣어서 한다. 제물상은 진또배기와 성황당에 같은 형식으로 차리되, 진또배기에는 메를 놓지 않고 술만 올린다. 여서낭당에서는 서낭을 먼저 모시고 나서 수부에게 제를 올린다. 제주는 도가에서 술을 담가서 사용한다. 예전에는 제주를 서낭당 뒤편의 평구나무 밑에다 묻어서 담근 것을 사용하였는데, 1974년에 서낭당에 담을 만들면서부터는 도가에서 술을 빚었다.
사회적기능	어촌 풍어의 염원과 전통적 마을공동체 정체성 유지에 기여
전승현황	격년으로 음력 4월 보름에 2박3일 동안 무당굿을 하고 있다.

14. 언별리 무후제

구분	내용
명칭	언별리 무후제
영역	민간신앙, 종교 등 사회적 의식
소재지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전승자	
전승단체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주요 내용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에서 매년 음력 9월 9일에 자식 없이 죽은 사람들을 위해 지내는 제례이다. 자손을 두지 못한 사람이 죽으면 제사를 지내 줄 사람이 없어 망령이 위안을 얻지 못해 무자귀(無子鬼)가 된다고 하여 이를 예방하고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 무후제사를 지내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 강릉지역의 무후제는 마을별로 행해지고 있으며,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과 현내면의 노인회에서도 매년 음력 3월 25일 합동으로 옥계 무후제사를 지내오고 있으며, 강릉시 왕산면에서도 매년 한 해가 다가는 12월 31일 신배나무 원풍제와 더불어 전 재산을 면에 기부하고 작고한 4명을 위한 무후제를 지낸다.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에서는 지금부터 약 200년 전에 자식 없이 혼자 외롭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생전에 자신의 전답과 재물을 마을공동 기금으로 내놓고 매년 자신의 묘에 제사를 지내달라고 부탁한 것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마을에서는 그 사람의 뜻을 이어받아 전답관리를 공동으로 하고 그곳에서 나온 이익금으로 제물을 성대하게 차려 제를 지내왔다. 일제강점기에 관에서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마을에서 관으로 옮겨 제사를 지낸 후부터 관례화되었다. 무후제의 제관은 면장을 초헌관으로 하고, 언별리 이장이 아헌관을 맡아 매년 무자 영혼을 위로하고 있으며,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제사 형식은 일반적인 가정의 기제와 같은 방식이나, 면단위에서 행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삼헌관을 정하여 고축과 재배, 헌주, 음복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사회적기능	구성원의 사회적 기여 장려와, 공동체 통합기능
전승현황	매년 성행(강릉지역의 기타 여러 마을에서도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

15. 학산서낭제

구분	내용
명칭	학산서낭제
영역	민간신앙, 종교 등 사회적 의식
소재지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전승자	
전승단체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주요 내용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학산2리 서낭당이 만들어지고 대동제를 지내온 것은 조선 중기에 학산 마을의 유력한 성씨들이 입촌하면서부터이며, 약 400여 년의 전통을 지니고 있다. 학산2리 서낭당의 제례는 음력 정월 초정일(初丁日) 올리는 마을 제사가 있지만, 최근에는 강릉 단오제 기간인 음력 4월 보름 대관령에 가서 산신제, 국사성황제를 지내고 구산 서낭당을 거쳐 국사성황행차가 이곳에 들르는 의식이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서낭당은 학산2리 재궁마을 소나무 숲에 있으며, 신당은 없고 서낭당 주변에 돌담을 쌓아 당을 표시하였다. 신위도 상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을제사 때에 성황지신, 토지지신, 여역지신의 세 신위를 모시는 형태이다. 정월의 마을 제사에서 제관은 삼헌관과 축관이 있으며 대개 마을의 연장자가 선정된다. 단오제를 지내기 위한 4월 보름의 경우에는 따로 헌관을 정하지 않으나 역시 마을의 연장자가 제주가 되어 국사성황행차를 맞이한다. 정월에 지내는 마을 제사는 엄격한 홀기에 의한 제사가 아니고 삼헌관과 축관만 선정하여 삼헌관이 각각의 신위 앞에서 석 잔을 올리는 것으로 제사가 끝난다. 4월 보름 학산 서낭제는 마을의 연장자가 먼저 절하고 그 외 내방객이 개별적으로 절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이때 제사 후 무당의 굿이 한마당 펼쳐진다. 정월제사의 제물은 마을에서 유사를 정하여 해마다 돌아가며 가구별로 준비한다. 정월 제사는 유사를 맡은 가정에서 떡, 메(밥) 등 제물을 준비하고, 일부는 마을에서 준비하는 것도 있다. 제례 용품은 주로 제기인데 이장이 자택에 보관하며 관리한다. 4월 서낭제는 학산농요보존회와 마을 주민들이 조금씩 갹출하여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서낭당 제삿날 한 달여 전부터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보지도 않아야 하고 부정한 일에 참여하는 것도 금한다. 특히 상가 출입을 금한다. 제례에 참여하는 제관은 도포를 입고 일반 참례객은 평상복으로 참여한다. 정월 제사의 축문은 성황지신, 토지지신, 여역지신께 고하는 축문이 있는데, 마을의 안녕과 풍년 농사, 건강을 기원하는 내용이다. 4월 보름에는 특별히 축문은 없으며 무당이 굿을 하면서 축원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끝낸다.
사회적기능	공동체 통합, 사회적 질서 유지
전승현황	음력 정월 초정일과 4월 보름에 행해지고 있다.

16. 강릉 용굿

구분	내용
명칭	강릉 용굿
영역	민간신앙, 종교 등 사회적 의식
소재지	강릉시
전승자	
전승단체	임영민속연구회
주요 내용	강릉의 기우제는 마을제의와 공동체 의례인 용굿 등으로 열렸다. 마을 기우제는 주술형, 유교형 등의 유형이 나타나지만 공동체 의례로는 용굿이 유일하다. 각 마을마다 기우제를 지내도 가뭄이 계속 되면 민관이 합동으로 용굿 또는 용제를 지냈다. 연못이나 물가에 토룡을 만들어 놓고 무당을 불러지낸다. 용강동 용후정에서 토룡을 만들어 기우제를 지내다가 연못이 매립되면서 남대천으로 이전해 지낸 것으로 판단된다. 이날 강릉부사를 비롯한 기관장들이 굿판에 참석하여 기도했다는 증언이 있다. 강릉지방에서는 음력 4월 중순이 지나도록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용굿을 지냈다고 하며, 이때 마을의 농부들이 참대와 진흙으로 큰 토룡을 만들고, 비가 와서 흙으로 만든 토룡이 다 씻겨 내려갈 때 까지 용굿을 하였다고 한다. 용을 위한 제례상이 차려지면 무녀들이 춤을 추며 용의 주위를 돌면서 “천신이여..용신이여..비를 내려주시옵소서..”라고 주문을 외우고, 농악대와 마을사람들이 함께 용의 주위를 돌면서 비 내리기를 축원하였다. 2017년 사단법인 임영민속연구회는 용굿 복원 및 시연회를 행하였으며, 1막 용굿터 지신밟기, 2막 용 만들기, 3막 공연 및 신목모시기와 제물을 바치기, 4막 부정굿–성황굿–칠성굿–산신굿–지신굿 그리고 용신굿, 5막 신명 뒷풀이 한마당 등으로 진행되었다.
사회적기능	전통문화의 복원 전승, 기원을 통한 사회적 통합
전승현황	일제강점기때 단절되었던 것을 2016년과 2017년 사단법인 임영민속회가 다양한 사료를 근거로 복원하였다.

17. 용신제

구분	내용
명칭	용신제
영역	민간신앙, 종교 등 사회적 의식
소재지	강릉시
전승자	
전승단체	어촌지역
주요 내용	용신은 수신(水神)과 같은 의미로 대부분 용왕님, 또는 용왕신으로 부른다. 강원도 강릉 지역에서 음력 정월 대보름날 물가로 나가 용왕신에게 가정의 행운이나 장수, 풍요를 비는 풍속을 말한다. 강릉지역에서 수신을 섬기는 형태는 금산리 용물달기, 학산리 용알뜨기, 남대천의 용신제 등 내륙의 우물이나 물가에서 하는 방식이 있고, 동해안 지역의 용왕제 · 용왕굿 · 풍어제와 같이 바닷가에서 하는 방식이 있다. 용신제와 관련된 세시풍속과 민간신앙은 다양하여, 주부들이 개인적으로도 하기도 하지만 무당을 불러 마을풍어제 형태로 진행하기도 한다. 이들은 신격의 중심을 물속에 사는 용이라고 믿는다. 민주면(閔周冕)이 편찬한 『동경잡기(東京雜記)』「상원」조에는 용왕제를 하고 종이에 밥을 싸서 밤중에 우물에 던진다는 기록이 있다. 실제로 남대천이나 안목 바닷가에서는 '어부식'이라 하여 제를 지내고 나서 한지에 밥을 싸서 물에 던지는 의식이 있으며, 삼재가 들거나 재수가 없는 사람은 흰 종이에 자신을 이름을 쓰고 약밥 세 접시를 싸서 물에 던진다. 또한 오곡밥을 나이 수대로 숟가락으로 떠서 한지에 싼 후 바다에 던지고 달을 보고 절을 한다. 동해안의 용신은 해랑신, 해신, 여서낭신이라고도 하는데 사후에 바다를 지키는 신격이 되었다는 설화가 전승된다. 또한 바닷물에 의해 신격이 이동하여 마을에 안착하고 신격화되는 부래(浮來)신화가 전한다. 안인진리 어촌마을 제당에도 여신을 봉안하고 있는데 바다에 빠져 죽은 여성을 신격화하고 목조남근을 깎아 바치며 풍요를 기원하였다. 강문동과 심곡마을 여신은 바다에 떠내려온 화상(畵像)을 건져서 모셨다고 전한다. 이들 바다의 신은 대부분 여성신의 화상을 봉안하고 있거나 바다처녀신인 해랑신(海娘神) 신위를 모신다. 용신제를 행할 때에는 마을에서는 부정을 타지 않은 사람으로 제관을 선정하고, 제관에 선정되면 일주일 동안은 외출을 하지 않으며 상가(喪家) 출입을 삼가고 피를 보는 일을 하지 않고 근신한다. 대부분 마을 어촌계장이 주도적으로 진행한다. 강릉지역 용신제의 진행 절차를 보면, 개인적으로 용신에게 치성을 올리는 경우는 주부가 몸을 깨끗이 하고 달이 뜨면 남대천 물가나 바닷가에 가서 제물을 차려놓고 빈다. 마을 단위로 용왕제를 지내는 경우, 안목마을의 용신제는 무녀가 주도하며, 여서낭당에서 강신을 하여 신목을 들고 바다로 나가 물국황제굿이라 하여 물에 빠져 사망한 원혼을 먼저 불러 위로한다. 그 다음날부터 바닷가에 설치한 제당에서 굿을 하는데 먼저 용왕신을 위해 바다로 나가서 선주들과 풍어와 안녕을 기원하고 만선기를 꽂는다. 무녀는 바닷물을 퍼서 담은 물동이를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굿을 한다. 이것을 용동이라 하는데 용왕신이 용을 타고 내려오는 모습이라고 하며 '용을 탄다'고도 말한다. 이때 선주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흰 종이를 머리카락에 묶어준다. 이것은 풍어를 기원하는 유감주술 행위다. 그리고 무당은 '물국대'라는 대나무 신목을 바닷물에 적셔 선주들의 머리와 몸에 뿌리면서 용왕신의 뜻을 전한다. 굿을 마친 다음에는 다시 여서낭당으로 돌아와 뒤풀이를 한다. 용신제의 제물은 시루떡과 주(酒), 과(果), 포(脯), 메 등으로 형편에 맞게 장만하며, 용신제의 금기로는 부정 타는 것을 엄격하게 꺼려서 여성들의 참여를 금지한 채 어촌계 남성들로만 진행한다. 제물을 만드는 도가에는 황토를 뿌리고 금줄을 일주일 전부터 쳐서 부정한 사람을 막는다. 용신제의 옷차림으로는, 바다의 용신제는 제관들이 도포와 두루마기를 입고 유건을 쓰며, 개인적인 용신제는 주부가 목욕재계하고 새벽에 지낸다. 축문에는 한문식의 축문이 있고 개인적으로 지낼 때는 간단하게 말로 고축한다.

	용신제 소요 비용은, 풍어제의 형식일 경우는 허개등을 세우고 연꽃등으로 제당을 꾸미기 때문에 수백만원이 드는 경우가 있고, 개인일 경우는 몇 만원 내외이다.
사회적기능	기원행위를 통해 공동체의식 유지
전승현황	개인의 용신제는 차츰 사라지고 있으나 동해안의 무속형태인 용신제는 풍어굿과 함께 무당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체로 어촌계를 중심으로 3~5년에 한 번 별신제의 형태로 용신을 위한 제사와 굿을 한다. 동해안 별신굿 무당들이 안목, 강문, 사천, 주문진 등의 어촌에서 굿을 하면 어촌계 관계자들이 제복을 갖추어 입고 용신제를 지낸다.

18. 운정동 고봉제

구분	내용
명칭	운정동 고봉제
영역	민간신앙, 종교 등 사회적 의식
소재지	강릉시 운정동
전승자	
전승단체	강릉시 운정동
주요 내용	강릉시 운정동에서 행해지는 서낭제사로, 제의 명칭은 고봉제 또는 대동제이다. 신위는 성황지신, 여역지신, 토지지신을 모시고 있다. 운정동 고봉제는 과거 운정동이 정동면이었던 시기에 죽헌, 유천 대전, 운정동의 광범위한 지역을 포괄하는 이 일대의 면 단위 마을 제사로, 제의 명칭은 고봉제(高峯祭) 또는 대동제이다. 신위는 성황지신, 여역지신, 토지지신을 모시고 있다. 운정동 고봉제의 공간이 되는 곳은 조산(造山)이다. 조산은 즈므마을에 있는 산으로, 된봉이라고도 한다. 조산은 된봉은 난곡동의 서지마을, 행정마을, 날밀마을, 배다리마을, 해운정마을, 사리미마을의 안산이며, 산당이 이곳에 있다. 성황당에는 당집이 없으며, 서낭목 주위에 석축을 쌓아 제단을 만들었다. 고봉제의 제물은 죽헌, 대전, 난곡 주민들의 계모임인 대동계에서 제물을 준비하고 각위진설한다. 축문은 강원도 강릉부 북정동면 조산리에 있는 성황신과 토지지신, 여역지신에게 행한 동제의 고축문이다. 성황신께는 마마와 돌림병이 없기를 빌고 토지지신에게는 집집마다 복과 기쁜 일을 맞이하고 사악하고 더러운 것을 쫓아내 주기를 바라며, 여역지신에게는 구름과 바람이 기화되어 어른들은 다함께 편하고 아이들은 모두 구제되기를 기원하는 글이다.
사회적기능	공동체의 통합
전승현황	매년 음력 3월 초정일에 이루어진다.

19. 풍어제

구분	내용
명칭	풍어제
영역	민간신앙, 종교 등 사회적 의식
소재지	강릉시 어촌지역
전승자	
전승단체	각 마을 어촌계
주요 내용	풍어제는 강릉 지역의 어촌에서 풍어를 목적으로 하는 굿을 말한다. 주로 어촌계가 풍어를 목적으로 하는 굿으로 별신굿, 서낭굿이 속한다. 마을수호신인 골매기 서낭을 모시지만 별신굿처럼 바닷가에 차일을 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잔치성격을 띠고 굿을 한다. 현재 사천풍어제, 영진풍어제가 전승되고 있다. 이러한 별신굿의 변화로서 풍어제 신당은 바닷가에 차일을 치고 임시로 만들어 사용한다. 바닷가는 평소 그물을 수선하거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굿하는 기간만 신성공간으로 변모한다. 풍어제 행위자인 제관으로는 삼헌관과 축관, 도가를 선정한다. 헌관은 주민을 대표하여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고 도가는 제물을 장만한다. 제관은 초상이나 출산이 없었던 집안 출신으로 부정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선정한다. 최근에는 어촌계장이 당연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토박이를 중시하되 거주한 지 5년 이상이면 별 문제없이 제관을 맡는다. 또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가운데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행위구조를 보면, 당을 매고 그 위에 지화와 제물을 진설한다. 연봉을 가운데 놓고 좌우로 지화꽃병을 놓는다. 제물은 각종 어물과 고기, 삼실과, 과일 등으로 차린다. 그 외 집집마다 해온 용왕상을 놓았으나 최근에는 사라지고 없다. 풍어제는 일반적인 별신굿과 그 굿의 절차 및 내용이 유사하여 부정굿, 골매기서낭굿, 청좌굿, 하회굿, 조상굿, 세존굿, 성주굿, 칠성굿, 군웅장수굿, 심청굿, 천왕굿, 손님굿, 제면굿, 꽃노래굿, 뱃노래굿, 등노래굿, 용왕굿, 거리굿 등을 행한다.
사회적기능	기원을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 / 사회적 질서와 통합에 기여
전승현황	최근 어업의 불황이 계속되면서 굿을 하는 마을이 줄어들었다. 영진은 주문진 앞에 있는 어촌이지만 관광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굿을 계속하고 있다. 사천은 관광지인 동시에 제법 큰 선착장이 있어서 풍어제를 하고 있다. 주문진 서낭굿의 경우 실제 내용은 풍어제와 같지만 서낭당에서 굿을 하기에 풍어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20. 산메기

구분	내용
명칭	산메기
영역	민간신앙, 종교 등 사회적 의식
소재지	강릉시
전승자	
전승단체	
주요 내용	산메기는 산을 대접하는 의례이다. '산을 먹인다'는 뜻이다. 산메기는 산과 관련된 신앙으로 전국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보편적인 산간신앙과는 달리 강원도 일부지역에서 나름대로의 특성을 지니고 행해지는 독특한 신앙의례이다. 강릉시 지필마을의 경우는 단오날 이른 새벽 날이 밝기도 전에 집안의 안주인이 미리 준비해둔 제물을 머리에 이고 마을 뒷산으로 올라가 개인적으로 혼자 치성을 드리는 형태이다. 반면에 삼척시의 산메기는 보통 무당굿의 례, 독경의례, 비손의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굿이나 독경은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고 비손은 비전문가인 일반 민간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의례이다. 산메기에서 '산'의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만큼 그 기능이나 목적도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성격을 띤다. 산메기의 목적은 첫째, 소가 잘되게 해달라는 것이다. 소를 키우는 집들이 산메기를 많이 하며 산메기의 장소가 되는 마을 야산은 소를 먹이는 장소이자 농사를 짓는 장소로서 즉 주민들의 생활터전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곳을 관장하는 신을 잘 대접하여 화를 면하고 복을 기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 산에다 소를 풀어놓고 먹이기 때문에 소가 구르거나 다치지 말고 짐승의 피해도 막아달라고 하며, 또 그곳에서 짓는 농사가 풍년이 들고 잘되게 해달라고 축원한다. 이때는 산을 관장하는 신의로서의 산신에 축원하는 것이 주요 의례이다. 그리고 '산' 또는 '군웅'이라 하여 소를 담당하는 신이 있는데 이것은 평상시에도 집안의 가신으로서 마굿간 앞에 모신다. 둘째는 조상을 잘 모셔 집안이 안과태평하고 자식들 잘되게 해달라는 목적이 있다. 산메기를 갈 때 조상 수대로 메를 지어 가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인데 마을에 따라서는 조상거리가 가장 크고 성대하게 이루어진다. 즉 산메기의 중심이 조상에 실리는데 산신에는 처음에 간단하게 산메기를 알리는 것으로만 끝내고 줄곧 조상 축원이 길게 이어진다. 조상 축원에서는 축원과 소지올림, 삼베를 찢어 조상옷을 입히는 것 등 그 절차 또한 복잡하다. 따라서 조상을 잘 대접하여 살아있는 후손들이 별 탈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원하는 것이 목적인 셈이다. 산메기에서 조상축원이 중심이 되는 것은 집안에서 지내는 기제사와 마찬가지로 종손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셋째, 산메기터에 삼신당을 마련해두고 여자들이 집안의 어린 자식들 별 탈 없이 잘 크게 해달라고 빌고, 아이를 못 낳은 집안의 여자들은 삼신을 타오기도 한다. 산에서 삼신을 타오는 것은 민간인들 사이에서 '산제불공'을 비롯하여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민속이다. 집안에서 모시는 삼신은 집에 있는 아이들이 열 살이 될 때까지만 모셔지지만 산메기의 삼신은 자손번창과 관련하여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사회적기능	개인과 가정의 평안을 통해 삶을 안정
전승현황	일부 마을에서 신앙으로 전승되었으나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음

21. 나무 시집보내기

구분	내용
명칭	나무 시집보내기
영역	민간신앙, 종교 등 사회적 의식
소재지	강릉시
전승자	
전승단체	
주요 내용	나무시집보내기는 설날 아나 정월 대보름날 과일수확이 많기를 빌면서 나뭇가지 사이에 돌을 끼워 넣는 풍습이다. 이는 남녀 간의 성교를 모방하여 자식을 낳는 것과 같이 풍요를 비는 행위로, 문헌에 의하면 대보름뿐 아니라 정초 미명(未明) 때나 단오날에도 시행하였다고 한다. 또한 나무시집보내기는 나무장가보내기라고도 하는데 사람처럼 나무도 혼인하여 자식을 낳는 행위를 모방하여 꾸미는 주술행위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가수(嫁樹)'라 하였다. 조선시대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정월령」에는 "실과나무 버곳 깎고 가지사이 돌끼우기 정조날 미명시에 시험조로 하여보소"라 하였다. 중국의 『농정전서(農政全書)』에 의하면 "정초 오경 무렵 닭울음이 울리면 뽕나무나 대추나무에 불을 쪼이고, 칼이나 도끼로 나무를 두드리면 결실이 많은데 이것을 가수라 한다. 이 날 복숭아나무도 껍질을 벗겨준다."라고 하였다. 생활민속으로서 의미를 보면, 과실나무에 끼우는 돌은 가능하면 먼 곳에서 가져온 돌이 좋다고 하는데, 이것은 "나무를 먼 곳에 시집보낸다"는 의미이다. 대보름날 쪄낸 약밥을 가지 사이에 갖다 붙이고 풍작을 빌기도 한다. 시집보내기의 절차를 보면, 농촌 가정에 따라서는 마치 연극을 하듯이 과실나무와 대화를 한다. 감나무 밑에 쌀뜨물을 붓고 한 사람은 감이 잘 달리지 않은 나무에 올라가고 다른 사람은 밑에서 막대기로 감나무의 밑을 종아리 때리듯이 탁탁치면서 "잘 달려줄라나?"라고 물으면 "오냐 잘 달려주마"라고 서로 응답을 한다. 또는 "올해 열매 잘 달려라. 잘 달릴려면 이 물 먹고 얼른 커라. 많이 달려다와."라고 말하면 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예"하고 대답을 한다. 그러면 "내가 물 한 바가지 주마. 두 바가지 주마." 하면서 바가지에 담아온 쌀뜨물을 나무에 조금씩 붓고 나서 종아리를 때린다면서 나무를 막대기로 때린다.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옥계마을에서는 대보름 약밥을 배나무에 붙이고는 "빠지지 말고 늘어라. 아지아지 잘 늘어라 둥글둥글 잘 커라."고 외우면 배가 많이 달린다고 한다.
사회적기능	전통농업문화의 이해, 풍요기원을 통해 생활안정 추구
전승현황	요즘도 과수원에서는 배나무나 감나무에 작은 돌을 끼워 풍작을 바라는데 이렇게 하면 열매가 많이 달린다고도 한다.

22. 손모둠

구분	내용
명칭	손모둠
영역	민간신앙, 종교 등 사회적 의식
소재지	강릉시
전승자	
전승단체	
주요 내용	손모둠은 손을 모은다는 뜻으로 21명의 상두꾼이 모여서 서로 손발과 호흡을 맞춘다는 의미이며, 장례 때 상여꾼이 빈 상여를 메고 풍악과 노래를 하면서 마을을 돌아다니는 민속놀이이다. 이러한 손모둠은 출상(出喪) 전날 밤인 드장날 상두꾼을 정하고 빈 상여를 꾸며 행상하는 식으로 미리 해보는 것이다. 보통 세 번 하는데 '초초, 이초, 삼초'라며 상여소리를 불러 상주를 깨우고, 울리는 소리를 한다. 장례풍속 가운데 손모둠은 호상(好喪)일 경우에 한다. 출상(出喪) 전날에 빈 상여를 메고 선소리꾼과 상여를 멘 사람들이 모여 형식적으로 발을 맞추기도 하고 웃음을 유도하며 상주를 위로한다. 강릉에서는 상의간 2명, 요여 매는 사람 2명, 선소리꾼 1명, 상여 메는 사람 16명이 '동방옷'을 입고 건을 쓰고 행전을 친다. 손에는 흰 장갑을 끼고 짚신을 신었으나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 강릉에서 전통 상여를 꾸미는 집안이 많지 않아 손모둠을 보기는 힘들고 호상의 경우 문상소는 잔칫집 분위기를 보여준다.
사회적기능	조상숭배 전통과 공동체 구성원의 연대감, 전통장례의식의 인식
전승현황	장례문화의 변화로 단절

23. 시월상달

구분	내용
명칭	시월상달
영역	민간신앙, 종교 등 사회적 의식
소재지	강릉시
전승자	
전승단체	
주요 내용	상달은 수리달과 같은 의미로 '상'은 높다는 뜻과 신(神)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강원도 강릉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세시 풍속을 행하는 달인 음력 시월을 말한다. 음력 10월은 '좋은 달', '으뜸 달'이라는 뜻으로 상(上)달이라 부르며, 강릉의 가정에서는 집안의 여러 신에게 고사를 올린다. 고대 한민족은 5월과 10월 농공시필기(農功始畢期)에 천신에게 제사를 올렸는데 상달의 고사는 그러한 풍습이 전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릉에서는 시월상달에 지내는 고사를 안택기도라 하는데, 토지신에게는 뒤뜰 장독대 앞에서 지내고, 성주신에게는 안방, 조왕신에게는 부엌에서 솥뚜껑을 엎어 제물을 진설하고 지낸다. 뒤뜰에는 백설기와 시루떡, 안방에는 팥시루떡, 부엌에는 메를 한 그릇 올리며 기타 제물로는 돼지고기, 열갱이, 주·과·포 등을 쓴다. 형식은 독축을 하거나 절을 하고 소지를 올리는 가정도 있으나 대부분 말로 간단하게 고축을 한다. 제사 중에는 대문에 왼새끼를 꼬아서 금줄을 치고, 황토를 문 앞에 뿌려 부정을 막는다. 일부 가정에서는 무당을 불러 안택굿을 하고, 강문 어촌마을에서는 배의 고사도 지내고, 주문진 소돌마을에서는 마을 서낭제를 10월 중 택일하여 지낸다. 대부분 가정에서는 안택고사를 택일하나 10월 중 말날인 오일(午日)을 택하여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사회적기능	가정과 개인의 안녕을 기원하여 사회안정에 기여
전승현황	상달의 제례는 현재 사라지고 있는데 10월 달을 문화의 달이라 하여 각종 축제가 개최된다. 상달은 단군이 하늘로 올라간 날이라고 하는데, 3월 13일에 내려오셨다가 황해도 구월산으로 올라가신 달이므로 상달이라 했다고 전한다.

24. 건금마을 용물달기

구분	내용
명칭	강릉 건금마을 용물달기
영역	전통적 놀이 · 축제 및 기예 · 무예
소재지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전승자	
전승단체	건금마을 용물달기 보존회
주요 내용	용물달기는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에 있는 임경당(臨鏡堂) 우물에서 음력 정월 대보름날 새벽에 행하는 민속놀이이다. 임경당 중심의 대보름 우물제사를 통해 풍농풍요를 기원하고, 마을의 안녕과 질서를 추구한다. 우물물이 마르지 않기를 바라는 뜻으로 행해진 정월대보름 놀이이며, 놀이행위를 통해 섬겨지는 대보름달과 물은 풍요로운 생산을 상징한다. 이는 농경문화 속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던 사상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보름 전날인 14일 저녁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용을 만들기 위해 명주성 남쪽 자락에 있는 임경당에 모여 새끼를 꼬다가 자정이 되면 짚을 잘 추슬러 용을 만든다. 짚으로 용을 만드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약밥을 시루에 찌고 백설기를 하여 제물을 장만한다. 15일 새벽이 되면 용을 끌고 항생골 샘터에 가서 용을 담궜다가 다시 꺼내고, 이곳의 샘물과 함께 솥골목에 있는 샘과 둔봉에 있는 물을 길어와 임경당 용천수에 붓고 용을 담근다. 이후 임경당 우물 안에 넣어두었던 짚용을 꺼내놓고 우물 앞에서 제례를 거행하는데 유교식 축문을 간단하게 읽는다. 축문의 내용은 용왕신에게 물이 잘 용출되기를 바라는 뜻으로 제물을 차려 빈다. 제사가 끝나면 사람들이 물 뜰 그릇을 하나씩 들고 용을 새끼줄에 매달아 들고서 "용물달자! 용물달자!"고 외치면서 동서남북 사방의 샘터로 가서 용에게 물을 적시고 끌고 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샘터 물을 용의 뒤에 조금씩 뿌리다가 임경당 우물까지 와서 물을 붓는다. 물을 뜨러 나설 때는 물그릇을 두드려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들판을 향해 새 쫓기를 하여 마을의 나쁜 액을 쫓는다. 주민들이 용을 앞세우고 사방의 샘터에서 물을 떠다 붓는 행사가 끝나면 우물 옆에다 용을 말아서 모시고 음복을 한 뒤 약밥 시루를 들고 나오 참여한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다. 임경당 용물달기의 시작은 현 집주인 김동석씨의 17대조인 정봉 김광헌이 현재 이곳에 와 살기 시작하면서부터로 추정되며, 강원도 민속지에 의하면 조선시대 이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해마다 용물 달기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가정마다 상수도가 생기면서 1960년대에 중단되었었으나 2006년부터 금산리 마을 주민들이 자신들의 문화유산을 되찾기 위해 옛날 방식대로 용물달기를 복원한 이후 현재까지 매년 정월대보름 전날 행해지고 있다. 용물달기에 쓰이는 용의 크기는 대략 1m 정도로 사람이 어깨에 메면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하고, 둘레는 30㎝ 정도이다. 용두는 크게 만들고 꼬리 쪽으로 갈수록 가늘어지게 만든다.
사회적기능	임경당 중심의 대보름 우물제사를 통해 풍농풍요를 기원하고, 마을의 안녕과 질서를 추구한다.
전승현황	임경당 우물의 용물달기는 조선 초기부터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계속되어 오다가 가정마다 상수도가 생기면서 1960년대에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2006년 정월대보름 전날인 2월 11일 금산 2리 노인회가 주관이 되어 재현하였으며 현재 보존회가 만들어져 해마다 대보름 전날 저녁에 행하며 전승되고 있다.

25. 한송정 들차회

구분	내용
명칭	한송정 들차회
영역	전통적 놀이 · 축제 및 기예 · 무예
소재지	강릉시 강동면 하시동리
전승자	
전승단체	강릉시 다도 모임 등
주요 내용	한송정 들차회는 매년 10월 중 한송정 터에서 개최되는 차회(茶會)를 말한다. 강릉지역에는 많은 단체의 다도모임이 있다. 강릉지역은 예로부터 차 문화가 매우 활발하였으며, 강릉사람들은 조상대대로 차 문화를 즐겨하여 오늘에 이르렀고, 그와 같은 것들은 한송정이라는 유적지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강릉의 한송정, 경포 등은 신라시대부터 화랑들의 심신단련을 위한 순례지였으며 차 유적지로 알려져 있다. 이 유적지가 현재 강릉공군부대 내에 소재하는 관계로 오늘날의 한송정 들차회는 매년 10월 중순경 군부대와 협조하여 날을 정하여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한송정 들차회는 강릉시립박물관이 후원하고 강릉 지역 차인(茶人)들의 모임인 동포다도회가 주관하여 1997년 5월 한송정 터에서 처음 열렸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회적기능	역사적 장소에서 강릉 지역의 차 문화를 널리 알리고 차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현대인들에게 여유와 멋을 심어주려는 데 행사의 의의가 있다.
전승현황	강릉 전역에서 연중 차 문화 동호회가 활동 중에 있다.

26. 정월대보름 강릉망월제

구분	내용
명칭	정월대보름 강릉망월제
영역	전통적 놀이 · 축제
소재지	강릉시 강남동
전승자	임영민속연구회
전승단체	임영민속연구회
주요 내용	망월제는 음력 정월 대보름날 달을 보면서 소망을 기원하는 세시 행사이다. 정월 대보름은 한민족이 지향하는 만월 축제로서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강릉에서는 남대천을 중심으로 어부식(魚鳧食)과 다리밟기가 행해지고, 경포대와 월대산의 달맞이와 망월점치기, 초당동과 송정동의 횃불싸움, 금산리 임경당의 용물달기, 강문동의 진또배기제 등 도처에서 민속행사가 진행되어 왔다. 축제로서의 정월대보름 강릉망월제는 음력 정월 대보름날 강릉시 남대천 둔치에서 달맞이, 제례, 민속놀이 등 다양한 대보름 행사를 시민과 함께 개최하는 행사이다. 여기서 사용되는 명칭인 '망월제(望月祭)'는 달맞이를 하면서 한 해의 소망을 비는 제사를 올린다는 복합어다. 역사적으로는 망월가, 망월굿, 망월점 등의 용어가 이미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망월제는 망월에 행하는 제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축제 정월대보름 강릉망월제 개최 계기는 도시화된 삶 속에서 잊혀져 가는 강릉의 전통 민속을 되살리고, 현존하는 습속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취지에서 1991년 민간단체인 임영민속연구회에서 처음 정월 대보름행사를 주최, 주관하였다.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지역 축제로 자리 잡았다. 망월제의 주요 콘텐츠로는 달맞이 제사를 비롯하여 농악대의 지신밟기, 어부식, 달집태우기, 망우리돌리기, 달집에 소원 글씨 붙이기, 용물달기, 연날리기, 윷놀이, 등 강릉지역의 세시풍속과, 강릉 관노 가면극 공연 등 다양한 지역문화행사가 진행된다. 정월 대보름날 오후부터 강릉시 남대천 둔치에는 달집이 만들어지고 제단이 꾸며지면 시민들은 강릉 관노가면극 공연도 보고 용물달기도 하면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바닷가에서 둥근 보름달이 뜨면 강릉 지역 기관장, 단체장, 회원들이 참여하는 기원제가 열리고 이어서 잊혀져 가는 다양한 민속 행사가 진행된다.
사회적기능	망월제를 통해 잊혀져가는 한민족 최대의 명절 축제인 정월 대보름날이 다시 부각되고 있고, 강릉지역 특유의 고유한 민속들이 재현 · 발굴되어 시민과 함께 전승되는 계기를 만들고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전통을 익히는 자리가 되고 있다. 특히 2018년 망월제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기간과 행사일정이 일치해 강릉 지방의 전통적인 세시 풍속과 겨울 축제의 면모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었다.
전승현황	2018년 현재 28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망월제는 그동안 시민 참여가 높아지면서 도심 속의 민속 축제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행사를 맞이하여 지속적인 강릉의 전통문화를 전승하는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 또한 강릉 망월제에는 해마다 수천 명이 몰려드는 민속 학습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현재 강릉 망월제는 강릉 도심 밖으로도 확대 개최되는 추세이다. 2017년 강릉 망월제 행사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을 맞이하여 문화 올림픽 추구의 일환으로 경포해변과 도심에서 진행되었다. 이외 주문진, 경포, 옥계 등 지역 내 다양한 지역에서 망월제가 매년 행해지고 있다.

27. 화전놀이/태장봉화전가

구분	내용
명칭	화전놀이/태장봉화전가
영역	전통적 놀이 · 축제
소재지	강릉시 대전동
전승자	
전승단체	강릉시 대전동 즈믄마을
주요 내용	화전놀이는 음력 3월 3일 삼짇날, 자연을 완상하며 즐기는 민속놀이. 이는 화전가 노래를 부르며 음식도 해먹는 야외놀이로, 봄에 핀 진달래꽃으로 유전병(油煎餠)을 만들어 먹게 되므로 화전놀이라 한다. 화전놀이는 꽃놀이라고도 하고 화류(花遊)라고도 하는데 비슷한 의미이다. 이외에 꽃다림, 꽃놀이, 답청절 등으로 부른다. 답청(踏靑)은 그 해 처음 돋은 풀을 밟는다는 뜻이 있고, 화류(花遊)는 꽃구경 유람이라는 뜻이다. 화전놀이와 연관하여 강릉 지역은 독창적인 행사가 있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강릉대도호부」 풍속조에 의하면 500년 전부터 강릉 지역에서는 해마다 봄철 좋은 날에 70세 이상의 노인들을 청해서 명승지로 모셔다가 위안잔치를 펼쳤는데 이를 '청춘경로회(靑春敬老會)'라 불렀다고 한다. 이것은 화전놀이와 같은 것으로 비록 노부의 천한 사람이라도 나이 70세 된 사람은 모두 모임에 오도록 하였다고 적었다. 이러한 화전놀이로는 태장봉 화전가가 대표적으로 전래되고 있다. 태장봉 화전가는 강릉시 대전동 즈믄마을의 태장봉에서 봄날에 화전놀이하는 것을 노래한 규방가사이다. 「태장봉 화전가」는 세 본(本)이 있는데, 이귀자(李貴子)가 지은 것과 운산댁(雲山宅)인 최 알비나(천주교 세례명)가 지은 것, 그리고 작자 미상의 짧은 규방 가사가 그것이다. 이귀자가 지은 규방 가사는 두루마리본이 아니고 한 권으로 제책(製冊)된 순 한글 필사본이다. 전(全) 242행, 484절, 3,748자나 되는 장편 꽃놀이 규방 가사인 태장봉 화전가는 다음과 같다. —가사— 이야우리 동무덜라 이ᄂᆡ말삼 드러보소 엄동설ᄒᆞᆫ 찬바람은 쑴결갇치 도라가고 먼산에 아지랑이 눈압페 암물암물 젹막공산 ᄯᅵ를맛나 금수강산 되엿구나 쌍거쌍ᄅᆡ 논닐적에 온갓자ᄐᆡ 자랑ᄒᆞᆫ다 사창안에 쑴을ᄭᆡ여 시절을 살펴보니 모춘삼월 호시졀이 어언간에 도라왓네 ᄭᅩᆺ은피여 화산되고 잎은피여 청산이라 운림비조 ᄭᅩᆺᄉᆡ덜은 롱춘화답 ᄶᅡᆨ을지어 뻑국뻑국 뻑국ᄉᆡ는 ᄶᅡᆨ을불너 울름울제 이산에 가도 뻑국뻑국 저산에가도 뻑국뻐국 황금갓튼 저ᄭᅬ골이 비단옷을 ᄯᆞᆯ처입고 옹옹명안 저기럭이 사람인가 ᄒᆡ열인가 작년왓던 제비덜은 옛쥬인을 차저와셔 나난ᄉᆡ도 절를찻고 기난김ᄉᆡ ᄯᅵ를차저 작작ᄒᆞᆫ 복상ᄭᅩᆺ은 곳곳마다 무릉이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봄소식을 ᄌᆡ촉ᄒᆞᆫ다 낭유간에 왕ᄅᆡᄒᆞ며 벗을불너 노ᄅᆡᄒᆞᆫ다 멀고먼 소상강에 ᄉᆡ기치러 가난구나

	방갑다고 인사ᄒᆞ고 ᄉᆡ기치러 왓구너라 물이물이 ᄶᅡᆨ을지어 곳곳마다 아락ᄒᆞᆫ다 공산야월 두견화난 금수강산 되엿구나 … 잘있거라 두견화야 나난간다 잘있거라 상ᄒᆞ동에 ᄀᆡ가짓고 아히덜은 마즁온다 손목잡고 인사할제 오날날 잘노럿소 히히락락 작별ᄒᆞ고 ᄃᆡ문안에 드러세니 이야우리 삽살ᄀᆡ야 일상버도 방가오냐 자미있게 노던동무 헤여지니 셥셥ᄒᆞ다 쑴이냐 ᄉᆡᆼ시냐 보던경치 눈에숨숨 명년삼월 ᄭᅩᆺ피거던 또다시 노라보자 석반을 먹고나셔 노던일을 ᄉᆡᆼ각ᄒᆞ니 히히락락 노던일이 일장춘몽 되엿구나 을미년 삼월십오일에 리귀자 지엿다
사회적기능	양성평등 실현의, 역사성으로서의 페미니즘을 확인하고, 지역공동체의 인류애 실현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귀자의 「화전가」에는 강릉 지방 화전장의 모습과 화전음식 등이 소개되어 있어 민속학적으로 주목된다.
전승현황	「화전가」를 지어 부르던 여성들의 화전놀이는 자취를 감추고, 요즈음 강릉 지방의 여성들은 계모임으로 봄나들이를 간다. 복원의 필요성이 매우 강하게 대두된다.

28. 고비 고사리꺾기 놀이

구분	내용
명칭	고비고사리꺾기놀이
영역	전통적 놀이 · 축제
소재지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전승자	–
전승단체	학산 오독떼기보존회
주요 내용	조선 후기부터 시작되어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鶴山里) 일대에서 열리는 민속놀이이다. 고비, 고사리를 꺾으며 노래를 하고 놀던 놀이에서 명칭이 유래되었다. 강릉의 '고비고사리꺾기노래'는 나무하던 초동(樵童)들이 부르던 동요로 학산리, 여찬리, 금광리 일대의 초동들이 불렀던 동요이다. 주로 놀이가 행해졌던 곳은 산에 있는 묘자리 공터이다. 아이들이 손에 손을 잡고 묘자리를 원형으로 돌면서 노는 놀이로서, 강강수월래가 여성들의 원무라면 이 고비고사리꺾기놀이는 초동의 원무놀이라 하겠다. 묘를 가운데에 두고 빙빙돌면서 친구간의 화합과 단결을 다지는 형태로 원형으로 돈다. 현지에서는 '고비고사리놀이'라고 한다. 이 놀이는 남도의 <강강술래>와 같이 원무(圓舞) 형태의 춤이라는 점이 주목되며, 그것도 나무하러 갔던 초동들이 묘 주위를 돌면서 놀이와 더불어 부르는 노래라는 점이 흥미롭다. 구정면 학산일대는 산간지방이어서 초동들이 놀 만한 장소가 그리 흔하지 않다. 초동들이 묘를 돌면서 부르는 노래 속에서 다분히 유가적 효심이 가득한 동심의 세계를 발견할 수 있다. 놀이 형태는 문열기, 문돌기, 술레잡기 등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놀이 형태로 놀았으며 묘 주변에서 딱딱이를 치며 목동들이 산간 장치기(얼레공치기) 경기도 하였다. 가사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신령산 고비 고사리 꺾으러 가세 그 고사리를 꺾어서 무엇을 하나 이 고사리를 꺾어서 우리 부모님께 꺾세 꺾세 신령산 고비 고사리 꺾으러 가세 그 고사리를 꺾어서 무엇을 하나 이 고사리를 꺾어서 명절 차사(茶祀)주 01)에 그 고사리를 꺾어서 무엇을 하나 이 고사리를 꺾어서 우리 친척에게 고사리에 정신팔려 해저문 줄 몰랐네 석양천이 되었으니 이젠 그만 집으러 가세 신령산 신령산 신령산 고비 고사리 꺾으러 가세 [후렴] 신령산 고비 고사리 꺾으러 가세 이 노래가사에서의 신령산은 대관령국사서낭신을 탄생시킨 학산 내지 대관령이라는 뜻이 된다. 대관령서낭신이 된 신라시대의 학산 출신 범일 국사(梵日國師)를 은연중 암유(暗喩)하고 있다. 놀이 형태는 문열기, 문돌기, 술레잡기 등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놀이 형태로 놀았으며 묘 주변에서 딱딱이를 치며 목동들이 산간 장치기(얼레공치기) 경기도 하였다. 1941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조선의 향토오락』에는 강원도 삼척과 횡성에서 부인들이 불렀던 민요로 '수양산 고비고사리꺾기'라는 가사가 있다.
사회적기능	강릉단오제 주신으로 좌정한 범일국사를 신령화 하여 부르는 노래로, 강릉지역 전통문화정체성으로서 기능을 지닌다.
전승현황	학산주민 및 학산 오독떼기보존회에서 전승

29. 청춘경로회

구분	내용
명칭	청춘경로회
영역	전통적 놀이 · 축제
소재지	강릉시
전승자	
전승단체	강릉문화원
주요 내용	청춘경로회는 강릉 지역의 어른을 공경하기 위해 좋은 계절(음력 3월)에 택일하여 강릉 지역의 70세 이상의 노인을 경치 좋은 곳으로 청하여 장수를 축하하여 경연을 베푸는 풍속이었다. 명칭의 유래는 판부사 조치가 '청춘경로회'라 명명한데서 비롯되었다. 판부사 조치가 공용(公用)에서 남은 쌀과 포목으로 기금을 만들고, 부지런하고 재치 있는 자제들 중에서 재물의 회계를 맡도록 했다는 것이다.
사회적기능	강릉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조선시대 경로사상의 대표적인 미풍양속으로, 반상의 차별이 없었던 것으로 사회통합적 기능과 강릉공동체가 지닌 평등사상을 확인하고 발전시키는 계기이다.
전승현황	기록상의 내용을 확인하여 2017년 강릉문화원이 시연하였다.

30. 소금강 청학제

구분	내용
명칭	소금강 청학제
영역	전통적 놀이 · 축제
소재지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전승자	
전승단체	청학제 추진위원회
주요 내용	소금강 청학제는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소금강(小金剛) 지역에서 매년 10월 둘째 주 주말에 개최되는 산촌마을 축제이다. 소금강은 황병산을 주봉으로 우측의 노인봉, 좌측의 매봉이 학이 날개를 편 듯한 형상이라 하여 청학산이라고도 불린다. 이 지명에서 '소금강 청학제'라는 명칭이 유래하였다. 예부터 태백산맥에서 동해로 흐르는 계곡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진 청학산에서는 산신제를 지내왔는데, 1975년 오대산국립공원으로 지정되고 명승 제1호인 소금강 청학동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고장의 발전과 지역민의 단결을 목적으로 '소금강 청학제'라는 이름으로 지역 축제를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소금강 청학제의 축문을 살펴보면 행사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청학소금강 토지신, 산악신, 용왕신께 엎드려 비옵니다. 하늘과 땅에 스며있는 명경의 이름을 알린지 이제 여러 해가 지나 오래되었사오며 동산 각지가 화합하고 즐거우며 각 산악의 이름이 길하옵길 우리 백성들은 신께 받들어 비옵니다. 구룡폭 용왕이시어 우리 백성들이 정성을 다하오니 경향 각지의 차량과 사계절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불상사를 제어하시어 용왕신의 사하지 않으심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여 제물은 변변치 못하나 정성껏 올리나니 우리의 정성이 하늘에 닿아서 토지신, 산악신, 용왕신께서 헤아리오니 오늘 이 같은 일에 이르러 우리가 어찌 공경치 않을 수 있겠사옵니까? 엎드려 비옵건데 부족한 성의 옵니다만,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세부행사내용으로는 청학제례, 등산대회, 소금강 자연정화 활동, 소금강의 역사 문화와 자연유산 알리기 등이 펼쳐진다. 청학제례는 토지신, 산악신, 용왕신을 모시고 풍년 풍어와 주민의 안녕, 국내외 관광객의 무사여행을 기원하는 제사이다. 제사를 올리고 농악놀이를 비롯한 민속문화예술경연대회 등이 지역민과 내방객이 한마음이 되어 흥겹게 축제를 즐긴다.
사회적기능	공동체 통합적 기능과 안전의 유지
전승현황	1975년 소금강 일대가 오대산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1976년부터 소금강번영회에서 주관하여 축제를 개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1년부터 소금강청학제추진위원회가 구성 · 주관하면서 면 단위 행사로 규모가 확대되었다.

31. 구산영신횃불놀이

구분	내용
명칭	구산영신횃불놀이
영역	전통적 놀이 · 축제
소재지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전승자	
전승단체	구산영신횃불놀이보존회
주요 내용	영신횃불놀이는 「산유가」라는 영신가와 함께 신맞이 의식으로 불의 발양력에 의존하여 길상을 추구하며 불꽃의 제전으로 신을 영화롭게 하는 놀이다. 이는 강원도 강릉 지역에서 매년 음력 4월 15일 대관령국사성황신을 모셔올 때 구산지역에서 횃불로 신맞이를 하는 놀이와 의식이다. 연원을 보면, 강릉단오제 행사기간인 음력 4월 15일 대관령에 있는 국사성황신을 강릉으로 모셔오는 영신제를 지낸다. 『증수임영지(增修臨瀛誌)』 기록에 의하면 신목을 베어 모신 대관령국사성황신의 행차가 제민원성황당, 굴면이성황당을 지나 대관령 아흔아홉 구비를 내려오면 저녁 무렵에 강릉 청년들이 횃불을 들고 구산성황당에서부터 「산유가」라는 영신가를 부르며 신맞이를 했다고 한다. 이러한 영신횃불놀이에서는 거화희(炬火戱)로서 소나무 광솔이나 싸리나무로 길게 횃대를 만들었다. 모든 제의와 놀이가 끝나면 일행은 신목을 앞세우고 시내로 향하는데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주민들과 강릉에서 미중 나온 횃불꾼 수백 명이 소나무로 홰를 만들어 들고 대관령국사성황신 일행의 길을 밝힌다. 이같이 하면 일 년 동안 제액을 없애고 평안하다고 전해 내려온다. 강릉에는 예로부터 집안에서 한 명씩 횃불을 들고 참여했는데 강릉 시내인 홍제동 근처까지 내려와 횃불싸움을 했다고 한다. 대관령국사성황신에게 소원을 비는 사람들은 제상에 음식을 차려서 대관령국사성황신이 강릉 시내를 행차할 때 이 상을 바치고 광목을 신목에다 걸기도 한다. 조선시대 후기까지는 대관령 아흔아홉 구비를 내려와 구산부터 강릉 시내까지 신맞이를 한 다음 홍제동 근처 신북에서 군수와 좌수로 편을 갈라 횃불 편싸움을 했다고 한다. 횃불싸움에서 이긴 마을은 그해 풍년이 든다 하여 함껏 상대방을 밀어내고 돌을 던지는데 이 와중에 다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때에도 횃불싸움을 했으나 1920년 경 일제가 중단시켜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대관령에서 대관령국사성황신을 영신할 때 횃불과 함께 창포 등을 만들어서 들고 신목을 옹호하면서 내려와 남대천 가설 제단에 봉안한다.
사회적기능	지역문화정체성 형성과 유지, 지역문화의 전승, 공동체 통합
전승현황	구산영신횃불놀이 보존회가 결성되어 강원도 민속경연대회에 출품된 바 있다.

32. 향음주례

구분	내용
명칭	향음주례
영역	전통적 놀이 · 축제
소재지	강릉시
전승자	
전승단체	
주요 내용	향촌의 유지와 유생들이 향교나 서원에 모여서 예로써 주연을 함께 즐기는 향촌의례이며, 강릉향교와 지역 내 서원 현황을 보면 강릉지역에서도 이러한 풍속이 행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향음주례는 어른에게 음식을 공양하는 예의절차를 밝히면서 술을 마시는 것이다. 향음주례는 매년 10월 한성부와 모든 도 · 주 · 부 · 군 · 현에서 좋은 날을 택해 학당(學堂)에서 행하였다. 주인은 해당 관청이 되고 빈객은 나이가 많고 덕이 있는 사람과 효행자를 선정하였으며, 학당에 술상을 마련하고 서민까지도 자리를 달리해 참석시켰다. 이 자리에서 주인과 빈객 사이에 절도 있게 술잔을 돌리며 연장자를 존중하고 유덕자를 높이며 예법과 겸양의 풍속을 일으키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연이 끝나면 사회자가 손님과 주인 및 서민까지 한자리에 앉은 가운데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화목하며, 이웃과 잘 어울리기를 권장하는 글을 읽었다. 결국 향음주례는 수령이 앞장서서 마을에서 유덕자를 골라 베푸는 주연이며, 음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효제목린(孝悌睦隣)을 권장하는 주례(酒禮)를 통한 훈련이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향음주례를 실시했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1136년(인조 14)에 과거제도를 정비하면서 여러 주(州)의 공사(貢士)를 중앙으로 보낼 때 향음주례를 행하도록 규정한 일이 있다. 조선시대의 향음주례는 제도적으로 명나라 제도를 따랐는데, 세종이 집현전에 상정(詳定)하도록 명해 1474년(성종 5)에 편찬을 완성했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와 더불어 일반화되었다. 『주례』에 의하면 향음주례는 네 가지가 있었다. 첫째 향대부(鄕大夫)가 3년마다 지방의 어진 자와 능력있는 자를 손님으로 맞이하여 베푸는 것, 둘째 향대부가 나라 안의 어진 이들을 대접하는 것, 셋째 주장이 활쏘기를 익히면서 술을 마시는 것, 넷째 당정(黨正)이 사제(蜡祭)를 행하면서 술을 마시는 것이었다. 이 가운데 주로 둘째의 경우가 행해졌다. 『세종실록(世宗實錄)』「오례」에 수록되어 있는 향음주례의 내용도 이에 제일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조선후기의 향음주례는 간혹 지방관이 주도하는 행사로 거행되었고, 의례 절차와 규모는 장소와 때에 따라 부분적으로 보태지거나 고쳐지기도 하였다.
사회적기능	공동체 질서확립과 통합적 의미
전승현황	–

관련 자료

2. 강릉농악

강릉시사편찬위원회,『강릉시사』, 강릉시, 1996.
국립문화재연구소,『강릉농악』, 신유문화사, 1997.
국립민속박물관,『한국세시풍속사전(春)』, 2005.
김선풍 · 장정룡 · 김경남,『평창둔전평농악』, 둔전평농악보존회, 2008.
文化財管理局,『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江原道 篇, 1977.
_____,『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농악, 풍어제, 민요편, 1982.
박종성,『조선민속무용』, 문예출판사, 1991.
이보형,『강원의 전통민속예술』, 강원도, 1994.
장사훈,『우리 옛 악기』, 대원사, 1990.
장정룡,『강릉농악의 무형문화재적 가치와 연구사적 검토』, 강릉KBS, 2011.
장정룡,『중요무형문화재강릉농악의 정책적인 발전방안』, 강릉농악보존회, 2011.
전인평,『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음악』, 현암사, 2011.
정병호,『農樂』, 열화당, 1986.
_____,『한국의 민속춤』, 삼성출판사, 1992.

4. 강릉 사천 하평 답교놀이

『경도잡지』
『동국문헌비고』
『동국세시기』
『동국여지승람』
『성호사설』
『열양세시기』
국립문화재연구소,『강릉농악』, 1997
김기설,『강릉지역의 지명유래』, 인애사, 1998.
김선풍 외,『민속놀이론』, 집문당, 1996.
문화재관리국,『한국의 풍속』, 1970.
임동권,『한국의세시풍속연구』, 집문당, 1985.
장정룡,『한 · 중 세시가요 연구』, 집문당, 1988.
장정룡 · 김경남,『강릉시 사천면 하평마을민속지』, 강릉문화원, 2001.
장주근,『한국의 세시풍속』, 형설출판사, 1984.
최남선,『조선상식문답』, 동명사, 1947.
최상수,『한국의 민속놀이 연구』, 성문각, 1985.

5. 방짜수저장

강원도,『강원문화재대관』도지정편, 2008.
김우찬,『방짜수저 전승발표전시』행사안내 및 도록 각 년도.
동아시아문화도시조직위원회,『젓가락특별전』도록, 2015.12.17.
서울시립 남서울생활미술관,『별별수저』도록, 2016.3.

수협중앙회, 『우리바다』 2016년 1+2월호.
정의도, 「청동숟가락의 등장과 확산(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 『석당논집』 42집.
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영우, 『다시 찾는 우리역사』, 경세원, 2015.

7. 불교목조각장

박병호, 「국내산 목재의 공예적 가치평가」, 강원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박찬수 · 윤열수, 『불교목공예』, 대원사, 2002.
이필우, 『한국산 목재의 성질과 용도』,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최성은, 『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 일조각, 2013.

12. 초당두부

[자료를 제공해주신 분들]
권영애(여, 83세, 고부순두부) 2018년 8월 22일, 강릉아산병원 83병동 2호
김순자(여, 81세) 2018년 8월 17일, 초당경로당, 집에서 두부 만들어서 팔았던 할머니
김복자(여, 80세) 2018년 8월 17일, 초당경로당, 집에서 두부 만들어서 팔았던 할머니
김남수(남, 80세, 초당노인회 회장) 2018년 8월 17일, 초당경로당, 초당마을과 전쟁이후 두부 만든 내력
곽기섭(남, 88세, 토담순두부 부친) 2018년 8월 17일, 초당자택, 초당과 초당두부의 전체적 역사
김규태(남, 48세, 토박이할머니 순두부, 초당두부보존회 총무) : 2018년 8월 21일, 토박이할머니순두부, 최근 20여 년간 초당두부식당의 개관
김영미(여, 58세, 고부순두부) 2018년 8월 20일, 고부순두부
안송자(여, 67세, 동화가든 창업자) 2018년 8월 21일, 동화가든
우승원(남, 53세. 동화가든 사장, 전 초당두부보존회 회장) 2018년 8월 21일, 동화가든
김영환(남, 65세, 초당할머니순두부 사장) 2018년 8월 1일, 초당할머니순두부 식당
곽종욱(남, 31세, 고부순두부) 2018년 10월 16일, 고부순두부
김경숙(남, 강릉시농업기술센터) 2018년 8월 29일, 강릉시 농업기술센터

지역 무형문화유산 목록 05

강릉의 무형문화유산

초판1쇄 인쇄 2018년 12월 1일
초판1쇄 발행 2018년 12월 15일

기 획 김동하(무형유산진흥과 과장)
원 고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장정룡 · 황루시 · 김경남 · 김남일 · 이익섭 · 박병호 · 김용문 · 정항교
자료제공 강릉시청
편 집 임승범 · 박서영(무형유산진흥과) · 김은정(강릉원주대학교)
사 진 주병수

발 행 국립무형유산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TEL 063-280-1523
http://www.nihc.go.kr

제 작 민속원(TEL 02-806-3320)

발간등록번호
11-1550246-000069-01

ISBN
978-89-299-1385-4 93600

저작권자ⓒ 2018 국립무형유산원

이 책의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내용의 일부나 전부를 인용, 발췌하는 것을 금합니다.
COPYRIGHTⓒ 2018 by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All rights reserved including the rights of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 in any form

Printed in KOREA

PAPER	**표 지** _ 240g 랑데부 **면 지** _ 120g 매직칼라 **내 지** _ 90g 하이플러스	COLOR	**표 지** _ **4원색** **에폭시** **내 지** _ K 100%

※ 이 책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이용 허락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비매품
93600
9 788929 913854
ISBN 978-89-299-1385-4

지역 무형문화유산 목록



지역 무형문화유산 목록 **01**
진주의 무형문화유산



지역 무형문화유산 목록 **02**
당진의 무형문화유산



지역 무형문화유산 목록 **03**
남원의 무형문화유산



지역 무형문화유산 목록 **04**
전주의 무형문화유산